연구보고 19-R02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Ⅳ

책임연구원 **김형주**
공동연구원 **연보라 유설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연구보고 19-R02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Ⅳ

책임연구원_ 김형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_ 연보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유설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전문연구원)
연구보조원_ 배진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사업운영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Abstract

국문초록

본 연구는 연차별 정책연구로서 공통된 기본 연구목적(김형주, 임지연, 유설희, 2018)으로서 우리 사회 청년의 일과 삶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지표를 조사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방향과 과제를 도출하는 데에 있다. 그리고 금년도 부가조사는 청년들의 사회적 참여와 정치적 참여 실태를 심층면담을 통해 파악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2019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 핵심지표의 대분류는 기존 연차별 연구의 핵심지표의 틀을 유지하여 인구와 가족, 교육과 훈련, 경제와 고용, 주거, 건강, 문화와 가치관, 관계와 참여 등 7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고(김형주 외, 2018), 본조사 결과와 더불어 기공개된 통계데이터에 대한 2차 자료 분석을 통해 핵심지표별 실태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금년도 부가조사로서 청년의 사회적·정치적 참여에 대해 심층면담조사를 통해 그 실태와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데이터를 다양한 청년 문제와 현안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기 위해 통계청 승인을 받은 2018년도 공개데이터에 대한 심층분석을 추진하였다. 전년도 청년 사회·경제 실태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청년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청년의 사회참여에 관한 연구, 청년 세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라는 3가지 주제를 분석하여 실태조사 통계자료의 학술적·정책적 활용도를 함께 제고하였다.

금년도 청년의 사회적·경제적 실태를 토대로 ‘청년과 함께 하는 미래 한국’이란 비전 하에 다음과 같이 5개 분야 16개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인구·가족 및 교육 분야에서 혼인율 제고를 위한 주거 및 금융 지원,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한국 청년행복지표 조사 시행, 졸업유예가 필요없는 사회연계형 대학취업지원체계 강화, 산학연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도입 및 확대, 둘째, 경제·고용 및 주거 분야에서 고용 위기 해소정책의 우선순위 조정, 이직 및 전직 지원체계 강화,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의 수혜 확대 및 평가, 청년을 위한 주거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셋째, 건강 및 문화, 가치관 분야에서 청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심리치료 및 심리정서지원 강화, 청년 건강검진 수검률 확대, 청년 문화·여가 취약 지역 인프라 구축,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문화 및 여가활동 지원 확대, 넷째, 관계와 참여 분야에서 청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청년의 정치·사회문제 관심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다섯째, 법·제도 기반 분야에서 청년정책의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기본법 제정, 청년정책 성과분석을 위한 평가센터 구축 등이다.

한국의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는 미래세대에 대한 관심이자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논의 주제이기도 하다. 최근 우리 사회의 미래 전망을 다루는 이슈인 출산율과 인구 감소의 문제는 바로 현재의 청년 문제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청년에 대한 인구와 가족, 교육과 훈련, 경제와 고용, 주거, 건강, 문화와 가치관, 관계와 참여 실태는 청년의 문제이자 우리 사회의 미래 과제라는 관점으로 청년 문제와 청년정책을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제어 : 청년, 핵심지표, 사회·경제 실태조사, 사회적·정치적 참여, 청년정책

연구요약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연차별 연구의 4년차 연구로서 각 년도별 기본적인 연구목적은 동일하며, 금년도 연구 목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19년 한국 청년들의 생활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지표를 중심으로 취업과 경제생활, 삶에 대한 만족과 행복, 그리고 교육, 가치관, 신체 및 정신건강, 주거, 결혼, 양육, 출산, 문화생활 등 청년의 삶을 둘러싼 사회·경제 전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제시하고, 청년들의 사회적·정치적 참여에 대해서 면담조사를 통해 심층적인 실태를 파악하고자 함
- 전년도 공개데이터를 활용하여 청년 분야의 현안이 되는 주제를 설정하여 이에 대한 심층분석을 하고자 함
- 청년의 사회·경제 실태와 다양한 사회·경제적인 변화 요인들을 토대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청년 정책비전과 세부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2. 연구방법

- 청년개념 및 정책동향에 대한 문헌연구로서 정책대상인 청년 연령에 대한 논의, 여러 기관들에서 시행된 청년 관련 조사연구의 현황, 청년 관련 법제도 추진동향, 해외의 청년정책 사례 등을 고찰하였음. 또한 금년도 부가조사로 시행한 청년의 사회적·정치적 참여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음
- 전문가 자문회의를 운영하여 금년도 청년 핵심지표에 대한 검토, 설문조사항목에 대한 수정·보완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추진하였음

- 4차년도 조사연구로서 금년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는 전국의 만 15세~39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가구단위 개별방문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를 실시하였으며, 금년도 조사는 작년보다 표본수를 500명 확대하여 목표표본수 3,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 기공개된 통계데이터에 대한 2차 자료 분석으로서 청년 핵심지표는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2차 통계자료의 분석으로 파악되는데, 통계청이나 여러 부처나 기관에서 발표하는 통계자료를 수립하여 2차 자료분석을 통해 연차별 통계자료를 최신화하였음
- 부가조사로서 심층면담조사를 통한 질적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얻는 표면적 실태뿐만 아니라 조사주제의 심층적 분석을 위한 것임. 청년 집단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년도는 청년의 사회·정치 참여 주제에 대해 그 심층적 실태와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연구방향, 정부의 청년정책 현안, 정책과제 등에 관한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운영하였는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정책담당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본 정책연구의 정책적 활용가능성을 제고하였음

3. 주요결과

1) 청년정책 및 법제도 동향

- 정책대상인 청년에 대한 논의, 청년실태에 대한 타기관의 조사연구 현황,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및 사업 추진동향, 국회 및 지방의회의 청년관련 법률안 및 조례안 입안 혹은 제정 현황을 고찰하였음
- 오스트리아, 스웨덴, 노르웨이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해외 청년정책의 추진동향을 살펴보고 우리 청년문제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음

2) 2019년 한국 청년의 사회·경제 실태

- 15~29세 청년층은 2018년 대비 14만여명이 감소하여 저출산 심화로 인한 인구 감소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녀 합계 혼인건수는 2000년 약 43만 5천건에서 2018년 약 16만 9천건으로 절반 이상 크게 감소하였음. 고등학교에서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률은 2011년 이래로 꾸준히 감소해 2016년 이후에는 60%대의 진학률을 보이고 있고, 평생학습 형식교육 참여율은 25세 이상 34세 이하의 결과를 활용하여 살펴보면 2017년 5.6%에서 2018년 8.5%로 증가하였음
- 청년고용법상 청년(15~29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2013년 42.9%로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2018년 현재 47.1%로 나타났으며, 가구주 기준 청년의 월임금 총액은 전체 기준 2018년 약 303만원으로 2017년 290만원에서 약 10만원 상승하였음. 청년층 주거형태를 살펴보면 15~29세 청년의 경우 전체 기준으로 볼 때 '자가'와 '전세' 응답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의 거주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30대 연령층을 포함한 15~39세 청년층에서도 주거형태간 격차는 다소 줄어들었으나 이러한 경향이 계속되어 청년층의 주거 환경이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청년들의 정기적인 운동습관으로서 걷기 실천율은 2017년 기준 38.6%로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컸으며, 청년들의 병원 이용 추이는 2017년 기준 28.8%로 최근 3년간 소폭 하락하고 있는 추세임. 청년들의 문화 및 여가 생활시간은 2018년 기준 평일(3.3시간), 휴일(5.3시간) 모두 2016년 대비 증가하였고, 주관적 계층의식에 있어서 청년층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중간 계층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음

3) 청년의 사회·정치 참여 실태

- 청년들의 단체활동 참여 비율을 확인한 결과, 2017년 기준 10대(13~19세) 33.5%, 20대 41.9%, 30대 48.1%의 단체 참여율을 보여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단체 참여율도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음
- 청년들의 사회적·정치적 참여 실태에 대한 심층면접조사에서는 청년들의 대다수는 '비참여' 집단에 속하였고, 다음으로 '개인적 참여' 집단의 비율이 높았는데, '소극적 참여'와 '적극적 참여' 집단은 매우 일부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청년들의 3/4 이상은 정치·사회 문제에 침묵하거나 비참여하는 경향이 많았고, 공개적인 의견 표명은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청년들이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문제로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내고, 청년들의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 교육의 활성화 및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4) 전년도 공개데이터에 대한 심층분석(별도 보고서)

- 청년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 및 사회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 청년의 사회참여에 관하여 세대간 비교로서 에코세대와 Z세대를 비교하여 분석하였음
- 청년 세대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음

4. 정책제언

- ‘청년과 함께 하는 미래 한국’이란 비전 하에 5개 분야 16개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정책제언을 제시하였음
- 인구·가족 및 교육 분야에서 혼인율 제고를 위한 주거 및 금융 지원,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한국 청년행복지표 조사 시행, 졸업유예가 필요없는 사회연계형 대학취업지원체계 강화, 산학연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도입 및 확대 등을 제안하였음
- 경제·고용 및 주거 분야에서 고용위기 해소정책의 우선순위 조정, 이직 및 전직 지원체계 강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수혜 확대 및 평가 시행, 청년을 위한 주거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등을 제안하였음
- 건강 및 문화, 가치관 분야에서 청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심리치료 및 심리정서지원 강화, 청년 건강검진 수검률 확대, 청년 문화·여가 취약 지역 인프라 구축,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문화 및 여가활동 지원 확대 등을 제안하였음
- 관계와 참여 분야에서 청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청년의 정치·사회문제 관심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를 제안하였음
- 법·제도 기반 분야에서 청년정책의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기본법 제정, 청년정책 성과분석을 위한 평가센터 구축 등을 제안하였음

차 례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Ⅳ

연구보고 19-R02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차별 연구추진계획 ····· 7
3. 연구내용 ····· 9
4. 연구방법 ····· 11

Ⅱ. 국내외 청년 정책·사업 및 법률 현황

1. 정책대상인 청년에 대한 논의 ····· 15
2. 청년실태 조사연구 현황 ····· 20
3. 청년정책 및 사업 추진 동향 ····· 26
4. 청년관련 법률 현황 ····· 50
5. 해외 청년정책 추진 동향 및 시사점 ····· 56

Ⅲ. 2019년 한국 청년의 사회·경제 실태

1. 청년 사회·경제 실태 핵심지표 ····· 81
2. 조사 개요 ····· 90
3. 2019년 핵심지표별 한국 청년의 사회·경제 실태 ····· 95

Ⅳ. 청년 참여 실태 분석

1. 청년 참여 개념 및 현황 ····· 335
2. 청년 참여에 대한 실태 분석 ····· 345
3. 요약 및 시사점 ····· 452

Ⅴ. 정책 제언 및 결론

1. 정책 비전 및 분야 ····· 463
2. 정책 제언 ····· 464
3. 결론 ····· 496

참고문헌 ····· 501

부 록

1. 2019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조사항목 ····· 517
2. 2019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조사표_청년용 ···· 522
3. 2019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조사표
_중/고등학생용 ····· 555
4. 심층면담조사지 : 청년의 사회·정치 참여 ····· 572

ABSTRACT ····· 579

표 목차

표 Ⅰ-1 청년 사회·경제실태 지표체계 ····· 10
표 Ⅱ-1 현행 청년관련 법령상 청년의 범위 ····· 17
표 Ⅱ-2 청년관련 지방자치단체(광역) 청년기본조례상 청년의 범위 ··· 19
표 Ⅱ-3 청년 일자리부문 정책 및 사업 추진 내용 ····· 29
표 Ⅱ-4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의 일자리 부문 주요 과제 ····· 32
표 Ⅱ-5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의 주거 부문 주요 과제 ····· 35
표 Ⅱ-6 육아휴직급여 인상 및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강화 ····· 37
표 Ⅱ-7 세종특별자치시의 '청년정책 기본계획(2019~2023년)' ····· 38
표 Ⅱ-8 경상남도의 '2019~2023 경상남도 청년정책기본계획' ····· 41
표 Ⅱ-9 부산광역시의 청년정책 세부 내용 ····· 44
표 Ⅱ-10 제20대 국회의 청년기본법안 입법 발의 현황 ····· 51
표 Ⅱ-11 지방자치단체 청년기본조례 현황 ····· 53
표 Ⅱ-12 오스트리아의 국가 청소년 전략(2013~2020년) ····· 58
표 Ⅱ-13 오스트리아의 주별 직업훈련 프로그램 ····· 64
표 Ⅱ-14 스웨덴 청년의 삶과 관련된 영역별 주요 이슈 ····· 70
표 Ⅲ-1 2017~2019년도 청년 사회·경제 핵심지표 체계 ····· 82
표 Ⅲ-2 청년 사회·경제실태 '인구와 가족' 관련 핵심지표 체계 ····· 83
표 Ⅲ-3 청년 사회·경제실태 '교육과 훈련' 관련 핵심지표 체계 ····· 84
표 Ⅲ-4 청년 사회·경제실태 '경제와 고용' 관련 지표체계 ····· 85
표 Ⅲ-5 청년 사회·경제실태 '주거' 관련 지표체계 ····· 86
표 Ⅲ-6 청년 사회·경제실태 '건강' 관련 지표체계 ····· 87
표 Ⅲ-7 청년 사회·경제실태 '문화와 가치관' 관련 지표체계 ····· 88
표 Ⅲ-8 청년 사회·경제실태 '관계와 참여' 관련 지표체계 ····· 89
표 Ⅲ-9 연도별 청년층 인구수 추이 ····· 96
표 Ⅲ-10 연도별 전체인구 대비 청년층 구성비 추이 ····· 98
표 Ⅲ-11 연도별 체류외국인 수 추이 ····· 100
표 Ⅲ-12 연도별 등록외국인 수 추이 ····· 101

표 Ⅲ-13 연도별 단기체류외국인 수 추이 ····· 102
표 Ⅲ-14 연도별 결혼이민자 외국인 수 추이 ····· 103
표 Ⅲ-15 연도별 청년층 인구 전망 추이 ····· 105
표 Ⅲ-16 연도별 청년 연령규정 추이 ····· 106
표 Ⅲ-17 연도별 독립 의향 및 적정 독립 시기 ····· 108
표 Ⅲ-18 연도별 결혼 의향 및 적정 결혼 시기 ····· 110
표 Ⅲ-19 연도별 출산 의향 및 적정 출산 시기 ····· 112
표 Ⅲ-20 연도별 해외이주 의사 ····· 114
표 Ⅲ-21 연도별 해외이주 고려 이유 ····· 115
표 Ⅲ-22 청년층 혼인건수 및 혼인율 추이 ····· 117
표 Ⅲ-23 연도별 성별 초혼 연령 추이 ····· 119
표 Ⅲ-24 연도별 결혼준비 경험 추이 ····· 120
표 Ⅲ-25 연도별 결혼 망설임 여부 추이 ····· 121
표 Ⅲ-26 연도별 모 연령별 출생아 수 및 출산율 추이 ····· 123
표 Ⅲ-27 연도별 모의 평균 출산 연령 추이 ····· 124
표 Ⅲ-28 연도별 맞벌이 여부 ····· 125
표 Ⅲ-29 연도별 자녀 유무 ····· 126
표 Ⅲ-30 연도별 자녀를 가질 계획 ····· 127
표 Ⅲ-31 연도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추이 ····· 129
표 Ⅲ-32 연도별 대학등록금 추이 ····· 131
표 Ⅲ-33 연도별 대학등록금 대출자 비율 추이 ····· 132
표 Ⅲ-34 연도별 재학생 1인당 장학금 추이 ····· 134
표 Ⅲ-35 연도별 학제별 대학졸업 소요기간 추이 ····· 136
표 Ⅲ-36 연도별 대졸자 휴학 현황 추이 ····· 138
표 Ⅲ-37 연도별 대학생 학업중단율 추이 ····· 140
표 Ⅲ-38 연도별 졸업 유예 경험 및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 추이 ····· 142
표 Ⅲ-39 졸업 유예 및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 이유(2019년) ·· 144
표 Ⅲ-40 연도별 전공과 직업 일치도 추이 ····· 146
표 Ⅲ-41 연도별 추후 대학 진학 의사 추이 ····· 147
표 Ⅲ-42 대학 미진학 사유(2019년) ····· 149
표 Ⅲ-43 연도별 우리사회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 151
표 Ⅲ-44 연도별 우리사회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2) 한국사회에서 교육을 어디까지 받았는지(학력)는 중요하다 ····· 152

표 Ⅲ-45 연도별 우리사회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3) 한국사회에서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학벌)는 중요하다 ····· 153
표 Ⅲ-46 연도별 대학교육(고교교육) 만족도_1) 나는 대학교육(고교교육)에 만족한다 ····· 154
표 Ⅲ-47 연도별 대학교육(고교교육) 만족도_2) 나는 대학교육이 앞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155
표 Ⅲ-48 연도별 대학교육(고교교육) 만족도_3) 나는 대학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156
표 Ⅲ-49 연도별 대학교육(고교교육) 만족도_4) 나는 내가 선택한 대학에서의 학과(전공)이 나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 157
표 Ⅲ-50 연도별 평생학습 형식교육 참여율 변화 추이 ····· 159
표 Ⅲ-51 연도별 평생학습 비형식교육 참여율 변화 추이 ····· 161
표 Ⅲ-52 연도별 평생학습 직업관련 비형식교육 참여율 변화 추이 ·· 163
표 Ⅲ-53 연도별 직업교육 훈련 참여율 변화 추이 ····· 165
표 Ⅲ-54 연도별 현재 취업 준비 여부 추이 ····· 166
표 Ⅲ-55 연도별 고시생 및 공시생 현황 추이 ····· 167
표 Ⅲ-56 연도별 경제활동 참여율 추이 ····· 169
표 Ⅲ-57 연도별 고용률 추이 ····· 171
표 Ⅲ-58 연도별 실업률 추이 ····· 173
표 Ⅲ-59 연도별 전산업 기준 신설법인 수 및 비율 추이 ····· 175
표 Ⅲ-60 연도별 청년 기업 고용주(대표)의 활동기업, 신생기업, 소멸기업 수 및 비율 추이 ····· 177
표 Ⅲ-61 연도별 니트(NEET) 비율 추이(OECD 기준) ····· 179
표 Ⅲ-62 연도별 비정규직 비율 추이 ····· 180
표 Ⅲ-63 연도별 대졸 신입사원 경쟁률 추이 ····· 181
표 Ⅲ-64 연도별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 ····· 183
표 Ⅲ-65 연령별 중소기업 취업 의향 ····· 184
표 Ⅲ-66 연도별 중소기업 비취업 이유 ····· 185
표 Ⅲ-67 연도별 창업 경험 ····· 186
표 Ⅲ-68 연도별 창업 의사 ····· 187
표 Ⅲ-69 연도별 직장에서 본인 조건에 맞는 대우 여부 ····· 189
표 Ⅲ-70 연도별 이직 의향 및 이유 ····· 191
표 Ⅲ-71 연도별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_1) 우리사회는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자에게 적절하게 대우하고 있다 ····· 193

표 Ⅲ-72 연도별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_2) 기성세대는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정착을 위해 적절한 배려를 하고 있다 ····· 194
표 Ⅲ-73 연도별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_3)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는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195
표 Ⅲ-74 연도별 월임금총액 추이 ····· 196
표 Ⅲ-75 연도별 청년 소비 추이 ····· 198
표 Ⅲ-76 연도별 장년 대비 청년 상대임금 추이 ····· 200
표 Ⅲ-77 연도별 청년층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상대임금 추이 ····· 202
표 Ⅲ-78 연도별 청년 가구주 부채 추이 ····· 204
표 Ⅲ-79 연도별 적정 최저 임금 추이 ····· 206
표 Ⅲ-80 연도별 한 달 생활비와 생활비 지원받는 비율 추이 ····· 207
표 Ⅲ-81 연도별 채무 여부 ····· 208
표 Ⅲ-82 돈이 없어서 임대료, 대출금, 관리비 등 주거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 210
표 Ⅲ-83 돈이 없어서 집의 냉/난방을 유지하지 못했다 ····· 211
표 Ⅲ-84 돈이 없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 212
표 Ⅲ-85 돈이 없어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못했다 ····· 213
표 Ⅲ-86 돈이 없어서 휴일에 놀러가지 못하거나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했다 ····· 214
표 Ⅲ-87 TV를 가지고 있지 않다 ····· 215
표 Ⅲ-88 냉장고를 가지고 있지 않다 ····· 216
표 Ⅲ-89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 ····· 217
표 Ⅲ-90 타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집전화, 휴대전화)을 가지고 있지 않다 ····· 218
표 Ⅲ-91 연도별 청년층(가구주)의 연령별 주택 점유형태 ····· 220
표 Ⅲ-92 연도별 청년층(가구주)의 실주거비 ····· 222
표 Ⅲ-93 연도별 청년층(일반가구 가구주)의 가구 비율 추이 ····· 224
표 Ⅲ-94 연도별 청년층(일반가구 가구주)의 1인 가구 비율 추이 ··· 226
표 Ⅲ-95 연도별 부모 동거 여부 ····· 227
표 Ⅲ-96 연도별 미혼 혼자 거주 여부 ····· 228
표 Ⅲ-97 연도별 현재 주거 형태 ····· 229

표 Ⅲ-98 연도별 청년층(일반가구 가구주)의 주택 외 거주규모 비율 추이 ····· 231
표 Ⅲ-99 연도별 가처분소득 대비 가구부채 비율 추이 ····· 233
표 Ⅲ-100 연도별 기숙사 수용률 추이 ····· 235
표 Ⅲ-101 연도별 주거 마련 시기 의견 추이 ····· 237
표 Ⅲ-102 연도별 공동주거 경험 ····· 238
표 Ⅲ-103 연도별 공동주거 의향 ····· 239
표 Ⅲ-104 연도별 평소 주거 생각_1) 내 명의의 집은 꼭 있어야 한다 ····· 240
표 Ⅲ-105 연도별 평소 주거 생각_2) 지금의 집 값 수준은 적정하다 ····· 241
표 Ⅲ-106 연도별 평소 주거 생각_3) 부모님 도움 없이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242
표 Ⅲ-107 연도별 정기적인 운동 실천율 추이_걷기 실천율 ····· 244
표 Ⅲ-108 연도별 정기적인 운동 실천율 추이_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 245
표 Ⅲ-109 연도별 비만 유병률 추이 ····· 247
표 Ⅲ-110 연도별 스트레스 인지율 추이 ····· 249
표 Ⅲ-111 연도별 우울감 경험률 추이 ····· 251
표 Ⅲ-112 연도별 자살률 추이 ····· 253
표 Ⅲ-113 연도별 현재 흡연율 추이 ····· 255
표 Ⅲ-114 연도별 월간 음주율 추이 ····· 257
표 Ⅲ-115 연도별 현재 본인의 체형에 대한 생각 ····· 258
표 Ⅲ-116 연도별 주관적인 신체건강 인식 ····· 260
표 Ⅲ-117 연도별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나는 밝고 즐거운 기분임을 느낀다 ····· 262
표 Ⅲ-118 연도별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나는 차분하고 편안함을 느낀다 ····· 264
표 Ⅲ-119 연도별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나는 활동적이고 활기참을 느낀다 ····· 266
표 Ⅲ-120 연도별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나는 잠에서 깨었을 때, 피로가 다 가시고 상쾌했다 ····· 268
표 Ⅲ-121 연도별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나의 일상은 흥미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 270
표 Ⅲ-122 연도별 청년 병원 이용율 추이 ····· 272

표 Ⅲ-123 연도별 민간 의료보험 가입률 추이 ····· 274
표 Ⅲ-124 건강검진 수검 여부 ····· 275
표 Ⅲ-125 질환 발생 시, 대처방안 ····· 276
표 Ⅲ-126 질환 발생 시,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 ····· 278
표 Ⅲ-127 연도별 성형수술 경험 ····· 279
표 Ⅲ-128 연도별 성형수술 목적 ····· 281
표 Ⅲ-129 평일 및 휴일 문화 및 여가활동 유형(복수응답) ····· 283
표 Ⅲ-130 연도별 평일 및 휴일 문화 및 여가활동 시간 ····· 284
표 Ⅲ-131 연도별 월 평균 문화 및 여가활동 비용 ····· 285
표 Ⅲ-132 연도별 문화 및 여가생활 만족도 추이 ····· 286
표 Ⅲ-133 연도별 연간 독서율 추이 ····· 287
표 Ⅲ-134 연도별 주관적 행복감 추이 ····· 288
표 Ⅲ-135 연도별 삶의 만족도 추이 ····· 289
표 Ⅲ-136 연도별 주관적 계층의식 추이 ····· 290
표 Ⅲ-137 연도별 우리사회의 전반적 공정성에 대한 인식 ····· 291
표 Ⅲ-138 연도별 선호하는 가치(일 중시 vs 여가 중시) ····· 294
표 Ⅲ-139 연도별 선호하는 가치(현실 중시 vs 이상 중시) ····· 295
표 Ⅲ-140 연도별 선호하는 가치(결과 중시 vs 과정 중시) ····· 296
표 Ⅲ-141 선호하는 가치(개인 중시 vs 집단 중시) ····· 297
표 Ⅲ-142 연도별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 ····· 298
표 Ⅲ-143 연도별 긴급 상황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비율 ····· 300
표 Ⅲ-144 연도별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 302
표 Ⅲ-145 연도별 가족관계 만족도 추이 ····· 304
표 Ⅲ-146 연도별 친한 친구 존재 여부 및 친한 친구 수 ····· 306
표 Ⅲ-147 연도별 세대 갈등 추이 ····· 309
표 Ⅲ-148 연도별 자원봉사활동 참여여부, 참여횟수, 참여시간 추이 ····· 311
표 Ⅲ-149 연도별 기부(현금기부, 물품기부) 여부 ····· 313
표 Ⅲ-150 연도별 단체참여 추이 ····· 315
표 Ⅲ-151 연도별 선거 투표율 추이 ····· 317
표 Ⅲ-152 연도별 정부 및 국회 신뢰도 추이 ····· 319
표 Ⅲ-153 의견 표명 경험 ····· 322
표 Ⅲ-154 연도별 의견 표명 의향 ····· 325
표 Ⅲ-155 연도별 정치적 효능감 추이_1)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 328

표 Ⅲ-156 연도별 정치적 효능감 추이_2)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 330
표 Ⅲ-157 연도별 정치적 효능감 추이_3)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332
표 Ⅳ-1 다층적 형태의 온-오프라인 참여 ····· 338
표 Ⅳ-2 제17대·제18대·제19대 대선 연령대별 투표율 ····· 342
표 Ⅳ-3 청년 정치·사회 참여 설문문항 주요 내용 및 출처 ····· 347
표 Ⅳ-4 면담 조사 참여자 특성 ····· 351
표 Ⅳ-5 청년 정치·사회 참여 면담 조사 주요내용 ····· 353
표 Ⅳ-6 정치 문제 관심 정도 ····· 357
표 Ⅳ-7 정치 참여 경험_1) 사회·정치 문제와 관련된 기사, 블로그, 방송, 유튜브 찾아보기 ····· 358
표 Ⅳ-8 정치 참여 경험_2) 사회·정치 문제에 대해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기 ····· 358
표 Ⅳ-9 정치 참여 경험_3)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 359
표 Ⅳ-10 정치 참여 경험_4)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뱃지, 팔찌, 리본, 스티커 등을 착용/부착 ····· 360
표 Ⅳ-11 정치 참여 경험_5) 사회·정치적 이유로 특정 상품을 불매하거나 구매하기 ····· 360
표 Ⅳ-12 정치 참여 경험_6) (온·오프라인으로) 서명에 참여하기 ··· 361
표 Ⅳ-13 정치 참여 경험_7)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 362
표 Ⅳ-14 정치 참여 경험_8) 항의 전화하기 ····· 362
표 Ⅳ-15 정치 참여 경험_9)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정치인이나 공무원(민원) 또는 언론기관에 접촉하기 ····· 363
표 Ⅳ-16 정치 참여 경험_10)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기 위해 정당에 가입하거나 기부하기 ····· 364
표 Ⅳ-17 정치 참여 경험_11) 청년 참여기구(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의회 등) 활동하기 ····· 365
표 Ⅳ-18 정치 참여 경험_12) 투표 참여 ····· 365
표 Ⅳ-19 정치·사회 참여 이유 ····· 367
표 Ⅳ-20 정치·사회 참여 의향 ····· 370
표 Ⅳ-21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어렵게 하는 이유 ····· 371
표 Ⅳ-22 사회 참여 경험_1) 여가활동(취미 및 스포츠) 모임 ····· 372
표 Ⅳ-23 사회 참여 경험_2) 친목 및 친교(동창, 향우회 등) 모임 ·· 373

표 Ⅳ-24 사회 참여 경험_3) 자기계발 모임 및 그룹 스터디 모임 ·· 374
표 Ⅳ-25 사회 참여 경험_4) 종교모임 ····· 375
표 Ⅳ-26 사회 참여 경험_5) 시민사회 단체(NGO, NPO 등) ····· 375
표 Ⅳ-27 사회 참여 경험_6) 지역사회 모임(반상회, 주민협회 등) ·· 376
표 Ⅳ-28 사회 참여 경험_7) 학술단체 ····· 377
표 Ⅳ-29 단체 참여 경험_8) 기타(노동조합, 이익 단체 등) ····· 377
표 Ⅳ-30 사회 참여 이유 ····· 379
표 Ⅳ-31 사회 참여 의향 ····· 380
표 Ⅳ-32 청년들의 사회 참여를 어렵게 하는 이유 ····· 381
표 Ⅳ-33 청년 참여 관련 인지도_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 청년 관련 법 ····· 382
표 Ⅳ-34 청년 참여 관련 인지도_2) 지자체 청년기본조례 ····· 383
표 Ⅳ-35 청년 참여 관련 인지도_3) 지자체 청년 참여기구 ····· 384
표 Ⅳ-36 청년 참여 관련 인지도_4) 지자체 청년 참여활동 지원사업 ····· 385
표 Ⅳ-37 청년 참여 관련 인지도_5) 지자체 청년 참여 및 활동 공간 ····· 385
표 Ⅳ-38 청년 정치·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요건-1순위(상위5위) ····· 387
표 Ⅳ-39 청년 정치·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요건-1+2+3순위 (상위5위) ····· 388
표 Ⅳ-40 10대(중·고등학교) 시기 정치·사회 참여 경험 ····· 389
표 Ⅳ-41 청년 정치·사회 참여 잠재유형 분류 기분 ····· 391
표 Ⅳ-42 청년 정치·사회 참여 잠재 유형(4개 집단) ····· 393
표 Ⅳ-43 인구사회학적 배경과 참여 유형 ····· 396
표 Ⅳ-44 가정 배경과 참여 유형 ····· 400
표 Ⅳ-45 참여 동기와 참여 유형 ····· 402
표 Ⅳ-46 정치·사회문제에 대한 관심도와 참여 유형 ····· 407
표 Ⅳ-47 정치적 효능감과 참여 유형 ····· 410
표 Ⅳ-48 청년 참여 관련 법/정책/기구 인지도와 참여 유형 ····· 411
표 Ⅳ-49 중·고등학생 시기 참여 경험과 참여 유형 ····· 418
표 Ⅳ-50 정치·사회 참여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427
표 Ⅳ-51 향후 참여 의향과 참여 유형 ····· 436
표 Ⅳ-52 청년 참여의 저해요인과 참여 유형 ····· 438
표 Ⅳ-53 청년 참여 활성화 요인과 참여 유형 ····· 442

표 Ⅴ-1 결혼을 망설인 이유 연도별 추이 ····· 464
표 Ⅴ-2 혼인율 제고를 위한 주거 및 금융 지원 소요예산 ····· 465
표 Ⅴ-3 해외이주를 고려한 이유 연도별 추이 ····· 466
표 Ⅴ-4 청년행복지표 조사 개요 ····· 467
표 Ⅴ-5 청년행복지표 조사 소요예산 ····· 467
표 Ⅴ-6 졸업 유예 이유 ····· 468
표 Ⅴ-7 대학취업지원체제 강화 소요예산 ····· 469
표 Ⅴ-8 대학 미진학 사유 연도별 추이 ····· 470
표 Ⅴ-9 산학연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도입 소요예산 ····· 471
표 Ⅴ-10 노동수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 ····· 472
표 Ⅴ-11 노동수요(일자리, 경제) 측면의 고용위기 해소정책 우선순위 재편 ····· 473
표 Ⅴ-12 이직 희망 사유 연도별 추이 ····· 474
표 Ⅴ-13 청년 이직 및 전직 지원 사업 소요예산 ····· 475
표 Ⅴ-14 정부 추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인지 및 참여의향 ····· 476
표 Ⅴ-15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수혜 확대 및 평가 소요예산 ····· 477
표 Ⅴ-16 지금의 집 값 수준은 적정한가 연도별 추이 ····· 478
표 Ⅴ-17 부모님 도움 없이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한가 연도별 추이 ····· 479
표 Ⅴ-18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2017) ····· 480
표 Ⅴ-19 청년 심리지원서비스 강화 재정지원 소요예산 ····· 481
표 Ⅴ-20 건강검진 수검 현황 ····· 482
표 Ⅴ-21 청년 건강검진의 확대와 홍보 강화 재정지원 소요예산 ···· 483
표 Ⅴ-22 청년 지역규모별 전반적 여가생활 불만족 이유(상위 6개) ····· 484
표 Ⅴ-23 청년 문화 및 여가 인프라 취약 지역 지원 강화 재정지원 소요예산 ····· 485
표 Ⅴ-24 청년 가구소득별 전반적 여가생활 불만족 이유(상위 6개) ····· 486
표 Ⅴ-25 저소득 청년들을 위한 문화 및 여가 지원 강화 재정지원 소요예산 ····· 487
표 Ⅴ-26 청년 참여기구(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의회 등) 활동경험 ····· 488
표 Ⅴ-27 청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재정지원 소요예산 ····· 489

표 Ⅴ-28 청년 참여 관련 법/정책/기구 인지도 ····· 490
표 Ⅴ-29 청년 정치·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요건-1+2+3순위 (상위5위) ····· 491
표 Ⅴ-30 청년의 정치·사회문제 관심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재정지원 소요예산 ····· 491
표 Ⅴ-31 청년 기본법안(안) 체계 ····· 493
표 Ⅴ-32 청년정책평가센터 설치(안) ····· 495
표 Ⅴ-33 청년정책평가센터 운영 소요예산 ····· 495

그림 목차

그림 Ⅰ-1. 취업자 및 고용률 추이(2019년 8월) ····· 4
그림 Ⅰ-2. 연차별 연구추진계획 ····· 8
그림 Ⅱ-1. 노르웨이의 직업 교육 및 훈련 체계 ····· 69
그림 Ⅲ-1. 청년층 인구수 ····· 95
그림 Ⅲ-2. 전체인구 대비 청년층 구성비 ····· 97
그림 Ⅲ-3. 체류외국인 수 ····· 99
그림 Ⅲ-4. 등록외국인 수 ····· 101
그림 Ⅲ-5. 단기체류외국인 수 ····· 102
그림 Ⅲ-6. 결혼이민자 외국인 수 ····· 103
그림 Ⅲ-7. 청년층 인구 전망 ····· 104
그림 Ⅲ-8. 청년 연령규정 ····· 106
그림 Ⅲ-9. 독립 의향 및 적정 독립 시기 ····· 107
그림 Ⅲ-10. 결혼 의향 및 적정 결혼 시기 ····· 109
그림 Ⅲ-11. 출산 의향 및 적정 출산 시기 ····· 111
그림 Ⅲ-12. 해외이주 의사 ····· 113
그림 Ⅲ-13. 해외이주 고려 이유 ····· 115
그림 Ⅲ-14. 청년층 혼인건수 및 혼인율 ····· 116
그림 Ⅲ-15. 성별 초혼 연령 연도별 추이 ····· 118
그림 Ⅲ-16. 결혼준비 경험 ····· 120
그림 Ⅲ-17. 결혼 망설임 여부 ····· 121
그림 Ⅲ-18. 모 연령별 출생아 수 및 출산율 ····· 122
그림 Ⅲ-19. 모의 평균 출산 연령 ····· 124
그림 Ⅲ-20. 맞벌이 여부 ····· 125
그림 Ⅲ-21. 자녀 유무 ····· 126
그림 Ⅲ-22. 자녀를 가질 계획 ····· 127
그림 Ⅲ-23.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 128
그림 Ⅲ-24. 대학등록금 ····· 130

그림 Ⅲ-25. 대학등록금 대출자 비율 ····· 132
그림 Ⅲ-26. 재학생 1인당 장학금 ····· 133
그림 Ⅲ-27. 학제별 대학졸업 소요기간 ····· 135
그림 Ⅲ-28. 대졸자 휴학 현황 ····· 137
그림 Ⅲ-29. 대학생 학업중단율 ····· 139
그림 Ⅲ-30. 졸업 유예 경험 및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 ····· 141
그림 Ⅲ-31. 졸업 유예 및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 이유 ····· 143
그림 Ⅲ-32. 전공과 직업 일치도 ····· 145
그림 Ⅲ-33. 추후 대학 진학 의사 ····· 147
그림 Ⅲ-34. 대학 미진학 사유 ····· 148
그림 Ⅲ-35. 우리사회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 150
그림 Ⅲ-36. 우리사회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2) 한국사회에서 교육을 어디까지 받았는지(학력)는 중요하다 ····· 152
그림 Ⅲ-37. 우리사회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3) 한국사회에서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학벌)는 중요하다 ····· 153
그림 Ⅲ-38. 대학교육(고교교육) 만족도_1) 나는 대학교육(고교교육)에 만족한다 ····· 154
그림 Ⅲ-39. 대학교육(고교교육) 만족도_2) 나는 대학교육이 앞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155
그림 Ⅲ-40. 대학교육(고교교육) 만족도_3) 나는 대학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156
그림 Ⅲ-41. 대학교육(고교교육) 만족도_4) 나는 내가 선택한 대학에서의 학과(전공)이 나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 157
그림 Ⅲ-42. 연령별 평생학습 형식교육 참여율 ····· 158
그림 Ⅲ-43. 연령별 평생학습 비형식교육 참여율 ····· 160
그림 Ⅲ-44. 연령별 평생학습 직업 관련 비형식교육 참여율 ····· 162
그림 Ⅲ-45. 연령별 직업교육 훈련 참여율 ····· 164
그림 Ⅲ-46. 현재 취업 준비 여부 ····· 166
그림 Ⅲ-47. 고시생 및 공시생 현황 ····· 167
그림 Ⅲ-48. 경제활동 참여율 ····· 168
그림 Ⅲ-49. 고용률 ····· 170
그림 Ⅲ-50. 실업률 ····· 172
그림 Ⅲ-51. 전산업 기준 청년층 신설법인 수 및 비율 ····· 174

그림 Ⅲ-52. 청년 기업 고용주(대표)의 활동기업, 신생기업 수 및 비율 ····· 176
그림 Ⅲ-53. 니트(NEET) 비율 ····· 178
그림 Ⅲ-54. 연령별 비정규직 비율 ····· 179
그림 Ⅲ-55. 대졸 신입사원 경쟁률 ····· 181
그림 Ⅲ-56.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 ····· 182
그림 Ⅲ-57. 중소기업 취업 의향 ····· 184
그림 Ⅲ-58. 중소기업 비취업 이유 ····· 185
그림 Ⅲ-59. 창업 경험 ····· 186
그림 Ⅲ-60. 창업 의사 ····· 187
그림 Ⅲ-61. 직장에서 본인 조건에 맞는 대우 여부 ····· 188
그림 Ⅲ-62. 이직 의향 여부 및 이유 ····· 190
그림 Ⅲ-63.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_1) 우리사회는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자에게 적절하게 대우하고 있다 ····· 192
그림 Ⅲ-64.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_2) 기성세대는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정착을 위해 적절한 배려를 하고 있다 ····· 194
그림 Ⅲ-65.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_3)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는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195
그림 Ⅲ-66. 월임금총액 ····· 196
그림 Ⅲ-67. 청년 소비 ····· 197
그림 Ⅲ-68. 장년 대비 청년 상대임금 ····· 199
그림 Ⅲ-69. 청년층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상대임금 ····· 201
그림 Ⅲ-70. 청년 가구주의 부채 ····· 203
그림 Ⅲ-71. 적정 최저 임금 ····· 205
그림 Ⅲ-72. 한 달 생활비와 생활비 지원받는 비율 ····· 207
그림 Ⅲ-73. 채무 여부 ····· 208
그림 Ⅲ-74. 돈이 없어서 임대료, 대출금, 관리비 등 주거 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 209
그림 Ⅲ-75. 돈이 없어서 집의 냉/난방을 유지하지 못했다 ····· 211
그림 Ⅲ-76. 돈이 없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 212

그림 Ⅲ-77. 돈이 없어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못했다 ····· 213
그림 Ⅲ-78. 돈이 없어서 휴일에 놀러가지 못하거나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했다 ····· 214
그림 Ⅲ-79. TV를 가지고 있지 않다 ····· 215
그림 Ⅲ-80. 냉장고를 가지고 있지 않다 ····· 216
그림 Ⅲ-81.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 ····· 217
그림 Ⅲ-82. 타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집전화, 휴대전화)을 가지고 있지 않다 ····· 218
그림 Ⅲ-83. 청년층(가구주)의 주택 점유형태 ····· 219
그림 Ⅲ-84. 청년층(가구주)의 실주거비 ····· 221
그림 Ⅲ-85. 청년층(일반가구 가구주)의 가구 비율 ····· 223
그림 Ⅲ-86. 청년층(일반가구 가구주)의 1인 가구 비율 ····· 225
그림 Ⅲ-87. 부모 동거 여부 ····· 227
그림 Ⅲ-88. 미혼 혼자 거주 여부 ····· 228
그림 Ⅲ-89. 현재 주거 형태 ····· 229
그림 Ⅲ-90. 청년층(일반가구 가구주)의 주택 외 거주규모 비율 ····· 230
그림 Ⅲ-91. 가처분소득 대비 가구부채 비율 ····· 232
그림 Ⅲ-92. 기숙사 수용률 ····· 234
그림 Ⅲ-93. 주거 마련 시기 의견 ····· 236
그림 Ⅲ-94. 공동주거 경험 ····· 238
그림 Ⅲ-95. 공동주거 의향 ····· 239
그림 Ⅲ-96. 평소 주거 생각_1) 내 명의의 집은 꼭 있어야 한다 ····· 240
그림 Ⅲ-97. 평소 주거 생각_2) 지금의 집 값 수준은 적정하다 ····· 241
그림 Ⅲ-98. 평소 주거 생각_3) 부모님 도움 없이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242
그림 Ⅲ-99. 정기적인 운동 실천율_걷기 실천율 ····· 243
그림 Ⅲ-100. 정기적인 운동 실천율_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 245
그림 Ⅲ-101. 비만 유병률 ····· 246
그림 Ⅲ-102. 스트레스 인지율 ····· 248
그림 Ⅲ-103. 우울감 경험률 ····· 250
그림 Ⅲ-104. 자살률 ····· 252
그림 Ⅲ-105. 현재 흡연율 ····· 254
그림 Ⅲ-106. 월간 음주율 ····· 256
그림 Ⅲ-107. 현재 본인의 체형에 대한 생각 ····· 258
그림 Ⅲ-108. 주관적인 신체건강 인식 ····· 259

그림 Ⅲ-109.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나는 밝고 즐거운 기분임을 느낀다 ····· 261
그림 Ⅲ-110.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나는 차분하고 편안함을 느낀다 ····· 263
그림 Ⅲ-111.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나는 활동적이고 활기참을 느낀다 ····· 265
그림 Ⅲ-112.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나는 잠에서 깨었을 때, 피로가 다 가시고 상쾌했다 ····· 267
그림 Ⅲ-113.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나의 일상은 흥미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 269
그림 Ⅲ-114. 청년 병원 이용율 ····· 271
그림 Ⅲ-115. 연령별 민간 의료보험 가입률 ····· 273
그림 Ⅲ-116. 건강검진 수검 여부 ····· 275
그림 Ⅲ-117. 질환 발생 시 대처방안 ····· 276
그림 Ⅲ-118. 질환 발생 시,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 ····· 277
그림 Ⅲ-119. 성형수술 경험 ····· 279
그림 Ⅲ-120. 성형수술 목적 ····· 280
그림 Ⅲ-121. 평일 및 휴일 문화 및 여가활동 유형 ····· 282
그림 Ⅲ-122. 평일 및 휴일 문화 및 여가활동 시간 ····· 284
그림 Ⅲ-123. 월 평균 문화 및 여가활동 비용 ····· 285
그림 Ⅲ-124. 문화 및 여가생활 만족도 ····· 286
그림 Ⅲ-125. 연간 독서율 ····· 287
그림 Ⅲ-126. 주관적 행복감 ····· 288
그림 Ⅲ-127. 삶의 만족도 ····· 289
그림 Ⅲ-128. 주관적 계층의식 ····· 290
그림 Ⅲ-129. 우리사회의 전반적 공정성에 대한 인식 ····· 291
그림 Ⅲ-130. 일과 여가 중 선호하는 가치 ····· 293
그림 Ⅲ-131. 현실과 이상 중 선호하는 가치 ····· 295
그림 Ⅲ-132. 결과와 과정 중 선호하는 가치 ····· 296
그림 Ⅲ-133. 개인과 집단 중 선호하는 가치 ····· 297
그림 Ⅲ-134.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 ····· 298
그림 Ⅲ-135. 긴급 상황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비율 ····· 299
그림 Ⅲ-136.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 301
그림 Ⅲ-137. 가족관계 만족도 ····· 303
그림 Ⅲ-138. 친한 친구 존재 여부 및 친한 친구 수 ····· 305

그림 Ⅲ-139. 세대 갈등 ····· 308
그림 Ⅲ-140. 자원봉사활동 참여여부, 참여횟수, 참여시간 ····· 310
그림 Ⅲ-141. 기부(현금기부, 물품기부) 여부 ····· 312
그림 Ⅲ-142. 단체참여 ····· 314
그림 Ⅲ-143. 선거 투표율 ····· 317
그림 Ⅲ-144. 정부 및 국회 신뢰도 ····· 319
그림 Ⅲ-145. 의견 표명 경험 ····· 321
그림 Ⅲ-146. 의견 표명 의향 ····· 324
그림 Ⅲ-147. 정치적 효능감_1)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 327
그림 Ⅲ-148. 정치적 효능감_2)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 329
그림 Ⅲ-149. 정치적 효능감_3)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331
그림 Ⅳ-1. 전 세계와 한국의 연령별 국회의원 분포 비교(%) ····· 343
그림 Ⅳ-2. 잠재프로파일(LPA) 분석을 활용한 심층분석 모형 ····· 349
그림 Ⅳ-3. 면담 조사지 개발절차 ····· 354
그림 Ⅳ-4. 청년 정치·사회 참여 잠재 유형 분류 기준 (AIC, BIC, SABIC) ····· 391
그림 Ⅳ-5. 청년 정치·사회 참여 잠재 유형(4개 집단) ····· 392
그림 Ⅳ-6.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_참여 동기 ····· 406
그림 Ⅳ-7.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_참여의 의미(개인) ····· 431
그림 Ⅳ-8.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_참여의 의미(청년) ····· 434
그림 Ⅳ-9.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_청년 참여 활성화 요인 ····· 451
그림 Ⅴ-1. 청년정책 비전 및 정책과제 ····· 463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차별 연구추진계획
3. 연구내용
4. 연구방법

1 서 론[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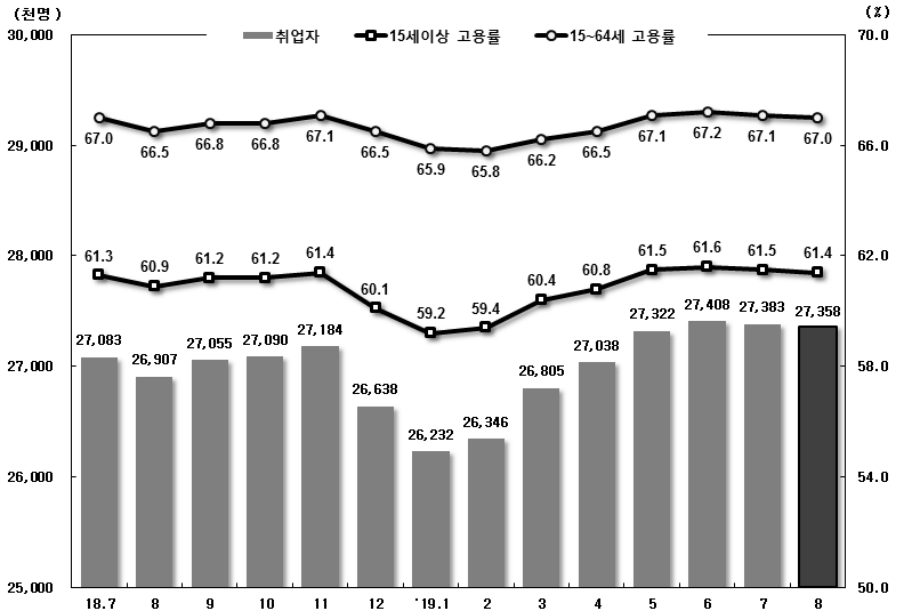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년 실업 혹은 청년 취업난이란 용어가 국민들 사이에 익숙해 진지 오래되었고 취업을 한 청년과 미취업인 청년, 정규직인 청년과 비정규직인 청년이란 이분법적 구분이 일상의 대화에 흔히 등장하는 사회가 어느덧 되어 버렸다. 신문과 방송 등 많은 언론매체에서 기획기사로 혹은 다큐멘터리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을 조명하고 있으나 청년들의 일과 삶의 극적인 개선은 아직 요원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장차 일할 사람은 줄어든다는데 우리 사회의 청년들은 여전히 극심한 진학 경쟁과 취업 경쟁에 직면해 있고 이를 무난히 통과한다하여도 이들을 맞이하는 것은 기성세대에 비하여 안정적인 소득이나 자산 확보가 쉽지 않은 경제적 장벽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쉼 없이 평생을 경쟁 상황에 놓여있어 마치 마라톤 세대라고 불릴 만한 우리 청년들의 일의 문제와 삶의 문제를 개선하고 안정화 시키는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어느 국민도 무관심할 수 없는 문제이다.

통계청(2019a)에서 발표한 2019년 8월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15~64세 고용률은 40대에서 하락하였으나, 20대, 30대, 50대 등에서 상승하여 전년동월대비 0.5% 상승하였으며, 실업률은 20대, 30대, 40대, 50대 등에서 하락하여 전년동월대비 1.0% 하락하였다. 연령계층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60세

1) 이 장은 김형주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이상에서 39만 1천명, 50대에서 13만 3천명, 20대에서 7만 1천명 각각 증가하였으나, 40대에서 12만 7천명, 30대에서 9천명 각각 감소하였고, 고용률은 20대, 30대, 50대, 60세 이상에서 전년동월대비 상승하였으나, 40대에서는 하락하였다. 그리고 연령계층별 실업자 및 실업률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에 있어서 실업자는 20대(-11만 7천명, -28.6%), 40대(-6만명, -32.1%), 50대(-4만 2천명, -22.0%), 30대(-4만 1천명, -19.2%) 등에서 감소하였고, 실업률은 20대(-2.8%p), 40대(-0.8%p), 30대(-0.7%p), 50대(-0.6%p) 등에서 하락하였는데, 15~29세 청년층의 실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2만 7천명 감소하여 실업률은 2.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통계청(2019a), 2019년 8월 고용동향 보도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https://www.kostat.go.kr/portal/korea/kor_nw/1/3/2/index.board?bmode=read&aSeq=377478&pageNo=&rowNum=10&amSeq=&sTarget=&sTxt=에서 2019년 9월 30일 인출.

그림 Ⅰ-1. 취업자 및 고용률 추이(2019년 8월)

이와 같은 고용률 동향에 대해 기획재정부(2019)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15~29세 청년층은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으며, 청년층 고용률은 15개월 연속 상승, 청년층 실업률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취업자 수 증가, 고용률, 실업률 등 3대 고용지표가 모두 크게 개선되면서 고용시장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는데, 8월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상반기 평균의 2배를 상회하며 2017년 3월 이후 최대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15~64세 고용률이 8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보이고 있고 실업률은 8월 기준으로 1999년 기준개편 이래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향후 인구 둔화 가속화,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수출·투자 부진 등 향후 고용여건 불확실성이 상존하여 대내외 경제상황과 고용여건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투자·수출·내수 활성화를 통해 하반기 경제·고용여건을 개선하겠다는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사회적으로 가장 우려스러운 인구동향을 살펴보면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19년 7월 동향을 기준으로 볼 때 출생아 수는 25,263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5% 감소하였고 사망자 수는 23,172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0% 감소하였으며, 혼인 건수는 19,180건으로 전년동월대비 4.5% 감소하였고 이혼 건수는 9,497건으로 전년동월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9b). 이와 같은 동향은 절대인구의 감소와 기존 인구의 노령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혼인 건수의 감소와 이혼 건수의 증가는 가족의 안정적 기반이 약해지는 현상으로 저출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작년인 2018년 3차년도 본 연구의 조사결과 중 일부를 살펴보면, 대졸자 휴학 경험 비율에 있어서 2015년 40.3%에서 2016년 44.4%로 증가한 이후 2018년 현재까지 비슷한 수준으로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살펴보면 2007년 대비 2018년의 휴학 경험 비율이 8%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졸업 유예 현상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휴학 사유를 보면 취업 및 자격시험

준비가 29.6%로 2007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해 청년들의 취업이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본인 소유의 집 마련 시기에 대한 조사에서는 '향후 10~20년 이내'가 32.6%로 가장 높았고, '향후 20년 이후'라는 응답도 25.2%로 났는데, 종합적으로 향후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 청년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특히 '향후 20년 이후' 응답과 '마련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응답이 지난 2017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여 전반적으로 주택 마련에 대해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비율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해외이주 의사에 있어서 전체 연령 중 20대의 해외이주 의사(15.8%)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었고, 해외이주 의사가 있다고 밝힌 청년들이 해외이주를 고려해본 주요 이유는 새로운 사회에 도전해 보고 싶어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자기 계발을 위해서, 더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서, 취업이 어려워서, 아이를 낳고 키우기 힘들어서 순으로 나타났다(김형주, 임지연, 유설희, 2018).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우리 청년들이 취업과 이후의 삶에 대해서 갖고 있는 비관적 인식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청년들의 참여 문제에 있어서 자신과 다른 의견에 대한 표명 방식을 조사한 결과, 여러 가지 반대 의견 표시 방법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는 'SNS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에는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38.1%이었고 33.1%가 참여하지 않겠다고 응답해 참여 의사와 비참여 의사에 큰 차이가 없었으며, '개인 의견 표현을 위해 뱃지 등을 착용하기' 역시 참여 의사가 36.5%,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33.7%로 나타나 참여 의사와 비참여 의사에 큰 차이가 없었다. '서명에 참여하기'도 참여 의사 35.4%, 비참여 의사 34.9%로 유사한 경향을 보인 반면에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는 청년들의 21.8%만이 참여하겠다고 응답해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 45.9%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었고 '항의전화 하기'도 17.1%의 낮은 참여 의향을 보였다(김형주, 외, 2018). 참여에 대한 청년들의 이러한 경향성은 사회적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참여 활동이 보다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으며, 금년도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참여 실태를 좀더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 사회 청년의 일과 삶의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지표를 조사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방향과 과제를 도출하는 데에 있다.[2] 구체적인 연구목적을 살펴보면 첫째, 연차별 연구의 4년차 연구로서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연구목적은 2019년 한국 청년들의 생활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지표를 중심으로 취업과 경제생활, 삶에 대한 만족이나 행복, 그리고 교육, 가치관, 신체 및 정신건강, 주거, 결혼, 양육, 출산, 문화생활 등 청년의 삶을 둘러싼 사회·경제 전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제시하는 것이(김형주 외, 2018; 김기헌, 이윤주, 유설희, 2017). 둘째, 청년들의 사회적·정치적 참여에 대해서 면담조사를 통해 심층적인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셋째, 전년도 공개데이터를 활용하여 청년분야의 현안이 되는 주제별 심층분석을 하는 것이다. 넷째, 청년의 사회·경제 실태를 토대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청년정책의 비전과 세부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것이다(김형주 외, 2018). 본 연구에서는 이런 연구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을 확대하고 활성화하여 청년들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연차별 연구추진계획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는 총 5년 동안 연차별 연구로 계획되어 있으며 본 연구는 이 중 4차년도 연구로서 전체 연차별 연구계획은 다음과 같다(그림 Ⅰ-2 참조).

2) 본 연구는 연차별 실태조사 연구의 4년차 연구로서 주요 연구목적은 1, 2, 3차년도와 동일함

1차년도 (2016년)	목적	• 청년들의 생활전반에 대한 핵심지표를 개발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청년들의 생활 전반을 진단하고 종합적으로 청년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내용	• 청년들의 생활 전반에 대한 핵심지표 개발 •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실시 및 분석 • 핵심지표 결과를 토대로 정책방향과 과제 도출
	방법	• 문헌연구, 실태조사, 전문가 델파이조사, 2차 분석
2차년도 (2017년)	목적	• 2017년 실태조사를 통해 청년들의 생활 전반을 진단하고 부가조사(special module) 형태로 청년 니트(NEET)와 사회적응에 관한 심층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청년 니트와 사회적응에 대한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내용	• 2017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실시 및 분석 • 통계청 승인통계 추진 및 표본틀 변경, 청년 니트와 사회적응에 대한 부가조사 실시 •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방향 및 니트와 사회적응에 대한 정책방향과 과제 도출
	방법	• 문헌연구, 실태조사, 전문가 델파이조사, 2차 분석
3차년도 (2018년)	목적	• 2018년 실태조사를 통해 청년들의 생활 전반을 진단하고 부가조사(special module) 형태로 신규졸업(예정)자에 관한 심층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청년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내용	• 2018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실시 및 분석 • 2018년 학교 신규졸업(예정)자에 대한 부가조사 실시 및 분석 • 청년에 대한 정책방향과 과제 도출 • 2017년 조사 자료 공개
	방법	• 문헌연구, 실태조사, 2차 분석, 심층면접조사
4차년도 (2019년)	**목적**	**• 2019년 실태조사를 통해 청년들의 생활 전반을 진단하고 부가조사(special module) 형태로 청년의 사회·정치 참여에 관한 심층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청년 참여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내용	**• 2019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실시 및 분석 • 2019년 청년 사회·정치 참여 실태에 관한 부가조사 실시 및 분석 • 청년에 대한 정책방향과 과제 도출 • 2017년~2018년 조사 자료 공개**
	방법	**• 문헌연구, 실태조사, 2차 분석, 심층면접조사**
5차년도 (2020년)	목적	• 2020년 실태조사를 통해 청년들의 생활 전반을 진단하고 부가조사(special module) 형태로 청년 주거빈곤층에 관한 심층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청년 주거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내용	• 2020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실시 및 분석 • 2020년 청년 주거 실태에 관한 부가조사 실시 및 분석 • 청년에 대한 정책방향과 과제 도출 • 2017년~2019년 조사 자료 공개
	방법	• 문헌연구, 실태조사, 2차 분석, 심층면접조사

* 출처: 김형주 외(2018).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Ⅲ. p.7의 연차별 연구추진계획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함

그림 Ⅰ-2. 연차별 연구추진계획

3. 연구내용[3)]

연차별 연구 중 4차년도인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 및 정책동향에 대한 고찰로서 정책대상인 청년에 대한 논의, 청년실태에 대한 여러 기관의 조사연구 현황,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및 사업 추진동향, 국회 및 지방의회의 청년관련 법률안 및 조례안 입안 혹은 제정 현황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주요국을 중심으로 해외 청년정책의 추진동향을 살펴보고 우리 청년문제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둘째, 2019년 한국 청년의 사회·경제에 대한 실태조사인데 본 실태조사는 2016년부터 매년 조사가 실시되어 올해는 4년차 조사로 추진되었다. 금년도 실태조사를 위해 우선 전년도 개발한 청년 핵심지표를 내·외부 전문가 그룹에 의해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였다. 2019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 핵심지표의 대분류는 기존 연차별 연구의 핵심지표를 틀을 유지하여 인구와 가족, 교육과 훈련, 경제와 고용, 주거, 건강, 문화와 가치관, 관계와 참여 등 7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김형주 외, 2018). 청년 사회·경제 실태에 대한 총 115개의 핵심지표는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서 파악하는 지표와 통계청 등 기존에 공개된 통계나 행정 데이터 등 2차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지표들로 구성된다.

2019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의 모집단은 국내 거주하는 만15~39세의 일반국민으로서 목표모집단(target population)은 조사시점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5세부터 39세 이하의 가구원이며, 조사모집단(survey population)은 조사 시행의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인구주택총조사 상에서의 섬,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 관광호텔, 외국인 조사구를 제외하고 아파트 조사구 및 일반조사구 내 일반가구에 거주하는 만 15세부터 39세 이하의 가구원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3) 본 연구는 연차별 연구의 4차년도 연구로서 연구내용 중 연차별로 주제를 달리 정하는 셋째 부가조사를 제외하고 첫째 정책동향 파악, 둘째 당해연도 실태조사, 넷째 전년도 공개데이터 심층분석, 다섯째 정책제언으로 구성되는 기본적인 연구내용의 틀은 연차별 연구 모두 동일함

표집틀의 최신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 연구의 표본설계 시점에서 확보할 수 있었던 가장 최신의 자료인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 리스트를 표본 추출 표집틀로 활용하였으며, 본 조사는 2019년 6월 10일부터 약 6주간 실시되었다.

표 Ⅰ-1 청년 사회·경제실태 지표체계

구 분	분 류
인구와 가족	청년층 인구수(1-1-1), 혼인율(1-2-1), 초혼 연령(1-2-2) 등
교육과 훈련	진학률(2-1-1), 대학생 학업중단율(2-1-7), 취업 준비(2-2-5) 등
경제와 고용	경제활동 참여율(3-1-1), 청년 중소기업 취업 의향 및 비취업 이유(3-1-10), 청년부채(3-2-5) 등
주거	청년층 주거형태(4-1-1), 청년 1인 가구 비율(4-1-4), 청년층 주거 빈곤 규모(4-2-1) 등
건강	스트레스(5-1-3), 우울증(5-1-4), 청년 병원 이용(5-2-1) 등
문화와 가치관	문화 및 여가생활 시간(6-1-2), 주관적 계층의식(6-2-3), 공정성에 대한 인식(6-2-4) 등
관계와 참여	사회적 관계망(7-1-1), 세대갈등(7-1-5), 의견 표명 경험(7-2-6) 등

* 출처: 김형주 외(2018).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Ⅲ(p.9)의 지표체계를 수정·보완함

셋째, 청년의 사회적·정치적 참여 실태에 대한 부가조사이다. 본 연차별 연구는 2017년부터 기본적인 실태조사와 더불어 청년의 현안문제를 중심으로 부가조사(special module)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청년의 사회·정치 참여 실태에 대한 심층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청년 참여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통한 표면적 실태 뿐만 아니라 심층적인 면모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넷째, 전년도 공개데이터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연구이다. 본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는 2017년 통계청 승인을 받아 국가통계로서 해마다 연구 종료 시점에 통계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년도 공개된 데이터를 토대로 심층적인 분석 연구를 추진하였는데, 금년도에는 청년의 경제활동, 사회참여, 청년 세대의

행복을 주제로 분석적 연구를 추진하였고 이는 본보고서와 별도로 발간하였다.

다섯째, 청년문제에 대한 정책제언으로서 청년 사회·경제 실태에 대한 본조사, 2차 통계자료, 부가조사, 심층분석연구 등을 토대로 청년정책의 비전과 세부적인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4. 연구방법[4)]

금년도 2019년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방법은 선행연구 및 정책동향에 대한 문헌연구, 핵심지표 검토 등 전문가협의회, 전국단위 조사연구, 2차 통계자료 분석, 심층면담조사에 의한 질적 연구, 전년도 통계자료에 대한 심층적 분석 연구 등이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개념 및 정책동향에 대한 문헌연구이다. 정책대상인 청년 연령에 대한 논의, 여러 기관들에서 시행된 청년 관련 조사연구의 현황, 청년 관련 법제도 추진 동향, 해외의 청년정책 사례, 그리고 금년도 부가조사로 시행한 청년의 사회적·정치적 참여에 관한 선행연구 및 정책동향을 고찰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둘째,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인데, 금년도 청년 핵심지표에 대한 검토, 설문조사 항목에 대한 수정·보완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추진하였다.

셋째, 청년 사회·경제 실태에 대한 4차년도 조사연구로서 전국의 만 15세~39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가구단위 개별방문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금년도 조사는 작년보다 표본수를 500명 확대하여 목표 표본수 3,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넷째, 기공개된 통계데이터에 대한 2차 자료 분석이다. 본 연구의 청년 핵심지표는 실태조사 뿐만 아니라 2차 통계자료의 분석으로 파악되는데, 통계청 등 여러

4) 본 연구는 연차별 연구의 4차년도 연구로서 문헌연구, 전문가 협의회, 조사연구, 2차 자료 분석, 면담조사를 통한 질적 연구, 공개데이터에 대한 분석적 연구, 콜로키움 및 정책협의회, 정책제언 등으로 구성되는 기본적인 연구방법의 틀은 연차별 연구 모두 동일함

부처와 기관에서 발표하는 통계 데이터를 수립하여 2차 자료분석을 통해 연차별 통계자료를 최신화하였다.

다섯째, 심층면담조사를 통한 질적 연구이다. 본 연구의 부가조사로서 설문조사를 통해 얻는 표면적 실태 뿐만 아니라 조사주제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위해 청년집단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금년도는 청년의 사회·정치 참여를 주제를 다루어 그 심층적 실태와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여섯째, 연구방향, 최근 정부의 청년정책 현안, 정책방안에 관한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운영하였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정책담당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본 연구의 정책적 활용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Ⅱ. 국내외 청년 정책·사업 및 법률 현황

1. 정책대상인 청년에 대한 논의
2. 청년실태 조사연구 현황
3. 청년정책 및 사업 추진 동향
4. 청년관련 법률 현황
5. 해외 청년정책 추진 동향 및 시사점

2 국내외 청년 정책·사업 및 법률 현황

1. 정책대상인 청년에 대한 논의[5)]

청년에 대한 개념과 연령기준에 대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시대적 상황과 개인적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국립국어원(2019)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청년이란 신체적으로·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정책대상으로서의 청년을 논하기에 앞서 우선 개념적 혹은 사변적 의미를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청년의 사전적 의미는 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으로 정의된다(국립국어원, 2019), 유럽에서는 1795년 괴테의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이후 유동성(mobility)과 내면성(interiority)을 특징으로 하는 청년기를 인생의 핵심적 시기로 인식했는데, 이는 전통 사회의 안정성이 무너지고 불확실한 탐색을 요구하는 근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것이기도 했다. 한국에서도 청년기는 생명이 자유롭게 분출하는 역동적인 시기로 본격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한국문학평론가협회, 2006).

우리의 근현대사에서 청년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확산되었던 배경에는 당시 우리나라가 일제를 비롯한 열강들의 각축장이 되었던 시대적 상황과 무관치 않으며 나라의 존속과 민족의 생존에 주축 세력으로 청년들을 바라보았고 이러한 시각은 현재까지도 미래의 경제활동의 기반이자 잠재적 핵심세력으로서 청년을 개념화하고 있기도 하다.

5) 이 절은 김형주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최근까지도 청년들의 취업문제는 극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인구 감소 추세는 가팔라지고 있는데 반해 아직까지 진학과 취업의 경쟁은 극심한 상황으로 청년 세대의 입장에서 보면 치열한 경쟁을 극복해야 하는 고단한 성장기를 겪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경쟁에 성공한다고 하여도 결혼, 출산, 주거의 문제는 다시금 청년 세대들이 치열하게 극복해야 하는 문제로 당면하게 되고, 기성세대들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여전히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은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할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현상은 최근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중요한 가치로 공유되고 있는 '공정성'의 측면에서 세대 간 불공정함이나 기성세대들의 기득권 유지 욕심과 다음 세대에 대한 무배려 등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특히, 2019년 들어서 주요 뉴스로 등장한 20대 청년들이 현 정부에 대한 지지율 하락 등의 현상은 졸업 후 취업을 통한 사회적 기반 마련 등 청년들 삶의 주요문제를 여전히 개인적 성실성이나 노력의 문제로 치부하고 있는 기성세대에 대한 반감을 넘어서 치열한 대학입시 경쟁에 비해 이에 부합하는 보상에 뒤따르지 않는 졸업 후 취업시장, 결혼 및 사교육비 등 육아비용 상승, 부동산 폭등에 따른 주거비 부담 확대 등 청년들에게 불리한 사회적 구조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의 결과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현 정부와 국회에서도 청년기본법 제정을 중심으로 청년세대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과 예산투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현장에서 체감할 만큼의 정책적 효과는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책대상으로서의 청년을 개념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연령 범위를 결정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제정된 여러 법률상에서 청년들의 대상범위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 〈표 Ⅱ-1〉은 지금까지 청년을 대상하는 여러 법령에서 청년 연령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표 II-1 현행 청년관련 법령상 청년의 범위

법령명	청년 정의	주요 내용	비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15~29세 (15~34세)	취업지원 및 공공기관 고용의무	동법 시행령 2조 개정(공공기관에 대해 34세로 확대) 2013.10.30. 동법 시행령 8조의2 신설(30~34세로 지원대상 확대) 2016.09.13
고용정책기본법	15~29세 (15~ 34세)	청년 고용촉진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정의를 준용
조세특례제한법	15~29세 (병역이행 시 최대 35세)	청년고용기업 세액공제	동법 시행령 23조4항 개정 (청년 정의 포함) 2010.12.30. 동법 시행령 23조8항 개정(동법 27조1항에 따른 벙역을 이행한 경우 6년 한도 내에서 현재 연령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한 연령 적용) 2014.02.21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15~34세	중소기업 취업촉진을 위한 고용장려금	동법 12조1항 개정(종전 29세에서 34세로 연령범위 확대) 2017.01.17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39세	청년 창업	동법 시행령 6조의2 신설(청년범위를 39세까지로 정의) 2017.05.2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39세	청년 창업	동법 시행령 5조의4 신설(청년창업자 범위를 39세까지로 정의) 2015.05.01

* 출처: 한국행정연구원(2018a).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종합연구. p.12. 재인용.

이상의 각 법령상 연령 범위를 살펴보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고용정책기본법,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서는 15세~34세를 청년 연령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 15세~29세를 기본으로 하되 병영이행 시 연령 상한을 35세까지 두고 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는 39세까지를 청년 연령의 상한으로 제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18년 본 연구의 3차년도 실태조사에서 청년들이 생각하는 청년 연령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에서는 청년들은 평균적으로 약 19세~31세를 청년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남녀간, 연령별 차이는 거의 없었으나 연도별 추이를 보면 청년들이 생각하는 청년 연령의 범위는 2016년에는 19.3~29.5세, 2017년에는 19.4~31.2세, 2018년에는 19.8~31.4세로 점차 연령 범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김형주 외, 2018). 실태조사에서 연령 범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는 청년들도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들이 경쟁하고 노력하는 연령대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정책대상으로서 청년 연령의 범위 결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 중에 하나는 연령 하단을 설정할 때 공교육 혹은 의무교육에 대한 제도적 규정이다. 즉, 국가가 의무적으로 교육시키고 성장시켜야 하는 우리나라 국민의 연령대는 청년 연령 하단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게 된다. 특히 2019년도에 중등교육 중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법제화하려는 현 정부의 정책은 그 결과에 따라 청년 연령의 범위 결정에 고려해야 할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겠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각 지역의 취업 및 고용 여건과 함께 정책적 방향성에 따라 조례를 통해 청년 연령 범위를 제정하고 있다. 다음 표 Ⅱ-2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청년기본조례 상 청년 연령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청년기본조례 상 청년 연령 범위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연령 하단의 경우 서울, 울산, 세종, 경기, 충북, 경북의 경우 15세로 하였고 나머지 시도는 18세 혹은 19세로 설정하고 있는데 연령 하단에 대한 설정은 청년이 능동적으로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연령이 어느 나이부터인가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청년 연령 상단의 경우는 34세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39세, 29세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년들이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준비 기간에 단순 취업 이외에 공무원시험 준비생과 창업 준비생 등을 포함하느냐에 따라 연령 상한에 대한 규정이 서로 다르게 하고 있는데 이는 시도별로 창업지원 등 관련 지원정책을 시행하는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표 II-2 청년관련 지방자치단체(광역) 청년기본조례상 청년의 범위

지역	청년 연령 정의	조례 제정 목적	조례 제정일
서울	15~29세 (15~34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분야에서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 보장 및 자립기반 형성	2015.01.02
부산	18~34세	사회, 경제, 문화 등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 자립 기반을 마련	2017.05.31
대구	19~39세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을 형성	2015.12.30
인천	18~34세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	2017.06.05
	19~39세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 마련	2016.06.07
광주	19~39세	사회참여 보장, 청년정책개발, 청년 자립기반 형성	2015.12.28
대전	19~39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분야에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016.10.20
울산	15~29세 (15~34세)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의 보장 및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017.04.27
세종	15~29세 (15~34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분야에서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016.12.20
경기	15~29세 (15~34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분야에서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016.01.01
강원	18~34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분야에서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 보장	2017.11.03
충북	15~39세	경제, 사회, 문화 등 분야에서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 자립의 기반을 마련	2016.05.24
충남	18~34세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와 권익을 보호하고 자립기반을 형성	2016.02.22
전북	18~39세	사회참여 보장, 청년정책개발, 자립기반 형성	2017.04.14
전남	18~39세	사회참여기회 보장 및 권익증진, 자립기반 마련	2015.07.23
경북	15~39세	사회참여 보장, 청년정책개발,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사항	2017.12.28
경남	19~34세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 보장 및 자립기반 형성	2016.12.10
제주	19~34세	능동적인 사회참여, 청년 간 교류확대 및 자립기반 형성	2016.09.23

* 출처: 한국행정연구원(2018a).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종합연구. p.14. 재인용(표 일부내용 수정함)

정책대상으로서의 청년은 연령범위를 중심으로 정의하게 되는데, 최근까지의 청년 실업률이 높은 문제나 고용시장의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그리고 공무원시험과 공공기관 취업 등 안정적인 취업처를 선호하여 이를 준비하는 기간이 길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연령범위는 다소 넓게 규정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국회에서 추진 중인 청년기본법도 청년 연령범위를 19세~34세로 규정하고 있는 점도 이러한 사회적 여건을 반영한 것이라 할 것이다. 다만 최근의 청년 취업상황이 조만간 개선되지 않고 그로인해 청년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 어려운 사회적 환경이 지속된다면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청년 연령의 상한을 39세로 높이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정책대상으로서의 청년 연령을 포괄적으로 접근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유연하게 도출하기 위해 15세~39세를 연구의 범위로 설정하고 있다.

2. 청년실태 조사연구 현황[6)]

청년 고용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청년들의 어려움이 증가함에 따라 청년정책의 근거로서 이러한 청년들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연구들이 최근 늘어나고 있다. 청년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조사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청년실태 조사연구

먼저, 본격적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들이 수행되기 이전에 청년들의 실태는 일반 국민 대상의 조사에서 연령집단의 범위를 청년으로 제한하여 살펴볼 수 있다. 예컨대, 통계청에서 수집하는 인구주택총조사와 인구동향조사, 장래인구추

6) 이 절은 연보라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계 등은 청년층의 인구 규모와 인구 전망, 혼인 및 출산 등 기본적인 인구학적 항목을 파악하고, 청년들의 주거실태 및 가구 형태 등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다(김형주 외, 2018). 덧붙여 주거실태와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년층에 해당하는 연령집단을 분석하여 주거 형태 및 주거비 부담, 주거 가치관 등을 파악할 수 있다(배상률, 황여정, 김소라, 2013).

아울러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체노동력조사, 지역별사업체노동력조사,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등의 고용노동통계는 연령집단 분석을 통해서 청년의 노동실태를 파악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김형주 외, 2018). 앞서 소개한 조사들이 주로 기초적인 객관적 실태 파악에 중점을 두었다면 사회적 관심사항이나 삶의 질에 관한 사항을 살펴볼 수 있는 조사로서 통계청 사회조사를 논의할 수 있다. 통계청 사회조사에서는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구 가운데 일부 표본을 대상으로 가족, 소득·소비, 노동, 교육, 보건, 환경, 복지, 문화·여가, 안전, 사회참여 등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고 있어, 연령을 기준으로 분석하여 청년들의 삶의 모습을 다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조사의 경우 대체로 매우 일반적인 수준에서 기본적인 실태를 파악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의 세대가 직면한 주요 문제들에 대한 정보를 심도 있게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를 지닌다(배상률 외, 2013).

한편, 청년층에 초점을 두고 수행된 실태조사들도 일부 존재하는데, 통계청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부가조사로서 2002년부터 청년층(15세~34세)을 대상으로 취업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청년들이 가장 최근에 다닌 학교에 대한 정보부터 직업교육, 취업경험, 취업경로, 첫 일자리 관련 사항들을 수집하는데,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실태사로서 그 의의가 있다. 하지만 해당 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라는 큰 틀에서 청년의 고용과 (직업)교육 부문만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

어 청년들의 삶의 양상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처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로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가 있다.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는 대학 졸업자의 고용 악화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이에 대한 정책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실증적 자료로서 대졸자의 노동시장 진입과 정착과정에 대한 횡단면조사로 매년 실시되고 있다. 해당 조사의 경우 앞서 고용부문의 조사들과 마찬가지로 대졸자의 교육과정, 구직활동, 일자리경험, 직업훈련, 자격증 등 노동시장 진입과 정착에 대한 주제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어 청년들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청년층 가운데 대학을 졸업한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청년들에 대한 정보는 살펴볼 수 없다는 한계점을 지닌다[7]. 또한 최근 청년들의 고용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구직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반면,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는 2012년부터 졸업자에 대한 3차의 추적조사에서 1회 조사로 변경되었다. 이에 대졸자의 직업이동의 경로를 대학교를 졸업한 당해 연도만의 정보로만 추정한다는 점에서 대졸 청년들이 어떻게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지 직업이동 경로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청년층에 초점을 맞춘 조사 중에는 패널조사도 존재하는데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YP)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KEEP)가 그 예이다. 청년패널조사(YP)는 청년층의 학교생활, 사회·경제활동, 가계배경 등의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청년들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및 이동과정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만15~29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구축된 1차 패널(YP2001)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차에 걸친 추적조사가 진행되었고, 2차 패널(YP2007)로서 2007년부터 새롭게 표본을 구축하여 현재까지 계속 추적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한국고용정보원, 2019).

---

7) 한국고용정보원에서 2011년부터 고졸자취업진로조사(HSGES)가 2년마다 수행되었으나 2015년부터 통계 작성이 중지된 바 있다.

또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수행되고 있는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KEEP)도 교육경험과 진학·진로, 직업세계로의 이행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04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표본을 구축하여 1차 패널조사가 진행되었고, 2016년에는 고등학교 2학년 표본을 새롭게 구축하여 2차 패널조사가 수행되고 있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9). 이러한 청년층에 대한 패널조사는 특정 코호트를 장기간의 걸친 추적조사 함으로써 청년들의 동태적인 변화를 파악하고, 종단적인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데에 장점이 있다. 하지만 교육과 고용 이외의 여타 분야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지닌다(배상률 외, 2013). 아울러 추적조사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매년 발생되는 표본탈락은 가중치를 적용하더라도 청년 전체에 대한 대표성을 갖는 데 제한이 있고(김기헌 외, 2017), 30세 이상 연령대의 청년이나 고등학교에 다니지 않은 청년들은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청년들의 생활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조사로서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에서는 2013년과 2015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를 수행하였고, 2016년부터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으로 조사 주체가 이관되어 만 15~39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매해 반복횡단조사가 실시되고 있다(김형주 외, 2018). 조사내용은 인구와 가족, 교육과 훈련, 경제와 고용, 주거, 건강, 문화와 가치관, 관계와 참여 등으로 다각적인 측면에서 청년들의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통계청 국가 승인통계(제402004호)로 지정되어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다(김기헌 외, 2017).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청년실태조사가 다수 수행되고 있다. 이는 대체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청년정책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조사로서 그 목적을 지니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청년들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조사를 토대로 객관적 근거에 입각한 타당성 있는 정책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대표적으로 2015년 광주청년종합실태조사는 만19

세~39세 광주광역시 청년 1,200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이들의 경제적 삶, 취업과 근로, 청년 문화, 사회·정치의식, 지역사회(광주)에 대한 인식, 청년정책 인식 및 평가 등을 조사한 바 있다(김정숙, 강영배, 2017). 이어 2016년에는 대구광역시에서 대구청년실태조사를 수행하였는데, 만19세~39세 지역청년 900명과 출향청년 100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삶의 만족도 및 대구 정주의향, 주거와 소득 지출, 청년 유형별 경제활동 현황, 결혼과 가정생활, 문화와 사회참여, 귀향 청년 현황, 출향 청년 현황 등을 조사하였다(김정숙, 강영배, 2017). 2017년에는 보다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실태조사가 수행되었는데, 경기도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의 일환으로 20~34세 이하의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총 1,2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수행한 바 있다(양정선, 김다경, 유혜인, 2017). 그 외에도 전라북도 청년종합실태조사, 경상남도 청년 실태조사, 제주 청년 종합실태조사, 전주시 청년 실태조사, 안양시 청년 종합 실태조사, 옥천군 청년 종합 실태조사 등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실태조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확산되고 있는 청년실태조사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청년기본조례 및 청년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그 목적을 지니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여 심층적으로 조사한다는 점에서 이점을 가진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실태조사들이 대체로 일회성인 측면이 있고, 지역마다 청년층에 대한 정의와 조사대상 범위에 차이가 있으며, 문항설계 방식도 달라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전국적인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을 지닌다(엄창환, 강보배, 신동훈, 정현미, 2018). 아울러 최근 지방정부의 청년정책이 다소 경쟁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전국단위의 객관적 청년 지표들을 통해서 지역 간 청년들의 삶에 차이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청년 정책들을 입안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들이 뒷받침 될 필요가 있다.

2) 시사점

전술한 내용을 종합하여 청년실태 조사연구 현황 분석에 대한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사회에 청년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청년세대가 직면한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에 초점을 맞추어 지속적인 실태조사가 요구된다. 대표성 있는 청년실태조사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적시성 있는 청년 정책 수립과 운영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둘째, 청년들의 겪고 있는 사회문제가 비단 고용문제뿐만 아니라 주거, 건강, 문화, 관계 등 전반적인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청년의 삶을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인 실태조사가 꾸준히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처럼 대표성 있는 주기적인 청년실태조사 실시를 위해서는 법정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리하여 법령에 근거한 법정조사로서 청년실태조사가 실시될 필요가 있으며, 청년 정책의 근거로서 청년실태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청년실태조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조사결과 분석이 가능할 수 있도록 대규모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전국단위의 대규모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 간 청년들의 삶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고, 지역의 다양한 조건에 적합한 청년 정책들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국규모 단위의 청년들의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는 전국규모의 반복횡단조사로서 국가승인통계로서 인정받은 유일한 실태조사이다. 인구와 가족, 교육과 훈련, 경제와 고용, 주거, 건강, 문화와 가치관, 관계와 참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 핵심지표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조사해오고 있는데, 2018년을 기준으로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의 표본크기는 약 3,000명으로 다양한 청년집단과 지역별 분석을 수행하기에는 일정부분 한계를 지닌다. 이에 조사 표본을 대규모로

확대함으로써 조사의 대표성을 제고하고, 청년들의 다양한 배경과 지역별 비교분석을 통해 조사결과의 활용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는 주로 전통적인 설문조사 방식에 기반을 두어 짧게는 1년 주기의 정례조사의 형태로 수행되고 있는데, 청년세대의 빠른 변화에 조응하여 조사방식을 보다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기기 접근에 용이한 청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온라인 조사나 빅데이터 분석 등의 조사방법을 적극 활용하여 청년들의 당면한 현안들에 대한 적시성 있는 정책 수립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3. 청년정책 및 사업 추진 동향[8)]

지속되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청년들의 실업과 고용난이 이어짐에 따라 청년의 삶과 관련된 주거 문제와 건강 및 결혼과 출산, 양육 등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청년들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 대한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늘어나면서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고자 2017년 5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일자리와 관련된 주요 정책들을 심의·조정하도록 하였고, 2018년 3월에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통해 청년들의 취·창업 활성화, 취업 청년의 자산 형성 등과 관련된 정책을 발표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18a). 또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관계부처합동, 2017)과 '행복한 결혼과 육아를 위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관계부처합동, 2018b)을 통해 대다수의 청년이 포함된 신혼부부와 더불어 1인 가구 및 한부모 가족인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최근 정부에서는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을 발표하여 기존의 일자리

8) 이 절은 유설희 전문연구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및 주거, 교육, 취약청년을 위한 정책을 점검·보완함으로써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대책을 마련하였으며(관계부처합동, 2019), 청년과의 활발한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정책 참여를 지원하고자 대통령 시민참여비서관실 내에 청년소통정책관을 신설하였다(뉴시스, 2019.6.17.).

한편, 20대 국회에서는 청년들에게 사회·경제적인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청년기본법안이 2016년 이후로 여러 건 발의되었다. 지난 2018년 5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청년기본법안이 20대 국회 전반기 청년미래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발의되었으나 아직까지도 상임위원회에 계류되고 있다.

이렇듯 정부에서는 청년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주로 고용과 주거 문제 등에 집중하여 청년정책을 펼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청년기본법의 제정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반면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년들이 경험하는 문제들에 실질적으로 접근하여 해결하고자 2015년 서울시에서 최초로 청년 기본조례가 제정된 것을 시작으로 하여 현재 17개 시도뿐만 아니라 145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청년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청년들의 삶 전반을 포괄하면서도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거나 최근에 도입된 중앙정부의 청년정책과 지방자치단체별 청년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1) 중앙정부의 청년정책 및 사업

(1) 청년 일자리부문 정책 및 사업내용

지난 해 3월, 정부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이 발표된 이후(관계부처합동, 2018),

청년의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청년이나 청년을 고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다(〈표 Ⅱ-3〉 참조).

이를 살펴보면, 일자리 부문과 관련하여 청년에게 직접 지원을 하는 정책으로는 먼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있는데, 이는 자기주도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만18~34세)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하여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돕고 있다. 2019년 3월까지 약 4만 8천명이 신청했으며, 정부에서는 연내 8만 명을 대상으로 1,582억 원을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19a). 또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취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을 단계별로 제공하는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인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취업에 필요한 직무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훈련에 참여토록 직업능력 개발계좌를 발급하여 훈련비를 지원하고, 훈련이력을 종합 관리·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 기업·사업주단체·대학·훈련기관이 대학과 협력하여 우수기업이 요구하는 직무역량을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교육과정 제공, 협약기업에 취업을 연계하는 '청년취업아카데미' 등이 있다.

다음으로 청년을 고용한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에게도 간접적으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정책으로는 청년을 신규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게 3년간 2,700만원을 제공하는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청년에게 2년간 1,600만원 또는 3년간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이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2019년 3월 기준 총 18만 6천명이 가입을 하였으며,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의 1년 이상 근속 비율은 78.1%로, 일반 중소기업 취업청년(48.4%)에 비해 29.7%가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19a). 또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를 실시하여,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채용토록 의무를 부과하였고, 매년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이행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며 미이행 기관 명단을 공표하고자 하였다. 2018년 기준 대상기관 447개소 중 367곳이 이행했으

며, 2018년 청년 신규고용은 25,676명으로 35.6% 증가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19a).

표 II-3 청년 일자리부문 정책 및 사업 추진 내용

영역	지원대상	지원내용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 만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생애 1회)	• 월 50만원 × 6개월 지원, 지원 중 취업 시 지원 중단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 지급 - 유흥·도박 등 일부 업종 제한 - 현금화 불가한 클린 카드
청년취업 성공패키지	• 18~34세 미취업자 - (Ⅰ유형) 저소득층(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구직자, 취업취약계층(미혼모, 한부모 여성가장 등) - (Ⅱ유형) 청년층(18~34세), 각 단계별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및 수당 지급	• 패키지 Ⅰ - 1단계(상담·진단) : 3주~1개월, 참여수당 최대 25만원 - 2단계(직업능력향상) : 최장 8개월, 훈련비 300만원(내일배움카드, 최대 10%), 참여수당 월 최대 40만원(최대 6개월) - 3단계(취업알선) : 최장 3개월, 취업성공 시 최대 150만원 지급, 청년구직촉진수당 월 30만원(최대 3개월) • 패키지Ⅱ - 1단계(상담·진단) : 1주~1개월, 참여수당 최대 20만원 - 2단계(직업능력향상) : 최장 8개월, 훈련비 200만원(내일배움카드, 자부담 5~50%), 참여수당 월 최대 40만원(최대 6개월) - 3단계(취업알선) : 최장 3개월, 청년구직촉진수당 월 30만원(최대 3개월)

영역	지원대상	지원내용
내일배움카드	• 15세 이상 학력무관, 미취업자	• 1년간 훈련비의 20~95% 지원(최대 200만원) -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 50~95% -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최대 300만원까지 훈련비 전액 또는 90% 지원(자부담 면제) - 훈련종료 후 6개월 이내 훈련 직종에 취·창업하여 6개월 이상 유지시
청년취업 아카데미	• 인문·사회·예체능 계열의 대학 재학생, 대졸예정자 위주	• 청년들이 원하는 직무분야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무료 제공(287개 과정) -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훈련 프로그램으로 참여한 경우 월 28.4만원의 참여수당(최대 6개월) - 협약대학에 한해 학점인정, 연수과정 수료 후 협약기업 등으로 취업 연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18.3.15.~'21.12.31.)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군 복무 기간만큼 비례하여 추가인정 (만39세까지) - 성장유망업종, 청년창업기업 및 벤처기업·문화콘텐츠산업 등 일부 업종은 5인 미만도 가능 - 사행산업, 유흥업, 베팅업 등 일부업종 제외 - 공공기관, 정부출연·출자기관, 인건비 정부지원기업 제외	• 요건: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전년말보다 근로자 수 증가 *(30인 미만)1명 이상 고용, (30~99인) 2명 이상 고용, (100인 이상) 3명 이상 고용 • 수준: 청년 신규채용 1인당 年 900만원*, 3년 간 지원 *고용위기지역(군산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목포시, 영암군) 500만원 추가(1인당 年 1,400만원) 지원
2년형 청년 내일채움 공제	•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 및 '채용기업' - (청년) 중소·중견기업 정규직으로 생애최초 취업한 청년(취업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2년간 청년·기업·정부가 함께 적립하여 자산형성(1,600만원) - (청년) 2년간 300만원 적립(매월 12.5만원×24개월) - (정부) 2년간 900만원 적립(2년

영역	지원대상	지원내용
	*군 복무 기간만큼 비례하여 추가인정(만39세까지)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 단,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문화컨텐츠산업·신재생에너지산업 해당 기업 등은 5인 미만 가능	간 5회 분할 적립) - (기업) 2년간 500만원 지원 받아, 400만원을 청년에게 적립(기업 순지원금 100만원)
3년형 청년 내일채움 공제	•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 및 '채용기업' - (청년) 중소·중견기업 정규직으로 생애최초 취업('18.3.15.~'21.12.31.)한 청년(취업일 기준 만15세 이상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만큼 비례하여 추가인정(만39세까지)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 단,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문화컨텐츠산업·신재생에너지산업 해당 기업 등은 5인 미만 가능	• 3년간 청년·기업·정부가 함께 적립하여 자산형성(3,000만원) - (청년) 3년간 600만원 적립(매월 16.5만원×36개월) - (정부) 3년간 1,800만원 적립(3년간 7회 분할 적립) - (기업) 3년간 750만원 지원 받아, 600만원을 청년에게 적립(기업 순지원금 150만원)

* 출처: 고용노동부(2018). 청년고용지원정책. pp.1-6의 내용을 표로 재구성
고용노동부(2019).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서 발췌

청년 일자리 대책의 영향으로 청년층의 고용율이나 경제활동참여율 등 일부 고용지표가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다른 연령층에 비해 청년층의 실업률과 확장실업률이 높아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여건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9년 7월 17일,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관계부처합동, 2019)을 통해 청년의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활용하여 새로운 직업 생태계 조성과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년을 위한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한 '新직업 창출·

확산'과 청년 창업에 대한 재정 및 공간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창업 활성화', 중소기업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청년층의 채용 기회를 확장하기 위한 '좋은 일자리 중소기업 확산' 등을 주요과제로 하고 있으며(〈표 Ⅱ-4〉 참조), 2019년 하반기부터 세부 계획에 따라 추진할 예정이다.

표 Ⅱ-4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의 일자리 부문 주요 과제

영역	주요과제	
일자리: 창의와 도전의 기회 제공	(1) 新직업 창출·확산	1 新직업 Making Lab 설립 - 유연한 新직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新직업을 창출·정착시키는 全주기적 프로그램을 신설
		2 新직업인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격제·등록제 신설 ❶ (동물보건사) 반려동물 산업 확대, 노령견 증가 등에 대응해 체계적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동물간호 국가전문자격제도 도입 ❷ (마리나 요트 정비사) 마리나 산업 활성화, 마리나 선박 안전성 향상 등 위해 마리나 요트 정비업을 신설하고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설 추진
	(2) 창업 활성화	1 청년 초기 창업자의 재정·경영 부담 완화 ❶ (청년전용창업 융자 확대) 우수 청년 초기 창업자가 운전자금 등 조달 걱정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년 융자자금 300억원 추가 공급 ❷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확대) 창업 3년 이내 청년창업기업의 행정업무 부담완화를 위해 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공급 확대
		2 청년창업펀드 추가 조성 - 투자성과('13년 이후 총 967개 기업에 투자) 및 빠른 투자집행 속도를 감안, '20년 모태펀드 추가 출자 통해 1,000억원 규모 신규 청년창업펀드 조성
		3 농식품 분야 청년창업 지원 강화 ❶ (청년키움식당 확대) 청년 참여확대 및 지역분산 위해 사업장 추가 개설 ❷ (스마트팜 전문 보육체계 구축) 스마트팜 청년 취·창업보육 프로그램(20개월)을 도입하고, 지자체 부지를 활용한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공급

영역	주요과제	
	(3) 좋은 일자리 중소기업 확산	1 '중소기업 클린업(Clean Up) 프로그램' 시범 도입 - 청년 신규채용·근로환경 개선 의지가 있으나 투자여력이 부족한 中企에게 최소한의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화장실·샤워실 개·보수 지원
		2 좋은 일자리 중소기업 취업 확산 프로그램 확대 ❶ (청년친화 강소기업 분야 확대) 청년 선호 업종, 미래 성장가능성 등을 고려해 청년친화 강소기업 대상 업종을 확대 ❷ (좋은 일자리 중소기업 플랫폼 구축) 중앙부처·지자체의 각종 우수 중소기업 인증 정보*를 통합하고 유형별로 제공 ❸ (중소기업 청년체험단 도입) 근무환경이 우수한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에서의 청년 현장경험(3개월)을 지원하여 채용기회 확대
		3 청년내일채움공제 활성화 - 재가입 허용사유에 임금체불로 인한 중도해지를 추가하고, 신청서류 간소화 등 행정절차 개선을 통해 청년·기업 부담 완화

* 출처: 관계부처 합동(2019).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 6-8쪽 내용을 표로 재구성.

이와 더불어, 배달이나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의 영역에서 특수고용형태종사자로서 플랫폼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산재보험을 강화하고,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플랫폼 노동자의 규모나 근로시간, 연령 등의 실태조사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설계하는 데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오프라인 청년센터(2019년 기준, 전국 16개소)에서 장기구직자나 저소득층 등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 대상으로 1년 단위로 밀착 멘토링을 제공하는 것을 통해 취약한 청년들의 자립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관계부처합동, 2019).

(2) 청년 주거 부문 정책 및 사업내용

청년층의 고용난이 지속됨에 따라 청년이 스스로 주거를 위한 자산을 마련하는

것이 힘든 현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년층이 감당하기에 부담이 되는 높은 주거비용은 청년들이 결국 옥탑방이나 반지하, 고시원 등 열악하고 안전하지 못한 주거 환경에 내몰리도록 한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7년 11월 29일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 정책을 포함한 '주거복지로드맵'(관계부처합동, 2017)을 발표하여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임대주택 제공 및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도입, 전월세자금 지원 등과 관련된 정책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는 신혼부부 포함 및 혼인기간 확대를 통해 신혼부부 지원 대상 범위를 넓히고자 하였으며, 공공임대주택과 신혼희망타운, 분양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금리 인하 등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또한,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제공하는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이 제한적이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주거 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2017년에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지원을 구체화한 '행복한 결혼과 육아를 위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관계부처 합동, 2018b)을 발표하였다.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서는 청년들에게 맞춤형 주택과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신혼부부를 위해 공공주택과 민간주택특별공급, 육아 특화단지 조성 등을 통해 아동 친화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한부모가족에게도 이러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주거복지로드맵과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등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이 강화되면서 이들이 경험하였던 주거 문제도 일부 개선되었다고 보고되었다(국토교통부, 2019). 2018년 주거실태조사 결과(국토교통부, 2019)에 의하면, 청년 가구의 경우 지하·반지하·옥탑에 거주 비율이 감소('17년 3.1% → '18년 2.4%)하였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중('17년 10.5% → '18년 9.4%)도 낮아졌다. 또한, 신혼부부는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면서 자가에 거주하는 자가점유율이 증가('17년 44.7% → '18년 48.0%) 추이를 보이는 등 주거 안정성이 강화되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정부에서는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관계부처합동, 2019)에서 청년층의 주거 지원에 대해 공급자 중심적인 주거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교통요지에 있는 주거를 공급하고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표 Ⅱ-5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의 주거 부문 주요 과제

영역	주요과제
주거: 교통요지에 저렴한 주거지 공급	1 공공청사 복합개발 통한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수도권 등 주거비 부담이 높은 지역 내 교통접근성이 좋은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하여 직주근접형 청년 임대주택·신혼희망주택으로 공급
	2 역세권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셰어하우스 공급 - 노후주택 리모델링 사업 지원 단가를 현실화해 실수요가 높은 역세권 고시원을 청년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 - 안전한 주거여건 확보를 위해 화재 예방설비 설치비용 지원
	3 기숙사 공급 확대 ❶ (기숙사형 청년주택) '22년까지 5천호(1만명)를 공급하고, 장기 공실 발생 시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입주 소득요건을 완화 ❷ (연합기숙사) 신규 국·공유지를 발굴(예:대구시 중구 수창동)하여 지역사회와 상생 가능한 생활 SOC 연계 기숙사 확대
	4 청년층 주거 지원 확대 ❶ 주택금융 정책 대출 및 보증의 신혼부부 인정범위를 혼인기간 5년 → 7년 이내로 확대하여 결혼 후 주거비부담 완화 ❷ 취약청년 및 신혼·다자녀부부 대상 전세임대 우대금리를 신설하여 전세임대 주택 임대료 부담 경감

* 출처: 관계부처 합동(2019).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 9-10쪽 내용을 표로 재구성.

세부적으로 추진되는 과제들을 살펴보면(〈표 Ⅱ-5〉 참조), 주거비 부담이 높은 지역 내 교통접근성이 좋은 공공청사를 개발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한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실수요가 높은 역세권 노후 고시원을 청년셰어하우스로 공급하는 '역세권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셰어하우스 공급'과 기숙사형 청년 주택 및 지역사회와 상생

가능한 연합기숙사를 확대하는 '기숙사 공급 확대', 신혼부부의 주택금융 정책대출 및 보증 요건 완화 및 취약청년과 신혼·다자녀 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 우대금리를 통해 전세임대주택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키는 '청년층 주거 지원 확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정책이 잘 추진된다면 청년층은 교통이 편리한 주거지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으며, 취약청년이나 신혼부부 등도 주거비용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3) 청년 생활 및 복지부문 정책 및 사업 내용

우리나라 청년들은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학업, 취업, 육아 등에 대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다. 지난 2017년 9월 윤소하 의원은 국정감사 보도자료(윤소하 2017.9.20.)를 통해 경추질환 등 일부 근골격계 질환, 공황장애 및 우울증, 궤양성 대장염 및 크론병과 장염 등 소화계 질환, 급성신부전, 전립선 증식증 등 많은 질환 영역에서 전세대를 통틀어 청년들의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음을 처음으로 제기하였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으로서 청년들의 학업, 취업, 육아들에 대한 스트레스를 사회 전체가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나, 우선 건강검진에 소외되어 있는 청년들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이라도 시행할 것을 촉구하였다(윤소하, 2019.09.30.).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정부에서는 20~30대 청년들의 신체·정신건강에 대한 우려와 건강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올해 시행되는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에 20~30대 피부양자·세대원도 검진대상에 포함하였다. 기존 건강검진에서는 20~30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의 한해서만 이루어져 왔으므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모든 연령대가 무료 건강검진의 혜택을 받아왔지만 세대주 외의 지역가입자는 만40세 이상으로 그 대상이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2019년 1월 1일부터는 세대주가 아닌 20~30대도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건강검진 비용은 국민건강보

험공단에서 전액을 부담하게 되며,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국가와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하게 되므로, 본인 부담 비용은 없게 된다. 20~30대 청년이 받을 수 있는 검진으로는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요인인 비만, 이상지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검진항목 및 청년세대의 우울증 조기 발견과 관리를 위한 정신건강검진도 함께 실시된다.

또한,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와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19b). 육아휴직급여 첫 3개월은 통상임금 40%에서 80%로 인상되었고,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의 경우, 50만원·90만원(다태아)에서 60만원·100만원(다태아)로 강화되었다(〈표 II-6〉 참조).

표 II-6 육아휴직급여 인상 및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강화

	인상 전	인상 후
육아휴직급여(첫 3개월)	통상임금 40% 월100/50만원(상/하한)	통상임금 80% 월150/70만원(상/하한)
육아휴직급여(3개월 이후)	통상임금 40% 월100/50만원(상/하한)	통상임금 50% 월120/70만원(상/하한)
아빠육아휴직보너스	월 150만원(상한)	월 250만원(상한)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50만원·90만원(다태아)	60만원·100만원(다태아)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2019b). 내 삶을 바꾼 2년 ⑤ 가정·부모 편

2)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및 사업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등 지역 내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최근에 청년정책을 새롭게 수립한 시·도별 청년정책 추진 현황 및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 Ⅱ-7 세종특별자치시의 '청년정책 기본계획(2019~2023년)'

전략	중점 추진 과제
1 청년정책 인프라 구축	• 세종 청년공감회관 설치 • 청년지원센터 설립 • 세종 청년 온라인 플랫폼 구축 • 청년통계조사 내실화 운영
2 참여확대와 권리보호	• 청년위원 할당제 도입 • 세종청년 참여 네트워크 구성 • 세종 청년주간 운영 • 청년 노동권리지킴이 사업 운영
3 보편적 능력개발 지원	• 청년맞춤형 온·오프라인 평생교육 지원 • 세종청년 장학사업 확대 • 세종형 도제학교 운영 내실화
4 청년친화형 일자리 환경 조성	• 4차 산업혁명 및 첨단산업 관련 기업 유치 • 청년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 청년친화형 기업정보 제공 • 대학생 행정인턴 사업 운영 • 청년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 및 역량강화 지원
5 안정된 삶 기반 조성지원	• 세종형 쉐어하우스 등 청년임대주택 보급 • 산업단지 청년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지원 •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셉테드) 사업 추진 • 사회공헌형 세종청년 지역애(愛) 사업 추진 • 대학생 등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운영 • 청춘 건강상담소 사업 운영 • 공공시설 활용, 작은 결혼식 운영
6 청년 중심 문화 활성화	• 청년 문화공연 확대 • 청소년(청년) 복합문화공간 조성 • 청년예술가 육성 지원

* 출처: 세종특별자치시(2019). 청년정책 기본계획(2019~2023년). p.20. 표를 재구성.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지난 2016년 12월에 제정된 '세종특별자치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2019년 1월에 '청년정책 기본계획(2019~2023년)'을 발표하여, 2019~2023년 동안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만1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정책을 추진함을 밝혔다(〈표 Ⅱ-7〉 참조). 특히, 세종특별자치시는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타 시·도와 달리 인구구조상 청년 이하 인구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지역 청년이 경험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 및 정책적 대응을 통해 청년의 안정적인 정책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행복한 내일이 있는 청년, 청년이 살기 좋은 세종'을 비전으로 6대 전략 26개 중점과제로 구성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향후 5년간 1,322억 원(국비 559억 원, 시비 723억 원)을 투입하여 '아픔 없는 청춘'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청년정책 6대 전략은 ① 청년정책 인프라 구축, ② 참여확대와 권리보호, ③ 보편적 능력개발 지원, ④ 청년친화형 일자리 환경 조성, ⑤ 안정된 삶 기반 조성 기원, ⑥ 청년중심 문화 활성화 등이다.

전략별 중점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청년정책 인프라 구축 전략에서는 세종 청년 공감회관 설치, 청년지원센터 설립, 세종 청년 온라인 플랫폼 구축, 청년통계조사 내실화 운영 등을 실시한다. 다음으로 참여확대와 권리보호 전략의 경우, 청년위원 할당제 도입, 세종청년 참여 네트워크 구성, 세종 청년주간 운영, 청년 노동권리 지킴이 사업 운영 등을 통해 실현하고자 한다. 세 번째로 보편적 능력개발 지원 전략은 청년맞춤형 온오프라인 평생교육 지원, 세종청년 장학사업 확대, 세종형 도제학교 운영 내실화 등을 중점과제로 한다. 네 번째, 일자리 환경조성 전략은 4차 산업혁명 및 첨단산업 관련 기업 유치, 청년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청년친화형 기업정보 제공, 대학생 행정인턴 사업 운영, 청년창업지원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실시할 예정이다. 다섯 번째, 청년 삶 기반 마련 전략에서는 세종형 쉐어하우스 등 청년임대주택 지원, 산업단지 청년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지원, 사회공헌형 세종청년 지역애(愛) 사업, 대학생 등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청년중심 문화 활성화 전략은 청년 문화공연 확대, 청소년(청년) 복합문화공간 조성, 청년예술가 육성 지원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다음으로 경상남도에서는 '경상남도 청년 기본조례' 제6조에 근거한 2019년

3월에 ‘2019~2023 경상남도 청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의 참여·권리 보호, 능력개발, 청년일자리 및 주거·생활안정, 청년문화 등 5가지 핵심영역을 설정하여 청년정책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표 Ⅱ-8〉 참조).

청년들의 정책적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 경상남도에서는 청년정책을 크게 ‘일터’, ‘삶터’, ‘놀이터’ 3개 부문으로 나누었으며, ‘일터’에서는 3개 분야 29개 과제, ‘삶터’에서는 3개 분야 17개 과제, ‘놀이터’에서는 3개 분야 17개 과제 등 총 63개 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일터’에서는 창업 지원, 일자리 지원, 능력개발 지원을 통해 청년창업 및 청년상인 지원을 통한 청년의 창업기반을 확대하고, 청년 일자리 플랫폼을 통한 구직 청년 지원 사업을 전개하며, 청년의 일 경험 제공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 및 취업 연계를 지원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삶터’에서는 생활안정, 결혼·여성, 권리보호 분야를 통해 청년의 부채를 감소하고 이자 지원을 통해 청년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니트, 아르바이트, 여성 청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청년의 자립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놀이터’에서는 문화 육성, 참여 확대, 혁신 기반 분야를 통해 청년예술인 육성 및 청년문화 확산으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들의 정책참여 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공간 제공, 청년정책 전문 활동가 양성 등 청년의 사회혁신 활동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경상남도에서는 이번 계획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정책의 당사자인 청년을 비롯해 다양한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데, 정책 수요자인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청년네트워크’를 구성해 청년들이 정책에 직접 참여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경상남도, 2019a). 이에 따라 실제로 이번 기본계획에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11개 사업이 반영되었고, 대표적인 사례로서 ‘청년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은 3인 이상의 경남 청년이 참여하는 동아리에 활동비를 지원하고, ‘경남 청년 동아리

반상회'를 주기적으로 열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이 추가되었다. 또한 청년의 사회참여와 정책 대표성 확대를 위해 경상남도 위원회에 청년비율 15%를 의무적으로 할당하도록 하는 '경상남도 소관 위원회 청년할당제'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경상남도에서는 정책 대상자인 청년들의 생생한 의견을 기본계획에 반영함으로써 기존의 행정 주도 '일자리 중심 청년정책'에서 벗어나 청년의 참여, 권리보호, 문화활동 등 전반적인 청년문제를 고려한 청년정책을 실현하고자 노력하였다(경상남도, 2019a).

표 II-8 경상남도의 '2019~2023 경상남도 청년정책기본계획'

부문	분야	사업명
일터	창업	1. 청년 창업사관학교 분리유치 2.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지원 3. 청년 창업아카데미 운영사업 4.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5. 스타트업 아이디어 고도화 지원사업 6.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7. 경상남도 창업보육센터 운영 8. 청년창업희망센터 구축 9. 창원산단 청년 기술창업 특성화 사업 10. 스타트업 캠퍼스 조성 11. 청년 창업농 성공경영 원스톱 서비스 12. 청년농업인 경쟁력 향상 13. 스마트팜 조성 및 청년창업보육센터 14. 청춘 푸드트럭 창업지원 사업
	일자리	1. 경남형 뉴딜일자리 2. 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 3.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4. 경남 청년채용 중소기업 근무환경개선사업 5. 청년일자리 플랫폼 운영 6. 경남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7. 농촌체험휴양마을 청년사무장 채용 지원 8. 경남 청년 장인 프로젝트

부문	분야	사업명
	능력개발	1. 청년EG(취업 가이드) 사업 2. 고졸(예정)자 취업 특화과정 3. 청년취업 멘토링 콘서트 4. 경남형 포트랙 사업 확대 추진 5.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지원 6. 지역인재 육성 사업 7. 지능형 로봇 인력양성센터 운영
삶터	생활안정	1.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2. 학자금대출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3.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 4. 경남 대학생 기숙사 지원 5.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6. 서민자녀 대학 입학생 장학금 지원 7. 청년 갭이어 8. 저임금 프리랜서 청년 씨앗 통장 9. 경남상생 공제사업 10. 경남청년 내일채움 공제 11.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 사업
	결혼·여성	1. 작은 결혼식 2. 신혼부부 주택 우선공급 및 지원 3. 청년 여성 생애주기별 지원 4. 일·가정 양립 시범기업 지정 확산
	권리보호	1. 청소년 근로자 노동권익 보호 2.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자 실태조사
놀이터	문화	1. 청년 버스킹 공간 및 청년문화거리 조성 2. 청년 예술인 육성 3. 경남도립미술관 인턴교육 4. 청년 K-Star 밀양 연극 아카데미 5. 문화예술 교육사 인턴십 6. 청년 문화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7. 청년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
	참여	1. 청년 활동 공간 지원사업 2. 경상남도 위원회 청년 할당제 3. 경상남도 청년사랑방 4. 청년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

부문	분야	사업명
		5. 경상남도 청년센터 설치 및 운영 6. 시·군 청년터 조성
	혁신	1.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 및 채용비리 예방 2. 청년 오프라인 홍보 플랫폼 3. 청년정책 전문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 4. 청년 프로젝트 지원사업

* 출처: 경상남도(2019b). 2019~2023 경상남도 청년정책기본계획. pp.18-19의 표를 재구성.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에서는 지난 2017년 5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 종합 지원 계획인 '청년 디딤돌 플랜'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부산광역시, 2017). 부산광역시에서는 청년문제가 일자리 부문뿐만 아니라 주거·부채 등에서의 문제가 유기적으로 작용하여 악화되고 있음을 인식하여, 그동안 일자리에 집중되었던 청년정책을 주거, 부채경감, 청년활동 보장 등을 포함해 생활안정 전반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하고자 하였다.

부산광역시의 청년정책은 ① 일자리 디딤돌, ② 안전망 디딤돌, ③ 머물자리(주거) 디딤돌, ④ 참여 디딤돌 등 4개 분야로 나뉜다(부산광역시, 2017). 주요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일자리디딤돌 분야에서는 청년들이 구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취업디딤돌카드(취업지원카드)'를 통해 니트족 등 청년에게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19~34세 이하 청년 중 중위소득 80% 이하의 청년은 월 최대 50만원(연 240만원) 이내에서 자격증 취득, 학원비, 교통비, 교재구입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청년희망적금 2000(부산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인원도 '17년 현재 목표 인원 680명에서 향후 1,000명으로 단계별 확대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확대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둘째, 머물자리 디딤돌 분야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청년 주거 빈곤층과 주거비 부담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인식하여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40만 원이하

주택에 대한 임차 보증금 융자 및 이자 지원 사업인 '머물자리론(Loan)'을 실시하고, 드림아파트 20,000호와 쉐어하우스 130가구, 행복주택 9,000호 등 약 3만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한다.

셋째, 안전망 디딤돌 분야에서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일용 근로 등 저소득 청년이 학자금, 주거, 결혼문제로 생계 곤란을 겪지 않도록 월10만원을 저축하면 부산시가 1:1 비율로 추가 적립해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희망날개통장'과 청년 신용유의자가 일정 기간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1,500만원 이내의 목돈을 1% 대 저리로 지원하는 '청년 부비론(Bu-vi Loan)'이 실시된다. 아울러, 소득 감소와 육체 및 정신건강 불평등 심화로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차상위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지역 보건소를 통한 무료건강검진사업인 '우리동네 청년 지킴이' 사업과 '청년 정신건강 상담'도 이루어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참여 디딤돌 분야에서는 청년활동의 다양한 지원과 청년과 민관협치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 부산시와 청년간 거버넌스 체계인 '청년정책 네트워크'의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 아카데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가 지원하고, 100여명 주민참여예산 위원 중 25명의 청년위원을 임명하여 균형 있는 세대 참여를 지원한다. 또한 청년문화 지원프로젝트인 '굿아이디어스'(대학 동아리 지원)와 '청년문화기획자 인턴십 프로그램' 도 실시하여 청년의 사회·문화 활동이 구직 활동과 연계되도록 하고자 한다.

표 Ⅱ-9 부산광역시의 청년정책 세부 내용

분야	주요 사업 내용
일자리	• 청년디딤돌 카드 -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디딤돌 체크카드 지원 - (지원내용) 자격증 취득, 학원비, 교재구입비 등 구직활동 직접비/교통비, 문구류 구입비, 식비 등 구직활동 간접비 • 정장대여서비스(드림옷장)

분야	주요 사업 내용
	-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업부담 경감 및 성공취업 지원 - (사업내용) 취업준비생 입사면접용 정장 무료대여(자켓, 셔츠, 블라우스, 치마, 바지, 넥타이, 벨트, 구두 등) • 취업준비땅 - 지역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의 진로탐색 및 설계 지원 프로그램 앱을 통해 자기주도적 취업역량 향상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완화 - (사업내용) 취업준비생들의 진로탐색, 취업준비 안내 및 상담 • 청년 해외취업 지원 - 당면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국내일자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취업 청년들에게 해외취업 기회를 확대하여 해외일자리 영토 확대 - (지원내용) 미취업 청년 1인당 교육·연수비(국내 및 해외과정, 3개월 이상) 500만원 지원, 부산시 주도 해외취업박람회 및 설명회 개최(연 4회) • 창업기원 인턴지원 - 초기 창업기업의 인건비 부담해소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미취업 청년층 및 기술직 은퇴자들에게 일자리 제공
주거	• 머물자리론 -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과 이자를 지원하여 청년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 - (지원내용) 임차보증금 융자(최대한도: 3천만원 이하) 및 3% 이자 지원 • 청년 월세 지원 - 부산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청년들의 주거 독립을 지원하고 지역에서의 정주를 유도 - (지원내용) 월 임대료 중 10만원 월세 지원(연 최대 90만원) • 행복주택 -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및 산업단지 젊은 계층의 주거난 해소와 청년층 유입을 통한 활기찬 도시공간을 창출 • 햇살둥지 사업 - 빈집(공가)의 장기간 방치로 인한 폐가화를 사전 방지하고, 공가를 새로운 주거공간으로 재창출하여 지방학생과 신혼부부 및 저소득 서민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 공가 소유자에게 빈집 리모델링 비용의 일부 지원하고, 리모델링 후 집주인이 지방학생, 신혼부부, 저소득 서민 등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임대 • 드림아파트 - 대중교통이 편리한 상업지역에 규제 완화를 통해,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문화 안정 지원

분야	주요 사업 내용
	•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 – 청년층은 높은 주거비/청년실업률 등으로 어려움이 크고, 일부는 쪽방/고시원 등 열악한 곳에 거주하고 있어 주거지원 강화 필요 – (지원내용) 시행처에서 주택을 매입, 입주대상자인 청년에게 임대(임대조건: 시세의 30% 수준(단, 3순위의 경우 시세의 50% 수준), 임대기간 2년(최장 6년))
생활안정	• 청년부비론 – 학자금 및 생활비 대출로 인하여 채무불이행자로 전락, 사회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저금리 융자로 신용회복 지원 – (지원내용) 최대 1천5백만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출 (연 1% 고정금리, 5년간 매월 원리금 분할상환) • 청년 마음건강 증진 – 직무 및 취업(학업) 등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청년층이 증가함에 따라, 청년층에 대한 정신건강관리 필요 – (주요내용) 대학생 및 직장인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정신건강 상담, 검사, 교육 등) • 청년희망날개통장 – 저소득 근로 청년을 대상으로 본인 저축액에 시 적립금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근로의욕 고취와 자립기반 조성을 지원 – (사업내용) 본인저축액 10만원에 시 적립금 10만원 1:1 매칭지원(3년 가입) •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 수도권 대비 지역대학 경쟁력 약화에 따른 지역대학 역량강화 지원 및 우수인재의 유치와 지역정주환경 조성을 위하여 ‘17년 3월 개관한 “부산행복연합기숙사” 일부를 장기임대하여 입소자 기숙사비 지원 – (지원규모) 기숙사비 지원(1인당 월5만원, 연60만원) •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 수도권 대비 경쟁력이 약한 지역 대학생들에게 재학기간 중 대출한 학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대책 마련 – (지원규모) ‘16년 이후 대출분부터 발생한 상환이자 1년분 지원(대학 재학기간중 (휴학 6학기 포함)) • 청년 금융 특강 – 부산 청년(대학생)들의 금융지식 부족으로 인한 신용·부채관리 실패 및 금융사기 피해방지, 금융마인드 제고 – (주요내용) 부산 청년들을 위한 찾아가는 금융 특강(학자금 대출과 부채관리 기초, 대학생 신용관리 방법 등, 금융사기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 금융사기 예방 수칙,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예방, 금융회사 불완전 판매예방)

분야	주요 사업 내용
문화	• 청년 문화활동 지원 -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도시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제고하고 활기찬 청년문화도시 조성 - 청년문화 활성화 프로젝트, 청년예술가 창작활동 지원, 아트마켓 활성화, 청년문화전문인력 양성, 청춘마이크 사업 등 • 청년문화박람회 개최 - 젊고 유능한 청년예술인들의 외부 유출을 막고 지역문화 발전과 도시의 창조역량 강화를 위하여 청년 및 부산시민 모두가 즐기는 문화축제 개최 • 청년문화 인력 양성 - 실무중심 교육 및 워크숍을 통해 다양한 청년 문화 인력을 양성 및 청년문화 전문인력 양성 수료자 실무능력 향상 기회 제공을 통한 일자리 매칭 • 청년문화 네트워크 - 청년 예술가 해외진출, 국내외 연계 지원 등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폭넓은 작품활동 지원 • 청년문화 인프라·공간 지원 - 지역별 문화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청년문화 콘텐츠 발굴지원
참여	• 청년정책 네트워크 - 청년문화, 복지, 주거 등을 포괄하는 청년종합대책 수립 및 각종 청년정책 개발과 과제추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들과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운영 - (주요역할) 청년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아이디어 등) 제시로 시정참여 확대, 정책제안 역량 및 청년 간 교류를 위한 청정넷 프로그램 참여 • 청년위원회 - 청년 당사자와 기타 전문가의 시정참여를 기반으로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는 민관협의체 필요 - (주요역할)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계획변경 포함)에 대한 심의,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등 • 주민참여예산 청년참여 - 주민참여 예산편성 과정에 청년참여를 보장하여 세대별 균형 있는 시정참여 및 민-관 거버넌스 구축 - (기능) 주민들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 방안에 관한 사항, 공청회, 간담회 등에서 수렴된 주민의견의 조치방안 등,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100명(공무원 7명, 위촉직 93명) 중 청년 20명 할당) • 청년 두드림 센터 - 청년들의 취업문제 등 일자리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하고 민관협업을 통한 청년들의 홍보·소통 공간으로 조성

분야	주요 사업 내용
	- (지원내용) 일자리·알바 상담지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청년문화, 창업지원 등 청년커뮤니티 공간제공 • 청년창조발전소 - 대학가를 중심으로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청년창조공간 제공 - (지원사항) 청년이 생산·소비 주체가 되는 문화·예술·산업·교육학습·창업 등의 창조적 프로그램 지원

* 출처: 부산광역시(2019). 부산청년플랫폼: 한눈에 보는 부산청년정책.

3) 시사점

우리나라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정책들을 살펴본 결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는 청년정책의 실현 기반과 정책 내용에서도 다소 차이가 있었다.

먼저, 중앙정부에서는 현재 청년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인식함에 따라 2018년에 이어 올해에는 대통령 비서실 내 청년소통정책관을 신설하여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을 발표함으로써 기존의 일자리나 주거, 교육 및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들을 보완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계층의 양극화를 완화하려는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앙정부에서는 청년 문제에 대해 주로 일자리와 주거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각 영역별로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의 부처에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부처별로 청년들에 대한 정의나 범위, 기준 등을 달리 설정하여 각각의 정책이나 관련 제도를 이행하고 있는 점은 향후 정책 간 연계성이나 중복의 문제, 지속성과 효과성의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청년의 삶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합의된 법률 체계 마련이 더디게

진행됨에 따라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권한을 가진 주무부처나 기구가 명확하게 지정되어 운영되지 않은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년정책을 실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기본조례를 우선 제정한 후,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청년들이 처한 다양한 상황과 욕구를 반영함으로써 청년의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하여 지원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앞서 살펴본 세종특별자치시와 경상남도,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정책에서는 공통적으로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청년들의 고용 환경을 조성하면서 청년들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 창업을 지원 등을 위한 정책과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한 임대주택이나 대출 및 이자, 월세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각 지역별로 청년정책을 계획하고 수립 및 평가하는 청년위원회와 실제적으로 청년들과의 교류를 통해 청년정책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되는 청년정책 네트워크나 청년센터 등을 운영함으로써 청년정책이 실제 청년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청년들의 작은 결혼식을 지원하거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상담 및 검사 등의 서비스 제공, 청년 중심의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와 공간, 인적 자원 지원 등 청년들의 삶과 밀접한 정책들을 실현해나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청년들은 지속되는 고용난과 양질의 일자리 부족, 사회·경제적인 양극화 심화, 높은 주거비용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 및 부채 증가, 결혼 및 출산 의지 저하, 교육·취업 경쟁 및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한 신체 및 정신 건강이 악화되는 등 여러 영역에 걸쳐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점차 심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중앙정부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현재 청년들이 당면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기본법이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청년기본법이 제정된 후에는 청년정책을 계획하고 실현하는 주무부처나 기구가 현재 각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청년정책들의 방향성과 내용을 조정하는 총체적인

역할을 집중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청년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청년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법률과 추진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향후 중앙정부에서는 17개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청년정책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효과적으로 잘 시행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청년들을 위한 정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대통령 비서실에도 청년소통정책관이 신설된 만큼 온·오프라인으로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여 청년정책의 계획 및 결정 단계에서 다양한 청년들의 의견과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참여 기회도 확대되어야 한다.

4. 청년관련 법률 현황[9)]

1) 청년기본법안

초기 청년 정책과 관련한 법률을 살펴보면, 청년의 고용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노무현 정부시기에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으로 개정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김기헌 외, 2017). 이는 IMF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청년 실업 및 고용문제가 부각되면서 기한을 정해 적용되는 한시법으로서 마련되었으나, 청년의 고용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재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2018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해당 법률의 유효기간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였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9a).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한시법으로 기한을 계속 연장하는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비단 고용문제뿐 아니라 청년의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의 문제들이 심각해짐에 따라 청년 문제를 종합적으로 지원

9) 이 절은 연보라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하기 위한 법률로서는 한계점을 지닌다(김형주 외, 2018).

이에 청년문제를 전반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청년기본법」 제정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왔으며, 20대 국회에 들어서 「청년기본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된 바 있다. 2016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발의된 관련 법안은 총 9건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Ⅱ-10〉과 같다.

표 Ⅱ-10 제20대 국회의 청년기본법안 입법 발의 현황

의안명	청년 기본 법안	청년 정책 기본 법안	청년 기본 법안	청년 발전 기본 법안	청년 기본 법안	청년 발전 지원 기본 법안	청년 기본 법안	청년 기본 법안	청년 발전 지원 기본 법안
대표 발의	신보라 의원	박홍근 의원	이원욱 의원	김해영 의원	박주민 의원	강창일 의원	채이배 의원	이명수 의원	신보라 의원
제안일	2016. 5.30.	2016. 8.17.	2016. 8.24.	2016. 12.2.	2017. 4.13.	2017. 6.30.	2018. 2.19	2018. 5.21	2018. 11.30
청년 연령	19~39세	19~34세	19~39세	19~34세	19~34세	18~39세	18~34세	19~34세	19~34세
청년 정책 기본 계획 수립 주체	기획 재정부 장관	국무 총리	국무 총리	국무 총리	기획 재정부 장관	기획 재정부 장관과 고용 노동부 장관 공동	기획 재정부 장관	국무 총리	국무 총리

* 출처: 김형주 외(2018: 45). 표Ⅱ-11 수정
의안정보시스템(2019).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에서 2019년 5월 12일 인출.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9건의 「청년기본법안」 관련해서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청년 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 지원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의안정보시스템, 2019). 구체적으로 청년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청년의

날(달) 지정, 청년관련 실태조사,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참여 확대, 청년단체 및 시설 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다(김형주 외, 2018).

이처럼 「청년기본법안」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되었으나 아직까지 계류 중이다. 청년 정책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고, 소관 부처 공방 등으로 인해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이후 청년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요구와 2017년 말에 구성된 청년미래특별위의 노력으로 2018년 여야 합의안(이명수위원 대표발의)이 마련되었는데, 이는 큰 진전이라 평가할 수 있다.

이명수 위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기본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년 연령과 관련해서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만, 다른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정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도록 하였다(의안정보시스템, 2019). 이는 기존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청년기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 연령과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청년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한다(김형주 외, 2018). 그리하여 「청년기본법안」과 기존의 다른 법과의 청년 연령 범위의 차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여지로서 제6조 제3항을 마련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기존의 법률과 연계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기본법」에서 현 청소년의 연령을 9세에서 24세로 하고 있어, 정책 대상의 중복 문제는 추후 긴밀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김기헌, 하형석, 신인철, 2016). 아울러 여야 합의된 「청년기본법안」에서는 소관부처,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주체, 총괄조정기구 모두 국무총리실로 두고 있다. 청년 문제에 다양한 부처가 관련되어 있고, 이로 인해 청년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실에서 운영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실무적인 업무 추진과정에서 위원회의 운영이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2) 지방자치단체 청년기본조례

청년기본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된 상황이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년정책의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오고 있다. 2015년 1월 서울특별시에서는 선제적으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하였는데, 청년들의 고용문제를 넘어 주거, 생활안정, 문화, 참여 등의 전반적인 청년들의 종합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김정숙, 강영배, 2017).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기본조례는 2018년 2월 인천광역시를 마지막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모두 제정되었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청년 기본조례 제정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자치법규정보시스템, 2019).

표 II-11 지방자치단체 청년기본조례 현황

지역	조례명	담당부서	심의기구(명)	참여기구(명)	청년 연령
서울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위원회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부산	부산광역시 청년기본조례	성장전략본부 청년희망정책과	청년위원회	-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대구	대구광역시 청년기본조례	시민행복교육국 청년정책과	청년정책 심의위원회	청년정책네트워크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인천	인천광역시 청년기본조례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청년정책위원회	청년네트워크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광주	광주광역시 청년정책기본조례	자치행정국 청년정책과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위원회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대전	대전광역시 청년기본조례	공동체지원국 청년정책과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네트워크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울산	울산광역시 청년기본조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청년정책위원회	청년네트워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그 밖의 관계 법령 규정에 따름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조례	보건복지국 아동청소년과	청년정책위원회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그 밖의 관계 법령 규정에 따름
경기	경기도 청년기본조례	보건복지국 청년복지정책과	청년정책위원회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그 밖의 관계 법령 규정에 따름
강원	강원도 청년기본조례	기획조정실 기획관	-	-	18세 이상 34세 이하

지역	조례명	담당부서	심의기구(명)	참여기구(명)	청년 연령
충북	충청북도 청년기본조례	기획관리실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위원회	-	15세 이상 39세 이하
충남	충청남도 청년기본조례	경제통상실 일자리노동청년과	청년정책위원회	-	18세 이상 34세 이하
전북	전라북도 청년기본조례	일자리경제국 일자리정책관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포럼단	18세 이상 39세 이하
전남	전라남도 청년기본조례	인구청년정책관	청년발전위원회	청년의 목소리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경북	경상북도 청년기본조례	일자리경제산업실 일자리청년정책관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참여단	만15세 이상 39세 이하
경남	경상남도 청년기본조례	사회혁신추진단	청년정책위원회	-	19세 이상 34세 이하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청년기본조례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 심의위원회	제주청년원탁회의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 출처: 김정숙, 강영배(2017: 49-51). 표Ⅲ-2 수정,
자치법규정보시스템 (2019).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에서 2019년 5월 12일 인출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청년기본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이들의 자립과 권익증진,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또한 청년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시행, 청년정책연구 실시를 포함하고 있으며, 청년정책으로 청년 참여 확대, 청년 능력 개발, 청년 고용확대, 주거안정, 부채경감, 생활 안정, 청년 문화 활성화, 청년 권리 보호, 청년지원센터 설치·운영,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청년단체에 대한 지원 등의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김정숙, 강영배, 2017). 청년정책에 대한 심의기구 및 청년참여기구 운영과 관련해서는 기구의 명칭에는 일부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심의기구는 강원도를 제외하고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에 명시하고 있고, 청년들의 소통과 참여 확대를 위한 통로로서 참여기구는 10개 광역자치단체에서만 조례로 명시하고 있다. 청년의 연령과 관련해서는 15세부터 39세에 이르기까지 자치단체별로 다소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는 「청년기본법안」이 통과되면 일정부분 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3) 시사점

한국사회에서 IMF로 인한 대규모 실업사태가 발생하고, 이후 노동시장 양극화 과정에서 청년들의 실업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청년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이 일시적으로 마련되었다. 하지만 최근 청년들의 고용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기에, 현재 존재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만으로는 청년들의 현안들을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대상 중심적 접근으로 청년들의 전반적인 권리와 참여의 관점에서 「청년기본법」의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즉,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명시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권리를 신장시켜 모든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의 기회보장과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절실한 때이다(김형주 외, 2018). 청년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현재 계류상태에 있는 「청년기본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

2018년 국회 청년미래특위에서 청년기본법에 대한 여야 간 합의안을 도출한 것은 큰 진척을 이룬 것이라 평가된다. 다만, 이명수 위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기본법안」에서 청년의 연령 정의가 다른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간 다소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청년기본법안」에서는 청년의 연령 범위에 대하여 법률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고 여지로 두고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는 기존의 법률 및 조례와의 긴밀한 연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와 같은 청년기본법이 인접한 연령대인 청소년에 대한 기본법과도 밀접하게 연동되고, 중복을 해소할 수 있도록(김형주 외, 2018) 청년기본법과 청소년기본법이 조응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다양한 청년들의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해오던 정책들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데, 「청년기본법안」에서는 이를 국무총리실에서 담당하도록 하였다. 국무총리실에서 설치될 청년정책조정위는 부처별로 파편화되어있는 청년정책을 총괄하여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소관부처 및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를 위원회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기존에 행정부처를 주체로 운영하는 것에 비해 정책 추진과정에서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청년 정책과 유사하게 대상중심의 정책으로서 청소년정책이 일시적으로 정부의 행정위원회 형태로 추진된 사례가 있는데, 해당 정책조정위에서 총괄과 조정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김기헌 외, 2016). 따라서 청년 현안의 시급성과 심각성을 고려해볼 때, 청년 정책의 실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추진주체 및 추진체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된다.

5. 해외 청년정책 추진 동향 및 시사점[10)]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8년 5월, 만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들에 대해 사회·경제적인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청년기본법안이 20대 국회 전반기 청년미래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발의되었으나 아직까지도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되고 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청년에 대한 정의나 범위 등이 불분명하며 청년을 위한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나 기구도 부재한 상황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청년정책이 논의되고 있는 현실을 비교하고자 오스트리아와 노르웨이, 스웨덴의 청년정책과 관련 사업의 추진 동향을 살펴보았다. 먼저, 오스트리아는 30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대표법을 기반으로 하여 청년정책을 실현하고 있으며 특히, 이중 직업 연수 제도를 통해 직업훈련에서 안정적인 고용으로 이어지는 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다음으로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청년을 위한 기본법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여러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청년들의

10) 이 절은 해외사례 번역물을 토대로 유설희 전문연구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정리하였으며 도입 부분과 시사점 부분을 집필하였음

다양한 삶을 아우르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각 국가별 청년정책 추진체계와 구체적인 정책 내용들을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 청년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1) 오스트리아의 청년정책 추진 동향[11)]

(1) 오스트리아 청년정책의 배경 및 원칙

오스트리아의 청년정책 수립은 정부의 책임 하에 수행되고 있다. 오스트리아 청년정책에 있어 주된 관심은 청년들의 복지를 보장하고 미래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오스트리아 연방 가족 및 청년부는 청년 전략을 통해 청년정책 분야에서 지식을 결집하는 오스트리아 전역을 위한 계획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러한 전략의 주안점은 14세에서 24세까지의 연령대에 있으나, 청년 전략은 30세 이하의 청년을 포괄하도록 더 확장된다. 또한, 오스트리아에서는 2000년부터 30세 이하의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한 연방 청년 대표법(Federal Youth Representation Act)이 시행되어 청년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에 따라 30세 이하의 모든 사람들은 정의된 범위의 청년에 속하나 오스트리아의 청년 전략의 주요 대상은 14세에서 24세 사이의 집단이다.

오스트리아의 국가 청년 전략(Youth Strategy)은 청년정책을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과정으로서, 청년들을 위한 대책을 체계화함으로써 이러한 효과를 최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청년 전략에서는 청년의 재능을 개발하고 직장에서 현재와 미래의 도전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회를 이용하도록 보장하는 '고용

11) 오스트리아의 청년정책 추진 동향은 EACEA NATIONAL POLICIES PLATFORM(EACEA, 2019c)에 게재된 오스트리아의 청년정책 내용을 일부 발췌·요약하여 정리함(EACEA NATIONAL POLICIES PLATFORM 웹사이트 https://eacea.ec.europa.eu/national-policies/en/content/youthwiki/overview-austria에서 2019년 4월 2일 인출.).

및 교육', 청년들의 사회적 참여와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인식 및 인센티브 시스템 개발을 강화하는 '참여 및 실행', 청소년들의 성장과 성인으로의 전환(건강, 환경, 가족, 이동성 및 개인의 삶의 관점과 만족도 등)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다루는 '삶의 질과 협동 정신', 안전하고 적절한 미디어 사용 능력을 강화하는 '미디어 및 정보'의 4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2018년 각 액션 분야별 주요 목표를 재정비하면서 미디어 및 정보 분야가 보완되었으며, 2019년부터 새로운 국가 청년 전략이 개발될 예정임).

표 II-12 오스트리아의 국가 청소년 전략(2013~2020년)

분야	주요 전략
고용과 교육	• **전략적 목표 1: 2020년 오스트리아는 EU 내 청년 고용 Top 3 국가의 지위를 유지(15세에서 24세)** - 전반적으로 낮은 실업률과 더불어 청년층이 노동 시장에 비교적 잘 융합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오스트리아의 고도로 발달된 초기 직업 훈련 시스템을 들 수 있음(도제 제도, 중등 및 고등 수준의 이차 기술 및 직업 대학). 견습생을 위한 기업과 직업학교의 이중 도제 시스템은 오스트리아가 국제적으로도 우수한 순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탱해 주는 원동력이 될 것임. 기업의 참여 덕분으로 이 이중 도제 시스템은 현재까지 최소한의 공공 기금 지원만으로도 우수한 상위 고등교육으로 자리 잡고 있음. - 오스트리아의 직업 교육 시스템의 과제 중 하나는 이민 가정 출신의 청년들을 직업 훈련 및 고용 시스템 내로 통합하는 것임. - 오스트리아 내의 청년 실업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청년 전략의 일환으로 경제, 사회 및 교육 정책 부문의 기존의 액션 플랜 및 전략의 보강 및 강화가 요구됨. • **전략적 목표 2: 2020 년 오스트리아는 EU 내에서 가장 낮은 조기 중도 학교 중퇴율 기록** - 청년들 중 의무 교육 이후 어떠한 교육 과정도 이수하지 못한 채 낮은 교육 성과를 보이는 청년의 경우 대다수가 직업에 있어서 제약이나 제한적인 소득 기회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실업률 및 사회적 소외의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조기 학교 중퇴자들에게서 이러한 위험은 여전히 높은 수준임. - 조기에 학교를 중도 탈락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관련 원인과 결과가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함. 당사자의 사회 경제적 환경, 개인적인 문제 해결 전략 부족

분야	주요 전략
	및 시스템적인 여건 등이 모두 복합적으로 얽혀 있음. 이러한 요인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기 위한 지원 방안 역시 다각화되고 상호연계 되어야 함. • **전략적 목표 3: 오스트리아 내 30세 이하 기업 창업자 수를 확대** - 현대 경제 및 사회 환경에서 창업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고 있음. 그러나 창업 인구를 연령대별로 분류해 보면 30세 이하 청년층의 경우 아직도 여전히 상당한 잠재성이 발휘되지 못하고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남.
참여와 실행	• **전략적 목표 4: 최초 투표 참가자들이 최고의 참여율을 기록하게 될 것** - 청년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 이는 그들이 정치적 이벤트나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나아가는 방향에 관심이 있음을 의미함. • **전략적 목표 5: 14에서 24세 사이 청년 중 전체 50%가 참여 프로젝트에 동참하게 될 것** - 설문 조사에 따르면 오스트리아의 청년들은 기존의 참여 방법들 통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남. 삶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참여 기회를 확대와 더불어 청년들은 교육, 업무 및 자유 시간 등에 관한 사안에 대한 발언권 확보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 - 참여에 대한 높은 관심은 수많은 참여의 기회로 이어짐. 청년 의회 및 기획 워크샵(공공 공간 에 대한 새로운 개념 디자인 워크샵) 등 제도화 된 기회 이외에도 새로운 형식의 참여 기회, 그 중에서도 특히 인터넷을 통한 참여 등이 점차 인기를 얻고 있음. • **전략적 목표 6: 청년 중 50%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원봉사 참여** - 오스트리아의 경우 자원 봉사가 커뮤니티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응급 구호, 문화, 환경, 종교, 사회 사업, 정치, 지역 커뮤니티, 교육 및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수 없이 많은 기관 및 프로젝트가 분포해 있음. - 자원봉사는 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임. 또한 각자의 직업 분야에 관련된 귀중한 스킬을 연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함.
삶의 질과 협동정신	• **전략적 목표 7: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보다 낙관적으로 보게 될 것** - 14세에서 24세 사이의 청년 중 4분의 3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들 중 대부분은 연금, 정부 서비스, 소득 수준 및 직업 등 특정 부분에서 향후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함. - 청년들에게 미래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우수한 기회를 보장하고 미래에 사회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이들의 관점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목표임. • **전략적 목표 8: 오스트리아는 청년 보건에 있어서 EU 내 최고 3개 국 중 하나가 될 것**

분야	주요 전략
	- 전 세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오스트리아의 헬스 케어 서비스는 매우 우수한 수준임. 그러나 청년층의 건강한 생활 증진 및 예방적 치료 측면에서는 개선의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건강 위험 요인을 피하고 예방적인 보건 지표 지원을 주요 사안으로 삼아야 할 것임. 전국적으로 청년 시기부터 국민들을 대상으로 상담하고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야 말로 국민 건강 증진에 있어 최고의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음. • **전략적 목표 9: 청년층의 50%가 지속가능성을 개인 및 사회적으로 중요한 목표로 인식** - 지속가능성은 아동과 청년 미래와 생활에 다른 어떤 사안보다 중대하게 영향을 미침. 이는 단지 환경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우려까지 포함하는 사안임. 관련 행동 분야로는 기후에 대한 보호, 천연 자원의 보존, 이동성 및 소비자 행동 등이 있음. 청년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개인과 사회 모두의 목표로 추구하는 것은 청년 자신의 미래에도 아주 중요한 사안임.

* 출처: EACEA(2019c). EACEA NATIONAL POLICIES PLATFORM 웹사이트 https://eacea.ec.europa.eu/national-policies/en/content/youthwiki/13-national-youth-strategy-austria에서 2019년 4월 2일 인출.

(2) 오스트리아 청년정책의 추진체계

오스트리아는 연방국으로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에 담당 분야를 분담하고 있는데, 청년정책을 여러 부처 및 분야 간에 진행하고자 모든 부처에서 자체적인 청년정책 캠페인 및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특히,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로는 연방수상청의 가족 및 청년부가 있다. 주요 담당 업무로는 비교과 활동 분야에 대한 조율과 안내를 담당하고 활발한 활동을 위한 견인책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유럽 및 국제 청년정책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국가 전체 차원에서 연방수상청은 필수 회원인 국가 청년위원회, 전문가 및 NGOs를 포함하여 각 부처, 주, 사회 파트너 출신으로 구성된 다양한 실무 위원회의 감독 하에 전체적인 조율을 담당한다. 또한, 연방수상청은 청년협정(Youth Pact)의 실행과 관련한 모든 사안의 이행 감독 책임 기관으로 다양한 사업 간에 각자 관계 및 목표를 조율하고 지속가능한 청년 정책 방안을 강화 업무를 담당한다.

한편, 학교 밖에서 청년 활성화 및 청년 사업은 기본적으로 각 주의 책임 사항이다. 각 주정부의 주 청년부는 학교 밖의 청년 사업에 있어 해당 주의 관련 청년 정책 방안을 실행하는 역할을 한다.

(3) 오스트리아의 주요 청년정책 내용

① 고용 부문

오스트리아에서는 15세부터 의무교육을 마친 후 취업할 수 있는데, 도제 또는 실습과 같은 특정한 경우에는 15세 이상의 청년들이 고용될 수 있다. 18세 이하의 아동과 청소년은 아동 및 청소년 고용 법규의 적용을 받는다. 이중 직업교육 시스템으로 인해 오스트리아에서는 취업과 기업가 정신이 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오스트리아는 전반적으로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이렇게 청년층을 취업 시스템에 보다 잘 통합시키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고도로 발달된 초기 직업 교육 및 훈련 시스템(견습 훈련, VET 학교 및 대학)을 꼽을 수 있다.

오스트리아의 직업 훈련은 도제 또는 학교 기반 교육(중급 이상의 고등 중등 기술 및 직업학교 및 대학에서 실습 중심의 교육을 제공함)을 통해 제공된다. 연방 교육부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견습생 연수는 두 개의 장소에 걸쳐 진행되는데, 견습생이 회사 등에서 견습을 하고 이후 견습 제도 관련 직업학교에 파트타임으로 의무 출석을 함으로써 전체 과정이 완성된다. 따라서 견습생 연수 역시 '이중 직업 연수 시스템' 혹은 '이중 시스템'이라고 지칭할 수 있다. 현재 오스트리아 10대 청소년의 40% 정도가 의무교육 직후 견습 연수과정을 선택하고 있다. 견습 연수과정 수료 이후 전체 견습생의 약 40%에서 44% 정도가 본인들이 연수를 받은 회사에서 계속 근무를 한다. 전체적으로 약 40,000개의 기업에서 120,000여 명의 견습생이 연수를 받고 있으며, 이는 한 기업 당 평균 3명 정도의 견습생이 배정됨을 의미한다.

견습생들의 연수는 법적으로 인정을 받는 견습제도 운영 기관에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숙련된 기관(현재 약 240개)들은 연방 디지털 및 경제부에서 연방 노동, 사회, 보건 및 소비자 보호부와 협력 하에 발간한 견습 기관 명단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농업 및 임업 분야에도 법적으로 인정받는 14개의 견습 기관이 존재한다. 해당 명단에는 다양한 직업군이 포함되어 있으며 견습 연수의 기간, 이미 진행된 직업 연수에 대해 몇 시간이나 이수 시간이 인정되는지 등 관련 견습 기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견습 연수는 2년에서 4년까지로, 대부분의 경우 3년으로 진행된다. 다른 교육 기관의 자격 인정과 관련(예: 직업학교, 해외 직업 연수)해서는 해당 과정에 대해 견습 연수의 기간만큼 차감하여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특정 자격 자격증 과정을 수강하는 학생들도 견습 연수 기간만큼 의무 기간이 차감될 수 있다. 이는 특히 고등학교 졸업시험 소지자에게 큰 혜택이 될 수 있는데, 본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더 많은 선택권이 주어져 보다 수월하게 직업을 찾을 수 있다. 몇 가지 직업을 동시에 연수하는 것도 특정 요건만 준수하면 가능하다.

기업에서의 연수는 견습 연수의 주요 부분을 차지한다. 견습 연수 계약에서는 고용 계약의 틀 내에서 연수의 여건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과 견습생 간에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에 따라 견습생은 의료, 상해, 퇴직 및 실업 보험 등 전체 사회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견습생 연수 자격을 부여받은 기업의 경우 일부 경우에는 일반적인 고용주로서의 회사의 의무보다 더 넓은 범위의 의무사항이 적용되기도 한다. 견습 연수 계약은 산업 및 사회법의 적용을 받으며 10대 직원 보호를 위한 노동법 역시 적용 대상이다. 또한, 견습생은 단체 협약에서 정해진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급여 수준은 각 견습 기관별로 다양하다.

견습생은 견습 연수 기간의 대부분을 제조 공장 혹은 서비스 기업 등 실제 직업 환경에서 보내게 된다. 이는 견습생들이 실제 직업 세계에의 일부로 근무한다는 의미 외에도 문제 해결이나 본인의 자아에 대한 문제 등 사회적인 기술 향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견습생이나 회사 모두에게 본 시스템이 줄 수 있는 주요한 이점 중 하나는 견습생이 견습 연수를 마무리하고 그 즉시 요건을 갖춘 숙련 직원으로서 정식 채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 오스트리아의 커리어 지도 및 상담서비스

오스트리아에서는 의무 교육 말기가 되면(7학년 혹은 8학년이나 일부 학교의 경우 9학년도 포함) 의무 커리어 지도 수업을 받게 된다. 일부 학교에서는 이를 별도의 교과목으로 운영하며 다른 경우에는 기존의 교과목이나 프로젝트의 일부로 통합 운영하고 있다. 의무 커리어 지도의 목표 중 하나는 학생들에게 견습 훈련의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의무 커리어 지도의 일부 정규 과정은 직업 체험의 날 행사로 학생들에게 처음으로 실무적인 경험 및 직업 세계에 대한 첫인상을 느낄 수 있게 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커리어 지도 외에 오스트리아 공공 고용 서비스(Public Employment Service Austria(Arbeitsmarktservice, AMS))에서도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 커리어 지도 과정을 운영한다. AMS에서는 커리어 정보센터(Berufsinformationszentren, BIZ)를 통해 정보, 상담 및 자문을 제공한다. 자체적인 지도 및 상담 센터를 운영하는 사회 파트너 기관 역시 커리어 지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AMS의 커리어 지도 센터 및 사회 파트너들은 자체적인 정보 분야를 갖추고 해당 지역에서 일대일 혹은 그룹 상담 등을 제공한다.

또한, 온라인 커리어 정보 데이터베이스, 다양한 브로셔나 커리어 정보를 다룬 영화 등을 제공하거나 수업 중 강연, 분야별 설명회, 구직을 위한 훈련, 교사 및 학부모를 위한 행사, 특히 견습생 훈련에 초점을 맞춘 직업 박람회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활동으로 학교들을 지원하고 있다. 각 훈련 프로그램별로 해당 분야의 전문 협회뿐만 아니라 많은 훈련 기업 등에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표 II-13〉 참조).

표 II-13 오스트리아의 주별 직업훈련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스티리아의 Berufsfindungsbegleitung	• 스티리아 주의 Berufsfindungsbegleitung(BFB) 프로젝트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 오리엔테이션 중에서도 최고의 프로그램임. • 1999년부터 파일럿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2010년부터는 스티리아 주 전체(그라츠 제외)로 확대됨. • 본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교육 및 커리어를 선택함에 있어 견습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학생이나 그 학부모들이 적절한 직업 분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동시에 견습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기업, 학교 및 기타 파트너와 협업하여 개별 상담에서 대규모 이벤트나 워크샵 등 다양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음.
생산학교 (Produktionsschulen)	• 생산학교(Production schools)는 학교와 고용 현장 간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실용적인 접근법의 한 예시라고 할 수 있음. • 생산학교는 안정성 및 동기 부여를 강화하고 전문 지식 및 기본적인 자격 요건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함. 주로15 세에서 19세 사이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나 25세까지의 청년 중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함. • 본 훈련 과정은 워크샵에서의 훈련, 창의력을 통한 교육 등을 목표로 하며 사회 복지사 등의 지원을 받음. 또한 직업 오리엔테이션도 진행함. 생산학교의 한 예로 비엔나의 'Spacelab'을 들 수 있음.
Project Spacelab	• Spacelab는 25세까지 소외 계층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노동 시장의 장벽을 낮추기 위한 프로그램임. 무엇보다 안정성을 확보하고 동기부여를 강화하며 커리어 지도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사회 복지사들이 이들 대상 그룹 청년들이 개별적으로 적절한 커리어 경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줌. • 프로젝트에 등록하면 정원관리, 창의성 워크샵, 미디어 워크샵 등의 과정에 시간 단위로 참여하여 경험할 수 있음. 본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청년들에게 별다른 구속 요소없이 매우 친밀하게 개별적인 동반자가 배정된다는 점임.

* 출처: EACEA(2019c). EACEA NATIONAL POLICIES PLATFORM 웹사이트 https://eacea.ec.europa.eu/national-policies/en/ content/youthwiki/34-career-guidance-and-counselling-austria에서 2019년 4월 2일 인출.

2012년부터는 청년 코칭(Youth Coaching)이 실시되고 있는데, 이는 학교에서 직업 세계로의 전환기에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청년 코칭은 교육 과정을 지속하거나 혹은 선택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이미 교육 시스템과 노동 시장에서 중도 탈락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청년 코칭은 조기 학교 중도 탈락자(ESL)를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 청년 코칭은 의무 교육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청년들이 각자 적합한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선택 수단이다. 조기 학교 탈락 위험에 처해 있는 청년들은 특별한 지원을 받게 되는데, 학업에 있어 장애가 있거나 특별 교육의 필요성이 있는 청년들이 서비스 대상이 된다. 따라서 청년 코칭은 조기 대책 및 활성화와 (재)통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예: 청년 코칭은 감옥 등과의 협업을 통해 비행 청년 등이 다시 교육 시스템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 한편, 19세까지의 중도 탈락자를 대상으로 청년 코칭을 실시하고 있는데(장애가 있는 청년의 경우 25세까지), 이를 통해 사회적 소외 위험에 처한 청년들에게 상담, 지도 및 관리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에게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지원을 실현하고 있다.

② 교육 및 훈련 부문

오스트리아에서는 청년의 조기 중퇴 방지를 위해 이전의 연방 교육, 예술 및 문화부와 연방 경제부, 가족 및 청소년부와 협력하여 국가 전략을 개발하였으며, 연방 노동부는 2012년에 노동 사회복지부와 협력 하에 도입함으로써 가장 최근에는 2016년에 내용을 재정비하였다. 연방 교육부에서는 예방, 개입 및 보상의 3개 부문에 걸쳐 교육 및 훈련 부문에서 조기에 중퇴를 막기 위한 전략을 재정비하였으며, 청년들이 교육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많은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교육 및 연수 조기 중퇴 방지를 위한 국가 전략은 또한 오스트리아 청년 전략(Austrian Youth Strategy) 및 청년 보장 이행 계획(Youth Guarantee Implementation Plan)의 일부로 포함되었다. 2016년 7월 1일 오스트리아에서

는 의무 교육 및 연수 법이 통과되어 18세 미만의 모든 국민은 의무 교육 이후 다른 학교에서 교육을 지속하거나 직업 연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2011년에 4개 관련 부처(교육, 사회, 경제 및 과학)에 의해 도입된 평생 교육 전략을 통해 EU 2020 핵심 목표에 따라 2020년까지 교육 및 연수 조기 중도 탈락율을 크게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예방 및 대상 그룹별 구체적인 개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 전략이 추진되고 있으며, 교육부에서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조기 중퇴 방지와 관련하여 이민 가정 출신의 학생의 경우 교육에 있어 불이익에 처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조기 중퇴로 이어질 수 있어 제1 및 제2 언어의 지원이 중요하다. 따라서 모국어 언어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아동 및 학생이 배우는 학습 언어 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며, 모니터링 프로젝트의 확대 외에도, 언어 및 문화적 다양성에 대처하기 위해 학교 과정 개발을 위한 전문 조언, 지도 및 정보 제공 및 연수 지원 등 학교 위치별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2) 노르웨이의 청년정책 추진 동향[12)]

(1) 노르웨이 청년정책의 배경 및 원칙

노르웨이의 청년정책은 전통적으로 풀뿌리 방식으로 각 지역자치단체로 분산화되어 왔으며, 자치단체에서는 청년정책과 실천에 있어서 상당한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 노르웨이의 청년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목표는 아동과 청년들이 성인으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안정적인 생활 여건과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있다.

12) 노르웨이의 청년정책 추진 동향은 Ørjan Bergan(2017)의 COUNTRY SHEET ON YOUTH POLICY IN NORWAY 내용과 EACEA NATIONAL POLICIES PLATFORM(EACEA, 2019a)의 노르웨이 청년정책의 일부 발췌·요약하여 정리함.

(2) 노르웨이 청년정책의 추진체계

노르웨이의 중앙정부에서는 아동 및 평등부가 아동 및 청년 관련 정부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부처 내 아동, 청년 및 가족국에서는 UN 아동권리협약 관련 사안과 노르웨이 아동 복지 및 입양 정책 등과 아동 및 청년 기관, 국제 청년 교환 프로그램 및 도시 환경 내의 아동 및 청년 서비스 지원을 위한 보조금 프로그램, 아동 및 청년에 대한 부처 정책 등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의 아동 복지 기관 관리 및 아동과 청년에 대한 관련 법규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문화부, 교육연구부, 노동 및 사회부, 보건 및 돌봄 서비스부, 법무 및 공공 안전부 등 노르웨이의 대부분 부처에서 아동과 청년의 복지 및 생활 여건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한편, 노르웨이에는 428개 지역자치단체가 있는데, 현지 자치기구는 아동 및 청년 관련 사안에 대한 자치권을 가진다. 아동 및 청년정책의 실질적인 시행은 주로 자치기구 차원에서 진행되며, 아동 및 청년 기구는 자치단체 차원에서의 협업에 있어 중요한 관련 기관이다. NGOs및 청년 기구들의 주요 담당 부문으로는 스포츠, 예술, 학교/교육, 정치 및 국제 교류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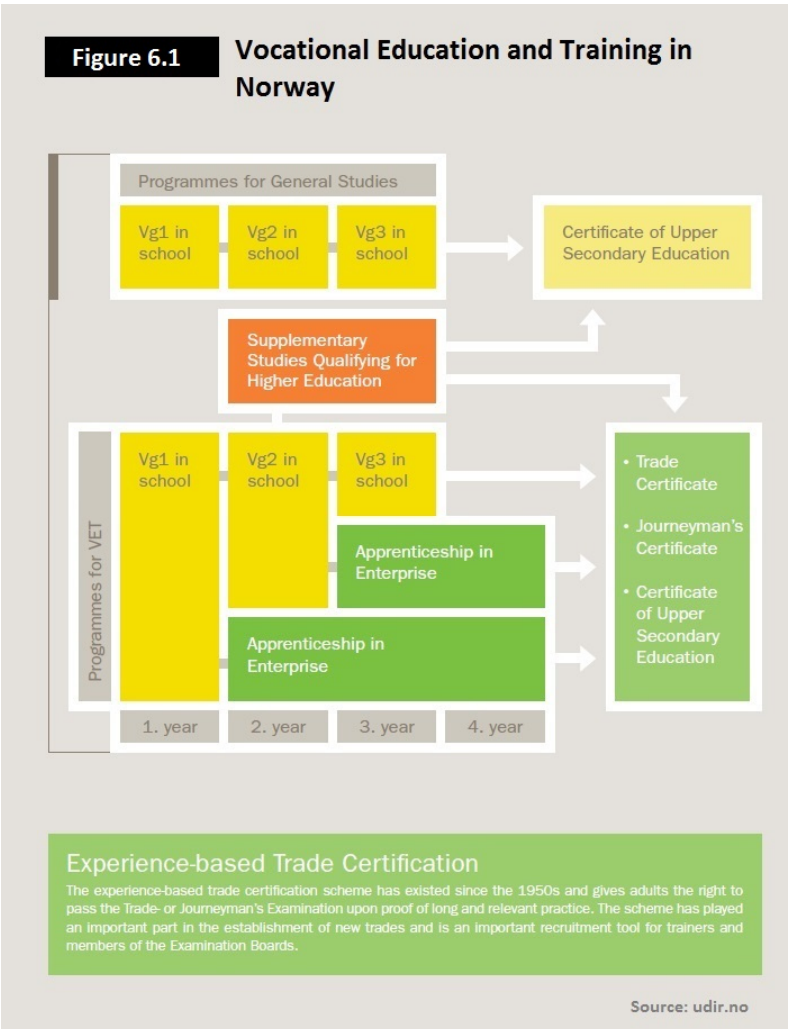
(3) 노르웨이의 주요 청년정책 내용

노르웨이의 의무 교육은 10년이며, 초등학교(1~7학년, 6~12세)와 중등학교(8~10학년, 13~16세)인 단계로 구성된다. 고등학생(11~13학년)은 필수는 아니며, 초등 과정과 중등 과정을 졸업한 청년들은 고등 교육 입학, 직업 자격 또는 기초 기술 중 하나에 이르는 3년간의 교육 및 연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EACEA, 2019a).

• 노르웨이의 직업 교육 및 훈련

노르웨이의 견습 정책은 국가 수준에서 만들어지며 지역 수준에서 시행된다. 먼저, 국가 수준의 당국(교육부 및 교육 훈련부)에서는 교과과정 및 교과 요강, VET(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구성 및 시행에 책임이 있으며, 지역 수준에서는 학교 및 VET의 시행과 주정부의 예산(견습 포함)이 제공하는 VET의 자금 조달, 견습 및 감독 제공(계약상 규제)을 담당하게 된다.

견습생의 계약은 단기간인 6개월에서 최대 36개월 사이이며, 이러한 견습제도는 젊은 전문가와 미래의 지도자를 위한 교육기회로, 일반적으로 자격 요건이 높고 프로그램의 경쟁력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견습 프로그램은 엔지니어와 경제 관련된 직업이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는 법, IT 관련 업체, 병원 및 인사과에서도 견습 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있다.



* 출처: EACEA(2019a). EACEA NATIONAL POLICIES PLATFORM 웹사이트 https://eacea.ec.europa.eu/national-policies/en/content/youthwiki/61-general-context-norway에서 2019년 4월 2일 인출.

그림 II-1. 노르웨이의 직업 교육 및 훈련 체계

견습 프로그램은 대개 학사 학위를 가진 청년 중 직장 경험이 거의 없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대개 12개월 이상 지속되고, 프로그램 종료 시 경영진의 결정에

따라 정규직 고용을 보장한다. 견습 과정에서 견습생은 학교에서 훈련할 때 학생으로, 견습 과정에서는 일하는 근로자로 정의되므로, 사회 보장 범위와 권리가 정규직 직원과 똑같이 적용된다.

VET 프로그램은 4년 과정으로 운영되며, 그 중 2~3년은 한 기업에 견습생으로 보내진다. 이 프로그램에서 성공한 학생에게는 '고등교육 기관 자격증'과 '전문가(장인) 자격증' 또는 '무역 자격증'을 수여한다.

3) 스웨덴의 청년정책 추진 동향[13)]

(1) 스웨덴 청년정책의 배경 및 원칙

스웨덴의 청년정책은 13~25세 사이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정책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하면, 스웨덴의 청년층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우수한 생활환경 하에서 지내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교육 및 고용, 주거, 참여, 웰빙 등의 부문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있다(표 Ⅱ-14 참조).

표 Ⅱ-14 스웨덴 청년의 삶과 관련된 영역별 주요 이슈

영역	주요 이슈
교육	• 스웨덴의 상위 이차 학교에서는 의무 교육을 수료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교육을 제공함. - 의무 교육을 수료하지 않아 공공 상위 이차 교육 프로그램 이수 자격을 갖추지 못한 학생 수가 2015년 14.4%에서 2016년 16.9%로 증가함. - 학생들 중 남학생 대비 여학생의 학교 교과목 성취도가 더 높게 나타남. 여학생의 경우 2015년 고등 교육 이수 자격 획득 비율이 78%인 반면, 남학생의 경우 63% 수준임. - 해외 출생 청년의 경우 스웨덴 내에서 출생한 청년들 대비 문제 상황에 처하는

13) 스웨덴의 청년정책 추진 동향은 Tiina Ekman(2016)의 COUNTRY SHEET ON YOUTH POLICY IN SWEDEN과 EACEA NATIONAL POLICIES PLATFORM(EACEA, 2019b)의 스웨덴 청년정책의 내용을 일부 발췌·요약하여 정리함.

영역	주요 이슈
	비율이 높게 나타남. 2015년 스웨덴 국내 출생 청년 중 90%가 상위 이차 교육 자격을 획득하는 반면, 이민자 청년의 경우 그 비율이 57% 수준임.
고용	• 스웨덴에서는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청년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많은 청년들이 여전히 직장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차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해외 출신이거나 혹은 근로 능력이 떨어지는 청년의 경우 장기적인 실업에 처할 위험이 가장 큼. - 2014년 16-24세 사이의 청년 중 7.5%가 학업도, 취업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NEET). 해당 비율은 2010년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15년 청년 실업 비율(15~24세) 은 전체 노동 인구의 13.1%로 2011년 대비 5% 하락함. - 해외 출생 청년들의 실업률(15~24세)은 전체 노동 인구의 34.6%로 2015년 스웨덴 출생 청년의 평균 실업률 10.6%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함.
주거	• 스웨덴 청년들은 살 집을 찾는데 점점 더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국가 주거, 건축 및 계획국(National Board of Housing, Building and Planning)에 따르면, 2015년 지방자치단체의 76%가 청년 대상 주택의 부족 현상을 겪었음. 이는 주택 부족 지자체의 비중이 62%를 기록했던 2014년 대비 14%p 상승한 수치임. - 2015년 20~24세 사이의 청년 중 42%가 여전히 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2008년에는 37%).
참여	• 대표 민주주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남. • 최근 세 번의 선거에서 젊은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율이 증가하였음. 18~24세 사이의 유권자 중 82%가 2014년 의회 선거에 참여하였음. 30~64세 유권자 중 투표율은 89%를 기록함, - 18~24세 사이의 청년 중 지자체 선거에서 당선 비율이 2002년 2%에서 2014년에는 4%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상승하였으나 의사결정 기구에서 청년들의 비중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웰빙	• 청년들 스스로의 전반적인 건강 및 정신 질환에 대한 자가 평가에 있어 2010년 이후 의미 있는 변화 없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청년들 대부분이 자신들의 건강 상태를 대체로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기는 하나, 거의 3분의 1 정도가 정신 건강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2015년 16~24세 청년 중 84%가 전체적으로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고 평가함. - 2015년 16~24세 사이의 청년 중 28%가 걱정, 고민, 불안 등의 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출처: Tiina Ekman(2016)의 COUNTRY SHEET ON YOUTH POLICY IN SWEDEN. 2-4쪽 내용을 표로 재구성.

이러한 청년들의 삶의 다양한 영역의 주요 이슈들을 반영하여 스웨덴 청년정책에서 주로 추진하고 있는 부문은 다음과 같다.

- 고용, 교육 및 주거 관련, 학교에서 직장 및 사회로의 전환
- 청년의 권한 및 참여
- 청년 여가시간, 조직 및 웰빙

스웨덴 의회에서는 2014년 6월, '중점 대상 청년-우수한 생활 여건, 권한 및 영향력을 위한 정책'이라는 새로운 청년정책에 대한 정부의 제안을 채택하였는데, 이 정책은 13~25세 사이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스웨덴의 국가 청년정책은 '모든 청년들은 좋은 생활 여건,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권한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갖출 수 있어야 함'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청년과 관련한 모든 정부의 의사결정 및 기여 사항과 연관된다. 이에 따라 스웨덴에서는 13세에서 25세 사이의 청년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정부의 의사결정 및 행동에 있어 청년의 관점이 반영되도록 하였는데, 청년의 관점은 인권을 기본으로 하며 청년들을 서로 다른 배경과 여건에 놓인 다양한 개인으로 구성된 집단으로 바라보고 대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년들의 독립성을 지원하고 청년들이 영향력과 참여의 가능성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스웨덴의 국가 청년정책은 다면적인 구조로서 교육, 고용, 민간 경제, 주거, 건강, 참여, 문화 및 여가 등 다양한 사안을 다루고 있다. 스웨덴 청년정책의 전체적인 범위는 2004년 이후 별다른 변화 없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청년정책 후속 시스템에서 주목해야 할 분야로서 추가된 사안으로는 양성평등, 국적 및 인종적 소수자의 권리, 청년 LGBT 권리-국민 및 청년들의 성적·재생산에 관한 권리 등을 포함한 인권문제가 대표적이다.

한편, 스웨덴에는 청년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기금 지원에 대한 법률 외에는 별도의 청년 법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청년 관련 사안들은 각기 다른 분야의 법안에 일부로 포함되어 있으며 범죄법, 사회 복지, 헬스 케어, 의무 돌봄 및 의무 교육 등 각 분야별로 기준 연령이 다르게 적용된다. 스웨덴에서는 18세를 성인 연령 기준으로 적용하며 15세부터는 범죄 책임을 적용한다.

(2) 스웨덴 청년정책의 추진체계

스웨덴의 청년정책은 중앙정부의 경우, 교육연구부에서 학생, 교육, 학술 연구 및 청년정책 재정 지원 등 관련 분야의 중앙정부 예산을 준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해당 부처 내 청년정책 및 시민사회국에서 청년정책 목표 및 후속 방안 등을 포함한 청년정책 사안을 조율 및 개발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또한, 청년 기관들의 여건 및 발전, 청년 연구 및 청년 생활 여건에 대한 통계 업무 등과 청년 정책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적인 협력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더해, 청년정책 및 시민사회국에 있는 스웨덴 청년 및 시민사회 에이전시는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 청년들의 생활 여건, 태도 및 가치관에 대한 지식 확보 및 해당 지식을 현지, 지역 및 국가 차원에서 공유 및 배포
- 현지 및 국가 차원에서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청년 통계 구축
- 청년들의 생활 여건, 권한 및 영향력을 개선하고 현지, 지역 및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지식을 배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부 사업에서 협력 및 조율 강화에 기여
- 지방 정부가 지식 기반 청년 정책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
- 이런 노력에 있어 성적 주류화 및 차별 금지가 포함되도록 조율

이 외에 다른 부처에서도 노동, 교육, 보건, 주거, 문화 등 청년과 관련된 정책

부문을 담당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각 정책 부문에 대해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정부 에이전시에게 업무 위임이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 스웨덴 국가 교육 에이전시는 입학 전 교육, 학령기 아동 교육 및 성인 교육 등 공공 교육 시스템을, 국가 보건복지국은 사회 서비스, 보건 및 의료 서비스, 환자 안전 및 전염병학 등을 담당하며, 스웨덴 공공 고용서비스에서는 구직자와 고용주 간에 매칭 업무를 담당하며 직업을 찾는 데 있어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들을 우선순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진학이나 취업을 하지 않는 청년에 대한 코디네이터'를 임명하여 학업도, 취업도 하지 않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국가, 지역 혹은 현지 차원에서 유기적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그 형식을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한편, 스웨덴에는 290개의 지방정부자치단체가 존재한다. 현지 당국은 상당한 수준의 자치권을 가지고 있으며, 세무 집행 권한을 보유하여 자체 활동에 대해 대부분 자체적으로 재정을 마련한다. 청년 문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는(일부 정책의 경우 부분적으로) 학교, 고용 및 훈련, 헬스 케어, 사회 돌봄 및 서비스, 문화 및 여가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청년들과 관련된 의사결정의 대다수는 지자체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의회에서 채택된 청년정책의 경우, 중앙정부에게는 의무 사항이지만 지자체의 경우에는 권고 사항이 된다. 지자체의 청년정책은 해당 지자체가 원하는 경우 국가 목표를 그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으나 실제로 이에 대한 시행 방식은 현지 여건에 따라 결정된다.

(3) 스웨덴의 주요 청년정책 내용

2014년 6월, 스웨덴 정부에서는 청년을 중심으로 우수한 생활 여건, 권한 및 영향력 강화를 목표로 청년정책 재정비를 결정하였으며, 2015년 11월, 취업도 학업도 하지 않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전략을 발표하였다.

① 이차 교육 미이수 청년

본 정책은 구체적으로 16~20세 사이의 청년들 중 학업을 중단하였으며, 이차 교육 혹은 동등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관련 상황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 2015년 정부는 다음과 같은 교육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2015년부터 16~20세 사이의 청년 중 교육 과정 미이수자로 이차 교육 혹은 동등한 교육 과정을 완료하지 못한 청년들에 대한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는 기존의 지자체 의무사항에 더해 이러한 상황에 대한 개별적인 대응 방안까지 포함하도록 법안이 개정되었다. 개별 방안을 통해 청년들이 상위 이차 교육을 시작 혹은 완료하도록 독려하였다. 지자체에서는 또한 이러한 노력에 대한 내용을 적절한 방식으로 문서화하고 관련 제안 내용과 대상 청년들의 등록 명부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학업도 취업도 하지 않는 청년들

2015년 11월 정부에서는 학업 과정에도, 취업에도 속하지 않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전략, '미래를 향하여-학업도 취업도 하지 않은 청년 대상 전략'을 발표하였다. 이 전략에서는 2015년에서 2018년 사이 정부가 추진하였거나 추진 예정인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안을 통해 대상 청년들이 직업 및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를 목표로 하였다. 이에 정부에서는 본 전략을 통해 유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학업 및 취업 모두 속하지 않는 청년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직접적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한 노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4) 시사점

오스트리아에서는 연방 청년 대표법을 통해 30세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청년정책의 주무부처는 연방 가족 및 청년부로, 국가 청년 전략에서는 고용 및 교육, 참여 및 실행, 삶의 질과 협동 정신, 미디어 및

정보 등의 4개 분야에서 청년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청년들의 복지 보장과 미래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오스트리아에서는 청소년들의 학교를 기반으로 한 직업교육과 실제 현장에서의 견습 과정이 연계되는 '이중 직업 연수 시스템'이 탄탄하게 구축되어 있었다. 특히, 견습 과정에서 견습생은 사회 보험 및 일정 부분의 급여 수준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견습 과정 이후에는 정식적인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노르웨이의 경우, 청년을 위한 기본법은 제정되어 있지 않으나 중앙정부에서는 아동 및 평등부가 청년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각 지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정책을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특히, 학사 학위를 가진 청년 중 직업 경험이 거의 없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견습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직업 훈련에서 고용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스웨덴의 청년정책은 13~25세 사이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모든 청년들이 우수한 생활 여건을 갖추고 자신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권한과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목표를 기반으로 하여 청년들의 삶에서 제기된 다양한 이슈들을 반영하여 교육, 고용, 경제 및 주거, 건강과 참여, 문화 및 여가 등과 더불어 양성평등이나 국적 및 인종, 성적 소수자의 권리 등 인권문제와 관련된 사안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스웨덴 청년정책은 주로 교육연구부가 담당하나 노동 및 보건, 주거, 문화 등과 관련된 부처에서도 청년 업무를 맡고 있으며, 지방정부자치단체의 경우, 현지 여건에 따라 국가의 목표에 따른 청년정책 시행 방식을 결정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은 취·창업 지원에 중점을 맞추고 있는데,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음으로써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스트리아처럼 청소년기부터 체계적이고 실제적인 진로 및 직업과 관련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더하여 최근 2014년 울산, 2017년 전주, 제주 등에서 현장실습생의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실습 회사에

서는 현장실습생에 대한 과도한 업무 지시, 전공과는 다른 직무, 부족한 현장 교육, 저임금 등의 문제가 제기되는 실태를 볼 때(서울신문, 2019. 6. 16), 오스트리아와 노르웨이의 사례와 같이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노동권 보호, 사회 보장이 강화되어야 하며, 학교에서의 교육과 현장실습을 할 수 있는 기업에서의 실무 경험에서의 연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현장실습생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학교나 기업이 이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오스트리아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기본법이 제정되어 있고,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도 지정되어 있어 청년을 위한 법률 및 추진체계의 기반이 마련되어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 청년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청년들의 복지와 미래에 대한 기회를 보장하려는 노력은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정책 추진 상황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대다수가 청년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청년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역마다 청년조례를 제정하고 지역 내 사회·경제적 특성 및 청년들의 다양한 삶의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반면에 국가 차원의 청년정책의 경우, 법률이나 추진체계 기반을 조성하려는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현재 각 부처에서 달리 시행되고 있는 청년정책들의 유기적인 연계성이나 지속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지역 차원의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현재 계류되고 있는 청년기본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모두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법률 제정을 바탕으로 하여 분절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각 부처별, 지역별 정책들의 연계나 조정 등을 통해 청년들의 실질적인 정책 체감도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

Ⅲ. 2019년 한국 청년의 사회·경제 실태

1. 청년 사회·경제 실태 핵심지표
2. 조사 개요
3. 2019년 핵심지표별 한국 청년의 사회·경제 실태

3 2019년 한국 청년의 사회·경제 실태[14)]

1. 청년 사회·경제 실태 핵심지표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청년 사회·경제 실태의 핵심지표는 2016년 1차년도 연구에서 처음 개발하여 그 이후 매해 연차별 연구에서 사회·경제적 여건과 정책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일부 수정 및 보완을 해오고 있다. 지표체계의 기본 틀은 대분류, 소분류, 핵심지표의 위계적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대분류의 경우 인구와 가족, 교육과 훈련, 경제와 고용, 주거, 건강, 문화와 가치관, 관계와 참여 등 7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1차년도부터 금년도 4차년도 연구까지 동일한 분류 틀을 유지하고 있다.

소분류의 경우 인구와 가족에는 인구, 가족을, 교육과 훈련에는 교육, 훈련·평생학습을, 경제와 고용에는 직업, 소득 및 소비를, 주거에는 주거현황과 주거여건을, 건강에는 신체 및 정신건강, 의료를, 문화와 가치관에는 문화 및 여가, 가치관을, 관계와 참여에는 관계, 참여를 위계적인 분류체계로 구축하였다(김기헌 외, 2017). 각 소분류에 따른 조사항목들은 2017년에 통계청의 국가승인통계로 인정받아 이후 지속적으로 변경승인을 거쳐 승인통계로서 조사되어 보고되고 있으며, 일관성 있는 시계열 분석을 위해 대분류와 소분류 체계의 기본 틀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다.

14) 이 장의 1절은 김형주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으며, 나머지 절들은 금년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동으로 정리하였음

다음 표는 금년도 2019년도의 청년 사회·경제 실태의 핵심지표에 대한 분류틀을 나타내고 있다.

표 Ⅲ-1 2017~2019년도 청년 사회·경제 핵심지표 체계

대분류	소분류
인구와 가족	인구
	가족
교육과 훈련	교육
	훈련·평생학습
경제와 고용	직업
	소득 및 소비
주거	주거현황
	주거여건
건강	신체 및 정신건강
	의료
문화와 가치관	문화 및 여가
	가치관
관계와 참여	관계
	참여

* 출처: 김형주 외(2018).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Ⅲ. p.72

청년 사회·경제 실태의 핵심지표 중 대분류 첫 번째인 '인구와 가족'의 경우 소분류로 인구와 가족으로 구분되고, 세부 핵심지표는 소분류 인구에 청년층 인구수를 비롯한 10개의 지표로, 소분류 가족에 혼인율을 비롯한 9개의 지표로 구성된다.

표 Ⅲ-2 청년 사회·경제실태 '인구와 가족' 관련 핵심지표 체계

대분류	소분류	핵심지표	출처
1. 인구와 가족	1-1. 인구	1-1-1. 청년층 인구수	장래인구추계(통계청)
		1-1-2. 전체 인구 대비 청년층 인구 구성비	장래인구추계(통계청)
		1-1-3. 청년층 다문화 인구	체류외국인통계(통계청)
		1-1-4. 청년층 인구 전망	장래인구추계(통계청)
		1-1-5. 청년 연령규정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1-1-6. 적정 독립 시기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1-1-7. 적정 결혼 시기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1-1-8. 적정 출산 시기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1-1-9. 해외이주 의사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1-1-10. 해외이주 고려 이유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1-2. 가족	1-2-1. 혼인율	인구동향조사(통계청)
		1-2-2. 초혼연령	인구동향조사(통계청)
		1-2-3. 결혼준비 경험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1-2-4. 결혼 망설임 여부 및 이유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1-2-5. 출생아 수 및 출산율	인구동향조사(통계청)
		1-2-6. 출산연령	인구동향조사(통계청)
		1-2-7. 맞벌이 여부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1-2-8. 자녀 유무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1-2-9. 자녀를 가질 계획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출처: 김형주 외(2018).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Ⅲ. p.73.

청년 사회·경제 실태의 핵심지표 중 대분류 두 번째인 '교육과 훈련'의 경우 소분류로 교육과 훈련·평생학습으로 구분되고, 세부 핵심지표는 소분류 교육에 진학률을 비롯한 14개의 지표로, 소분류 훈련·평생학습에 평생학습 형식교육 참여율을 비롯한 6개의 지표로 구성된다. 2018년 세부 핵심지표와 달라진 점은 지표의 논리적 정렬을 위해서 2-1-1 진학률 지표의 위치를 이동하였고, 지표명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2-1-9 졸업유예 및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사유 지표에서 기존 경험이란 용어를 삭제하였으며, 2-1-12 대학 미진학 사유, 2-1-13 우리사회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 2-1-14 고등교육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추가하였다.

표 Ⅲ-3 청년 사회·경제실태 '교육과 훈련' 관련 핵심지표 체계

대분류	소분류	핵심지표 (*는 2019년 신규)	출처
2. 교육과 훈련	2-1. 교육	2-1-1. 진학률*	교육통계연보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1-2. 대학등록금	대학알리미
		2-1-3. 대학등록금 대출자 비율	대학알리미
		2-1-4. 장학금 규모	대학알리미
		2-1-5. 학제별 대학졸업 소요기간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통계청)
		2-1-6. 대졸자 휴학 현황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통계청)
		2-1-7. 대학생 학업중단율	교육통계연보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1-8. 졸업 유예 경험 및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2-1-9. 졸업 유예 및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사유*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2-1-10. 전공과 직업 일치도	사회조사(통계청)
		2-1-11. 추후 대학 진학 의사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2-1-12. 대학 미진학 사유*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2-1-13. 우리사회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2-1-14. 고등교육에 대한 만족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2-2. 훈련·평생 학습	2-2-1. 평생학습 형식교육 참여율	평생학습실태조사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2-2. 평생학습 비형식교육 참여율	평생학습실태조사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2-3. 평생학습 직업 관련 비형식교육 참여율	평생학습실태조사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2-4. 직업훈련 참여율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통계청)
		2-2-5. 취업 준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2-2-6. 고시생 및 공시생 현황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출처: 김형주 외(2018).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Ⅲ. p.74.의 표를 수정함

청년 사회·경제 실태의 핵심지표 중 대분류 세 번째인 '경제와 고용'의 경우 소분류로 직업과 소득 및 소비로 구분되고, 세부 핵심지표는 소분류 경제에 경제활동 참여율을 비롯한 14개의 지표로, 소분류 소득 및 소비에 청년 소득을 비롯한 9개의 지표로 구성된다. 2018년 세부 핵심지표와 비교하여 달라진 점은 지표명의 가독성을 제고하기 위해 3-1-11, 3-1-13, 3-2-8의 지표명을 수정하였고, 3-1-14 신규졸업자를 위한 사회적 지원에 대한 인식 지표를 추가하였다.

표 Ⅲ-4 청년 사회·경제실태 '경제와 고용' 관련 지표체계

대분류	소분류	핵심지표 (*는 2019년 신규)	출처
3. 경제와 고용	3-1. 직업	3-1-1. 경제활동 참여율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3-1-2. 고용률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3-1-3. 실업률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3-1-4. 신설법인 비율	신설법인동향(통계청)
		3-1-5. 청년 고용주(대표) 비율	기업생멸통계(통계청)
		3-1-6. 니트(NEET) 비율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3-1-7. 비정규직 비율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3-1-8. 신규 채용률	신입사원 채용실태 조사 (한국경영자총연합회)
		3-1-9. 청년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3-1-10. 청년 중소기업 취업 의향 및 비취업 이유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3-1-11. 청년 창업 의향 및 경험*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3-1-12. 청년 직장에서 본인 조건에 맞는 대우 여부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3-1-13. 청년 이직 의향 및 이유*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3-1-14. 신규졸업자를 위한 사회적 지원에 대한 인식*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3-2. 소득 및 소비	3-2-1. 청년 소득	고용노동통계(고용노동부)

대분류	소분류	핵심지표 (*는 2019년 신규)	출처
		3-2-2. 청년 소비	가계동향조사(통계청)
		3-2-3. 장년 대비 청년 상대임금	고용노동통계(고용노동부)
		3-2-4. 청년층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상대임금	고용노동통계(고용노동부)
		3-2-5. 청년 부채	가계금융·복지조사(통계청)
		3-2-6. 최저임금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3-2-7. 생활비 및 가족 지원 비율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3-2-8. 채무 여부 및 사유*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3-2-9. 물질적 박탈감 경험여부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출처: 김형주 외(2018).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Ⅲ. p.75의 표를 수정함

청년 사회·경제 실태의 핵심지표 중 대분류 네 번째인 '주거'의 경우 소분류로 주건현황과 주거여건으로 구분되고, 세부 핵심지표는 소분류 주거현황에 청년층 주거형태를 비롯한 7개의 지표로, 소분류 주거여건에 청년층 주거 빈곤 규모를 비롯한 6개의 지표로 구성된다. 2018년 세부 핵심지표와 변경된 것은 4-2-5와 4-2-6 지표명을 가독성을 제고하기 위해 표와 같이 수정하였다.

표 Ⅲ-5 청년 사회·경제실태 '주거' 관련 지표체계

대분류	소분류	핵심지표	출처
4. 주거	4-1. 주거 현황	4-1-1. 청년층 주거형태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
		4-1-2. 청년층 실주거비	가계동향조사(통계청)
		4-1-3. 청년 가구 비율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
		4-1-4. 청년 1인 가구 비율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
		4-1-5. 부모 동거 여부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4-1-6. 미혼 독립 거주 여부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4-1-7. 1인 가구 주거 형태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4-2. 주거	4-2-1. 청년층 주거 빈곤 규모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
		4-2-2. 가처분소득 대비 가구부채비율	가계금융·복지조사(통계청)

대분류	소분류	핵심지표	출처
	여건	4-2-3. 기숙사 수용률	대학알리미
		4-2-4. 주거 마련 시기 의견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4-2-5. 공동주거 경험 및 의향*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4-2-6. 평소 주거에 대한 생각*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출처: 김형주 외(2018).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Ⅲ. p.76의 표를 수정함

청년 사회·경제 실태의 핵심지표 중 대분류 다섯 번째인 '건강'의 경우 소분류로 신체 및 정신건강과 의료로 구분되고, 세부 핵심지표는 소분류 신체 및 정신건강에 정기적인 운동습관을 비롯한 10개의 지표로, 소분류 의료에 청년 병원 이용을 비롯한 6개의 지표로 구성된다.

표 Ⅲ-6 청년 사회·경제실태 '건강' 관련 지표체계

대분류	소분류	핵심지표	출처
5. 건강	5-1. 신체 및 정신 건강	5-1-1. 정기적인 운동습관	국민건강영양조사(보건복지부)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5-1-2. 비만율	국민건강영양조사(보건복지부)
		5-1-3. 스트레스	국민건강영양조사(보건복지부)
		5-1-4. 우울증	국민건강영양조사(보건복지부)
		5-1-5. 자살률	사망원인통계(통계청)
		5-1-6. 흡연율	국민건강영양조사(보건복지부)
		5-1-7. 음주율	국민건강영양조사(보건복지부)
		5-1-8. 주관적 체형 인식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5-1-9. 주관적인 신체건강 인식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5-1-10.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5-2. 의료	5-2-1. 청년 병원 이용	국민건강영양조사(보건복지부)
		5-2-2. 민간 의료보험 가입률	한국의료패널 (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민건강보험공단)
		5-2-3. 건강검진 수검 여부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대분류	소분류	핵심지표	출처
		5-2-4. 질환 발생 시 대처방안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5-2-5. 성형수술 여부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5-2-6. 성형수술 목적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출처: 김형주 외(2018).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Ⅲ. p.77의 표를 수정함

청년 사회·경제 실태의 핵심지표 중 대분류 여섯 번째인 '문화와 가치관'의 경우 소분류로 문화 및 여가와 가치관으로 구분되고, 세부 핵심지표는 소분류 문화 및 여가에 문화 및 여가생활 유형을 비롯한 5개의 지표로, 소분류 가치관에 주관적 행복감을 비롯한 6개의 지표로 구성된다. 2018년 세부 핵심지표와 달라진 점은 6-2-4 공정성에 대한 인식 지표가 추가되었다.

표 Ⅲ-7 청년 사회·경제실태 '문화와 가치관' 관련 지표체계

대분류	소분류	핵심지표 (*는 2019년 신규)	출처
6. 문화와 가치관	6-1. 문화 및 여가	6-1-1. 문화 및 여가생활 유형	국민여가활동조사(문화체육관광부)
		6-1-2. 문화 및 여가생활 시간	국민여가활동조사(문화체육관광부)
		6-1-3. 문화 및 여가생활 비용	국민여가활동조사(문화체육관광부)
		6-1-4. 문화 및 여가생활 만족도	국민여가활동조사(문화체육관광부)
		6-1-5. 독서율	국민독서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6-2. 가치관	6-2-1. 주관적 행복감	사회통합실태조사(한국행정연구원)
		6-2-2. 삶의 만족도	사회통합실태조사(한국행정연구원)
		6-2-3. 주관적 계층의식	사회통합실태조사(한국행정연구원)
		6-2-4. 공정성에 대한 인식*	사회통합실태조사(한국행정연구원)
		6-2-5. 가치 항목별 선호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6-2-6.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출처: 김형주 외(2018).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Ⅲ. p.78의 표를 수정함

표 Ⅲ-8 청년 사회·경제실태 '관계와 참여' 관련 지표체계

대분류	소분류	핵심지표 (*는 2019년 신규)	출처
7. 관계와 참여	7-1. 관계	7-1-1. 사회적 관계망	사회조사(통계청)
		7-1-2.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사회조사(통계청)
		7-1-3. 가족관계 만족도	사회조사(통계청)
		7-1-4. 친한 친구 수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7-1-5. 세대갈등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7-2. 참여	7-2-1. 자원봉사 참여	사회조사(통계청)
		7-2-2. 기부활동	사회조사(통계청)
		7-2-3. 단체참여	사회조사(통계청)
		7-2-4. 투표율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분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7-2-5. 정부 및 공공기관 신뢰도	한국종합사회조사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7-2-6. 의견 표명 경험*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7-2-7. 의견 표명 의향*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7-2-8. 정치적 효능감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출처: 김형주 외(2018).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Ⅲ. p.79의 표를 수정함

청년 사회·경제 실태의 핵심지표 중 대분류 일곱 번째인 '관계와 참여'의 경우 소분류로 관계와 참여로 구분되고, 세부 핵심지표는 소분류 관계에 사회적 관계망을 비롯한 5개의 지표로, 소분류 참여에 자원봉사 참여를 비롯한 8개의 지표로 구성된다. 2018년 세부 핵심지표와 달라진 점은 7-2-6 의견 표명 경험 지표가 추가되었고, 7-2-7 지표명을 조사의 취지를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용어를 일부 수정하였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 청년 사회·경제 실태 조사를 위해서 핵심지표를 7개 대분류로 구분하여 본 연구의 직접 실태조사와 2차 자료분석을 포함하여 인구(10개 지표), 가족(9개 지표), 교육(14개 지표), 훈련·평생학습(6개 지표), 직업(14개 지표), 소득 및 소비(9개 지표), 주거현황(7개 지표), 주거여건(6개 지표), 신체

및 정신건강(10개 지표), 의료(6개 지표), 문화 및 여가(5개 지표), 가치관(6개 지표), 관계(5개 지표), 참여(8개 지표) 등 14개 소분류와 총 115개 세부 핵심지표로 구성하였다.

2. 조사 개요

1) 조사 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15~39세 일반국민이다. 이는 만19~39세를 대상으로 했던 2013년, 2015년의 선행 조사(배상률 외, 2013; 김기헌, 2015)는 물론, 만15세부터로 조사대상의 폭을 확대한 2016년 이후 조사와의 연속성을 모두 고려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정의를 따른 것이다. 2018년에는 전년 대비 300명 늘어난 3,000명, 올해는 전년 대비 500명 늘어난 3,500명으로 조사규모를 확대, 청년층 조사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보다 정확한 결과를 기하고자 하였다.

2) 조사 절차

본 연구의 조사는 본조사 이전 사전 점검 차원인 예비조사와 조사표 및 표본설계 변경에 따른 변경승인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다. 예비조사는 5월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 진행 하였으며 만15~18세에 해당하는 중·고등학생용 설문 10부와 만19~39세에 해당하는 청년용 설문 40부 등 총 50부를 시행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조사표의 신뢰도와 타당도, 조사 문항과 사용된 용어의 난이도와 편집 가독성, 대략적인 조사 응답 시간과 그 외 조사 진행 관련 전반에 걸친 예상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대비책과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본 조사에 반영하였다.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는 2017년 7월에 국가승인통계(제402004호)로 지정되었으며, 2018년에도 역시 국가통계로서 청년들의 삶과 관련된 지표 결과를 공표한 바 있다. 2019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는 청년층의 관계 및 정치·사회 참여에 대한 부가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새로 추가된 문항과 기존 문항의 질문 및 보기 문구 수정, 국가 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참여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 추가 등으로 청년 조사표가 변경되어 통계작성 변경승인 절차를 수행하였다. 통계법 개정으로 2018년 2월부터 통계청에서 통계작성 시 행정자료를 우선 활용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통계청 행정자료관리과에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중·고등학생용 및 청년용 조사표의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여부 판단 의뢰를 요청하였다(2019. 5. 3). 그 결과, 조사항목들이 개인의 주관적 상황이나 경험에 대한 질문사항으로 행정자료로서 이를 활용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사유로 '행정자료 활용불가'라는 판단 결과통보서가 회신되었다(2019. 5. 14).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여 ① 통계작성 승인신청서, ② 통계작성 기획서, ③ 조사지침서, ④ 조사표 2종(중·고등학생용, 청년용), ⑤ 변경문항 세부내역(중·고등학생용, 청년용), ⑥ 통계결과 표 서식, ⑦ 통계 관련 용어 및 해설자료, ⑧ 표본설계서 및 표본설계요약서, ⑨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판단 결과 공문 및 통보서 등 총 9가지의 자료를 작성하여 2019년 5월 21일 통계청 통계조정과에 통계작성 변경승인을 신청하였다. 이후에 청년용 조사표 중 보완요구가 있어 이에 대한 수정·보완자료를 제출하였고, 2019년 5월 31일에 변경승인이 완료되었다.

3) 조사 방법

본 조사는 조사원이 가구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 대상자와 접촉, 대면하여 면접하는 1:1 가구방문 개별면접 기법으로 수행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에 방문하여 ① 조사 취지 및 목적 설명과 조사 수락 요청, ② 조사대상

적격 연령대 가구원 확인, ③ 조사 대상자 재택 시 개별면접 진행의 흐름으로 진행되었다. 단, 조사대상 연령대인 만15~39세 가구원은 주간 시간대에 부재중인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 대상자와의 직접면접을 원칙으로 하되, 가구 방문 시 조사대상 연령대 가구원이 부재중일 경우에 한하여 일부 가구원 유치 조사를 병행하였다.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투입 예정 조사원에 대한 조사원 교육을 2019년 5월 28, 29일 및 30일에 걸쳐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서 진행하였고, 최초 집체교육 외에 중도 포기 인원을 대체할 조사원이나 진행이 미흡한 지역에 투입할 추가 조사원을 대상으로 한 수시교육이 실사 기간 동안 추가로 실시되었다. 교육은 사전에 준비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조사지침서〉에 준해 다음과 같이 3개 파트로 나누어 1시간여에 걸쳐 진행되었다.

첫 번째 파트는 〈조사개요〉 부분으로 본 조사의 배경 및 목적, 조사 적격 가구 및 응답자에 대한 기준 등으로 진행 되었다.

두 번째 파트는 〈조사표 작성방법〉으로 조사표 구성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 문항별 의미 및 용어정의, 보기문항에 대한 설명, 질문요령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세 번째 파트는 현장조사의 실제적인 〈방법론〉에 대한 교육으로 현장조사 단계별 접근방법, 적격대상자 선정 절차, 조사원의 역할 및 윤리, 면접요령 등의 내용 및 본 조사의 조사방법으로 활용되는 TAPI(Tablet PC Aided Personal Interview) 조사방법을 설명하고 실습을 진행하였다. 또한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현장조사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참여자가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후 교육을 종료하였다.

4) 조사 기간

본 조사는 2019년 6월 10일부터 7월 26일까지 약 6주간 실시되었다.

5) 표본 설계

2019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의 모집단은 청년이며 아직 청년기본법 등 연령 정의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속성 유지 차원에서 전년과 마찬가지로 국내 거주하는 만15~39세의 일반 국민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이 조사의 개념상 규정된 목표모집단(target population)은 조사시점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 내 만15세부터 39세 이하의 가구원이며, 조사모집단(survey population)은 조사 시행의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인구주택총조사상의 섬,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 관광호텔, 외국인 조사구를 제외하고 아파트 조사구 및 일반조사구 내 일반가구에 거주하는 만15세부터 39세 이하의 가구원으로 정의하였다. 본 정의에 따른 표집틀의 최신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본설계 시점에서 확보할 수 있었던 가장 최신의 자료인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 리스트를 표본 추출 표집틀로 활용하였다.

2019년 표본설계에서는 총 3단계의 층화 과정을 거쳤다. 먼저 7개 특별·광역시와 9개 도 지역으로 1단 층화하고, 9개 도 지역에 대해서는 동부와 읍·면부로 2단 세부 층화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인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매우 크고, 지역적으로도 넓어서 표본의 지역적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각각 4개 권역(북동, 남동, 남서, 북서)과 3개 권역(북부, 중부, 남부)으로 3단 세부 층화하였다.

또한 본 조사는 통계 작성 단위인 6개 권역별로 조사 결과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정도(precision)를 가지는 통계를 생산해야 한다. 이를 확보하기 위해선 일정 크기 이상의 유효한 표본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6개 권역별 표본 조사구를 적정히 배분하는 방식으로 정도(precision) 확보를 위한 표본 규모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배분 방식은 층별 조사대상자 수에 비례배분법, 제곱비례배분법, 우선할당비례배분법 등을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제곱근비례배분법을 적용하였는데, 이를

통해 권역별 유효표본 과대·과소 표집을 방지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권역별 추정 결과의 통계적 정확도가 높아질 수 있다.

최종 조사대상 가구 및 조사 대상자 추출 시에는 각 표본 조사구별 10명의 대상자를 조사하도록 규정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지역별 표본가구 당 조사대상 연령대 가구원의 평균을 고려하여 표본 조사구에서 추출되는 원표본 가구 수를 결정하였다.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동 지역에서의 가구당 평균 조사대상 연령대 가구원은 0.88명이고 읍면지역의 경우 0.66명이다. 최종적으로 동부의 표본 조사구에서는 12가구, 읍면부 표본 조사구에서는 15가구를 조사대상 원표본 가구로 규정하였으며 이들 가구 내에서 총 10명의 조사대상 적격 연령대 가구원을 조사하도록 설계하였다.

3. 2019년 핵심지표별 한국 청년의 사회·경제 실태

1) 인구와 가족

1-1-1. 청년층 인구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법률 제16195호, 약칭 청년고용법)」에 따르면 청년의 연령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인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에 해당된다. 이에 해당 되는 청년층 인구수는 2019년 현재 967만 명이며 30대를 포함하게 되면 약 1,703만 명이다. 20대(20~29세) 청년층은 2018년 대비 2019년 인구수에 큰 변동이 없는 반면, 15~29세 청년층은 2018년 대비 14만여 명이 감소하여, 저출산 심화로 인한 10대 연령층의 인구 감소가 큰 것을 나타내고 있다.

(단위: 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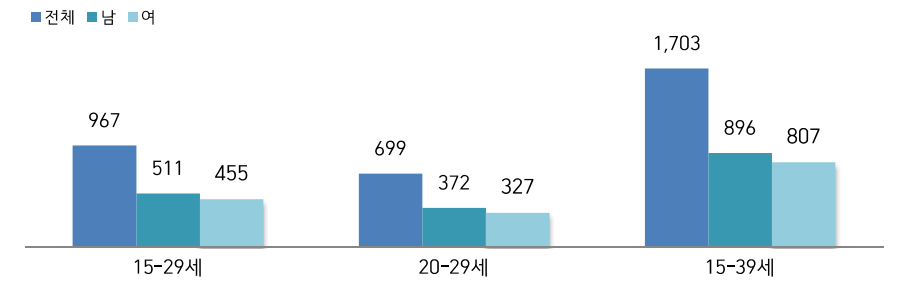


그림 Ⅲ-1. 청년층 인구수

표 Ⅲ-9 연도별 청년층 인구수 추이

(단위: 만 명)

연도	15~29세			20~29세			15~39세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2000	1,205	621	584	821	422	399	2,057	1,057	1,000
2001	1,177	608	569	816	421	395	2,033	1,046	987
2002	1,147	593	554	808	417	391	2,008	1,034	974
2003	1,120	581	540	799	412	386	1,983	1,023	960
2004	1,093	568	525	782	405	378	1,960	1,012	948
2005	1,071	557	514	763	395	368	1,934	1,000	934
2006	1,062	554	508	751	390	362	1,921	995	926
2007	1,058	553	505	740	385	355	1,911	991	920
2008	1,057	553	503	728	379	349	1,903	989	914
2009	1,052	552	500	715	373	342	1,885	980	905
2010	1,040	547	494	697	364	333	1,867	972	895
2011	1,031	543	488	684	359	325	1,852	966	886
2012	1,017	537	480	673	354	319	1,832	956	875
2013	1,006	531	475	669	353	316	1,810	945	865
2014	1,001	529	472	672	356	316	1,791	937	854
2015	1,000	529	471	678	361	317	1,777	931	845
2016	997	528	470	684	364	320	1,762	924	838
2017	988	523	465	690	367	322	1,743	914	828
2018	981	519	462	699	372	327	1,728	908	820
2019	967	511	455	699	372	327	1,703	896	807

* 출처: 통계청(각 년도). 장래인구추계(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1세별, 5세별)/전국).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conn_path=I2에서 2019년 7월 17일 인출.

* 주: 인구변동요인별(출생, 사망, 국제이동) 중위가정을 조합한 중위추계(기본추계) 결과임.

1-1-2. 전체 인구 대비 청년층 인구 구성비

전체 인구 대비 15~29세 청년층의 인구 구성비는 2019년 기준 18.7%이며 20대만으로 한정할 경우에는 13.5%, 30대를 포함한 15~39세를 기준으로 할 경우 32.9%이다. 20대 청년층은 2014년 이후 구성비가 소폭 증가한 반면, 15~29세, 15~39세 청년층은 2000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전체 인구 대비 구성비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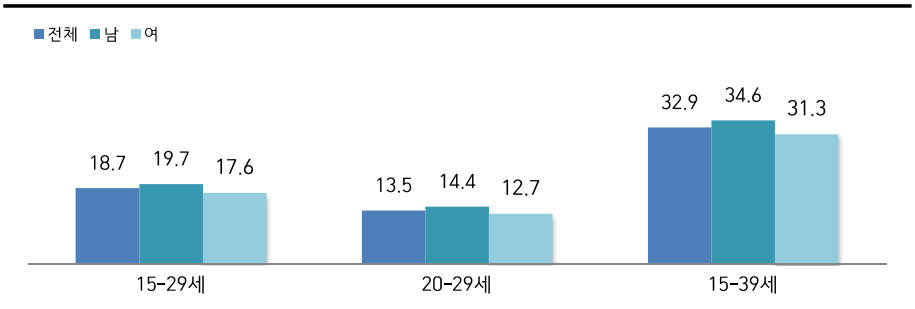


그림 Ⅲ-2. 전체인구 대비 청년층 구성비

표 Ⅲ-10 연도별 전체인구 대비 청년층 구성비 추이

(단위: %)

연도	15~29세			20~29세			15~39세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2000	25.6	26.2	25.0	17.5	17.8	17.1	43.8	44.6	42.9
2001	24.9	25.5	24.2	17.2	17.6	16.8	42.9	43.9	42.0
2002	24.1	24.7	23.4	17.0	17.4	16.5	42.1	43.1	41.2
2003	23.4	24.1	22.7	16.7	17.1	16.2	41.4	42.4	40.4
2004	22.7	23.5	22.0	16.3	16.7	15.8	40.8	41.8	39.7
2005	22.2	23.0	21.5	15.8	16.3	15.4	40.1	41.2	39.0
2006	21.9	22.7	21.1	15.5	16.0	15.0	39.7	40.8	38.5
2007	21.7	22.6	20.9	15.2	15.7	14.7	39.3	40.5	38.0
2008	21.5	22.4	20.6	14.8	15.4	14.3	38.8	40.1	37.5
2009	21.3	22.3	20.4	14.5	15.1	14.0	38.2	39.6	36.9
2010	21.0	22.0	20.0	14.1	14.6	13.5	37.7	39.1	36.3
2011	20.6	21.7	19.6	13.7	14.3	13.1	37.1	38.5	35.6
2012	20.3	21.3	19.2	13.4	14.1	12.8	36.5	38.0	35.0
2013	19.9	21.0	18.9	13.3	14.0	12.6	35.9	37.4	34.4
2014	19.7	20.8	18.7	13.2	14.0	12.5	35.3	36.8	33.8
2015	19.6	20.7	18.5	13.3	14.1	12.5	34.8	36.4	33.2
2016	19.5	20.5	18.4	13.4	14.2	12.5	34.4	36.0	32.8
2017	19.2	20.3	18.2	13.4	14.3	12.6	33.9	35.5	32.3
2018	19.0	20.1	17.9	13.6	14.4	12.7	33.5	35.1	31.9
2019	18.7	19.7	17.6	13.5	14.4	12.7	32.9	34.6	31.3

* 출처: 통계청(각 년도a). 장래인구추계(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1세별, 5세별)/전국).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conn_path=I2에서 2019년 7월 17일 인출.

* 주: 인구변동요인별(출생, 사망, 국제이동) 중위가정을 조합한 중위추계(기본추계) 결과임.

1-1-3. 청년층 다문화 인구

청년층 다문화 인구 중 우선 체류외국인(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단기체류외국인의 합) 수를 살펴보았다. 청년고용법에 따른 청년층 연령(15~29세)에 해당하는 체류외국인 수는 2018년 약 67만 4천명으로 2012년 47만 명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 6년 간 약 20만명이 증가하였다. 30대를 포함한 청년층(15~39세) 체류외국인 수 역시 2015년 100만명을 넘어선 이래로 계속 증가하여, 2018년 약 129만명에 달하고 있다.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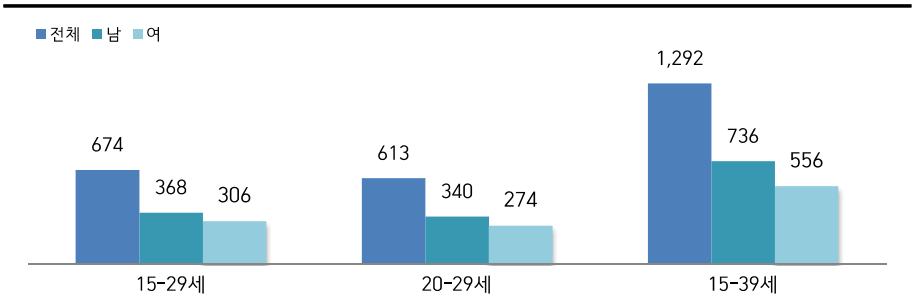


그림 Ⅲ-3. 체류외국인 수

표 Ⅲ-11 연도별 체류외국인 수 추이

(단위: 천 명)

연도	15~29세			20~29세			15~39세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2012	470	259	211	439	244	196	813	473	340
2013	499	276	223	467	261	205	877	513	363
2014	549	306	244	512	288	224	985	576	409
2015	566	312	253	526	294	232	1,028	598	430
2016	599	326	273	552	304	248	1,105	634	471
2017	627	343	284	573	318	256	1,189	681	507
2018	674	368	306	613	340	274	1,292	736	556

* 출처: 법무부(각 년도). 체류외국인통계(국적·지역 및 연령별 체류외국인 현황).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1&tblId=DT_1B040A6&conn_path=I2에서 2019년 9월 3일 인출.

등록외국인(출입국관리법 제31조(외국인 등록)에 의거 입국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15~29세에 해당되는 등록외국인 수는 2018년 약 40만 5천명으로 전년 대비 2만 5천여명 증가하였다.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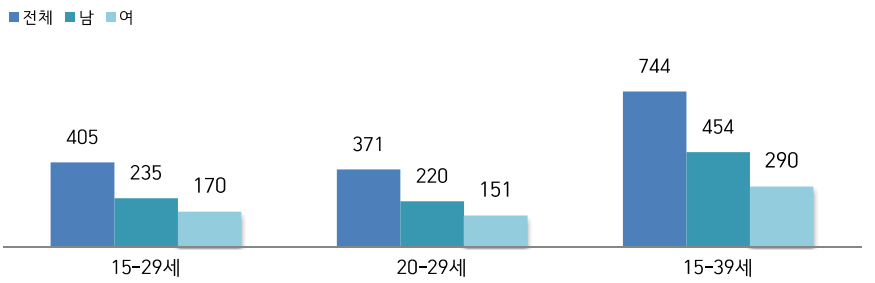


그림 Ⅲ-4. 등록외국인 수

표 Ⅲ-12 연도별 등록외국인 수 추이

(단위: 천 명)

연도	15~29세			20~29세			15~39세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2012	336	189	147	320	182	138	574	343	231
2013	352	202	151	335	194	141	615	374	241
2014	365	212	153	346	204	142	655	404	251
2015	370	214	155	348	205	143	674	415	260
2016	377	217	160	351	206	145	589	421	268
2017	380	218	161	350	205	145	705	429	276
2018	405	235	170	371	220	151	744	454	290

* 출처: 법무부(각 년도). 체류외국인통계(국적·지역 및 연령별 등록외국인 현황).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1&tblId=DT_1B040A8&conn_path=I2에서 2019년 9월 3일 인출.

단기체류외국인(국내 입국 후 외국인등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 중 15~29세 청년층 단기체류외국인은 2018년 약 21만 5천명으로 2012년 약 10만 여명 대비 2배 이상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으며 남자(전년대비 +1만명)보다 여자(+1만 5천명)가 상대적으로 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대 청년층 단기체류외국인 수(2012년 9만 1천명→2018년 19만 1천명) 및 30대 포함 청년층 단기체류외국인 수(2012년 17만 8천명→2018년 40만 7천명) 또한 같은 기간 내에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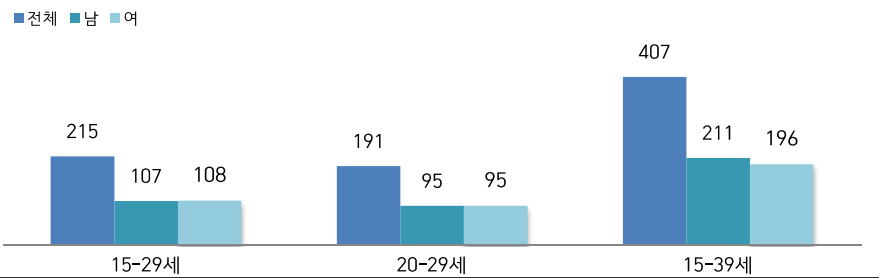


그림 Ⅲ-5. 단기체류외국인 수

표 Ⅲ-13 연도별 단기체류외국인 수 추이

(단위: 천 명)

연도	15~29세			20~29세			15~39세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2012	103	56	48	91	49	42	178	98	80
2013	105	56	49	92	49	43	184	100	84
2014	136	71	65	119	63	57	238	126	112
2015	141	73	69	125	64	60	247	130	117
2016	164	81	83	144	72	73	292	151	141
2017	190	97	93	168	86	82	349	184	165
2018	215	107	108	191	95	95	407	211	196

* 출처: 법무부(각 년도). 체류외국인통계(국적·지역 및 연령별 단기체류외국인 현황).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1&tblId=DT_1B040A13&conn_path=I2에서 2019년 9월 3일 인출.

2018년 결혼이민자 외국인(체류외국인 중 F-2-1 거주, F-5-2 영주, F-6-1 결혼이민, F-6-2 자녀양육, F-6-3 혼인단절로 국민의배우자 자격을 소지한 자)은 총 15만 9천여 명으로 결혼 이민(11만 9천여 명)에 해당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결혼이민자 외국인 수 역시 2012년 이래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거주국민배우자(F-2-1) 유형을 제외하면 2017년 대비 2018년에 전부 인구수가 증가하였다.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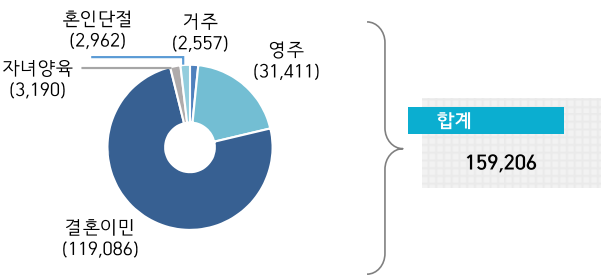


그림 Ⅲ-6. 결혼이민자 외국인 수

표 Ⅲ-14 연도별 결혼이민자 외국인 수 추이

(단위: 명)

연도	합계	거주(F-2) 국민배우자 (F-2-1)	영주(F-5) 국민배우자 (F-5-2)	결혼이민(F-6) 국민배우자 (F-6-1)	자녀양육 (F-6-2)	혼인단절 (F-6-3)
2012	148,498	42,978	18,576	82,605	682	3,657
2013	150,865	13,385	20,473	112,338	1,081	3,588
2014	150,994	7,138	23,146	116,071	1,438	3,201
2015	151,608	5,691	25,432	115,644	1,805	3,036
2016	152,374	3,503	27,539	116,238	2,216	2,878
2017	155,457	2,996	29,938	116,996	2,704	2,823
2018	159,206	2,557	31,411	119,086	3,190	2,962

* 출처: 법무부(각 년도). 체류외국인통계(국적·지역별 결혼이민자 현황).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 =111&tblId=DT_1B040A16&conn_path=I2에서 2019년 9월 3일 인출.

1-1-4. 청년층 인구 전망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청년고용법상 청년 기준 연령인 만15~29세의 인구수는 2019년 967만 명에서 31년 후인 2050년에 491만 명으로 약 476만 명 이상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30대를 포함한 청년층 역시 2019년 1,703만 명에서 2050년 902만 명으로 약 630만 명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50년에는 청년층 인구가 2019년 대비 절반 비율로 줄어드는 인구 구조 변동(현재 대비 만15~29세 50.8%, 20~29세 46.1%, 15~39세 53.0%)에 따라 향후 잠재성장률, 노동생산성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단위: 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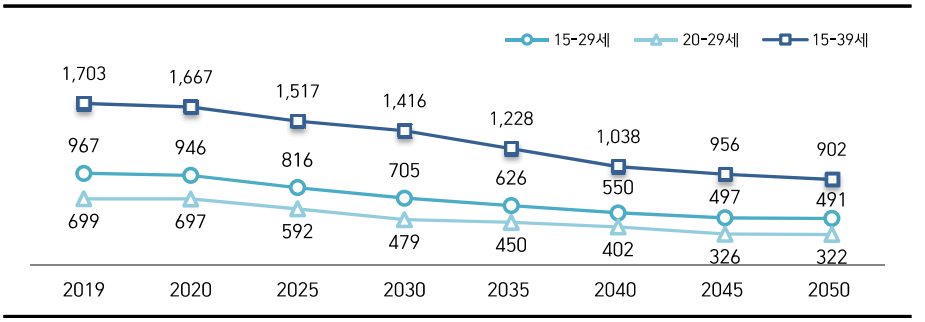


그림 Ⅲ-7. 청년층 인구 전망

표 Ⅲ-15 연도별 청년층 인구 전망 추이

(단위: 만 명)

연도	15~29세			20~29세			15~39세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2019	967	511	455	699	372	327	1,703	896	807
2020	946	500	446	697	370	327	1,667	877	789
2025	816	425	391	592	309	283	1,517	798	718
2030	705	363	342	479	247	232	1,416	740	676
2035	626	320	306	450	230	220	1,228	633	595
2040	550	281	270	402	205	197	1,038	530	508
2045	497	254	244	326	166	160	956	486	470
2050	491	251	241	322	164	158	902	458	444

* 출처: 통계청(각 년도a). 장래인구추계(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1세별, 5세별)/전국).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conn_path=I2에서 2019년 7월 18일 인출.

* 주: 인구변동요인별(출생, 사망, 국제이동) 중위가정을 조합한 중위추계(기본추계) 결과임.

1-1-5. 청년 연령규정

2019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청년'의 연령을 몇 세부터 몇 세까지로 생각하는 지를 조사한 결과, 청년들은 평균 19.5세에서 32.3세 사이를 '청년'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전년도와 비교 했을 때 하한 연령은 19세에서 큰 변동이 없으나 상한 연령의 경우에는 2016년 29.5세에서 2019년 32.3세로 점점 높아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었다.

(단위: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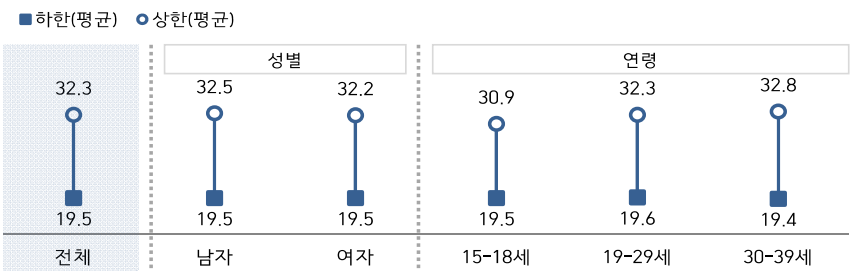


그림 Ⅲ-8. 청년 연령규정

표 Ⅲ-16 연도별 청년 연령규정 추이

(단위: 세)

연도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19~29세	30~39세
2016	하한(평균)	19.3	19.4	19.3	19.4	19.4	19.3
	상한(평균)	29.5	29.7	29.3	29.5	29.2	29.8
2017	하한(평균)	19.4	19.4	19.4	19.4	19.5	19.3
	상한(평균)	31.2	31.3	31.1	30.5	31.0	31.7
2018	하한(평균)	19.8	19.9	19.8	19.8	20.0	19.8
	상한(평균)	31.4	31.5	31.4	31.1	31.5	31.5
2019	하한(평균)	19.5	19.5	19.5	19.5	19.6	19.4
	상한(평균)	32.3	32.5	32.2	30.9	32.3	32.8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1-1-6. 적정 독립 시기

2019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는 청년들에게 가정으로부터의 독립, 결혼, 첫 자녀 출산에 대한 의향을 묻고, 각각에 대한 의향이 있는 경우 적정 연령을 물어보았다.

먼저 가정으로부터 분가해 독립을 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2019년 52.4%로 2018년 46.9%에 비해 5.5%p 증가하였으며 가정으로부터 독립해야한다는 응답자에게만 적정한 독립 연령을 물어본 결과, 평균 25.6세로 2018년 27.9세에 비해 약 2세가량 낮아졌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자(47.8%)보다 남자(56.5%)가 독립해야 한다는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대별로 보면 타 연령대에 비해 20대가 독립해야 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단위: 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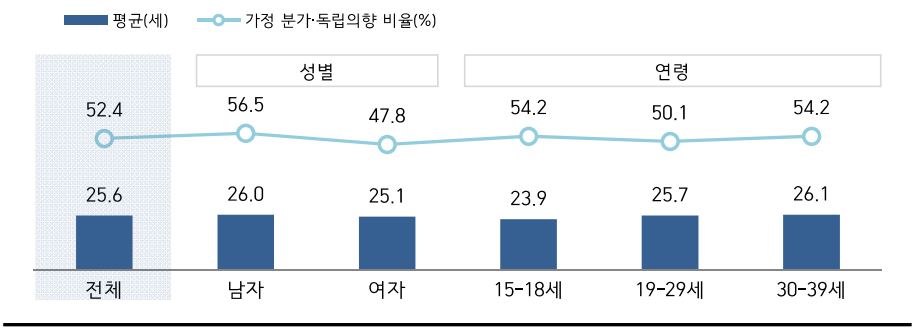


그림 Ⅲ-9. 독립 의향 및 적정 독립 시기

표 Ⅲ-17 연도별 독립 의향 및 적정 독립 시기

(단위: %, 세)

연도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19~29세	30~39세
2016	%	52.4	54.6	50.0	54.3	52.2	52.0
	평균(세)	26.2	26.2	26.3	24.6	26.2	26.9
2017	%	58.9	61.5	56.0	56.6	56.1	62.4
	평균(세)	25.4	25.7	25.0	23.2	25.5	25.8
2018	%	46.9	50.1	43.4	44.1	44.4	49.8
	평균(세)	27.9	28.0	27.8	26.6	28.0	28.3
2019	%	52.4	56.5	47.8	54.2	50.1	54.2
	평균(세)	25.6	26.0	25.1	23.9	25.7	26.1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1) 가정으로부터 분가 독립에 '독립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비율
2)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1-1-7. 적정 결혼 시기

다음으로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2019년 45.8%로 2018년 42.9%에 비해 2.9%p 증가하였으며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응답자에게만 적정한 결혼 연령을 물어본 결과, 평균 30.4세로 2018년 30.9세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성별로 살펴보면 분가 및 독립 응답 결과와 마찬가지로 여자(39.7%)보다 남자(51.4%)가 결혼해야 한다는 비율이 높았으며, 타 연령대에 비해 20대가 결혼해야 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단위: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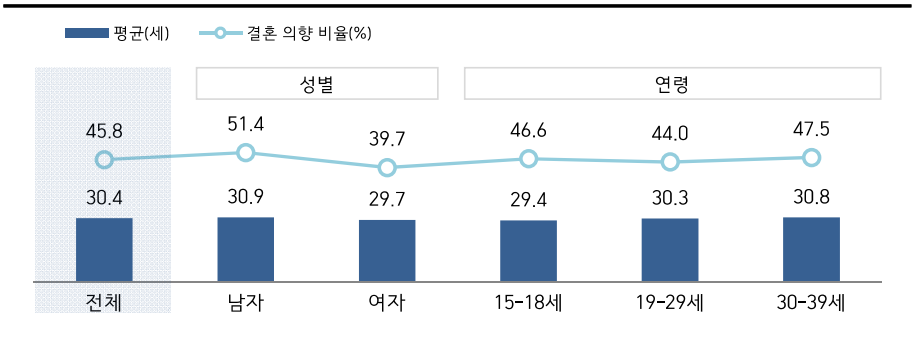


그림 Ⅲ-10. 결혼 의향 및 적정 결혼 시기

표 Ⅲ-18 연도별 결혼 의향 및 적정 결혼 시기

(단위: %, 세)

연도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19~29세	30~39세
2016	%	56.0	57.9	53.8	57.3	54.3	57.2
	평균(세)	30.1	30.5	29.7	29.4	30.1	30.4
2017	%	53.9	59.7	47.6	53.9	52.8	55.1
	평균(세)	30.2	30.5	29.8	29.0	30.2	30.5
2018	%	42.9	45.4	40.2	45.0	38.9	45.6
	평균(세)	30.9	31.2	30.5	30.9	30.9	30.9
2019	%	45.8	51.4	39.7	46.6	44.0	47.5
	평균(세)	30.4	30.9	29.7	29.4	30.3	30.8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1) 결혼 시기를 묻는 문항에 '결혼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
2)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1-1-8. 적정 출산 시기

마지막으로 첫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2019년 46.1%로 2018년 44.0%에 비해 2.1%p 증가하였으며 첫 자녀 출산을 해야 한다는 응답자에게만 적정한 출산 연령을 물어본 결과, 평균 31.8세로 2018년 32.0세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성별로 살펴보면 독립, 결혼과 마찬가지로 여자(40.3%)보다 남자(51.3%)가 첫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비율이 높았으며, 타 연령대에 비해 30대에서 첫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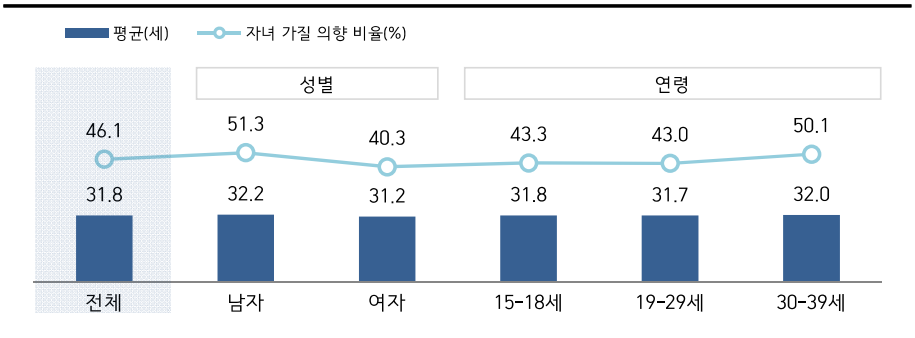


그림 Ⅲ-11. 출산 의향 및 적정 출산 시기

표 Ⅲ-19 연도별 출산 의향 및 적정 출산 시기

(단위: %, 세)

연도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19~29세	30~39세
2016	%	54.0	55.1	52.9	54.1	51.4	56.6
	평균(세)	31.2	31.7	30.6	30.9	31.3	31.3
2017	%	54.1	59.4	48.2	52.3	51.9	56.8
	평균(세)	31.3	31.7	30.8	30.8	31.4	31.4
2018	%	44.0	45.1	42.7	45.1	38.9	47.8
	평균(세)	32.0	32.4	31.5	32.2	32.0	31.9
2019	%	46.1	51.3	40.3	43.3	43.0	50.1
	평균(세)	31.8	32.2	31.2	31.8	31.7	32.0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1) 자녀를 가질 필요성에 '자녀를 가져야 함'이라고 응답한 비율,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2)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1-1-9. 해외이주 의사

2019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중 해외이주 의사를 묻는 질문에서 고려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9년 28.8%로 2017년 14.1%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남자(27.2%)보다 여자(30.5%)가, 연령이 높을수록(15~18세 22.2%, 19~29세 28.3%, 30~39세 31.2%) 해외이주 의사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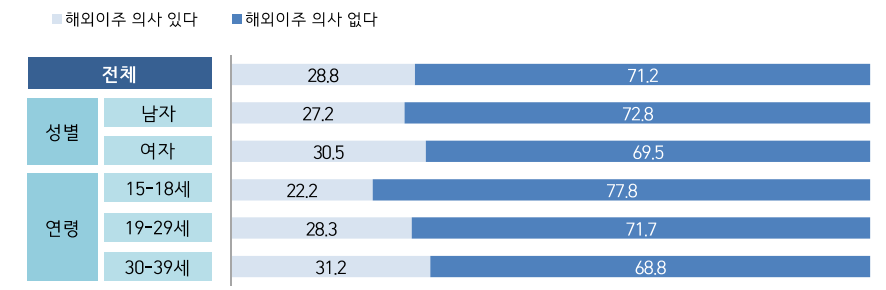


그림 Ⅲ-12. 해외이주 의사

표 Ⅲ-20 연도별 해외이주 의사

(단위: %)

연도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19~29세	30~39세
2016	있다	22.2	22.2	22.3	22.1	26.5	18.1
	없다	77.7	77.7	77.7	77.9	73.4	81.9
	모름/무응답	0.0	0.1	-	-	0.1	-
2017	있다	36.0	32.9	39.3	25.8	36.8	38.2
	없다	64.0	67.1	60.7	74.2	63.2	61.8
2018	있다	14.1	14.4	13.7	8.1	15.8	14.5
	없다	85.9	85.6	86.3	91.9	84.2	85.5
2019	있다	28.8	27.2	30.5	22.2	28.3	31.2
	없다	71.2	72.8	69.5	77.8	71.7	68.8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1-1-10. 해외이주 고려 이유

2019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해외이주 의사가 있다고 밝힌 청년들이 해외이주를 고려해본 이유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라는 이유가 30.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새로운 사회에 도전해 보고 싶어서(17.8%)', '더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서(14.2%)' 등의 순이었다. 전년 대비 행복한 삶(+7.9%p), 교육 환경(+3.7%p), 집값(+3.3%p) 등 생활 환경으로 인해 해외 이주를 고려를 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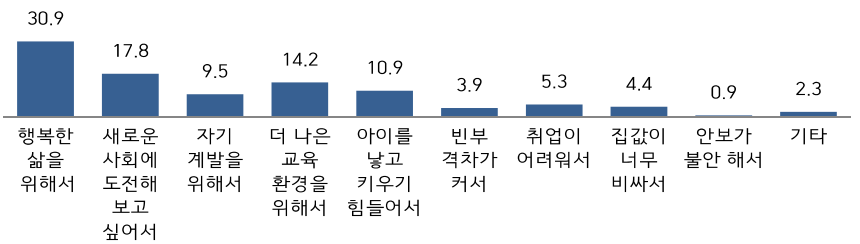


그림 Ⅲ-13. 해외이주 고려 이유

표 Ⅲ-21 연도별 해외이주 고려 이유

(단위: %)

연도	행복한 삶을 위해서	새로운 사회에 도전해 보고 싶어서	자기 계발을 위해서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위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기 힘들어서	빈부 격차가 커서	취업이 어려워서	집값이 너무 비싸서	안보가 불안해서	기타
2016	27.8	18.5	12.8	12.6	8.4	7.8	6.8	2.5	1.7	1.2
2017	34.3	18.7	11.2	13.4	7.9	3.7	5.5	2.1	2.0	1.0
2018	23.0	26.2	15.5	10.5	8.4	4.1	8.7	1.1	2.3	0.2
2019	30.9	17.8	9.5	14.2	10.9	3.9	5.3	4.4	0.9	2.3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1) 해외이주를 고려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2)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1-2-1. 혼인율

청년고용법에 따른 청년 연령 정의인 15~29세를 대상으로 혼인건수를 살펴보았을 때, 남녀 합계 혼인건수는 2000년 약 43만 5천 건에서 2018년 약 16만 9천 건으로 절반 이상 크게 감소였다. 특히 같은 기간 내에 15~39세 청년층의 혼인건수(2000년 56만 3천 건→2018년 39만 8천 건, 2000년 대비 70.7% 수준) 감소보다 20-29세 청년층의 혼인건수(2000년 42만 5천 건→2018년 16만 6천 건, 2000년 대비 39.1% 수준)가 훨씬 큰 폭으로 감소하여 20대 청년층의 혼인 감소가 전체 혼인건수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1천 명 당 혼인 건수인 혼인율을 성별로 살펴보면, 15~29세 청년층의 경우 남자는 2000년 84.0건에서 2018년 35.3건으로, 여자는 같은 기간 124.1건에서 70.4건 감소하였으며, 특히 20대 남성(2000년 83.0건→2018년 35.0건, 2000년 대비 42.2% 수준)의 경우 타 연령대 및 성별에 비해 절반 이하로 혼인율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단위: 천 건, 천명당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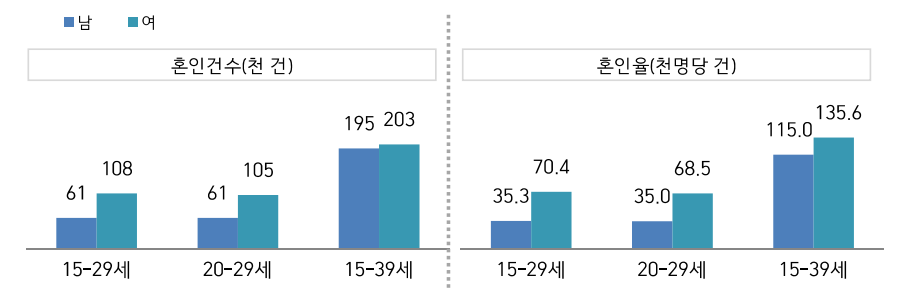


그림 Ⅲ-14. 청년층 혼인건수 및 혼인율

표 Ⅲ-22 청년층 혼인건수 및 혼인율 추이

(단위: 천 건, 천명당 건)

연도	혼인건수(천 건)						혼인율(천명당 건)					
	15~29세		20~29세		15~39세		15~29세		20~29세		15~39세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00	186	249	184	241	283	280	84.0	124.1	83.0	119.7	134.2	149.3
2001	166	228	164	221	265	262	77.9	116.3	76.9	112.4	128.6	143.2
2002	150	212	148	206	251	249	72.8	110.5	71.9	107.0	124.3	138.3
2003	137	202	136	197	244	243	69.2	108.2	68.4	104.9	122.9	138.1
2004	126	195	125	190	241	240	65.3	107.3	64.6	104.0	123.3	140.6
2005	120	191	119	186	241	242	62.6	107.0	62.0	103.1	124.3	143.5
2006	128	207	127	200	261	266	65.3	115.0	64.7	109.9	133.7	155.0
2007	129	211	128	205	273	277	65.0	116.7	64.5	112.8	139.9	161.4
2008	118	193	117	186	257	261	58.9	107.2	58.4	103.1	133.1	153.9
2009	106	174	105	169	242	247	53.9	98.0	53.6	94.7	127.0	146.3
2010	106	179	105	173	257	264	55.9	104.1	55.5	100.6	136.1	158.3
2011	102	172	101	167	261	268	56.6	104.7	56.2	101.6	140.4	163.7
2012	92	160	92	156	259	265	53.9	101.7	53.5	98.8	140.7	165.1
2013	87	152	86	148	256	263	52.9	100.2	52.4	97.5	141.1	165.9
2014	79	137	78	133	239	245	48.6	92.0	48.0	89.6	133.7	157.2
2015	76	134	75	131	237	243	46.9	90.6	46.4	88.4	134.4	158.1
2016	69	123	68	120	218	226	41.8	82.5	41.3	80.3	125.4	148.2
2017	65	113	64	111	202	210	38.1	74.8	37.7	72.9	118.1	138.8
2018	61	108	61	105	195	203	35.3	70.4	35.0	68.5	115.0	135.6

* 출처 1) 혼인건수: 통계청(각 년도b). 인구동향조사(시도/초혼연령별 혼인).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 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06&conn_path=I2에서 2019년 7월 18일 인출.
2) 혼인율: 통계청(각 년도b). 인구동향조사(시도/성/연령별 혼인율).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 kr/statHtml/statHtml. do?orgId=101&tblId=DT_1B83A15&conn_path=I2에서 2019년 7월 18일 인출.

1-2-2. 초혼연령

초혼연령은 2018년 기준 남성 33.2세, 여성 30.4세로 지난 2000년 이후 남녀 모두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 대비 2~3세 가량 높은 초혼연령을 보이고 있는 경향이 매년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다.

(단위: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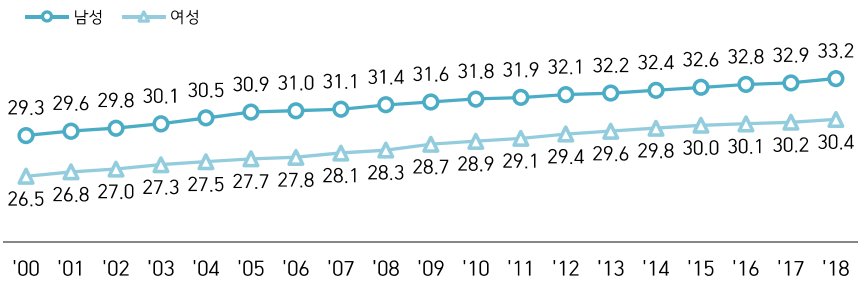


그림 Ⅲ-15. 성별 초혼 연령 연도별 추이

표 Ⅲ-23 연도별 성별 초혼 연령 추이

(단위: 세)

연도	남성		여성	
	평균 초혼 연령	전년대비 증감	평균 초혼 연령	전년대비 증감
2000	29.3	0.21	26.5	0.20
2001	29.6	0.27	26.8	0.29
2002	29.8	0.22	27.0	0.23
2003	30.1	0.37	27.3	0.26
2004	30.5	0.39	27.5	0.25
2005	30.9	0.34	27.7	0.20
2006	31.0	0.09	27.8	0.07
2007	31.1	0.15	28.1	0/.30
2008	31.4	0.27	28.3	0.23
2009	31.6	0.23	28.7	0.39
2010	31.8	0.23	28.9	0.20
2011	31.9	0.06	29.1	0.23
2012	32.1	0.23	29.4	0.27
2013	32.2	0.08	29.6	0.18
2014	32.4	0.21	29.8	0.22
2015	32.6	0.15	30.0	0.15
2016	32.8	0.22	30.1	0.15
2017	32.9	0.15	30.2	0.13
2018	33.2	0.21	30.4	0.29

* 출처: 통계청(각 년도b). 인구동향조사(시도별 평균초혼연령).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 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05&conn_path=I2에서 2019년 7월 18일 인출.

1-2-3. 결혼준비 경험

2019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청년들 중 '결혼을 준비해본 경험이 있다'는 비율은 44.5%로, 남자(36.4%)보다 여자(53.6%)가 결혼준비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준비경험에서도 20대의 결혼준비 경험은 15.5%인 반면, 30대의 경우 75.7%로 연령대별 차이가 큰 것으로 보아 혼인건수 및 초혼연령 추세와 연관된 결과로 보인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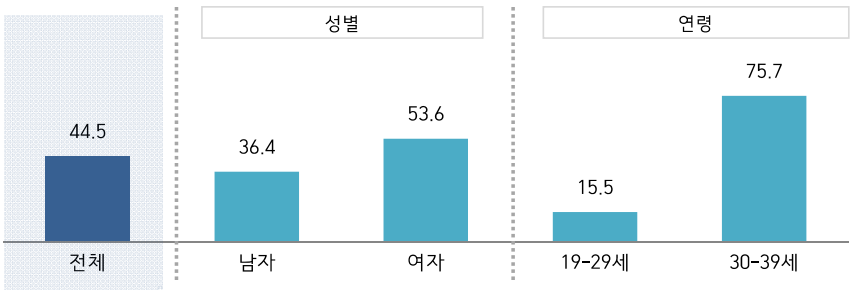


그림 Ⅲ-16. 결혼준비 경험

표 Ⅲ-24 연도별 결혼준비 경험 추이

(단위: %)

연도	전체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9~29세	30~39세
2016	42.0	36.4	47.9	9.2	74.8
2017	44.3	38.2	51.0	16.3	73.2
2018	39.4	36.0	43.0	7.2	66.1
2019	44.5	36.4	53.6	15.5	75.7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1) 결혼준비 경험에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2)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1-2-4. 결혼 망설임 여부 및 이유

2019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결혼을 준비한 경험이 있는 청년들에게 준비 과정에서 결혼을 망설인 경험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30.5%가 망설인 적이 있다고 응답, 전년 대비 2.4%p 하락하였다. 이전 년도에 비해 성별 간, 연령대 내 간극이 줄어들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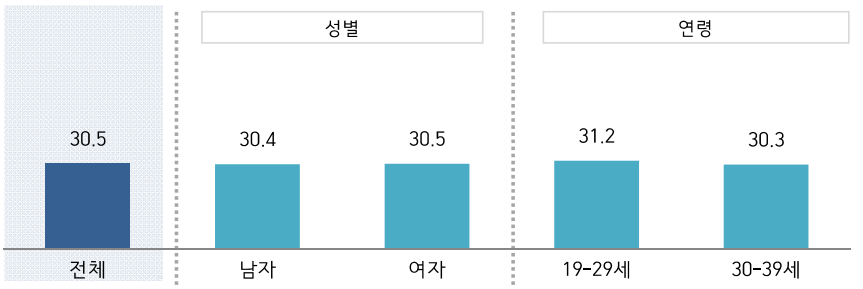


그림 Ⅲ-17. 결혼 망설임 여부

표 Ⅲ-25 연도별 결혼 망설임 여부 추이

(단위: %)

연도	전체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9~29세	30~39세
2016	41.4	46.3	37.5	49.7	40.5
2017	31.2	29.3	32.8	37.6	29.8
2018	32.9	29.6	35.8	35.2	32.6
2019	30.5	30.4	30.5	31.2	30.3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1) 결혼비용 부담으로 결혼을 망설인 경험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
2) 결혼을 준비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 응답
3)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1-2-5. 출생아 수 및 출산율

2018년 기준 15~29세 모의 출생아 수는 8만 명으로 2000년 40만 7천명 대비 19.7%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2008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모 연령 기준을 30대까지로 확장한 15~39세 모 연령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2018년 31만 4천명으로 2000년 62만 7천명 대비 년 50.1%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집계 되었다. 출산율 또한 15~29세 모 연령 기준 2000년 190.9명에서 2018년 50.1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단위: 천 명, 1천명당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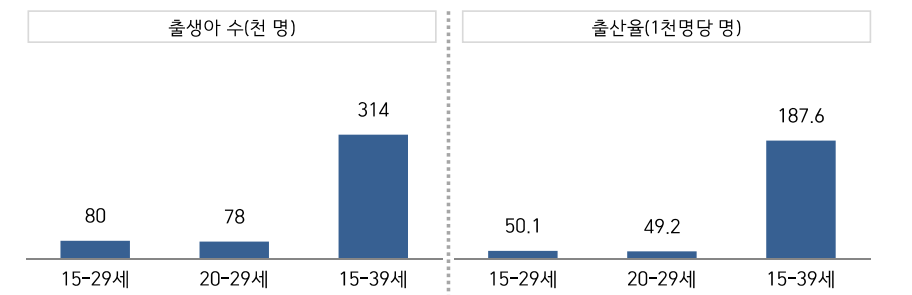


그림 Ⅲ-18. 모 연령별 출생아 수 및 출산율

표 Ⅲ-26 연도별 모 연령별 출생아 수 및 출산율 추이

(단위: 천 명, 1천명당 명)

연도	출생아 수			출산율		
	15~29세	20~29세	15~39세	15~29세	20~29세	15~39세
2000	407	403	627	190.9	188.4	291.6
2001	338	334	547	162.8	160.6	257.3
2002	283	278	486	140.0	137.4	231.1
2003	270	266	484	137.8	135.3	234.0
2004	242	239	466	127.4	125.1	228.8
2005	211	208	429	111.6	109.5	211.8
2006	207	204	442	109.2	107.0	219.8
2007	222	219	486	117.2	115.0	244.1
2008	200	197	458	105.5	103.8	233.5
2009	184	181	436	98.6	96.9	226.7
2010	175	172	460	98.0	96.2	243.0
2011	165	162	460	96.6	94.8	246.4
2012	155	152	473	95.2	93.4	256.1
2013	128	125	425	81.6	79.9	232.5
2014	120	117	423	78.1	76.5	235.1
2015	117	115	426	77.0	75.6	242.0
2016	106	104	393	69.2	67.9	228.0
2017	91	90	345	58.5	57.5	203.4
2018	80	78	314	50.1	49.2	187.6

* 출처 1) 출생아 수: 통계청(각 년도b). 인구동향조사(시군구/ 모의 평균 출산연령, 모의 연령별(5세간격) 출생).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28&conn_path=I2에서 2019년 8월 30일 인출.
2) 출산율: 통계청(각 년도b). 인구동향조사(시군구/합계출산율, 모의 연령별 출산율).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17&conn_path=I2에서 2019년 8월 30일 인출.

1-2-6. 출산연령

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평균 초혼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 29.0세였던 모의 평균 출산 연령은 2004년 처음으로 30대에 접어들었고, 2018년 평균 출산 연령은 32.8세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단위: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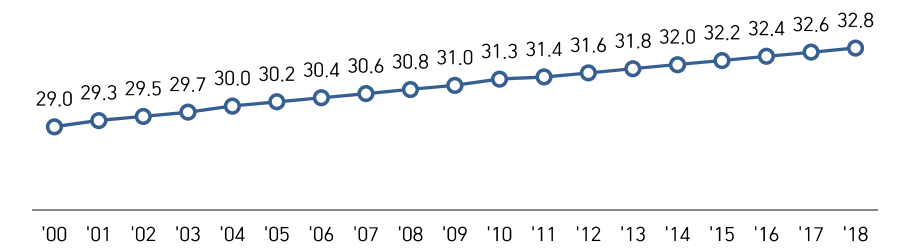


그림 Ⅲ-19. 모의 평균 출산 연령

표 Ⅲ-27 연도별 모의 평균 출산 연령 추이

(단위: 세)

연도	출산연령	연도	출산연령
2000	29.0	2010	31.3
2001	29.3	2011	31.4
2002	29.5	2012	31.6
2003	29.7	2013	31.8
2004	30.0	2014	32.0
2005	30.2	2015	32.2
2006	30.4	2016	32.4
2007	30.6	2017	32.6
2008	30.8	2018	32.8
2009	31.0		

* 출처: 통계청(각 년도b). 인구동향조사(시군구/ 모의 평균 출산연령, 모의 연령별(5세간격) 출생).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28&conn_path=I2에서 2019년 8월 30일 인출.

1-2-7. 맞벌이 여부

2019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는 맞벌이 여부를 물어본 결과 46.6%가 맞벌이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성별과 연령대별 차이는 크지 않았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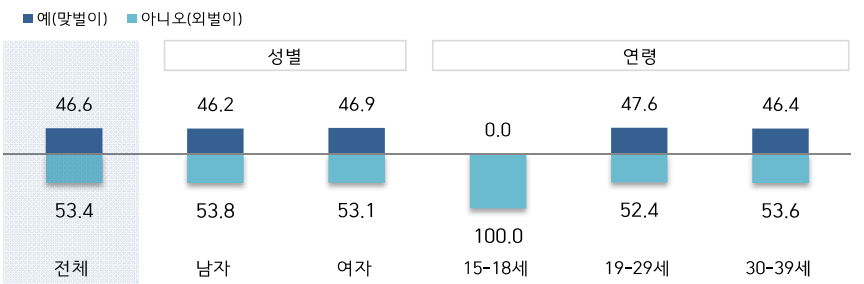


그림 Ⅲ-20. 맞벌이 여부

표 Ⅲ-28 연도별 맞벌이 여부

(단위: %)

연도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19~29세	30~39세
2016	예(맞벌이)	47.7	49.3	46.5	49.5	47.5	18.1
	아니오(외벌이)	52.3	50.7	53.5	50.5	52.5	81.9
2017	예(맞벌이)	49.9	48.4	51.0	41.0	51.8	38.2
	아니오(외벌이)	49.5	50.3	49.0	57.7	47.8	61.8
	모름/무응답	0.6	1.3	0.0	1.3	0.4	-
2018	예(맞벌이)	61.6	64.1	59.3	0.0	52.5	62.7
	아니오(외벌이)	38.4	35.9	40.7	100.0	47.5	37.3
2019	예(맞벌이)	46.6	46.2	46.9	0.0	47.6	46.4
	아니오(외벌이)	53.4	53.8	53.1	100.0	52.4	53.6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1)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경우만 응답
2)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1-2-8. 자녀 유무

2019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5.4%로, 2018년 28.3% 대비 7.1%p 상승하였다. 초혼 및 출산연령의 증가 추세와 마찬가지로 자녀 유무 결과에서도 30~39세 연령층의 유자녀 비율이 62.8%로 타 연령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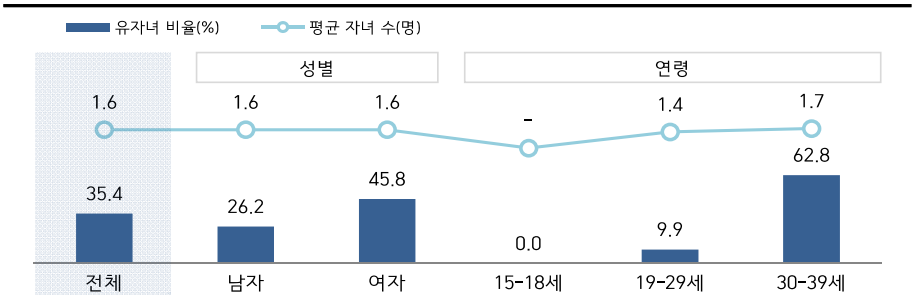


그림 Ⅲ-21. 자녀 유무

표 Ⅲ-29 연도별 자녀 유무

(단위: %)

연도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19~29세	30~39세
2016	%	31.7	25.2	38.8	-	4.8	58.7
	평균(명)	1.6	1.5	1.7	-	1.2	1.6
2017	%	35.6	27.9	44.2	3.6	11.1	60.9
	평균(명)	1.7	1.7	1.7	2.0	1.7	1.7
2018	%	28.3	24.4	32.6	0.0	3.1	49.3
	평균(명)	1.5	1.5	1.5	-	1.3	1.5
2019	%	35.4	26.2	45.8	0.0	9.9	62.8
	평균(명)	1.6	1.6	1.6	-	1.4	1.7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1) 자녀 유무에 '예(자녀 있음)'에 응답한 비율(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2)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1-2-9. 자녀를 가질 계획

2019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향후 자녀를 가질 의향이 있는지(이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자녀를 가질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47.6%가 '자녀 계획이 있다'라고 응답하여 2018년 56.2% 대비 8.6%p 하락 하였다. 이전년도와 비교 했을 때 특히 여자(2018년 50.7%→2019년 39.4%)와 15-18세(2018년 76.0%→2019년 54.4%)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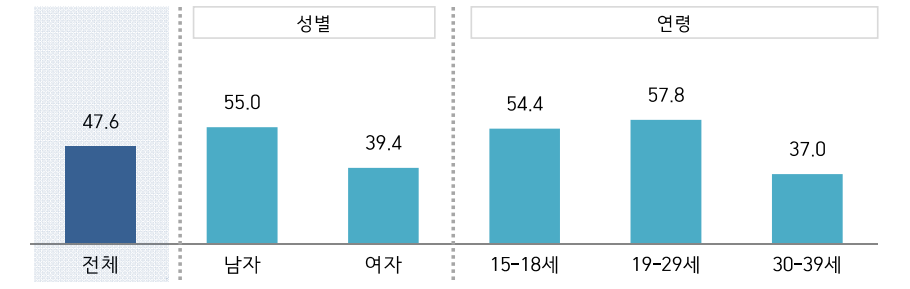


그림 Ⅲ-22. 자녀를 가질 계획

표 Ⅲ-30 연도별 자녀를 가질 계획

(단위: %)

연도	전체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19~29세	30~39세
2016	59.5	66.2	52.2	77.7	75.5	43.5
2017	55.8	63.6	47.2	76.7	71.4	39.8
2018	56.2	61.2	50.7	76.0	68.1	46.2
2019	47.6	55.0	39.4	54.4	57.8	37.0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1) 향후 자녀를 가질 의향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
2)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2) 교육과 훈련

2-1-1. 진학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진학률은 2000년대 들어 99% 이상의 비율이 유지되고 있는 반면, 고등학교에서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률은 통계 기준이 변경된 2011년 이래로 꾸준히 감소해 2016년 이후에는 60%대의 진학률을 보이고 있다.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을 성별로 비교 해 보면 2005년 이전까지는 남자의 진학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2010년 이후 역전되어 2013년 이후부터는 여자의 진학률이 남자에 비해 약 7%p 높게 유지되고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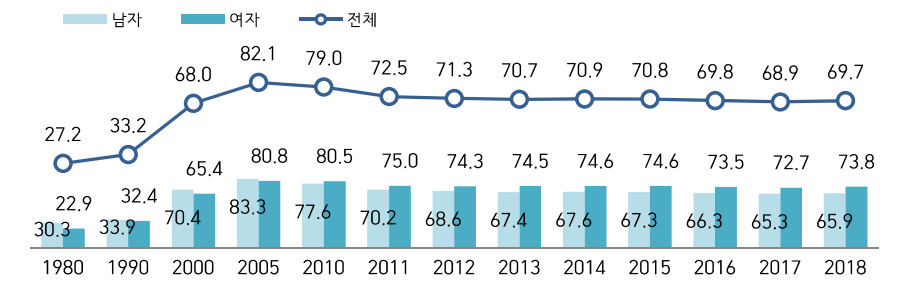


그림 Ⅲ-23.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표 Ⅲ-31 연도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추이

(단위: %)

연도	초등학교→중학교			중학교→고등학교			고등학교→고등교육기관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1980	95.8	97.4	94.1	84.5	87.5	80.8	27.2	30.3	22.9
1990	99.8	99.8	99.8	95.7	96.3	95.0	33.2	33.9	32.4
2000	100	100	100	99.6	99.5	99.6	68.0	70.4	65.4
2005	100	100	100	99.7	99.7	99.8	82.1	83.3	80.8
2010	100	100	100	99.7	99.7	99.7	79.0	77.6	80.5
2011	100	100	100	99.7	99.7	99.7	72.5	70.2	75.0
2012	100	100	100	99.7	99.7	99.7	71.3	68.6	74.3
2013	100	100	100	99.7	99.7	99.7	70.7	67.4	74.5
2014	100	100	100	99.7	99.7	99.7	70.9	67.6	74.6
2015	100	100	100	99.7	99.7	99.8	70.8	67.3	74.6
2016	100	100	100	99.7	99.7	99.8	69.8	66.3	73.5
2017	100	100	100	99.7	99.7	99.7	68.9	65.3	72.7
2018	100	100	100	99.7	99.7	99.7	69.7	65.9	73.8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7). 교육통계분석자료집-유·초·중등 교육통계편. p.64. 교육통계서비스 웹사이트 http://kess.kedi.re.kr/index에서 2019년 7월 19일 인출.

* 주: 1) 진학률 = (진학자 수/졸업자 수)×100, 당해년도 졸업자의 진학률임.
2) 중학교과정은 중학교 및 중학교과정의 기타학교가 포함되며, 고등학교과정은 고등학교 및 고등학교과정의 기타학교가 포함됨.
3) 진학자 수 기준 변경: 2010년까지 대학합격자 기준이었으나, 2011년부터 대학등록자 기준으로 변경

2-1-2. 대학등록금

연간 대학등록금은 2018년 전문대 전체 기준 약 574만원으로 2014년(약 572만원) 이래 등록금 액수는 매년 1만원 미만의 상승폭이 유지되고 있으며, 4년제 대학 전체의 등록금 또한 2018년 기준 약 556만원으로 2014년 555만원에서 큰 변동은 없는 상태이다. 다만,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등록금 액수 및 추이를 비교 해 보면 국공립대학의 경우 2015년 이후의 등록금 액수가 소폭 감소하는 반면, 국공립대학 평균 등록금의 2.6배가량 되는 사립대학 등록금은 금액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간 등록금 격차가 2014년 431만원에서 2018년 438만원으로 점차 커지고 있어 사립대학 재학생의 부담이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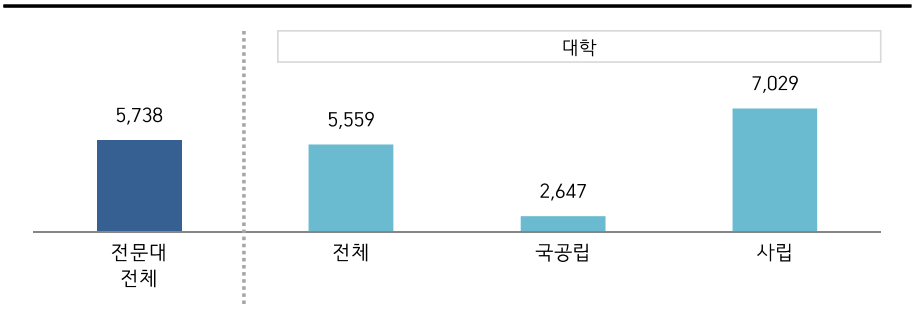


그림 Ⅲ-24. 대학등록금

표 Ⅲ-32 연도별 대학등록금 추이

(단위: 천원)

연도	전문대 전체	대학		
		전체	국공립	사립
2014	5,721	5,554	2,641	6,955
2015	5,726	5,551	2,665	6,971
2016	5,729	5,552	2,651	6,984
2017	5,732	5,556	2,652	7,003
2018	5,738	5,559	2,647	7,029

* 출처: 대학알리미(각 년도). 평균등록금. 대학알리미 웹사이트 http://www.academyinfo.go.kr/에서 2019년 7월 19일 인출.

* 주 1) 국공립: 국립, 공립, 특별법국립, 특별법법인, 국립대법인을 포함함.
2) 사립: 사립 및 기타를 포함함.

2-1-3. 대학등록금 대출자 비율

대학등록금 대출자 비율은 2018년 전문대 전체 기준 10.17%, 4년제 전체 기준으로 8.03%로 대학 유형에 상관없이 2014년(전문대 전체 17.42%, 4년제 전체 11.88%) 이후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다. 국공립 및 사립대학을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등록금 액수가 큰 사립대학이 대출자 비율도 높으나 그만큼 감소폭도 크게 나타나 2018년에는 10% 미만(9.74%) 수준까지 감소하였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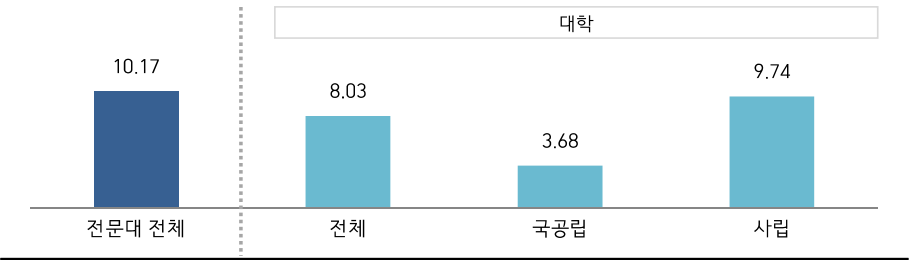


그림 Ⅲ-25. 대학등록금 대출자 비율

표 Ⅲ-33 연도별 대학등록금 대출자 비율 추이

(단위: %)

연도	전문대 전체	대학		
		전체	국공립	사립
2014	17.42	11.88	5.68	14.41
2015	15.45	10.80	4.87	13.21
2016	12.63	9.22	4.13	11.27
2017	11.04	8.41	3.81	10.23
2018	10.17	8.03	3.68	9.74

* 출처: 대학알리미(각 년도). 학자금대출 이용학생비율(등록금(학비)). 대학알리미 웹사이트 http://www.academyinfo.go.kr/에서 2019년 7월 19일 인출.

* 주 1) 국공립: 국립, 공립, 특별법국립, 특별법법인, 국립대법인을 포함함.
2) 사립: 사립 및 기타를 포함함.

2-1-4. 장학금 규모

재학생 1인당 장학금 규모는 2018년 전문대 전체 기준 약 340만원, 4년제 대학 전체 기준 약 307만원으로 2014년 이래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학교 유형별로 보면, 2014년 대비 2018년 기준 전문대의 장학금 규모 상승폭(2014년 약 214만원→2018년 약 341만원, 127만원 상승)이 4년제 대학의 장학금 규모 상승폭(2014년 약 231만원→2018년 약 307만원, 76만원 상승)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국공립 및 사립대학의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을 비교해 보면 국공립 대학은 장학금이 약 220만원으로 연 평균 대학등록금(265만원)의 83.2% 수준인 반면, 사립대학의 경우 등록금(703만원) 대비 장학금(340만원) 비율이 절반에 못 미치는 약 48.3% 수준에 불과해 사립대학의 장학금 규모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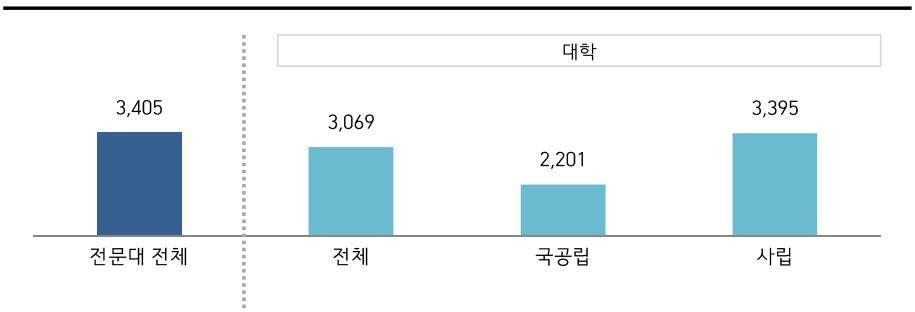


그림 Ⅲ-26. 재학생 1인당 장학금

표 Ⅲ-34 연도별 재학생 1인당 장학금 추이

(단위: 천원)

연도	전문대 전체	대학		
		전체	국공립	사립
2014	2,136	2,307	1,675	2,559
2015	3,009	2,658	1,986	2,918
2016	3,214	2,857	2,080	3,158
2017	3,306	2,974	2,137	3,293
2018	3,405	3,069	2,201	3,395

* 출처: 대학알리미(각 년도). 재학생 1인당 장학금. 웹사이트 http://www.academyinfo.go.kr/에서 2019년 7월 19일 인출.

* 주 1) 국공립: 국립, 공립, 특별법국립, 특별법법인, 국립대법인을 포함함.
2) 사립: 사립 및 기타를 포함함.

2-1-5. 학제별 대학 졸업 소요기간

대졸자의 졸업 소요기간을 살펴보면, 2007년 평균 46개월에서 2019년 평균 51개월로 5개월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근 4년간으로 보면 50~51개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학제(4년제/3년제 이하)별로 살펴보면, 4년제는 2009년 63개월에서 조금씩 감소하여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61개월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3년제 이하 전문대학은 2010년 33개월에서 2019년 36개월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학제와 관계없이 남학생의 경우 군입대로 인한 휴학 등의 사유로 졸업 소요기간이 여학생보다 15~20개월가량 길게 나타났다.

(단위: 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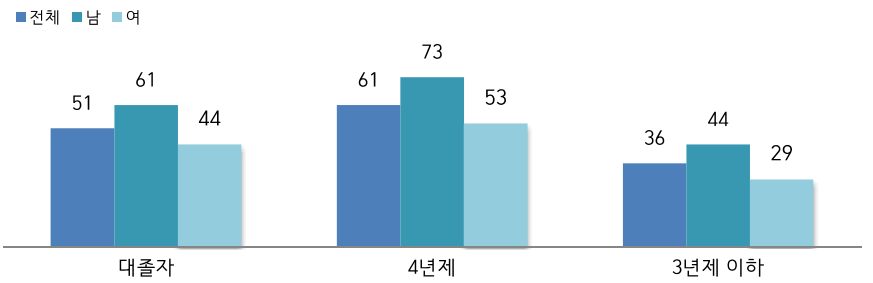


그림 Ⅲ-27. 학제별 대학졸업 소요기간

표 Ⅲ-35 연도별 학제별 대학졸업 소요기간 추이

(단위: 개월)

연도	대졸자			4년제			3년제 이하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2007	46	60	37	61	76	51	34	46	26
2008	48	62	38	62	76	52	34	47	26
2009	48	62	38	63	77	52	34	46	26
2010	48	62	39	63	78	53	33	45	26
2011	49	63	40	63	77	53	34	46	27
2012	49	63	40	63	77	54	34	47	27
2013	49	62	40	62	76	53	34	46	27
2014	49	63	41	62	75	52	34	46	27
2015	49	62	41	61	74	52	34	45	27
2016	51	63	42	61	75	52	35	47	28
2017	50	62	42	61	74	52	35	44	28
2018	51	62	43	61	74	52	35	45	29
2019	51	61	44	61	73	53	36	44	29

* 출처: 통계청(각 년도c).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E9049S&conn_path=I2에서 2019년 7월 19일 인출.

2-1-6. 대졸자 휴학 현황

2019년 기준 대졸자 중 약 43.1%는 휴학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며, 평균 휴학기간은 26개월이었다. 2011년 43.1%로 40%대를 넘어선 뒤 2015년(40.3%)를 제외하면 42~44%의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휴학 사유를 보면 '병역의무 이행'이 69.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취업 및 자격시험 준비(30.3%)', '어학연수 및 인턴 등 현장 경험(13.9%)' 등의 순이었다. 휴학 사유 중 취업 및 자격시험 준비로 인한 휴학의 경우 큰 변동이 없는 다른 사유에 비해 최근 5년간 급증(2015년 20.0%->2019년 30.3%)하여 취업난 가중으로 인한 휴학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위: %, 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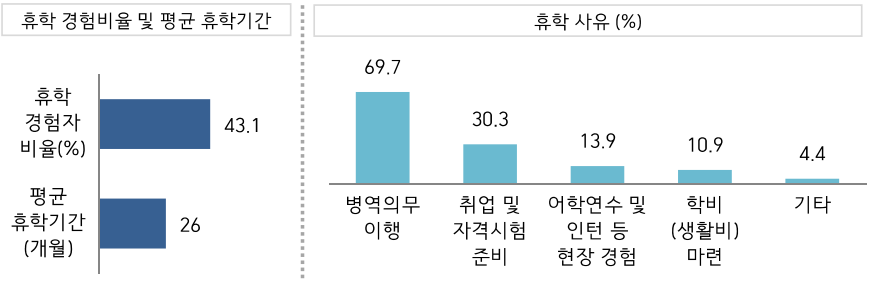


그림 Ⅲ-28. 대졸자 휴학 현황

표 Ⅲ-36 연도별 대졸자 휴학 현황 추이

(단위: %, 개월)

연도	휴학경험자 비율(%)	평균 휴학기간 (개월)	휴학 사유(%)				
			병역의무 이행	취업 및 자격시험 준비	어학연수 및 인턴 등 현장 경험	학비 (생활비) 마련	기타
2007	36.4	29	74.6	14.6	10.0	12.7	11.1
2008	38.6	28	71.1	16.8	11.3	12.6	9.5
2009	39.6	28	70.5	17.3	13.0	12.5	8.2
2010	39.8	28	68.1	19.2	14.6	12.8	9.0
2011	43.1	28	68.8	17.6	15.1	12.2	10.5
2012	42.8	28	69.0	21.7	15.3	10.9	10.4
2013	42.8	27	68.9	23.3	12.6	12.4	8.8
2014	42.6	27	69.4	22.4	14.0	14.1	8.0
2015	40.3	27	72.4	20.0	14.1	13.2	5.0
2016	44.4	26	68.3	27.0	15.3	11.4	5.3
2017	43.1	26	69.7	30.3	13.9	10.9	4.4
2018	44.4	25	66.9	29.6	12.9	9.6	6.6
2019	43.1	26	69.7	30.3	13.9	10.9	4.4

* 출처: 통계청(각 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성별 휴학경험유무, 휴학사유(복수응답), 평균휴학기간 (대졸자)).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E9050S&conn_path=I2에서 2019년 7월 19일 인출.

* 주: 휴학 사유는 복수응답으로 구성비 합이 100을 넘음.

2-1-7. 대학생 학업중단율

재적 학생 수 대비 학업 중단 학생 수의 비율인 학업중단율의 경우, 2018년 고등교육기관 기준 6.8%로 2015년에 전년 대비 0.8%p 상승(2014년 6.7%→2015년 7.5%)한 것을 제외하면 매해 6.5~6.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청년층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전문대학의 경우 2012년, 일반대학의 경우 2013년을 기점으로는 재적 학생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5년(2014~2018년) 기준으로 보면 전문대학은 학업 중단자수가 재적 학생 수와 같이 감소하는 반면, 일반대학의 경우에는 학생 수 감소와는 반대로 학업 중단자수는 오히려 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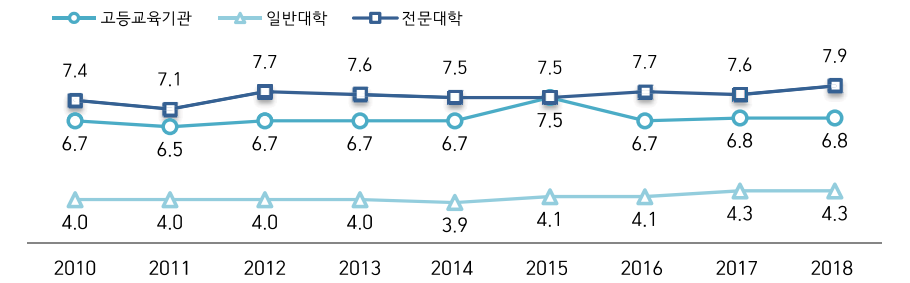


그림 Ⅲ-29. 대학생 학업중단율

표 Ⅲ-37 연도별 대학생 학업중단율 추이

(단위: 명, %)

연도	고등교육기관			일반대학			전문대학		
	학업 중단자수	재적 학생수	학업 중단율	학업 중단자수	재적 학생수	학업 중단율	학업 중단자수	재적 학생수	학업 중단율
2010	222,524	3,327,525	6.7	81,641	2,028,841	4.0	56,658	767,087	7.4
2011	221,820	3,405,773	6.5	82,818	2,065,451	4.0	55,191	776,738	7.1
2012	229,442	3,399,258	6.7	84,114	2,103,958	4.0	58,940	769,888	7.7
2013	226,756	3,379,912	6.7	84,335	2,120,296	4.0	57,651	757,721	7.6
2014	222,263	3,337,875	6.7	82,875	2,130,046	3.9	55,239	740,801	7.5
2015	245,048	3,274,593	7.5	86,498	2,113,293	4.1	54,093	720,466	7.5
2016	212,536	3,437,309	6.7	86,476	2,084,807	4.1	53,977	697,214	7.7
2017	211,954	3,378,393	6.8	87,878	2,050,619	4.3	51,719	677,721	7.6
2018	211,356	3,378,393	6.8	92,652	2,030,033	4.3	51,803	659,232	7.9

* 출처: 교육부. 2019년 교육기본통계 결과 발표. 교육통계서비스 웹사이트 http://std.kedi.re.kr/mobile에서 2019년 8월 30일 인출.

* 주: 1) 학업중단율(%)=학업 중단자 수/재적 학생 수
2) 고등교육기관에는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전공대학,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기능대학이 포함되며, 대학원은 제외함
3) 기타에는 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전공대학,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기능대학이 포함됨

2-1-8. 졸업 유예 경험 및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

2019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이수하고도 졸업을 늦춘 경험(졸업 유예) 또는 졸업을 늦추기 위해 일부러 졸업요건을 이수하지 않은 경험(졸업 필요조건 미이수)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졸업 유예 경험 비율은 9.5%로 2018년 13.3% 대비 3.8%p 감소, 졸업 필요조건 미이수 경험 비율은 4.2%로 2018년 8.0% 대비 3.8%p 감소하였다. 졸업 유예 및 미이수 경험 모두 이전년도와 동일하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경험 비율 또한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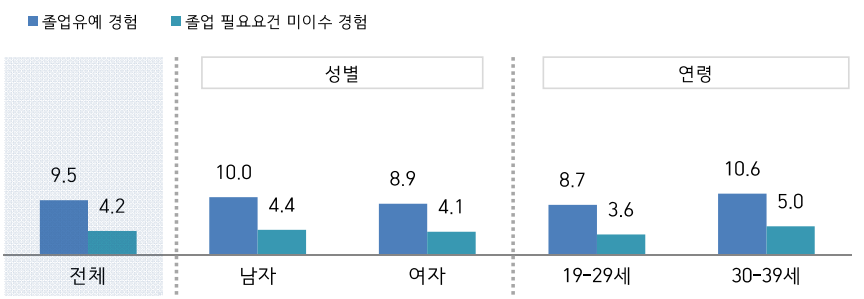


그림 Ⅲ-30. 졸업 유예 경험 및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

표 Ⅲ-38 연도별 졸업 유예 경험 및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 추이

(단위: %)

연도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9~29세	30~39세
2016	졸업유예 경험	5.3	5.8	4.7	5.5	5.2
	졸업 필요요건 미이수 경험	2.2	2.7	1.7	1.6	3.0
2017	졸업유예 경험	14.5	16.6	12.3	14.9	14.5
	졸업 필요요건 미이수 경험	6.1	6.7	5.4	6.8	5.4
2018	졸업유예 경험	13.3	17.0	8.9	11.8	14.7
	졸업 필요요건 미이수 경험	8.0	11.0	4.5	6.4	9.6
2019	졸업유예 경험	9.5	10.0	8.9	8.7	10.6
	졸업 필요요건 미이수 경험	4.2	4.4	4.1	3.6	5.0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1) 대학 진학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2)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2-1-9. 졸업 유예 및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 이유

졸업 유예 또는 졸업 필요 요건을 미이수한 이유를 물어본 결과,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해'라는 응답 비율이 51.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진로를 결정하지 못해서(22.8%)', '졸업을 해도 취업이 안 될 것 같아서(13.4%)' 등의 순으로 나타나 상위 3개 응답이 전부 취업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졸업 유예 또는 미이수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취업준비 사유 외에 20대 청년층의 경우 '진로를 결정하지 못해서', '졸업을 해도 취업이 안 될 것 같아서' 응답이 30대에 비해 높은 반면, 30대 청년층의 경우 '경제적으로 학비나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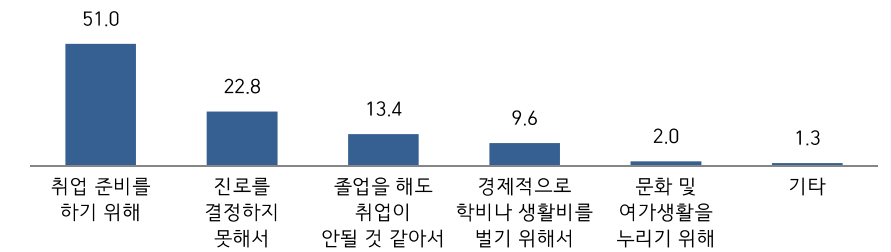


그림 Ⅲ-31. 졸업 유예 및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 이유

표 Ⅲ-39 졸업 유예 및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 이유(2019년)

(단위: %)

구분		취업준비를 하기 위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해서	졸업을 해도 취업이 안 될 것 같아서	경제적으로 학비나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문화 및 여가생활을 누리기 위해	기타
전체		51.0	22.8	13.4	9.6	2.0	1.3
성별	남자	47.8	18.2	16.7	12.9	3.3	1.0
	여자	54.8	28.3	9.4	5.6	0.3	1.6
연령	만19~29세	43.2	26.5	18.1	6.8	4.0	1.4
	만30~39세	57.5	19.7	9.3	11.9	0.3	1.2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9).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1) 졸업 유예 및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2) 2018년 신규 문항임.

2-1-10. 전공과 직업 일치도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또는 대학 이상 졸업자 중 취업 경험자 또는 현재 취업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전공 분야와 직업의 일치 정도를 살펴보았다. 2018년도 조사 결과, '전공과 직업 간 관계가 없다'는 응답이 37.2%('관계없는 편' 22.7%+'전혀 관계없음' 14.5%)로 '전공과 직무가 일치한다' 36.7%('매우 일치' 14.9%+'일치하는 편' 21.8%)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13~29세)의 전공 일치도가 39.6%('매우 일치' 16.0%+'일치하는 편' 23.6%)로 30대(30~39세)의 전공 일치도 37.7%('매우 일치' 15.8%+'일치하는 편' 21.9%)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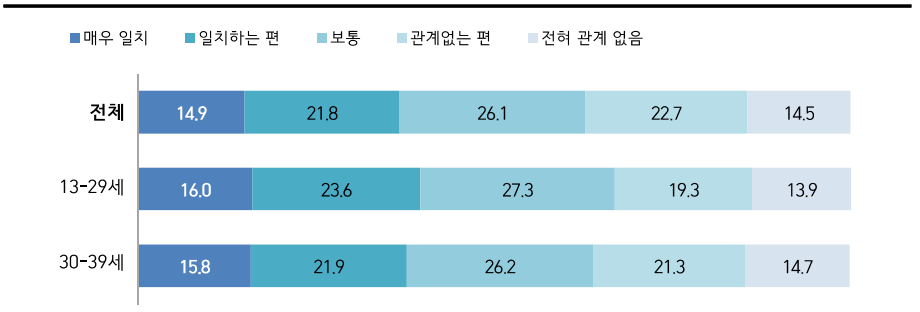


그림 Ⅲ-32. 전공과 직업 일치도

표 Ⅲ-40 연도별 전공과 직업 일치도 추이

(단위: 명, %)

연도	연령	전공과 직업 일치 정도				
		매우 일치	일치하는 편	보통	관계없는 편	전혀 관계 없음
2008	전체	15.0	22.7	23.7	22.7	16.0
	15-29세	15.0	25.7	23.4	20.5	15.3
	13-29세	-	-	-	-	-
	30-39세	15.6	23.1	22.6	22.4	16.4
2010	전체	14.6	21.7	23.9	25.1	14.6
	15-29세	17.1	21.7	23.3	23.7	14.2
	13-29세	-	-	-	-	-
	30-39세	14.5	22.7	24.4	24.0	14.4
2012	전체	15.9	22.4	24.2	23.2	14.3
	15-29세	-	-	-	-	-
	13-29세	18.1	22.9	22.9	20.9	15.2
	30-39세	17.8	22.8	23.7	21.3	14.4
2014	전체	15.4	21.5	25.1	23.4	14.6
	15-29세	-	-	-	-	-
	13-29세	17.1	21.6	25.5	21.3	14.4
	30-39세	16.0	22.8	24.7	22.7	13.8
2016	전체	15.3	21.0	25.4	23.4	14.9
	15-29세	-	-	-	-	-
	13-29세	18.6	22.7	23.9	19.5	15.4
	30-39세	15.5	20.4	26.0	23.4	14.6
2018	전체	14.9	21.8	26.1	22.7	14.5
	15-29세	-	-	-	-	-
	13-29세	16.0	23.6	27.3	19.3	13.9
	30-39세	15.8	21.9	26.2	21.3	14.7

* 출처: 통계청(각 년도). 사회조사(전공과 직업의 일치도(13세 이상 인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ED050R&conn_path=I2에서 2019년 7월 19일 인출.

* 주: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또는 대학이상 졸업자로 취업한 적이 있거나 현재 취업중인 자

2-1-11. 추후 대학 진학 의사

2019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대학 진학 경험이 없는 청년들에게 향후 대학에 진학할 의사가 있는지를 파악한 결과, 향후 진학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35.5%로 2018년 41.2% 대비 5.7%p 감소하였다. 성별로는 여자(39.5%)가 남자(32.0%)보다, 연령대별로는 15~18세 청년층이 84.6%로, 10% 이하인 타 연령대 대비 대학 진학 의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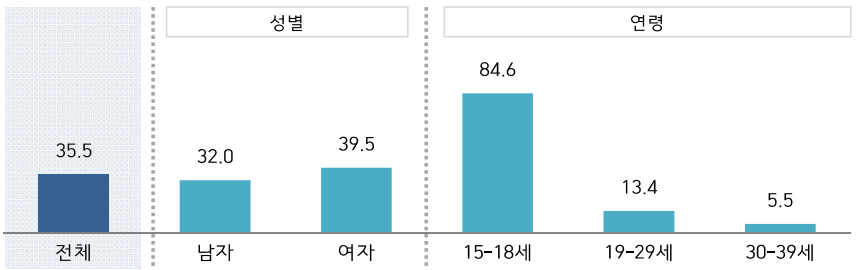


그림 Ⅲ-33. 추후 대학 진학 의사

표 Ⅲ-41 연도별 추후 대학 진학 의사 추이

(단위: %)

연도	전체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19~29세	30~39세
2013	14.2	15.6	12.9	-	28.7	6.4
2015	13.1	15.5	10.9	-	19.8	9.6
2016	36.6	38.8	34.6	90.4	22.0	4.5
2017	38.4	37.6	39.2	85.5	16.3	6.3
2018	41.2	43.5	39.0	90.5	14.1	4.4
2019	35.5	32.0	39.5	84.6	13.4	5.5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1) 향후 대학 진학 의향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 대학 진학 경험이 없는 경우만 응답
2) 2013년과 2015년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용역사업으로 수행되었으며, 조사대상은 19세-39세임.
3)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2-1-12. 대학 미진학 사유

2019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을 대상으로 미진학 사유를 질문한 결과,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가 35.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26.5%)',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에 성적이 부족해서(16.8%)' 등의 순이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0대의 경우 성적 부족, 고졸 학력 미취득 등의 성적 관련 문제, 20대의 경우 대학에 가고 싶은 의향 없음, 30대의 경우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어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등의 경제적 문제 때문에 진학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타 연령대 대비 상대적으로 높았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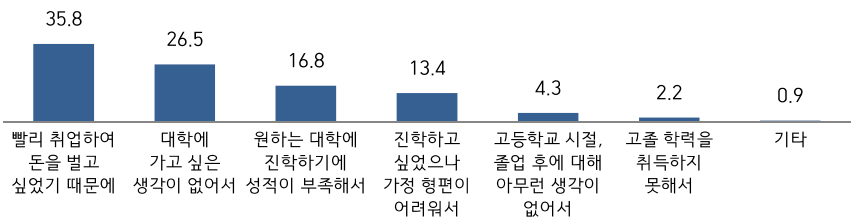


그림 Ⅲ-34. 대학 미진학 사유

표 Ⅲ-42 대학 미진학 사유(2019년)

(단위: %)

구분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	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에 성적이 부족해서	진학하고 싶었으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고등학교 시절, 졸업 후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어서	고졸 학력을 취득하지 못해서	기타	모름/무응답
전체		35.8	26.5	16.8	13.4	4.3	2.2	0.9	-
성별	남자	35.9	27.4	16.3	11.7	4.2	2.8	1.7	-
	여자	35.7	25.5	17.4	15.3	4.5	1.6	0.0	-
연령	만15~18세	27.0	21.1	25.8	14.4	0.0	11.7	0.0	-
	만19~29세	34.6	29.3	20.1	7.4	4.5	2.1	2.0	-
	만30~39세	37.5	24.3	13.2	18.7	4.5	1.8	0.0	-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9).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1) 대학(교) 진학 경험이 없는 경우만 응답
2) 현재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응답하지 않음

2-1-13. 우리사회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

2019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는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학력은 중요하다', '한국사회에서 학벌은 중요하다' 총 3개 문항을 통해 청년들의 우리사회 교육관행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 보았다.

우선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 비율이 43.4%('전혀 그렇지 않다' 8.6%+'그렇지 않다' 34.8%)로 '그렇다'는 응답 비율 37.4%('그렇다' 29.6%+'매우 그렇다' 7.8%)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전년도 대비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 비율(2018년 14.0%→2019년 43.4%)이 크게 증가하였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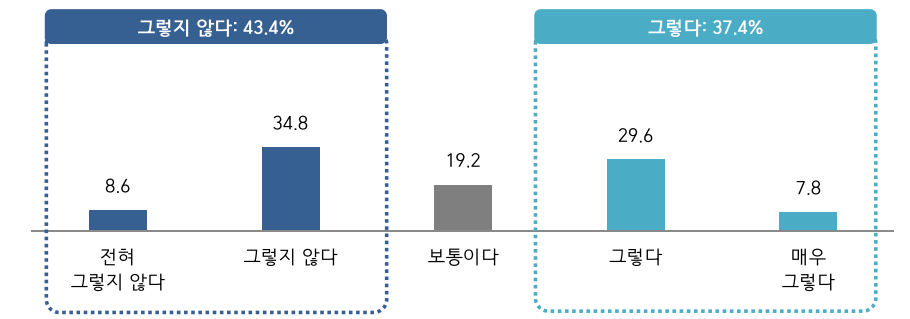


그림 Ⅲ-35. 우리사회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표 Ⅲ-43 연도별 우리사회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단위: %)

연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16	3.8	22.4	31.1	36.9	5.8
2017	10.7	33.0	20.5	25.7	10.1
2018	1.3	12.7	24.7	53.5	7.7
2019	8.6	34.8	19.2	29.6	7.8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다음으로 '한국사회에서 교육을 어디까지 받았는지(학력)는 중요하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65.7%('그렇다' 46.6%+'매우 그렇다' 19.1%)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 비율 13.7%('전혀 그렇지 않다' 1.8%+'그렇지 않다' 11.9%)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전년도 대비 '그렇다'라는 응답 비율(2018년 73.5%→2019년 65.7%)은 다소 감소하였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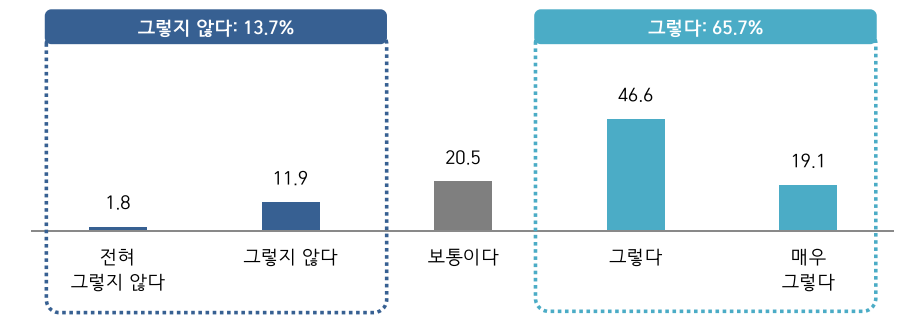


그림 Ⅲ-36. 우리사회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2) 한국사회에서 교육을 어디까지 받았는지(학력)는 중요하다

표 Ⅲ-44 연도별 우리사회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2) 한국사회에서 교육을 어디까지 받았는지(학력)는 중요하다

(단위: %)

연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16	1.0	8.1	22.9	49.9	18.0
2017	3.0	11.3	18.9	44.1	22.7
2018	0.4	4.1	22.0	54.7	18.8
2019	1.8	11.9	20.5	46.6	19.1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마지막으로 '한국사회에서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학벌)는 중요하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67.9%('그렇다' 47.0%+'매우 그렇다' 20.9%)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 비율 14.0%('전혀 그렇지 않다' 2.1%+'그렇지 않다' 11.9%)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전년도 대비 '그렇다'라는 응답 비율(2018년 74.8%→2019년 67.9%)은 다소 감소하였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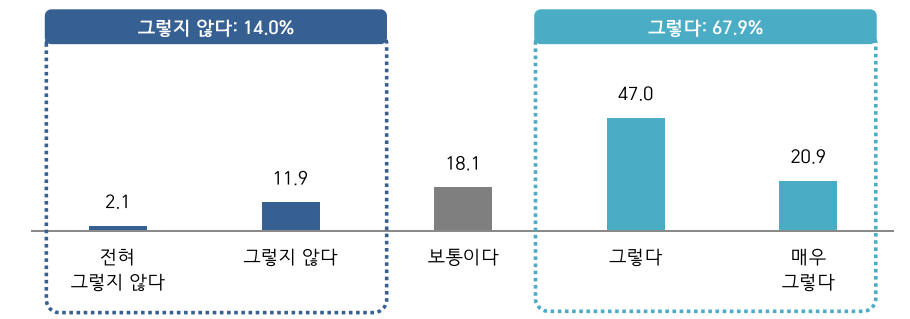


그림 Ⅲ-37. 우리사회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3) 한국사회에서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학벌)는 중요하다

표 Ⅲ-45 연도별 우리사회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3) 한국사회에서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학벌)는 중요하다

(단위: %)

연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16	1.3	7.6	22.6	47.5	21.0
2017	3.7	12.1	17.3	42.8	24.2
2018	0.4	4.0	20.9	54.9	19.9
2019	2.1	11.9	18.1	47.0	20.9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2-1-14. 고등교육에 대한 만족도

2019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는 '고등교육 만족 여부', '고등교육이 향후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지', '고등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내가 선택한 전공이 나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총 4개 문항을 통해 청년들의 우리사회 교육관행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 보았다.

우선 '나는 대학교육(고교교육)에 만족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대학교육 39.9%, 고교교육 33.7%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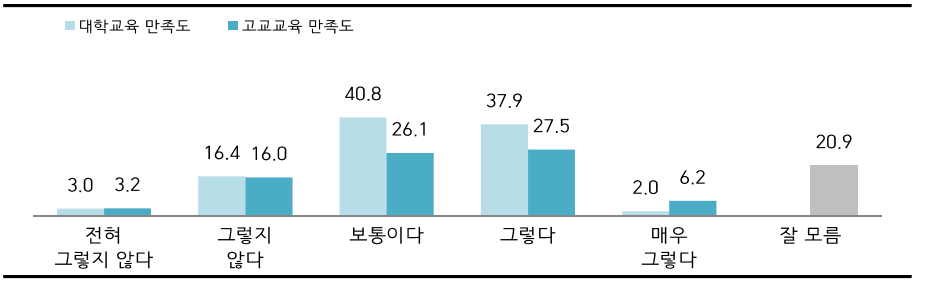


그림 Ⅲ-38. 대학교육(고교교육) 만족도_1) 나는 대학교육(고교교육)에 만족한다

표 Ⅲ-46 연도별 대학교육(고교교육) 만족도_1) 나는 대학교육(고교교육)에 만족한다

(단위: %)

구분	연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잘 모름
대학교육 만족도	2018	1.7	13.1	39.1	44.7	1.4	-
	2019	3.0	16.4	40.8	37.9	2.0	-
고교교육 만족도	2018	1.0	20.5	40.5	36.8	1.1	-
	2019	3.2	16.0	26.1	27.5	6.2	20.9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대학교육 만족도는 대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였으며, 고교교육 만족도는 중·고등학생만 응답함.

다음으로 '나는 대학교육(고교교육)이 앞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대학교육 50.4%, 고교교육 56.7%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고교교육의 도움정도가 대학교육 대비 6.3%p 높게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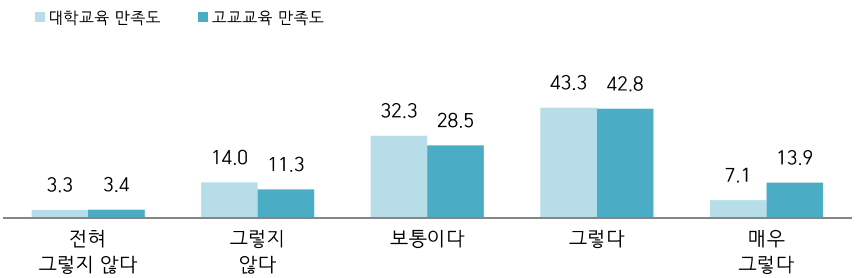


그림 Ⅲ-39. 대학교육(고교교육) 만족도_2) 나는 대학교육이 앞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표 Ⅲ-47 연도별 대학교육(고교교육) 만족도_2) 나는 대학교육이 앞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단위: %)

구분	연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대학교육 만족도	2018	1.5	9.4	34.0	45.5	9.5
	2019	3.3	14.0	32.3	43.3	7.1
고교교육 만족도	2018	1.1	9.3	35.2	47.6	6.8
	2019	3.4	11.3	28.5	42.8	13.9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대학교육 만족도는 대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였으며, 고교교육 만족도는 중·고등학생만 응답함.

다음으로 '나는 대학교육(고교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대학교육 55.0%, 고교교육 53.7%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고교교육, 대학교육간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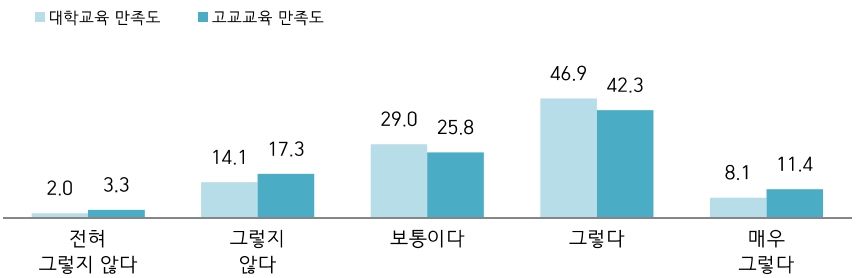


그림 Ⅲ-40. 대학교육(고교교육) 만족도_3) 나는 대학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표 Ⅲ-48 연도별 대학교육(고교교육) 만족도_3) 나는 대학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단위: %)

구분	연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대학교육 만족도	2018	1.3	9.3	32.8	48.9	7.7
	2019	2.0	14.1	29.0	46.9	8.1
고교교육 만족도	2018	2.0	11.7	41.2	39.5	5.6
	2019	3.3	17.3	25.8	42.3	11.4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대학교육 만족도는 대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였으며, 고교교육 만족도는 중·고등학생만 응답함.

마지막으로 '나는 내가 선택한 대학에서의 학과(문/이과 혹은 전공선택)이 나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대학교육 46.5%, 고교교육 48.6%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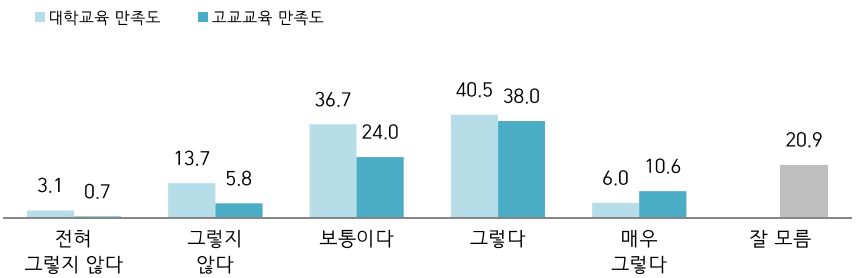


그림 Ⅲ-41. 대학교육(고교교육) 만족도_4) 나는 내가 선택한 대학에서의 학과(전공)이 나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표 Ⅲ-49 연도별 대학교육(고교교육) 만족도_4) 나는 내가 선택한 대학에서의 학과(전공)이 나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단위: %)

구분	연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잘 모름
대학교육 만족도	2018	0.9	9.8	39.5	45.8	4.0	-
	2019	3.1	13.7	36.7	40.5	6.0	-
고교교육 만족도	2018	0.2	6.2	41.2	49.5	2.9	-
	2019	0.7	5.8	24.0	38.0	10.6	20.9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대학교육 만족도는 대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였으며, 고교교육 만족도는 중·고등학생만 응답함.

2-2-1. 평생학습 형식교육 참여율

청년들의 평생학습 참여 중 우선 대학에서 대학원까지 정규 교육과정이 이루지는 공식적인 교육기관에 참여하는 형식교육의 참여 비율을 확인해 보았다. 관련 기관 통계에서 제공하는 연령 기준에 따른 청년은 대학교 졸업 이후로 초점을 맞추어 25세 이상 34세 이하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데, 해당 연령대의 평생학습 형식교육 참여율은 2017년 5.6%에서 2018년 8.5%로 2.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2017년을 제외하면 2015년 이후부터 평균 8~9%대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5~34세를 제외하면 나머지 연령대의 형식교육 참여율은 2% 이하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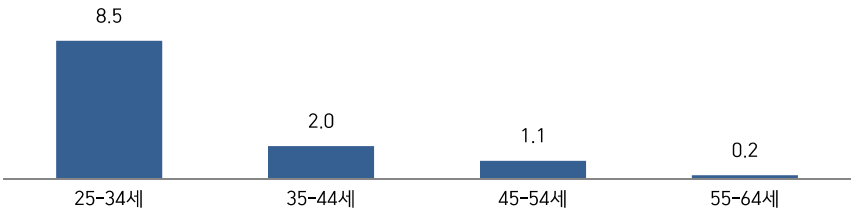


그림 Ⅲ-42. 연령별 평생학습 형식교육 참여율

표 Ⅲ-50 연도별 평생학습 형식교육 참여율 변화 추이

(단위: %)

연도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2007	15.3	1.9	2.5	0.7
2008	9.7	2.8	1.5	0.2
2009	10.7	2.8	0.8	1.1
2010	9.0	2.2	1.1	2.0
2011	13.2	1.6	0.8	0.7
2012	9.4	2.0	1.7	0.4
2013	9.0	3.3	1.5	0.7
2014	7.6	1.9	1.8	0.6
2015	9.1	2.6	1.3	0.5
2016	8.4	1.9	1.0	0.6
2017	5.6	2.1	1.2	0.6
2018	8.5	2.0	1.1	0.2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7). 2017년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 p.134. 교육통계서비스 웹사이트 http://cesi.kedi.re.kr/publ/view?survSeq=2018&publSeq=24&menuSeq=0&itemCode=02&language=에서 2019년 7월 22일 인출.

* 주: 형식교육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의 학교교육으로 졸업장이나 학위 취득이 가능한 정규 교육과정을 말하며,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인정)과정, 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원격대학, 대학원(석사, 박사)을 포함함(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7: 13).

2-2-2. 평생학습 비형식교육 참여율

다양한 평생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비형식 교육 참여율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5-34세 청년은 2017년 38.8%에서 2018년 48.3%로 9.5%p 증가하였으며, 연령대가 늘어날수록 참여율이 줄어든 형식교육 추세와는 달리 35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도 비형식교육 참여율이 전년 대비 증가(35~44세 +5.8%p, 45~54세 +8.0%p, 55~64세 +6.0%p)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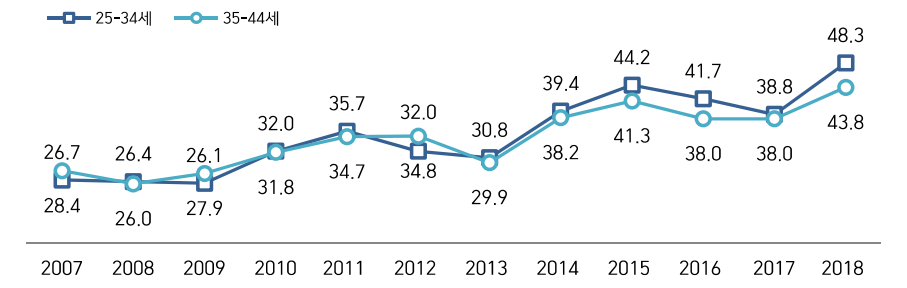


그림 Ⅲ-43. 연령별 평생학습 비형식교육 참여율

표 Ⅲ-51 연도별 평생학습 비형식교육 참여율 변화 추이

(단위: %)

연도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2007	26.7	28.4	25.4	23.5
2008	26.4	26.0	20.5	20.6
2009	26.1	27.9	23.3	22.1
2010	32.0	31.8	24.3	20.5
2011	35.7	34.7	26.1	20.6
2012	32.0	34.8	33.6	31.2
2013	30.8	29.9	25.3	25.1
2014	39.4	38.2	32.3	28.9
2015	44.2	41.3	36.7	31.8
2016	41.7	38.0	31.2	26.4
2017	38.8	38.0	33.5	28.6
2018	48.3	43.8	41.5	34.6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7). 2017년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 p.135. 교육통계서비스 웹사이트 http://cesi.kedi.re.kr/publ/view?survSeq=2018&publSeq=24&menuSeq=0&itemCode=02&language=에서 2019년 7월 22일 인출.

* 주: 비형식교육은 정규교육 이외의 구조화된 학습활동으로, 공식적인 학위나 졸업장 취득을 우선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을 통해 이뤄지는 교육을 말함(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7: 13).

2-2-3. 평생학습 직업 관련 비형식교육 참여율

비형식교육 중 직업 관련 비형식교육의 참여율 변화를 살펴보면 25~34세 이하 청년들의 참여율은 2018년 28.6%로 2017년 22.7% 대비 5.9%p 상승하였다. 해당 연령 층 외에도 35세 이상의 모든 연령층에서 비형식교육 참여율과 동일하게 직업 관련 비형식교육 참여율이 전년 대비 증가(35~44세 +3.8%p, 45~54세 +6.6%p, 55~64세 +4.8%p)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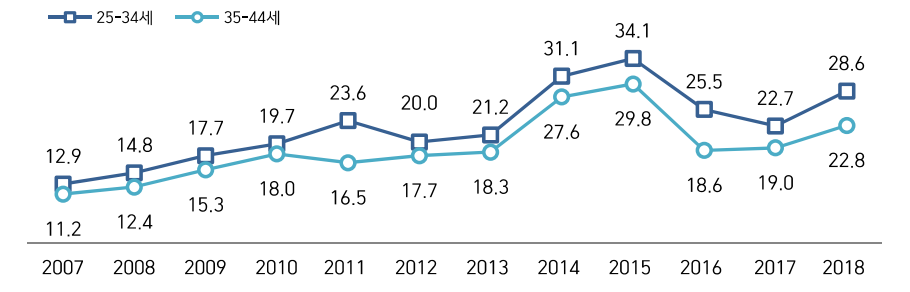


그림 Ⅲ-44. 연령별 평생학습 직업 관련 비형식교육 참여율

표 Ⅲ-52 연도별 평생학습 직업관련 비형식교육 참여율 변화 추이

(단위: %)

연도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2007	12.9	11.2	8.7	7.9
2008	14.8	12.4	9.4	8.1
2009	17.7	15.3	11.6	10.4
2010	19.7	18.0	11.5	6.9
2011	23.6	16.5	12.1	10.4
2012	20.0	17.7	13.8	7.5
2013	21.2	18.3	13.2	11.2
2014	31.1	27.6	23.2	16.6
2015	34.1	29.8	25.7	18.0
2016	25.5	18.6	15.5	10.4
2017	22.7	19.0	14.6	8.6
2018	28.6	22.8	21.2	13.4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7). 2017년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 p.135. 교육통계서비스 웹사이트 http://cesi.kedi.re.kr/publ/view?survSeq=2018&publSeq=24&menuSeq=0&itemCode=02&language=에서 2019년 7월 22일 인출.

2-2-4. 직업훈련 참여율

2019년 기준 15~29세 청년층의 직업훈련 참여율은 18.0%로 2007년 15.6% 이래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3년간은 18%대를 유지하고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여자(20.6%)가 남자(15.4%)보다 직업훈련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여자의 직업훈련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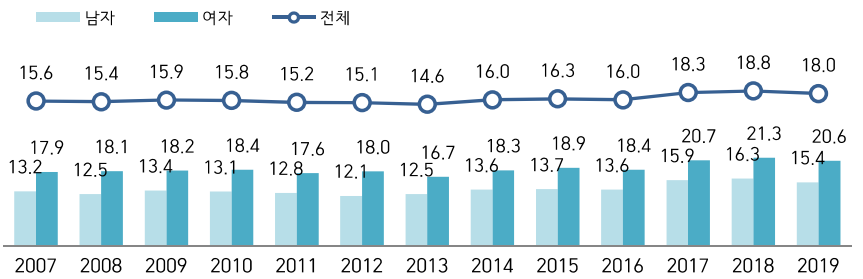


그림 Ⅲ-45. 연령별 직업교육 훈련 참여율

표 Ⅲ-53 연도별 직업교육 훈련 참여율 변화 추이

(단위: %)

연도	청년층(15~29세)		
	전체	남자	여자
2007	15.6	13.2	17.9
2008	15.4	12.5	18.1
2009	15.9	13.4	18.2
2010	15.8	13.1	18.4
2011	15.2	12.8	17.6
2012	15.1	12.1	18.0
2013	14.6	12.5	16.7
2014	16.0	13.6	18.3
2015	16.3	13.7	18.9
2016	16.0	13.6	18.4
2017	18.3	15.9	20.7
2018	18.8	16.3	21.3
2019	18.0	15.4	20.6

* 출처: 통계청(각 년도c).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E9053S&conn_path=I2에서 2019년 7월 22일 인출.

2-2-5. 취업 준비

2019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지난주에 취업준비를 한 청년과 지난 4주간 일을 하지는 않았으나 직장을 구해보았다고 응답한 청년, 즉 현재 취업 준비 중인 청년 비율은 21.5%로 응답하여 2018년 16.3% 대비 5.2%p 증가하였다. 성별로는 남자(30.3%)가 여자(15.2%)보다, 연령대별로는 19~29세 청년층이 30.2%로 타 연령대 대비 준비 경험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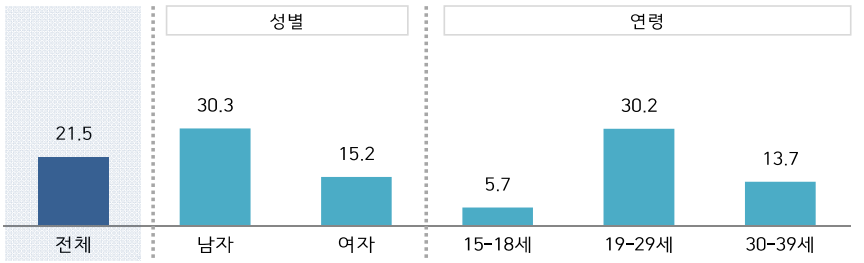


그림 Ⅲ-46. 현재 취업 준비 여부

표 Ⅲ-54 연도별 현재 취업 준비 여부 추이

(단위: %)

연도	전체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19~29세	30~39세
2016	19.3	27.1	14.8	-	24.8	11.1
2017	20.7	30.6	15.2	4.5	24.7	14.4
2018	16.3	25.0	10.7	24.1	18.0	12.3
2019	21.5	30.3	15.2	5.7	30.2	13.7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1) 지난주에 일을 하지 않았음에 응답한 응답자들 중 지난 4주 간 직장을 구해보았다고 응답한 비율과 현재 취업 준비 여부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 그리고 지난 주 주된 활동에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에 응답한 비율을 합산한 결과임(중·고등학생이 아닌 경우만 응답).
2)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2-2-6. 고시생 및 공시생 현황

2019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공무원, 공단(공사), 교원 임용시험 및 국가전문자격시험을 준비해 본 경험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15.4%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2018년 12.5% 대비 2.9%p 증가하였다. 성별로는 여자(16.2%)가 남자(14.6%)보다, 연령대별로는 19~29세 청년층이 17.3%로 타 연령대 대비 준비 경험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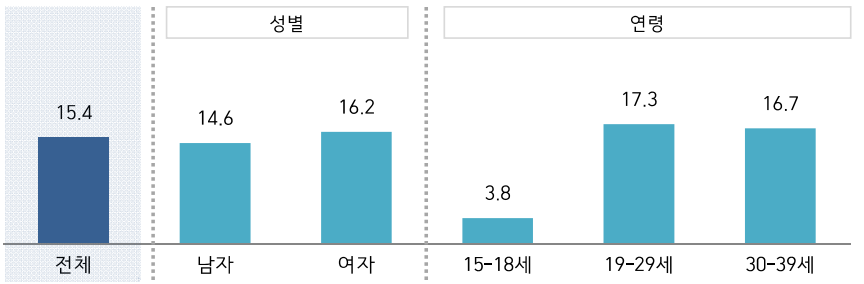


그림 Ⅲ-47. 고시생 및 공시생 현황

표 Ⅲ-55 연도별 고시생 및 공시생 현황 추이

(단위: %)

연도	전체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19~29세	30~39세
2016	15.2	15.4	14.9	5.4	16.0	17.6
2017	17.8	18.2	17.4	6.4	19.4	19.5
2018	12.5	12.4	12.7	1.3	15.7	13.3
2019	15.4	14.6	16.2	3.8	17.3	16.7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1) 공무원, 공단(공사), 교원 임용,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 여부에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
2)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3) 경제와 고용

3-1-1. 경제활동 참여율

2018년 기준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63.1%로 남자(73.7%)가 여자(52.9%)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청년고용법상 청년(15~29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2013년 42.9%로 최저점을 기록한 후 점차 증가하면서 2018년 현재 47.1%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10대, 20대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 높은 반면, 30대의 경우에는 남자(92.8%)에 비해 여자(62.7%)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성별 간 격차(30.1%p)가 크게 벌어졌다. 이는 여성의 출산, 육아 및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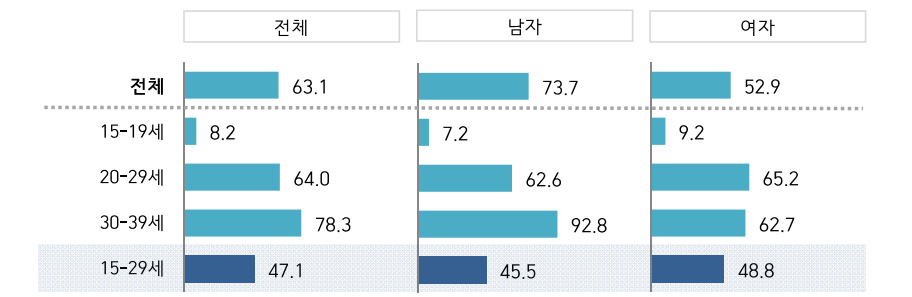


그림 Ⅲ-48. 경제활동 참여율

표 Ⅲ-56 연도별 경제활동 참여율 추이

(단위: %)

연도	전체					남자					여자				
	계	15~19세	20~29세	30~39세	15~29세	계	15~19세	20~29세	30~39세	15~29세	계	15~19세	20~29세	30~39세	15~29세
2007	62.2	7.2	64.7	75.4	46.5	74.4	6.5	66.5	93.6	46.4	50.5	8.1	63.0	56.4	46.7
2008	61.7	6.5	63.8	75.3	45.2	73.8	5.6	64.8	93.6	44.4	50.2	7.6	62.9	56.2	45.9
2009	61.0	6.2	63.3	74.0	44.2	73.2	4.9	64.8	92.8	43.5	49.3	7.5	62.0	54.4	44.8
2010	61.1	7.0	63.3	74.7	43.9	73.2	5.5	64.3	93.1	42.8	49.6	8.5	62.4	55.4	44.9
2011	61.3	7.6	63.1	74.7	43.8	73.4	6.3	63.8	93.0	42.9	49.8	9.0	62.4	55.6	44.6
2012	61.6	7.7	62.8	75.1	43.5	73.5	6.3	62.8	93.2	42.3	50.1	9.1	62.9	56.1	44.8
2013	61.7	7.7	61.7	75.5	42.9	73.5	6.6	61.3	93.2	41.7	50.3	8.7	62.0	57.0	44.1
2014	62.7	8.5	63.1	76.4	44.5	74.4	7.5	62.4	93.6	43.3	51.5	9.4	63.7	58.3	45.7
2015	62.8	8.8	63.6	76.7	45.3	74.1	7.7	62.9	93.8	44.2	51.9	9.9	64.3	58.7	46.5
2016	62.9	8.8	64.5	77.1	46.3	74.0	8.1	63.7	93.2	45.0	52.2	9.6	65.3	59.9	47.6
2017	63.2	9.2	63.9	77.8	46.7	74.1	8.5	62.9	93.2	45.3	52.7	10.1	64.9	61.4	48.0
2018	63.1	8.2	64.0	78.3	47.1	73.7	7.2	62.6	92.8	45.5	52.9	9.2	65.2	62.7	48.8

* 출처: 통계청(각 년도c). 경제활동인구조사(성/연령별 경제활동인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12S&conn_path=I2에서 2019년 7월 22일 인출.

* 주: 경제활동참여율=(경제활동인구/15세이상인구)×100

3-1-2. 고용률

2018년 기준 청년들의 고용률은 60.7%로 남자(70.8%)가 여자(50.9%)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청년고용법상 청년(15~29세)의 고용률은 2013년 39.5%로 최저점을 기록한 후 꾸준히 상승하면서 2018년 현재 42.7%로 나타났으며 해당 연령대에서는 여자(44.6%)가 남자(40.8%)보다 고용률이 더 높았다. 10, 20대 청년들의 고용률은 성별에 따른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30대의 경우에는 남자(89.7%)에 비해 여자(60.7%)의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경제활동 참여율과 마찬가지로 성별 간 격차(29.0%p)가 크게 벌어졌다. 경제활동 참여율과 연계되어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및 육아 및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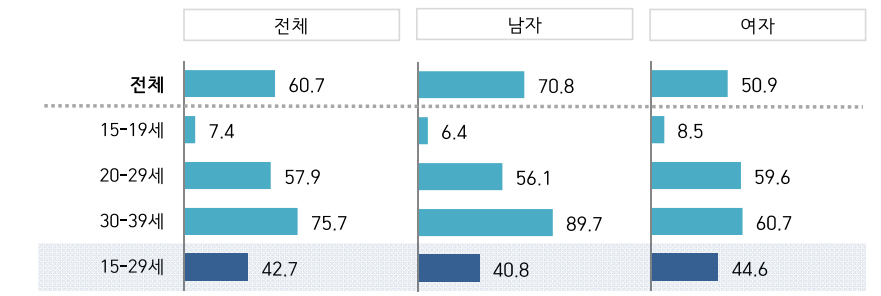


그림 Ⅲ-49. 고용률

표 Ⅲ-57 연도별 고용률 추이

(단위: %)

연도	전체					남자					여자				
	계	15~19세	20~29세	30~39세	15~29세	계	15~19세	20~29세	30~39세	15~29세	계	15~19세	20~29세	30~39세	15~29세
2007	60.1	6.6	60.1	73.0	43.2	71.7	5.9	60.5	90.3	42.2	49.1	7.3	59.7	54.9	44.1
2008	59.8	5.9	59.4	73.0	41.9	71.2	4.9	59.4	90.3	40.6	48.9	6.9	59.3	54.8	43.2
2009	58.8	5.4	58.4	71.4	40.6	70.2	4.2	58.6	89.1	39.3	47.8	6.7	58.2	52.8	41.9
2010	58.9	6.1	58.4	72.0	40.4	70.3	4.7	58.5	89.4	38.8	47.9	7.7	58.4	53.8	41.9
2011	59.3	6.8	58.4	72.2	40.4	70.7	5.5	58.1	89.8	39.0	48.3	8.1	58.6	53.8	41.8
2012	59.6	7.0	58.2	72.8	40.3	71.1	5.7	57.5	90.3	38.7	48.6	8.3	58.8	54.6	41.8
2013	59.8	6.9	56.8	73.3	39.5	71.1	5.9	55.8	90.2	37.9	48.9	7.9	57.8	55.5	41.0
2014	60.5	7.7	57.4	74.1	40.5	71.7	6.8	55.9	90.9	38.7	49.7	8.6	58.8	56.3	42.2
2015	60.5	7.8	57.9	74.4	41.2	71.4	6.9	56.3	90.9	39.5	50.1	8.8	59.4	56.9	42.9
2016	60.6	8.0	58.2	74.7	41.7	71.2	7.2	56.7	90.2	40.1	50.3	8.8	59.6	58.2	43.4
2017	60.8	8.4	57.6	75.3	42.1	71.2	7.6	55.6	90.2	40.1	50.8	9.3	59.4	59.4	44.0
2018	60.7	7.4	57.9	75.7	42.7	70.8	6.4	56.1	89.7	40.8	50.9	8.5	59.6	60.7	44.6

* 출처: 통계청(각 년도c. 경제활동인구조사(성/연령별 경제활동인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12S&conn_path=I2에서 2019년 7월 22일 인출.

* 주: 고용률=(취업자/15세이상 인구)×100

3-1-3. 실업률

청년고용법상 청년 기준 연령인 15-29세의 실업률은 2018년 기준 9.5%로 2017년 9.8% 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나 2014년 이후 계속 9%대로 유지되면서 전체 실업률 3.8%와 비교했을 때 청년 실업률이 장기간 심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특히 여자(8.6%)보다 남자(10.4%)의 실업률이 높았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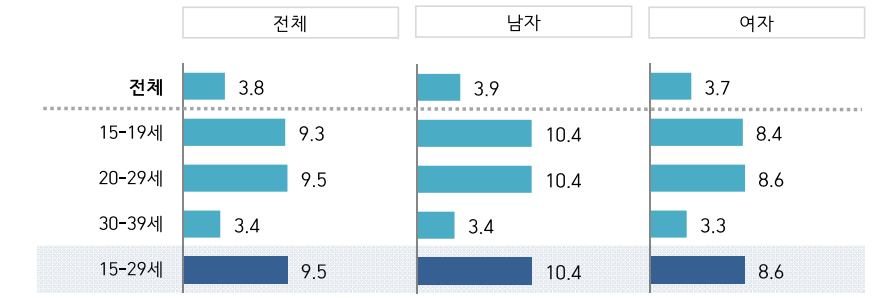


그림 Ⅲ-50. 실업률

표 Ⅲ-58 연도별 실업률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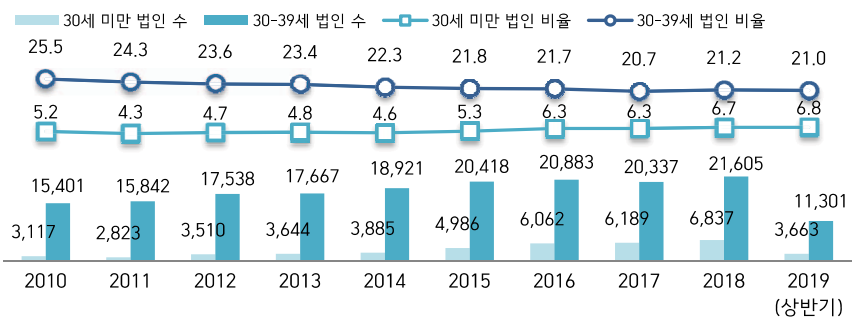
연도	전체					남자					여자				
	계	15~19세	20~29세	30~39세	15~29세	계	15~19세	20~29세	30~39세	15~29세	계	15~19세	20~29세	30~39세	15~29세
2007	3.2	9.3	7.1	3.2	7.2	3.7	9.5	9.0	3.5	9.1	2.7	9.2	5.3	2.6	5.5
2008	3.2	10.2	7.0	3.1	7.1	3.6	12.3	8.4	3.5	8.6	2.6	8.6	5.7	2.4	5.8
2009	3.6	12.3	7.8	3.6	8.0	4.1	15.1	9.5	4.0	9.8	3.0	10.3	6.2	2.9	6.4
2010	3.7	11.9	7.7	3.5	7.9	4.0	15.1	9.0	3.9	9.3	3.3	9.6	6.5	3.0	6.7
2011	3.4	10.8	7.4	3.4	7.6	3.6	12.1	8.8	3.4	9.0	3.1	9.8	6.1	3.3	6.3
2012	3.2	8.9	7.4	3.0	7.5	3.4	9.5	8.5	3.2	8.5	3.0	8.4	6.5	2.7	6.6
2013	3.1	10.3	7.8	3.0	8.0	3.3	11.3	9.0	3.2	9.1	2.8	9.5	6.8	2.5	7.0
2014	3.5	9.3	9.0	3.1	9.0	3.5	10.2	10.5	2.9	10.5	3.5	8.4	7.6	3.5	7.7
2015	3.6	10.6	9.0	3.1	9.1	3.6	10.4	10.5	3.1	10.5	3.5	10.7	7.6	3.1	7.8
2016	3.7	10.0	9.8	3.1	9.8	3.8	10.9	10.9	3.3	10.9	3.6	9.2	8.8	3.0	8.8
2017	3.7	8.7	9.9	3.3	9.8	3.8	9.8	11.5	3.3	11.4	3.5	7.7	8.4	3.3	8.3
2018	3.8	9.3	9.5	3.4	9.5	3.9	10.4	10.4	3.4	10.4	3.7	8.4	8.6	3.3	8.6

* 출처: 통계청(각 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성/연령별 경제활동인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12S&conn_path=I2에서 2019년 7월 22일 인출.

* 주: 실업률=(실업자/15세이상 인구)×100

3-1-4. 신설법인 비율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기업동향 통계를 통해 전체 신설법인 중 청년층이 대표자로 있는 신설법인 비율을 확인 해 본 결과, 2019년 상반기 기준 청년층이 대표자로 있는 신설법인 비율은 30세 미만 대표자 기준 6.8%로 전년 대비 0.1%p 증가, 30~39세 대표자 기준 21.0%로 전년 대비 0.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청년 창업 비율은 30세 미만의 청년이 대표자인 신설법인 비율은 꾸준히 상승(2010년 5.2%→2019년 상반기 6.8%)하고 있는 반면, 30~39세 대표자 신설법인 비율은 하락(2010년 25.5%→2019년 상반기 21.0%)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체 신설법인 수는 꾸준히 증가(2010년 60,312개→2018년 102,042개) 하고 있는 반면 30~39세 청년 대표자의 신설법인 수는 2015년 이후부터 증가세가 둔화되었고, 신설법인 대표자 비율에서 30대 외의 연령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단위: 개소(%))

그림 Ⅲ-51. 전산업 기준 청년층 신설법인 수 및 비율

표 Ⅲ-59 연도별 전산업 기준 신설법인 수 및 비율 추이

(단위: 개소(%))

연도	계	30세 미만	30~39세
2010	60,312(100.0)	3,117(5.2)	15,401(25.5)
2011	65,110(100.0)	2,823(4.3)	15,842(24.3)
2012	74,162(100.0)	3,510(4.7)	17,538(23.6)
2013	75,479(100.0)	3,644(4.8)	17,667(23.4)
2014	84,697(100.0)	3,885(4.6)	18,921(22.3)
2015	93,768(100.0)	4,986(5.3)	20,418(21.8)
2016	96,155(100.0)	6,062(6.3)	20,883(21.7)
2017	98,330(100.0)	6,189(6.3)	20,337(20.7)
2018	102,042(100.0)	6,837(6.7)	21,605(21.2)
2019(상반기)	53,901(100.0)	3,663(6.8)	11,301(21.0)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각 년도). 창업기업동향(산업·연령대별 신설법인수).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42&tblId=DT_142N_A10252C&conn_path=I2(2010-2016년 자료),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42&tblId=DT_142009N_102&conn_path=I2(2017-2019년 상반기 자료)에서 2019년 9월 27일 인출.

* 주: 기타제품제조업(담배제조업, 산업용기계) 포함

3-1-5. 청년 고용주(대표) 비율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를 통해 활동기업, 신생기업 기준으로 청년 고용주(대표)의 증감 여부를 살펴본 결과, 29세 이하 청년 고용주(대표) 비율은 활동 기업이나 신생기업 모두 지난 2011년 이후 큰 변화 없이 활동기업 2.8~3.4% 내외, 신생기업 1.1~1.3% 내외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었다. 기업 수의 경우 2014년 감소 이후에는 연령대에 관계없이 청년 기업 고용주가 대표인 기업 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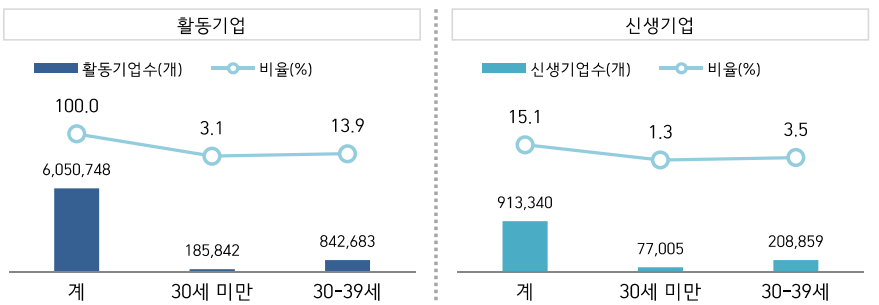


그림 Ⅲ-52. 청년 기업 고용주(대표)의 활동기업, 신생기업 수 및 비율

표 Ⅲ-60 연도별 청년 기업 고용주(대표)의 활동기업, 신생기업, 소멸기업 수 및 비율 추이

(단위: 개(%))

연도	활동기업			신생기업			소멸기업		
	전체	29세 이하	30~39세	전체	29세 이하	30~39세	전체	29세 이하	30~39세
2011	5,304,807 (100.0)	180,259 (3.4)	874,743 (16.5)	809,426 (15.3)	70,834 (1.3)	210,246 (4.0)	683,099 (12.9)	44,839 (0.8)	149,548 (2.8)
2012	5,379,187 (100.0)	167,391 (3.1)	849,591 (15.8)	769,878 (14.3)	63,715 (1.2)	200,716 (3.7)	741,111 (13.8)	43,411 (0.8)	151,682 (2.8)
2013	5,377,482 (100.0)	152,207 (2.8)	814,613 (15.1)	748,691 (13.9)	57,791 (1.1)	193,932 (3.6)	664,265 (12.4)	35,444 (0.7)	135,566 (2.5)
2014	5,558,767 (100.0)	155,095 (2.8)	808,535 (14.5)	842,789 (15.2)	63,504 (1.1)	204,907 (3.7)	776,516 (14.0)	35,693 (0.6)	131,313 (2.4)
2015	5,553,564 (100.0)	156,068 (2.8)	804,642 (14.5)	813,202 (14.6)	62,130 (1.1)	197,214 (3.6)	640,124 (11.5)	33,354 (0.6)	123,835 (2.2)
2016	5,775,996 (100.0)	169,674 (2.9)	824,074 (14.3)	876,414 (15.2)	70,649 (1.2)	206,664 (3.6)	626,249 (10.8)	34,420 (0.6)	121,589 (2.1)
2017	6,050,748 (100.0)	185,842 (3.1)	842,683 (13.9)	913,340 (15.1)	77,005 (1.3)	208,859 (3.5)	-	-	-

* 출처: 통계청(각 년도e). 기업생멸행정통계(대표자 성·연령별/조직형태별 기업수).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 gId=101&tblId=DT_1BD0002&conn_path=I2(2011-2016년 자료),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D1014&conn_path=I2(2017년 자료))에서 2019년 7월 22일 인출.

* 주 1) 신생률: 당해연도(t) 활동기업에 대한 신생기업의 비율(신생률(t년도) = (t년도)신생기업수/(t년도)활동기업수×100)

2) 소멸률: 당해연도(t) 활동기업에 대한 소멸기업의 비율(소멸률(t년도) = (t년도)소멸기업수/(t년도)활동기업수×100)

3-1-6. 니트(NEET) 비율

15~29세 인구 중 일, 교육 및 훈련을 받지 않는 청년 니트(NEET)는 교육도, 훈련도 받지 않는 젊은이를 지칭하며 OECD에서는 형식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및 훈련까지 니트에서 제외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통해 산출한 니트 비율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 19.2%로 이전년도(19.1%)와 큰 차이는 없으나 2014년 이후부터 꾸준하게 증가(2014년 17.8%→2018년 19.2%)하고 있다. 2008년부터 2010년도를 제외하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간 꾸준히 감소 추세(2005년 19.8%→2014년 17.8%)를 보이던 니트 비율이 최근 4년간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청년 니트 대책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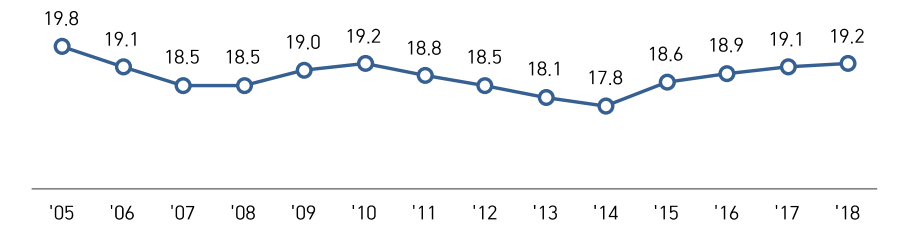


그림 Ⅲ-53. 니트(NEET) 비율

표 Ⅲ-61 연도별 니트(NEET) 비율 추이(OECD 기준)

(단위: %)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니트(%)	19.8	19.1	18.5	18.5	19.0	19.2	18.8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니트(%)	18.5	18.1	17.8	18.6	18.9	19.1	19.2

* 출처: 통계청(각 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 주 1) 2014년부터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추정한 결과임
2) 니트는 재학생이나 취업자가 아닌 경우임

3-1-7. 비정규직 비율

청년층 임금근로자 전체 대비 청년층 비정규직 근로자 수의 비율은 2018년 기준 33.0%로, 2014년 이후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령대별로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10대(15~19세)의 경우 74.0%로 가장 높았으며, 20대는 전체 평균 비율과 유사한 32.3%, 30대는 21.0%로 전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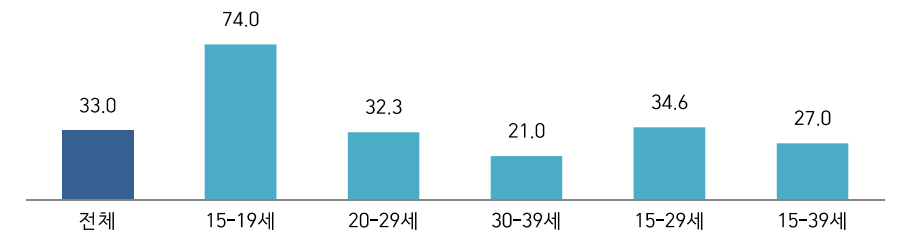


그림 Ⅲ-54. 연령별 비정규직 비율

표 Ⅲ-62 연도별 비정규직 비율 추이

(단위: %)

연도	전체	15~19세	20~29세	30~39세	15~29세	15~39세
2003	32.6	62.5	29.6	26.3	31.8	29.0
2004	37.0	62.1	33.4	32.2	35.0	33.5
2005	36.6	70.3	33.0	30.3	35.2	32.6
2006	35.4	71.1	31.1	29.7	33.1	31.3
2007	35.8	71.0	31.4	29.8	33.5	31.5
2008	33.8	64.9	31.0	26.8	32.8	29.5
2009	34.8	75.0	31.6	25.2	33.9	29.0
2010	33.2	69.6	31.1	23.4	33.3	27.7
2011	34.2	69.6	31.6	24.4	34.0	28.5
2012	33.2	76.1	30.5	23.1	33.8	27.6
2013	32.5	74.8	31.1	22.2	34.0	27.1
2014	32.2	70.0	32.0	21.8	34.7	27.3
2015	32.4	74.3	32.1	21.2	35.1	27.2
2016	32.8	75.2	32.2	21.1	35.2	27.3
2017	32.9	73.4	33.1	20.6	35.7	27.3
2018	33.0	74.0	32.3	21.0	34.6	27.0

* 출처: 통계청(각 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성·연령별 근로형태(비정규직)별 취업자).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E7006S&conn_path=I2에서 2019년 7월 22일 인출.

* 주 1)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및 범주는 노사정위원회가 합의(2002년 7월)한 결과에 따른 것임.
2) 비정규직 비율=(해당 연령층 비정규직 수/해당 연령층 임금근로자 수)×100

3-1-8. 신규 채용률

신규 채용률은 현재 국내에 해당 통계 자료가 없어 신입사원 채용실태 조사 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유추해 보았다. 해당 조사 내 대졸 신입직원 취업 경쟁률은 2017년 기준 35.7 대 1로 2008년(26.3 대 1) 이래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별로 살펴 보면, 제조업(31.3 대 1)과 비제조업(43.5 대 1) 모두 경쟁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38.5 대 1)은 경쟁률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5.8 대 1)은 다소 등락이 있지만 2008년(8.4 대 1) 대비 오히려 경쟁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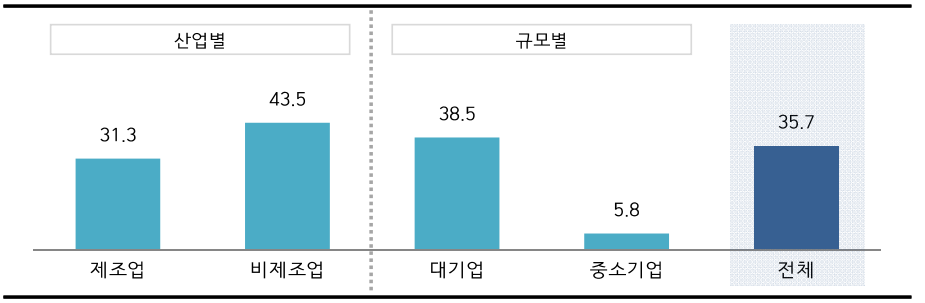


그림 Ⅲ-55. 대졸 신입사원 경쟁률

표 Ⅲ-63 연도별 대졸 신입사원 경쟁률 추이

(단위: 명)

연도	산업		규모		전체
	제조업	비제조업	대기업	중소기업	
2008	24.4:1	27.8:1	30.3:1	8.4:1	26.3:1
2013	25.6:1	34.5:1	31.3:1	6.0:1	28.6:1
2015	29.4:1	37.0:1	35.7:1	6.6:1	32.3:1
2017	31.3:1	43.5:1	38.5:1	5.8:1	35.7:1

* 출처: 한국경영자총협회(각 년도). 신입사원 채용실태 조사. 한국경영자총협회 웹사이트 http://www.kefplaza.com/kef/kef_press_view.jsp?num=6023에서 2019년 7월 22일 인출.

* 주: 2017년 신입사원 채용실태 조사에서 규모에 따른 경쟁률은 300인 이상 기업, 300인 미만 기업으로 나뉨.

3-1-9. 청년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

2019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에 대해 물어본 결과 '안정적인 회사'라는 응답이 25.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직무가 적성에 맞는 회사(19.4%)', '급여가 높은 회사(17.0%)' 등의 순이었다. 전년 대비 '발전 가능성이 높은 회사(-6.3%p)', '급여가 높은 회사(-5.2%p)', '안정적인 회사(-5.1%p)'를 선호한다는 응답은 줄어든 반면, '직무가 적성에 맞는 회사(+7.7%p)', '복지 수준이 좋은 회사(5.7%)'를 선호한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늘어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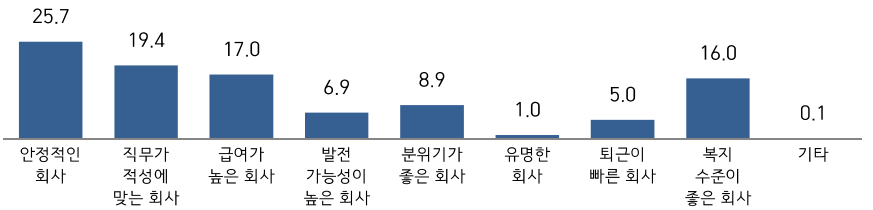


그림 Ⅲ-56.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

표 Ⅲ-64 연도별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

(단위: %)

연도	안정적인 회사	직무가 적성에 맞는 회사	급여가 높은 회사	발전 가능성이 높은 회사	분위가 좋은 회사	유명한 회사	퇴근이 빠른 회사	복지 수준이 좋은 회사	기타
2013	36.6	15.2	20.0	12.4	9.6	1.6	4.3	-	0.3
2015	37.5	15.2	25.9	8.4	8.2	1.7	2.7	-	0.4
2016	31.0	25.6	18.3	10.5	8.8	2.9	2.7	-	0.1
2017	31.4	22.3	19.5	8.8	9.0	1.6	6.9	-	0.4
2018	30.8	11.7	22.2	13.2	5.5	3.9	2.4	10.3	0.0
2019	25.7	19.4	17.0	6.9	8.9	1.0	5.0	16.0	0.1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1) 2013년과 2015년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용역사업으로 수행되었으며, 조사대상은 19세-39세임.
2) '복지수준이 좋은 회사' 는 2018년 신규 추가된 보기임
3)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3-1-10. 청년 중소기업 취업 의향 및 비취업 이유

2019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62.4%가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18년 대비 10대의 중소기업 취업 의향은 높아진 반면(+3.2%p), 20대의 중소기업 취업 의향은 낮아진 것(-3.8%p)이 특징이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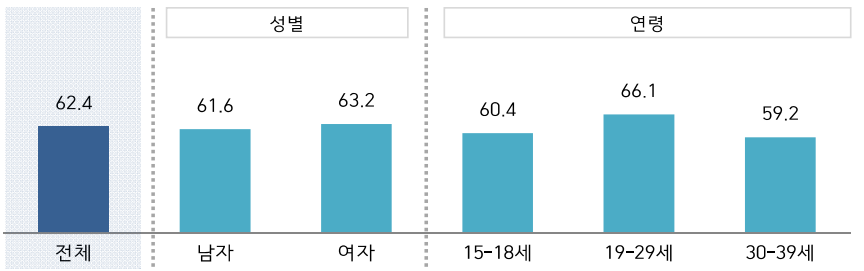


그림 Ⅲ-57. 중소기업 취업 의향

표 Ⅲ-65 연령별 중소기업 취업 의향

(단위: %)

연도	전체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19~29세	30~39세
2013	62.8	62.6	63.0	-	63.4	62.2
2015	50.1	53.4	46.6	-	54.3	46.1
2016	68.9	68.7	69.1	63.4	73.4	66.2
2017	59.4	57.7	61.3	57.5	63.9	55.5
2018	63.9	64.6	63.0	57.2	69.9	60.9
2019	62.4	61.6	63.2	60.4	66.1	59.2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1) 중소기업 취업 의향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
2) 2015년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용역사업으로 수행되었으며, 조사대상은 19세-39세임.
3)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한편, 중소기업 취업 의향이 없는 청년에게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고용 불안정' 때문이라는 응답이 28.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낮은 급여 수준(22.1%)', '개인의 발전 가능성이 없음(12.1%)' 등의 순이었다.

전년 대비 '사회적으로 낮은 인지도(-4.1%p)', '대기업보다 낮은 성취감(-3.1%p)', '대기업으로의 이직이 불가능(-2.2%p)' 등의 사유는 줄어든 반면, '개인의 발전 가능성이 없음(+4.2%p), '고용 불안정(+3.8%p)', '낮은 급여 수준(+1.4%)' 등의 사유 응답은 상대적으로 늘어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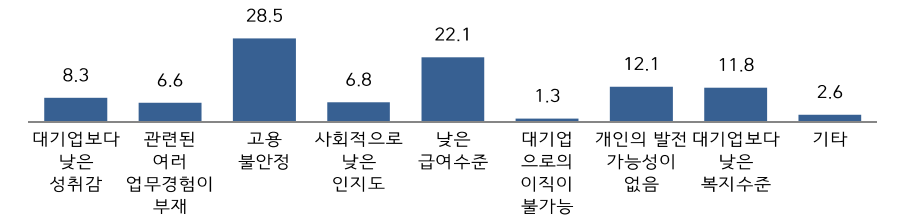


그림 Ⅲ-58. 중소기업 비취업 이유

표 Ⅲ-66 연도별 중소기업 비취업 이유

(단위: %)

연도	대기업 보다 낮은 성취감	관련된 여러 업무 경험이 부재	고용 불안정	사회적 으로 낮은 인지도	낮은 급여 수준	대기업 으로의 이직이 불가능	개인의 발전 가능성이 없음	대기업 보다 낮은 복지수준	기타
2013	14.0	12.9	25.0	12.9	18.0	1.6	12.4	-	3.2
2015	11.4	13.0	20.6	16.8	21.0	3.0	14.0	-	-
2016	10.1	4.2	28.2	11.1	22.6	1.8	15.8	-	5.7
2017	13.9	8.0	20.6	8.4	19.8	2.8	13.3	13.9	1.7
2018	11.4	8.7	24.7	10.9	20.7	3.5	7.9	11.7	0.5
2019	8.3	6.6	28.5	6.8	22.1	1.3	12.1	11.8	2.6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1) 중소기업 취업 의향에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만 응답
2) 2013년과 2015년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용역사업으로 수행되었으며, 조사대상은 19세-39세임.
3)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3-1-11. 청년 창업 의향 및 경험

2019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창업을 해 보거나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이 중 '창업을 생각해 보았고 실제로 창업을 했다'는 응답 비율은 12.2%로 2018년 5.7%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남자(15.4%)가 여자(8.7%)보다 높았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창업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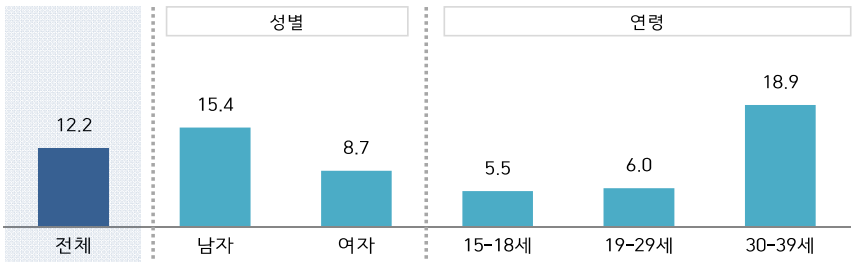


그림 Ⅲ-59. 창업 경험

표 Ⅲ-67 연도별 창업 경험

(단위: %)

연도	전체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19~29세	30~39세
2015	7.4	11.3	3.1	-	3.1	11.5
2016	20.1	21.1	18.6	4.5	8.0	32.3
2017	12.7	15.8	9.2	8.0	6.4	19.1
2018	5.7	6.2	5.2	9.1	1.8	9.0
2019	12.2	15.4	8.7	5.5	6.0	18.9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1) 2015-2016년 조사에서는 현재 창업 중이거나 창업 경험 여부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이며, 2017년 조사부터는 '창업을 생각해보았고 실제로 창업을 했다'라고 응답한 비율
2) 2015년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용역사업으로 수행되었으며, 조사대상은 19세-39세임.
3)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동일 문항 내에서 '창업을 고려해 보았으나 실제로 창업을 해본 적이 없다'는 응답 비율은 25.3%로 2018년 22.7% 대비 2.6%p 증가하였다. 유형별 특성은 창업 경험과 마찬가지로 남자(26.8%)가 여자(23.5%)보다 높았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창업 의사 또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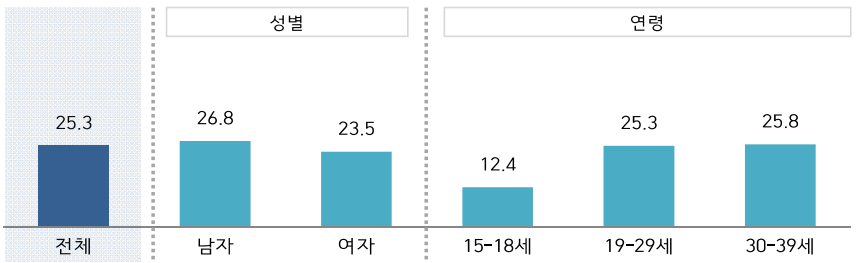


그림 Ⅲ-60. 창업 의사

표 Ⅲ-68 연도별 창업 의사

(단위: %)

연도	전체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19~29세	30~39세
2013	25.2	28.5	21.8	-	17.0	32.9
2015	12.5	13.9	11.2	-	11.4	13.7
2016	29.4	34.2	24.2	18.4	27.8	34.6
2017	35.8	36.2	35.3	36.0	37.6	34.0
2018	22.7	26.3	18.7	6.3	21.1	24.0
2019	25.3	26.8	23.5	12.4	25.3	25.8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1) 2013-2016년 조사에서는 창업 고려 여부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 2017년 조사에서는 '창업을 생각해 보았으나 실제로 창업을 해본적은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
2) 2013년과 2015년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용역사업으로 수행되었으며, 조사대상은 19세-39세임.
3)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3-1-12. 청년 직장에서 본인 조건에 맞는 대우 여부

2019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본인이 직장 내에서 조건에 맞는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대우를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6.5%('받고 있는 편이다' 31.7%+'충분히 받고 있다' 4.8%)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응답 비율 18.2%('전혀 받고 있지 못하다' 2.2%+'받고 있지 못하는 편이다' 16.0%)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년도와 비교 했을 때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응답은 큰 차이가 없는 반면(+0.3%p),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응답은 다소 증가(+4.8%p)하였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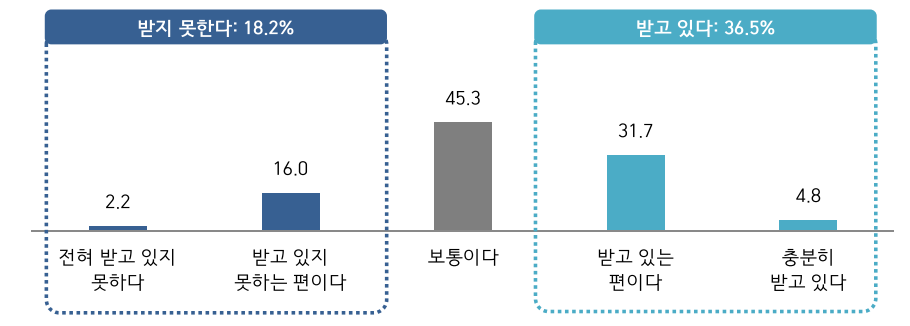


그림 Ⅲ-61. 직장에서 본인 조건에 맞는 대우 여부

표 Ⅲ-69 연도별 직장에서 본인 조건에 맞는 대우 여부

(단위: %)

연도	전혀 받고 있지 못하다	받고 있지 못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받고 있는 편이다	충분히 받고 있다
2013	0.6	12.1	46.4	39.8	1.4
2015	0.3	9.3	46.8	41.1	2.5
2016	1.2	14.4	50.9	28.0	5.5
2017	2.3	14.3	46.8	30.4	6.3
2018	0.7	17.2	50.3	30.0	1.7
2019	2.2	16.0	45.3	31.7	4.8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1) 2013년과 2015년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용역사업으로 수행되었으며, 조사대상은 19세~39세임.
2)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3-1-13. 청년 이직 의향 및 이유

2019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현재 취업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현 직장을 그만두고 이직할 의향이 있는 지를 물어본 결과, '이직 의향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25.5%로 2018년 25.0%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직을 희망하는 주된 이유는 '더 나은 보수와 복지를 위해'가 48.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더 나은 근무환경(16.2%)', '더 나은 안정성을 위해(11.3%)' 등의 순이었다.

전년 대비 '더 나은 보수/복지를 위해(-7.2%p)', '더 나은 안정성을 위해(-3.7%p)' 이직을 고려한다는 응답은 줄어든 반면, '개인 사업을 위해서(+5.2%p)', '더 나은 근무 환경(+2.1%)'을 위해 이직을 고려한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늘어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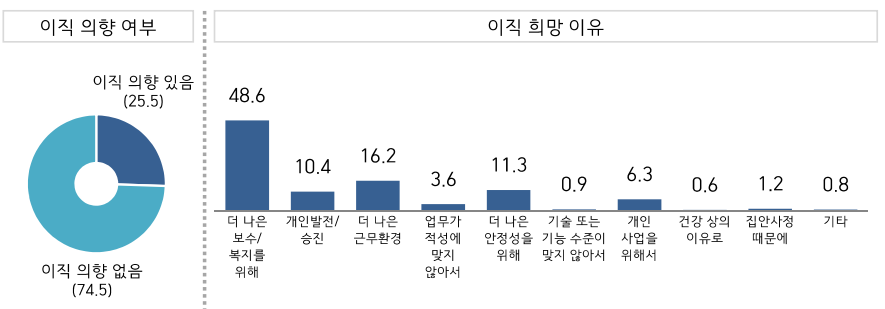


그림 Ⅲ-62. 이직 의향 여부 및 이유

표 Ⅲ-70 연도별 이직 의향 및 이유

(단위: %)

연도	이직 의향 여부		이직 희망 이유									
	이직 의향 있음	이직 의향 없음	더 나은 보수/복지를 위해	개인 발전/승진	더 나은 근무 환경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더 나은 안정성을 위해	기술 또는 기능 수준이 맞지 않아서	개인 사업을 위해서	건강상의 이유로	집안 사정 때문에	기타
2013	30.1	69.9	53.1	11.5	14.1	1.6	15.6	0.5	1.0	0.5	-	2.1
2015	25.0	75.0	51.2	14.8	14.2	3.7	14.2	-	1.2	-	0.6	-
2016	29.4	70.6	47.6	10.1	17.4	4.4	13.2	1.8	3.7	-	0.8	1.0
2017	30.2	69.8	52.1	10.8	16.5	3.0	9.9	0.7	4.0	0.5	2.4	0.0
2018	25.0	75.0	55.8	8.7	14.1	2.7	15.0	1.2	1.1	0.1	0.4	1.0
2019	25.5	74.5	48.6	10.4	16.2	3.6	11.3	0.9	6.3	0.6	1.2	0.8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1) 2013년과 2015년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용역사업으로 수행되었으며, 조사대상은 19세-39세임.
2)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3-1-14. 신규졸업자를 위한 사회적 지원에 대한 인식

고졸자와 대졸자 각각을 대상으로 해당 청년층 대상 사회적 지원에 대한 인식을 물어본 결과, '우리사회는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자에게 적절하게 대우하고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고졸자의 경우 '그렇지 않다'는 응답 비율이 47.5%('전혀 그렇지 않다' 6.3%+'그렇지 않다' 41.2%)로 '그렇다' 응답 비율 13.3%('그렇다' 12.6%+'매우 그렇다' 0.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대졸자의 경우에는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31.7%('그렇다' 29.4%+'매우 그렇다' 2.3%)로 '그렇지 않다' 응답 비율 19.4%('전혀 그렇지 않다' 1.7%+'그렇지 않다' 17.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고등교육 수준에 따른 사회적 대우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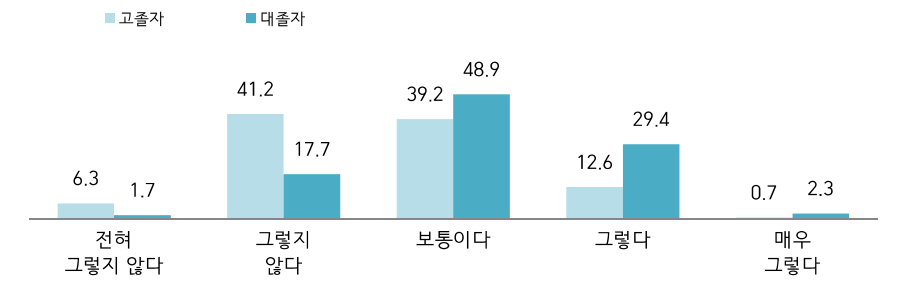


그림 Ⅲ-63.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_1) 우리사회는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자에게 적절하게 대우하고 있다

표 Ⅲ-71 연도별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_1) 우리사회는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자에게 적절하게 대우하고 있다

(단위: %)

구분	연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고졸자	2018	6.2	41.7	36.2	15.4	0.5
	2019	6.3	41.2	39.2	12.6	0.7
대졸자	2018	1.9	16.4	48.5	31.0	2.3
	2019	1.7	17.7	48.9	29.4	2.3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다음으로 '기성세대는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정착을 위해 적절한 배려를 하고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고졸자 및 대졸자 모두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는 응답 비율(고졸자 44.0%, 대졸자 33.8%)이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 응답 비율(고졸자 14.5%, 대졸자 20.2%)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기성세대가 청년층을 배려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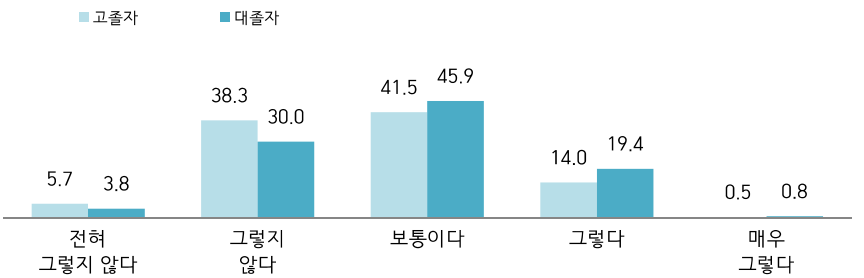


그림 Ⅲ-64.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_2) 기성세대는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정착을 위해 적절한 배려를 하고 있다

표 Ⅲ-72 연도별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_2) 기성세대는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정착을 위해 적절한 배려를 하고 있다

(단위: %)

구분	연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고졸자	2018	4.2	32.0	42.9	19.2	1.7
	2019	5.7	38.3	41.5	14.0	0.5
대졸자	2018	2.3	24.6	46.3	25.2	1.6
	2019	3.8	30.0	45.9	19.4	0.8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마지막으로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는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고졸자 및 대졸자 모두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는 응답 비율(고졸자 39.9%, 대졸자 31.9%)이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 응답 비율(고졸자 15.2%, 대졸자 18.8%)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정부 및 지자체의 청년층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식이 상대적으로 강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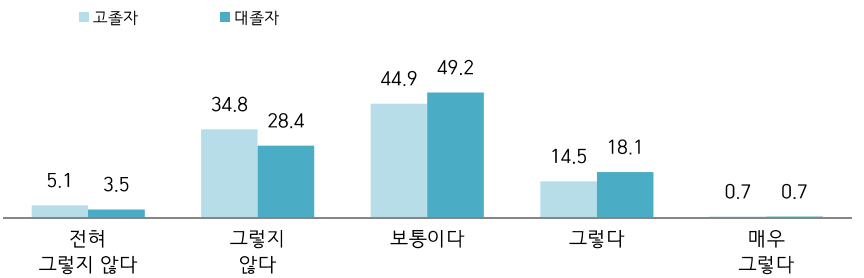


그림 Ⅲ-65.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_3)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는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표 Ⅲ-73 연도별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_3)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는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단위: %)

구분	연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고졸자	2018	4.2	34.3	42.8	18.0	0.8
	2019	5.1	34.8	44.9	14.5	0.7
대졸자	2018	2.6	23.0	51.8	21.8	0.9
	2019	3.5	28.4	49.2	18.1	0.7

3-2-1. 청년 소득

가구주 기준 청년의 월임금총액은 전체 기준 2018년 약 303만원으로 2017년 290만원에서 약 10만원 상승하였다. 29세 이하 청년층의 월임금총액은 약 212만원으로 전년 대비 14만원 정도 상승하였으며, 30~39세 청년층의 월임금총액(약 327만원) 또한 전년 대비 13만원 정도 상승하여 최근 3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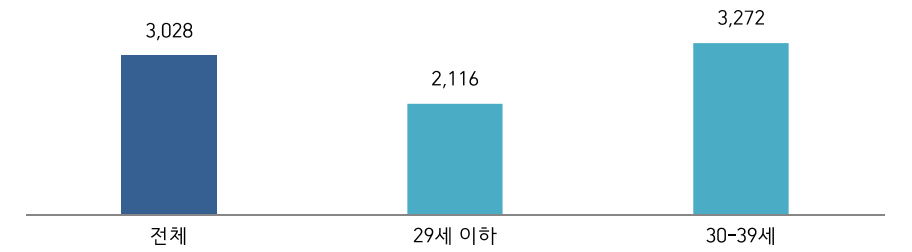


그림 Ⅲ-66. 월임금총액

표 Ⅲ-74 연도별 월임금총액 추이

(단위: 천원)

연도	전체	29세 이하	30~39세	연도	전체	29세 이하	30~39세
2007	2,178	1,551	2,380	2013	2,617	1,815	2,780
2008	2,279	1,612	2,489	2014	2,700	1,901	2,961
2009	2,277	1,611	2,466	2015	2,740	1,869	2,963
2010	2,326	1,636	2,540	2016	2,833	1,942	3,094
2011	2,428	1,727	2,619	2017	2,896	1,979	3,136
2012	2,527	1,779	2,720	2018	3,028	2,116	3,272

* 출처: 고용노동부(각 년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연령별 임금 및 근로시간).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N_LCE0004&conn_path=I2에서 2019년 7월 22일 인출.

* 주: 월임금총액=정액급여+초과급여+전년도연간특별급여/12개월

3-2-2. 청년 소비

청년들의 가계 지출 통계 중 29세 이하 가구는 2013년 270만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5년까지 3년 연속 감소한 경향을 보였으며, 15년 이후 해당 연령구간의 통계 생산은 중지되었다. 현재 확인 가능한 전체 가구 평균과 30~39세 가구의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가계 지출은 약 333만원으로 2017년 약 332만원 대비 큰 차이가 없는 반면, 30대 가구의 가계 지출은 약 308만원으로 2017년 약 312만원 대비 감소하였다. 30대 가구의 가계 지출은 2014년 약 346만원으로 최고점에 도달한 뒤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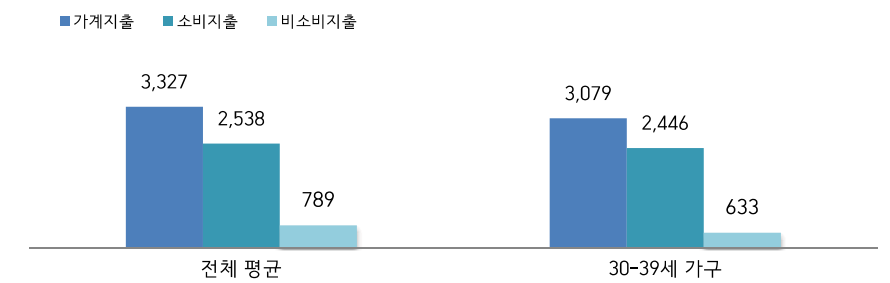


그림 Ⅲ-67. 청년 소비

표 Ⅲ-75 연도별 청년 소비 추이

(단위: 천원)

연도	전체 평균			29세 이하 가구			30~39세 가구		
	가계 지출	소비 지출	비소비 지출	가계 지출	소비 지출	비소비 지출	가계 지출	소비 지출	비소비 지출
2007	2,584	2,016	568	2,008	1,647	361	2,649	2,086	563
2008	2,718	2,114	604	2,064	1,695	369	2,807	2,189	618
2009	2,776	2,149	626	2,107	1,717	390	2,875	2,232	644
2010	2,961	2,287	674	2,279	1,891	389	3,077	2,391	686
2011	3,115	2,393	722	2,510	2,053	457	3,207	2,501	705
2012	3,217	2,457	759	2,632	2,134	498	3,215	2,488	727
2013	3,262	2,481	781	2,700	2,188	512	3,341	2,564	777
2014	3,356	2,551	804	2,541	2,093	448	3,459	2,667	792
2015	3,373	2,563	810	2,336	1,917	419	3,451	2,667	784
2016	3,361	2,550	812				3,362	2,577	785
2017	3,316	2,557	759				3,116	2,503	613
2018	3,327	2,538	789				3,079	2,446	633

* 출처: 통계청(각 년도). 가계동향조사(가구주 연령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전국, 2인이상)).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L9R008&conn_path=I2에서 2019년 9월 3일 인출.

* 주 1) 2017년에는 전용표본 설계, 조사방법 변경, 연간통계로 개편되었기 때문에 전년 결과와 직접 비교가 어려움(전국 2인이상 가구 → 전국 1인이상 가구를 주지표로 공표).
2) 2016년부터 39세 이하 가구로 조사됨.

3-2-3. 장년 대비 청년 상대임금

장년층(40대 및 50대) 대비 청년층(20대 이하 및 30대)의 상대임금 수준을 살펴본 결과, 청년층은 40대 대비 85.1%, 50대 대비 93.0%의 수준으로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 청년층의 경우 40대 대비 91.9%, 50대 대비 100.5%의 상대임금 수준을 보이고 있는 반면 29세 이하의 경우에는 40대 대비 59.4%, 50대 대비 65.0%의 상대임금 수준을 보이고 있어 20대 청년층의 상대임금 수준이 매우 낮은 편이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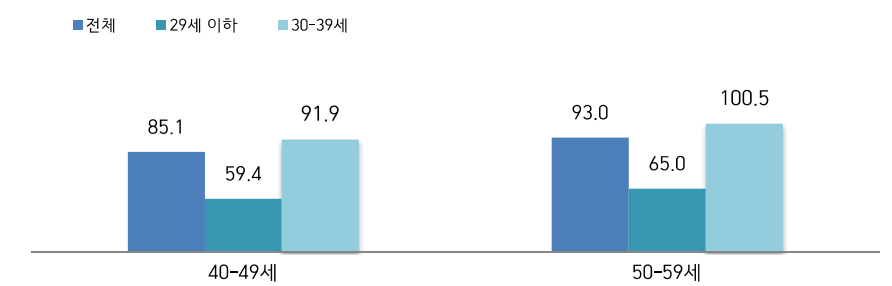


그림 Ⅲ-68. 장년 대비 청년 상대임금

표 Ⅲ-76 연도별 장년 대비 청년 상대임금 추이

(단위: %)

연도	40~49세			50~59세		
	전체	29세 이하	30~39세	전체	29세 이하	30~39세
2007	84.1	59.9	91.9	88.9	63.3	97.2
2008	84.6	59.9	92.4	90.7	64.1	99.0
2009	84.4	59.7	91.4	92.2	65.2	99.8
2010	85.1	59.8	92.9	93.4	65.7	102.0
2011	85.0	60.4	91.6	94.0	66.9	101.4
2012	85.3	60.1	91.9	93.9	66.1	101.1
2013	85.7	59.4	91.1	91.4	63.4	97.1
2014	85.2	60.0	93.4	95.5	67.2	104.7
2015	83.9	57.3	90.8	94.2	64.3	101.9
2016	84.4	57.8	92.2	94.7	64.9	103.4
2017	84.7	57.9	91.7	92.4	63.1	100.1
2018	85.1	59.4	91.9	93.0	65.0	100.5

* 출처: 고용노동부(각 년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연령별 임금 및 근로시간).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N_LCE0004&conn_path=I2에서 2019년 7월 22일 인출.

* 주 1) 장년 대비 청년 상대임금=(해당 연령층의 월임금총액/기준 연령층의 월임금총액)×100
2) 월임금총액=정액급여+초과급여+전년도연간특별급여/12개월

3-2-4. 청년층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상대임금

2018년 청년층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상대임금은 특수형태를 제외할 경우 45.2%로 특수형태를 포함하더라도 50.0%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수형태를 제외한 수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4년 급감(2013년 47.0%→2014년 42.3%)한 후 다소 상승하고 있지만 아직 14년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9세 이하의 경우 2014년 급감(2013년 50.7%→2014년 45.4%) 이후에는 상대임금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나 2018년 기준 49.4%로 아직 50% 미만이며, 30~39세의 경우 2018년 기준 52.7%로 전년 대비 오히려 2.1%p 감소하였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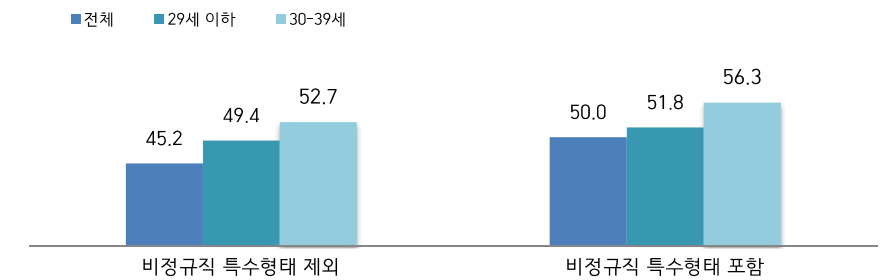


그림 Ⅲ-69. 청년층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상대임금

표 Ⅲ-77 연도별 청년층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상대임금 추이

(단위: %)

연도	비정규직 특수형태 제외			비정규직 특수형태 포함		
	전체	29세 이하	30~39세	전체	29세 이하	30~39세
2007	48.5	58.5	52.1	55.4	61.5	61.8
2008	47.5	55.2	53.0	53.7	58.0	60.7
2009	47.3	54.2	52.1	52.7	56.2	56.8
2010	46.5	52.7	52.1	51.8	55.4	57.9
2011	46.5	54.0	52.8	52.3	55.5	57.0
2012	46.2	51.1	53.9	51.6	53.2	57.1
2013	47.0	50.7	57.3	55.4	53.1	64.1
2014	42.3	45.4	50.6	48.6	47.7	57.0
2015	43.0	47.0	53.2	49.2	49.3	58.3
2016	44.0	48.6	54.4	50.0	50.5	58.7
2017	44.8	48.4	54.8	50.0	51.0	59.0
2018	45.2	49.4	52.7	50.0	51.8	56.3

* 출처: 고용노동부(각 년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연령별 임금 및 근로시간).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N_LCE0004&conn_path=I2에서 2019년 7월 22일 인출.

* 주 1) 청년층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상대임금=(해당 연령층의 비정규직 월임금총액/기준 연령층의 정규직 월임금총액)×100

2) 월임금총액=정액급여+초과급여+전년도연간특별급여/12개월

3-2-5. 청년 부채

청년 가구주의 부채 규모는 2017년 29세 이하 가구주 기준 2,393만원으로 2010년(936만원)과 비교해 보면, 약 2.56배 증가하여 같은 기간 30~39세 가구주의 부채(2010년 3,981만원→2017년 6,920만원) 증가폭 1.74배보다 훨씬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보유가구의 중앙값으로 보면 같은 기간 29세 이하는 840만원에서 2,430만 원으로 늘었고 30대는 2,900만원에서 6,000만 원으로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청년층의 부채 규모 상승 폭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부채도 꾸준히 증가(2010년 4,618만원→2017년 7,099만원, 증가폭 1.54배)하고 있지만, 20대(2010년 대비 2.56배) 및 30대(2010년 대비 1.74배) 청년층 가구의 증가폭이 훨씬 더 급격한 추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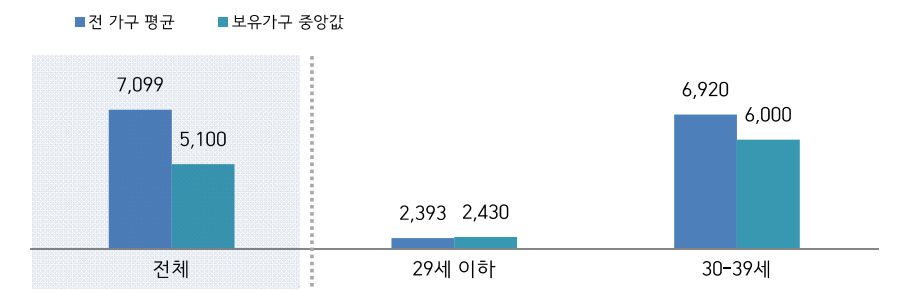


그림 Ⅲ-70. 청년 가구주의 부채

표 Ⅲ-78 연도별 청년 가구주 부채 추이

(단위: 만원)

연도		전체	29세 이하	30~39세
2010	전가구 평균	4,618	936	3,981
	보유가구 중앙값	3,000	840	2,900
2011	전가구 평균	5,205	1,268	4,609
	보유가구 중앙값	3,080	1,000	3,000
2012	전가구 평균	5,450	1,283	4,405
	보유가구 중앙값	3,240	1,000	3,200
2013	전가구 평균	5,858	1,401	4,890
	보유가구 중앙값	3,646	852	3,530
2014	전가구 평균	6,051	1,481	5,257
	보유가구 중앙값	4,007	1,078	4,024
2015	전가구 평균	6,256	1,491	5,463
	보유가구 중앙값	4,500	1,550	4,800
2016	전가구 평균	6,719	1,681	5,920
	보유가구 중앙값	5,000	2,006	5,220
2017	전가구 평균	7,099	2,393	6,920
	보유가구 중앙값	5,100	2,430	6,000

* 출처: 통계청(각 년도f). 가계금융·복지조사(패널)(가구주연령계층별(10세) 자산, 부채, 소득 현황).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CA06&conn_path=I2에서 2019년 7월 22일 인출.

3-2-6. 최저임금

2019년 7월 12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2020년 최저임금을 2019년(8,350원)보다 2.87% 인상한 8,590원으로 결정하였다. 2019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는 최저임금 발표 시점 이전에 조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2018년도 최저임금 액수 조사 결과인 9,235원을 문항 내에 제시 후 본인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최저임금 액수를 묻는 형태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2019년 조사 결과, 청년들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2020년 최저 임금은 9,202원으로 2018년도 조사 결과인 9,235원보다 33원 감소하였으며 실제 결정된 최저임금 8,590원과는 612원의 차이가 있었다. 적정 최저임금액수는 16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올해는 다소 줄었는데 이는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의 상승폭 증가(2017년 대비 2018년 16.4% 상승, 2018년 대비 2019년 10.9% 상승)로 인한 사회적 논쟁의 영향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단위: 원/시간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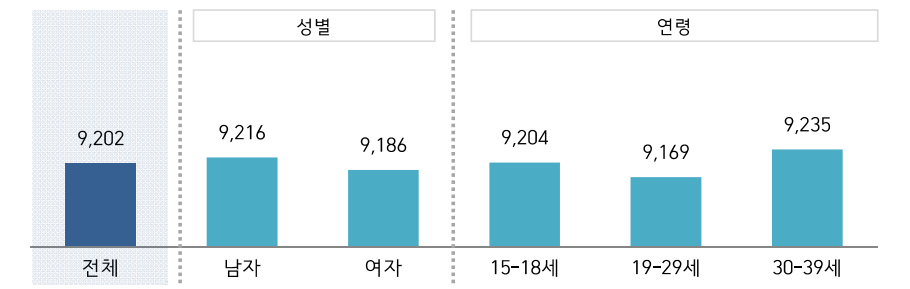


그림 Ⅲ-71. 적정 최저 임금

표 Ⅲ-79 연도별 적정 최저 임금 추이

(단위: 원/시간당)

연도	전체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19~29세	30~39세
2016(2017년)	7,585	7,668	7,495	7,505	7,550	7,645
2017(2019년)	8,786	8,835	8,732	8,692	8,811	8,789
2018(2020년)	9,235	9,248	9,221	9,156	9,268	9,232
2019(2020년)	9,202	9,216	9,186	9,204	9,169	9,235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1) 2016년 자료는 2017년, 2017년 자료는 2019년, 2018년 자료는 2020년 적정 최저 임금에 대한 응답 결과임.
2)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3-2-7. 생활비 및 가족 지원 비율

2019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청년들의 본인 기준 한 달 생활비는 약 79만원 수준으로 2018년 대비 약 15만원 정도 상승하였다. 생활비 액수는 성별 및 연령대별 전부 상승하였으며, 특히 연령대가 높을수록 금액 상승폭도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으로부터 지원받는 생활비의 비율은 2019년 27.7%로 2018년 31.2% 대비 3.5%p 감소하였으며 특히 20대 연령에서의 지원 비율 감소폭이 9.9%로 타 연령대 대비 상대적으로 높았다.

(단위: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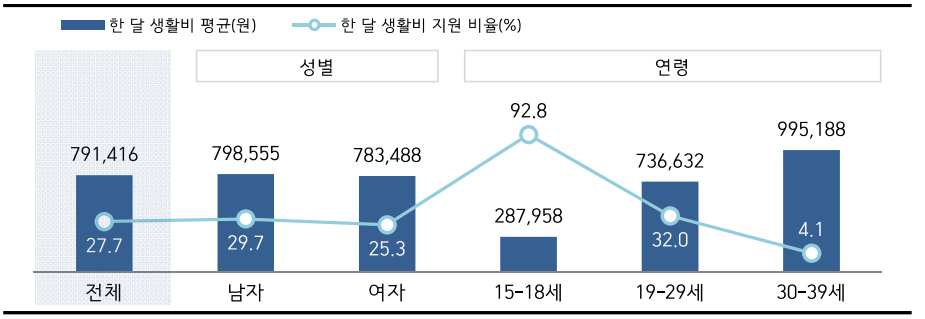


그림 Ⅲ-72. 한 달 생활비와 생활비 지원받는 비율

표 Ⅲ-80 연도별 한 달 생활비와 생활비 지원받는 비율 추이

(단위: 원, %)

연도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19~29세	30~39세
2017	한 달 생활비 평균(원)	747,148	778,258	712,762	243,904	713,227	933,273
	한 달 생활비 지원 비율(%)	26.3	26.7	25.8	93.3	28.9	3.4
2018	한 달 생활비 평균(원)	637,873	652,600	621,556	268,534	647,570	741,168
	한 달 생활비 지원 비율(%)	31.2	32.9	29.2	96.0	41.9	2.8
2019	한 달 생활비 평균(원)	791,416	798,555	783,488	287,958	736,632	995,188
	한 달 생활비 지원 비율(%)	27.7	29.7	25.3	92.8	32.0	4.1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중·고등학생은 한 달에 지출하는 용돈으로 응답

3-2-8. 채무 여부 및 사유

2019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15~39세 청년들 중 2019년 현재 채무가 있는 경우는 27.5%로 2018년 25.1% 대비 2.4%p 상승하였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채무가 있는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30~39세 연령층에서 전년 대비 채무가 있다는 비율이 타 연령 대비 증가하였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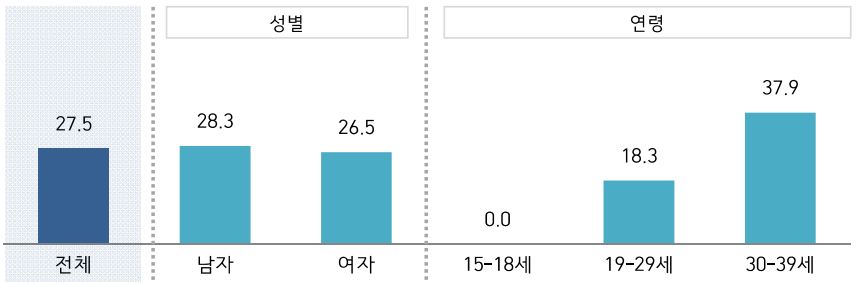


그림 Ⅲ-73. 채무 여부

표 Ⅲ-81 연도별 채무 여부

(단위: %)

연도	전체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19~29세	30~39세
2015	21.8	19.8	24.0	-	7.4	35.5
2016	20.2	21.1	19.1	0.0	9.6	30.9
2017	27.1	27.8	26.3	6.8	17.7	36.9
2018	25.1	27.0	23.0	0.0	18.2	31.0
2019	27.5	28.3	26.5	0.0	18.3	37.9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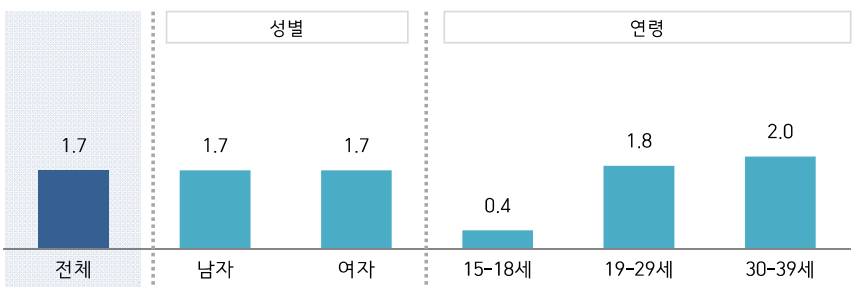
* 주 1) 갚아야 할 채무 여부에 '있다'라고 응답(학자금 대출 포함)한 비율(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2) 2015년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용역사업으로 수행되었으며, 조사대상은 19세-39세임.
3)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3-2-9.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 문항 중 문항별로 먼저 돈이 없어서 임대료, 대출금, 관리비 등 주거 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는 2019년 결과 1.7%로 조사되었다. 이어서 집의 냉/난방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는 0.7%,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비용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는 4.2%로 나타났다. 규칙적인 식사를 못한 경우 1.7%였으며 휴일에 놀러가지 못하거나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한 경우 9.4%, TV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 1.9%, 냉장고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는 0.9%,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는 20.2%였고 타인에게 연락을 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0.4%로 나타났다.

2018년 조사 결과와 비교 했을 때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한 비용 지불 경험(전년 대비 -6.1%p), 휴일에 놀러가지 못하거나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한 경우(전년 대비 -9.3%p),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전년 대비 -2.2%p)를 제외하면 문항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단위: %)



* 주: 해당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임.

그림 Ⅲ-74. 돈이 없어서 임대료, 대출금, 관리비 등 주거 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표 Ⅲ-82 돈이 없어서 임대료, 대출금, 관리비 등 주거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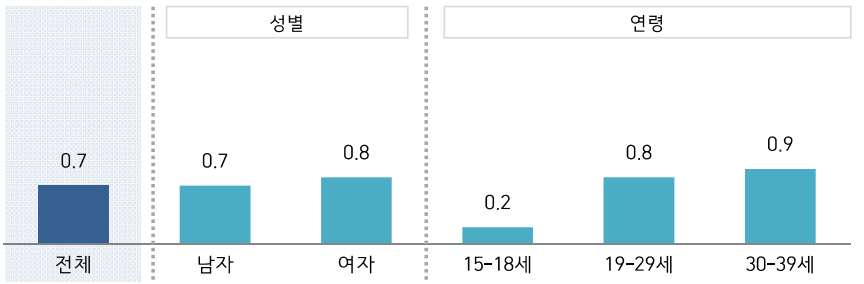
(단위: %)

연도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19~29세	30~39세
2017	예	2.7	1.9	3.6	0.4	2.9	3.1
	아니오	86.8	87.8	85.7	68.5	84.4	94.8
	잘 모름	10.5	10.3	10.7	31.1	12.6	2.1
2018	예	0.8	0.8	0.8	0.0	0.6	1.2
	아니오	82.9	81.8	84.1	58.6	78.8	93.6
	잘 모름	16.3	17.4	15.1	41.4	20.5	5.3
2019	예	1.7	1.7	1.7	0.4	1.8	2.0
	아니오	92.4	92.3	92.6	78.5	92.0	97.0
	잘 모름	5.8	5.9	5.7	21.1	6.2	1.0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단위: %)



* 주: 해당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임.

그림 Ⅲ-75. 돈이 없어서 집의 냉/난방을 유지하지 못했다

표 Ⅲ-83 돈이 없어서 집의 냉/난방을 유지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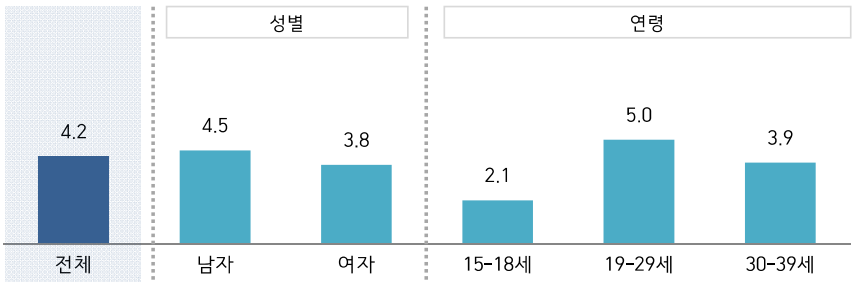
(단위: %)

연도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19~29세	30~39세
2017	예	0.8	0.6	1.1	0.0	1.2	0.8
	아니오	90.2	90.5	90.0	72.8	88.2	97.6
	잘 모름	8.9	8.9	9.0	27.2	10.7	1.7
2018	예	0.6	0.6	0.5	0.9	0.3	0.7
	아니오	85.1	84.4	85.8	65.0	80.6	94.8
	잘 모름	14.4	15.0	13.6	34.1	19.1	4.5
2019	예	0.7	0.7	0.8	0.2	0.8	0.9
	아니오	94.5	94.4	94.6	83.2	94.3	98.1
	잘 모름	4.7	4.9	4.6	16.7	4.9	1.1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단위: %)



* 주: 해당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임.

그림 Ⅲ-76. 돈이 없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표 Ⅲ-84 돈이 없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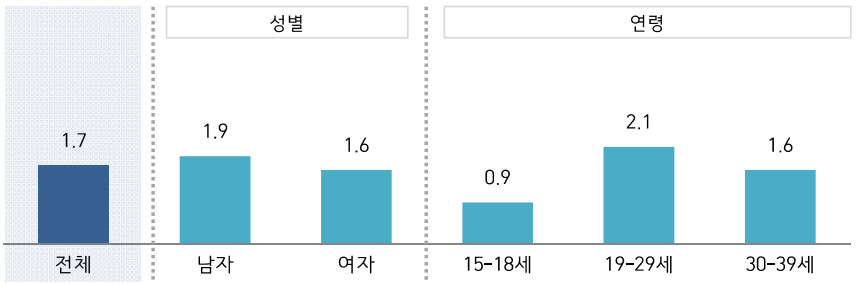
(단위: %)

연도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19~29세	30~39세
2017	예	7.9	6.8	9.1	5.7	9.2	7.3
	아니오	92.1	93.2	90.9	94.3	90.8	92.7
2018	예	10.3	10.6	9.9	10.7	11.1	9.5
	아니오	89.7	89.4	90.1	89.3	88.9	90.5
2019	예	4.2	4.5	3.8	2.1	5.0	3.9
	아니오	95.8	95.5	96.2	97.9	95.0	96.1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단위: %)



* 주: 해당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임.

그림 Ⅲ-77. 돈이 없어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못했다

표 Ⅲ-85 돈이 없어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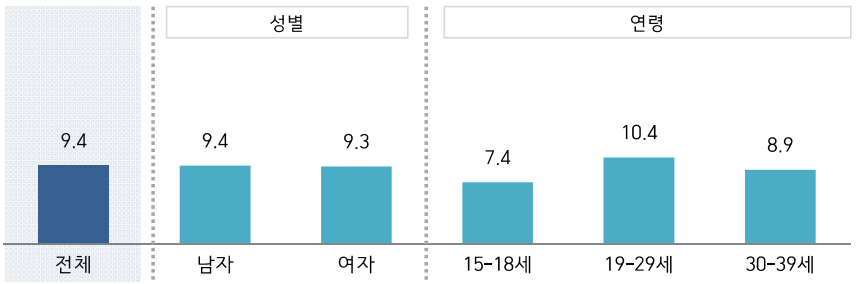
(단위: %)

연도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19~29세	30~39세
2017	예	2.2	1.7	2.7	1.5	3.9	0.8
	아니오	97.8	98.3	97.3	98.5	96.1	99.2
2018	예	1.1	1.1	1.0	1.0	1.1	1.0
	아니오	98.9	98.9	99.0	99.0	98.9	99.0
2019	예	1.7	1.9	1.6	0.9	2.1	1.6
	아니오	98.3	98.1	98.4	99.1	97.9	98.4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단위: %)



* 주: 해당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임.

그림 Ⅲ-78. 돈이 없어서 휴일에 놀러가지 못하거나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했다

표 Ⅲ-86 돈이 없어서 휴일에 놀러가지 못하거나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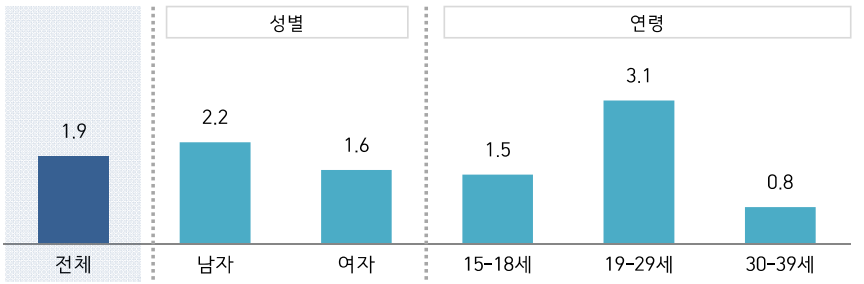
(단위: %)

연도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19~29세	30~39세
2017	예	13.9	11.9	16.2	11.5	17.2	11.4
	아니오	86.1	88.1	83.8	88.5	82.8	88.6
2018	예	18.7	18.3	19.2	23.4	19.7	16.5
	아니오	81.3	81.7	80.8	76.6	80.3	83.5
2019	예	9.4	9.4	9.3	7.4	10.4	8.9
	아니오	90.6	90.6	90.7	92.6	89.6	91.1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단위: %)



* 주: 해당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임.

그림 Ⅲ-79. TV를 가지고 있지 않다

표 Ⅲ-87 TV를 가지고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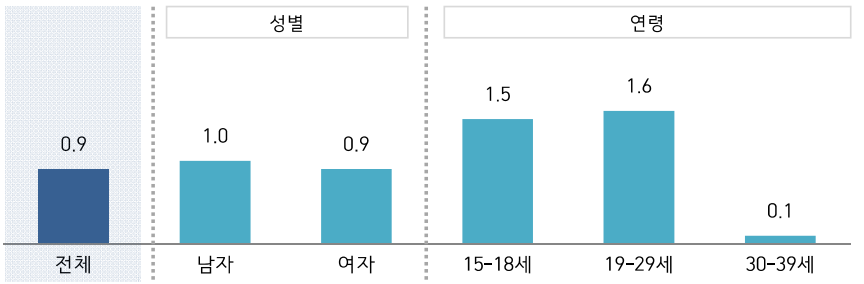
(단위: %)

연도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19~29세	30~39세
2017	예	2.7	2.7	2.7	1.7	4.3	1.3
	아니오	97.3	97.3	97.3	98.3	95.7	98.7
2018	예	0.5	0.2	0.7	0.4	0.5	0.5
	아니오	99.5	99.8	99.3	99.6	99.5	99.5
2019	예	1.9	2.2	1.6	1.5	3.1	0.8
	아니오	98.1	97.8	98.4	98.5	96.9	99.2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단위: %)



* 주: 해당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임.

그림 Ⅲ-80. 냉장고를 가지고 있지 않다

표 Ⅲ-88 냉장고를 가지고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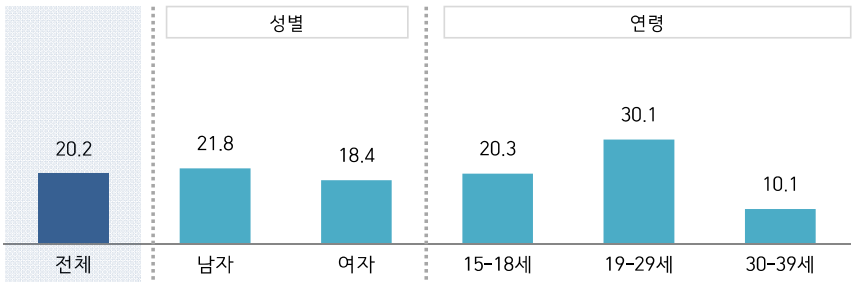
(단위: %)

연도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19~29세	30~39세
2017	예	0.7	0.8	0.6	0.7	1.0	0.3
	아니오	99.3	99.2	99.4	99.3	99.0	99.7
2018	예	0.3	0.1	0.4	0.4	0.2	0.3
	아니오	99.7	99.9	99.6	99.6	99.8	99.7
2019	예	0.9	1.0	0.9	1.5	1.6	0.1
	아니오	99.1	99.0	99.1	98.5	98.4	99.9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단위: %)



* 주: 해당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임.

그림 Ⅲ-81.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

표 Ⅲ-89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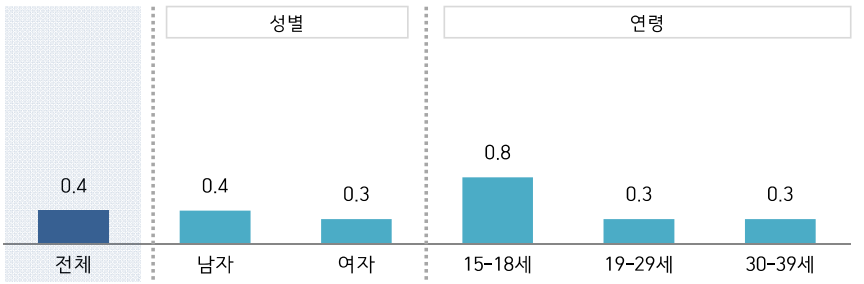
(단위: %)

연도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19~29세	30~39세
2017	예	24.6	23.3	26.0	24.1	36.1	13.2
	아니오	75.4	76.7	74.0	75.9	63.9	86.8
2018	예	22.4	20.6	24.5	29.3	30.0	14.1
	아니오	77.6	79.4	75.5	70.7	70.0	85.9
2019	예	20.2	21.8	18.4	20.3	30.1	10.1
	아니오	79.8	78.2	81.6	79.7	69.9	89.9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단위: %)



* 주: 해당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임.

그림 Ⅲ-82. 타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집전화, 휴대전화)을 가지고 있지 않다

표 Ⅲ-90 타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집전화, 휴대전화)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단위: %)

연도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19~29세	30~39세
2017	예	0.3	0.4	0.2	1.1	0.2	0.1
	아니오	99.7	99.6	99.8	98.9	99.8	99.9
2018	예	0.4	0.2	0.6	1.1	0.1	0.5
	아니오	99.6	99.8	99.4	98.9	99.9	99.5
2019	예	0.4	0.4	0.3	0.8	0.3	0.3
	아니오	99.6	99.6	99.7	99.2	99.7	99.7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4) 주거

4-1-1. 청년층 주거형태

통계청 인구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층 가구주의 연령별 주택 점유형태를 살펴본 결과, 2015년 기준 '자가'라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 기준 56.8%, 동부 기준 53.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보증금 있는 월세, 전세의 순이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청년고용법상 청년 연령인 15~29세 청년의 경우 전체 기준으로 볼 때 '자가'와 '전세' 응답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의 거주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30대 연령층을 포함한 15~39세 청년층에서도 주거형태 간 격차는 다소 줄어들었으나 이러한 경향이 계속되어 청년층의 주거 환경이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부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전체 대상 결과와 유사한 형태이나 15~39세 청년층의 2015년 자가 비율이 2010년 대비 증가(+9.8%)한 특성을 보였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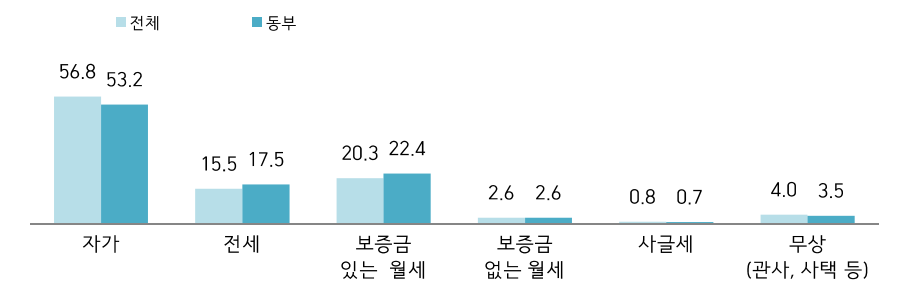


그림 Ⅲ-83. 청년층(가구주)의 주택 점유형태

표 Ⅲ-91 연도별 청년층(가구주)의 연령별 주택 점유형태

(단위: %)

구분	연령	연도	자가	전세 (월세없음)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무상(관사, 사택 등)
전국	전체	2000	54.2	28.2	10.7	2.0	2.2	2.8
		2005	55.6	22.4	15.1	2.1	1.8	3.1
		2010	54.2	21.7	18.2	2.0	1.3	2.7
		2015	56.8	15.5	20.3	2.6	0.8	4.0
	15~24세	2000	7.5	36.1	30.4	9.4	13.2	3.5
		2005	6.5	23.8	46.6	8.9	10.3	3.8
		2010	5.6	16.2	59.0	8.2	8.1	2.8
		2015	5.1	11.2	62.7	9.4	6.6	5.0
	15~29세	2000	14.3	48.0	22.5	4.8	6.2	4.1
		2005	12.7	33.3	38.3	5.6	5.4	4.6
		2010	11.6	27.6	48.0	5.0	3.9	3.9
		2015	10.1	19.1	53.9	7.0	3.5	6.4
	15~39세	2000	32.0	43.7	15.0	2.5	3.1	3.6
		2005	31.9	34.5	24.1	2.9	2.5	4.1
		2010	29.5	32.3	30.0	2.6	1.8	3.8
		2015	30.7	24.8	33.5	3.7	1.4	5.8
동부	전체	2000	49.1	32.6	12.1	1.9	2.2	2.1
		2005	51.6	25.4	16.8	2.1	1.7	2.4
		2010	50.3	24.3	20.1	2.0	1.3	2.1
		2015	53.2	17.5	22.4	2.6	0.7	3.5
	15~24세	2000	6.9	38.2	32.1	8.1	12.0	2.7
		2005	6.3	25.0	49.2	7.8	8.6	3.0
		2010	5.4	16.7	61.8	7.8	6.3	2.1
		2015	5.0	11.8	65.6	9.3	4.5	3.9
	15~29세	2000	13.3	50.3	23.3	4.3	5.8	2.9
		2005	12.2	34.7	39.8	5.1	4.7	3.6
		2010	11.1	28.3	49.9	4.8	3.2	2.7
		2015	9.7	19.8	56.1	7.0	2.5	4.9
	15~39세	2000	30.5	46.2	15.4	2.3	2.9	2.6
		2005	31.0	36.0	24.8	2.7	2.2	3.2
		2010	28.5	33.4	31.0	2.6	1.6	2.9
		2015	38.3	28.4	25.7	2.4	0.5	4.7

* 출처: 통계청(각 년도g). 인구총조사(가구주의 연령별/점유형태별 가구(일반가구)-시군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E1511&conn_path=I2에서 2019년 7월 22일 인출.

* 주: 2000년의 경우 일반가구수에서 미상인 가구는 제외함.

4-1-2. 청년층 실주거비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알아보고자 전체 가구와 39세 이하 청년층 가구의 실주거비(2인 이상 월세가구의 월세액)를 확인해 본 결과, 2016년 기준 39세 이하 청년 가구의 실주거비는 전국 기준 107,674원, 도시 기준 112,696원으로 전체 주거비(전국 기준 78,906원, 도시 기준 81,451원) 대비 약 3만원가량 더 높았다. 시계열로 실주거비를 비교 해 보면 전체 가구(2007년 41,552원→2016년 78,906원, 1.90배), 39세 이하 가구(2007년 57,373원→2016년 107,674원, 1.88배) 모두 10년 간 2배 가까운 상승이 있었으며, 전체 가구 대 39세 이하 청년층 가구의 실주거비 비율은 2007년 1 대 1.38에서 2016년 1 대 1.36으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아 주거비 부담이 특정층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체 가구와 청년층 가구 모두에게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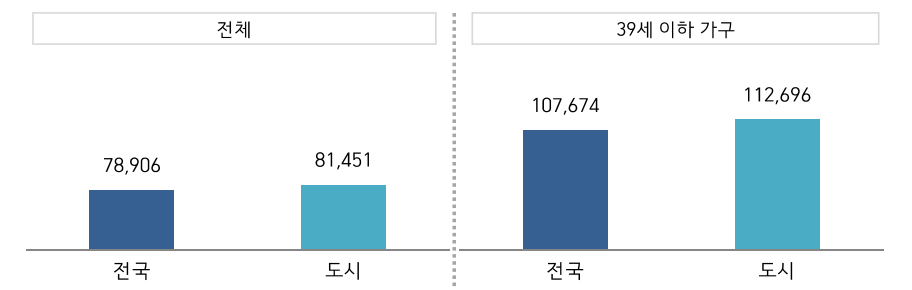


그림 Ⅲ-84. 청년층(가구주)의 실주거비

표 Ⅲ-92 연도별 청년층(가구주)의 실주거비

(단위: 원)

연도	전체		39세 이하 가구	
	전국	도시	전국	도시
2007	41,552	42,632	57,373	58,288
2008	40,909	41,652	54,329	54,858
2009	41,946	43,131	53,072	54,807
2010	45,839	47,610	56,046	57,906
2011	49,475	51,852	67,105	70,405
2012	55,207	57,250	71,996	77,576
2013	59,087	60,805	69,317	72,817
2014	61,423	63,048	81,152	87,132
2015	74,227	76,264	102,720	109,586
2016	78,906	81,451	107,674	112,696

* 출처: 통계청(각 년도h). 가계동향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L9H020&conn_path=I2(2007-2016년, 전국 2인 이상 실제주거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L9I020&conn_path=I2(2007-2016년, 도시 2인 이상 실제주거비)에서 2019년 10월 7일 인출.

* 주: 2007-2016년의 실제주거비는 2인 이상 월세가구의 월세액만을 포함하며, 월세보증금은 포함되지 않음.

4-1-3. 청년 가구 비율

전체 가구 가구주 대비 청년 연령대 가구주 비율을 살펴본 결과, 청년고용법상 청년 연령 기준인 15~29세 가구 비율은 지난 1980년 15.6% 이래로 지속적으로 하락, 2010년부터 7% 대로 유지, 2018년 7.4%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청년층 가구 비율은 1980년대 대비 약 절반 정도로 감소하였으며 2010년을 기점으로 감소폭은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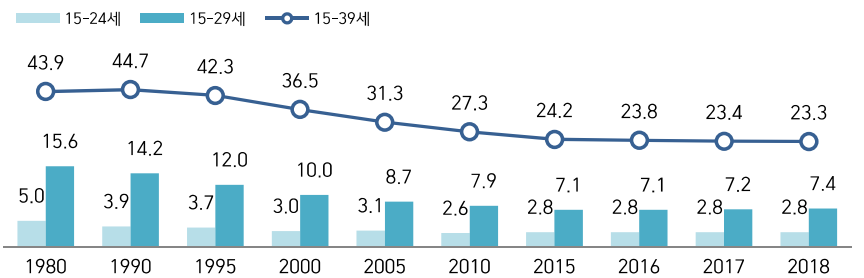


그림 Ⅲ-85. 청년층(일반가구 가구주)의 가구 비율

표 Ⅲ-93 연도별 청년층(일반가구 가구주)의 가구 비율 추이

(단위: %)

연도	15~24세	15~29세	15~39세
1980	5.0	15.6	43.9
1990	3.9	14.2	44.7
1995	3.7	12.0	42.3
2000	3.0	10.0	36.5
2005	3.1	8.7	31.3
2010	2.6	7.9	27.3
2015	2.8	7.1	24.2
2016	2.8	7.1	23.8
2017	2.8	7.2	23.4
2018	2.8	7.4	23.3

* 출처: 통계청(각 년도g). 인구총조사(가구주의 성, 연령 및 세대구성별 가구(일반가구)-시군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C1517&conn_path=I2에서 2019년 8월 30일 인출.

* 주: 연령별 가구비율=연령별 가구수/전체 일반가구수×100

4-1-4. 청년 1인 가구 비율

청년 연령대이면서 가구원이 1명인 청년 1인 가구 비율 중 15~29세를 기준으로 우선 살펴보면, 2018년 72.6%로 2000년 39.1%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30대를 포함한 15~39세 1인 가구 비율도 2018년 44.5%로 2000년 18.7%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00년부터 2018년까지 1인 가구 비율은 연령대와 상관없이 전부 상승하는 추세이지만, 전체 1인 가구 비율 증가세보다 청년층, 특히 15~39세 청년층의 1인 가구 비율 증가세가 더 높은 편이므로 이들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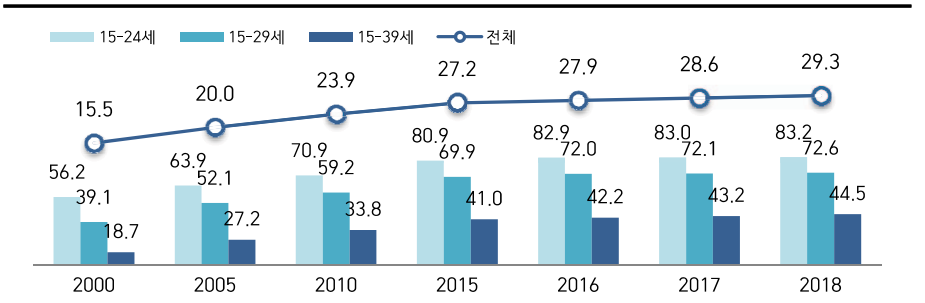


그림 Ⅲ-86. 청년층(일반가구 가구주)의 1인 가구 비율

표 Ⅲ-94 연도별 청년층(일반가구 가구주)의 1인 가구 비율 추이

(단위: %)

연도	전체	15~24세	15~29세	15~39세	연도	전체	15~24세	15~29세	15~39세
2000	15.5	56.2	39.1	18.7	2016	27.9	82.9	72.0	42.2
2005	20.0	63.9	52.1	27.2	2017	28.6	83.0	72.1	43.2
2010	23.9	70.9	59.2	33.8	2018	29.3	83.2	72.6	44.5
2015	27.2	80.9	69.9	41.0					

* 출처: 통계청(각 년도g). 인구총조사(가구주의 성, 연령 및 세대구성별 가구(일반가구)-시군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C1517&conn_path=I2에서 2019년 8월 30일 인출.

* 주 1) 연령별 가구비율=연령별 1인 가구수/연령별 일반가구수×100
2) 2016년 자료의 경우, 최저 연령이 20세 미만으로 분류되어 있어 15세 미만 1인 가구 인구도 포함되어 산출된 값임.

4-1-5. 부모 동거 여부

2019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현재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1.5%로 2018년 59.5% 대비 8.0%p 감소하였다. 부모 동거 비율은 남자(55.3%)가 여자(47.3%)보다 높고, 15~18세 청년은 97.5%, 19~29세 청년의 경우 70.2%가 부모와 동거 중인 반면, 초혼연령대와 맞물린 30~39세 청년은 18.8%만이 부모와 동거 중이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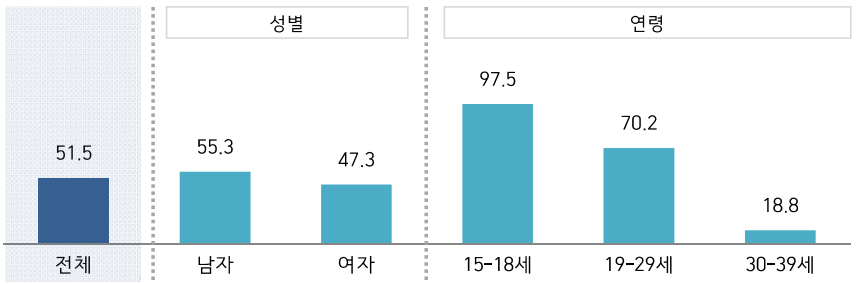


그림 Ⅲ-87. 부모 동거 여부

표 Ⅲ-95 연도별 부모 동거 여부

(단위: %)

연도	전체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19~29세	30~39세
2016	60.2	63.4	56.7	99.5	84.1	23.9
2017	51.0	54.5	47.2	98.7	69.0	18.6
2018	59.5	61.4	57.5	99.1	84.0	27.4
2019	51.5	55.3	47.3	97.5	70.2	18.8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1)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
2)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4-1-6. 미혼 독립 거주 여부

2019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거주하고 있다고 응답한 청년은 20.6%로 2018년 대비 4.9%p 증가하였다. 미혼으로 혼자 살고 있는 비율은 남자(27.5%), 19~29세(46.0%)에서 높게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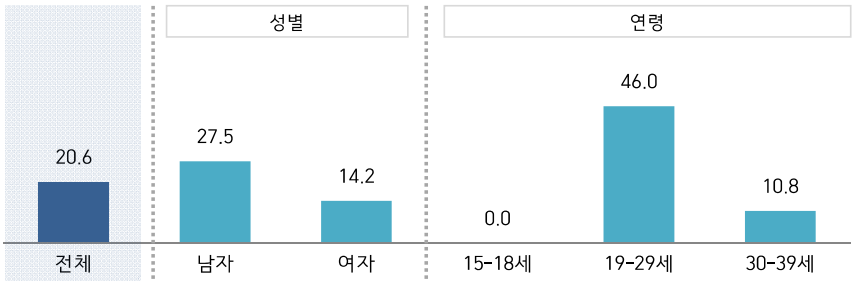


그림 Ⅲ-88. 미혼 혼자 거주 여부

표 Ⅲ-96 연도별 미혼 혼자 거주 여부

(단위: %)

연도	전체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19~29세	30~39세
2016	14.9	21.5	8.9	-	42.4	9.3
2017	25.3	34.0	17.2	-	52.1	15.0
2018	15.7	20.2	11.2	-	43.7	10.6
2019	20.6	27.5	14.2	-	46.0	10.8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1) 부모님과 비동거/독립인 경우에만 응답(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2)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4-1-7. 1인 가구 주거 형태

2019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미혼으로 혼자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주거 형태를 물어본 결과, 원룸(다가구)에 거주하는 비율이 47.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다세대/빌라(21.9%)', '아파트(17.5%)' 등의 순이었다. 전년 대비 원룸 거주 비율은 크게 증가한 반면, 아파트, 다세대/빌라, 오피스텔 거주 비율은 감소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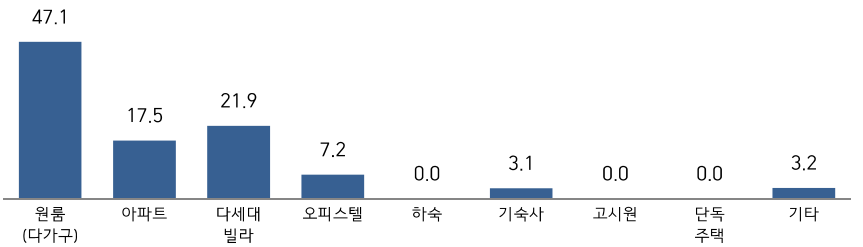


그림 Ⅲ-89. 현재 주거 형태

표 Ⅲ-97 연도별 현재 주거 형태

(단위: %)

연도	원룸 (다가구)	아파트	다세대 /빌라	오피 스텔	하숙	기숙사	고시원	단독 주택	기타
2016	35.2	33.6	23.7	4.7	0.6	-	-	-	2.2
2017	37.1	27.7	22.2	6.5	0.2	2.8	0.0	-	3.5
2018	19.4	26.9	32.5	12.4	0.2	0.4	-	-	8.3
2019	47.1	17.5	21.9	7.2	-	3.1	-	-	3.2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1) 미혼 1인 가구인 경우에만 응답
2)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4-2-1. 청년층 주거 빈곤 규모

오피스텔, 숙박시설의 객실, 기숙사 및 특수사회 시설, 판잣집/비닐하우스 및 기타 등 주택 외 가구에 거주하는 비율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 빈곤 규모를 살펴보았다. 2018년 기준 주택 외 가구에 거주하는 가구 비율은 전 연령대 평균 4.6%로 2017년 4.4%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다만, 청년층의 경우 2018년 기준 15~29세의 주택 외 가구 거주 비율이 13.0%(2017년 대비 +1.1%p), 30대까지 연령을 확장한 15~39세의 경우에도 8.9%(2017년 대비 +0.8%p)로 전 연령대 평균 대비 매우 높은 주택 외 거주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년대비 비율 또한 상승하고 있어 향후 청년층의 주거 빈곤 관련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단위: 가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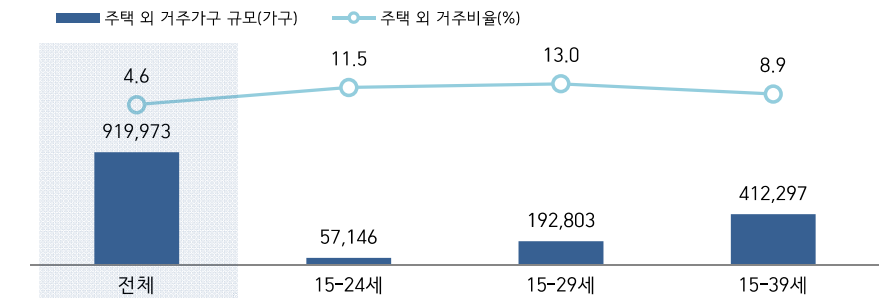


그림 Ⅲ-90. 청년층(일반가구 가구주)의 주택 외 거주규모 비율

표 Ⅲ-98 연도별 청년층(일반가구 가구주)의 주택 외 거주규모 비율 추이

(단위: 가구, %)

연도		전체	15~24세	15~29세	15~39세
2000	규모	84,353	7,045	17,938	37,285
	비율	0.6	1.64	1.3	0.7
2005	규모	216,857	29,298	75,610	139,060
	비율	1.4	6.0	5.5	2.8
2010	규모	353,942	44,287	116,216	217,883
	비율	2.0	9.8	8.5	4.6
2015	규모	713,986	41,605	130,843	300,822
	비율	3.7	7.9	9.7	6.5
2016	규모	770,088	45,994	146,337	330,147
	비율	4.0	8.4	10.6	7.2
2017	규모	857,503	51,731	168,966	372,563
	비율	4.4	9.5	11.9	8.1
2018	규모	919,973	57,146	192,803	412,297
	비율	4.6	11.5	13.0	8.9

* 출처: 통계청(각 년도g). 인구총조사(가구주의 성, 연령 및 거처의 종류별 가구(일반가구)-시군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C1514&conn_path=I2에서 2019년 8월 30일 인출.

* 주 1) 연령별 가구비율=연령별 주택이외 거처 가구수/연령별 일반가구수×100
2) 주택 외 거주: 오피스텔, 숙박시설의 객실, 기숙사 및 특수사회 시설, 판잣집/비닐하우스 및 기타

4-2-2. 가처분소득 대비 가구부채비율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가처분소득(비소비지출을 제외한 경상소득) 내 총부채(금융부채 및 임대보증금)의 비율을 통해 청년층의 부채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2017년 기준 30세 미만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구부채비율은 84.6%로 2010년 41.2% 대비 43.4%p 증가, 30~39세의 경우 2017년 156.7%로 2010년 117.7% 대비 39.0%p 증가하여, 전체 가구 평균(2010년 151.6%→2017년 171.9%, 20.3%p 증가)보다 상대적으로 부채비율 증가 폭이 매우 컸다. 이러한 청년층의 부채비율 증가는 30세 미만의 경우 부채 규모 증가(2010년 936만원→2017년 2,393만원, 1,457만원 증가)에 비해 가처분소득의 증가(2010년 2,272만원→2017년 2,828만원, 556만원 증가)는 떨어지는 것, 30-39세의 경우 전체 가구의 부채 규모 증가(2010년 4,618만원→2017년 7,099만원, 2,481만원 증가)보다 훨씬 높은 부채 규모 증가(2010년 3,981만원→2017년 6,920만원, 2,939만원 증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단위: 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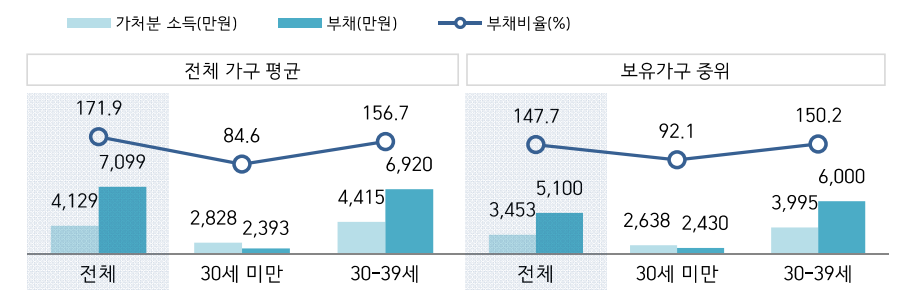


그림 Ⅲ-91. 가처분소득 대비 가구부채 비율

표 Ⅲ-99 연도별 가처분소득 대비 가구부채 비율 추이

(단위: 만원, %)

연도		전체			30세 미만			30~39세		
		가처분소득	부채	비율	가처분소득	부채	비율	가처분소득	부채	비율
2010	전체가구평균	3,047	4,618	151.6	2,272	936	41.2	3,383	3,981	117.7
	보유가구 중위	2,395	3,000	125.3	1,928	840	43.6	2,852	2,900	101.7
2011	전체가구평균	3,283	5,205	158.5	2,546	1,268	49.8	3,532	4,609	130.5
	보유가구 중위	2,552	3,080	120.7	2,127	1,000	47.0	3,002	3,000	99.9
2012	전체가구평균	3,476	5,450	156.8	2,496	1,283	51.4	3,779	4,405	116.6
	보유가구 중위	2,888	3,240	112.2	2,256	1,000	44.3	3,367	3,200	95.0
2013	전체가구평균	3,651	5,858	160.4	2,600	1,401	53.9	3,936	4,890	124.2
	보유가구 중위	3,087	3,646	118.1	2,321	852	36.7	3,449	3,530	102.3
2014	전체가구평균	3,819	6,051	158.4	2,963	1,481	50.0	4,085	5,257	128.7
	보유가구 중위	3,268	4,007	122.6	2,483	1,078	43.4	3,672	4,024	109.6
2015	전체가구평균	3,927	6,256	159.3	2,934	1,491	50.8	4,167	5,463	131.1
	보유가구 중위	3,376	4,500	133.3	2,621	1,550	59.1	3,794	4,800	126.5
2016	전체가구평균	4,021	6,719	167.1	2,823	1,681	59.5	4,242	5,920	139.6
	보유가구 중위	3,445	5,000	145.1	2,613	2,006	76.8	3,843	5,220	135.8
2017	전체가구평균	4,129	7,099	171.9	2,828	2,393	84.6	4,415	6,920	156.7
	보유가구 중위	3,453	5,100	147.7	2,638	2,430	92.1	3,995	6,000	150.2

* 출처: 통계청(각 년도f). 가계금융·복지조사(패널)(가구주연령계층별(10세) 자산, 부채, 소득 현황).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CA06&conn_path=I2에서 2019년 10월 7일 인출.

* 주 1) 가처분소득 = 경상소득 - 비소비지출(세금, 4대보험, 이자비용 포함)
2) 총부채 = 금융부채 + 임대보증금(세입자로부터 받은 보증금)
3) 비율=총부채/가처분소득×100

4-2-3. 기숙사 수용률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기숙사 수용률을 살펴보면 2017년 기준 국내 대학 전체의 기숙사 수용률은 20.7%, 국공립 대학 기숙사 수용률이 22.6%로 사립대학 기숙사 수용률 20.0%보다 높았으나, 그 차이는 3% 내외로 크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보면 서울(13.5%), 인천(14.4%), 경기(16.7%) 등 수도권 지역 대학 기숙사 수용률이 특히 낮게 나타났고, 그 외에 부산(18.4%), 대구(19.2%), 제주(19.3%)의 수용률이 전체 기숙사 수용률보다 낮았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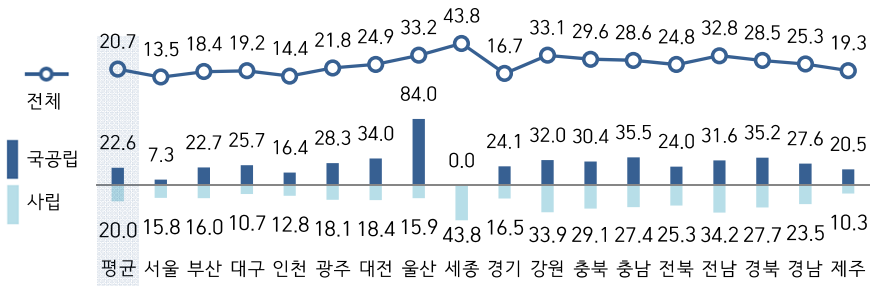


그림 Ⅲ-92. 기숙사 수용률

표 Ⅲ-100 연도별 기숙사 수용률 추이

(단위: %)

연도		평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4	전체	16.6	8.9	13.5	16.5	12.1	19.4	23.1	30.8	31.2	14.9	31.7	24.6	22.5	21.3	29.4	25.2	20.9	16.1
	국공립	15.1	3.6	17.6	22.0	12.7	24.5	31.2	1029	0.0	14.4	30.3	21.8	31.4	18.5	27.6	26.7	20.3	15.9
	사립	17.4	12.8	11.4	9.7	11.7	16.8	17.4	13.9	31.2	14.9	32.7	26.4	21.2	23.1	31.7	25.0	21.5	18.4
2015	전체	18.4	11.0	14.1	15.9	11.8	20.4	23.8	31.9	31.6	14.9	32.0	27.8	25.1	22.2	32.3	26.6	22.6	15.5
	국공립	17.0	5.3	17.4	20.8	11.9	20.3	19.7	89.4	0.0	13.8	29.9	27.8	31.0	19.9	28.8	26.7	24.3	15.8
	사립	18.4	13.9	12.3	9.9	11.7	17.1	16.8	15.1	31.6	14.9	33.6	27.8	24.2	23.9	36.4	26.6	21.2	12.4
2016	전체	19.5	11.8	17.1	18.2	12.1	21.1	24.4	31.9	32.4	15.9	31.3	29.3	27.6	23.3	33.7	27.7	23.4	15.2
	국공립	17.6	5.7	20.0	21.2	11.7	21.0	19.9	82.2	0.0	13.8	30.7	29.5	33.2	21.0	30.7	34.2	25.3	15.9
	사립	19.4	14.7	15.5	10.4	12.5	17.9	17.5	15.5	32.4	15.9	31.7	27.2	26.7	24.9	37.2	26.8	21.8	9.7
2017	전체	20.7	13.5	18.4	19.2	14.4	21.8	24.9	33.2	43.8	16.7	33.1	29.6	28.6	24.8	32.8	28.5	25.3	19.3
	국공립	22.6	7.3	22.7	25.7	16.4	28.3	34.0	84.0	0.0	24.1	32.0	30.4	35.5	24.0	31.6	35.2	27.6	20.5
	사립	20.0	15.8	16.0	10.7	12.8	18.1	18.4	15.9	43.8	16.5	33.9	29.1	27.4	25.3	34.2	27.7	23.5	10.3

* 출처: 대학알리미(각 년도). 기숙사 수용률. 대학알리미 웹사이트 http://www.academyinfo.go.kr/에서 2019년 7월 22일 인출.

* 주 1) 국공립: 국립, 공립, 특별법국립, 특별법법인, 국립대법인을 포함함.
2) 사립: 사립 및 기타를 포함함.

4-2-4. 주거 마련 시기 의견

2019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청년들에게 본인 명의로 된 집을 언제쯤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를 물어본 결과, '향후 10~20년 이내'라는 응답 비율이 29.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이미 소유하고 있다'(17.0%), '향후 20년 이후(17.0%)', '향후 7~10년 이내(11.6%)' 등의 순이었다. 향후 10년 이상 걸릴 것이다 및 마련할 수 없을 것 같다('향후 10~20년 이내' 29.2%+'향후 20년 이후' 17.0%+'마련할 수 없을 것 같다' 8.6%)는 응답이 전체 응답 청년의 절반 이상(54.8%)을 차지하고 있어 주택 마련에 대해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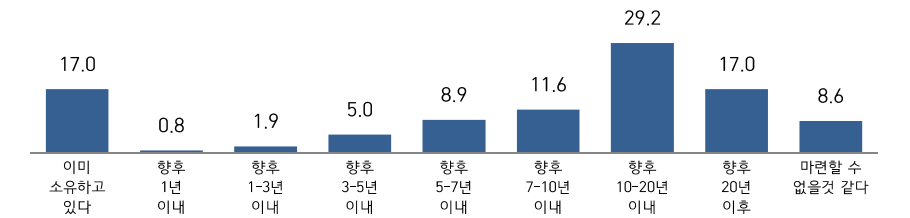


그림 Ⅲ-93. 주거 마련 시기 의견

표 Ⅲ-101 연도별 주거 마련 시기 의견 추이

(단위: %)

연도	이미 소유하고 있다	향후 1년 이내	향후 1~3년 이내	향후 3~5년 이내	향후 5~7년 이내	향후 7~10년 이내	향후 10~20년 이내	향후 20년 이후	마련할 수 없을 것 같다
2013	14.9	1.4	3.1	6.8	9.0	19.7	30.2	10.7	4.2
2015	11.9	0.4	1.7	3.8	11.6	21.0	31.9	11.1	6.6
2016	13.6	0.4	0.9	5.4	8.2	12.5	34.8	17.8	6.3
2017	17.2	0.7	3.8	5.6	9.4	14.5	27.3	14.9	6.6
2018	8.4	0.1	0.7	4.4	5.8	12.5	32.6	25.2	10.3
2019	17.0	0.8	1.9	5.0	8.9	11.6	29.2	17.0	8.6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4-2-5. 공동주거 경험 및 의향

2019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공동주거 경험을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6.1%가 공동주거를 경험 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 2018년 2.5% 대비 다소 증가하였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남자(6.9%)가 여자(5.2%)보다, 타 연령대 대비 20대(7.2%)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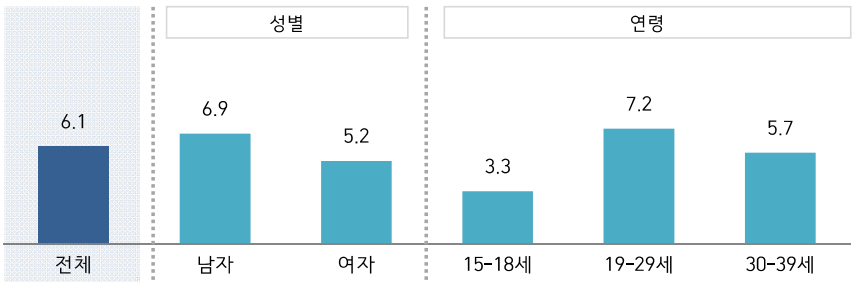


그림 Ⅲ-94. 공동주거 경험

표 Ⅲ-102 연도별 공동주거 경험

(단위: %)

연도	전체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19~29세	30~39세
2015	9.5	10.9	7.9	-	10.9	8.2
2016	9.1	9.4	8.7	7.3	11.2	7.6
2017	7.1	8.2	6.0	2.4	8.4	7.3
2018	2.5	2.8	2.1	1.1	3.4	2.1
2019	6.1	6.9	5.2	3.3	7.2	5.7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1) 공동주거 경험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
2) 2015년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용역사업으로 수행되었으며, 조사대상은 19세~39세임.
3)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그렇다면 공동주거를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7%만 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 공동주거 경험과 마찬 가지로 2018년 2.8% 대비 3.9%p 상승하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공동주거를 하겠다는 의향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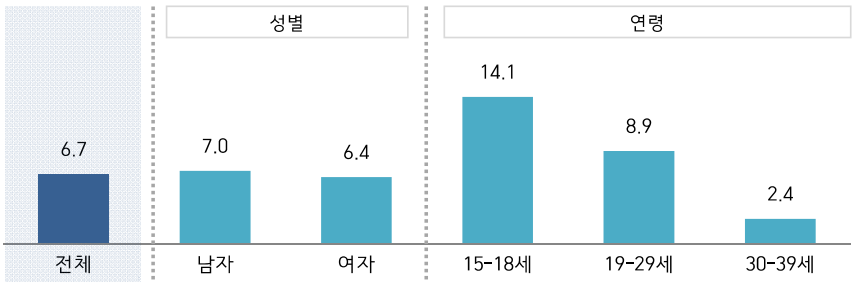


그림 Ⅲ-95. 공동주거 의향

표 Ⅲ-103 연도별 공동주거 의향

(단위: %)

연도	전체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19~29세	30~39세
2015	17.9	18.4	17.3	-	24.2	11.9
2016	7.6	8.0	7.2	14.7	9.6	3.4
2017	8.0	8.5	7.4	17.9	9.1	3.9
2018	2.8	2.9	2.7	6.2	4.2	0.7
2019	6.7	7.0	6.4	14.1	8.9	2.4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1) 공동주거 의향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
2) 2015년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용역사업으로 수행되었으며, 조사대상은 19세~39세임.
3)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4-2-6. 평소 주거에 대한 생각

2019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집에 대한 평소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내 명의의 집은 꼭 있어야 한다', '지금의 집 값 수준은 적정하다', '부모님 도움 없이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3개 문항을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먼저, '내 명의의 집이 꼭 있어야 한다'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62.8%('그렇다' 50.0%+'매우 그렇다' 12.8%)로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 17.9%('전혀 그렇지 않다' 1.9%+'그렇지 않다' 16.0%)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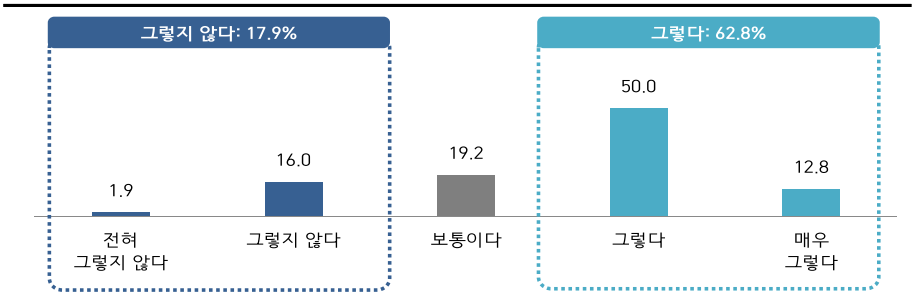


그림 Ⅲ-96. 평소 주거 생각_1) 내 명의의 집은 꼭 있어야 한다

표 Ⅲ-104 연도별 평소 주거 생각_1) 내 명의의 집은 꼭 있어야 한다

(단위: %)

연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13	1.1	11.9	26.3	47.8	12.9
2015	1.1	13.7	24.4	48.5	12.3
2016	1.0	12.1	25.2	48.5	13.3
2017	2.3	14.8	19.0	47.7	16.2
2018	1.1	13.8	23.6	51.0	10.5
2019	1.9	16.0	19.2	50.0	12.8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1) 2013년과 2015년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용역사업으로 수행되었으며, 조사대상은 19세~39세임.
2)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지금의 집 값 수준은 적정하다’는 의견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76.4%(‘전혀 그렇지 않다’ 35.7%+‘그렇지 않다’ 40.7%)로 2018년 부정적 응답 비율 65.0%(‘전혀 그렇지 않다’ 27.2%+‘그렇지 않다’ 37.8%)에 비해 크게 증가하여 주거 마련 시기 응답 결과와 더불어 부정적인 인식이 매우 강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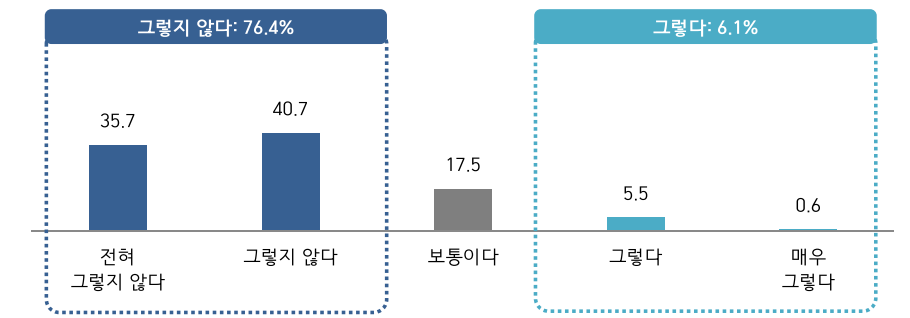


그림 Ⅲ-97. 평소 주거 생각_2) 지금의 집 값 수준은 적정하다

표 Ⅲ-105 연도별 평소 주거 생각_2) 지금의 집 값 수준은 적정하다

(단위: %)

연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13	14.8	45.5	28.6	9.2	1.9
2015	23.0	38.3	25.6	11.6	1.5
2016	27.4	42.0	21.6	8.0	1.0
2017	29.1	40.3	22.0	8.0	0.7
2018	27.2	37.8	21.2	12.1	1.6
2019	35.7	40.7	17.5	5.5	0.6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1) 2013년과 2015년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용역사업으로 수행되었으며, 조사대상은 19세~39세임.
2)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마지막으로 '부모님 도움 없이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은 43.3%('그렇다' 33.0%+'매우 그렇다' 10.4%)로 동의하지 않는 비율 28.5%('전혀 그렇지 않다' 4.4%+'그렇지 않다' 24.1%)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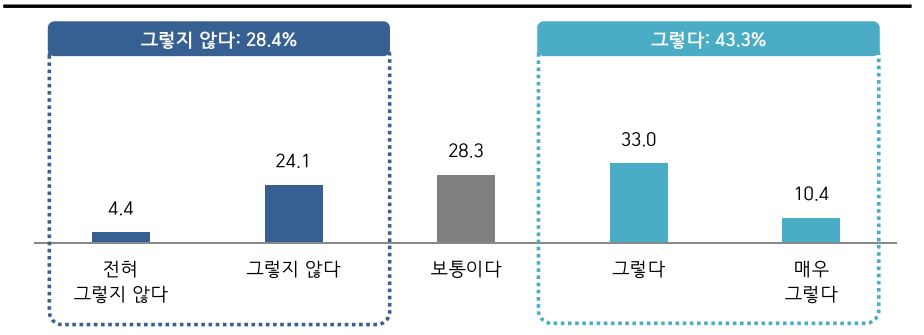


그림 Ⅲ-98. 평소 주거 생각_3) 부모님 도움 없이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표 Ⅲ-106 연도별 평소 주거 생각_3) 부모님 도움 없이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위: %)

연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13	5.5	29.1	36.7	25.1	3.6
2015	2.8	20.4	42.0	28.3	6.5
2016	6.5	20.5	41.6	26.7	4.7
2017	7.0	25.6	34.5	25.1	7.8
2018	2.6	14.4	36.0	37.6	9.5
2019	4.4	24.1	28.3	33.0	10.4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1) 2013년과 2015년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용역사업으로 수행되었으며, 조사대상은 19세~39세임.
2)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5) 건강

5-1-1. 정기적인 운동습관

청년들의 정기적인 운동 습관을 확인하기 위해 걷기 실천율(최근 1주일 간 1회 당 10분 이상, 하루 총 30분 이상으로 5일 이상 실천한 비율)을 살펴보았다. 2017년 기준 걷기 실천율은 평균 38.6%로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의 감소폭(전년대비 2.7%p 감소)이 상대적으로 컸다. 성별에 관계없이 20대의 걷기 실천율(47.9%) 대비 30대의 실천율(34.7%)이 낮게 나타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정기적인 운동을 하는 비율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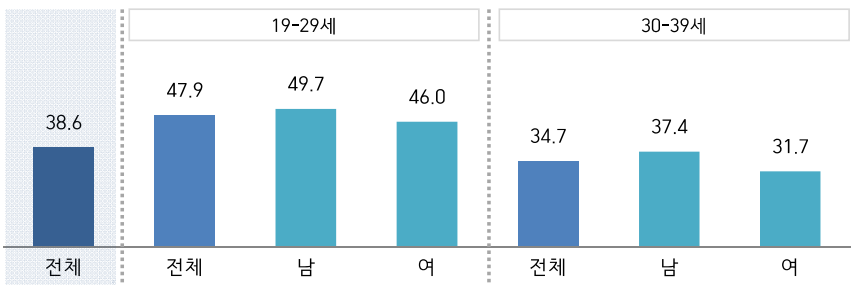


그림 Ⅲ-99. 정기적인 운동 실천율_걷기 실천율

표 Ⅲ-107 연도별 정기적인 운동 실천율 추이_걷기 실천율

(단위: %)

연도	전체	19~29세			30~39세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2007	45.8	50.9	56.0	45.6	39.6	40.0	39.1
2008	46.9	55.1	60.4	49.4	41.6	43.9	39.2
2009	46.0	53.0	57.9	47.6	42.2	43.2	41.2
2010	40.9	50.9	55.8	45.7	38.3	40.7	35.7
2011	37.6	49.8	55.2	43.9	34.9	37.9	32.0
2012	38.7	50.6	53.0	48.0	39.0	40.3	37.7
2013	37.4	49.0	57.1	39.6	35.7	39.3	32.2
2014	41.3	51.9	57.9	45.4	37.1	36.5	37.6
2015	40.6	50.8	55.3	45.8	39.0	39.6	38.4
2016	39.1	48.1	52.2	43.6	37.4	39.3	35.4
2017	38.6	47.9	49.7	46.0	34.7	37.4	31.7

* 출처: 보건복지부(각 년도). 국민영양조사(걷기실천율 추이: 성별, 만19세이상).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2_N054&conn_path=I2에서 2019년 7월 23일 인출.

* 주: 걷기실천율은 최근 1주일 동안 걷기를 1회 10분 이상, 1일 총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분율(만19세 이상)

다음으로,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을 통해 정기적인 운동 실천율을 살펴보았다. 2017년 기준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46.4%로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대 청년층(2014년 72.3%→2017년 65.6%)보다 30대 청년층에서 감소하는 추세(2014년 58.0%→2017년 47.5%)가 두드러졌다. 성별로 살펴보면 연령대와 상관없이 남성이 여성에 비해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이 높으나 전년대비 20대의 남녀 간의 차이는 감소한 반면, 30대의 남녀 간 차이는 더 크게 벌어지고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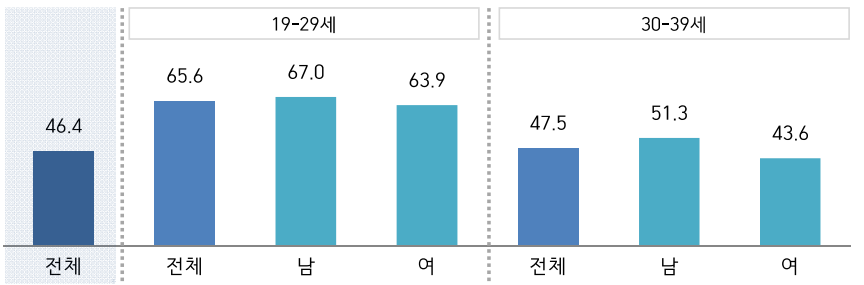


그림 Ⅲ-100. 정기적인 운동 실천율_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표 Ⅲ-108 연도별 정기적인 운동 실천율 추이_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단위: %)

연도	전체	19~29세			30~39세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2014	57.1	72.3	79.8	64.1	58.0	58.2	57.8
2015	51.0	66.7	72.1	60.8	51.2	54.3	48.3
2016	47.8	61.9	66.9	56.4	49.1	50.7	47.4
2017	46.4	65.6	67.0	63.9	47.5	51.3	43.6

* 출처: 보건복지부(각 년도). 국민영양조사(유산소신체활동실천율 추이: 성별, 만19세이상).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2_N236&conn_path=I2에서 2019년 7월 23일 인출.

* 주: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일주일에 중강도 신체활동을 2시간 30분 이상 또는 고강도 신체활동을 1시간 15분 이상 또는 중강도와 고강도 신체활동을 섞어서(고강도 1분은 중강도 2분) 각 활동에 상당하는 시간을 실천한 분율(만19세 이상)

5-1-2. 비만율

청년들의 비만 유병률(체질량지수 25kg/㎡ 이상인 분율)은 전체 34.8%로 20대(29.4%)에 비해 30대(33.4%)가 상대적으로 비만율이 높았다.

20대 청년층의 경우 2007년 22.0%에서 2017년 29.4%로, 30대 청년층 역시 같은 기간 동안 27.8%에서 33.4%로 증가하여 청년층 전체의 비만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최근 3년 기준(2015-2017년)으로 한정하여 보면 30대의 경우 남성은 다소 증가(43.6%→46.7%), 여성은 감소(21.1%→18.3%)한 반면, 20대의 경우 남성(32.4%→39.0%)과 여성(13.4%→18.3%) 모두 5%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특히 20대 청년들의 비만 문제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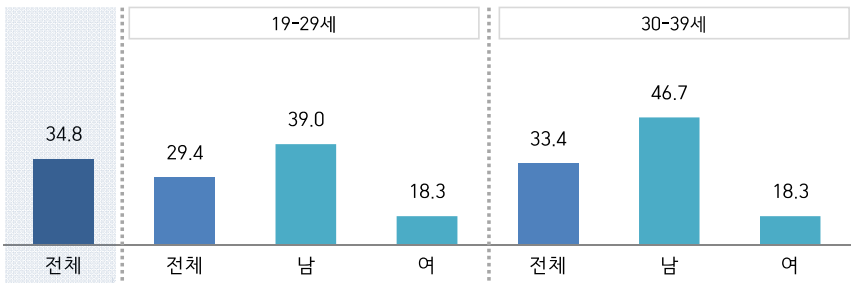


그림 Ⅲ-101. 비만 유병률

표 Ⅲ-109 연도별 비만 유병률 추이

(단위: %)

연도	전체	19-29세			30-39세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2007	32.1	22.0	31.0	12.6	27.8	41.7	12.8
2008	31.0	23.0	31.0	14.1	28.0	38.2	17.0
2009	31.9	22.1	29.0	14.3	29.5	38.5	19.6
2010	31.4	20.5	28.3	12.1	31.0	42.3	19.0
2011	31.9	21.7	26.2	16.9	31.5	40.7	21.7
2012	32.8	22.4	30.5	13.6	32.5	40.6	23.7
2013	32.5	22.4	29.3	14.4	33.2	47.1	17.9
2014	31.5	23.9	32.0	15.0	31.8	43.9	18.6
2015	34.1	23.5	32.4	13.4	32.9	43.6	21.1
2016	35.5	27.2	38.8	13.8	34.2	45.4	21.7
2017	34.8	29.4	39.0	18.3	33.4	46.7	18.3

* 출처: 보건복지부(각 년도). 국민영양조사(비만 유병률 추이: 성별, 만19세이상).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2_N101&conn_path=I2에서 2019년 7월 23일 인출.

* 주: 비만 유병률은 체질량지수 25kg/㎡ 이상인 분율(만19세 이상)

5-1-3. 스트레스

스트레스 인지율은 평소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비율로 집계된다. 관련 통계를 통해 청년층의 스트레스 인지율을 분석한 결과, 20대의 경우 2007년 28.0%에서 2017년 37.8%로 9.9%p 증가하였으며, 30대도 같은 기간 28.0%에서 36.0%로 8.0%p 증가하여 같은 기간 내 전체 평균 증가율 2.0%p 대비 급증한 것으로 볼 때, 전반적으로 청년층이 일상생활 중 느끼는 스트레스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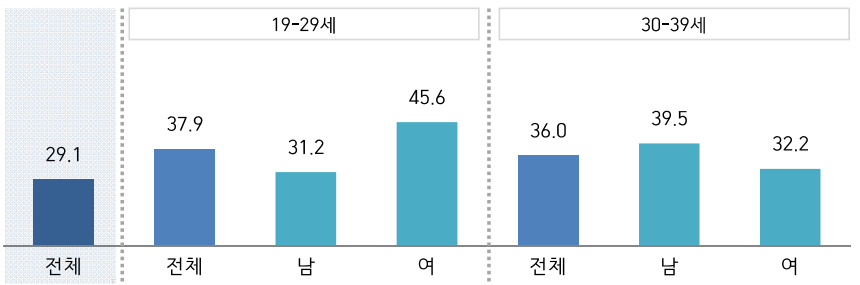


그림 Ⅲ-102. 스트레스 인지율

표 Ⅲ-110 연도별 스트레스 인지율 추이

(단위: %)

연도	전체	19~29세			30~39세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2007	27.1	28.0	21.3	34.9	28.0	27.0	29.0
2008	28.9	32.6	26.2	39.6	33.6	36.5	30.5
2009	31.0	34.6	27.5	42.4	36.4	37.8	34.9
2010	28.2	32.1	25.8	38.8	32.9	32.3	33.4
2011	27.9	34.9	29.7	40.6	33.1	33.2	33.0
2012	27.0	34.0	23.1	45.5	30.1	29.8	30.4
2013	23.8	26.5	23.1	30.5	27.7	29.0	26.5
2014	25.5	28.9	22.2	36.3	34.0	32.5	35.4
2015	29.6	36.9	31.7	42.8	38.7	41.3	36.0
2016	27.9	32.8	28.3	37.9	37.7	38.6	36.7
2017	29.1	37.9	31.2	45.6	36.0	39.5	32.2

* 출처: 보건복지부(각 년도). 국민영양조사(스트레스인지율 추이: 성별, 만19세이상).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2_N061&conn_path=I2에서 2019년 7월 23일 인출.

* 주: 스트레스 인지율은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분율(만19세 이상)

5-1-4. 우울증

다음으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통계에서 우울감 경험률 결과를 통해 청년층에 우울증 경험률을 살펴보았다. 우울감 경험률은 1년 중 연속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슬픔이나 절망감을 느낀 비율로 집계되며 2017년 기준 11.6%로 2016년 13.3% 대비 소폭 하락하였다. 19~29세 청년층 기준으로 여성(16.6%)이 남성(10.8%)에 비해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의 경우 평균 이하인 반면 20대의 우울감 경험률은 13.5%로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검진 등의 지원 비율이 낮은 2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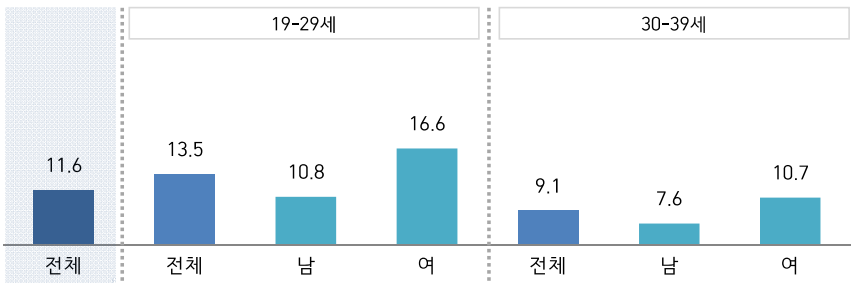


그림 Ⅲ-103. 우울감 경험률

표 Ⅲ-111 연도별 우울감 경험률 추이

(단위: %)

연도	전체	19~29세			30~39세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2007	12.7	9.7	5.0	14.6	9.3	6.5	12.3
2008	14.5	12.4	8.4	16.6	10.8	8.6	13.1
2009	15.0	13.3	7.9	19.1	11.9	9.3	14.6
2010	12.8	11.8	5.8	18.1	9.1	5.6	12.8
2011	13.4	13.6	10.7	16.6	11.6	10.6	12.7
2012	12.9	9.3	5.7	13.1	10.8	8.5	13.2
2013	10.7	10.4	8.5	12.6	7.6	4.2	11.0
2015	13.3	14.9	11.3	19.1	10.3	5.9	14.9
2017	11.6	13.5	10.8	16.6	9.1	7.6	10.7

*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8). 2017 국민건강통계(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 2차년도(2017)). 80-82쪽 추이표 1-17. 우울감경험률 : 성별, 만19세이상, 2007-2017를 재구성. 질병관리본부 웹사이트 https://knhanes.cdc.go.kr/knhanes/sub04/sub04_03.do?classType=7에서 2019년 7월 23일 인출.

* 주 1) 우울감 경험률은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 등을 느낀 분율(만19세 이상)
2) 2014년 이후 우울증상 경험률에서 우울감 경험률로 명칭 변경 및 2년 주기 순환조사 실시

5-1-5. 자살률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자료를 통해 자살률을 확인한 결과, 청년층 연령대에서는 2018년 기준 35~39세의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 당 29.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자살률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7년 자살률과 비교해 보면 다른 연령대에 비해 30대, 그 중에서도 35~39세의 자살률 증가 폭(2017년 25.6명→2018년 29.0명, 3.4명 증가)이 전체 자살률 증가 폭(2017년 24.3명→2018년 26.6명, 2.3명 증가)보다 높아 30대 청년층에 대한 정신건강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단위: 인구 10만명 당,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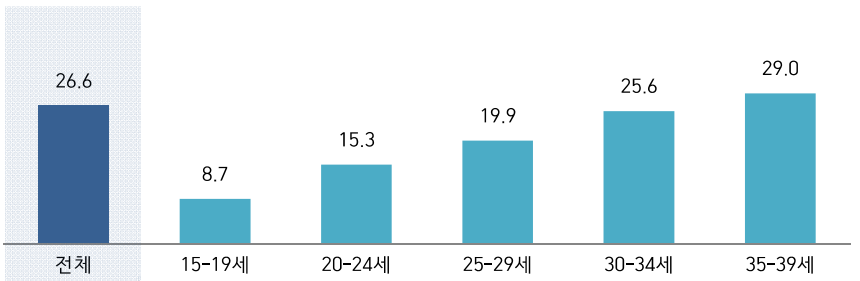


그림 Ⅲ-104. 자살률

표 Ⅲ-112 연도별 자살률 추이

(단위: 인구 10만명 당)

연도	전체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2009	31.0	10.7	20.3	29.3	31.2	31.5
2010	31.2	8.3	18.3	29.3	29.7	29.4
2011	31.7	8.9	17.7	30.1	30.4	30.6
2012	28.1	8.2	14.9	23.9	28.3	26.5
2013	28.5	7.9	14.5	21.7	27.8	28.9
2014	27.3	7.2	13.6	22.4	26.9	29.0
2015	26.5	6.5	13.2	19.9	24.7	25.5
2016	25.6	7.9	13.3	19.8	25.2	24.1
2017	24.3	7.2	13.3	19.6	23.3	25.6
2018	26.6	8.7	15.3	19.9	25.6	29.0

* 출처: 통계청(각 년도). 사망원인통계(사망원인(236항목)/성/연령(5세)별 사망자수, 사망률).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07&conn_path=I2에서 2019년 10월 7일 인출.

5-1-6. 흡연율

흡연율은 평생 담배를 5갑(100개비) 이상 피웠으며 현재도 피고 있는 경우로 산출하는데, 보건복지부 통계를 살펴보면 2017년 기준 평균 흡연율은 21.1%로 2016년 22.6% 대비 1.5%p 감소하였으며, 청년층의 흡연율은 20대가 24.4%, 30대가 25.5%로 평균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30대 남성의 경우 2016년 51.5%에서 2017년 42.7%로 감소폭이 가장 큰 반면, 20대 여성은 2016년 7.2%에서 2017년 9.7%로 청년층 내 성, 연령대 중 유일하게 증가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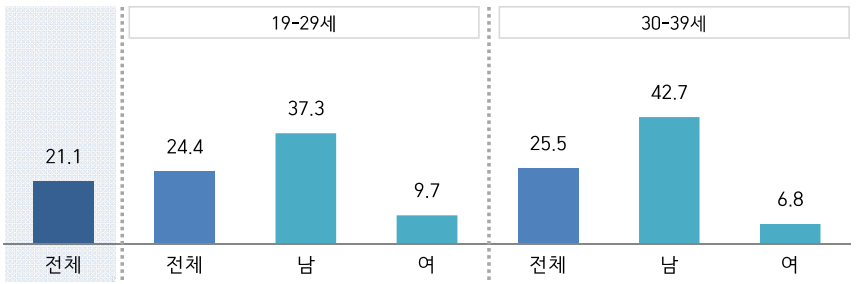


그림 Ⅲ-105. 현재 흡연율

표 Ⅲ-113 연도별 현재 흡연율 추이

(단위: %)

연도	전체	19~29세			30~39세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2007	25.0	27.8	47.5	7.6	32.0	58.3	4.4
2008	27.3	33.9	53.6	12.7	32.4	56.4	7.1
2009	26.6	32.4	51.9	11.1	32.8	56.2	7.9
2010	26.9	27.8	47.3	7.4	35.0	60.9	7.6
2011	26.3	28.3	44.9	10.4	36.6	63.7	8.9
2012	25.0	28.0	41.5	13.6	32.5	54.8	9.0
2013	23.2	24.1	37.0	9.1	30.7	54.5	6.9
2014	23.3	22.5	34.8	8.9	30.0	53.2	7.0
2015	21.6	23.7	38.7	6.9	27.7	48.0	6.7
2016	22.6	25.4	41.7	7.2	30.4	51.5	7.6
2017	21.1	24.4	37.3	9.7	25.5	42.7	6.8

* 출처: 보건복지부(각 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현재흡연율 추이: 성별, 만19세이상).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2_N001&conn_path=I2에서 2019년 7월 23일 인출.

* 주: 현재 흡연율은 평생 담배 5갑(100개비)이상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우는 분율(만19세 이상)

5-1-7. 음주율

음주율은 최근 1년 동안 한 달에 1회 이상 음주한 비율로 2017년 통계에 따르면 월간 음주율은 20대가 70.5%, 30대가 69.0%로 나타나 조사대상 전체 평균인 59.2%보다 약 10%p 가량 높은 음주율을 보이고 있다. 연령대별 차이는 크지 않은 가운데 특히 남자의 음주율이 여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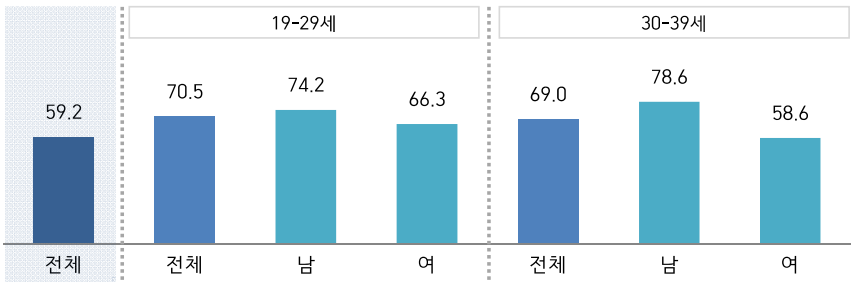


그림 Ⅲ-106. 월간 음주율

표 Ⅲ-114 연도별 월간 음주율 추이

(단위: %)

연도	전체	19~29세			30~39세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2007	56.7	68.9	74.6	63.1	62.1	79.9	43.5
2008	58.7	69.9	75.6	63.8	65.5	79.9	50.3
2009	58.3	69.6	82.7	55.4	64.5	78.1	50.1
2010	59.3	67.3	81.6	52.1	67.5	84.9	49.1
2011	59.2	73.0	84.8	60.2	67.5	81.9	52.6
2012	56.6	66.6	74.9	57.7	63.9	79.0	48.0
2013	58.3	72.4	81.2	62.3	67.4	78.5	56.4
2014	58.1	69.1	77.1	60.3	66.4	79.0	53.9
2015	58.7	67.4	76.9	56.6	65.5	80.0	50.6
2016	59.4	70.8	76.8	64.1	69.6	82.6	55.5
2017	59.2	70.5	74.2	66.3	69.0	78.6	58.6

* 출처: 보건복지부(각 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월간음주율 추이: 성별, 만19세이상).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2_N012&conn_path=I2에서 2019년 7월 24일 인출.

* 주: 월간음주율은 최근 1년 동안 한 달에 1회 이상 음주한 분율(만19세 이상)

5-1-8. 주관적 체형 인식

2019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15~39세 청년들에게 주관적으로 자신의 체형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지 물어본 결과, 보통 체형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61.3%로 가장 높았고, 비만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22.3%('매우 비만' 2.5%+'약간 비만' 19.8%), 마른 편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16.5%('약간 마른 편' 15.6%+'매우 마른 편' 0.9%)로 나타났다. 2016년 이후 인식 경향과 크게 다르지는 않으나 마른 편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전년 대비 감소('18년 22.0%→'19년 16.5%)하였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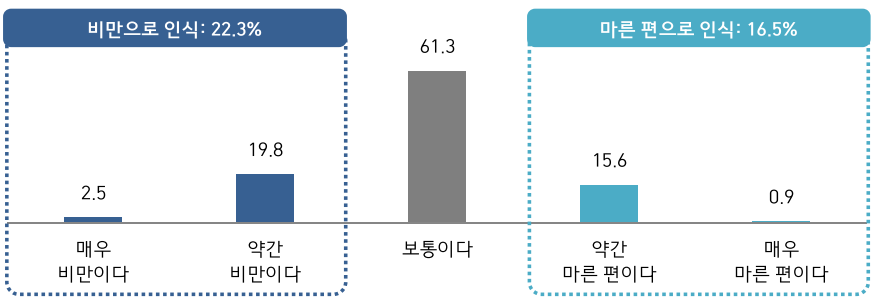


그림 Ⅲ-107. 현재 본인의 체형에 대한 생각

표 Ⅲ-115 연도별 현재 본인의 체형에 대한 생각

(단위: %)

연도	매우 비만이다	약간 비만이다	보통이다	약간 마른 편이다	매우 마른 편이다
2016	2.5	20.4	61.1	14.6	1.4
2017	3.9	20.8	54.4	18.1	2.8
2018	2.2	21.6	54.1	20.7	1.3
2019	2.5	19.8	61.3	15.6	0.9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5-1-9. 주관적인 신체건강 인식

2018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부터 새롭게 추가된 주관적 신체건강 인식 문항 조사 결과, 2019년 조사에서는 청년의 82.5%가 '건강하다'('그렇다' 58.9%+'매우 그렇다' 23.6%)고 인식하고 있어, 본인 스스로 '건강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비율 3.4%('전혀 그렇지 않다' 0.4%+'그렇지 않다' 3.0%)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남자(84.5%)가 여자(80.3%)보다, 연령대가 낮을수록(15~18세 92.0%, 19~29세 82.2%, 30~39세 80.1%) 상대적으로 높았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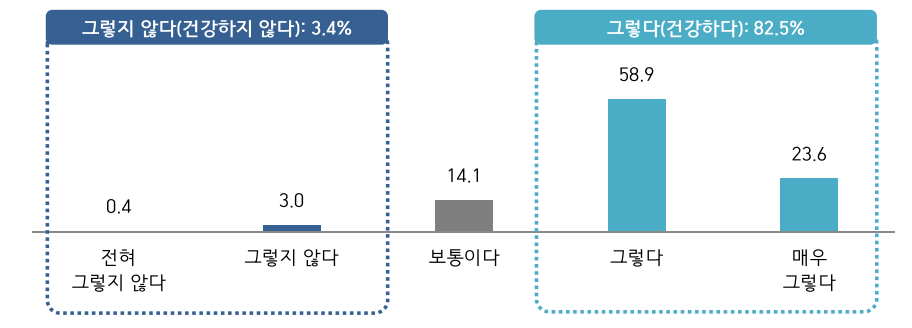


그림 Ⅲ-108. 주관적인 신체건강 인식

표 Ⅲ-116 연도별 주관적인 신체건강 인식

(단위: %)

연도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19~29세	30~39세
2018	전혀 그렇지 않다	0.2	0.2	0.3	0.1	0.5	0.1
	그렇지 않다	1.3	1.1	1.6	1.1	1.6	1.2
	보통이다	7.7	5.8	9.8	5.1	7.0	9.1
	그렇다	62.0	60.2	64.0	55.8	58.5	66.7
	매우 그렇다	28.7	32.6	24.4	37.8	32.4	22.9
2019	전혀 그렇지 않다	0.4	0.6	0.2	0.4	0.3	0.5
	그렇지 않다	3.0	2.5	3.5	1.9	3.0	3.3
	보통이다	14.1	12.5	16.0	5.8	14.6	16.1
	그렇다	58.9	56.1	62.0	53.0	57.6	61.9
	매우 그렇다	23.6	28.4	18.3	39.0	24.6	18.2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2018년 신규문항임.

5-1-10.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

주관적 정신건강 수준을 문항별로 살펴보면, '나는 밝고 즐거운 기분임을 느낀다'는 의견에 '그렇다'는 응답은 51.8%('대부분 그렇다' 44.9%+'항상 그렇다' 6.9%)로 2018년 조사결과 48.4% 대비 3.4%p 상승하였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여자(53.0%)가 남자(50.8%)보다, 연령대가 낮을수록(15~18세 61.8%, 19~29세 51.3%, 30~39세 49.4%) 긍정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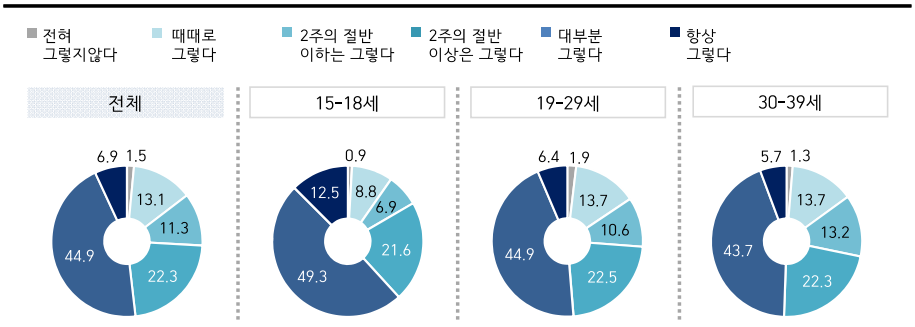


그림 Ⅲ-109.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나는 밝고 즐거운 기분임을 느낀다

표 Ⅲ-117 연도별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나는 밝고 즐거운 기분임을 느낀다

(단위: %)

연도		전체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19~29세	30~39세
2017	전혀 그렇지 않다	1.2	0.9	1.6	0.2	1.5	1.2
	때때로 그렇다	16.4	16.4	16.5	9.0	15.8	19.2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13.2	13.9	12.4	11.2	13.7	13.2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31.3	30.7	32.0	28.3	29.7	33.9
	대부분 그렇다	34.4	34.0	34.9	43.9	36.0	30.0
	항상 그렇다	3.4	4.1	2.7	7.4	3.3	2.5
2018	전혀 그렇지 않다	0.1	0.2	0.1	0.0	0.3	0.1
	때때로 그렇다	8.8	9.1	8.4	5.2	9.0	9.7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13.8	15.5	12.0	11.5	14.5	13.9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28.9	28.0	29.9	31.6	27.9	29.0
	대부분 그렇다	44.7	43.4	46.0	48.1	44.7	43.6
	항상 그렇다	3.7	3.8	3.5	3.7	3.6	3.7
2019	전혀 그렇지 않다	1.5	1.8	1.1	0.9	1.9	1.3
	때때로 그렇다	13.1	12.6	13.7	8.8	13.7	13.7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11.3	10.8	11.8	6.9	10.6	13.2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22.3	24.0	20.4	21.6	22.5	22.3
	대부분 그렇다	44.9	43.5	46.6	49.3	44.9	43.7
	항상 그렇다	6.9	7.3	6.4	12.5	6.4	5.7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두 번째로 '나는 차분하고 편안함을 느낀다'는 의견에 '그렇다'는 응답은 48.9%('대부분 그렇다' 39.7%+'항상 그렇다' 9.2%)로 2018년 조사결과 41.1% 대비 7.8%p 상승하였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여성(49.7%)이 남성(48.1%)보다, 연령대가 낮을수록(15~18세 55.0%, 19~29세 49.8%, 30~39세 46.2%) 긍정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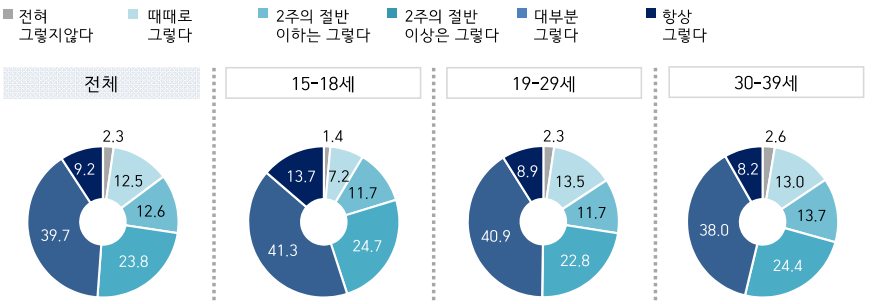


그림 Ⅲ-110.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나는 차분하고 편안함을 느낀다

표 Ⅲ-118 연도별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나는 차분하고 편안함을 느낀다

(단위: %)

연도		전체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19~29세	30~39세
2017	전혀 그렇지 않다	2.2	1.5	2.9	1.0	2.5	2.3
	때때로 그렇다	15.0	15.2	14.8	9.7	14.7	16.9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15.2	16.0	14.3	13.6	14.5	16.4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26.8	25.7	28.1	25.2	26.2	28.0
	대부분 그렇다	36.5	36.6	36.3	44.0	37.1	33.5
	항상 그렇다	4.3	5.0	3.6	6.5	5.0	2.9
2018	전혀 그렇지 않다	0.3	0.4	0.2	0.3	0.2	0.4
	때때로 그렇다	7.5	6.9	8.2	6.9	8.2	7.1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17.7	18.1	17.2	17.2	18.8	16.9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33.4	34.7	31.9	34.3	32.5	33.8
	대부분 그렇다	32.9	32.5	33.2	34.8	32.1	32.9
	항상 그렇다	8.2	7.4	9.2	6.6	8.1	8.8
2019	전혀 그렇지 않다	2.3	2.8	1.8	1.4	2.3	2.6
	때때로 그렇다	12.5	11.6	13.4	7.2	13.5	13.0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12.6	12.3	12.9	11.7	11.7	13.7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23.8	25.3	22.1	24.7	22.8	24.4
	대부분 그렇다	39.7	38.6	40.9	41.3	40.9	38.0
	항상 그렇다	9.2	9.5	8.8	13.7	8.9	8.2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세 번째로 '나는 활동적이고 활기참을 느낀다'는 의견에 '그렇다'는 응답은 47.3%('대부분 그렇다' 38.7%+'항상 그렇다' 8.6%)로 2018년 조사결과 40.3% 대비 7.0%p 상승하였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고, 연령대가 낮을수록(15~18세 57.9%, 19~29세 47.9%, 30~39세 43.5%) 긍정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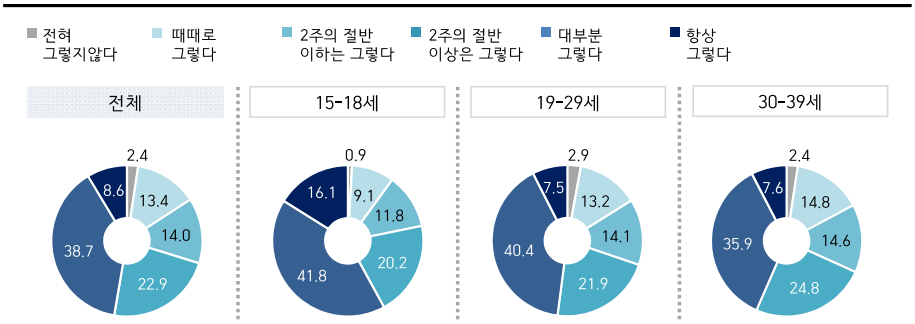


그림 Ⅲ-111.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나는 활동적이고 활기참을 느낀다

표 Ⅲ-119 연도별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나는 활동적이고 활기참을 느낀다

(단위: %)

연도		전체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19~29세	30~39세
2017	전혀 그렇지 않다	2.3	2.2	2.5	0.7	2.3	2.9
	때때로 그렇다	15.8	15.0	16.6	7.2	14.6	19.5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15.5	15.0	16.1	14.7	16.3	15.0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29.5	30.1	28.7	27.3	28.7	30.9
	대부분 그렇다	31.5	31.8	31.1	39.4	32.3	28.3
	항상 그렇다	5.4	5.8	4.9	10.8	5.7	3.4
2018	전혀 그렇지 않다	0.7	0.7	0.7	0.5	0.8	0.7
	때때로 그렇다	9.6	9.6	9.6	7.0	10.1	10.0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15.7	15.5	15.9	11.4	14.7	17.8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33.7	32.8	34.7	33.6	35.1	32.6
	대부분 그렇다	32.4	32.6	32.1	37.7	31.4	31.6
	항상 그렇다	7.9	8.7	6.9	9.8	7.8	7.3
2019	전혀 그렇지 않다	2.4	2.8	2.0	0.9	2.9	2.4
	때때로 그렇다	13.4	12.7	14.1	9.1	13.2	14.8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14.0	12.6	15.6	11.8	14.1	14.6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22.9	24.2	21.5	20.2	21.9	24.8
	대부분 그렇다	38.7	39.2	38.1	41.8	40.4	35.9
	항상 그렇다	8.6	8.5	8.7	16.1	7.5	7.6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네 번째로 '나는 잠에서 깨었을 때, 피로가 다 가시고 상쾌했다'는 의견에 '그렇다'는 응답은 35.3%('대부분 그렇다' 30.2%+'항상 그렇다' 5.1%)로 2018년 조사 결과 38.0% 대비 2.7%p 하락하였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고, 연령대가 낮을수록(15~18세 43.1%, 19~29세 36.4%, 30~39세 31.7%) 긍정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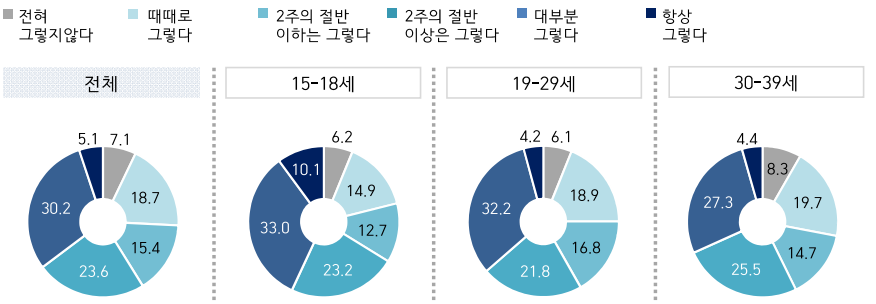


그림 Ⅲ-112.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나는 잠에서 깨었을 때, 피로가 다 가시고 상쾌했다

표 Ⅲ-120 연도별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나는 잠에서 깨었을 때, 피로가 다 가시고 상쾌했다

(단위: %)

연도		전체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19~29세	30~39세
2017	전혀 그렇지 않다	9.8	8.6	11.2	5.9	10.2	10.6
	때때로 그렇다	21.9	22.3	21.5	18.8	20.7	24.2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17.5	18.2	16.7	16.3	17.1	18.1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26.2	26.7	25.6	30.8	25.2	25.8
	대부분 그렇다	21.9	21.7	22.1	23.8	23.4	19.8
	항상 그렇다	2.7	2.5	2.9	4.4	3.4	1.4
2018	전혀 그렇지 않다	1.6	1.0	2.3	1.1	2.5	1.1
	때때로 그렇다	12.3	13.2	11.4	9.2	12.6	13.1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17.8	18.2	17.5	15.8	16.1	19.9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30.2	30.1	30.3	30.4	29.8	30.5
	대부분 그렇다	33.2	33.0	33.5	38.3	34.2	31.0
	항상 그렇다	4.8	4.6	5.0	5.4	4.9	4.5
2019	전혀 그렇지 않다	7.1	6.0	8.3	6.2	6.1	8.3
	때때로 그렇다	18.7	18.0	19.5	14.9	18.9	19.7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15.4	16.1	14.5	12.7	16.8	14.7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23.6	24.3	22.8	23.2	21.8	25.5
	대부분 그렇다	30.2	30.4	29.9	33.0	32.2	27.3
	항상 그렇다	5.1	5.2	5.0	10.1	4.2	4.4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마지막으로 '나의 일상은 흥미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의견에 '그렇다'는 응답은 31.5%('대부분 그렇다' 27.1%+'항상 그렇다' 4.4%)로 2018년 조사결과 34.3% 대비 2.8%p 하락하였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고, 연령대가 낮을수록(15~18세 40.8%, 19~29세 32.5%, 30~39세 27.8%) 긍정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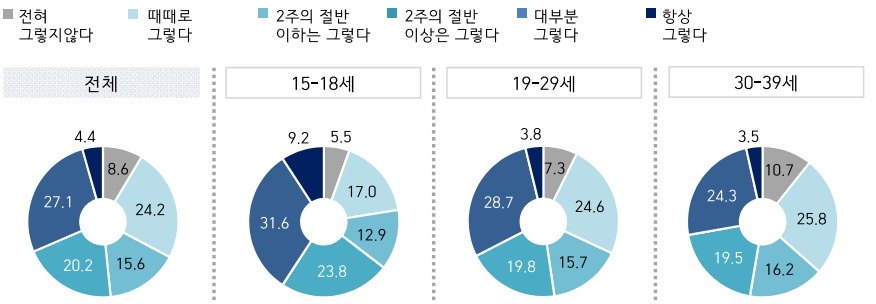


그림 Ⅲ-113.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나의 일상은 흥미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표 Ⅲ-121 연도별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나의 일상은 흥미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단위: %)

연도		전체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19~29세	30~39세
2017	전혀 그렇지 않다	6.1	6.1	6.1	3.0	6.7	6.3
	때때로 그렇다	26.3	25.7	26.8	17.4	24.7	30.5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17.4	16.9	18.1	18.3	16.8	17.8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28.1	29.0	27.0	28.8	29.2	26.7
	대부분 그렇다	19.7	19.5	20.0	27.8	19.6	17.4
	항상 그렇다	2.5	2.9	2.0	4.7	3.0	1.2
2018	전혀 그렇지 않다	2.1	1.8	2.4	0.6	2.8	2.0
	때때로 그렇다	14.8	14.0	15.6	12.2	14.0	16.1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17.4	17.2	17.6	18.4	15.8	18.4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31.4	32.6	30.1	33.7	32.8	29.6
	대부분 그렇다	31.1	31.2	30.9	30.8	30.8	31.4
	항상 그렇다	3.2	3.2	3.3	4.3	3.9	2.4
2019	전혀 그렇지 않다	8.6	8.3	8.9	5.5	7.3	10.7
	때때로 그렇다	24.2	23.2	25.2	17.0	24.6	25.8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15.6	16.2	14.9	12.9	15.7	16.2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20.2	20.9	19.4	23.8	19.8	19.5
	대부분 그렇다	27.1	26.5	27.8	31.6	28.7	24.3
	항상 그렇다	4.4	4.9	3.8	9.2	3.8	3.5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5-2-1. 청년 병원 이용

2주간 외래이용률(최근 2주간 입원을 제외하고, 병의원, 보건소, 한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은 비율)을 통해 청년들의 병원 이용 추이를 확인한 결과 2017년 기준 28.8%로 최근 3년간 소폭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30대 청년의 경우에는 성별에 따른 병원 이용률 차이(남성 22.4%, 여성 24.1%, 차이 1.7%p)가 크지 않았으나 20대 청년의 경우 성별에 따른 병원 이용률 차이(남성 16.1%, 여성 27.6%, 차이 11.5%p)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특히 20대 남성의 병원 이용률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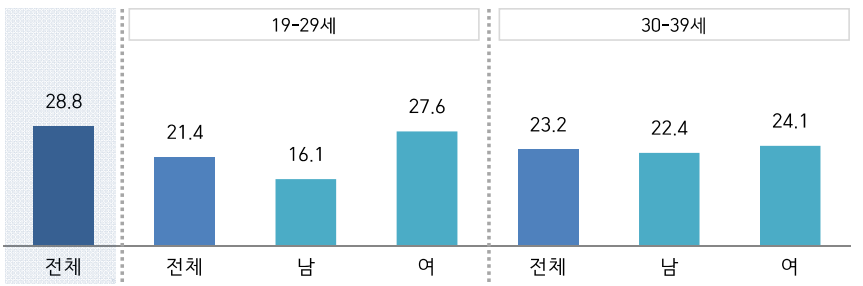


그림 Ⅲ-114. 청년 병원 이용율

표 Ⅲ-122 연도별 청년 병원 이용율 추이

(단위: %)

연도	전체	19~29세			30~39세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2007	27.8	18.6	16.5	20.6	23.0	20.4	25.6
2008	30.0	21.4	16.2	26.9	20.2	16.7	23.8
2009	28.7	22.5	17.5	28.0	20.7	18.0	23.7
2010	31.4	23.2	17.8	29.0	24.9	19.6	30.5
2011	31.0	25.4	24.0	26.8	22.8	21.1	24.6
2012	30.7	25.7	18.8	33.0	24.4	20.5	28.5
2013	31.6	22.6	17.4	28.6	25.3	22.4	28.2
2014	31.6	25.9	23.4	28.7	24.2	21.1	27.1
2015	30.9	25.7	20.7	31.2	26.3	18.9	33.5
2016	29.1	24.0	18.7	29.7	25.3	22.5	28.4
2017	28.8	21.4	16.1	27.6	23.2	22.4	24.1

* 출처: 보건복지부(각 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2주간 외래이용율 추이(2주간 외래이용률 추이: 성별, 만19세이상).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2_N094&conn_path=I2에서 2019년 7월 24일 인출.

* 주: 2주간 외래이용율은 최근 2주 동안 입원을 하지 않고, 병의원(치과 포함)이나 보건소,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분율(만19세 이상)

5-2-2. 민간 의료보험 가입률

청년들의 민간 의료 보험 가입률을 살펴본 결과, 2016년 기준 77.7%로 2015년 75.8%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1.34%로 나타났다. 민간 의료보험 가입률의 연평균 증가율은 10대가 1.72%, 20대가 2.33%로 전체 평균을 상회하였으나 30대의 경우 -0.05%로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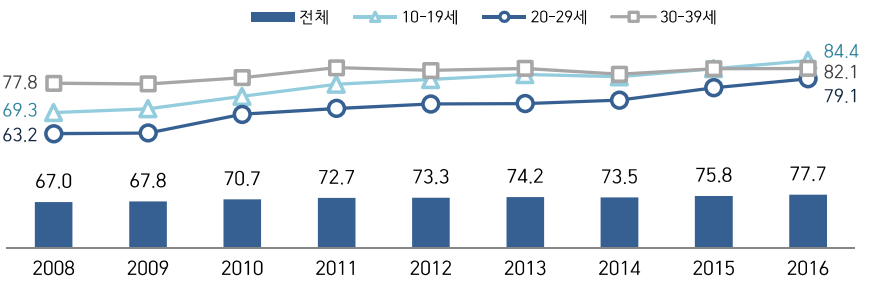


그림 Ⅲ-115. 연령별 민간 의료보험 가입률

표 Ⅲ-123 연도별 민간 의료보험 가입률 추이

(단위: %)

연도	전체	10~19세	20~29세	30~39세
2008	67.0	69.3	63.2	77.8
2009	67.8	70.4	63.4	77.6
2010	70.7	74.0	68.8	79.4
2011	72.7	77.5	70.5	82.3
2012	73.3	78.9	71.8	81.5
2013	74.2	80.3	71.9	82.1
2014	73.5	79.7	72.9	80.4
2015	75.8	82.0	76.5	82.0
2016	77.7	84.4	79.1	82.1
연평균 증가율	1.34	1.72	2.33	-0.05

* 출처: 국민건강보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2016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Ⅰ). 139쪽 표 Ⅶ-7 가구원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 및 가입자의 평균 보험 상품 수와 143쪽 표 Ⅶ-12 가구원 연령별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을 재구성. 한국의료패널 웹사이트 https://www.khp.re.kr:444/web/research/board/list.do?bbsid=13에서 2019년 7월 24일 인출.

* 주: 민간 의료보험 가입률은 개인단위 민간의료보험 가입률. 종신/연금보험이 포함됨.

5-2-3. 건강검진 수검 여부

2019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지난 1년간(2018년 6월-2019년 5월) 건강검진을 받아본 경험 여부를 물어본 결과, 청년들의 건강검진 수검율은 44.3%로 2018년 38.1% 대비 6.2%p 상승하였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의 경우 절반 이상인 57.6%가 건강검진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10대(39.4%)와 20대(32.7%)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30대가 취업 상태인 경우가 많고 직장 내 정기건강검진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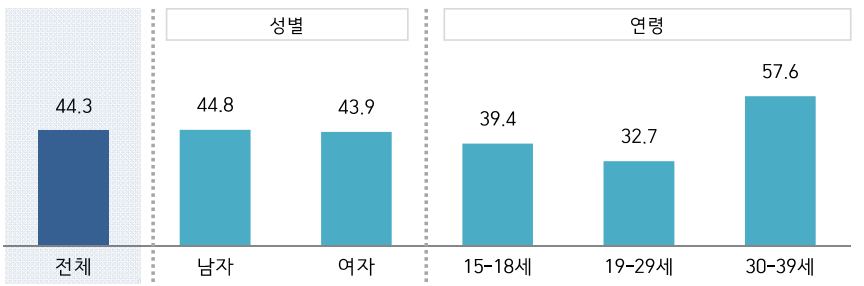


그림 Ⅲ-116. 건강검진 수검 여부

표 Ⅲ-124 건강검진 수검 여부

(단위: %)

연도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19~29세	30~39세
2018	예	38.1	37.7	38.6	17.7	27.3	53.2
	아니오	61.9	62.3	61.4	82.3	72.7	46.8
2019	예	44.3	44.8	43.9	39.4	32.7	57.6
	아니오	55.7	55.2	56.1	60.6	67.3	42.4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8).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1) 2018년 신규 문항임.

5-2-4. 질환 발생 시 대처방안

2019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 방문, 약 복용,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참는 행위 중 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지를 물어본 결과 '병원 진찰 후 치료를 받는다'는 응답 비율이 8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질환 발생 시 병원 진찰을 받는다는 비율은 여자(85.9%)가 남자(80.7%)에 비해 높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15~18세 80.4%, 19~29세 81.4%, 30~39세 85.7%)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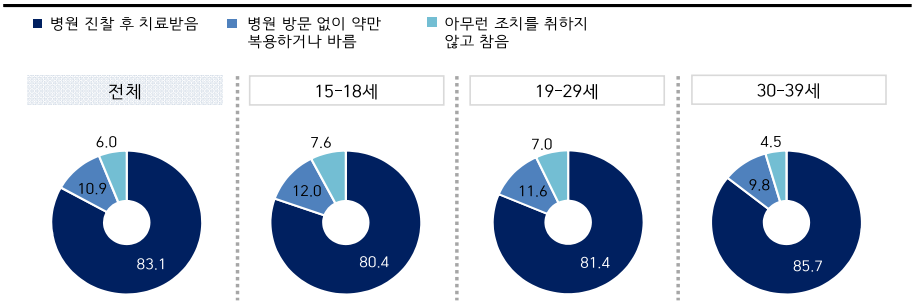


그림 Ⅲ-117. 질환 발생 시 대처방안

표 Ⅲ-125 질환 발생 시, 대처방안

(단위: %)

연도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19~29세	30~39세
2018	병원 진찰 후 치료받음	80.7	77.6	84.1	84.2	78.5	81.5
	병원 방문 없이 약만 복용하거나 바름	13.6	15.7	11.3	10.9	15.3	13.0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참음	5.7	6.8	4.5	4.8	6.3	5.5
2019	병원 진찰 후 치료받음	83.1	80.7	85.9	80.4	81.4	85.7
	병원 방문 없이 약만 복용하거나 바름	10.9	12.3	9.2	12.0	11.6	9.8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참음	6.0	7.0	4.9	7.6	7.0	4.5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8).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2018년 신규문항임.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에 약만 복용하거나 참는다고 응답한 청년들에게 병원을 가지 않는 이유를 물어본 결과, '증상이 가볍다고 생각해서'라는 응답이 79.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15.2%)'로 사유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증상이 가볍다고 생각해서 병원에 가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은 연령대가 낮아질수록(15~18세 89.1%, 19~29세 81.7%, 30~39세 73.6%) 높은 반면,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병원에 가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15~18세 9.3%, 19~29세 13.3%, 30~39세 20.0%) 응답 비율도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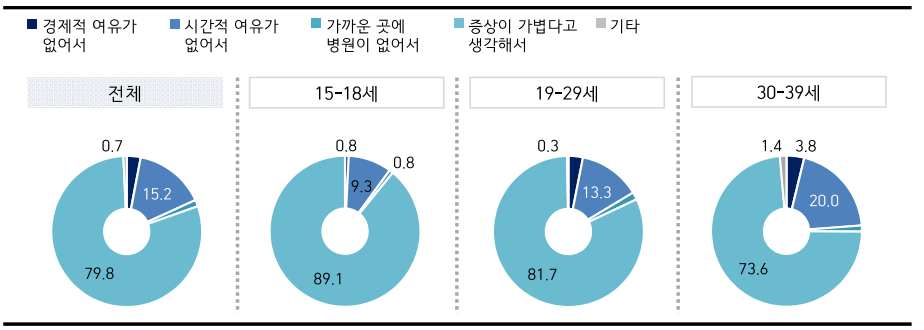


그림 Ⅲ-118. 질환 발생 시,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

표 Ⅲ-126 질환 발생 시,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

(단위: %)

연도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19~29세	30~39세
2018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1.4	1.2	1.5	0.0	1.6	1.4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19.9	15.4	26.9	11.4	16.8	25.0
	가까운 곳에 병원이 없어서	1.5	1.0	2.2	4.2	1.1	1.1
	증상이 가볍다고 생각해서	77.2	82.1	69.4	84.5	80.5	72.2
	기타	0.1	0.2	0.0	0.0	0.0	0.3
2019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3.0	3.8	1.8	0.8	3.1	3.8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15.2	14.5	16.2	9.3	13.3	20.0
	가까운 곳에 병원이 없어서	1.4	1.9	0.6	0.8	1.6	1.3
	증상이 가볍다고 생각해서	79.8	79.3	80.6	89.1	81.7	73.6
	기타	0.7	0.5	0.8	0.0	0.3	1.4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8).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1) 질환 발생 시, 병원 방문 없이 약만 복용하거나 바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참거나 기타에 체크한 경우만 응답
2) 2018년 신규 문항임

5-2-5. 성형수술 여부

2019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청년들의 성형수술 경험을 물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9.3%가 성형수술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 2016년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전년도와 마찬가지로 2019년 결과 역시 여자(17.8%)가 남자(1.7%)에 비해, 20대(10.1%)와 30대(10.1%)가 10대(3.9%)에 비해 성형수술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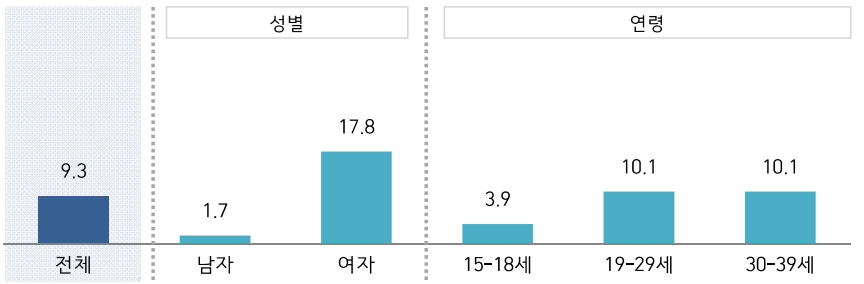


그림 Ⅲ-119. 성형수술 경험

표 Ⅲ-127 연도별 성형수술 경험

(단위: %)

연도	전체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19~29세	30~39세
2016	12.7	2.7	23.5	5.6	16.9	10.9
2017	11.8	2.2	22.3	3.7	13.6	12.4
2018	10.4	2.5	19.1	3.0	11.8	11.5
2019	9.3	1.7	17.8	3.9	10.1	10.1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1) 성형수술 경험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
2)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5-2-6. 성형수술 목적

성형수술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성형수술 목적을 살펴본 결과, 미용 목적이 92.9%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여성의 경우 의료 목적의 성형수술은 4%에 불과한 반면, 남성은 36.0%가 의료 목적의 성형수술을 실시하여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미용 목적의 성형 비율이 15~18세 81.1%, 19~29세 92.3%, 30~39세 94.8%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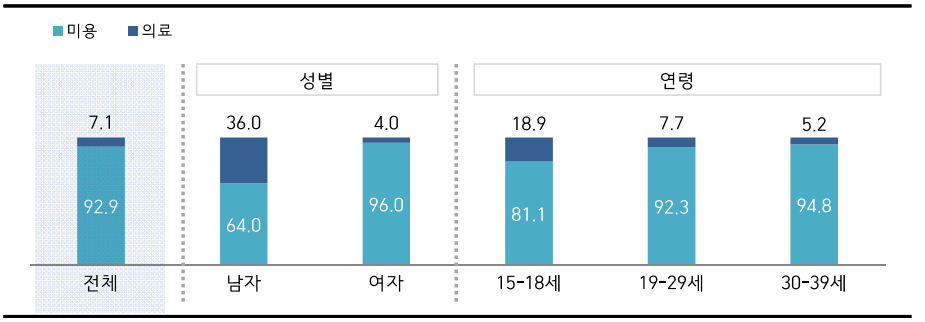


그림 Ⅲ-120. 성형수술 목적

표 Ⅲ-128 연도별 성형수술 목적

(단위: %)

연도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19~29세	30~39세
2016	의료	10.0	26.1	8.0	5.8	10.0	10.7
	미용	90.0	73.9	92.0	94.2	90.0	89.3
2017	의료	11.3	37.9	8.3	5.5	13.6	9.3
	미용	88.7	62.1	91.7	94.5	86.4	90.7
2018	의료	2.3	11.6	1.0	0.0	0.5	4.0
	미용	97.7	88.4	99.0	100.0	99.5	96.0
2019	의료	7.1	36.0	4.0	18.9	7.7	5.2
	미용	92.9	64.0	96.0	81.1	92.3	94.8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1) 성형수술을 한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
2) 의료는 화상치료나 안검하수 등의 의료 목적으로 시술을 한 경우이며, 미용은 쌍커풀, 보톡스, 지방제거술 등을 미용의 목적으로 시술한 경우를 말함.
3)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6) 문화와 가치관

6-1-1. 문화 및 여가생활 유형

청년들은 휴식활동, 취미오락 활동, 사회 및 기타 활동을 통해 문화 및 여가생활을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가지 활동 모두 평일/휴일 및 연령대에 관계없이 모두 90% 이상으로 문화 및 여가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른 유형의 경우 평일-주말 간 참여 비율 차이가 10% 미만이었으나 관광활동의 경우 평일-주말 간 참여 비율 차이가 33%p로 가장 컸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평일 대비 주말 참여 비율이 높아지는 특성(15~19세 25.8%p, 20~29세 27.4%p, 30~39세 33.0%)을 보였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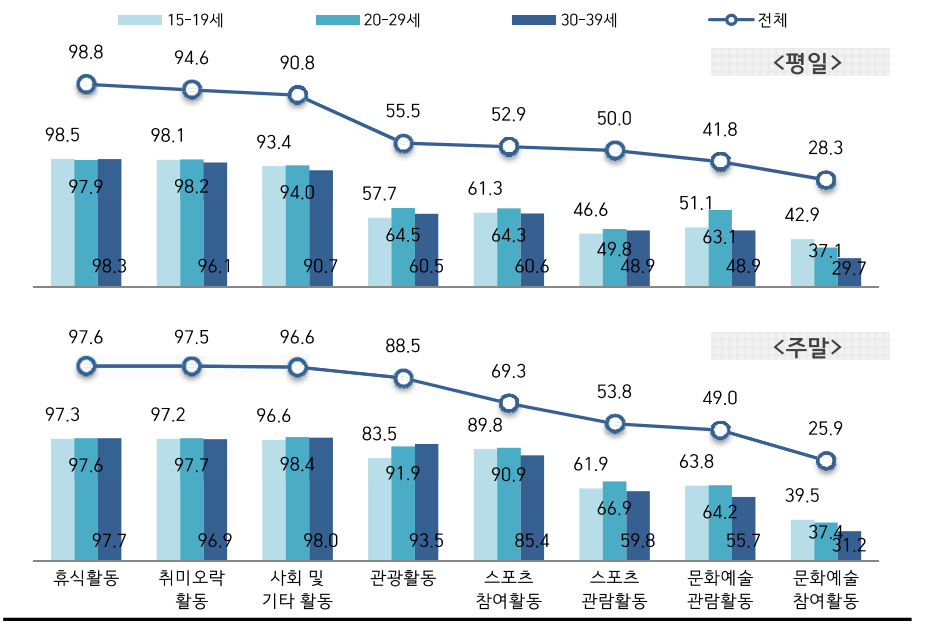


그림 Ⅲ-121. 평일 및 휴일 문화 및 여가활동 유형

표 Ⅲ-129 평일 및 휴일 문화 및 여가활동 유형(복수응답)

(단위: %)

구분		휴식 활동	취미 오락 활동	사회 및 기타 활동	관광 활동	스포츠 참여 활동	스포츠 관람 활동	문화 예술 관람 활동	문화 예술 참여 활동
평일	전체	98.8	94.6	90.8	55.5	52.9	50.0	41.8	28.3
	15~19세	98.5	98.1	93.4	57.7	61.3	46.6	51.1	42.9
	20~29세	97.9	98.2	94.0	64.5	64.3	49.8	63.1	37.1
	30~39세	98.3	96.1	90.7	60.5	60.6	48.9	48.9	29.7
휴일	전체	97.6	97.5	96.6	88.5	69.3	53.8	49.0	25.9
	15~19세	97.3	97.2	96.6	83.5	89.8	61.9	63.8	39.5
	20~29세	97.6	97.7	98.4	91.9	90.9	66.9	64.2	37.4
	30~39세	97.7	96.9	98.0	93.5	85.4	59.8	55.7	31.2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 국민여가활동조사. 78쪽 표 3-10 평일 여가활동 유형(복수응답)과 80쪽 표 3-12 휴일 여가활동 유형(복수응답)을 재구성.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 웹사이트 https://policydb.kcti.re.kr/#/surveyLeisure3?bbstypecd=3003013&poststatcd=1300에서 2019년 7월 24일 인출.

* 주: 2018년 조사결과임.

6-1-2. 문화 및 여가생활 시간

청년들의 문화 및 여가 생활시간은 2018년 기준 평일(3.3시간), 휴일(5.3시간) 모두 2016년 대비 증가하였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18년 20대의 문화 및 여가활동 시간은 2016년 대비 평일(+0.3시간), 휴일(+0.4시간) 증가한 반면, 30대는 평일 여가활동 시간은 차이가 없으나 휴일 여가활동 시간은 증가(+0.2시간)하였다.

(단위: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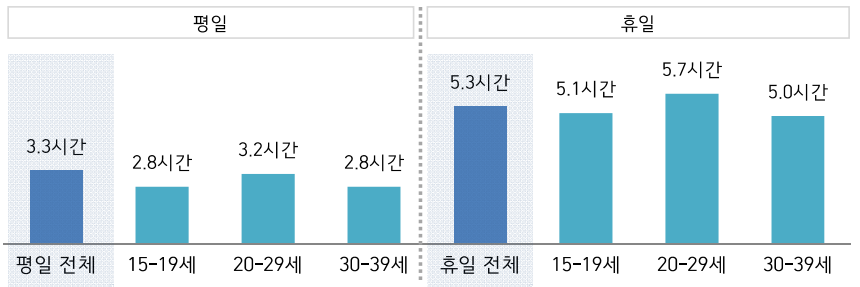


그림 Ⅲ-122. 평일 및 휴일 문화 및 여가활동 시간

표 Ⅲ-130 연도별 평일 및 휴일 문화 및 여가활동 시간

(단위: 시간)

연도	전체 (평일)	연령			전체 (휴일)	연령		
		15~19세	20~29세	30~39세		15~19세	20~29세	30~39세
2014	3.6	3.1	3.3	3.1	5.8	5.6	6.1	5.5
2016	3.1	2.7	2.9	2.8	5.0	5.1	5.3	4.8
2018	3.3	2.8	3.2	2.8	5.3	5.1	5.7	5.0

* 출처 1) 문화체육관광부(각 년도a). 국민여가활동조사(지난 1년 동안 평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3&tblId=DT_113_STBL_1026934&conn_path=I2에서 2019년 7월 30일 인출.
2) 문화체육관광부(각 년도a). 국민여가활동조사(지난 1년 동안 휴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3&tblId=DT_113_STBL_1026935&conn_path=I2에서 2019년 7월 30일 인출.

6-1-3. 문화 및 여가생활 비용

청년들의 문화 및 여가생활 비용은 2018년 기준 15만1천원으로 2016년 13만6천원 대비 2만5천원 증가하였고 2012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대, 20대, 30대 모두 비용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20대의 문화 및 여가생활 비용이 2016년 14만3천원에서 2018년 16만7천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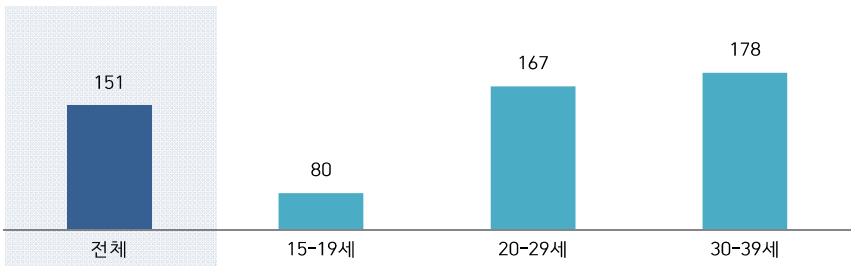


그림 Ⅲ-123. 월 평균 문화 및 여가활동 비용

표 Ⅲ-131 연도별 월 평균 문화 및 여가활동 비용

(단위: 천원)

연도	전체	15~19세	20~29세	30~39세
2006	142	89	166	168
2008	139	32	175	160
2010	168	62	205	196
2012	125	60	156	150
2014	130	61	147	156
2016	136	74	143	159
2018	151	80	167	178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각 년도a). 국민여가활동조사.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 웹사이트 https://policydb.kcti.re.kr/#/s urveyLeisure3?bbstypecd=3003013&poststatcd=1300에서 2019년 7월 24일 인출.

6-1-4. 문화 및 여가생활 만족도

청년들의 문화 및 여가생활 만족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18년 기준 20대가 4.40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30대(4.24점). 10대(4.07점)의 순이었다. 직전 조사년도인 2016년 대비 전 청년층에서 만족도 점수가 다소 줄어들었으나 20대>30대>10대 순으로 만족도가 높은 형태는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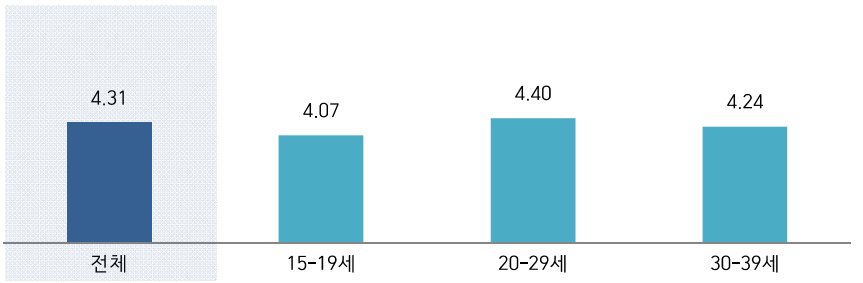


그림 Ⅲ-124. 문화 및 여가생활 만족도

표 Ⅲ-132 연도별 문화 및 여가생활 만족도 추이

(단위: 점)

연도	전체	15~19세	20~29세	30~39세
2012	2.56	2.45	2.61	2.52
2014	4.54	4.41	4.69	4.56
2016	4.59	4.35	4.68	4.50
2018	4.31	4.07	4.40	4.24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각 년도a). 국민여가활동조사.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 웹사이트 https://policydb.kcti.re.kr/#/s urveyLeisure3?bbstypecd=3003013&poststatcd=1300에서 2019년 7월 24일 인출.

* 주: 2012년에는 4점 척도로, 2014년부터는 7점 척도로 자신의 전반적인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함(점수가 높을수록 여가생활에 만족함).

6-1-5. 독서율

2017년 청년들의 독서율은 평균 62.3%로 2011년 73.7%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대(78.7%), 30대(73.1%)의 독서율 모두 평균 독서율을 상회하고 있지만, 조사 직전년도인 2015년 대비 20대 독서율은 12.4%p 감소, 30대 독서율은 7.4%p 감소하여 청년층의 독서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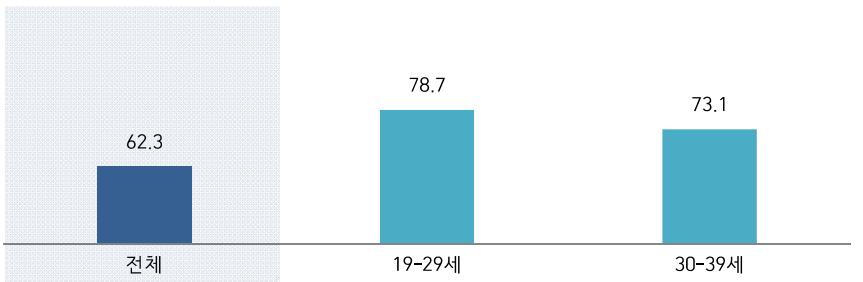


그림 Ⅲ-125. 연간 독서율

표 Ⅲ-133 연도별 연간 독서율 추이

(단위: %)

연도	전체	19~29세	30~39세
2011	73.7	89.5	85.3
2013	72.7	89.0	83.4
2015	67.4	91.1	80.5
2017	62.3	78.7	73.1

* 출처 1)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년 국민독서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웹사이트 http://www.mcst.go.kr/web/s_policy/dept/deptList.jsp?pType=02&pSearchType=01&pSearchWord=%EA%B5%AD%EB%AF%BC%EB%8F%85%EC%84%9C에서 2019년 7월 24일 인출.
2) 문화체육관광부(각 년도b). 국민독서실태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3&tblId=DT_113_STBL_1025546&conn_path=I2에서 2019년 7월 24일 인출.

* 주 1) 종이책과 전자책을 1권 이상 읽은 성인의 독서율임.
2) 2011년, 2013년도는 18-29세임.

6-2-1. 주관적 행복감

청년들의 주관적인 행복감을 살펴본 결과, 2018년 평균 6.6점으로 2014년 이후부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는 있으나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다. 연령별 결과 또한 2014년을 기점으로 소폭 상승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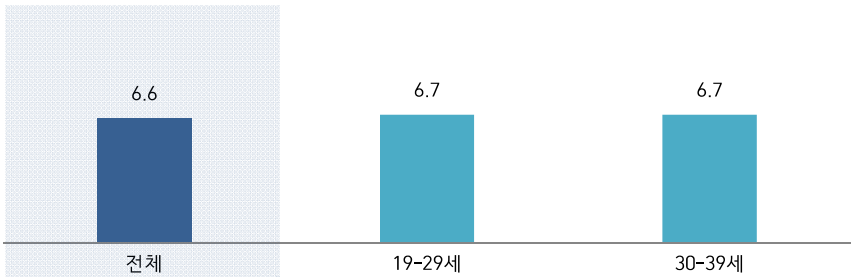


그림 Ⅲ-126. 주관적 행복감

표 Ⅲ-134 연도별 주관적 행복감 추이

(단위: 점)

연도	전체	19~29세	30~39세
2013	6.3	6.5	6.4
2014	6.2	6.3	6.4
2015	6.3	6.4	6.4
2016	6.4	6.5	6.5
2017	6.5	6.6	6.7
2018	6.6	6.7	6.7

* 출처: 한국행정연구원(각 년도). 사회통합실태조사(어제의 주관적 정서 경험).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01&conn_path=I2에서 2019년 7월 24일 인출.

* 주: 어제 주관적으로 경험한 정서 중 행복감을 묻는 문항으로, 0점(전혀 행복하지 않았다)~10점(매우 행복했다)으로 측정된 결과 값의 평균 점수임.

6-2-2. 삶의 만족도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2018년 기준 6.1점으로 2013년 이후부터 소폭이지만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9~29세 연령대는 2016년 상승(2015년 5.8점→2016년 6.1점) 이후 6점대를 유지, 30~39세 연령대 또한 2017년 상승(2016년 5.9점→2017년 6.2점) 이후 지속적으로 6점대를 유지하고 있다.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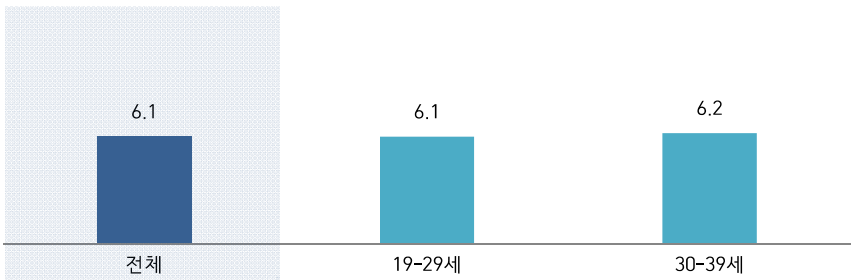


그림 Ⅲ-127. 삶의 만족도

표 Ⅲ-135 연도별 삶의 만족도 추이

(단위: 점)

연도	전체	19~29세	30~39세
2013	5.7	5.7	5.8
2014	5.7	5.9	5.8
2015	5.8	5.8	5.8
2016	5.9	6.1	5.9
2017	6.0	6.1	6.2
2018	6.1	6.1	6.2

* 출처: 한국행정연구원(각 년도). 사회통합실태조사(삶에 대한 만족도).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02&conn_path=I2에서 2019년 7월 24일 인출.

* 주: 삶에 대한 만족감을 묻는 문항으로, 0점(전혀 만족하지 않는다)~10점(매우 만족한다)으로 측정된 결과값의 평균 점수임.

6-2-3. 주관적 계층의식

청년들의 주관적 계층의식은 2018년 기준 5.4점으로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19~29세, 30~39세 모두 각각 5.4점, 5.5점으로 전년도에 이어 5점대를 유지하고 있어 청년층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중간 계층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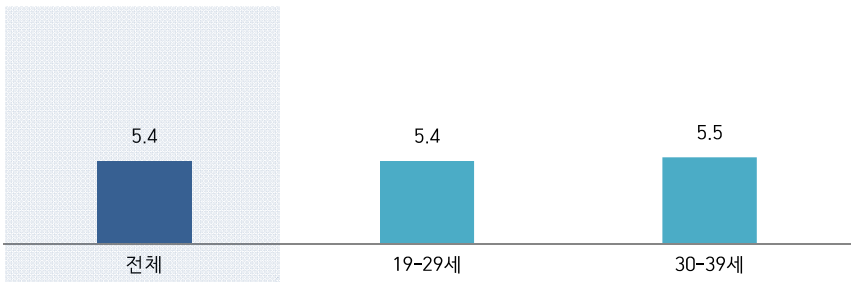


그림 Ⅲ-128. 주관적 계층의식

표 Ⅲ-136 연도별 주관적 계층의식 추이

(단위: 점)

연도	전체	19~29세	30~39세
2013	4.7	4.7	4.8
2014	4.8	4.8	5.0
2015	5.0	4.8	5.1
2016	5.1	5.1	5.3
2017	5.4	5.4	5.5
2018	5.4	5.4	5.5

* 출처: 한국행정연구원(각 년도). 사회통합실태조사(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06&conn_path=I2에서 2019년 7월 24일 인출.

* 주: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으로, 0점(매우 낮다)~10점(매우 높다)으로 측정된 결과값의 평균 점수임.

6-2-4. 공정성에 대한 인식

청년들이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해 공정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지를 살펴본 결과, 4점 만점 척도에서 전 영역이 2점내에 분포되어 있었다. 이중 교육기회가 2.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병역의무 이행 2.5점, 복지혜택, 성별에 따른 대우가 각 2.4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대기업, 중소기업 관계는 2.1점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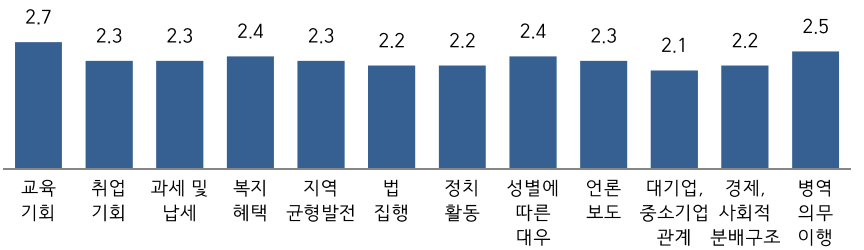


그림 Ⅲ-129. 우리사회의 전반적 공정성에 대한 인식

표 Ⅲ-137 연도별 우리사회의 전반적 공정성에 대한 인식

(단위: 점)

구분	연도	전체	19-29세	30-39세	구분	연도	전체	19-29세	30-39세
교육 기회	2013	2.6	2.6	2.6	정치 활동	2013	2.1	2.1	2.1
	2014	2.7	2.6	2.6		2014	2.1	2.1	2.1
	2015	2.6	2.6	2.5		2015	2.2	2.2	2.1
	2016	2.6	2.5	2.5		2016	2.1	2.0	2.0
	2017	2.6	2.6	2.6		2017	2.1	2.1	2.1
	2018	2.7	2.6	2.7		2018	2.2	2.2	2.2
취업 기회	2013	2.3	2.2	2.2	성별에 따른 대우	2013	2.5	2.4	2.4
	2014	2.3	2.3	2.3		2014	2.4	2.4	2.4
	2015	2.3	2.2	2.2		2015	2.4	2.4	2.3

구분	연도	전체	19~29세	30~39세	구분	연도	전체	19~29세	30~39세
	2016	2.2	2.2	2.1		2016	2.4	2.3	2.3
	2017	2.2	2.1	2.2		2017	2.4	2.3	2.4
	2018	2.3	2.2	2.3		2018	2.4	2.4	2.3
과세 및 납세	2013	2.3	2.2	2.2	언론 보도	2013	2.3	2.2	2.2
	2014	2.2	2.2	2.2		2014	2.3	2.3	2.2
	2015	2.3	2.3	2.2		2015	2.3	2.3	2.2
	2016	2.3	2.2	2.2		2016	2.3	2.2	2.2
	2017	2.3	2.2	2.2		2017	2.3	2.2	2.2
	2018	2.3	2.4	2.3		2018	2.3	2.4	2.3
복지 혜택	2013	2.4	2.4	2.3	대기업·중소기업 관계	2013	2.1	2.0	2.0
	2014	2.3	2.3	2.3		2014	2.1	2.1	2.0
	2015	2.4	2.4	2.3		2015	2.1	2.1	2.0
	2016	2.4	2.3	2.3		2016	2.1	2.1	2.0
	2017	2.4	2.4	2.3		2017	2.1	2.0	2.1
	2018	2.4	2.5	2.4		2018	2.1	2.1	2.1
지역 균형발전	2013	2.3	2.2	2.2	경제·사회적인 분배구조	2013			
	2014	2.3	2.3	2.2		2014	2.1	2.1	2.1
	2015	2.3	2.3	2.2		2015	2.1	2.1	2.1
	2016	2.3	2.3	2.2		2016	2.1	2.1	2.0
	2017	2.3	2.3	2.3		2017	2.1	2.1	2.1
	2018	2.3	2.3	2.3		2018	2.2	2.2	2.1
법 집행	2013	2.3	2.2	2.2	병역 의무 이행	2013			
	2014	2.3	2.2	2.3		2014			
	2015	2.3	2.3	2.2		2015	2.4	2.4	2.3
	2016	2.3	2.2	2.2		2016	2.4	2.4	2.3
	2017	2.3	2.2	2.2		2017	2.5	2.4	2.5
	2018	2.2	2.3	2.2		2018	2.5	2.5	2.5

* 출처: 한국행정연구원(각 년도). 사회통합실태조사(우리 사회의 전반적 공정성에 대한 인식).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43&conn_path=I2에서 2019년 7월 24일 인출.

* 주: 현재 우리 사회의 영역별 공정성을 묻는 문항으로, 1점(전혀 공정하지 않다)~4점(매우 공정하다)으로 측정된 결과 값의 평균 점수임.

6-2-5. 가치 항목별 선호도

2019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는 청년들의 선호하는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 일과 여가, 현실과 이상, 결과와 과정, 개인과 집단 등 4개 항목에 대해 서로 상반되는 가치를 제시하고 각 청년들이 보다 중시하는 가치를 선택하는 구조로 측정하였다. 4개 항목 모두 7점 척도로 4점을 중간 지점으로 하며, 1점에서 3점까지는 왼쪽 가치(일, 현실, 결과, 개인)를, 5점에서 7점까지는 오른쪽 가치(여가, 이상, 과정, 집단)를 더 선호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일과 여가 중에서는 여가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44.6%로 일이 중요하다는 응답(28.2%)보다 높게 나타났고, 현실과 이상 중에서는 현실 중시가 70.2%로 이상 중시(11.6%) 대비 매우 높게 나타났다. 결과와 과정 중에서는 결과를 중요시한다는 응답이 53.9%로 과정 중시(20.7%)대비 높았고, 마지막으로 집단과 개인 중에서는 개인을 중시한다는 응답이 40.8%로 집단 중시(22.7%) 대비 높게 나타났다. 이전년도와 비교했을 때도 큰 비율 변동 없이 여가/현실/결과/개인을 중시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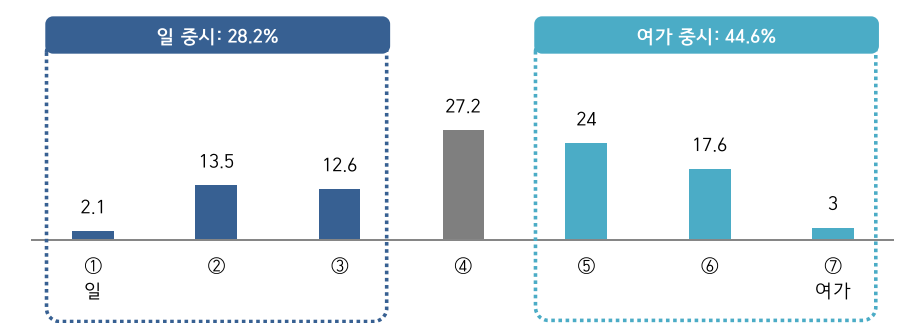


그림 Ⅲ-130. 일과 여가 중 선호하는 가치

표 Ⅲ-138 연도별 선호하는 가치(일 중시 vs 여가 중시)

(단위: %)

연도	← 일						여가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016	3.1	13.0	18.4	24.8	22.3	16.2	2.1
2017	3.4	13.4	15.2	24.6	19.5	19.5	4.5
2018	1.1	12.2	17.7	23.4	25.8	18.3	1.5
2019	2.1	13.5	12.6	27.2	24.0	17.6	3.0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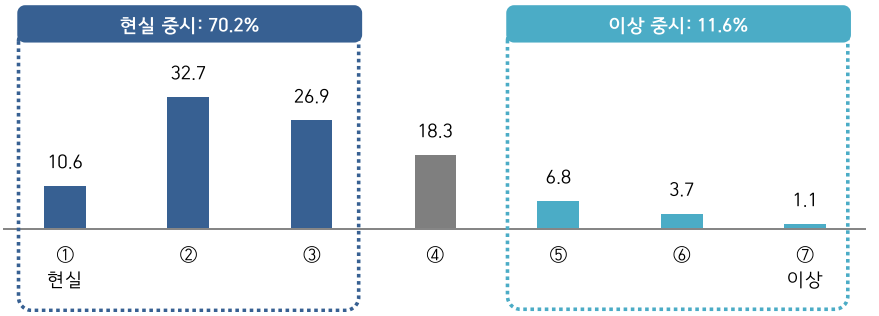


그림 Ⅲ-131. 현실과 이상 중 선호하는 가치

표 Ⅲ-139 연도별 선호하는 가치(현실 중시 vs 이상 중시)

(단위: %)

연도	← 현실						이상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016	12.4	28.8	26.8	18.0	9.6	4.0	0.4
2017	11.6	30.8	23.9	18.6	7.8	5.9	1.4
2018	6.5	20.7	34.2	22.2	11.8	4.4	0.2
2019	10.6	32.7	26.9	18.3	6.8	3.7	1.1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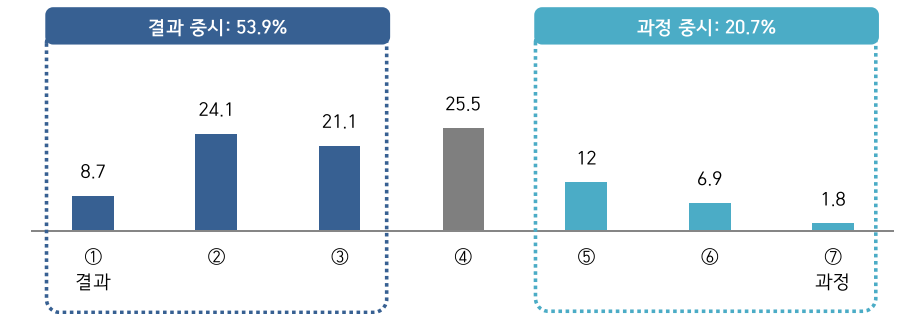


그림 Ⅲ-132. 결과와 과정 중 선호하는 가치

표 Ⅲ-140 연도별 선호하는 가치(결과 중시 vs 과정 중시)

(단위: %)

연도	← 결과						과정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016	9.7	21.1	22.8	25.3	14.5	5.4	1.2
2017	8.7	22.9	20.1	24.7	12.0	9.0	2.6
2018	4.0	17.4	29.8	26.7	17.6	4.3	0.2
2019	8.7	24.1	21.1	25.5	12.0	6.9	1.8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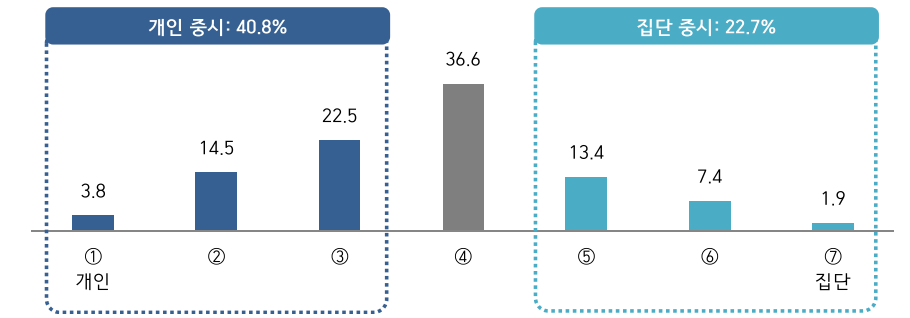


그림 Ⅲ-133. 개인과 집단 중 선호하는 가치

표 Ⅲ-141 선호하는 가치(개인 중시 vs 집단 중시)

(단위: %)

연도	← 개인						집단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016	6.3	13.0	22.1	37.4	14.6	5.6	1.0
2017	4.0	14.0	20.3	36.5	13.3	9.5	2.4
2018	1.8	12.2	24.5	36.5	17.7	6.1	1.2
2019	3.8	14.5	22.5	36.6	13.4	7.4	1.9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6-2-6.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

2019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청년들에게 행복한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을 물어본 결과, 재산·경제력이라는 응답 비율이 31.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화목한 가정(24.6%)', '건강(16.3%)' 등의 순이었다. 2018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재산·경제력, 직업·직장 등의 경제적인 요건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고 가정, 건강, 감사 및 긍정적 태도 등의 요건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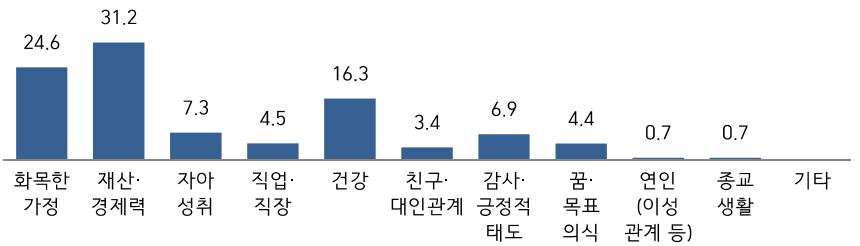


그림 Ⅲ-134.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

표 Ⅲ-142 연도별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

(단위: %)

연도	화목한 가정	재산·경제력	자아 성취	직업·직장	건강	친구·대인 관계	감사·긍정적 태도	꿈·목표 의식	연인 (이성 관계등)	종교 생활	기타
2013	27.9	23.2	15.0	7.1	6.9	4.6	8.9	3.3	2.4	0.7	-
2015	27.6	23.3	17.5	7.3	6.2	3.1	8.0	4.4	1.5	1.0	0.1
2016	27.1	24.3	12.3	11.4	8.0	5.0	4.9	4.9	1.4	0.6	-
2017	26.4	27.8	10.1	4.5	14.2	4.3	6.4	4.7	0.7	0.7	-
2018	17.6	36.5	10.4	9.0	11.0	5.3	4.9	3.3	1.5	0.6	-
2019	24.6	31.2	7.3	4.5	16.3	3.4	6.9	4.4	0.7	0.7	-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1) 2013년과 2015년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용역사업으로 수행되었으며, 조사대상은 19세-39세임.
2)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7) 관계와 참여

7-1-1. 사회적 관계망

통계청 사회조사 내 긴급 상황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비율 결과를 통해 청년들의 사회적 관계망을 확인해 보았다. 2017년 기준으로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일이 생길 경우',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항목 모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전체 대비 청년층 연령대 전체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2011년 대비 응답 비율도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3~18세의 경우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응답이 2011년 84.6% 대비 2017년 88.8%로 19~29세는 '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일이 생길 경우' 응답이 2011년 59.2%에서 65.2%로, 30~39세는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응답이 2011년 77.7%에서 2017년 82.0%로 타 연령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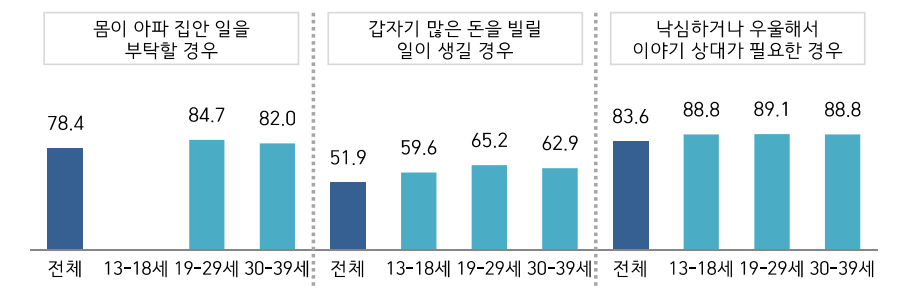


그림 Ⅲ-135. 긴급 상황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비율

표 Ⅲ-143 연도별 긴급 상황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비율

(단위: %)

연도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일이 생길 경우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전체	13~18세	19~29세	30~39세	전체	13~18세	19~29세	30~39세	전체	13~18세	19~29세	30~39세
2011	75.9	-	82.3	77.7	48.6	58.6	59.2	57.6	81.0	84.6	88.4	86.7
2013	74.7	-	80.1	78.0	47.0	57.8	59.1	55.2	81.1	88.0	88.0	86.2
2015	76.8	-	82.6	78.5	50.1	63.8	61.5	59.1	82.4	89.0	88.8	86.5
2017	78.4	-	84.7	82.0	51.9	59.6	65.2	62.9	83.6	88.8	89.1	88.8

* 출처: 통계청(각 년도d). 사회조사(사회적 관계망 (13세 이상 인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P041R&conn_path=I2에서 2019년 7월 22일 인출.

* 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임.

7-1-2.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부모 부양에 대한 청년층의 견해는 통계청에서 수행한 사회조사 결과를 통해 분석해보았다. 2018년 기준으로 부모 부양에 대해 '가족과 정부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48.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26.7%)', '개인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19.4%)' 등의 순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가족과 정부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과 '개인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10대, 20대, 30대 청년층 전체에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2년 대비 2018년 응답 비율이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이다. '정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은 5% 미만으로 다른 의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나 매년 그 수치가 소폭 증가하고 있어 부모 부양 인식이 국가복지 차원으로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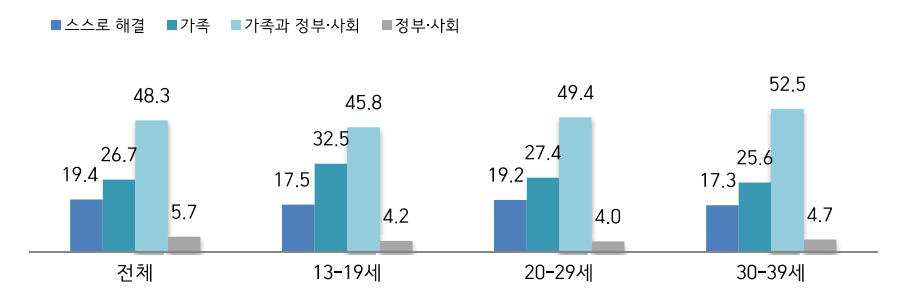


그림 Ⅲ-136.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표 Ⅲ-144 연도별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단위: %)

연도	전체				13~19세				20~29세				30~39세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002	9.6	70.7	18.2	1.3	11.2	67.5	19.3	1.8	9.0	66.5	23.0	1.3	7.9	68.3	22.5	1.1
2006	7.8	63.4	26.4	2.3	8.4	58.0	31.3	2.2	6.7	61.4	29.9	1.9	6.0	60.9	31.3	1.8
2008	11.9	40.7	43.6	3.8	12.1	41.7	42.9	3.3	10.8	39.1	47.1	3.0	9.8	37.4	49.1	3.7
2010	12.7	36.0	47.4	3.9	11.8	42.0	43.2	2.9	10.8	37.3	49.5	2.4	11.2	32.4	52.8	3.7
2012	13.9	33.2	48.7	4.2	10.9	37.2	48.5	3.3	11.2	34.0	51.2	3.6	11.1	30.3	54.8	3.7
2014	16.6	31.7	47.3	4.4	13.7	38.9	43.7	3.6	13.8	33.6	49.6	3.1	14.2	28.7	52.7	4.2
2016	18.6	30.8	45.5	5.1	15.8	36.7	43.8	3.8	14.4	31.6	49.9	4.4	15.7	29.8	50.5	4.1
2018	19.4	26.7	48.3	5.7	17.5	32.5	45.8	4.2	19.2	27.4	49.4	4.0	17.3	25.6	52.5	4.7

* 출처: 통계청(각 년도d). 사회조사(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13세 이상 인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FA040R&conn_path=I2에서 2019년 7월 24일 인출.

* 주 1) ① 스스로 해결, ② 가족, ③ 가족과 정부·사회, ④ 정부·사회
2) 기타 항목을 제외한 결과임.
3) 2002년, 2006년, 2008년, 2010년은 15-19세임.

7-1-3. 가족관계 만족도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가족관계 만족도를 물어본 결과, 2018년 평균 만족도는 56.7%로 2016년 평균 56.5%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가족관계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평균 60%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20대, 30대 청년층과는 10대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2014년 70%대를 넘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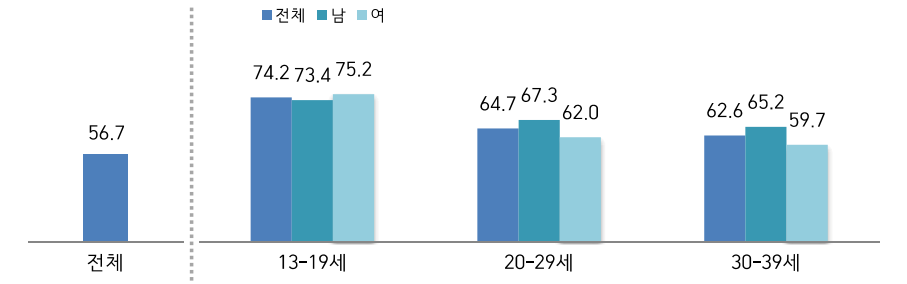


그림 Ⅲ-137. 가족관계 만족도

표 Ⅲ-145 연도별 가족관계 만족도 추이

(단위: %)

연도	전체	13~19세			20~29세			30~39세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2006	50.3	54.6	-	-	53.5	-	-	56.3	-	-
2008	56.1	62.2	62.1	62.2	65.4	64.5	66.2	62.0	63.7	60.2
2010	54.8	62.7	61.3	64.3	64.8	64.6	65.1	59.7	61.7	57.6
2012	56.1	68.0	68.3	67.7	65.0	65.5	64.4	62.3	64.4	60.0
2014	55.2	70.8	70.4	71.1	63.6	63.6	63.6	61.5	63.4	59.5
2016	56.5	72.8	72.4	73.3	65.2	66.4	63.9	62.8	64.9	60.7
2018	56.7	74.2	73.4	75.2	64.7	67.3	62.0	62.6	65.2	59.7

* 출처: 통계청(각 년도d). 사회조사(가족관계 만족도(전반적인 가족관계, 13세 이상 인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FA139R&conn_path=I2에서 2019년 7월 24일 인출.

* 주 1)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만족감을 묻는 문항에 대해 '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에 응답한 값을 합산한 결과임.
2) 2006년, 2008년, 2010년은 15~19세임.

7-1-4. 친한 친구 수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는 2016년부터 어려운 상황일 때 서로 기댈 수 있고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을 친한 친구가 있는지, 있다면 그 수가 얼마나 되는 지를 질문하고 있다. 2019년 조사 결과 친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5.0%로 2018년 92.1% 대비 2.9%p 증가하였다. 연령대별로는 10대의 친구 있음 비율이 97.6%로 타 연령대에 비해 다소 높았다.

친한 친구 수의 경우, 2019년 조사 결과 4.7명으로 2018년 평균 4.7명과 동일한 수준이었다. 친한 친구 수는 남자(4.9명)가 여자보다(4.4명), 연령대가 낮을수록(15~18세 6.0명, 19~29세 4.7명, 30~39세 4.2명) 상대적으로 많았다.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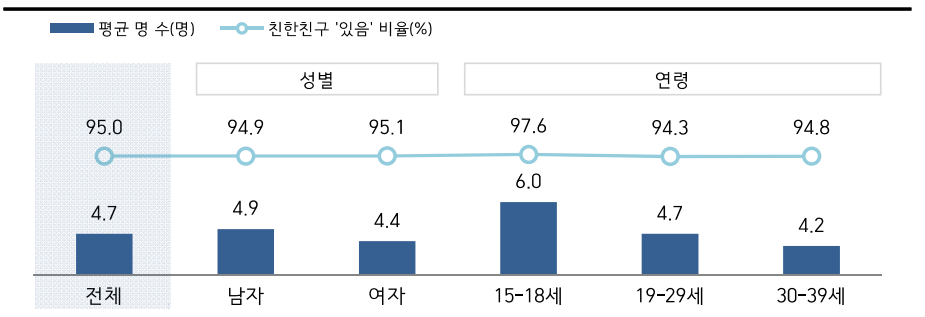


그림 Ⅲ-138. 친한 친구 존재 여부 및 친한 친구 수

표 Ⅲ-146 연도별 친한 친구 존재 여부 및 친한 친구 수

(단위: %, 명)

연도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19~29세	30~39세
2016	%	91.3	90.6	92.1	94.6	93.4	88.1
	평균	3.2	3.5	2.9	3.7	3.2	2.9
2017	%	96.1	95.3	97.0	95.1	97.3	95.2
	평균	5.0	5.2	4.7	6.4	5.1	4.3
2018	%	92.1	91.3	93.0	91.5	92.9	91.6
	평균	4.7	4.8	4.6	4.8	5.0	4.4
2019	%	95.0	94.9	95.1	97.6	94.3	94.8
	평균	4.7	4.9	4.4	6.0	4.7	4.2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1) 친한 친구가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
2)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7-1-5. 세대갈등

2019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는 청년 관점에서 기성세대(40, 50대)와 노인세대(70세 이상)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질문하여, 청년층-타 연령층 간 세대갈등을 파악하고 있다. 기성세대에 대해서는 '사회 견인 핵심세대', '더 큰 혜택을 누리는 세대', '다른 세대에 대한 배려가 없는 세대' 총 3문항, 노인세대에 대해서는 '경험이 많고 지혜로운 세대', '존경받지 못하는 세대', '정부 지원을 더 많이 받는 세대', '정치적 영향력이 너무 큰 세대' 총 4문항으로 문항을 구성, 평가하였다.

먼저 기성세대(40, 50대)에 대한 인식 응답 결과,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세대이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청년들의 64.9%가 동의('그렇다' 57.7%+'매우 그렇다' 6.7%)하였다. 또한, '노력에 비해 더 큰 혜택을 누린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26.4%('그렇다' 23.6%+'매우 그렇다' 2.8%)만이 동의하였고, '다른 세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질문에 대해 25.5%가 동의('그렇다' 22.5%+'매우 그렇다' 3.0%)하였다. 2018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3개 문항 전부 동의하는 응답 비율이 감소(핵심세대 -2.9%p, 더 큰 혜택을 누림 -8.1%p, 배려 없음 -6.1%p)하여 핵심세대라는 인식과 기성세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동시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노인세대에 대한 인식 응답 결과를 보면, 먼저 '다른 세대보다 경험도 많고 지혜롭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45.3%가 동의('그렇다' 41.4%+'매우 그렇다' 3.9%)하고 있었다. '현재 존경받지 못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36.7%가 동의('그렇다' 33.5%+'매우 그렇다' 3.2%). '다른 세대보다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 42.9%가 동의('그렇다' 38.4%+'매우 그렇다' 4.5%), 마지막으로 '정치적 영향력이 너무 크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35.1%가 동의('그렇다' 30.3%+'매우 그렇다' 4.8%)하였다. 2018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현재 존경받지 못한다'는 응답은 전년대비 2.6%p 증가한 반면, 나머지 3개 문항

은 동의응답 비율이 감소(지혜롭다 -3.3%p, 지원을 많이 받음 -4.8%p, 정치적 영향력 큼 -0.1%p)하여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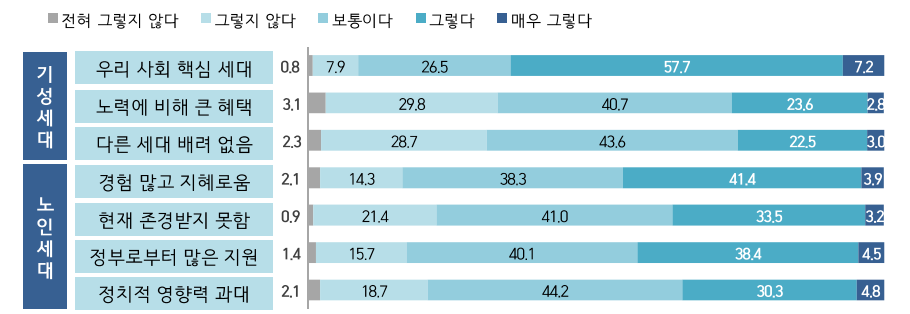


그림 Ⅲ-139. 세대 갈등

표 Ⅲ-147 연도별 세대 갈등 추이

(단위: %)

연도	구분	기성세대에 대한 생각			노인에 대한 생각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 핵심 세대이다	노력에 비해 더 큰 혜택을 누린다	다른 세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	다른 세대보다 경험도 많고 지혜롭다	현재 존경받지 못한다	다른 세대보다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	정치적 영향력이 너무 크다
2016	전혀 그렇지 않다	0.6	2.4	1.8	2.2	1.1	1.3	4.0
	그렇지않다	9.7	26.5	29.8	18.5	20.0	21.5	23.3
	보통이다	31.9	42.7	39.0	41.0	38.5	42.5	43.5
	그렇다	50.3	25.6	26.1	33.4	36.7	31.1	24.6
	매우 그렇다	7.5	2.8	3.3	5.0	3.7	3.6	4.5
2017	전혀 그렇지 않다	1.1	3.8	3.1	2.7	1.4	2.4	2.8
	그렇지않다	12.1	32.3	32.2	15.7	19.9	19.0	17.3
	보통이다	29.1	41.5	43.3	36.9	41.3	44.2	47.1
	그렇다	49.9	20.8	18.7	40.3	33.7	30.8	27.2
	매우 그렇다	7.7	1.7	2.8	4.4	3.6	3.6	5.6
2018	전혀 그렇지 않다	0.2	1.5	1.9	0.8	0.7	1.3	0.9
	그렇지않다	7.3	23.2	23.9	15.3	20.6	14.6	14.6
	보통이다	24.7	40.9	42.6	35.4	44.6	36.4	49.2
	그렇다	61.1	29.4	27.9	43.6	31.8	41.0	31.9
	매우 그렇다	6.7	5.1	3.7	5.0	2.3	6.7	3.3
2019	전혀 그렇지 않다	0.8	3.1	2.3	2.1	0.9	1.4	2.1
	그렇지않다	7.9	29.8	28.7	14.3	21.4	15.7	18.7
	보통이다	26.5	40.7	43.6	38.3	41.0	40.1	44.2
	그렇다	57.7	23.6	22.5	41.4	33.5	38.4	30.3
	매우 그렇다	7.2	2.8	3.0	3.9	3.2	4.5	4.8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7-2-1. 자원봉사 참여

청년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비율을 살펴본 결과, 2017년 기준으로 10대(13~19세) 78.4%, 20대 11.5%, 30대 10.7%가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험이 있었다. 연령별로 횟수 및 시간을 살펴보면 봉사활동이 학교 내신 성적과 연결되어 있는 10대의 경우 참여율은 가장 높지만 참여 횟수(5.7회) 및 시간(16.6시간)은 20대(참여 횟수 7.7회, 참여 시간 30.0시간) 및 30대(참여 횟수 6.5회, 참여 시간 20.5시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30대의 경우 2013년 이후부터 경험 비율, 횟수 및 시간이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단위: %, 회,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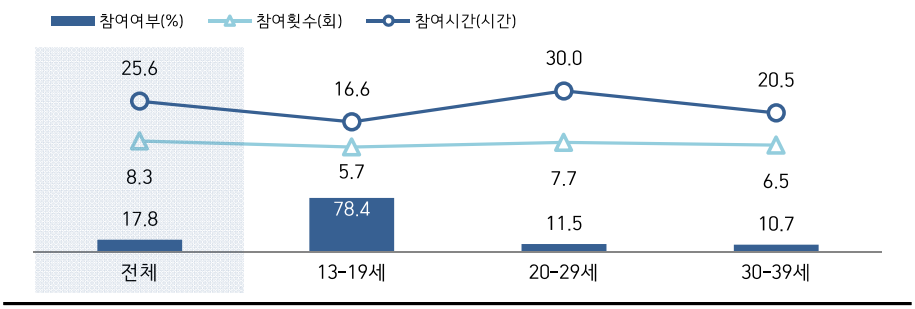


그림 Ⅲ-140. 자원봉사활동 참여여부, 참여횟수, 참여시간

표 Ⅲ-148 연도별 자원봉사활동 참여여부, 참여횟수, 참여시간 추이

(단위: %, 회, 시간)

연도	전체			13~19세			20~29세			30~39세		
	여부	횟수	시간	여부	횟수	시간	여부	횟수	시간	여부	횟수	시간
2006	14.3	-	-	59.5	-	-	8.3	-	-	10.2	-	-
2009	19.3	-	-	79.8	-	-	13.9	-	-	13.6	-	-
2011	19.8	7.1	-	77.7	4.3	-	13.2	8.1	-	11.2	8.7	-
2013	19.9	7.6	25.1	80.1	5.4	16.4	13.7	7.4	28.7	11.2	7.6	27.3
2015	18.2	7.8	24.4	76.6	5.4	16.0	11.6	8.3	30.6	10.6	6.9	20.8
2017	17.8	8.3	25.6	78.4	5.7	16.6	11.5	7.7	30.0	10.7	6.5	20.5

* 출처 1) 자원봉사활동 참여여부: 통계청(각 년도d). 사회조사(자원봉사활동(지난 1년간, 복수응답, 13세 이상 인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P181R&conn_path=I2에서 2019년 7월 22일 인출.
2) 자원봉사활동 참여횟수: 통계청(각 년도d). 사회조사(자원봉사활동 참여횟수(지난 1년간, 복수응답, 13세 이상 인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P18 2R&conn_path=I2에서 2019년 7월 22일 인출.
3) 자원봉사활동 참여시간: 통계청(각 년도d). 사회조사(자원봉사활동 참여시간(지난 1년간, 복수응답, 13세 이상 인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P183R&conn_path=I2에서 2019년 7월 22일 인출.

* 주 1) 자원봉사활동 참여여부: 지난 1년 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임.
2) 자원봉사활동 참여횟수: 지난 1년 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인구 1인당 연간 평균 참여횟수임.
3) 자원봉사활동 참여시간: 지난 1년 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인구 1인당 연간 평균 참여시간임.
4) 2006년, 2009년은 15-19세임.

7-2-2. 기부활동

청년들의 기부활동을 살펴본 결과, 2017년 기준 기부율은 26.7%로 기부 방법 중에서는 현금 기부율(24.3%)이 물품 기부율(6.2%)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30대의 기부율(31.2%)이 10대(20.9%) 및 20대(20.7%)에 비해 높았다. 기부율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상승 해 오다가 2011년 이후부터는 청년층 전연령대에서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10대의 현금 기부율이 2011년 39.6%에서 2017년 18.8%로 크게 감소하였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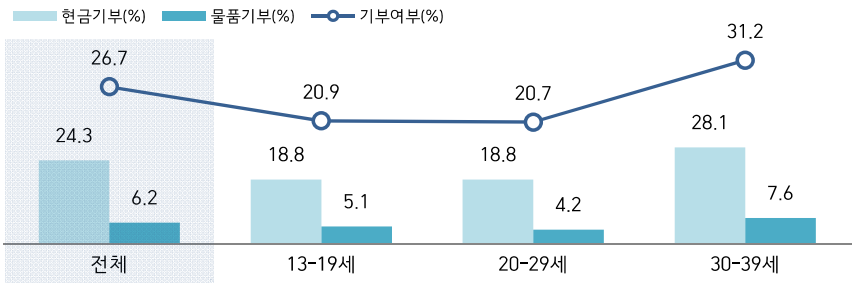


그림 Ⅲ-141. 기부(현금기부, 물품기부) 여부

표 Ⅲ-149 연도별 기부(현금기부, 물품기부) 여부

(단위: %)

연도	전체			13~19세			20~29세			30~39세		
	기부	현금	물품	기부	현금	물품	기부	현금	물품	기부	현금	물품
2006	31.6	-	-	15.3	-	-	19.2	-	-	36.3	-	-
2009	32.3	-	-	19.4	-	-	23.2	-	-	38.4	-	-
2011	36.4	34.8	8.5	41.1	39.6	4.0	25.5	23.7	5.2	40.2	38.3	10.2
2013	34.6	32.5	5.9	30.1	28.2	4.7	24.8	23.1	3.3	38.0	35.6	6.7
2015	29.9	27.4	6.2	31.0	28.4	5.7	20.8	18.8	3.9	32.2	28.7	7.6
2017	26.7	24.3	6.2	20.9	18.8	5.1	20.7	18.8	4.2	31.2	28.1	7.6

* 출처 1) 기부 여부: 통계청(각 년도d). 사회조사(기부 여부 및 기부하지 않은 이유(지난 1년간, 13세 이상 인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P062R&conn_path=I2에서 2019년 7월 22일 인출.
2) 현금기부 여부: 통계청(각 년도d). 사회조사(현금기부 인구(지난 1년간, 복수응답, 13세 이상 인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P081R&conn_path=I2에서 2019년 7월 22일 인출.
3) 물품기부 여부: 통계청(각 년도d). 사회조사(물품기부 인구(지난 1년간, 복수응답, 13세 이상 인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P101R&conn_path=I2에서 2019년 7월 22일 인출.

* 주 1) 기부 여부: 지난 1년 간 기부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임.
2) 현금기부 여부: 지난 1년 간 현금을 기부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임.
3) 물품기부 여부: 지난 1년 간 물품을 기부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임.
4) 2006년, 2009년은 15-19세임.

7-2-3. 단체참여

청년들의 단체활동 참여 비율을 확인한 결과, 2017년 기준 10대(13-19세) 33.5%, 20대 41.9%, 30대 48.1%의 단체 참여율을 보여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단체참여율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단체참여율을 연령별로 보면 전 연령대에서 참여율이 증가하였고, 특히 10대의 단체참여율 증가폭(2006년 19.3%→2017년 33.5%, 14.2%p 상승)이 20대(2006년 32.7%→2017년 41.9%, 9.2%p 상승) 및 30대(2006년 39.4%→2017년 48.1%, 8.7%p 상승) 대비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10대, 20대의 경우는 참여율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30대의 경우에는 성별 간 격차는 줄어들고 있으며, 남성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체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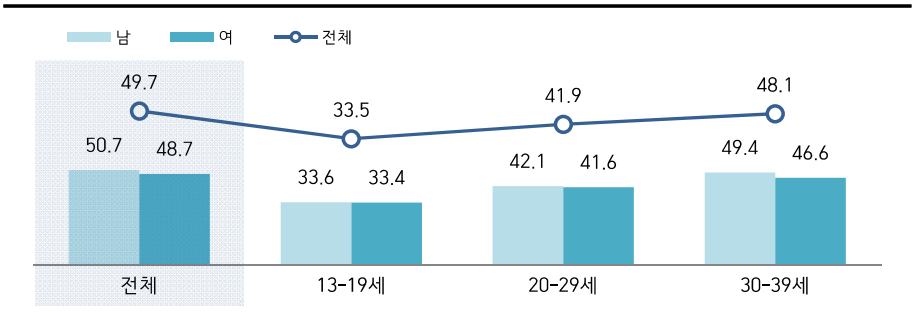


그림 Ⅲ-142. 단체참여

표 Ⅲ-150 연도별 단체참여 추이

(단위: %)

연도	전체			13~19세			20~29세			30~39세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2006	38.8	-	-	19.3	-	-	32.7	-	-	39.4	-	-
2009	39.8	42.0	37.6	22.0	21.4	22.5	35.6	34.1	37.0	40.3	43.9	36.5
2011	46.6	47.8	45.4	32.4	34.8	29.7	44.1	43.5	44.7	46.2	49.1	43.2
2013	50.1	52.4	47.9	35.1	35.0	35.2	48.0	48.8	47.2	49.2	52.6	45.7
2015	48.9	50.5	47.3	31.9	32.4	31.3	44.9	46.4	43.3	48.1	50.6	45.5
2017	49.7	50.7	48.7	33.5	33.6	33.4	41.9	42.1	41.6	48.1	49.4	46.6

* 출처: 통계청(각 년도d). 사회조사(단체 참여(지난 1년간, 복수응답, 13세 이상 인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P052R&conn_path=I2에서 2019년 7월 22일 인출.

* 주 1) 지난 1년 간 친목 및 사교단체, 종교단체, 취미·스포츠 및 여가활용 단체 시민사회단체, 학술단체, 이익단체, 정치단체, 지역사회모임, 기타 등의 단체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임.
2) 2006년, 2009년은 15-19세임.

7-2-4. 투표율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지방 선거 등 우리나라의 주요한 선거 투표율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들의 참정권 의식을 살펴보았다. 투표율을 분석한 결과, 선거 종류와 무관하게 모든 청년 연령대에서 투표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연령대에서의 투표율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먼저, 대통령선거 투표율의 경우, 20대 전반 연령의 투표율이 2002년 57.9%에서 2017년 77.1%로 크게 증가하였고, 20대 후반도 같은 기간 55.2%에서 74.9%로 큰 증가폭을 보였다. 30대의 대선 투표율도 증가하였으나 20대의 증가폭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다음으로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에 있어서도 대통령선거 결과와 마찬가지로 20대 청년층 투표율이 비교적 크게 상승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0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20대 전반의 투표율은 39.9%에 불과하였으나 가장 최근의 국회의원 선거인 2016년에는 55.3%로 증가하였고 20대 후반 역시 같은 기간 34.2%에서 49.8%로 증가하였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30대 전반은 45.1%에서 48.9%로, 30대 후반은 56.5%에서 52.0%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30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은 20대와 달리 소폭의 등락을 반복하며 현상을 유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마지막으로 지방 선거의 경우 2014년도 이전까지는 20대 연령 대비 30대의 투표율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으나 가장 최근의 2018년 지방 선거의 경우에는 2014년 지방 선거에 비해 30대 전반의 투표율이 약 8.1%p, 30대 후반의 투표율도 약 5.5%p 상승하여 다른 선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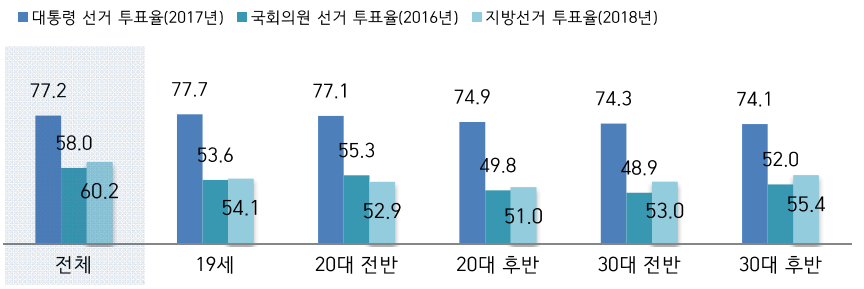


그림 Ⅲ-143. 선거 투표율

표 Ⅲ-151 연도별 선거 투표율 추이

(단위: %)

선거	연도	전체	19세	20대 전반	20대 후반	30대 전반	30대 후반
대통령 선거	2002	70.8	-	57.9	55.2	64.3	70.8
	2007	63.0	54.2	51.1	42.9	51.3	58.5
	2012	75.8	74.0	71.1	65.7	67.7	72.3
	2017	77.2	77.7	77.1	74.9	74.3	74.1
국회의원 선거	2000	57.2	-	39.9	34.2	45.1	56.5
	2004	60.6	-	46.0	43.3	53.2	59.8
	2008	46.1	33.2	32.9	24.2	31.0	39.4
	2012	54.2	47.2	45.4	37.9	41.8	49.1
	2016	58.0	53.6	55.3	49.8	48.9	52.0
지방선거	1998	52.7	-	37.8	30.5	40.3	51.8
	2002	48.9	-	36.3	27.0	34.5	44.8
	2006	51.6	37.9	38.3	29.6	37.0	45.6
	2010	54.5	47.4	45.8	37.1	41.9	50.0
	2014	56.8	52.2	51.4	45.1	45.1	49.9
	2018	60.2	54.1	52.9	51.0	53.0	55.4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각 년도). 대통령선거 투표율 분석,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분석. 국가지표체계 웹사이트 http://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063에서 2019년 7월 24일 인출.

* 주 1) 투표율=(투표자수/선거인수) × 100
2) 각 선거의 전체 투표율은 실제 투표율이고, 성 및 연령별 투표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후 실시하는 투표율 표본조사의 결과임.

7-2-5. 정부 및 공공기관 신뢰도

한국종합사회조사 결과를 통해 청년들이 인식하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국회에 대한 신뢰도를 파악해보았다. 한국종합사회조사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문항은 3점 만점을 기준으로 1점(매우 신뢰)에서 3점(거의 신뢰하지 않음)으로 측정하였는데, 이는 점수가 높을수록 신뢰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점수가 높을수록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기 위해 본 분석에서는 역코딩을 실시하였다.

2018년 결과를 살펴보면, 중앙정부(1.71점), 지방정부(1.72점) 평균이 높은 편이며 국회에 대한 신뢰도 평균은 1.34점으로 다른 기관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신뢰 수준을 보였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특히 30대가 타 연령대 대비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회에 대한 신뢰도 평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정부에 대한 평균 신뢰도 점수는 2003년 1.47점에서 2018년 1.71점까지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회의 경우에는 2003년 1.22점에서 2018년 1.34점으로 등락을 거듭하며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국회의 신뢰도 점수는 3점 만점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청년층은 중앙 및 지방정부와 비교했을 때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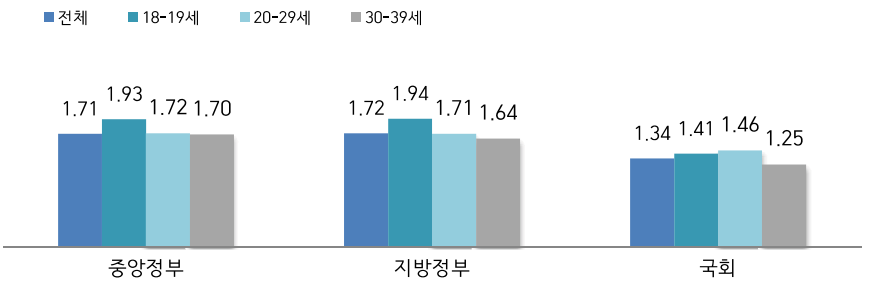


그림 Ⅲ-144. 정부 및 국회 신뢰도

표 Ⅲ-152 연도별 정부 및 국회 신뢰도 추이

(단위: 점)

연도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회			
	전체	18-19세	20-29세	30-39세	전체	18-19세	20-29세	30-39세	전체	18-19세	20-29세	30-39세
2003	1.47	1.33	1.41	1.41	1.51	1.41	1.44	1.41	1.22	1.08	1.17	1.20
2004	1.44	1.57	1.37	1.40	1.54	1.62	1.44	1.44	1.18	1.05	1.14	1.16
2005	1.51	1.73	1.54	1.48	1.61	1.73	1.56	1.55	1.22	1.36	1.16	1.17
2006	1.58	1.71	1.65	1.55	1.63	1.63	1.60	1.53	1.27	1.25	1.25	1.20
2007	1.59	1.55	1.70	1.55	1.65	1.69	1.70	1.56	1.28	1.25	1.28	1.21
2008	1.57	1.53	1.51	1.45	1.61	1.57	1.55	1.51	1.31	1.35	1.26	1.22
2009	1.59	1.70	1.55	1.49	1.64	1.85	1.63	1.51	1.25	1.28	1.22	1.18
2010	1.67	1.70	1.58	1.53	1.71	1.94	1.63	1.59	1.33	1.27	1.31	1.25
2011	1.62	1.74	1.60	1.54	1.62	1.70	1.61	1.52	1.33	1.44	1.28	1.27
2012	1.60	1.65	1.62	1.51	1.63	1.61	1.61	1.46	1.29	1.34	1.33	1.23
2013	1.67	1.75	1.60	1.61	1.68	1.93	1.64	1.61	1.34	1.40	1.31	1.30
2014	1.51	1.46	1.47	1.36	1.55	1.49	1.54	1.39	1.29	1.24	1.29	1.20
2016	1.60	1.44	1.59	1.53	1.65	1.44	1.64	1.61	1.31	1.31	1.30	1.30
2018	1.71	1.93	1.72	1.70	1.72	1.94	1.71	1.64	1.34	1.41	1.46	1.25

* 출처: 김지범, 강정한, 김석호, 김창환, 박원호, 이윤석 외(2019).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2018.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웹사이트 http://kgss.skku.edu/?page_id=39에서 2019년 7월 24일 인출.

* 주 1) 각 기관별 지도층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문항에서 거의 신뢰하지 않음(1), 다소 신뢰(2), 매우 신뢰(3)에 응답한 값의 평균임.
2) 2015년, 2017년 한국종합사회조사는 수행되지 않음.

7-2-6. 의견 표명 경험

2019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는 청년들이 사회·정치 문제에 대해서 지난 1년간 주요 방법별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경험을 파악하고자,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뱃지, 팔찌, 리본, 스티커 등 착용/부착’, ‘(온, 오프라인) 서명 참여’, ‘집회 및 시위 참여’, ‘항의 전화하기’의 5개의 문항 외에 ‘사회·정치 문제 관련 기사, 블로그, 방송, 유튜브 찾아보기’, ‘사회 정치 문제 관련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기’, ‘정치인, 공무원, 언론기관 접촉하기’, ‘사회 정치적 이유로 특정 상품 불매 또는 구매하기’, ‘정당 및 정치인 지지를 위해 정당 가입 및 기부하기’, ‘청년참여기구 활동하기’, 6개 문항을 추가, 총 11개 문항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지난 1년 동안 한번이라도 참여(1년에 1~2회+한 달에 1~2회+일주일에 1~2회+거의 매일)한 경험이 있는 의견 표출 방법은 ‘사회 정치 문제 관련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기’가 58.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사회·정치 문제 관련 기사, 블로그, 방송, 유튜브 찾아보기’가 48.0%, ‘서명에 참여하기’ 33.6% 등의 순이었으며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 하는 것을 제외하면 1년 동안 사회·정치 문제 관련 의견을 표출하는 경우가 절반에 미치지 못했으며, 특히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청년참여기구 활동하기’는 참여 경험이 10% 미만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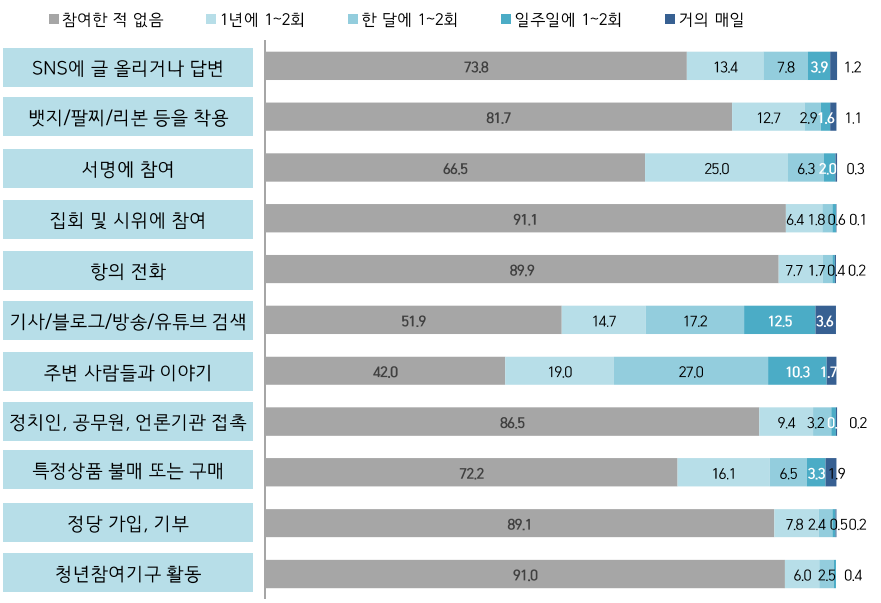


그림 Ⅲ-145. 의견 표명 경험

표 Ⅲ-153 의견 표명 경험

(단위: %)

연도	구분	참여한 적 없음	1년에 1~2회	한 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거의 매일
2019	SNS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73.8	13.4	7.8	3.9	1.2
	개인 의견 표현을 위해 뱃지/팔찌/리본 등을 착용/부착	81.7	12.7	2.9	1.6	1.1
	서명에 참여하기	66.5	25.0	6.3	2.0	0.3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91.1	6.4	1.8	0.6	0.1
	항의전화하기	89.9	7.7	1.7	0.4	0.2
	사회·정치 문제와 관련된 기사, 블로그, 방송, 유튜브 찾아보기	51.9	14.7	17.2	12.5	3.6
	사회·정치 문제에 대해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기	42.0	19.0	27.0	10.3	1.7
	정치인이나 공무원(민원) 또는 언론기관에 접촉하기	86.5	9.4	3.2	0.8	0.2
	사회·정치적 이유로 특정 상품을 불매하거나 구매하기	72.2	16.1	6.5	3.3	1.9
	정당에 가입하거나 기부하기	89.1	7.8	2.4	0.5	0.2
	청년참여기구 활동하기	91.0	6.0	2.5	0.4	0.0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청년층이 실제 의견 표명 행동을 경험한 적이 있는 지를 묻는 문항으로, 2019년 신규문항임. 기존 의견 표명 의향을 묻는 문항에서 2019년도에는 '사회·정치 문제와 관련된 기사, 블로그, 방송, 유튜브 찾아보기, 사회·정치 문제에 대해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기,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정치인이나 공무원(민원) 또는 언론기관에 접촉하기, 사회·정치적 이유로 특정 상품을 불매하거나 구매하기,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기 위해 정당에 가입하거나 기부하기, 청년참여기구(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의회 등) 활동하기' 항목이 추가됨.

7-2-7. 의견 표명 의향

2019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는 청년들이 사회·정치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방식을 파악하고자,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뱃지, 팔찌, 리본, 스티커 등 착용/부착', '(온,오프라인) 서명 참여', '집회 및 시위 참여', '항의 전화하기'의 5개의 문항 외에 '사회·정치 문제 관련 기사, 블로그, 방송, 유튜브 찾아보기', '사회 정치 문제 관련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기', '정치인, 공무원, 언론기관 접촉하기', '사회 정치적 이유로 특정 상품 불매 또는 구매하기', '정당 및 정치인 지지를 위해 정당 가입 및 기부하기', '청년참여기구 활동하기', '투표에 참여하기'의 7개 문항을 추가, 총 12개 문항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사회·정치 문제 관련 의견 표시 방법 중에서는 향후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69.3%('아마도 참여함' 40.1%+'확실히 참여함' 29.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정치 문제 관련 기사, 블로그, 방송, 유튜브 찾아보기'가 29.4%('아마도 참여함' 23.7%+'확실히 참여함' 5.7%), '서명에 참여하기' 22.2%('아마도 참여함' 18.8%+'확실히 참여함' 3.4%), '사회 정치적 이유로 특정 상품 불매 또는 구매하기' 18.3%('아마도 참여함' 14.8%+'확실히 참여함' 3.5%) 등의 순으로 나타나 특별히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일생상활에서 접하기 쉬운 의견 표명 방법들이 향후 의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정당 및 정치인 지지를 위해 정당 가입 및 기부하기'에서 83.3%('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47.4%+'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35.9%)로 가장 높았으며, '청년참여기구 활동하기' 81.9%('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43.6%+'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38.3%), '정치인, 공무원, 언론기관 접촉하기' 81.5%('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42.4%+'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39.1%) 등의 순으로 나타나 직접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향후 의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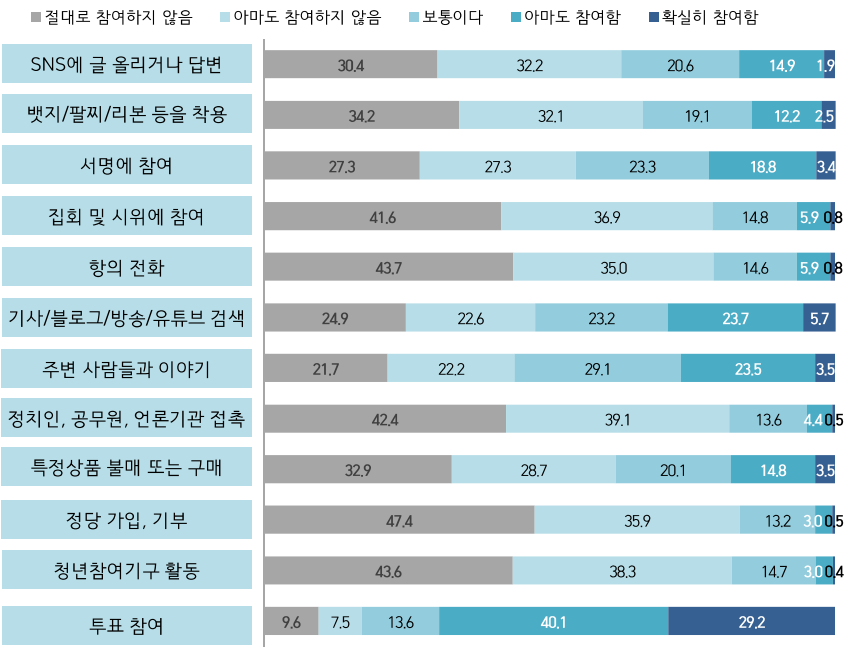


그림 Ⅲ-146. 의견 표명 의향

표 Ⅲ-154 연도별 의견 표명 의향

(단위: %)

연도	구분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보통임	아마도 참여함	확실히 참여함
2016	SNS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14.3	24.4	27.8	30.5	3.0
	개인 의견 표현을 위해 뱃지/팔찌/리본 등을 착용/부착	16.5	25.2	25.3	28.4	4.6
	서명에 참여하기	14.9	19.9	31.0	28.2	6.0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24.4	33.5	29.5	11.2	1.5
	항의전화하기	-	-	-	-	-
2017	SNS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12.9	27.5	28.0	28.1	3.5
	개인 의견 표현을 위해 뱃지/팔찌/리본 등을 착용/부착	13.0	28.0	29.0	25.9	4.1
	서명에 참여하기	10.4	22.7	28.4	32.9	5.6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17.0	34.1	29.4	17.5	2.1
	항의전화하기	22.2	34.5	25.7	14.8	2.8
2018	SNS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9.1	24.0	28.8	35.1	3.0
	개인 의견 표현을 위해 뱃지/팔찌/리본 등을 착용/부착	13.4	20.2	29.9	32.4	4.1
	서명에 참여하기	12.8	22.1	29.6	31.1	4.3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18.3	27.6	32.4	20.0	1.8
	항의전화하기	19.9	30.3	32.7	15.4	1.7
2019	SNS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30.4	32.2	20.6	14.9	1.9
	개인 의견 표현을 위해 뱃지/팔찌/리본 등을 착용/부착	34.2	32.1	19.1	12.2	2.5
	서명에 참여하기	27.3	27.3	23.3	18.8	3.4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41.6	36.9	14.8	5.9	0.8
	항의전화하기	43.7	35.0	14.6	5.9	0.8
	사회·정치 문제와 관련된 기사, 블로그, 방송, 유튜브 찾아보기	24.9	22.6	23.2	23.7	5.7

연도	구분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보통임	아마도 참여함	확실히 참여함
2019	사회·정치 문제에 대해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기	21.7	22.2	29.1	23.5	3.5
	정치인이나 공무원(민원) 또는 언론기관에 접촉하기	42.4	39.1	13.6	4.4	0.5
	사회·정치적 이유로 특정 상품을 불매하거나 구매하기	32.9	28.7	20.1	14.8	3.5
	정당에 가입하거나 기부하기	47.4	35.9	13.2	3.0	0.5
	청년참여기구 활동하기	43.6	38.3	14.7	3.0	0.4
	투표에 참여하기	9.6	7.5	13.6	40.1	29.2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9).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1) 항의전화하기'는 2017년에, '사회·정치 문제와 관련된 기사, 블로그, 방송, 유튜브 찾아보기, 사회·정치 문제에 대해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기,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정치인이나 공무원(민원) 또는 언론기관에 접촉하기, 사회·정치적 이유로 특정 상품을 불매하거나 구매하기,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기 위해 정당에 가입하거나 기부하기, 청년참여기구(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의회 등) 활동하기, 투표에 참여하기'는 2019년에 새로 추가된 항목임.
2)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7-2-8. 정치적 효능감

2019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는 '정치적 문제에 대한 이해 및 참여', '가치관과 신념으로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선거 및 캠페인 참여를 통해 정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총 3개 문항을 통해 청년들의 정치적 활동으로 인한 효능감을 파악해 보았다.

우선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37.0%('그렇다' 32.8%+'매우 그렇다' 4.2%)로 '그렇지 않다' 응답 비율 25.2%('전혀 그렇지 않다' 5.9%+'그렇지 않다' 19.3%)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렇다'는 응답 비율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39.8%)가 여자(34.0%)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타 연령대와는 달리 10대의 경우 '그렇다'는 응답 비율(23.1%)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 비율(40.0%)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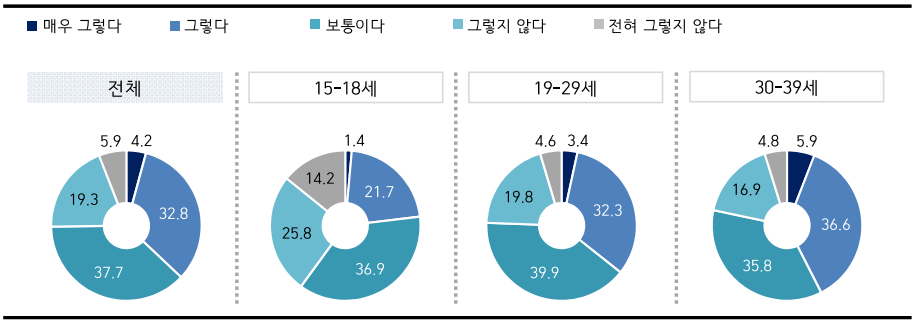


그림 Ⅲ-147. 정치적 효능감_1)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표 Ⅲ-155 연도별 정치적 효능감 추이_1)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단위: %)

연도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19~29세	30~39세
2017	전혀 그렇지 않다	2.6	2.9	2.2	5.7	2.6	1.6
	그렇지 않다	16.9	16.0	17.9	28.8	16.4	13.8
	보통이다	42.0	39.4	44.9	41.8	42.5	41.6
	그렇다	33.8	35.5	32.0	22.4	34.2	36.9
	매우 그렇다	4.6	6.2	2.9	1.3	4.2	6.1
2018	전혀 그렇지 않다	4.4	4.2	4.6	8.1	4.6	3.0
	그렇지 않다	20.8	19.8	21.8	28.5	20.0	19.1
	보통이다	35.8	34.7	37.0	39.1	36.9	33.9
	그렇다	37.4	39.0	35.7	24.1	36.8	42.0
	매우 그렇다	1.7	2.3	1.0	0.2	1.8	2.0
2019	전혀 그렇지 않다	5.9	5.7	6.1	14.2	4.6	4.8
	그렇지 않다	19.3	18.4	20.3	25.8	19.8	16.9
	보통이다	37.7	36.0	39.7	36.9	39.9	35.8
	그렇다	32.8	34.9	30.5	21.7	32.3	36.6
	매우 그렇다	4.2	4.9	3.5	1.4	3.4	5.9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다음으로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39.9%('그렇다' 35.4%+'매우 그렇다' 4.5%)로 '그렇지 않다' 응답 비율 19.4%('전혀 그렇지 않다' 5.0%+'그렇지 않다' 14.4%)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렇다'는 응답 비율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42.6%)가 여자(36.8%)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15~18세 33.5%, 19~29세 38.6%, 30~39세 43.0%) 포용과 이해에 대한 긍정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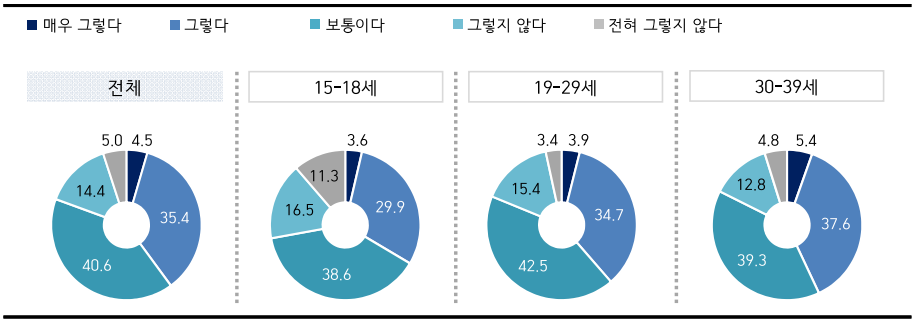


그림 Ⅲ-148. 정치적 효능감_2)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표 Ⅲ-156 연도별 정치적 효능감 추이_2)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단위: %)

연도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19~29세	30~39세
2017	전혀 그렇지 않다	1.7	1.8	1.5	1.4	1.9	1.6
	그렇지 않다	12.2	11.9	12.6	17.8	11.8	11.0
	보통이다	40.9	39.1	42.9	47.4	38.9	41.0
	그렇다	40.0	41.3	38.6	30.9	42.7	40.1
	매우 그렇다	5.2	5.9	4.4	2.4	4.7	6.4
2018	전혀 그렇지 않다	3.8	3.8	3.8	4.4	2.8	4.4
	그렇지 않다	15.3	14.0	16.7	16.9	16.7	13.6
	보통이다	40.3	39.9	40.7	43.2	41.7	38.2
	그렇다	38.0	39.4	36.4	33.0	36.1	41.1
	매우 그렇다	2.7	2.9	2.5	2.5	2.7	2.7
2019	전혀 그렇지 않다	5.0	5.1	4.9	11.3	3.4	4.8
	그렇지 않다	14.4	13.3	15.7	16.5	15.4	12.8
	보통이다	40.6	38.9	42.5	38.6	42.5	39.3
	그렇다	35.4	37.6	32.8	29.9	34.7	37.6
	매우 그렇다	4.5	5.0	4.0	3.6	3.9	5.4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마지막으로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른 정치적 효능감 문항과는 달리 '그렇지 않다'는 응답 비율이 31.4%('전혀 그렇지 않다' 7.8%+'그렇지 않다' 23.6%)로 '그렇다' 응답 비율 29.1%('그렇다' 25.0%+'매우 그렇다' 4.1%)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본인의 정치·사회 참여가 실제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 비율은 특히 연령대가 낮아질수록(15~18세 40.0%, 19~29세 30.2%, 30~39세 30.0%)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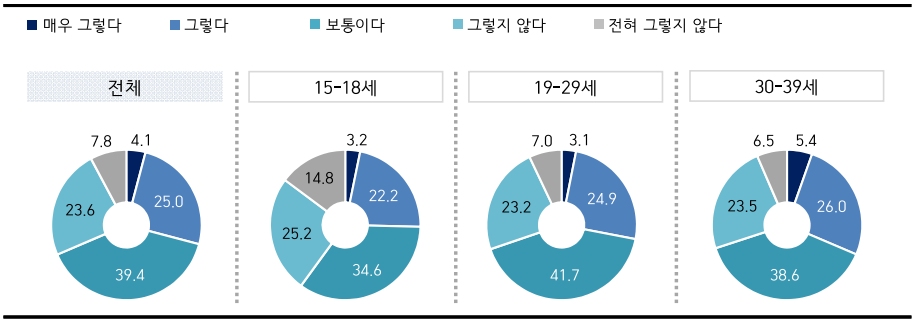


그림 Ⅲ-149. 정치적 효능감_3)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표 Ⅲ-157 연도별 정치적 효능감 추이_3)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단위: %)

연도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19~29세	30~39세
2017	전혀 그렇지 않다	3.8	4.4	3.2	4.5	3.7	3.8
	그렇지 않다	19.8	20.3	19.3	21.3	20.1	19.1
	보통이다	43.4	41.9	45.1	45.2	42.0	44.3
	그렇다	29.7	29.7	29.6	25.9	30.5	29.9
	매우 그렇다	3.3	3.6	2.9	3.1	3.6	2.9
2018	전혀 그렇지 않다	4.7	4.6	4.8	6.4	4.4	4.5
	그렇지 않다	20.6	19.5	21.7	22.3	20.9	19.8
	보통이다	43.7	43.9	43.4	48.3	43.4	42.5
	그렇다	27.3	27.8	26.8	21.5	28.3	28.3
	매우 그렇다	3.7	4.1	3.3	1.5	3.1	4.9
2019	전혀 그렇지 않다	7.8	8.0	7.6	14.8	7.0	6.5
	그렇지 않다	23.6	23.7	23.5	25.2	23.2	23.5
	보통이다	39.4	38.9	40.1	34.6	41.7	38.6
	그렇다	25.0	25.1	25.0	22.2	24.9	26.0
	매우 그렇다	4.1	4.3	3.9	3.2	3.1	5.4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Ⅳ. 청년 참여 실태 분석

1. 청년 참여 개념 및 현황
2. 청년 참여에 대한 실태 분석
3. 요약 및 시사점

4 청년 참여 실태 분석[15]

1. 청년 참여 개념 및 현황

IMF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청년 실업 문제가 심화되면서, 청년 관련 사회적 이슈는 이러한 고용문제에 국한되어 있었다. 청년정책도 이러한 심각한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의 경제적 참여를 늘리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최근에는 청년문제가 비단 고용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삶의 영역의 문제들로 확대되면서, 청년들의 전반적인 삶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하여 청년기본법안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들의 참여를 높여야 함을 목적으로 두고 관련 정책 및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청년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청년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요구가 반영되어야 하고, 청년들이 직접 자신들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참여를 보장해야한다는 논의가 확대되면서, 청년 참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1) 청년 참여의 개념 및 범위

청년 참여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 높아지고 있으나, 사실 청년 참여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는 상황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15) 이 장은 연보라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관련 청년 정책들이 다수 진행되고 있는데, 정책 추진의 기반으로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청년기본조례의 목적에서 공통적으로 청년들에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의 영역에서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참여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없으며, 참여의 범위를 삶의 전반적인 영역으로 매우 폭넓게 제시하고 있어 참여의 개념과 해석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청년의 참여는 정치·사회 참여 영역으로 한정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는 청년의 경제적 참여와 관련하여 일자리 문제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다수 다룬 적이 있고, 본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도 부가조사로서 이미 살펴본 바 있다. 또한 최근 청년들의 정치·사회 참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정치와 사회 영역에 한정하여 청년들의 참여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여기에서 일컫는 참여는 정치·사회 참여에 한정한다.

일반적으로 참여란 시민이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시하거나 다른 이의 정치적 의견을 경청하는 모든 행태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다차원적인 구성 개념으로 볼 수 있다(Huntington & Nelson, 1976; 이재신, 이영수, 2009 재인용). 참여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이견이 있는데, 먼저 협의의 개념에서는 자발적인 행동과 합법적인 영역에만 한정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정부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으로 정의하기도 한다(Verba & Nie 1972; 김한나, 2016 재인용). 그리하여 Verba와 Nie는 합법적이고 통상적인 정치 행동만을 정치참여 행동으로 보았으며(김한나, 2016), 정부 정책이나 정치인 선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만을 참여로 한정하였다(이혜인, 홍준형, 2013). 가령 참여를 선거활동, 투표, 공동활동, 접촉활동 등 4가지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공동활동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단체 결성이나 공동업무 수행, 관련 기관의 활동 등을 포함하고 있다(Verba & Nie 1972; 이혜인, 홍준형, 2013 재인용).

반면, 앞서 소개한 Huntington과 Nelson의 참여에 대한 개념은 보다 광범위하게 접근하고 있다. 이들은 광의의 개념에서 참여란 정치과정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모든 형태의 시민 행동을 포함하여 '개인적이거나 집단적이며, 조직되거나 자연발생적이며, 지속적이거나 간헐적이며, 평화적 또는 폭력적이고 합법적인 것이 있고 비합법적인 것도 있고, 효과가 있거나 없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Huntignton & Nelson, 1976; 박찬욱 2005 재인용). 이와 같이 참여는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는데, Conway(1991)은 이러한 참여를 도구적이거나 목표지향적인 능동적인 참여와 수동적인 관여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때 전자인 능동적 참여는 투표, 후보자를 위해 일하는 것, 관공서에 글쓰기, 관공서 감시 등이 포함되며, 후자인 수동적 관여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단순히 정치에 주목하는 것을 의미한다(황용석, 2001 재인용). 황용석(2001)은 이러한 참여에 대한 다양한 개념 정의와 구분이 이루어진 것은 참여가 다차원적인 구성 개념이라는 것을 시사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함께 온라인 미디어 환경에서 시민들의 참여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이다. 인터넷이 상용화되고 스마트폰 보급이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등장은 젊은 연령대를 중심으로 정치 환경의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물론, 인터넷이 보급되기 이전에도 참여의 범위로서 미디어 영역이 포함된 바 있다. Conway는 매스미디어를 통해 정치 캠페인을 따라가는 것은 수동적인 형식의 정치 참여이며 신문이나 뉴스에 주목하는 행위를 낮은 차원의 인지적 정치 관여로서 분류하였다(Conway, 1991; 황용석, 2001 재인용). 하지만 근래의 인터넷 환경에서의 참여는 이용자들이 정보를 단순히 수용하는 것을 넘어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선택하는 인지적 행위와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거나 금전적으로 기부 및 투표하는 행동적 차원으로까지 확대되었다(황용석, 2001). 그리고 이러한 온라인 환경에서의 정치 참여의 변화와 관련하여 몇몇 연구에서는 기존에는 집단이나 조직을 중심으로 한 참여가 활발했

다면, 정보화 시대에서는 네트워크화 된 개인(Networked Individual)이 중심이 된 정치 참여가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고 지적한다(민희, 윤성이, 2015).

표 Ⅳ-1 다층적 형태의 온-오프라인 참여

		오프라인 활동	온라인 활동
참여	투표	투표	전자투표
	정당/캠페인	정당이자 정치후보자 자원봉사로 참여하기, 기부하기	지지자 서명하기, 정당지지 위해 SNS 그룹에 가입하기, 온라인으로 기부하기
	시위활동	시위, 청원에 서명하기	전자 청원에 서명하기
	접촉	정치인에게 편지 보내기, 전화하기	정치인에게 이메일 보내기
	지역 공동체	지역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일하기	정치 이슈 중심의 SNS그룹에 가입하기
	소비	보이콧	e-보이콧
수동적 관여	뉴스 관심	신문 읽기	인터넷 신문이나 블로그 보기, 유투브 보기
	토론	정치에 대해 토론하기	온라인 상에서 토론하기
	표현적	편집자에게 편지 보내기, 공공 연설하기, 스티커 붙이기	정치 콘텐츠를 포스팅하거나 포워딩하기

* 출처: Gibson & Cantijoch (2013), 민희, 윤성이 (2015) 표 3 재인용

해외 연구에서는 이러한 온라인 참여를 포함하여 새로운 형태의 참여적 관여(Participatory Engagement) 관점에서 논의가 있어왔는데, 즉, 참여의 범위를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일련의 모든 활동으로 여기며 온라인 공간에서 표출되는 참여의 다층적인 형태까지 모두 포함하여 제시하고 있다(Gibson & Cantijoch, 2013; Lutx et al., 2014; 민희, 윤성이, 2015 재인용). Gibson과 Cantijoch(2013)도 이러한 맥락에서 참여 유형을 분류하고 있는데, 참여와 수동적 관여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의도적이고 집적적인 정치 참여뿐만 아니라

참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행위까지 참여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민희, 윤성이, 2015).

구체적으로 투표나 정당/캠페인 활동과 같은 제도적 참여부터 시위활동, 정치인과의 접촉, 지역 공동체 활동, 보이콧과 같은 소비 활동 등의 비제도적 참여를 모두 포함하여 참여를 정의하고 있다. 또한 참여의 한 형태로서 직접적인 참여활동은 아니지만 신문 읽기나 정치에 대한 토론, 표현적 활동 등 수동적인 관여도 폭넓게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형태의 참여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도 청년 참여에 대하여 광의의 개념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이에 청년들의 직접적인 참여활동뿐만 아니라 참여적 관여를 포함하여 다양한 청년 참여의 영역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오프라인 활동과 온라인 활동을 명확히 구분하지는 않았으나 SNS나 홈페이지, 블로그 등 온라인상의 참여도 함께 포함하여 변화된 참여 환경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2) 청년 참여의 중요성과 의미

사실상 청년들의 참여 문제는 청년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주지하듯이 청년들의 문제는 다양한 사회구조적 문제들이 서로 얽혀있으며, 이로 인해 청년 당사자들만의 문제라기보다 한국사회 전체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의미에서 청년 참여에 대한 시각도 변화될 필요가 있다. 청년은 청년 이전에 한 사회의 시민이며, 청년 참여는 향후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미래세대의 시민 참여로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민주주의는 민주사회를 구성하는 시민들의 의식과 행동을 기반으로 하며, 민주주의의 발전은 시민의 성숙과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이동수 외, 2013). 즉, 시민들은 사회의 구성원이자 사회 발전의 핵심 주체로서 볼 수 있는데, 이동수 외(2013)는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형성과 성숙이 절대적이며, 이는

시민의식의 진작과 사회문제에 실제 참여하는 행위를 통해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시킬 때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년 참여는 사회의 한 시민으로서의 참여이며, 참여의 행위를 통해 시민으로 성장하고, 이는 앞으로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발전해나가는 데에 있어서 그 중요성이 있다.

그렇다면 특별히 청년 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법률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까닭은 무엇인가? 이는 한국에서의 참여 불평등 현상과 연관 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여성, 낮은 연령, 낮은 교육 수준과 남성, 높은 연령, 고학력자들 간에 제도적인 참여에서의 평등은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있으나, 한국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의 문제는 사회구조적 정치 참여의 불평등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조정인, 2012). 기성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대에 속해있는 청년 세대는 현재 심각한 고용문제와 빈곤 등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지위에서도 열악한 상황이다. 이러한 사회구조적 불평등속에 청년들은 정치 참여에서도 주변화된 '아웃사이더' 시민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앞서 살펴본 청년들의 참여 현황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할 청년 정치인들의 비중은 매우 극소수에 그치고 있으며, 근래에는 더욱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한국에서의 청년 정치의 위상은 여성 정치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있다(오세제, 2018). 오세제(2018)에 따르면 한국의 여성 정치 역시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나, 청년 정치는 그보다도 더 못한, 가장 주변화된 정치 '아웃사이더'로 여겨진다. 상술한 문제의식에서 주변화된 시민으로서 청년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청년 참여의 활성화는 한국사회의 참여 불평등 현상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겠다.

한편, 청년들의 높은 실업률과 심각한 고용문제로 인해 청년의 경제적 참여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혹자는 청년세대는 '경제적 시민권'을 박탈당한 세대라고 말하는데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나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오

세제, 2018). 이러한 경제적 문제는 결국 청년들의 전반적인 삶의 영역에서의 문제로 이어졌으며, 청년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청년들이 직접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왔다(한국행정연구원, 2018a). 즉, 청년들의 문제는 이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청년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하며, 이러한 참여를 통해 청년 관련 정책이 결정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청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관련 정책과 지원들이 무수히 추진되고 있으나, 실제 청년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잘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청년들이 중요한 정치적, 사회적 결정은 물론 자신들의 문제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한국행정연구원, 2018a). 전술한 내용을 요약하면,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청년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는데, 정확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당사자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청년 참여의 활성화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3) 청년 참여 현황

청년들의 참여 현황과 관련한 기존의 논의들은 대부분 제도적 참여 영역에 국한되어 있었다. 청년들의 투표율이나 정치활동들이 그것이다. 하지만 앞서 참여의 개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년의 참여는 제도적 참여로서 대표적인 선거부터 비제도적 참여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정보화 시대에 네트워크화된 개인을 중심으로 한 참여 문화는 특히 젊은 연령대의 청년들과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청년 참여의 현황을 제도적 참여와 비제도적 참여를 모두 포함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제도적 참여 영역으로서 투표율과 관련해서는 청년 연령대의 투표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에서 최근 3번의 대통령 선거

의 연령대별 투표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젊은 연령대 투표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에 청년 투표율이 낮고, 청년들이 정치·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비판은 이제 옛말이 되었다. 구체적으로 최근 3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청년 연령대인 20대와 30대의 투표율을 살펴보았는데, 20대의 경우 17대 46.6%, 18대 68.5%, 19대 76.1%로 높아졌으며, 30대도 17대 55.1%에서 19대 74.2%로 크게 높아진 상황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7). 이러한 경향성은 다른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에서도 나타나 선거 종류와 상관없이 청년 연령대의 투표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김형주 외, 2018).

표 Ⅳ-2 제17대·제18대·제19대 대선 연령대별 투표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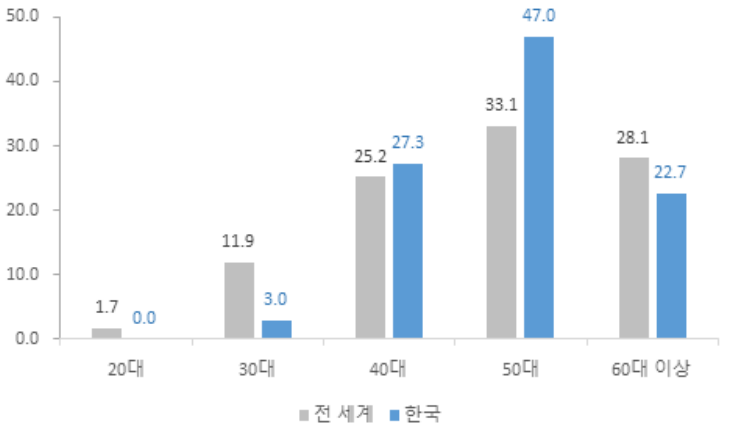
구분	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세 이상
'17 19대 대선	77.7	76.1	74.2	74.9	78.6	84.1	81.8	56.2
'12 18대 대선	74.0	68.5	70.0	75.6	82.0	80.9 (60대 이상)		
'07 17대 대선	54.2	46.6	55.1	66.3	76.6	76.3 (60대 이상)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7). 19대 대통령선거 투표율 분석 결과 공개 보도자료.

그러나 청년들의 투표율은 증가한 것에 비해 실제 청년 정치인들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분석해보면,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20~30대 국회의원은 단 3명뿐이었다. 전체 국회의원 중 청년 정치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1985년 제 12대 국회에서부터 10% 미만 수준으로, 이마저도 계속해서 줄어들어 20대 국회에서는 1%로 급감하였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9). 이처럼 제도권 영역에서 청년들의 투표율은 증가하고 있으나 청년 당사자로서 청년 의제를 공론화시킬 정치인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한국의 청년 정치인의 비율은 다른 국가와 비교에서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국제의원연맹에서 2012년 당시 연령대별 국회의원 분포를 국가별로 비교한 결과,

한국의 경우 20-30대 국회의원의 비중이 전체 평균인 13.6%보다 매우 낮은 3.0%에 머물렀다(Power, 2012; 한국행정연구원, 2018a에서 재인용).



* 출처: Power(2012). 한국행정연구원(2018a) 그림 4-5 재인용

그림 Ⅳ-1. 전 세계와 한국의 연령별 국회의원 분포 비교(%)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에서의 청년 정치인들의 위치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선거 때마다 청년층의 표심을 얻기 위하여 각 당에서는 청년 공천을 내세우고, 당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 청년들을 앞세우고 있지만, 실제 청년 정치인 선출은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 각 당에서 당헌과 당규로 청년 비례대표를 선출한다고 하였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으며, 기존에 당선된 청년 정치인들의 정치 활동도 일시적이며 그 다음 선거로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오세제, 2018). 청년들의 참여 현황에 대한 논의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투표율이나 정치인 비율 등 앞서 언급한 제도적 참여와 관련하여 이슈가 많았으나, 사실 청년 참여는 이러한 제도적 참여뿐 아니라 비제도적 참여도 존재한다. 하지만 비제도적 참여로서 청년들의 참여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는 많지 않은 현실이다. 비제도적 참여와 관련해

서는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청년들의 의견표명 행동으로서 매해 조사해오고 있는데, 이는 본 보고서의 3장인 핵심지표 내용에서 한 차례 제시된 바 있다. 해당 조사는 청년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서 전체 연령대와의 비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지만 비제도적 참여로서 항목별로 청년들의 참여 의향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간략하게 살펴보면, SNS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는 것이나 뱃지/팔찌/리본 착용, 서명하는 것과 같은 개인적 수준의 참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 의향을 나타내었다(김형주 외, 2018). 반면,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거나 항의전화와 같은 조직적이거나 보다 적극적인 참여에서는 대체로 낮은 참여 의향을 보였다(김형주 외, 2018). 이러한 결과는 청년들의 참여에 다층적인 양상이 존재함을 방증하는 것이다. 청년 참여와 관련한 기존의 연구들은 이러한 청년 참여의 다양한 층위가 있음을 살펴보지 못하였으며, 종합적인 청년 참여의 이해를 돕는 데에 한계점을 지니고 있었다. 앞서 다룬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에서는 청년 참여 실태에 대한 심층분석에서 청년 참여의 다층적인 유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아울러 청년들의 참여로서 단체 참여 현황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통계청 사회조사에서는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각종 단체에 참여한 비율을 격년으로 조사해오고 있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연령대(49.2%) 대비 청년 연령대인 20대와 30대는 각각 41.9%, 48.1%로 약간 낮은 참여 수준을 나타내었다(통계청 보도자료, 2017.11.07.). 구체적으로 단체의 유형에 따라 연령대별로 참여율에 차이가 있었다. 청년들의 경우 취미, 스포츠, 여가활동 단체에 참여하는 비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지역사회 모임, 시민사회 단체 등의 참여율은 낮은 특성을 지녔다(통계청 보도자료, 2017.11.07.). 이는 청년들의 주된 사회 참여가 개인적인 관심이나 흥미, 자기개발 등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정치적 또는 사회적 목적으로 단체에 참여하는 경우는 적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실태분석에서 상세히 살펴보고자 하였다.

2. 청년 참여에 대한 실태 분석

여기에서는 청년들의 정치·사회 참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수행하였다. 수집된 양적, 질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청년 참여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설문조사의 일차적인 기술통계 결과에 대한 검토를 거쳐 청년 참여의 다층적인 양상을 보다 내밀하게 살펴보고자 추가적으로 실증모델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청년 참여에 어떠한 유형이 있는지 살펴보고, 각 유형의 고유한 특성과 해당 유형에 속하는 청년들의 특징을 분석하였으며, 나아가 청년 참여 유형별로 정책적 욕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한편, 청년의 참여를 심도 있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양적 자료만으로 설명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32명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면담 조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실증모델 분석의 연구 결과와 면담조사의 결과를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활용하였다.

1) 분석 개요

(1) 설문조사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2019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의 부가설문조사로서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조사의 전반적인 절차와 방법, 기간, 표본 설계의 내용은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와 동일하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본보고서 3절의 조사개요에서 다루고 있어 이 절에서는 생략하였다. 다만,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는 중·고등학생용과 청년용으로 조사표를 개발하였는데, 청년 참여와 관련된 정책들의 핵심 대상을 고려하여 부가설문조사의 문항은 청년용 조사표에 한정하여 포함되었다. 따라서 설문조사 분석에서 활용된 표본은 청년용 조사표 응답자로,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청년 2,948명이다.

① 설문조사 내용

청년의 정치·사회 참여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부가조사의 설문문항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개발되었다. 해당 절차는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먼저, 청년 참여와 관련된 문헌고찰이 이루어졌으며, 기존의 설문조사들의 문항을 검토하여 1차적으로 개발하였다. 이후 연구진 협의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초안을 수정·보완하였고, 예비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작성되었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정치·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 정치/사회 참여 경험, 정치/사회 참여 의향, 정치/사회 참여 장애요인, 청년 참여 정책 인지도, 청년 참여 활성화 요인, 이전(중·고등학생 시기) 참여 경험 등을 주요 영역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영역별로 세부 문항이 개발되었다. 이때, 정치 참여 경험의 경우 기존의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의견표명행동 등과 같이 일부 연관된 문항이 존재하여, 기존의 문항들을 포함하는 방향에서 추가적인 문항들을 개발하였다.

구체적인 조사 문항은 다음의 표 Ⅳ-3에 기술되어있으며, 기존의 개발된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하거나 관련 설문조사의 문항을 재구성한 경우, 관련 연구들을 참고로 연구진이 직접 개발한 문항에 대해서는 출처를 제시하였다.

표 Ⅳ-3 청년 정치·사회 참여 설문문항 주요 내용 및 출처

조사영역 및 내용		비고
정치·사회 관심도	정치·사회문제 관심도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문항 수정·보완
정치 참여 경험	선거 참여 여부	사회통합실태조사 문항 수정·보완
	정치 참여 여부 및 참여 빈도 (1)~(11)	Gibson & Cantijoch(2013) 연구 참조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사회통합실태조사 문항 수정·보완
	정치 참여 이유	황여정(2017) 문항 수정·보완
정치 참여 의향	정치 참여 의향 (1)~(12)	Gibson & Cantijoch(2013) 연구 참고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사회통합실태조사 문항 수정·보완
정치 참여 장애 요인	정치 참여 장애 요인	김한나(2016), 김기동·이정희(2017) 연구 참고로 연구진 개발
사회 참여 경험	사회 참여 여부 및 참여 빈도 (1)~(9)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김정숙, 강영배(2017), 사회통합실태조사 사회조사 문항 수정·보완
	사회 참여 이유	김정숙(2017), 황여정(2017) 문항 수정
사회 참여 의향	사회 참여 의향 (1)~(9)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김정숙, 강영배(2017), 사회통합실태조사, 사회조사 문항 수정·보완
사회 참여 장애 요인	사회 참여 장애 요인	김정숙(2017) 문항 수정·보완
청년 참여 정책 인지도	청년 참여 관련 법, 정책, 기구에 대한 인지도 (1)~(5)	한국행정연구원(2018a) 연구 참고로 연구진 개발
청년 참여 활성화 요인	청년 참여 활성화 요인	한국행정연구원(2018a) 연구 참고 김정숙, 강영배(2017), 황여정(2017) 문항 수정, 보완
이전 참여 경험	청소년시기 참여 경험 여부 (1)~(8)	김영인(2017) 연구 참고 임희진, 문호영, 정정호(2018) 문항재구성

② 설문조사 분석방법

본 연구는 먼저 청년들의 정치·사회 참여에 대한 기초분석으로서 정치·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 정치/사회 참여 경험, 정치/사회 참여 의향, 정치/사회 참여 장애요인, 청년 참여 정책 인지도, 청년 참여 활성화 요인, 이전(중·고등학생 시기) 참여 경험 등에 대한 일차적인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청년들의 청년 참여의 특성들이 성별, 연령, 최종학력, 현재 상태(취업/미취업/재학 중)에 따라 어떠한지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어서 앞서 수행된 일차적인 기술통계 결과에 대해 검토한 후, 청년 참여의 다층적인 양상을 보다 내밀하게 살펴보고자 추가적으로 실증모델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청년들의 정치 참여 유형을 분류하고, 이러한 유형을 예측하는 청년들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및 개인적 특성을 검증하고자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을 수행하였다. 잠재프로파일분석은 데이터 내 관찰되지 않은 잠재된 하위집단이 존재하는지 검증하고, 개개인이 특정 계층에 속할 확률을 추정하는 분석방법이다(O'Connor & Colder, 2005; 양명희, 권재기, 2013에서 재인용). 전통적인 군집분석은 임의적인 기준에 의해 집단을 구분하는 반면, 잠재프로파일분석은 잠재집단 수에 대한 결정에 있어 통계적 기준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Magidson & Vermunt, 2002).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잠재프로파일분석은 다양한 적합도 지수를 활용하여 최적의 잠재집단 수를 결정하는데, 일반적으로 AIC(Akaike Imformation Criterion)(Akaike, 1974), BIC(Baysian Information Criterion)(Schwartz, 1978), SABIC(Sample-size Adjusted Bic)와 같은 정보준거지수(information criterion indices)나, 프로파일 수가 증가함에 따라 모형을 비교할 수 있는 LMR LRT(Lo-Mendell-Rubin 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Lo, Mendell & Rubin, 2001)와 BLRT(Bootstrap Likelihood Ratio Test)(Mclachlan &

Peel, 2000), 분류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Entropy(Muthén, 2004)값을 사용할 수 있다(노언경, 이은수, 이현정, 홍세희 2017에서 재인용). AIC, BIC, SABIC은 지수가 낮을수록 적합도가 좋으며, LMR LRT, BLRT는 잠재프로파일이 k개인 모형(대립가설)을 평가하기 위해, k-1개인 모형(영가설)과 비교하여 χ^2검증 값을 제공한다. k개 모형을 지지하기 위해 k-1개의 모형의 기각 여부를 평가하는 p값을 제공하며, p값이 유의하면, k개의 모형을 선택한다. Entropy는 0에서 1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좋은 분류이며, 일반적으로 .8 이상이면 좋은 분류라고 볼 수 있다(Muthén, 2004; 노언경 외, 2017에서 재인용).

다음으로 청년의 정치 참여 유형을 확인한 후, 각 유형을 설명하는 인구사회학적 배경이나 개인 특성과 같은 예측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항로지스틱분석을 수행하였다. 아울러 각 참여 유형별로 참여의 동기 및 향후 참여 의향, 정책적 욕구에 차이가 있는지 교차분석 및 분산분석을 수행하였다. 전술한 분석 모형을 전체적으로 간략히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Ⅳ-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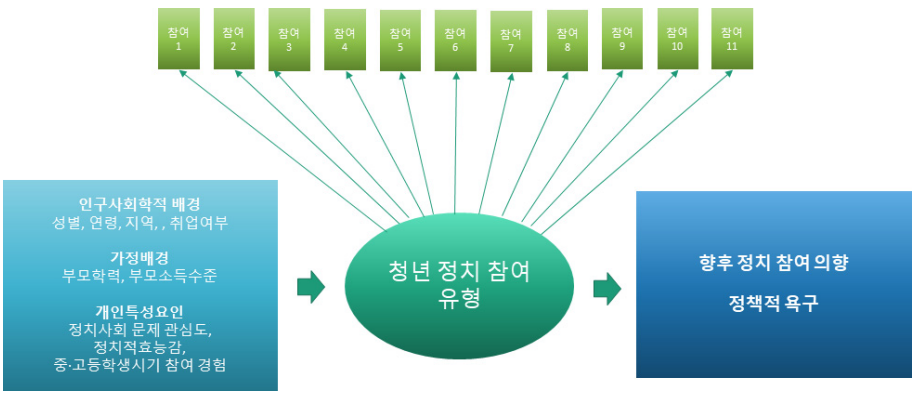


그림 Ⅳ-2. 잠재프로파일(LPA) 분석을 활용한 심층분석 모형

(2) 면담 조사

본 연구에서는 청년들의 정치·사회 참여 실태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앞서 설문조사의 분석만으로는 청년의 참여를 심도 있게 살펴보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참여 유형을 고려하여 32명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사회·정치 문제 관심을 갖게 된 계기, 참여 경험, 청년 참여에 대한 인식이나 정책적 욕구 등에 대하여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① 면담 조사 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청년들의 정치·사회 참여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20세~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성별, 지역, 경제활동 여부, 참여 여부 등을 고려하여 면담 조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특히 청년의 정치·사회 참여 양상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참여집단 내에서도 조직/단체 수준의 참여자와 개인수준의 참여자로 집단을 구분하여 참여자로 포함하였으며, 집단별로도 조직의 특성이나 참여의 내용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 면담 조사 참여자는 총 32명으로, 전체 참여자 중 남자는 20명, 여자는 12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각각 16명으로 고루 분포하였다. 경제활동과 관련해서는 경제활동자 22명, 비경제활동자 10명이었으며, 정치·사회 참여 유형별로는 참여집단 22명(조직/단체 수준 참여자 12명, 개인수준 참여자 10명), 비참여 집단 10명이었다.[16] 구체적으로 조직/단체 수준 참여자의 경우 정당 활동 참여 3명, 청년 심의기구 및 참여기구 참여 5명, 시민단체(NGO, NPO) 참여 4명이 포함되었으며, 개인수준 참여자의 경우 참여 내용에 따라 집회 및 시위 경험이 있는 참여자 3명, 항의 전화 및 정치인/공무원/언론기관에 접촉한

16) 청년 참여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전체 청년 중 비참여 집단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면담조사에서는 청년 참여의 다양한 형태를 보다 세밀하게 포함하고자 참여 유형별로 대상자의 비중을 고르게 선정하였다.

경험이 있는 참여자 3명,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한 경험이 있는 참여자 4명을 다양하게 포함하였다. 면담 조사 참여자에 대한 세부적인 프로파일은 표 Ⅳ-4와 같다.

표 Ⅳ-4 면담 조사 참여자 특성

연번	참여 유형	구분	성별	지역	경제 활동 상황
1	정당 활동 참여	A	여	서울	아르바이트
2		B	남	부산	경제활동 없음
3		C	남	광주	아르바이트
4	청년 심의기구 및 참여기구 참여	A	여	서울	아르바이트
5		B	남	서울	아르바이트
6		C	여	경기	취업
7		D	여	광주	취업
8		E	여	부산	취업
9	시민단체 (NGO,NPO) 참여	A	남	서울	취업
10		B	남	서울	취업
11		C	남	전북	아르바이트
12		D	남	대전	아르바이트
13	집회 및 시위 참여	A	남	서울	아르바이트
14		B	여	서울	취업
15		C	여	부산	경제활동 없음
16	항의 전화 및 정치인/공무원/ 언론기관 접촉	A	여	서울	취업
17		B	남	광주	경제활동 없음
18		C	남	부산	아르바이트
19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 올리거나 답변하기	A	남	경기	취업
20		B	남	서울	경제활동 없음
21		C	남	광주	경제활동 없음
22		D	남	부산	경제활동 없음
23	사회정치활동 비참여	A	여	서울	경제활동 없음
24		B	남	서울	아르바이트

연번	참여 유형	구분	성별	지역	경제 활동 상황
25		C	남	서울	아르바이트
26		D	여	서울	경제활동 없음
27		E	남	서울	취업
28		F	남	부산	아르바이트
29		G	여	부산	경제활동 없음
30		H	남	부산	아르바이트
31		I	여	광주	취업
32		J	남	광주	경제활동 없음

② 면담 조사 내용

본 연구에서는 청년의 정치·사회 참여 실태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구성하였다. 면담 조사의 내용은 크게 1) 사회·정치문제에 대한 관심 2) 청소년시기 참여 경험 3) 사회·정치 참여 경험, 4) 사회·정치 참여 의향, 5) 청년 참여 정책 인식, 5) 청년 참여 활성화 요인 등을 포함하였다. 면담 조사의 내용은 설문조사에서 다루었던 조사내용과 전반적으로 조응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설문조사의 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와 해석을 뒷받침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설문조사에서 다루지 못하는 청년 참여 관련 세부 내용도 포함하였다. 가령 사회·정치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거나 사회·정치 참여 경험의 개인적인 계기 등을 포함하였으며, 참여의 방식이나 구조, 참여 경험을 통해 성취하거나 변화된 것, 이러한 참여 경험이 개인에게 갖는 의미 등을 조사함으로써 사회·정치 참여의 경험을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청년 참여 관련 법, 정책, 기구에 대한 인식과 청년 참여에 대한 정책적 욕구들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전술한 결과는 이후 청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을 도출하는 데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표 Ⅳ-5 청년 정치·사회 참여 면담 조사 주요내용

구분	세부 내용	
	참여집단	비참여집단
1) 사회·정치문제 관심	① 사회·정치문제 관심정도 ② 관심을 갖게 된 계기 및 시기	
2) 청소년시기 참여 경험	① 청소년시기 참여 경험	
3) 사회·정치 참여 경험	① 참여 내용 ② 참여 계기 및 시기 ③ 참여 이유(목적) ④ 참여 방식 및 구조 ⑤ 참여 경험을 통해 성취 또는 변화한 것 ⑥ 참여 과정에서의 장애 요인 및 애로 사항 ⑦ 참여 경험이 개인에게 갖는 의미	① 참여하지 않는 이유 및 계기 ② 현재 상황
6) 사회·정치 참여 의향	① 향후 참여 의향 및 이유 ② 참여를 위한 필요조건	
7) 청년 참여 정책 인식	① 청년 참여 관련 법, 정책, 기구에 대한 인지도 ② 청년 참여 관련 법, 정책, 기구에 대한 정보 습득 경로 ③ 청년 참여 관련 법, 정책, 기구에 대한 인식	
8) 청년 참여 활성화 요인	① 청년에게 참여의 의미 ② 청년들의 참여 저해 요인 ③ 청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욕구	

③ 면담 조사 절차 및 분석방법

면담 조사 참여자의 선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조사업체의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연구 목적에 적합한 청년들을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치·사회 참여 유형에 따라 비참여자, 개인수준의 참여자, 조직/단체수준 참여자들을 포함하였으며, 각 집단별로 성별, 지역 등을 고르게 분포하도록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심의기구 및 참여기구 참여자들의 경우 연구진이 가지고 있는 데이

터베이스를 활용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면담참여에 동의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구성하였다.

면담 조사지의 개발절차는 다음과 같다. 기존의 연구들과 문헌자료를 토대로 조사 내용(안)을 개발하였고, 전문가 의견조사를 토대로 조사내용을 선정, 1차 조사지를 개발하였다. 이어 연구진 협의를 거쳐 수정·보완한 면담 조사지는 다시 전문가의견조사를 토대로 수정·보완하였다. 이후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거쳐 2019년 6월 5일에 승인(승인번호:201904-HR-고유-007-11)을 받았다. 이에 따라 비참여자와 참여자를 포함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면담 조사지를 최종적으로 수정·보완하였다.



그림 Ⅳ-3. 면담 조사지 개발절차

면담 조사는 2019년 7월 11일부터 7월 24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조사 방법은 개별심층면접(In-Depth Interviews)와 좌담회(Focus Group Discusstion)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비참여자의 경우에는 모두 개별심층면접(IDI)로 진행되었으며, 참여자의 경우 참여의 세부 유형에 따라 3~4명이 함께 FGI 형태로 면담이 진행되었다. 모든 면담내용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하였으며, 녹음자료를 전체 전사하여 분석 자료에 포함하였다.

면담 조사의 자료는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주요 내용을 파악하였고, 면담 조사 참여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관련 내용을 분석 및 해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면담 조사 자료의 분석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청년 참여에 대한 세부 주제 영역별로 핵심적인 내용을 도출해내는 데에

활용하였다. 또한 청년 참여 유형에 따라 집단별로 면담조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를 비교해봄으로써 유형별 응답의 차이가 있는지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면담내용을 전사한 텍스트 파일을 형태소분석기를 사용하여 형태소를 추출한 후, NIA 사전을 통해 단어를 인식하였다. 주요 주제별로 인식된 단어 중 명사를 추출하였고, 빈도수 상위 30개 응답 단어를 추출하여 R프로그램에서 워드클라우드 패키지(Word Cloud)를 이용해 텍스트를 시각화하였다. 워드클라우드(Word Cloud)는 텍스트 시각화기법 중 하나로서 최소의 의미를 지니는 문장 구성 성분인 형태소를 분석하고, 그 빈도에 따라 문자의 크기를 결정하여, 텍스트의 키워드와 빈도를 직관적으로 빠르게 인지하는 데에 주요 장점을 지닌다(한무명초, 김양석, 이충권, 2017).

2) 기초 분석 결과

요약

- 청년들의 참여에 다층적인 양상이 존재하며,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따라 이러한 참여 양상이 다를 가능성이 있음.
- 수동적 관여 수준의 참여에 대해서는 청년들의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투표를 제외한 제도적 형태의 참여는 참여율이 낮게 나타남.
- 개별적 특성의 참여 경험은 높은 반면, 조직/단체 수준의 참여 경험은 낮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성은 향후 정치 참여 의향에도 유사하게 나타남.
- 청년들이 참여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는 정치·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 부족, 정치효능감 부족, 신뢰도 부족 등이 주 요인으로 거론됨.
- 단체(모임)의 성격에 따라서도 참여율에 차이가 있는데, 여가 및 친목 위주의 사회 참여 경험은 많지만, 시민사회 단체나 지역사회 모임에 대한 참여는 저조한 특성을 지님.
- 청년들의 참여 관련 법, 정책, 기구에 대한 인지도는 대체로 낮았으며, 공통적으로 여성의 경우,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경우 특히 더 인지도가 낮은 특성을 지님.
- 청년의 정치·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요건으로서 주거 안정, 정책 홍보 강화, 직접 참여 보장, 청년기본법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따라 정책적 욕구에 차이가 있음.
- 연령이 낮을수록, 현재 대학생인 청년들의 경우 중·고등학생 시기의 정치·사회 참여 경험률이 높은 경향이 있으며, 이는 최근 청소년 참여 활동의 확산과 연관된 것으로 해석됨.

본 연구에서는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부가조사로서 청년들의 정치·사회 참여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이에 청년들의 정치·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 정치/사회 참여 경험, 정치/사회 참여 의향, 정치/사회 참여 장애요인, 청년 참여 정책 인지도, 청년 참여 활성화 요인, 이전(중·고등학생 시기) 참여 경험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청년 정치·사회 참여 실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여기에서는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청년들의 정치·사회 경제 실태에 대한 기초분석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설문조사의 일차적인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기본적인 성별, 연령, 최종학력, 현재 상태(취업/미취업/재학 중)에 따라 정치·사회 참여 실태가 어떠한지 함께 살펴보았다.

(1) 정치 문제 관심 정도

청년들이 정치 문제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관심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23.7%('약간 관심이 있다' 20.8%+'매우 관심이 있다' 2.9%)이고 관심이 없다는 응답 비율 42.5%('전혀 관심이 없다' 8.9%+'별로 관심이 없다' 33.6%)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정치 문제에 관심이 있다('약간 관심이 있다'+'매우 관심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여성(20.4%)보다 남성(26.6%)이, 연령대가 높을수록(29세 이하 19.5%, 30세~39세 28.1%), 최종학력이 높을수록(고졸 이하 18.2%, 대학생 21.8%, 대졸 이상 27.4%)에서 비교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술한 결과는 여성, 낮은 연령, 저학력 집단의 경우 정치 문제 관심이 낮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이후 실제 참여율 격차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Ⅳ-6 정치 문제 관심 정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		최종학력			현재상태		
		남자	여자	29세 이하	30세~39세	고졸 이하	대학생	대졸 이상	졸업(취업)	졸업(미취업)	재학중
전혀 관심이 없다	8.9	8.9	8.9	11.2	6.5	15.0	7.8	5.7	9.1	9.6	7.4
별로 관심이 없다	33.6	31.7	35.8	36.1	31.1	39.9	35.8	29.3	32.4	35.5	35.8
보통이다	33.8	32.8	34.8	33.3	34.3	26.8	34.5	37.5	34.3	31.9	33.9
약간 관심이 있다	20.8	22.9	18.4	17.4	24.4	16.9	19.2	23.5	21.4	19.4	20.1
매우 관심이 있다	2.9	3.7	2.0	2.1	3.7	1.3	2.6	3.9	2.7	3.6	2.9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2) 정치 참여 경험

청년의 정치 참여 경험은 제도적 참여 경험과 비제도적 참여 경험 등을 모두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가장 낮은 수준의 참여적 관여 형태에서 참여 항목들을 살펴본 뒤에, 비제도적 참여와 제도적 참여의 순서로 이어서 하나씩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지난 1년 동안 '사회·정치 문제와 관련된 기사, 블로그, 방송, 유튜브를 찾아보는 것'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응답은 48.1%, '참여한 적이 없다'는 51.9%로 비참여율이 조금 더 높았으나, 비교적 비슷한 수준이었다. 참여 횟수로는 '한 달에 1~2회'가 17.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1년에 1~2회(14.7%)', '일주일에 1~2회(12.5%)' 등의 순이었다.

참여한 적이 없다는 응답 비율은 남성이(52.8%)가 여성보다(50.9%) 높았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29세 이하 53.8%, 30세~39세 49.9%), 최종학력이 낮을수록(고졸 이하 58.2%, 대학생 52.0%, 대졸 이상 48.2%)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Ⅳ-7 정치 참여 경험_1) 사회·정치 문제와 관련된 기사, 블로그, 방송, 유튜브 찾아보기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		최종학력			현재상태		
		남자	여자	29세 이하	30세~39세	고졸 이하	대학생	대졸 이상	졸업(취업)	졸업(미취업)	재학중
참여한 적 없음	51.9	52.8	50.9	53.8	49.9	58.2	52.0	48.2	51.8	53.4	50.5
1년에 1~2회	14.7	12.6	17.0	14.7	14.7	13.3	17.2	14.7	13.9	14.1	18.1
한 달에 1~2회	17.2	17.3	17.1	17.7	16.7	15.2	17.1	18.4	17.8	15.3	17.1
일주일에 1~2회	12.5	13.3	11.7	11.0	14.1	10.9	9.8	14.3	12.8	13.7	10.5
거의 매일	3.6	4.0	3.2	2.8	4.6	2.3	3.8	4.4	3.7	3.4	3.9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다음으로 지난 1년 간 '사회·정치 문제에 대해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본 경험이 있는 경우는 58.0%, 그렇지 않은 경우는 42.0%로 참여 경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참여 횟수로는 '한 달에 1~2회'가 27.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1년에 1-2회(19.0%)', '일주일에 1~2회(10.3%)' 등의 순이었다. 참여한 적이 없다는 응답 비율은 연령대가 낮을수록(29세 이하 45.7%, 30세~-39세 38.1%), 최종학력이 낮을수록(고졸 이하 47.9%, 대학생 47.5%, 대졸 이상 36.8%)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Ⅳ-8 정치 참여 경험_2) 사회·정치 문제에 대해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기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		최종학력			현재상태		
		남자	여자	29세 이하	30세~39세	고졸 이하	대학생	대졸 이상	졸업(취업)	졸업(미취업)	재학중
참여한 적 없음	42.0	41.3	42.8	45.7	38.1	47.9	47.5	36.8	40.4	43.6	46.0
1년에 1~2회	19.0	18.1	20.0	19.2	18.8	19.1	18.7	19.0	18.6	20.0	19.4
한 달에 1~2회	27.0	27.8	26.2	25.4	28.7	24.7	24.1	29.3	28.5	24.9	24.4
일주일에 1~2회	10.3	11.1	9.3	8.4	12.3	7.5	7.2	12.9	10.9	10.5	8.0
거의 매일	1.7	1.7	1.6	1.3	2.0	0.7	2.4	2.0	1.7	1.0	2.3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이어서 사회·정치 문제 관련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는 것을 지난 1년 동안 '(1회 이상) 참여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26.2%, '참여한 적이 없다'는 73.8%로 비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참여 횟수로는 '1년에 1-2회'가 13.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한 달에 1-2회(7.8%)', '일주일에 1-2회(3.9%)' 등의 순이었다. 참여한 적이 없다는 응답 비율은 성별과 연령에서는 미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최종학력의 경우 고졸 이하인 집단이 79.3%로 여타 집단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Ⅳ-9 정치 참여 경험_3)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		최종학력			현재상태		
		남자	여자	29세 이하	30세~39세	고졸 이하	대학생	대졸 이상	졸업(취업)	졸업(미취업)	재학중
참여한 적 없음	73.8	74.1	73.4	74.0	73.5	79.3	70.4	71.6	74.6	74.3	70.2
1년에 1~2회	13.4	13.3	13.5	12.9	13.9	9.8	15.9	14.7	12.7	13.3	15.9
한 달에 1~2회	7.8	7.5	8.2	7.4	8.2	6.3	6.7	9.1	8.0	8.1	6.9
일주일에 1~2회	3.9	4.1	3.7	4.4	3.3	3.0	6.2	3.7	3.4	3.6	5.9
거의 매일	1.2	1.1	1.2	1.3	1.1	1.6	0.8	1.0	1.3	0.7	1.1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지난 1년 동안 '뱃지, 팔지, 리본, 스티커 등을 착용/부착'경험과 관련해서는 '(1회 이상) 참여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18.3%, '참여한 적이 없다'는 81.7%로 비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참여 횟수로는 '1년에 1~2회'가 12.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한 달에 1~2회(2.9%)' 등의 순이었다. 참여한 적이 없다는 응답 비율은 여성(79.2%)보다 남성(84.0%)이, 연령대가 높을수록(29세 이하 80.8%, 30세~39세 82.7%) 높게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고졸 이하(87.4%)인 경우가 다른 대학생이나 대졸 이상인 경우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Ⅳ-10 정치 참여 경험_4)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뱃지, 팔찌, 리본, 스티커 등을 착용/부착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		최종학력			현재상태		
		남자	여자	29세 이하	30세~39세	고졸 이하	대학생	대졸 이상	졸업(취업)	졸업(미취업)	재학중
참여한 적 없음	81.7	84.0	79.2	80.8	82.7	87.4	78.1	79.6	82.8	82.6	76.9
1년에 1~2회	12.7	11.5	14.1	12.5	13.0	8.5	14.7	14.6	12.4	11.5	15.4
한 달에 1~2회	2.9	2.4	3.4	3.5	2.2	2.5	3.3	2.9	2.5	3.2	3.7
일주일에 1~2회	1.6	1.4	1.7	2.0	1.1	0.7	2.4	1.8	1.6	0.7	2.3
거의 매일	1.1	0.7	1.6	1.2	1.0	0.9	1.6	1.1	0.7	1.9	1.7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지난 1년 동안 '사회·정치적 이유로 특정 상품을 불매 또는 구매'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27.8%, '참여한 적이 없다'는 72.2%로 비참여율이 다소 높았다. 참여 횟수로는 '1년에 1~2회'가 16.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한 달에 1~2회(6.5%)', '일주일에 1~2회(3.3%)' 등의 순이었다. 참여한 적이 없다는 응답 비율은 여성(68.0%)보다 남성(76.0%)이 높았으며, 연령이 낮을수록(29세 이하 73.7%, 30세-39세 70.7%), 최종 학력이 낮을수록(고졸 이하 80.2%, 대학생 71.5%, 대졸 이상 67.9%) 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Ⅳ-11 정치 참여 경험_5) 사회·정치적 이유로 특정 상품을 불매하거나 구매하기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		최종학력			현재상태		
		남자	여자	29세 이하	30세~39세	고졸 이하	대학생	대졸 이상	졸업(취업)	졸업(미취업)	재학중
참여한 적 없음	72.2	76.0	68.0	73.7	70.7	80.2	71.5	67.9	72.6	71.7	71.6
1년에 1~2회	16.1	14.0	18.4	14.6	17.6	13.2	15.8	17.9	15.2	19.3	15.7
한 달에 1~2회	6.5	5.7	7.3	6.7	6.2	4.2	7.4	7.5	6.8	4.5	7.5
일주일에 1~2회	3.3	2.5	4.1	3.5	3.0	1.3	4.3	4.0	3.4	2.0	4.1
거의 매일	1.9	1.7	2.2	1.5	2.5	1.1	1.0	2.8	2.0	2.4	1.2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지난 1년 동안 의견 제시를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서명에 참여'하는 것을 '(1회 이상) 참여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33.5%, '참여한 적이 없다'는 66.5%로 비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참여 횟수로는 '1년에 1~2회'가 25.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한 달에 1~2회(6.3%)', '일주일에 1~2회(2.0%)' 등의 순이었다. 참여한 적이 없다는 응답 비율에서 눈에 띄는 차이를 살펴보면, 여성(63.1%)보다 남성(69.5%)이, 최종학력이 낮을수록(고졸 이하 77.1%, 대학생 62.3%, 대졸 이상 61.7%) 참여한 적 없다는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표 Ⅳ-12 정치 참여 경험_6) (온·오프라인으로) 서명에 참여하기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		최종학력			현재상태		
		남자	여자	29세 이하	30세~39세	고졸 이하	대학생	대졸 이상	졸업(취업)	졸업(미취업)	재학중
참여한 적 없음	66.5	69.5	63.1	66.9	66.0	77.1	62.3	61.7	67.5	67.8	61.3
1년에 1~2회	25.0	21.9	28.4	24.5	25.5	17.8	27.7	28.3	24.2	24.5	28.5
한 달에 1~2회	6.3	6.1	6.5	6.2	6.3	3.4	6.3	7.9	6.3	5.8	6.8
일주일에 1~2회	2.0	2.2	1.7	2.0	2.0	1.3	2.7	2.2	2.0	1.5	2.6
거의 매일	0.3	0.3	0.2	0.4	0.2	0.4	1.0	0.0	0.1	0.3	0.9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의견 제시를 위해 '집회 및 시위 참여'를 통하여 지난 1년 동안 '(1회 이상) 참여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8.9%, '참여한 적이 없다'는 91.1%로 나타났다. 앞서 개별적인 참여보다는 조직/단체의 성격이 있는 '집회 및 시위 참여'의 경우 비참여율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참여 횟수로는 '1년에 1~2회'가 6.4%로 가장 많았다. 참여한 적이 없다는 응답 비율은 여성(92.2%)이 남성(90.1%)보다 좀 더 높았고, 현재 졸업 상태인 응답자(졸업(취업) 91.8%, 졸업(미취업) 93.5%, 재학중 86.1%)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Ⅳ-13 정치 참여 경험_7)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		최종학력			현재상태		
		남자	여자	29세 이하	30세~39세	고졸 이하	대학생	대졸 이상	졸업(취업)	졸업(미취업)	재학중
참여한 적 없음	91.1	90.1	92.2	90.8	91.4	93.5	86.2	91.2	91.8	93.5	86.1
1년에 1~2회	6.4	6.7	6.2	6.5	6.4	4.3	10.8	6.3	5.6	4.7	11.1
한 달에 1~2회	1.8	2.3	1.2	2.1	1.5	1.5	2.5	1.8	1.9	1.1	2.3
일주일에 1~2회	0.6	0.7	0.4	0.4	0.7	0.5	0.1	0.7	0.6	0.7	0.1
거의 매일	0.1	0.2	0.0	0.1	0.1	0.2	0.4	0.0	0.1	0.0	0.3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다음으로 지난 1년 동안 의견 제시를 위해 '항의 전화하기'의 경험이 있는 청년 비율은 10.1%이며, '참여한 적이 없다'는 비율은 89.9%로 나타났다. 다른 비제도적 참여보다는 참여율이 낮았으나, 앞서 '집회 및 시위 참여'보다는 좀 더 높은 참여율을 나타내었다. 참여 횟수로는 '1년에 1~2회'가 7.7%로 가장 많았다. 다른 참여 항목에 비해 성별이나 연령, 최종학력, 현재 상태 등에 따라 참여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비교적 고르게 나타난 경향이 있었다.

표 Ⅳ-14 정치 참여 경험_8) 항의 전화하기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		최종학력			현재상태		
		남자	여자	29세 이하	30세~39세	고졸 이하	대학생	대졸 이상	졸업(취업)	졸업(미취업)	재학중
참여한 적 없음	89.9	90.3	89.5	89.8	90.0	91.0	89.1	89.5	90.5	89.4	88.6
1년에 1~2회	7.7	7.0	8.6	7.4	8.1	6.6	8.3	8.2	6.9	9.4	8.9
한 달에 1~2회	1.7	2.1	1.3	1.9	1.5	1.9	1.7	1.6	2.0	0.9	1.7
일주일에 1~2회	0.4	0.5	0.4	0.7	0.1	0.3	0.4	0.6	0.5	0.3	0.4
거의 매일	0.2	0.1	0.2	0.1	0.2	0.1	0.5	0.1	0.1	0.0	0.4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개인 의견을 표한하기 위해 정치인이나 공무원(민원) 또는 언론기관에 접촉’한 경험을 조사한 결과, 지난 1년 동안 ‘(1회 이상) 참여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13.5%인 것에 비해 ‘참여한 적이 없다’는 86.5%로 높게 나타났다. 참여 횟수로는 ‘1년에 1~2회’가 9.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한 달에 1~2회(3.2%)’ 등의 순이었다. 참여한 적이 없다는 응답 비율은 최종학력이 낮을수록(고졸 이하 90.0%, 대학생 85.2%, 대졸 이상 84.8%) 비교적 높은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표 Ⅳ-15 정치 참여 경험_9)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정치인이나 공무원(민원) 또는 언론기관에 접촉하기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		최종학력			현재상태		
		남자	여자	29세 이하	30세~39세	고졸 이하	대학생	대졸 이상	졸업(취업)	졸업(미취업)	재학중
참여한 적 없음	86.5	86.1	86.9	87.0	85.9	90.0	85.2	84.8	86.3	88.0	85.2
1년에 1~2회	9.4	8.7	10.1	8.9	9.8	6.2	11.6	10.5	8.7	9.2	11.8
한 달에 1~2회	3.2	4.0	2.4	3.1	3.3	3.0	2.1	3.7	3.8	2.4	2.0
일주일에 1~2회	0.8	1.1	0.5	0.9	0.8	0.5	1.0	0.9	0.9	0.4	0.9
거의 매일	0.2	0.1	0.2	0.1	0.2	0.2	0.2	0.1	0.2	0.0	0.2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다음으로 제도적 참여로서 청년들의 정당 활동을 살펴보았는데,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기 위해 정당에 가입 또는 기부’를 한 경험이 있는 경우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지난 1년 동안 ‘(1회 이상) 참여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10.9%, ‘참여한 적이 없다’는 89.1%로 나타났다. 참여 횟수로는 ‘1년에 1~2회’가 7.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한 달에 1~2회(2.4%)’ 등의 순이었다. 참여한 적이 없다는 응답 비율은 학력에 따라 다소 눈에 띄는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최종 학력이 낮을수록(고졸 이하 92.6%, 대학생 88.0%, 대졸 이상 87.4%)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Ⅳ-16 정치 참여 경험_10)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기 위해 정당에 가입하거나 기부하기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		최종학력			현재상태		
		남자	여자	29세 이하	30세~39세	고졸 이하	대학생	대졸 이상	졸업(취업)	졸업(미취업)	재학중
참여한 적 없음	89.1	88.4	89.9	89.3	88.9	92.6	88.0	87.4	88.8	90.5	88.5
1년에 1~2회	7.8	8.1	7.4	7.8	7.8	5.2	9.8	8.6	7.3	7.9	9.4
한 달에 1~2회	2.4	2.9	1.9	2.2	2.7	1.9	1.7	3.0	2.9	1.5	1.6
일주일에 1~2회	0.5	0.5	0.6	0.6	0.4	0.2	0.3	0.8	0.8	0.0	0.2
거의 매일	0.2	0.2	0.2	0.1	0.2	0.1	0.3	0.2	0.2	0.0	0.3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다음으로 최근 지자체별로 청년 참여기구가 늘어나면서 관련 경험을 조사하였다. 지난 1년 동안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의회 등 청년 참여기구 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청년은 전체의 9.0%이었으며, '참여한 적이 없다'는 청년은 91.0%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청년 참여기구와 관련한 활동을 하는 청년들은 매우 일부이며, 다수의 청년들은 이러한 활동 경험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참여 횟수로는 '1년에 1~2회'가 6.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한 달에 1~2회(2.5%)' 등의 순이었다. 참여한 적이 없다는 응답 비율은 연령이 높을수록(29세 이하 89.9%, 30세~39세 92.2%), 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인 응답자(고졸 이하 93.5%, 대학생 87.8%, 대졸 이상 90.6%)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Ⅳ-17 정치 참여 경험_11) 청년 참여기구(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의회 등) 활동하기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		최종학력			현재상태		
		남자	여자	29세 이하	30세~39세	고졸 이하	대학생	대졸 이상	졸업(취업)	졸업(미취업)	재학중
참여한 적 없음	91.0	90.9	91.2	89.9	92.2	93.5	87.8	90.6	90.8	94.4	88.2
1년에 1~2회	6.0	6.0	6.1	7.0	4.9	4.3	10.0	5.8	5.4	4.8	9.7
한 달에 1~2회	2.5	2.7	2.3	2.7	2.3	2.0	2.1	3.0	3.3	0.6	1.9
일주일에 1~2회	0.4	0.3	0.4	0.4	0.4	0.1	0.1	0.6	0.5	0.2	0.1
거의 매일	0.0	0.1	0.0	0.0	0.1	0.1	0.0	0.0	0.1	0.0	0.0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마지막으로 청년들의 제도적 참여로서 대표적인 투표율을 살펴보았는데, 선거권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투표 참여 여부를 분석하였다. 2017년(제 19대) 대통령 선거 투표에 '참여했다'는 응답은 88.1%, 2018년(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 했다'는 응답은 76.6%로 나타났다. 최근 2번의 선거 모두 연령대가 높을수록, 대졸 이상인 경우, 졸업 중인 응답자의 투표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표 Ⅳ-18 정치 참여 경험_12) 투표 참여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		최종학력			현재상태		
		남자	여자	29세 이하	30세~39세	고졸 이하	대학생	대졸 이상	졸업(취업)	졸업(미취업)	재학중
2017년(제19대) 대통령 선거	88.1	87.7	88.7	81.7	93.7	81.2	78.1	93.8	89.5	89.0	79.3
2018년(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76.6	77.3	75.7	66.6	86.0	68.2	60.1	85.3	80.4	74.6	62.5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1) 각 선거별 선거연령 대상자들 중에서 참여한 비율
2) 2017년(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권 연령 기준은 1998년 5월 10일 이전 출생자이며, 2018년(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권 연령 기준은 1993년 6월 14일 이전 출생자임.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각 항목별로 종합해보면, 참여적 관여 형태인 수동적인 참여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률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내었으나, 제도적 참여의 성격을 지닐수록 참여율은 낮은 경향이 이었다. 또한 개별적인 특성이 있는 정치 참여 경험은 높은 반면, 조직적이거나 단체의 성격을 지닌 참여 경험 비율은 낮았다. 대체로 여성보다는 남성이 참여율이 높고, 고학력이거나 높은 연령대인 경우에 참여율이 높은 경향성이 있었으나, 참여 항목별로 일부 차이가 있었다. 전술한 결과는 청년의 참여 형태가 다층적인 성격을 지닐 수 있으며, 성별이나 연령, 학력, 현재 상태 등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따라 이러한 참여 유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3) 정치 참여 이유

지난 1년 동안 정치 참여의 다양한 항목들 가운데 1가지 이상 참여해 본 청년들을 대상으로 참여를 하게 된 이유를 물어본 결과, 참여 동기는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32.2%)'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청년들의 권리나 이익을 높이기 위해(20.8%)', '정치·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2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가족, 친구, 지인 등의 권유로(15.3%)', '참여활동 자체에 대한 관심이 많고 좋아서(7.9%)', '나의 진로나 스펙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3.3%)' 순이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 참여했다는 응답 비율은 연령대가 높을수록(29세 이하 27.3%, 30~39세 37.0%) 높은 반면, '청년들의 권리나 이익을 높이기 위해' 참여했다는 응답 비율은 연령대가 낮을수록(29세 이하 26.8%, 30~39세 14.8%) 상대적으로 높았다. '정치·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참여하였다는 응답은 남성(23.4%)가 여성(16.3%)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29세 이하 16.4%, 30~39세 23.6%)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Ⅳ-19 정치·사회 참여 이유

(단위: %)

구분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	청년들의 권리나 이익을 높이기 위해	정치·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가족, 친구, 지인 등의 권유로	참여활동 자체에 대한 관심이 많고 좋아서	나의 진로나 스펙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기타
전체		32.2	20.8	20.0	15.3	7.9	3.3	0.5
성별	남자	30.8	22.1	23.4	12.9	7.4	3.1	0.2
	여자	33.7	19.3	16.3	17.9	8.4	3.5	0.9
연령	29세 이하	27.3	26.8	16.4	17.8	7.4	3.5	0.8
	30~39세	37.0	14.8	23.6	12.9	8.4	3.1	0.3
최종 학력	고졸 이하	31.1	22.8	16.0	18.4	7.8	3.9	0.1
	대학생	28.6	21.4	18.5	19.1	7.6	4.4	0.5
	대졸 이상	33.8	19.6	22.5	12.7	8.0	2.7	0.7
현재 상태	졸업(취업)	33.7	20.4	21.0	14.2	7.1	3.3	0.2
	졸업(미취업)	30.9	21.4	17.1	15.9	11.3	1.9	1.5
	재학중	28.2	21.2	19.7	18.6	7.1	4.8	0.4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정치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4) 정치 참여 의향

청년들의 향후 정치 참여 의향을 각 참여 항목별로 조사하였다. 총 12개의 항목을 조사하였는데,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의 핵심지표에 반영된 의견표명행동으로서 이미 5개 항목은 앞서 3절에서 소개되어, 나머지 7개 참여 항목에 대해서만 분석하도록 하겠다. 먼저, 사회·정치 문제와 관련된 기사, 블로그, 방송, 유튜브 찾아보기를 하겠다는 응답은 29.4%('아마도 참여함' 23.7%+'확실히 참여함' 5.7%)이었고 47.5%('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24.9%+'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22.6%)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응답해 참여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회·정치 문제에 대해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기를 통해 향후 의견 제시를 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27.0%('아마도 참여함' 23.5%+'확실히 참여함' 3.5%)이었고 43.9%('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21.7%+'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22.2%)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수준이 수동적인 관여형태의 참여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사회·정치적 이유로 특정 상품을 불매 또는 구매를 통해 자신의 의견 나타내겠다는 응답 비율은 18.3%('아마도 참여함' 14.8%+'확실히 참여함' 3.5%), 그렇지 않겠다는 응답은 61.6%('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32.9%+'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28.7%)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정치인이나 공무원(민원) 또는 언론기관 접촉하겠다는 응답 비율은 4.9%('아마도 참여함' 4.4%+'확실히 참여함' 0.5%)에 불과하였고,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비율은 81.5%('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42.4%+'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39.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정 정당, 정치인을 지지하기 위해 정당에 가입 또는 기부를 통해 향후 의견 제시를 하겠다는 응답 비율도 앞선 결과와 유사했다. 청년 전체의 3.5%('아마도 참여함' 3.0%+'확실히 참여함' 0.5%)만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내었으며,

83.3%(‘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47.4%+‘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35.9%)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여,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상당히 높았다. 이처럼 제도적 참여의 참여 의향은 낮은 경향성을 나타내었는데, 청년 참여기구(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의회 등) 활동에 참여하겠다는 응답 비율도 3.4%(‘아마도 참여함’ 3.0%+‘확실히 참여함’ 0.4%)로 낮았고, 청년의 81.9%(‘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43.6%+‘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38.3%)는 청년 참여기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을 나타내었다.

다만, 제도적 참여로서 향후 투표 참여 의향은 비교적 높은 참여율을 나타내었다. 전체 청년 중 69.3%(‘아마도 참여함’ 40.1%+‘확실히 참여함’ 29.2%)는 투표하겠다고 응답하였고, 투표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17.1%(‘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9.6%+‘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7.5%)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제시된 12개 참여 항목 중에서 유일하게 향후 참여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 비율에 비해 높은 것이었다. 전술한 결과는 정치 참여 경험에 대하여 항목별로 분석한 결과와도 유사한 것이다. 그리하여 투표를 제외한 제도적 참여 성격의 항목에 대해서는 향후 참여 의사가 저조하였으며, 조직/단체 성격을 지닌 정치 참여 항목에 대해서도 참여 의사가 낮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표 Ⅳ-20 정치·사회 참여 의향

(단위: %)

구분	사회·정치 문제와 관련된 기사, 블로그 방송, 유튜브 찾아보기	사회·정치 문제에 대해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 하기	사회·정치적 이유로 특정 상품을 불매 하거나 구매하기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정치인 이나 공무원 (민원) 또는 언론 기관에 접촉하기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기 위해 정당에 가입 하거나 기부하기	청년 참여 기구 (청년정책 위원회, 청년정책 네트워크, 청년의회 등) 활동하기	투표에 참여하기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24.9	21.7	32.9	42.4	47.4	43.6	9.6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22.6	22.2	28.7	39.1	35.9	38.3	7.5
보통이다	23.2	29.1	20.1	13.6	13.2	14.7	13.6
아마도 참여함	23.7	23.5	14.8	4.4	3.0	3.0	40.1
확실히 참여함	5.7	3.5	3.5	0.5	0.5	0.4	29.2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5)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어렵게 하는 이유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이유를 조사한 결과, '정치 문제에 관심이 없어서(34.8%)'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청년 참여에 정치·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이 일차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청년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정치·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정치 문제들이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아서(23.0%)' 등의 순으로 나타나, 청년들이 정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효능감이 낮고,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감이 높은 것도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그 외에 '정부 및 국회, 공공기관에 대해 신뢰하지 않아서(15.9%)', '정치 문제들을 이해하기 어려워서(9.1%)', '시간이 부족해서(8.9%)' 순으로 나타났다.

‘정치 문제에 관심이 없어’ 참여가 어렵다는 응답 비율은 연령대가 낮을수록(29세 이하 40.2%, 30~39세 29.2%), 졸업자 보다는 재학 중인 청년들이(졸업(취업) 32.4%, 졸업(미취업)36.1%, 재학 중 42.2%) 높게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젊은 청년들이 앞서 정치·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낮았던 결과와도 일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정치 문제들이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나 ‘정부 및 국회, 공공기관에 대해 신뢰하지 않아서’라는 응답 비율은 공통적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학력이 대졸 이상인 응답자에서 높게 나타난 경향이 있었다. 이처럼 청년 집단 내부에서도 연령대와 최종학력, 현재 상태에 따라 정치 참여가 어려운 이유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표 Ⅳ-21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어렵게 하는 이유

(단위: %)

구분		정치 문제에 관심이 없어서	정치 문제들이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정부 및 국회, 공공기관에 대해 신뢰하지 않아서	정치 문제들을 이해하기 어려워서	시간이 부족해서	청년의 정치 참여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나의 진로나 스펙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전체		34.8	23.0	15.9	9.1	8.9	4.5	3.8
성별	남자	33.9	23.1	16.5	7.5	10.2	4.6	4.2
	여자	35.9	23.0	15.2	10.9	7.5	4.4	3.3
연령	29세 이하	40.2	20.4	12.6	9.4	8.3	4.7	4.4
	30~39세	29.2	25.8	19.3	8.7	9.5	4.3	3.1
최종학력	고졸 이하	38.6	21.5	13.9	9.2	9.0	4.2	3.6
	대학생	42.6	18.5	11.4	9.9	8.7	5.5	3.3
	대졸 이상	30.2	25.3	18.5	8.8	8.9	4.4	4.0
현재상태	졸업(취업)	32.4	24.6	16.8	7.8	10.2	4.2	4.0
	졸업(미취업)	36.1	22.2	17.1	11.9	5.5	4.4	2.8
	재학중	42.2	18.3	11.4	10.3	8.4	5.7	3.8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6) 사회 참여 경험

본 연구에서는 청년들의 정치 참여 이외에도, 단체(모임) 활동과 같은 사회 참여 경험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 단체(모임) 활동 중 여가활동(취미 및 스포츠) 모임에 지난 1년 동안 '(1회 이상) 참여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51.4%, '참여한 적이 없다'는 48.6%로 참여 비율과 비참여 비율에 큰 차이가 없었다. 참여 횟수로는 '한 달에 1~2회'가 20.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일주일에 1~2회(14.6%)', '1년에 1~2회(13.9%)' 등의 순이었다. 참여한 적이 없다는 응답 비율은 남성(42.4%)보다 여성(55.4%)이, 현재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응답자(졸업(취업) 47.0%, 졸업(미취업) 55.5%, 재학중 46.3%)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Ⅳ-22 사회 참여 경험_1) 여가활동(취미 및 스포츠) 모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		최종학력			현재상태		
		남자	여자	29세 이하	30세-39세	고졸 이하	대학생	대졸 이상	졸업(취업)	졸업(미취업)	재학중
참여한 적 없음	48.6	42.4	55.4	47.7	49.4	51.8	46.3	47.4	47.0	55.5	46.3
1년에 1~2회	13.9	14.0	13.7	13.3	14.5	15.3	11.2	13.9	14.6	13.1	12.1
한 달에 1~2회	20.4	23.5	16.8	21.0	19.8	19.6	22.6	20.1	21.7	15.4	21.3
일주일에 1~2회	14.6	17.2	11.8	14.7	14.5	11.6	15.7	16.0	14.9	12.4	16.1
거의 매일	2.6	2.8	2.3	3.3	1.8	1.7	4.1	2.6	1.8	3.6	4.2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다음으로 친목 및 친교(동창, 향우회 등) 모임에 지난 1년 동안 '(1회 이상) 참여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74.6%, '참여한 적이 없다'는 25.4%로 참여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참여 횟수로는 '한 달에 1-2회'가 39.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1년에 1~2회(22.2%)', '일주일에 1-2회(11.9%)' 등의 순이었

다. 참여한 적이 없다는 응답 비율은 여성(28.1%)이 남성(23.0%)보다 높았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29세 이하 28.7%, 30세~39세 21.9%) 높은 경향이 있었다.

표 Ⅳ-23 사회 참여 경험_2) 친목 및 친교(동창, 향우회 등) 모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		최종학력			현재상태		
		남자	여자	29세 이하	30세~39세	고졸 이하	대학생	대졸 이상	졸업(취업)	졸업(미취업)	재학중
참여한 적 없음	25.4	23.0	28.1	28.7	21.9	26.7	34.0	21.9	21.7	30.2	32.9
1년에 1~2회	22.2	22.5	21.9	17.0	27.7	21.9	13.7	25.1	24.0	22.6	15.3
한 달에 1~2회	39.9	40.1	39.7	38.3	41.6	39.9	34.9	41.5	42.4	36.5	34.8
일주일에 1~2회	11.9	13.6	10.0	15.0	8.5	10.7	15.6	11.4	11.5	10.1	15.3
거의 매일	0.6	0.9	0.3	1.0	0.2	0.8	1.8	0.2	0.4	0.6	1.7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자기계발 모임 및 그룹 스터디 참여 경험도 조사하였는데, 지난 1년 동안 '(1회 이상) 참여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25.1%, '참여한 적이 없다'는 74.9%로 나타났다. 참여 횟수로는 '한 달에 1~2회'가 10.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1년에 1~2회(9.8%)', '일주일에 1~2회(5.0%)' 등의 순이었다.

참여한 적이 없다는 응답 비율은 연령대가 높을수록(29세 이하 70.2%, 30세~39세 79.9%), 최종학력 고졸 이하 응답자(고졸 이하 87.9%, 대학생 56.6%, 대졸 이상 73.2%)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Ⅳ-24 사회 참여 경험_3) 자기계발 모임 및 그룹 스터디 모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		최종학력			현재상태		
		남자	여자	29세 이하	30세~39세	고졸 이하	대학생	대졸 이상	졸업(취업)	졸업(미취업)	재학중
참여한 적 없음	74.9	74.9	74.9	70.2	79.9	87.9	56.6	73.2	79.3	77.8	56.0
1년에 1~2회	9.8	9.5	10.1	9.6	10.1	5.5	10.6	12.1	9.8	9.1	10.8
한 달에 1~2회	10.2	10.2	10.2	13.4	6.9	4.4	22.3	9.8	7.7	7.1	22.5
일주일에 1~2회	5.0	5.2	4.7	6.7	3.1	2.1	10.3	4.9	3.1	6.0	10.4
거의 매일	0.1	0.1	0.1	0.2	0.0	0.1	0.2	0.1	0.1	0.0	0.3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종교모임에 지난 1년 동안 '(1회 이상) 참여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15.9%, '참여한 적이 없다'는 84.1%로 비참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참여 횟수로는 '일주일에 1~2회'가 7.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한달에 1~2회(4.0%)', '1년에 1~2회(3.4%)' 등의 순이었다.

종교모임에 참여한 적이 없다는 응답 비율은 여성(81.0%)보다 남성(86.8%)이, 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86.9%) 여타 집단(대학생 81.3%, 대졸 이상 83.3%)에 비해 비교적 낮은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현재 졸업 후 취업 상태인 응답자(졸업(취업) 85.7%)가 다른 집단(졸업(미취업) 81.0%, 재학중 81.8%)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Ⅳ-25 사회 참여 경험_4) 종교모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		최종학력			현재상태		
		남자	여자	29세 이하	30세~39세	고졸 이하	대학생	대졸 이상	졸업(취업)	졸업(미취업)	재학중
참여한 적 없음	84.1	86.8	81.0	84.7	83.4	86.9	81.3	83.3	85.7	81.0	81.8
1년에 1~2회	3.4	3.1	3.8	3.1	3.7	3.0	4.5	3.3	3.0	3.9	4.2
한 달에 1~2회	4.0	3.6	4.4	4.6	3.3	3.9	4.3	3.9	3.9	3.8	4.6
일주일에 1~2회	7.8	5.8	10.1	7.1	8.6	5.6	8.8	8.8	6.6	11.1	8.3
거의 매일	0.8	0.8	0.7	0.6	0.9	0.6	1.2	0.8	0.9	0.2	1.1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단체(모임) 활동 중 시민사회 단체(NGO, NPO) 활동 경험도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 시민사회 단체에 지난 1년 동안 '(1회 이상) 참여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3.8%로 낮게 나타났는데, '참여한 적이 없다'는 96.2%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정치·사회 문제와 관련되어 조직/단체 성격 참여 항목에서 청년들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참여 횟수로는 '1년에 1~2회'가 2.3%로 가장 많았다. 성별, 연령, 학력, 현재 상태 등에 따른 참여율에서 눈에 띄는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Ⅳ-26 사회 참여 경험_5) 시민사회 단체(NGO, NPO 등)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		최종학력			현재상태		
		남자	여자	29세 이하	30세~39세	고졸 이하	대학생	대졸 이상	졸업(취업)	졸업(미취업)	재학중
참여한 적 없음	96.2	96.1	96.3	96.5	95.9	97.5	95.4	95.8	96.2	97.1	95.2
1년에 1~2회	2.3	2.1	2.5	2.1	2.5	0.9	4.2	2.5	1.8	2.1	4.3
한 달에 1~2회	0.9	1.0	0.8	0.9	0.9	1.4	0.4	0.9	1.2	0.5	0.3
일주일에 1~2회	0.3	0.4	0.3	0.2	0.5	0.2	0.0	0.5	0.5	0.3	0.0
거의 매일	0.2	0.3	0.1	0.2	0.2	0.1	0.1	0.3	0.3	0.0	0.1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지역사회 모임(반상회, 주민협회 등)에 지난 1년 동안 '(1회 이상) 참여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5.7%로, 앞서 시민사회 단체 참여율과 유사하게 낮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참여 횟수로는 '1년에 1~2회'가 3.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한 달에 1~2회(1.5%)' 등의 순이었다.

참여한 적이 없다는 응답 비율은 연령대가 낮을수록(29세 이하 97.1%, 30세~39세 91.3%) 높게 나타났으며, 이와 유사하게 현재 재학 중인 응답자(졸업(취업) 94.5%, 졸업(미취업) 91.0%, 재학중 97.2%)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표 Ⅳ-27 사회 참여 경험_6) 지역사회 모임(반상회, 주민협회 등)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		최종학력			현재상태		
		남자	여자	29세 이하	30세~39세	고졸 이하	대학생	대졸 이상	졸업(취업)	졸업(미취업)	재학중
참여한 적 없음	94.3	95.4	93.0	97.1	91.3	95.4	97.4	92.7	94.5	91.0	97.2
1년에 1~2회	3.7	2.9	4.5	1.6	5.8	2.7	2.1	4.7	3.3	6.0	2.3
한 달에 1~2회	1.5	0.9	2.2	0.9	2.2	1.8	0.2	1.8	1.5	2.9	0.2
일주일에 1~2회	0.3	0.4	0.2	0.2	0.4	0.1	0.0	0.5	0.5	0.1	0.0
거의 매일	0.2	0.3	0.1	0.2	0.2	0.0	0.3	0.3	0.3	0.0	0.3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다음으로 학술단체에 지난 1년 동안 '(1회 이상) 참여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5.4%, '참여한 적이 없다'는 94.6%로 낮은 참여율을 나타냈다. 참여 횟수로는 '1년에 1~2회'가 3.5%로 가장 많았다. 참여한 적이 없다는 응답 비율에서 학력에 따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단체(모임)의 학술적인 특성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로 사료된다. 그리하여 고졸 이하인 응답자(고졸 이하 97.9%, 대학생 91.6%, 대졸 이상 93.6%)의 경우 비참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Ⅳ-28 사회 참여 경험_7) 학술단체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		최종학력			현재상태		
		남자	여자	29세 이하	30세~39세	고졸 이하	대학생	대졸 이상	졸업(취업)	졸업(미취업)	재학중
참여한 적 없음	94.6	94.8	94.3	94.6	94.6	97.9	91.6	93.6	95.0	96.7	90.7
1년에 1~2회	3.5	2.9	4.3	3.3	3.8	1.2	5.8	4.2	3.3	1.6	6.5
한 달에 1~2회	1.3	1.5	1.1	1.5	1.2	0.7	2.1	1.5	1.1	1.1	2.3
일주일에 1~2회	0.4	0.6	0.1	0.5	0.3	0.1	0.3	0.6	0.4	0.6	0.3
거의 매일	0.2	0.2	0.1	0.1	0.3	0.1	0.1	0.2	0.2	0.0	0.1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마지막으로 기타(노동조합, 이익 단체 등)에 지난 1년 동안 '(1회 이상) 참여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3.6%, '참여한 적이 없다'는 96.4%로 낮은 참여율을 나타냈다. 참여 횟수로는 '1년에 1~2회'가 2.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한 달에 1~2회(0.9%)' 등의 순이었다. 참여한 적이 없다는 응답 비율은 현재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응답자(졸업(취업) 95.6%, 졸업(미취업) 98.8%, 재학중 96.8%)가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예시로서 거론된 노동조합의 경우 취업하지 않은 청년들이 해당되지 않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참여율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표 Ⅳ-29 단체 참여 경험_8) 기타(노동조합, 이익 단체 등)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		최종학력			현재상태		
		남자	여자	29세 이하	30세~39세	고졸 이하	대학생	대졸 이상	졸업(취업)	졸업(미취업)	재학중
참여한 적 없음	96.4	96.1	96.9	96.8	96.1	97.3	97.0	95.8	95.6	98.8	96.8
1년에 1~2회	2.2	2.2	2.1	1.8	2.5	1.7	2.6	2.3	2.4	0.9	2.9
한 달에 1~2회	0.9	1.1	0.5	0.7	1.0	0.7	0.2	1.1	1.3	0.1	0.2
일주일에 1~2회	0.3	0.3	0.4	0.6	0.1	0.2	0.0	0.5	0.5	0.2	0.0
거의 매일	0.2	0.3	0.1	0.1	0.3	0.1	0.1	0.3	0.3	0.0	0.1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앞서 거론된 다양한 사회 참여 항목들을 종합해보면, 단체(모임)의 특성이나 성격에 따라 참여 양상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년들의 경우 취미나 스포츠와 같은 여가활동 모임과 동창이나 향우회 등의 친목 및 친교 모임에는 비교적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민사회 단체나 지역사회 모임에는 대체로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신의 개인적인 즐거움이나 인맥 쌓기, 개인적인 역량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비롯된 단체(모임) 활동에는 적극적이지만, 사회적 문제나 지역사회 문제 등과 관련된 단체(모임)의 참여에는 소극적인 특성을 지녔다. 한편, 이러한 사회 참여는 성별, 연령대별, 학력별, 현재 상태에 따라 참여율에 차이가 있었는데, 이러한 경향성이 일관적이지 않고 단체(모임)의 성격에 따라 각각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7) 사회 참여 이유

지난 1년 동안 1가지 이상의 단체(모임)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단체(모임) 참여를 하게 된 이유를 물어보았다. 그 결과, '참여활동 자체에 관심이 많고 좋아서(28.0%)'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인맥을 쌓기 위해서(26.9%)', '개인적인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18.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가족, 친구, 지인 등의 권유로(15.6%)', '나의 진로나 스펙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6.7%)',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4.2%)' 순으로 나타났다. 전술한 결과는 앞서 사회 참여 경험 결과와도 유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하여 청년들의 대다수는 활동 자체가 즐거움과 인맥을 쌓고, 개인적인 능력을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단체(모임)에 참여하고 있으며, 여가활동 모임이나 친교 모임, 자기계발을 위한 모임에는 비교적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참여 이유의 항목별로 살펴보면, '참여활동 자체에 관심이 많고 좋아서' 참여했다는 응답 비율은 남성(27.0%)보다 여성(29.3%)이, 최종학력이 대졸 이상인 응

답자(고졸 이하 24.6%, 대학생 25.6%, 대졸 이상 30.6%)에서 높은 반면, '인맥을 쌓기 위해서' 참여 했다는 응답 비율은 여성(22.9%)보다 남성(30.3%)이, 연령대가 높을수록(29세 이하 25.4%, 30~39세 28.3%), 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인 응답자(고졸 이하 34.0%, 대학생 18.9%, 대졸 이상 25.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Ⅳ-30 사회 참여 이유

(단위: %)

구분		참여활동 자체에 관심이 많고 좋아서	인맥을 쌓기 위해서	개인적인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가족, 친구, 지인 등의 권유로	나의 진로나 스펙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
전체		28.0	26.9	18.6	15.6	6.7	4.2
성별	남자	27.0	30.3	17.9	13.5	7.3	4.0
	여자	29.3	22.9	19.4	18.1	5.9	4.5
연령	29세 이하	28.3	25.4	19.3	15.1	8.8	3.0
	30~39세	27.8	28.3	18.0	16.1	4.5	5.4
최종학력	고졸 이하	24.6	34.0	14.6	18.6	4.2	4.0
	대학생	25.6	18.9	20.6	13.8	16.3	4.6
	대졸 이상	30.6	25.3	20.2	14.5	5.2	4.2
현재상태	졸업(취업)	27.7	30.1	18.9	14.2	4.6	4.4
	졸업(미취업)	30.9	23.2	15.4	21.7	5.5	3.3
	재학중	26.1	18.6	21.1	14.0	15.7	4.4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1) 사회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8) 사회 참여 의향

청년들의 향후 단체 및 모임 참여 의향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친목 및 친교(동창, 향우회 등) 모임'에 참여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63.8%('아마도 참여함' 49.6%+'확실히 참여함' 1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여가 활동(취

미 및 스포츠) 모임이 59.2%('아마도 참여함 47.2%+'확실히 참여함' 12.0%)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자기계발 모임 및 그룹스터디(26.6%), 종교모임(11.8%), 학술단체(4.5%), 지역사회모임(3.5%), 시민사회단체(2.7%), 기타(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년간의 청년 사회 참여 경험에 대한 응답 결과와도 대체로 유사한 결과로서, 여가 및 친목 위주의 사회 참여 의향은 높지만, 시민사회 단체나 지역사회 모임에 대한 참여 의향은 저조한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표 Ⅳ-31 사회 참여 의향

(단위: %)

구분	여가 활동 모임 (취미 및 스포츠)	친목 및 친교 모임 (동창, 향우회 등)	자기 계발 모임 및 그룹 스터디	종교 모임	시민 사회 단체 (NGO, NPO 등)	지역 사회 모임 (반상회, 주민협회 등)	학술 단체	기타 (노동 조합, 이익 단체 등)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7.0	6.7	23.1	49.1	55.3	52.7	54.2	56.7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12.6	9.5	23.1	27.7	31.9	30.7	30.2	30.7
보통이다	21.2	20.0	27.1	11.4	10.1	13.1	11.0	10.3
아마도 참여함	47.2	49.6	23.1	6.8	2.5	3.2	4.0	2.1
확실히 참여함	12.0	14.2	3.5	5.0	0.2	0.3	0.5	0.2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9) 청년들의 사회 참여를 어렵게 하는 이유

청년들의 단체 및 모임 참여를 어렵게 하는 이유에 대하여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시간이 부족해서(28.8%)'라는 응답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2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단체 (모임)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9.7%)' '주변에 원하는 단체 (모임)가 없어서(9.6%)' '나의 진로나 스펙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8.8%)' 등의 응답도 확인할 수 있었다.

시간이 부족해서 참여가 어렵다는 응답 비율은 졸업 후 취업 상태인 응답자가(졸업(취업) 31.6%, 졸업(미취업) 24.2%, 재학중 24.4%) 높은 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라는 응답 비율은 현재 졸업 상태인 응답자(졸업(취업) 23.0%, 졸업(미취업) 28.4%, 재학중 19.8%)에서 높게 나타나 졸업, 취업 등 현재 상태에 따라 참여가 어려운 이유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취업 여부가 물리적인 시간이나 경제적인 여건에 차이를 발생시키고, 이것이 청년들의 사회 참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Ⅳ-32 청년들의 사회 참여를 어렵게 하는 이유

(단위: %)

구분		시간이 부족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단체(모임)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주변에 원하는 단체(모임)가 없어서	나의 진로나 스펙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부담 되어서	청년의 사회 참여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같이 참여할 사람이 없어서	기타
전체		28.8	23.5	9.7	9.6	8.8	7.2	6.9	5.1	0.3
성별	남자	30.5	24.2	9.4	9.0	8.8	5.7	7.5	4.6	0.3
	여자	27.0	22.7	10.0	10.2	8.9	9.0	6.3	5.7	0.2
연령	29세 이하	27.8	22.7	10.2	9.6	9.0	7.6	7.3	5.5	0.1
	30~39세	29.9	24.4	9.1	9.5	8.6	6.9	6.6	4.7	0.4
최종학력	고졸 이하	28.5	26.6	9.0	9.3	8.8	6.7	6.2	4.5	0.4
	대학생	23.2	20.5	13.6	11.4	9.3	7.1	7.2	7.7	0.0
	대졸 이상	30.9	22.7	8.8	9.2	8.7	7.6	7.2	4.7	0.3
현재상태	졸업(취업)	31.6	23.0	8.7	8.9	9.3	6.8	7.3	4.1	0.2
	졸업(미취업)	24.2	28.4	9.3	10.7	6.4	8.7	5.7	6.0	0.5
	재학중	24.4	19.8	13.6	10.8	9.7	7.1	6.9	7.7	0.0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10) 청년 참여 관련 법, 정책, 기구 인지도

청년 참여와 관련된 법, 정책 및 기구에 대해 청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청년들의 참여 관련 법, 정책, 기구에 대한 인지도는 대체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가장 높은 인지도를 나타낸 지자체 청년 참여활동 지원 사업의 인지 비율도 7.3%('알고 있다' 7.3%+'매우 잘 알고 있다' 0.0%)로 낮은 수준이었다. 그 다음으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 청년 관련 법 6.6%('알고 있다' 6.5%+'매우 잘 알고 있다' 0.1%), 지자체 청년 참여기구 5.2%('알고 있다' 5.1%+'매우 잘 알고 있다' 0.1%) 등의 순으로 제시된 5개의 법, 정책, 기구 모두 인지도가 10% 미만으로 조사되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 청년 관련 법을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6.6%('알고 있다' 6.5%+'매우 잘 알고 있다' 0.1%)이었고 76.7%('전혀 모른다' 37.7%+'모른다' 39.0%)는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청년 관련 법을 모른다('전혀 모른다'+'모른다')는 응답 비율은 남성(74.5%)보다 여성(79.1%)이, 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인 응답자(고졸 이하 84.4%, 대학생 73.2%, 대졸 이상 73.2%)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Ⅳ-33 청년 참여 관련 인지도_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 청년 관련 법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		최종학력			현재상태		
		남자	여자	29세 이하	30세~39세	고졸 이하	대학생	대졸 이상	졸업(취업)	졸업(미취업)	재학중
전혀 모른다	37.7	35.5	40.2	37.9	37.4	44.1	33.6	35.2	38.0	40.5	33.3
모른다	39.0	39.0	38.9	39.1	38.8	40.3	39.6	38.0	38.7	39.4	39.3
보통이다	16.7	18.4	14.8	17.1	16.2	12.0	19.0	18.7	16.5	14.9	19.5
알고 있다	6.5	6.9	6.1	5.6	7.6	3.6	7.6	7.9	6.6	5.3	7.7
매우 잘 알고 있다	0.1	0.2	0.0	0.2	0.0	0.0	0.2	0.2	0.1	0.0	0.2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다음으로 지자체 청년기본조례를 알고 있다는 청년의 비율은 3.3%('알고 있다' 3.2%+'매우 잘 알고 있다' 0.1%)에 불과하였고, 모른다는 응답은 84.7%('전혀 모른다' 42.6%+'모른다' 42.1%)로 높게 나타났다. 지자체 청년기본조례를 모른다('전혀 모른다'+'모른다')는 응답 비율은 남성(82.7%)보다 여성(86.9%)이, 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인 응답자(고졸 이하 89.2%, 대학생 84.4%, 대졸 이상 82.1%)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성을 지녔다.

표 Ⅳ-34 청년 참여 관련 인지도_2) 지자체 청년기본조례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		최종학력			현재상태		
		남자	여자	29세 이하	30세~39세	고졸 이하	대학생	대졸 이상	졸업 (취업)	졸업 (미취업)	재학중
전혀 모른다	42.6	39.4	46.1	42.9	42.2	48.1	40.0	40.2	42.6	45.2	39.6
모른다	42.1	43.3	40.8	42.6	41.6	41.1	44.4	41.9	41.9	40.7	44.4
보통이다	12.1	13.5	10.5	11.5	12.8	8.6	12.2	14.1	11.7	13.2	12.2
알고 있다	3.2	3.7	2.7	3.0	3.4	2.2	3.4	3.7	3.7	1.0	3.8
매우 잘 알고 있다	0.1	0.1	0.0	0.0	0.1	0.0	0.0	0.1	0.1	0.0	0.0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이어서 지자체 청년 참여기구에 대하여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5.2%('알고 있다' 5.1%+'매우 잘 알고 있다' 0.1%)이었고, 82.4%('전혀 모른다' 41.5%+'모른다' 40.9%)는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지자체 청년 참여기구를 모른다('전혀 모른다'+'모른다')는 응답 비율을 살펴보면, 남성(80.6%)보다는 여성(84.4%)이 높았으며, 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인 응답자(고졸 이하 87.5%, 대학생 82.5%, 대졸 이상 79.2%)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Ⅳ-35 청년 참여 관련 인지도_3) 지자체 청년 참여기구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		최종학력			현재상태		
		남자	여자	29세 이하	30세~39세	고졸 이하	대학생	대졸 이상	졸업(취업)	졸업(미취업)	재학중
전혀 모른다	41.5	38.9	44.4	41.9	41.0	47.1	39.8	38.7	41.4	43.5	39.7
모른다	40.9	41.7	40.0	40.7	41.1	40.4	42.7	40.5	40.7	39.9	42.3
보통이다	12.4	13.5	11.1	12.5	12.2	9.9	12.5	13.7	11.9	13.5	12.9
알고 있다	5.1	5.8	4.4	4.8	5.5	2.4	4.9	6.8	5.8	3.1	5.0
매우 잘 알고 있다	0.1	0.2	0.1	0.1	0.2	0.2	0.1	0.2	0.2	0.0	0.1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다음으로 지자체 청년 참여활동 지원사업을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7.3%('알고 있다' 7.3%+'매우 잘 알고 있다' 0.0%)이었으며, 다른 청년 관련 법, 정책, 기구 인지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하지만 지자체 청년 참여활동 지원사업도 인지도가 10% 미만으로 청년 중 76.3%('전혀 모른다' 39.1%+'모른다' 37.2%)는 모른다고 응답하여 낮은 인지도를 나타내었다.

지자체 청년 참여활동 지원사업을 모른다('전혀 모른다'+'모른다')는 응답 비율은 남성(74.7%)보다 여성(78.1%)이, 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인 응답자(고졸 이하 81.5%, 대학생 77.0%, 대졸 이상 73.1%), 졸업 후 현재 미취업 상태인 응답자(졸업(취업) 74.6%, 졸업(미취업) 81.2%), 재학중 76.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Ⅳ-36 청년 참여 관련 인지도_4) 지자체 청년 참여활동 지원사업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		최종학력			현재상태		
		남자	여자	29세 이하	30세~39세	고졸 이하	대학생	대졸 이상	졸업(취업)	졸업(미취업)	재학중
전혀 모른다	39.1	36.1	42.5	38.6	39.7	43.8	37.4	37.0	38.5	42.5	37.4
모른다	37.2	38.6	35.6	37.7	36.6	37.7	39.6	36.1	36.1	38.7	39.2
보통이다	16.3	17.0	15.6	17.1	15.5	13.8	15.3	18.2	17.6	13.2	15.3
알고 있다	7.3	8.1	6.3	6.5	8.1	4.7	7.6	8.7	7.6	5.5	8.0
매우 잘 알고 있다	0.0	0.1	0.0	0.1	0.0	0.1	0.1	0.0	0.1	0.0	0.1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마지막으로 지자체 청년 참여 및 활동 공간을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4.9%('알고 있다' 4.8%+'매우 잘 알고 있다' 0.1%)로 저조한 수준이었으며, 81.8%('전혀 모른다' 40.5%+'모른다' 41.3%)는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지자체 청년 참여 및 활동공간을 모른다('전혀 모른다'+'모른다')는 응답 비율은 남성(80.7%)보다 여성(83.0%)이, 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인 응답자(고졸 이하 86.6%, 대학생 81.5%, 대졸 이상 79.0%)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앞서 전술한 바와 같이 청년 참여 관련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경향성을 나타내었으며, 공통적으로 여성의 경우,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경우 특히 더 인지도가 낮은 특성을 지녔다.

표 Ⅳ-37 청년 참여 관련 인지도_5) 지자체 청년 참여 및 활동 공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		최종학력			현재상태		
		남자	여자	29세 이하	30세~39세	고졸 이하	대학생	대졸 이상	졸업(취업)	졸업(미취업)	재학중
전혀 모른다	40.5	37.2	44.1	40.0	41.0	46.0	38.0	38.0	40.4	43.0	38.1
모른다	41.3	43.5	38.9	42.5	40.1	40.6	43.5	41.0	41.0	40.9	42.9
보통이다	13.3	14.1	12.3	13.1	13.4	10.4	13.3	15.0	13.4	12.7	13.5
알고 있다	4.8	5.1	4.5	4.1	5.5	3.0	4.8	5.8	5.1	3.4	5.2
매우 잘 알고 있다	0.1	0.1	0.2	0.2	0.0	0.0	0.3	0.1	0.1	0.0	0.3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11) 청년 정치·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요건

본 연구에서는 청년들의 사회·정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청년들에게 최대 3순위까지 조사하였다.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요건 1순위를 살펴보면, 청년들은 '청년기본법 제정 및 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18.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청년들의 기본 고용과 주거 안정(17.7%)', '청년 참여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12.5%)', '청년정책 추진과정에서 청년들의 직접 참여 보장(12.1%)' 등의 순이었다.

기본적인 배경변인에 따라 활성화 요건을 살펴보았는데 일부 눈에 띄는 차이도 발견되었다. 참여 활성화를 위해 청년기본법 제정 및 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은 여성(16.1%)보다 남성(20.3%)이, 현재 재학중인 응답자(졸업(취업) 18.8%, 졸업(미취업) 15.6%, 재학중 19.8%)에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청년들의 기본 고용과 주거 안정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은 최종학력이 대졸 이상인 응답자(고졸 이하 16.7%, 대학생 16.1%, 대졸 이상 18.7%)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성을 보였다. 청년 참여 지원 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남성(11.0%)보다 여성(14.1%)에게서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앞서 청년들의 참여 관련 인지도에서 상대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낮았던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표 Ⅳ-38 청년 정치·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요건-1순위(상위5위)

(단위: %)

구분		청년기본법 제정 및 제도 활성화	청년들의 기본 고용과 주거 안정	청년 참여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청년정책 추진과정에서 청년들의 직접 참여 보장	청년 참여 활동비 지원
전체		18.3	17.7	12.5	12.1	10.0
성별	남자	20.3	18.0	11.0	12.4	9.8
	여자	16.1	17.2	14.1	11.9	10.2
연령	29세 이하	17.6	17.5	13.5	11.0	12.6
	30~39세	19.1	17.8	11.4	13.4	7.2
최종 학력	고졸 이하	18.1	16.7	13.1	11.7	12.6
	대학생	19.8	16.1	11.9	11.8	13.6
	대졸 이상	18.0	18.7	12.3	12.5	7.3
현재 상태	졸업(취업)	18.8	18.6	11.7	12.3	8.9
	졸업(미취업)	15.6	16.5	15.2	12.2	10.6
	재학중	19.8	15.7	12.0	11.6	13.4

한편, 필요한 요건 1,2,3순위를 모두 합산하여 분석하였는데, '청년들의 기본 고용과 주거 안정'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43.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청년 참여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40.3%), '청년정책 추진과정에서 청년들의 직접 참여 보장(38.1%)', '청년기본법 제정 및 제도 활성화(37.6%)' 등의 순으로 나타나 1순위 기준, 1+2+3순위 기준 분석 시 순위의 차이는 있지만 주거 안정, 정책 홍보 강화, 직접 참여 보장, 청년기본법 활성화 4개 요건을 주로 청년들의 사회·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참여 활성화를 위해 청년들의 기본 고용과 주거 안정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은 최종학력이 대졸 이상인 응답자(고졸 이하 41.8%, 대학생 39.9%, 대졸 이상 46.0%)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청년 참여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은 남성(38.3%)보다 여성(42.5%)에서, 현재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응답자(졸업(취업) 38.7%, 졸업(미취업) 44.6%, 재학중 41.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1순위에 대한 분석 결과와도 동일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Ⅳ-39 청년 정치·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요건-1+2+3순위(상위5위)

(단위: %)

구분		청년들의 기본 고용과 주거 안정	청년 참여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청년정책 추진과정에서 청년들의 직접 참여 보장	청년기본법 제정 및 제도 활성화	청년 참여 지원정책의 예산 확대
전체		43.7	40.3	38.1	37.6	33.5
성별	남자	43.4	38.3	38.9	39.8	33.2
	여자	44.0	42.5	37.1	35.1	33.9
연령	만19~29세	42.6	41.4	36.0	36.2	32.1
	만30~39세	44.8	39.0	40.3	39.0	35.0
최종 학력	고졸 이하	41.8	41.1	35.6	36.7	35.6
	대학생	39.9	41.1	33.8	38.1	30.5
	대졸 이상	46.0	39.5	40.9	37.8	33.2
현재 상태	졸업(취업)	44.8	38.7	38.8	37.5	35.0
	졸업(미취업)	43.5	44.6	40.2	37.5	30.6
	재학중	40.0	41.1	33.3	37.9	31.5

(12) 10대(중·고등학교) 시기 정치·사회 참여 경험

10대(중·고등학교) 시기에 각 정치·사회 활동모임에 참여 했는지 7개 세부 항목별로 참여 경험을 조사하였다. 그 중 '봉사활동' 참여경험률이 67.2%로 가장 많았는데, 봉사활동의 경우 학교에서 재학 중에 의무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자발적인 정치·사회 참여 경험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 다음으로 '(온·오프라인으로)서명에 참여하기(28.4%), '학교에서의 참여활동(26.3%)',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13.6%)', '학교이외에서의 참여활동(12.6%)' 등의 순이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연령대가 낮을수록(29세 이하 70.7%, 30-39세 63.5%), 현재 재학 중인 응답자(졸업(취업) 64.8%, 졸업(미취업) 67.3%, 재학 중 75.3%)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경향성은 다른 중·고등학생 시기의 참여 경험의 결과에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하여 연령이 낮을수록, 현재 재학 중인 청년들의 경우 중·고등학생 시기의 참여 경험률이 높은 경향이 있으며 이는 최근 청소년 참여 활동의 확산과 함께 이러한 경험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Ⅳ-40 10대(중·고등학교) 시기 정치·사회 참여 경험

(단위: %)

구분		청소년 참여기구 활동	학교에서의 참여활동	학교이외에서의 참여활동	봉사 활동	(온·오프라인으로) 서명에 참여하기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사회단체 활동
전체		12.0	26.3	12.6	67.2	28.4	13.6	11.1
성별	남자	12.7	26.8	12.9	66.2	26.4	13.6	11.3
	여자	11.2	25.8	12.3	68.4	30.6	13.5	10.9
연령	29세 이하	13.3	26.6	13.9	70.7	30.7	15.0	11.3
	30~39세	10.7	26.0	11.3	63.5	25.9	12.1	10.9
최종 학력	고졸 이하	12.0	19.9	11.8	55.5	21.8	12.1	10.7
	대학생	14.2	27.4	14.5	75.6	36.9	18.2	12.3
	대졸 이상	11.3	29.7	12.5	71.3	29.4	13.0	11.0
현재 상태	졸업(취업)	11.9	25.8	13.1	64.8	27.2	12.8	10.9
	졸업(미취업)	10.3	26.8	9.3	67.3	24.6	12.0	10.1
	재학중	14.4	27.7	14.8	75.3	36.8	18.0	12.9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3) 심층 분석 결과

요약

- 잠재유형분석결과, 청년 참여의 4가지 잠재유형을 도출할 수 있었으며, 참여 유형의 특성에 따라 '비참여' 집단, '개인적 참여' 집단, '소극적 참여' 집단, '적극적 참여' 집단으로 명명함. 청년들의 대다수는 '비참여' 집단에 속하였고, '소극적 참여'와 '적극적 참여' 집단은 매우 일부로 확인됨.
- 인구사회학적 배경이나 가정배경, 정치적 특성에 따라 참여 유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의 참여 유형이 향후 참여 여부 및 참여의 형태에도 매우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정치·사회 참여가 청년들에게 갖는 의미에 대하여, 청년들은 이러한 참여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라는 인식이 많았고, 새로운 세대로서 청년들의 정치·사회 참여는 향후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과정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 참여 유형에 따라 청년 참여 저해 요인 및 청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요건에 대한 생각이 다른 것으로 나타남. 이는 참여 유형에 따른 정책욕구를 면밀히 고려하고, 정책사업의 목표가 되는 대상 집단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성을 시사함.

(1) 청년 정치·사회 참여 유형

본 연구에서는 청년들의 정치·사회 참여 유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잠재프로파일 분석(LPA)를 적용하여 프로파일 수를 결정하였고, 그 다음으로 결정된 유형별로 집단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최종 정치·사회 참여 유형의 수는 정보준거지수(AIC, BIC, SABIC)와 χ^2검증(LMR LRT, BLRT), 분류의 질(Entropy)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표 Ⅳ-41 청년 정치·사회 참여 잠재유형 분류 기분

구분		잠재유형의 수				
		1-class	2-class	3-class	4-class	5-class
분류기준	AIC	63908.985	55522.809	51699.062	45232.408	46633.885
	BIC	64040.733	55726.419	51974.535	45579.744	47053.083
	SABIC	63970.830	55618.388	51828.376	45395.456	46830.667
	LMR LRT	na	0.0820	0.0525	0.7738	0.4261
	BLRT	na	0.0000	0.0000	0.0000	1.0000
	Entropy	1.000	0.991	0.947	0.955	0.963
잠재유형 분류율(%)	1	100.000	92.772	63.760	5.769	1.697
	2		7.228	6.515	75.399	7.296
	3			29.725	16.220	27.384
	4				2.613	62.504
	5					1.120

먼저, 그림 Ⅳ-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잠재유형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정보준거 지수 AIC, BIC, SABIC는 대체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났으나, 잠재유형 수가 5개인 모형에서 다시 증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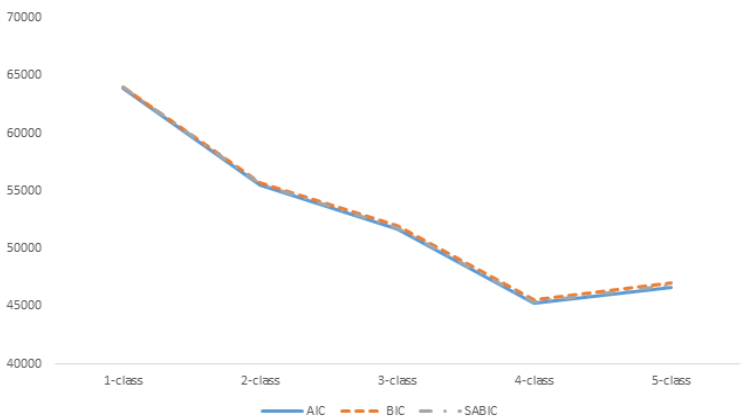


그림 Ⅳ-4. 청년 정치·사회 참여 잠재 유형 분류 기준(AIC, BIC, SABIC)

다음으로 잠재유형의 수를 하나씩 늘려가며 LMR LRT와 BLRT를 살펴본 결과, BLRT는 유형이 4개인 모형까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5개인 모형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LMR LRT의 경우 잠재유형의 수가 2인 모형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분류의 질을 나타내는 Entropy는 유형이 2개부터 5개까지 모든 모형에서 .9 이상의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정보준거지수들과 χ^2검증, 분류의 질 준거에 가장 부합되는 잠재유형 수가 4개인 모형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였다. 잠재유형이 4개인 모형은 앞선 모형에 비하여 AIC, BIC, SABIC의 수가 작게 나타났으며, 잠재유형이 5개인 모형보다 오히려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BLRT에서 잠재유형이 4개인 모형이 3개인 모형보다 유의하게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5개인 모형과 비교하였을 때에도 4개인 모형을 지지하였으며, Entropy도 .955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전술한 결과를 토대로 청년 정치·사회 참여 경험과 관련한 11개 참여 형태에 따라 확인된 참여 유형은 4개 집단으로 나눌 수 있었다. 청년 정치·사회 참여 4개 유형은 다음 그림 Ⅳ-5와 같으며, 구체적인 4개 유형에 대한 참여 항목의 평균값은 표 Ⅳ-42에 제시하였고, 도출된 참여 유형의 특성을 토대로 명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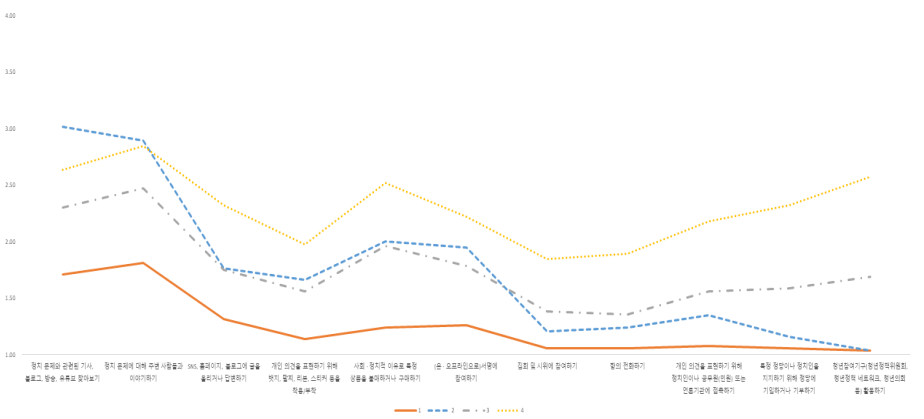


그림 Ⅳ-5. 청년 정치·사회 참여 잠재 유형(4개 집단)

표 Ⅳ-42 청년 정치·사회 참여 잠재 유형(4개 집단)

구분	참여 유형				전체 평균
	1	2	3	4	
정치 문제와 관련된 기사, 블로그, 방송, 유튜브 찾아보기	1.71	3.02	2.30	2.64	1.98
정치 문제에 대해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기	1.82	2.89	2.47	2.84	2.05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1.31	1.76	1.75	2.32	1.44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뱃지, 팔찌, 리본, 스티커 등을 착용/부착	1.14	1.67	1.56	1.97	1.27
사회·정치적 이유로 특정 상품을 불매하거나 구매하기	1.24	2.00	1.96	2.52	1.44
(온·오프라인으로)서명에 참여하기	1.26	1.95	1.78	2.22	1.43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1.05	1.20	1.38	1.84	1.12
항의 전화하기	1.05	1.24	1.36	1.90	1.12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정치인이나 공무원(민원) 또는 언론기관에 접촉하기	1.08	1.35	1.56	2.18	1.18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기 위해 정당에 가입하거나 기부하기	1.06	1.16	1.59	2.32	1.14
청년 참여기구(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 네트워크, 청년의회 등) 활동하기	1.04	1.04	1.69	2.57	1.11

먼저 분류된 잠재유형은 전반적인 참여 정도의 수준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로 다른 패턴을 지니는 것으로 것 확인되었다. 첫 번째 잠재 유형은 가장 많은 청년들이 속한 유형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정치·사회 참여 정도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정치 문제와 관련된 기사, 블로그, 방송, 유튜브 찾아보기'나 '정치 문제에 대해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기'에 대한 문항을 제외하고 모든 문항에서 평균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해당 집단을 '비참여'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분석한 전체 청년들 가운데 75.4%가 '비참여' 집단에

속하였으며, 이는 전체 청년들 가운데 4명 중 3명은 정치·사회 참여가 거의 참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두 번째 잠재유형은 다른 집단에 비해 정치 문제와 관련된 기사, 블로그, 방송에 대해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자신의 주변사람들과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비해, 실제 정치·사회적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이며 조직/단체의 참여나 공적인 성격의 참여에서도 저조한 특성을 보인다. 이에 '개인적 참여'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뱃지, 팔찌, 리본, 스티커 등을 부착하거나 특정 상품을 불매하거나 구매하기, (온·오프라인)서명참여는 어느 정도 참여하지만, 집회 및 시위나 항의 전화, 정당 가입이나 기부, 참여기구 활동과 같은 영역에서는 '비참여' 집단 다음으로 가장 낮은 참여 정도를 나타내었다. 즉, '개인적 참여' 집단은 수동적 관여 형태의 참여나 개별적 특성이 있는 참여는 일정 부분 참여하지만, 집단적 특성의 참여나 제도적 참여에는 소극적인 양상을 보였다. 전체 16.2%의 청년이 이러한 '개인적 참여' 집단에 속하였으며, 이는 '비참여' 집단 다음으로 전체 청년의 상당수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세 번째 잠재유형은 '비참여' 집단보다는 전반적인 참여 수준이 높았으나, '개인적 참여' 집단과 비교해보면 사적인 영역에서의 참여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집회나 시위, 항의 전화, 접촉활동, 정당 가입이나 기부, 청년참여기구 활동 등의 참여에서는 '개인적 참여' 집단보다 높은 참여율을 나타내었으나, 평균적으로 거의 참여하지 않았거나 1년에 1~2회 이하의 낮은 참여 수준이었다. 이에 세 번째 참여 유형을 '소극적 참여' 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전체 청년 가운데 5.8%가 이 집단에 속하였다.

마지막 청년 참여의 잠재유형은 전체 청년 가운데 정치·사회 참여 정도가 가장 높은 집단이다. 해당 집단의 경우 '정치 문제와 관련된 기사, 블로그, 방송, 유튜브 찾아보기'나 '정치 문제에 대해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기'에 대한 문항을 제외하고 모든 형태의 참여 문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수동적인 관여 형태보다는 직접적인 참여 형태에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나타내었다. 또한 개인적 영역에서의 참여뿐 아니라 공적인 영역과 조직/단체 수준의 참여 역시 일정 정도 이상의 참여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이에 '적극적 참여'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적극적 참여' 집단의 경우 전체 청년의 2.6%가 여기에 해당하였으며, 가장 적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청년 정치·사회 참여의 양상에는 다양한 층위가 존재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실증분석 결과 4가지 유형의 참여로 구분할 수 있었다. 참여 유형의 특성에 따라 '비참여', '개인적 참여', '소극적 참여', '적극적 참여' 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청년들의 대다수는 '비참여' 집단에 속하였고, 그 다음으로 '개인적 참여' 집단이었으며, '소극적 참여'와 '적극적 참여' 집단은 전체 청년들 중에 매우 일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청년 정치·사회 참여 유형의 특성

앞서 청년의 정치·사회 참여과정에서 다양한 양상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11개의 참여 형태를 토대로 잠재프로파일분석(LPA)을 수행하였고, 결과적으로 4개 집단으로 정치·사회 참여 유형을 도출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정치·사회 참여 유형별로 어떠한 특성을 지니는지 인구사회학적인 배경이나 가정 배경, 그 외에도 참여의 동기나 정치·사회문제에 대한 관심도, 정치적 효능감 등 정치적 특성에서도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먼저 교차분석 및 분산분석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다항로지스틱 분석을 함께 수행하였다.

① 인구사회학적 배경(성별, 연령, 지역, 교육 수준, 취업 여부)과 참여 유형

참여 유형별로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성별(남성/여성), 연령(29세 이하/30대 이상), 지역(수도권/비수도권)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성별, 지역에 차이가 존재하였는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수준이었다.

구체적으로 '적극적 참여' 집단의 경우 남성의 비율이 61.0%, 여성의 비율이 39.0%로 다른 참여 유형에 비해 남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 다른 유형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일정 부분 고르게 분포하였다. 여성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개인적 참여' 집단으로 여성이 54.8%에 달하였다. 전술한 결과는 대체로 남성과 여성 간의 청년의 정치·사회 참여 형태에서 크게 이질성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으나,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참여 유형의 경우 남성의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제도적 영역이나 조직 및 단체 수준의 참여 형태에서 성별에 따른 참여율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Ⅳ-43 인구사회학적 배경과 참여 유형

		성별		연령		지역		교육 수준		현재 상태		
		남성	여성	29세 이하	30대 이상	수도권	비수도권	고졸 이하	대학 재학 이상	취업	미취업	재학 중
참여 유형	비참여	53.4	46.6	51.8	48.2	39.2	60.8	32.9	67.1	60.4	19.2	20.4
	개인적 참여	45.2	54.8	46.9	53.1	46.7	53.3	22.6	77.4	58.2	19.7	22.2
	소극적 참여	51.2	48.8	52.9	47.1	53.5	46.5	22.9	77.1	57.6	18.2	24.1
	적극적 참여	61.0	39.0	57.1	42.9	57.1	42.9	29.9	70.1	68.8	11.7	19.5
χ^2		13.224**		5.215		28.091***		24.679***		28.091***		

*p <.05, **p <.01, ***p <.001.

다음으로 참여 유형에 따라 연령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눈에 띄는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적극적 참여' 집단의 경우 상대적으로 29세 이하의 청년 비율이 57.1%로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었으며, 대체로 유형별로 연령의 분포가 고르게 나타났다. 반면, 참여 유형별로 지역의 차이가 있었는데, 서울/경기/인천 등을 포함하는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구체적

으로 '비참여' 집단의 경우 수도권 비율이 39.2%로 가장 낮았고, 비수도권인 경우가 60.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적극적 참여' 집단의 경우 수도권인 경우가 57.1%로 가장 높았고, 비수도권 비율이 42.9%로 상반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청년 정치·사회 참여의 패턴이 지역별로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비수도권 지역보다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나타내었다. 이는 수도권 지역의 경우 청년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참여할 기회나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많아 참여의 적극성도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술한 결과와 관련하여 면담 조사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면담 조사에서 한 청년 심의기구 참여자는 지방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경우 열정과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로 관련 행사들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 참여하기 불편하며 힘들다고 토로하였다. 즉, 청년들의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참여 격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경제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그리하여 지방에 있는 청년들이 장시간의 열정만으로 참여를 유지하기 힘들고, 결국 참여 활동을 그만두거나 무관심해지게 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 "사회, 정치 참여할 때 가장 불편했고 힘들었던 부분이 '돈' 문제입니다. 특히 저처럼 지방 청년은 더더욱 서럽습니다. 현실적으로 좋은 청년행사나 사회참여 행사는 서울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열정 있고 의지 있는 지방청년들은 서울과 ○○을 왕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아르바이트를 해서 벌어 씁니다. 그렇게 되면 20대 청춘들이 즐길 수 있는 연애, 여행 등 여러 가지 자신에게 투자하는 비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몇 년 활동하다보면 환멸감, 회의감이 생겨 늪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고 활동을 중단하고 현실에 맞게 취업을 하고 돈을 벌고 직장에 안주하며 살게 됩니다. 점점 청년들이 무관심해지는 주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청년 심의기구 참여자, E)

아울러 참여 유형별로 청년들의 교육 수준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본 결과, '비참여' 집단의 경우 고졸 이하의 학력을 지닌 청년들의 비율이 32.9%로 가장

높았고, 대학교 재학 중이거나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지닌 청년의 비율은 67.1%로 다른 참여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특성을 지녔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 수준이 정치·사회 참여 수준에 비례적인 특성을 지니지는 않았는데, '비참여' 집단을 제외하고 고졸 이하의 학력을 지닌 청년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적극적 참여' 집단으로 확인되었다.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청년이 가장 많은 집단은 개인적 참여 수준으로 그 비율이 77.4%에 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시민으로서 정치·사회 참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와는 다른 것으로서 고학력 청년들이 개인적 수준에서 정치 참여는 일정 정도 참여하지만 집단적으로나 공개적인 의견 표명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전술한 결과는 성별이나 지역, 연령 등 다른 배경변인들이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일차적으로 분석 결과로서 추가적인 분석을 토대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청년들의 경제활동 영역으로서 취업 여부 등이 참여 유형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으나 '적극적 참여' 집단의 경우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한 상태인 청년의 비율이 68.8%로 높게 나타났으며, 미취업 비율은 11.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추후 보다 정밀한 분석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겠으나, 면담 조사에서도 청년들의 정치·사회 참여에 안정적인 직장 등 기본적인 경제활동의 여건은 중요한 요인으로 언급되었다.

정치·사회 참여를 하지 않는 비참여집단의 면담 조사에서는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취업하는 것도 바쁜 상황에서 단체로 (참여) 활동을 하거나 투표를 하는 행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른 비참여 집단의 면담자는 취업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생활이 바쁘다보니 이러한 정치·사회 참여가 자신의 스펙이나 능력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현재 시민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한 면담자도 청년들이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참여에 나설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처럼 취업은 청년들의 경제적 참여

이자 정치·사회참여의 기본적인 요건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청년들의 보다 적극적인 정치·사회 참여를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이상의 경제적인 안정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지지한다.

"(생략) 제가 먹고 살기에도, 취직하기에도 바쁜데 굳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단체로 활동을 하거나 투표를 해서 제 의견을 내는 것도 좀 별로라고 생각을 했어요."(비참여자, G)

"그냥 제 생활 자체가 바쁘다 보니까 그리고 그거 참여해서 나한테 오는 게 무엇일까 생각을 했을 때 딱히 얻을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취업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스펙에 도움이 될까 아니면 만약에 분석력을 기업에서 중요하게 본다 하면 이게 분석력이라는 능력에 도움이 될까 하면 저는 항상 아니라고 답변을 하거든요"(비참여자, J)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됐을 때 이런 것이 더 많이 참여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게 동시에 취업하기 힘들고 안전망이 부족하다는 것이거든요"(시민단체 참여자, C)

② 가정 배경과 참여 유형

가정 배경으로는 부모의 학력과 부모 소득수준을 살펴보았으며, 참여 유형별로 가정 배경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하였다. 부모학력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을 각각 조사한 문항에 대하여 높은 응답값으로 산출하였으며, 고졸 이하와 대졸이상인 경우의 비율을 비교였다. 분석 결과, 참여 유형별로 부모학력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44 가정 배경과 참여 유형

		부모학력		부모 소득수준
		고졸 이하	대졸이상	1~10(10점 척도)
참여 유형	비참여	71.2	28.8	5.28
	개인적 참여	66.2	33.8	5.24
	소극적 참여	64.7	35.3	5.44
	적극적 참여	54.7	45.3	5.44
χ^2, F		14.775**		2.392

**p <.01.

구체적으로 '비참여' 집단의 경우 부모 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가 71.2%로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졸 이상인 경우는 28.8%로 낮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개인적 참여' 집단의 경우 고졸 이하의 비율이 66.2%로 많았고, 그 다음은 '소극적 참여' 집단으로 고졸 이하인 비율이 64.7%로 나타났다. 부모 학력이 가장 높았던 집단은 '적극적 참여' 집단으로 고졸 이하인 경우가 54.7%로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대졸 이상인 학력을 지닌 경우가 45.3%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부모의 소득수준이 참여 유형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았는데, '소극적 참여' 집단이나 '적극적 참여' 집단의 경우 청년들이 인식하고 있는 부모의 소득수준이 다른 '비참여' 집단이나 '개인적 참여' 집단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물론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하여 인구사회학적 배경 변인들이 통제된 상황에서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전술한 결과와 관련하여 고학력 부모의 경우 정치·사회 참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개연성이 있으며, 이는 자녀의 정치·사회 참여 경험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상정해볼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는 부모의 정치·사회 참여에 대한 문항들은 누락되어 있어 이러한 관련성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는 없었으나, 면담 조사에서 청년들의 정치·사회 참여에 부모의 참여

성향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당이나 청년 심의기구에 참여자들에 대한 면담 조사에서 정치·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거나 참여 과정에서 가정환경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례들을 청취할 수 있었는데, 즉, 가정에서 부모님이 어떻게 정치·사회 참여를 하느냐에 따라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청년들이 정치·사회 참여도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제가 대학생이 되고 난 직후에 부모님이 환경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관심을 갖게 됐고...(중략)...불매 운동은 꾸준히 하고 있고, 배지나 그런 것도 하고 있는데 그런 건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부모님이 시민 단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얻어오거나 행사가 있으면 같이 가서 참석을 한다든지 자주는 아니지만 시위에도 참여한 적이 있어요"(청년 심의기구 참여자, C)

"가정이 정치 참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아버지나 부모님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해요"(정당 참여자, C)

"고3 때부터. 계기는 아버지가 공직에 계시니까 식사하실 때나 늘 얘기하시고 친척 중에 정치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런 영향도 있어서 (정치·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항의전화/의견표명자, B)

③ 참여 동기와 참여 유형

다음으로는 앞서 도출된 정치·사회 참여 유형에 따라 참여 동기나 정치·사회문제에 대한 관심도, 정치적 효능감, 참여 관련 법/정책/기구 인지도, 이전 정치·사회 참여 경험 등 정치적 특성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참여 동기를 분석하였는데, 전체적으로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고 싶거나 정치·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 때문에, 혹은 청년들이 권리나 이익을 높이기 위해 참여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참여 유형 집단별로 이러한 참여 동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Ⅳ-45 참여 동기와 참여 유형

		참여 동기						
		정치·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	청년들의 권리나 이익을 높이기 위해	참여활동 자체에 대한 관심이 많고 좋아서	나의 진로나 스펙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족, 친구, 지인 등의 권유로	기타
참여 유형	비참여	16.9	33.6	20.2	8.2	3.0	17.5	0.7
	개인적 참여	30.0	29.8	16.7	9.2	2.8	11.2	0.2
	소극적 참여	20.8	26.8	20.1	12.1	6.7	13.4	0.0
	적극적 참여	16.9	31.0	23.9	8.5	8.5	11.3	0.0
χ^2		61.055***						

*p<.05, **p<.01, ***p<.001

‘개인적 참여’ 집단의 경우 정치·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참여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30.0%로 4개 유형 중에 가장 높은 반면, 청년들의 권리나 이익을 높이기 위해 참여했다는 응답은 16.7%로 다른 유형의 비해서는 낮은 특성을 지녔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적 참여’ 집단의 정치·사회 참여는 청년들에 대한 이슈이외에 다양한 정치·사회 문제들에 대한 개인적 관심으로 참여하는 경우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면담 조사의 결과에서도 일정부분 유추할 수 있었는데, SNS/홈페이지/블로그 등 개인적 수준에서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참여하게 된 이유와 목적을 질문하였을 때, 공공의 이익이나 청년문제에 대해서만 참여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이들 중에는 개인적인 관심분야나 자신의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이슈에 한정하여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물리치료사이다 보니까 물리 치료사들이 의사 밑에서만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청와대 청원에 …….. 청원을 올렸어요. 계속 법이 바뀐다 했었거든요 물리치료사가 따로 일을 할 수 있게 한다고 했는데 안 바뀌어서 협회에서 청원을 올려서 참여한 적이 있어요."(SNS/홈페이지/블로그, C)

"트위터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문화 쪽 관련해서 올라오는 의견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 같이 공유한다든가 하다 보니까 참여하게 됐고 그걸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직접 글을 남기기도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참여를 한 것 같고 유튜브는 사실은 YTN이나 JTBC 방송사 글이 올라올 때 글을 보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추천을 해 주니까 같이 보게 된 것 같아요"(SNS/홈페이지/블로그, B)

한편, '적극적 참여' 집단의 경우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31.0%), 청년들의 권리나 이익을 높이기 위해(23.9%) 참여했다는 응답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면담참여자들의 응답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시민단체나 청년 심의기구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면담자들은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저는 청년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저한테는 젠더랑 인권 이슈가 너무 중요한데 어쨌든 세상이 호명하는 청년인데 내 삶에서 중요한 인권 이슈 이것들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풀어갈 수 있을까가 참여하는 것에 큰 이유이고 얻고자 하는 것 같아요."(청년 심의기구 참여자, B)

"대학교 때 학과 학생회장을 했었는데 리더가 누구냐, 리더가 어떤 정책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가 변한다는 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NGO 안에서 어떤 룰과 매뉴얼을 만들면 똑같은 자원으로 훨씬 좋은 효율과 효과를 낼 수 있겠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어서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시민단체 참여자, A)

"정당 활동을 하는 것은 원하는 사회상을 쟁취하고 싶은 욕구도 있고, 세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건 사건마다 피해 본 당사자들이나 억압받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연대를 통해서 적어도 내 주변에서는 이런 차별이나 배제, 혐오를 받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연대를 통해서 좋은 사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시민단체 참여자, C)

"잘 사는 나라 몇이 편중된 부를 나라가 나누어주기만 해도 균등하게 지구촌이 잘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니고 있는 ooo협회가 작은 부분이나마 그런 것에 보탬이 된다는 생각에 활동을 하고 있어요."(시민단체 참여자, B)

또한 '적극적 참여' 집단의 경우 나의 진로나 스펙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참여했다는 응답도 8.5%로 다른 집단보다 높은 특성을 지녔는데, 청년 심의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한 면담자는 참여 이력이 정치인이 꿈인 자신의 진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참여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저는 일단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이력이 남잖아요.. 이력 남는 건 솔직히 어딘가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력도 제 진로에 필요하기도 해요. 그 안에 들어감으로써 제가 지금까지 4, 5년 동안 꾸준히 해 온 것들을 잘 녹여서 실험해보고 싶고 청년들 인프라를 제가 많이 구축해서 하나의 스토리와 의견을 듣고 싶고, 제 생각이 아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제가 생각도 바뀔 수도 있고 변화할 수 있어서 어떤 네트워킹 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청년 심의기구 참여자, E)

이러한 결과는 소위 청년활동가들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에 대한 면담 조사 결과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자신을 대신해서 청년들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하고 있는 활동가들에 대하여 대단하게 생각하고 고맙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활동가 자신들의 스펙을 쌓고 이를 토대로 자신의 진로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의견도 보였다.

"저는 그냥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나는 안 하는 걸 그들이 하는 거니깐요." (SNS/홈페이지/블로그, D)

"저도 고맙지요.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 일이니까 그걸 해 주는 사람들이니까 고맙지요."(SNS/홈페이지/블로그, A)

"스펙을 쌓고 있구나. 지금까지 어떤 진지한 결과물을 도출해 낸 건지 잘 모르겠고 다른 데 취업한다거나 정당에 입당한다고 해서 간부가 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활동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집회/시위 참여자, A)

"저는 반반. 대단하다. 플러스 스펙 하나 추가하려고 하는 이런 것. 제가 사회를 보는 시각이 안 좋아진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보면 딱히 뭔가 하고 있다고 하니까 하고 있는 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걸 발판으로 더 큰 그림을 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제 생각인 것 같아요.."(집회/시위 참여자, B)

이 외에도 참여 동기에 대해서 조직이나 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의 경우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목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면담 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면담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의 네트워크 형성, 같은 청년세대와의 소통 등 인적네트워크 형성 및 소통의 채널로서 조직(단체) 활동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워드클라우드 분석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참여의 목적(동기)과 관련하여 사람, 사회, 의견, 변화 등의 단어가 빈번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네트워킹을 형성하고 사회적인 문제 해결, 변화를 위한 의견 표명의 행동으로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나고 보니까 무급이어도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도 다양하게 만날 수 있고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는 게 재미있었고 무엇보다 실제 참여하는 거잖아요"(정당 참여자, C)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제가 생각도 바뀔 수도 있고 변화할 수 있어서 어떤 네트워킹 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청년 심의기구 참여자, E)



그림 Ⅳ-6.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_참여 동기

④ 정치·사회문제에 대한 관심도와 참여 유형

이어서 정치·사회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참여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의미 있는 수준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비참여' 집단의 경우 정치·사회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낮았으며, '적극적 참여' 집단의 경우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특히 '비참여' 집단의 경우 관심이 없다는 응답('전혀 관심이 없다'+'별로 관심이 없다')이 48.1%로 절반에 가깝게 나타났다. 이는 상식적인 결과로서 정치·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이 실제 적극적인 참여 정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Ⅳ-46 정치·사회문제에 대한 관심도와 참여 유형

		정치·사회문제 관심도				
		전혀 관심이 없다	별로 관심이 없다	보통이다	약간 관심이 있다	매우 관심이 있다
참여 유형	비참여	9.9	38.2	34.0	16.5	1.4
	개인적 참여	4.6	23.2	32.2	33.9	6.1
	소극적 참여	4.7	21.2	38.8	32.4	2.9
	적극적 참여	5.2	20.8	24.7	32.5	16.9
χ^2		226.740***				

*p<.05, **p<.01, ***p<.001

즉, 청년들의 정치·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정치·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에 청년들이 정치·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및 관심이 없는 이유에 대하여 보다 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면담 조사를 통해 청년들이 정치·사회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를 심층적으로 조사하였다.

면담 조사에서 청년들이 사회·정치 문제에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관심을 갖게 된 계기에 대하여 질문하였는데, 참여집단이나 비참여집단 모두 전반적으로 개인적 경험이나 진로 준비 과정에서 갖게 된 관심사가 사회·정치 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는 응답이 많았다. 그 외에도 주변 환경이나 지인의 영향을 받아 관심을 갖게 된 경우도 있었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큰 이슈의 경험은 사회·정치 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가령 광우병 사태, 4대강 사업, 낙태죄 폐지 등과 같이 자신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영향력이 큰 사회적 이슈로 인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사례도 있었다.

"제가 대학생이 되고 난 직후에 부모님이 환경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관심을 갖게 됐고 특히 여성이나 특정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건 강남역 사건 이후로 페미니즘 이슈가 한국에서 많이 대두되면서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청년 심의기구 참여자, C)

“친구가 계약직으로 들어갔는데 정규직으로 전환을 안 시키고 계약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친구가 겪은 걸 보고"(시민단체 참여자, D)

"젠더 앤 섹슈얼리티라는 수업인데 교수님께서 그 수업 내용을 다루셨어요. 그래서 그걸 과제를 하다 보니까"(집회/시위 참여자, C)

"대학생 때 사회 복지 실습을 나가면서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정책을 다뤄야 하는 과제들도 많았고"(시민단체 참여자, A)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상사랑 제가 여자라는 것 때문에 차별적인 발언을 들으면서부터"(정당 참여자, A)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수험생활 준비하면서 한 2년 전부터.아르바이트 해서 돈을 벌다 보니까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저한테 이제 체감이 되는 거죠."(비참여자, F)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반장이나 전교 회장 선거에 나가다 보니까 관심이 생겼고…… 청년 정치인의 꿈을 가지고 있다 보니 당연히 우리나라는 정당에 가입해야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때부터 정당 활동이나 지역 활동을 시작했고"(청년 심의기구 참여자, E)

"그 당시 광우병 사태가 워낙에 말이 많았었잖아요. 그때부터 잘못 된 건지, 맞는 건지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비참여자, B)

"환경은 4대강 사진을 보면 물 색깔이나 그런 것을 보니까 심각하다 싶어서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비참여자, A)

"정책들이 저와 관련된 정책들이 많잖아요. 옛날에 광우병이나 이런 것부터. 그리고 국민연금 민영화 하면서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비참여자, A)

반면, 사회·정치 문제에 대한 관심이 없는 면담참여자에게 관심이 없게 된 계기나 이유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사회 변화에 대한 회의감 때문에', '생활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아서'라는 이유를 제시하였다. 즉 사회·정치적 문제에 대하여 자신이 무언가 한다고 해도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나에게 실질적인 변화가 있는 것이 거의 없었다는 회의감 때문에 관심이 없게 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일부 면담참여자의 경우 자신의 생활이나 자신에게 직접적인 관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정치 문제에 관심이 없다고 설명하였다.

"제가 취업에 대해서 아직 큰 생각이 없기도 하고,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게 정책이 바뀐다고 해서 저한테 실질적으로 변화가 있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별 관심이 안 생기는 것 같아요"(비참여자, D)

"그런데 아무래도 저 하나의 힘으로 큰 변화는 일으킬 수 없다. 그것보다는 지금 현실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내부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비참여자, C)

"저와 관련이 안 되고 모르는 분야라서. 제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지 않고 와닿지 않아서."(비참여자, H)

"뉴스를 보면 기본적인 건 알고 있는데 제목만 봐도 부정적인 언어를 쓰고 단어를 쓰고 사회의 잘못된 불의에 대해서 자주 나오니까 딱히 저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이 오는 것도 아니라 그렇게 된 것 같아요"(비참여자, G)

⑤ 정치적 효능감과 참여 유형

이어서 참여 유형별로 정치적 효능감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정치적 효능감은 앞서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세 문항의 평균값으로 분석에 투입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Ⅳ-47 정치적 효능감과 참여 유형

		정치적 효능감
		3개 측정 문항의 평균값(1점~5점)
참여 유형	비참여a	3.02
	개인적 참여b	3.37
	소극적 참여c	3.21
	적극적 참여d	3.39
F		30.573** (a 〈 b, c, d)

**p 〈.01.

분석 결과, 정치·사회 참여 유형에 따라 정치적 효능감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사후 분석 결과 '비참여' 집단의 경우 다른 참여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치적 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치적 효능감이 높을수록 참여에 보다 적극적일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확증하는 것으로서, 정치적 효능감이 낮은 청년들의 경우 '비참여'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로 면담 조사에서도 정치·사회 참여에 소극적인 청년들에게 참여하지 않는 이유나 계기에 대하여 조사하였을 때, 자신이 무언가를 행동한다고 해도 크게 바뀌는 것이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는 앞서 정치·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적은 이유와도 유사한 결과로서, 자신의 정치 참여가 사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낮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회·정치·경제 쪽은 제가 힘을 쓴다고 해서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뭘 한다고 해도 크게 바뀌는 게 없어서."(SNS/홈페이지/블로그, C)

"저 하나의 목소리를 가지고 사회가 변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본적이 없어요. TV에서 1인 시위 현장이나 시나리오 같은 걸 보고 있으면 전부 다 강자가 한 번 말을 하면 세상이 바뀌지만 약자인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말을 하면 세상이 바뀌지 않는 다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비참여자, G)

⑥ 청년 참여 관련 법/정책/기구 인지도와 참여 유형

다음으로 청년 참여와 관련한 법/정책/기구 인지도가 참여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 청년 관련법, 지자체 청년기본조례, 지자체 청년 참여기구, 지자체 청년 참여활동 지원 사업, 지자체 청년 참여 및 활동 공간 등 다섯 가지 영역에 대하여 인지도의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모든 영역에서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비참여' 집단의 경우 다른 참여 유형에 비해 전반적으로 모른다('전혀 모른다'+'모른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적극적 참여' 집단의 경우 알고 있다('알고 있다'+'매우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청년 참여와 관련한 법/정책/기구에 대하여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에 따라 참여 수준도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표 Ⅳ-48 청년 참여 관련 법/정책/기구 인지도와 참여 유형

		참여 유형				χ^2
		비참여	개인적 참여	소극적 참여	적극적 참여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 등 청년 관련법	전혀 모른다	40.8	35.1	28.8	15.6	84.449 ***
	모른다	39.2	36.4	38.8	29.9	
	보통이다	14.6	20.1	24.1	35.1	
	알고 있다	5.4	8.2	8.2	18.2	
	매우 잘 알고 있다	0.1	0.2	0.0	1.3	
지자체 청년 기본조례	전혀 모른다	45.6	39.7	33.5	19.5	77.979 ***
	모른다	41.4	42.9	37.6	44.2	
	보통이다	9.7	14.2	24.7	29.9	
	알고 있다	3.3	3.1	4.1	6.5	
	매우 잘 알고 있다	0.0	0.0	0.0	0.0	
지자체 청년 참여기구	전혀 모른다	44.8	39.1	32.4	14.3	109.404 ***
	모른다	40.4	40.2	35.9	37.7	
	보통이다	10.7	14.4	18.8	31.2	
	알고 있다	3.9	6.3	12.9	15.6	
	매우 잘 알고 있다	0.2	0.0	0.0	1.3	

		참여 유형				χ^2
		비참여	개인적 참여	소극적 참여	적극적 참여	
지자체 청년 참여활동 지원사업	전혀 모른다	42.7	35.4	29.4	15.6	77.966 ***
	모른다	36.8	36.6	37.6	33.8	
	보통이다	14.3	18.2	22.9	35.1	
	알고 있다	6.2	9.8	10.0	14.3	
	매우 잘 알고 있다	0.1	0.0	0.0	1.3	
지자체 청년 참여 및 활동 공간	전혀 모른다	43.8	37.4	30.0	15.6	65.343 ***
	모른다	39.3	41.6	41.2	44.2	
	보통이다	12.5	14.0	20.6	32.5	
	알고 있다	4.1	6.9	8.2	7.8	
	매우 잘 알고 있다	0.2	0.0	0.0	0.0	

***p 〈.001.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청년 참여 관련 법/정책/기구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면담 조사를 통해 인지 경로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면담 조사 결과, 참여집단이나 비참여집단 모두 전반적으로 뉴스나 옥외광고, 온라인 매체 등 매체나 광고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많았다. 다만, 참여집단의 경우 정당이나 고용부, 관련 활동 등에 참여하면서 청년 관련 법, 정책, 기구들을 알게 되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 참여에 대한 법/정책/기구에 대한 인지가 적극적인 정치 참여로 이어진다고 볼 수도 있지만, 역으로 참여 과정에서 관련 법이나 정책들을 인지하게 되어 인지도가 참여 경험의 원인이라기보다 결과일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The 숲'은 홍보를 통해서 알았고 그 다음에 요즘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공간은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공사 현장 앞에 안내문이 있어요. 플래카드 걸어서"(항의전화/의견표명자, B)
"그건 지하철에서 광고를 하더라고요. TV 모니터에서도 나오고. 청년 취업 관련해서 얘기를 하길래 봤어요"(비참여자, H)
"페이스북 같은 데서 봤어요. 청년이나 이렇게 사업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도 있고 정책이 많아서 인터넷. 인기 검색어 떠서 요즘 많던데요."(비참여자, E)

"저는 청년 조례는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참여 공간도 알고 있고. 무중력지대랑 그 정도 알고 있어요. 정당 활동하면서 알았고 그 전에 청년 허브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를 통해서 아는, 거기에서 만난 사람이 얘기해 줘서 알게 됐어요"(정당 참여자, A)
"고용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일하면서 먼저 알게 됐어요."(청년 심의기구 참여자, D)

본 연구에서는 청년 참여 관련 법/정책/기구에 대한 인지도와 함께 청년들이 이러한 법/정책/기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면담 조사에서 청년 참여 관련 법/정책/기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먼저 청년 참여 관련 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비참여' 집단 청년들의 경우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는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이 청년들의 취업난 해결이나 구직활동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하지만, 청년 참여 관련 법에 대한 홍보의 부족으로 내용을 알기 어렵고,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적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많았다. 또한 청년 참여 관련 법 시행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취준생들이 경제적 부담이 심한데 월 몇 십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들어서 그게 되게 유익하고 저 같아도 꼭 이용해 보고 싶은 정책이라고 생각했어요."(비참여자, D)
"아무래도 제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고, 그 중에서 분명히 있을 것이고. 청년들도 지금 실업자들도 많고 일자리 구하는 사람이 더 많다 보니 그런 사람들한테도 많이 도움이 될 거니깐 당장은 일단 대부분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아요."(비참여자, F)

"잘 운영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어요. 많은 청년들에게 그런 걸 알리지 않았으니까요. 방향성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소리를 들어보겠다는 거니까. 근데 거기에서 뭐가 나왔고 그 동안 뭘 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홍보가 안 됐다면 그게 잘 운영된 걸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시민단체 참여자, A)
"좀 더 홍보가 됐으면. 저도 그런 걸 알았다면 관심이 있었을 것 같은 데 그런 것에 대해서 처음 들어서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정당 참여자, A)
"하는 건 많은데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수준이 낮아지고. 홍보를 너무 안 해요. 그나마 아는 것들이 청년 지원 예산 정도인데 이것도 안 받는 사람들도 수두룩하고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정당 참여자, C)
"청년 수당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실효가 있는지 고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직장에 다니는 친구들이 만나면 제일 현재 정부가 하는 정책 중에서 많은 불만을 피력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시민단체 참여자, B)
"안전망이 떨어지는 속에서 청년들의 정치 사회에 참여하는 촉진하는 법이 있든, 기구가 있든 그건 결국 취업을 하기 위한 수단, 혹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을 하는 것이지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런 법이나 기구만으로 보여주기 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시민단체 참여자, C)

청년 참여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공통적으로 청년 참여 정책에 대해 이러한 경제적 또는 공간에 대한 지원 및 혜택이 청년들의 정치·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 청년 참여 관련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지닌 참여자들도 있었는데, 청년 정책의 운영과정에서 투명하고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정책의 수혜 대상이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지역별로 균형 잡힌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지원 사업이나 정책들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단체들이 공모를 통해서 지원금을 준다든지 공간을 제공하는 것들은 실제로 단체들이나 조직들이 활동하는 게 있어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청년들한테 주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사회 참여하는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시민단체 참여자, C)

"청년들이 안정된 상태는 아니잖아요. 지원비도 주고 활동할 수 있게 밀어주면 청년들한테 더 기회가 많아지고 하고 싶어하는 청년들도 많아질 것 같아요"(항의전화/의견표명자, A)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여러 사람끼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비참여자, F)

"저도 공감합니다. 청년들한테 기본적인 건 충족이 안 되는데 뭔가 복지라고는 만들어 주지만 사실상 그게 정말 대다수의 청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나머지 청년들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집회/시위 참여자, B)

"전반적으로 보면 좋은 제도이기는 해요. 저도 혜택을 받았다면 정말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부만 받는 것 같아서 아쉬워요."(비참여자, I)

"청년이 문제의 대상으로 그들을 위해서 뭔가 쥐어주거나 정책화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청년이 뭔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청년이 진취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은 없는 것 같아요"(청년 심의기구 참여자, A)

"저는 부정적으로 보는데 그런 것들이 특정 정당에서 누구를 데리고 가서 그 사람들 한테 하면서 자기들이 지원비를 줬는데 투명하지 않게,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니까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아요."(항의전화/의견표명자, C)
"서울시는 그나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은 조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에서도 강북 쪽에 공간이나 이런 게 집중되어 있다든지 강남도 그렇고요."(정당 참여자, A)
"잘 되어 있는 곳은 그만큼 재정적으로 자립이 되어 있어서 쓸 수 있는데 지방 자치를 표방하면서도 재정 자립도가 얼마 없어서 받아써야 되는데 그걸 갈망할 수 있는 돈이 많지 않았어요."(정당 참여자, C)

이어서 청년 참여 기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하였는데, 공통적으로 청년 참여 기구에 대해 청년을 대변하여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데에 긍정적인 의견이 나타냈다. 다만, '비참여'집단의 면담자들의 경우 참여 기구에 대한 운영 목적이나 내용들을 알기 어려워서 홍보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편, 참여 경험이 있는 면담참여자들의 경우 참여 과정에서 참여 자질 또는 자격이 부족하여 전문성이 떨어지는 참여자들이 있으며, 개인적인 스펙 쌓기나 이익을 추구하는 활동가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다. 또한 참여 경험이 있는 면담참여자들은 조직/단체에 참여하는 청년들에 대하여 특정 정당의 이념이나 이익만을 추구하며 다소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도 나타냈다.

"좋게 생각해요. 제가 하는 건 부담스럽고 적극성도 없어서 못하고 있는 데 고맙다는 생각이 드네요. 나는 못하는 데 하고 있으니까 부럽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청년들에게 관심이 표명이 되는 거니까요"(비참여자, A)
"조금 더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정책을 위해서 그들의 시간을 할애하고 투입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조금 인상적이지 않나.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집단이 조금 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품을 수 있어서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비참여자, C)
"그런 것에 참여해서 뭐라고 정책에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연령대라면 공감이 좀 덜한데 청년이 참여하면 조금 더 가까운 정책을 제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비참여자, H)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바라고 하는 것 같은 데 그게 돈 혹은 명예인 것 같아요. 스펙 쌓기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정당 참여자, C)
"저도 어디에 이런 똑똑한 사람이 다 있었지? 그런 생각을 하는 데 스스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느낌도 많이 들어요...(중략) 우리 스스로가 그런 경험치를 쌓아가면서 전문성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기반도 안 되고 다들 전업으로 하기도 안 되,고 시간도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은 전문성 부분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청년 심의기구 참여자, A)
"되게 열의가 있다, 열성적이다 라는 느낌. 그리고 어떤 정치 성향이 어느 쪽이든 한쪽 성향으로 치우쳐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비참여자, D)
"당리당략을 체득하게 되면 너무 그대로만 성장하지 않을까 라는 우려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스스로도 견제하고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보고 있는 세계가 모두는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시민단체 참여자, B)

⑦ 중·고등학생 시기 참여 경험과 참여 유형

마지막으로 중·고등학생 시기에 정치·사회 참여 경험이 현재 정치·사회 참여 유형별로 차이가 존재하는지 조사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적극적 참여' 집단의 경우 다른 참여 유형에 비해 중·고등학생 시기에 전반적으로 참여 경험해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비참여' 집단은 중·고등학생 시기에도 참여 경험이 대체로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개인적 참여' 집단은 '비참여' 집단에 비해서는 중·고등학생 시기의 참여 경험률이 높게 나타난 특성이 있었고, 봉사활동이나 서명 참여 경험은 '소극적 참여'

집단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청소년 참여기구 활동이나 집회 및 시위에 참여, 사회 단체 참여 등과 같이 조직적인 참여에서는 '소극적 참여' 집단보다 낮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표 Ⅳ-49 중·고등학생 시기 참여 경험과 참여 유형

		참여 유형				χ^2
		비참여	개인적 참여	소극적 참여	적극적 참여	
청소년참여기구 활동	참여한 적이 있음	10.4	12.3	14.7	20.8	11.445 *
	참여한 적이 없음	89.6	87.7	85.3	79.2	
학교에서의 참여활동	참여한 적이 있음	24.1	31.0	31.2	31.2	13.638 **
	참여한 적이 없음	75.9	69.0	68.8	68.8	
학교 이외에서의 참여활동	참여한 적이 있음	10.5	12.6	16.5	26.0	22.605 ***
	참여한 적이 없음	89.5	87.4	83.5	74.0	
봉사활동	참여한 적이 있음	66.4	74.3	57.1	67.5	19.368 ***
	참여한 적이 없음	33.6	25.7	42.9	32.5	
온·오프라인으로 서명에 참여하기	참여한 적이 있음	24.2	42.1	27.6	48.1	78.103 ***
	참여한 적이 없음	75.8	57.9	72.4	51.9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참여한 적이 있음	10.8	16.7	17.6	26.0	30.874 ***
	참여한 적이 없음	89.2	83.3	82.4	74.0	
사회단체 활동	참여한 적이 있음	10.0	9.6	12.9	20.8	10.688 *
	참여한 적이 없음	90.0	90.4	87.1	79.2	

*p <.05, **p <.01, ***p <.001.

전술한 결과는 중·고등학생 시기의 참여 경험이 청년 시기의 참여 성향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참여 유형별로 진행된 면담 조사에서도 이러한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령, 참여 집단의 경우 청소년 시기에서부터 정치·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거나 정치·사회 참여 경험을 가진 경우가 많았다. 이는 개인의 직접적인 경험에 기인하거나 주변인의 영향을 받아 경험하기도 하고, 효순이/미선이 사건이나 세월호 참사와 같은 동시대 청소년의 비극적인 사건을 겪음으로써 정치·사회 참여에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

"제가 학교 폭력 피해를 입고 분노 등 여러 가지 지원이나 이런 걸 온라인에서 서칭을 하다 보니까 그 키워드로 걸리는 단체들과 활동들이 있었고, 경기도 학생 기본조례가 만들어 지고 내가 속해 있는 지역에서 이런 활동이 시작되니 지원해 보고 활동을 하자 해서 했었고, 온·오프 서명활동 집회 활동이었고... 어쨌든 교육감들의 정치적 쇼와 동원 때문에 하는 것이었고,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청년 심의기구 참여자, B)

"중고등학교 때부터인데 제가 지금 받고 있는 대우가 맞는 대우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방에서 학교를 다니면 아무래도 조건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거든요. 머리 밀고 선생님한테 맞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정당 참여자, C)

"중학교 때 학교 회장 활동했던 것과 고등학교 때 김해시 청소년 기자단을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입시를 준비하면서 입학사정관이 붐을 일 때였는데 그때 언론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선생님 추천으로 활동을 했었어요."(SNS/홈페이지/블로그, D)

"세월호 관련해서 TV로 친구들과 반에서 같이 봤거든요. 그걸 보면서 다 같이 슬퍼하면서 다 같이 배지를 사서 착용하고 추모하자라는 식의 반 전체에서 일어났던 거라서 제가 동조형식으로 했던 것 같고... 그것과 위안부 관련해서는 학교 수업에서도 선생님들이 언급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의식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집회/시위 참여자, C)

"TV를 틀어도 친구들끼리 뭐 하고 있었던 커뮤니티 버디버디에서도 계속 (효순이/미순이 사건)애도에 대한 얘기가 올라오니까 거기에 감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미군과 우리나라의 안보에 대해서라기보다는 친구의 죽음에 대해서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시민단체 참여자, B)

또한 중·고등학생 시기에 참여 경험이 있는 면담자는 이러한 참여 경험이 정치적 효능감을 높여주었고, 자신이 노력한 것에 대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 경험은 청년들의 삶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었고, 전공 선택이나 진로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일말의 참여의 효능감을 느끼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 나이 10대에는 비교적 뭔가 열의에 불타고 그런 걸 기대하기는 했었는데 그걸 타협하는, 조정당하고 타협하는 것들을 경험을 쌓아가고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성취감이 있고 그런 걸 경험하면서 계속 이런 변화를 만드는 게 재미있었고 뭔가 찾게 되었던 것 같아요"(청년심의기구 참여자, A)

"그 이후로도 그와 관련된 뉴스를 찾아본다거나 그걸로 인해서 나타난 다른 현상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니까 제 자신이 변하고 제 자신이 주변 사람한테 알리다 보면 그게 영향을 조금씩, 미진하게나마 미쳤을 것 같아서 저한테는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집회/시위 참여자, C)

"그 당시는 머리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앞섰던 것 같은 데 그 공간에서 판단해야 할 때 판단할 틀이 없어서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는 느꼈어요 연속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전공 선택도 그렇게 하게 됐고 대학에 와서 하는 활동들도 모두 그러한 연장선상에 있다고 봅니다"(시민단체 참여자, C)

"언론이나 방송 부분에 지금 가고자 하는 분야도 큰 틀 안에서 비슷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영향을 많이 준 것 같기도 하고, 뉴스나 이런 걸 보는 습관도 많이 생긴 것 같아요"(SNS/홈페이지/블로그, D)

하지만 이러한 중·고등학생 시기의 참여 경험에 대한 회고과정에서 아쉬웠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면담참여자들은 청소년 시기에 학업부담으로 참여 활동과정에서 물리적인 제약이 있었으며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워하였다. 또한 중·고등학생 시기의 참여 과정은 학생들이 온전히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주변 어른들, 기성세대들에 의한 수동적인 참여였다는 의견도 있었다. 아울러 학생들의 정치·사회 참여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거나 사회적인 편견이 존재하였고, 이로 인해 참여 과정에서 불편하였다는 면담자도 있었다.

"아쉬웠던 점은 탈학교를 하지 못했던 점이 아쉽고, 학교에 매여 있으니까 시간적 물리적 제한이 있어서 좀 더 많은 걸 할애하지 못했던 것이 아쉽습니다."(청년 심의기구 참여자, B)

"학생이라 공부하다 보니까 자주 못 가고 가려면 찾아가야 하는데 멀어서.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는 아무 지원이 없으니까 버스라도 많으면 더 자주 갈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아니니까. 그렇다고 버스가 많을 수도 없는 것이 인구수가 얼마 안 되니까 그런 점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항의전화/의견표명자, C)

"우리가 자발적으로 취재하고 싶은 내용을 찾아가서 취재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에 맞춰서 너희는 이런 걸 취재해라 해서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했던 거라 지금 생각해 봤을 때 그런 점들이 내 역량이나 내 관심분야에 좀 더 발휘하지 못했던 부분인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어요."(SNS/홈페이지/블로그, D)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 별 생각 없이 했던 것 같아요. 좋은 일인 건 알지만 목표나 뜻을 가진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하자고 하니까 좋은 일 하는 거라 수동적으로 따라가기만 한 것 같아요"(항의전화/의견표명자, B)

"저는 학교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이라서 더 그런지 모르겠는데 세월호나 위안부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시는 선생님께서 저희 반에 들어오셔서 뭐라고 하신다거나 '너희가 무슨 그런 걸 하러 다니냐?' 라는 식의 부정적인 말씀도 많이 하시고 뺏지 달고 있으면 벌점 주겠다는 선생님도 계셔서 제 의견을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혼이 나고 그것에 대해서 징계를 받으니까 그게 약간 불편했던 것 같아요."(집회/시위 참여자, C)

한편, '비참여' 집단의 경우 대부분 참여 경험이 거의 없었는데, 일부 참여한 경우에도 학교에서 의무적이나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봉사활동이나 서명이었다. 봉사활동이나 서명에 참여하였다는 면담자들은 해당 경험에 대하여 의무에 의한 형식적 참여가 아쉬웠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중·고등학생 시기의 비자발적인 참여는 현재 자신의 삶에는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봉사활동 하면 숙제 비슷한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산점처럼 하나씩 적립해서 20시간 채우는 거로 이제 봉사활동 했던 기억이 나네요...(중략) 학교 수업처럼 해야 하는 의무적인 것처럼 해야 하니까.상을 준다든지 했으면 조금 더 자기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을 텐데 거의 의무적으로 시키다 보니 아쉬웠던 거 같아요. (현재 제 삶에 미친 영향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비참여자, F)

"중학교 때 같은데 무슨 백만 서명 이런 거 했던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이슈 된 문제였는데 자발적으로 하기는 했는데 그냥 학교에 주니까 서명하는 분위기였어요. 학교에서 거의 돌리다시피 해서 서명하는 거였어요."(비참여자, J)

이처럼 중·고등학생 시기의 참여 경험은 현재 청년들의 정치·사회 참여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러한 청소년의 참여에 대하여 청년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면담 조사를 통해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면담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청소년기의 참여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청소년 시기의 참여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폭넓은 사고를 기르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청소년이 자라서 청년이 되고 청년이 되면 사회 구성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장선상에 있어서 당연히 서로에게 좋게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해요" (청년 심의기구 참여자, C)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사회 정치 참여에 대해서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중고등학생들이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공부 이외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좋다고 생각해요. 긍정적이에요"(비참여자, H)

"저는 그거 자체는 되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사회 정치 활동을 빠르게 참여할수록 자기 생각도 빠르게 잡히는 거고 다양화되고 자기가 누군지 자기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비참여자, J)

⑧ 정치·사회 참여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앞서 청년들의 정치·사회 참여 유형에 따라 인구사회학적인 배경, 가정 배경, 정치적 특성 등에 차이가 있는지 일차적인 분석과 면담자료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때 설문조사의 결과는 다른 배경변인들이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결과로서 그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전술한 결과들을 토대로 청년들의 정치·사회 참여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범주형 종속변수 분석에 적합한 다항로짓모형(multinominal logit model)을 실시하였으며, 우선 '비참여' 집단을 참조집단으로 두고 여타 참여집단에 대해 각각 분석하였고, 이어서 참여 집단 내에서 집단별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표 Ⅳ-50에 제시하였다.

먼저 여성의 경우 '비참여' 집단보다는 '개인적 참여'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극적 참여' 집단보다는 '개인적 참여'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앞서 '개인적 참여' 집단에서 여성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도 유사한 결과이다. 연령은 참여 집단 내에서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데, 30대 이상인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소극적 참여' 집단보다 '개인적 참여'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고, '적극적 참여' 집단보다 '개인적 참여'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개인적 참여' 집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여성과 30대 이상의 청년 비율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의 경우 '비참여' 집단과 다른 참여 집단과의 비교분석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비참여' 집단보다는 '개인적 참여' 집단, '소극적 참여' 집단, '적극적 참여'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각각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술한 결과는 앞서 '비참여' 집단의 경우 비수도권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로서, 역으로 비수도권에서 거주하는 경우 참여집단보다는 '비참여' 집단

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거주지역의 영향은 참여 집단 내에서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현재 청년들의 정치·사회 참여과정에서 일정 수준이상의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거주지역의 제한을 많이 받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청년들의 교육 수준은 '비참여' 집단과 '소극적 참여' 집단 비교에서만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는데, 대학재학 이상인 경우 '비참여' 집단 대비 '소극적 참여' 집단에 속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비참여' 집단의 경우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청년들의 경제적 활동으로서 취업 여부도 일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취업상태인 경우 미취업 상태인 경우에 비해 '비참여' 집단 대비 '적극적 참여'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개인적 참여' 집단 대비 '적극적 참여'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적극적 참여' 집단의 경우 다른 참여 유형에 비해 취업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청년들의 적극적인 정치·사회 참여의 필요조건으로서 경제적 참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가정 배경도 청년들의 참여 유형을 결정하는 데에 의미 있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부모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비참여' 집단보다는 '적극적 참여'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한편, 부모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적 참여' 집단보다는 '비참여'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전술한 결과는 가정 배경으로서 부모의 소득수준과 부모의 학력과 같은 요인들이 다소 상반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학력의 영향과 관련해서는 앞서 교차분석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고학력 부모의 정치·사회 참여의 적극적 성향이 자연스럽게 자녀의 참여 경험에도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모의 소득수준의 경우 반대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비참여' 집단보다는 '개인적 참여'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흙수저', '금수저'로 일컫는 수저계급론이 부모의 학력보다는 경

제적인 여건으로 결정지어진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청년들에게 이러한 정치·사회적 문제의식이 더 강하게 작동될 수 있으며, 이는 보다 적극적인 정치·사회 참여로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적 특성으로서 정치·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도는 참여 유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데, 관심도가 높을수록 '비참여' 집단보다는 여타 다른 참여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각각 높게 나타났으며, '개인적 참여' 집단 대비 '적극적 참여' 집단에 속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교차분석의 결과와도 유사한 결과로서 청년들의 정치·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관심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정치적 효능감이 높을수록 '비참여' 집단 대비 '개인적 참여'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정치적 효능감이 정치·사회 참여에 일정부분 기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정치적 효능감이 높을수록 '소극적 참여' 집단 대비 '개인적 참여' 집단에 속할 가능성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개인적 참여' 집단의 정치적 효능감이 4개의 참여 유형 중에서 '적극적' 집단 다음으로 낮게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개인적 참여' 집단의 경우 정치효능감이 비교적 높지만, 제도적이거나 조직/단체 수준의 참여에는 대체로 소극적인 양상을 나타냈는데, 적극적으로 참여에 나서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중·고등학생 시기의 참여 경험 역시 청년들의 정치·사회 참여 유형을 결정하는 데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구체적으로 참여의 형태별로 상이한 영향력을 나타내었는데, 학교 이외에서의 참여활동(청소년참여예산제, 청소년의회, 지역사회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활동 등) 경험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비참여' 집단 대비 '적극적 참여'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고, '개인적 참여' 집단 대비 '적극적 참여'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온·오프라인으로 서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 '비참여' 집단보다는 '개인적 참여' 집단이나 '적극적 참여' 집단에 속할 개연성이 각각 높았으며,

‘소극적 참여’ 집단보다는 ‘적극적 참여’ 집단에 속할 가능성도 높았다. 마찬가지로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비참여’ 집단 대비 ‘개인적 참여’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일부 참여 유형의 특성에 따라 상이한 결과도 있었는데, 사회단체 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 ‘개인적 참여’ 집단보다는 ‘비참여’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온·오프라인 서명 참여 경험은 ‘소극적 참여’ 집단 보다 ‘개인적 참여’ 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적 참여’ 집단의 특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사적인 영역에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조직이나 단체를 통한 참여에서는 매우 소극적인 형태를 나타낸다. 전술한 맥락에서 사회단체 활동 경험이 다른 유형 집단에 비해 매우 저조한 특성을 지니며, 서명에 참여하는 경험은 ‘소극적 참여’ 집단보다도 많은 특성을 보인다.

한편,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 ‘소극적 참여’ 집단보다는 ‘비참여’ 집단에 속할 개연성이 높고, ‘소극적 참여’ 집단보다는 ‘개인적 참여’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는 앞서 ‘소극적 참여’ 집단에서 다른 유형에 비해 봉사활동 경험률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전술한 결과와 관련해서는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봉사활동의 경험이 이후 청년 시기에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지지는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중·고등학생 시기의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험이 이후 청년 시기의 참여에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Ⅳ-50 정치·사회 참여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참여 vs 개인적 참여			비참여 vs 소극적 참여			비참여 vs 적극적 참여		
		β	S.E	Exp(β)	β	S.E	Exp(β)	β	S.E	Exp(β)
절편		-4.396***	0.379		-4.779***	0.565		-7.955***	0.884	
인구사회학적 배경	성별(여성=1)	0.399***	0.110	1.490	0.143	0.167	1.154	-0.108	0.250	0.898
	연령(30대=1)	0.110	0.113	1.116	-0.236	0.172	0.790	-0.368	0.254	0.692
	지역(수도권=1)	0.307**	0.109	1.360	0.593***	0.166	1.810	0.625*	0.245	1.869
	교육 수준(대학재학이상=1)	0.209	0.135	1.233	0.368†	0.209	1.444	-0.168	0.288	0.846
	취업 여부(취업=1)	0.064	0.119	1.066	0.215	0.185	1.239	0.836**	0.313	2.307
가정 배경	부모교육 수준	0.017	0.054	1.018	0.037	0.084	1.038	0.198†	0.119	1.219
	부모소득수준	-0.083*	0.038	0.920	0.005	0.058	1.005	-0.009	0.084	0.991
정치적 특성	정치·사회문제 관심도	0.464***	0.062	1.590	0.511***	0.094	1.666	0.727***	0.139	2.069
	정치적 효능감	0.310***	0.078	1.363	0.065	0.116	1.067	0.233	0.174	1.262
중·고등학생시기 참여경험	청소년참여기구 활동	0.078	0.281	1.082	-0.103	0.432	0.902	-0.383	0.566	0.682
	학교에서의 참여활동	0.086	0.134	1.090	0.324	0.208	1.383	-0.213	0.306	0.808
	학교 이외에서의 참여활동	-0.014	0.280	0.986	0.316	0.403	1.371	0.880†	0.485	2.411
	봉사활동	0.118	0.133	1.125	-0.603**	0.187	0.547	-0.115	0.291	0.892
	온·오프라인으로 서명에 참여하기	0.618***	0.129	1.855	-0.039	0.220	0.962	0.745***	0.288	2.106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0.772**	0.234	2.164	0.621	0.378	1.860	0.463	0.488	1.588
	사회단체 활동	-1.092**	0.318	0.336	-0.802	0.468	0.449	-0.285	0.566	0.752

†p <.1 *p <.05, **p <.01, ***p <.001.

표 Ⅳ-50 정치·사회 참여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계속)

		개인적 참여 vs 소극적 참여			개인적 참여 vs 적극적 참여			소극적 참여 vs 적극적 참여		
		β	S.E	Exp(β)	β	S.E	Exp(β)	β	S.E	Exp(β)
절편		-0.383	0.638		-3.559***	0.924		-3.176**	1.017	
인구사회학적 배경	성별(여성=1)	-0.256	0.187	0.774	-0.507†	0.261	0.602	-0.251	0.290	0.778
	연령(30대=1)	-0.346†	0.193	0.708	-0.478†	0.267	0.620	-0.132	0.297	0.876
	지역(수도권=1)	0.286	0.185	1.331	0.318	0.256	1.374	0.032	0.286	1.033
	교육 수준(대학재학이상=1)	0.158	0.235	1.172	-0.377	0.305	0.686	-0.535	0.345	0.585
	취업 여부(취업=1)	0.151	0.206	1.163	0.772*	0.324	2.164	0.621†	0.354	1.861
가정 배경	부모교육 수준	0.019	0.092	1.020	0.180	0.125	1.197	0.161	0.140	1.174
	부모소득수준	0.088	0.065	1.092	0.074	0.088	1.077	-0.014	0.099	0.986
정치적 특성	정치·사회문제 관심도	0.047	0.105	1.048	0.263†	0.146	1.301	0.217	0.162	1.242
	정치적 효능감	-0.245†	0.131	0.783	-0.077	0.183	0.926	0.168	0.203	1.183
중·고등학생시기 참여경험	청소년참여기구 활동	-0.181	0.469	0.834	-0.461	0.592	0.631	-0.280	0.674	0.756
	학교에서의 참여활동	0.239	0.229	1.270	-0.299	0.318	0.741	-0.538	0.356	0.584
	학교 이외에서의 참여활동	0.329	0.443	1.390	0.894†	0.516	2.444	0.564	0.591	1.758
	봉사활동	-0.721**	0.215	0.486	-0.233	0.308	0.792	0.488	0.335	1.629
	온·오프라인으로 서명에 참여하기	-0.657**	0.237	0.518	0.127	0.300	1.135	0.784***	0.348	2.190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0.151	0.395	0.860	-0.309	0.498	0.734	-0.158	0.578	0.854
	사회단체 활동	0.290	0.511	1.337	0.807	0.599	2.242	0.517	0.689	1.677

†p <.1 *p <.05, **p <.01, ***p <.001.

(3) 청년의 정치·사회 참여 관련 요구

여기에서는 청년들의 정치·사회 참여 관련 요구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면담 조사 자료와 참여 유형별 분석을 통해 정책적 욕구를 세밀하게 살펴보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청년 정치·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 및 지원 방향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① 참여의 의미

청년들의 정치·사회 참여와 관련한 요구들에 대하여 살펴보기 이전에 청년들에게 참여란 무엇인지 우선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참여의 의미와 관련하여 개인적인 수준에서 참여 경험이 자신에게 갖는 의미와 전반적인 청년에게 갖는 의미에 대하여 면담참여자들에게 질문해보았다.

먼저, 참여 경험의 개인적 의미에 대하여 면담자들은 공통적으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의무이자 권리이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통로라는 응답이 많았다.

> "민주시민으로서의 사람 구실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어요. 민주 시민으로서 국가적인 현안에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해외에 나가서 의료 봉사 행위도 하면서 작게나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민주시민으로서 나도 인권을 생각하고 있고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시민단체 참여자, B)
>
> "나비효과. 진짜 소소하고 작은 건데 이런 게 확산되거나 제가 했던 게 큰 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개인적인 힘이 약하고 미비할지라도 항상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게 민주 시민의 자세가 아닐까."(항의전화/의견표명자, B)
>
> “사회 정치 참여 경험이 나에게 갖는 의미는 민주주의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

주인으로써 내가 의견을 내거나 선거를 함으로써 나의 주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SNS/홈페이지/블로그, A)
"사회 변화에 대한 조그만 움직임. 제가 참여함으로써 제 의견이 전달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집회/시위 참여자, C)

이 외에도 개인적인 참여의 의미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타내기도 하였는데, 면담참여자들은 참여 경험을 자신의 만족감이나 자아실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활동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으며, 개인적인 또는 사회적인 화풀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으로서 생각하기도 하였다.

"만족감을 통해서 좀 더 건강한 삶이 된다. 보람된 일을 하니까 저 스스로 만족스럽고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을 줘서 뿌듯하기도 하고 만족감이 정신건강을 좋게 하기도 해요."(항의전화/의견표명자, B)
"자아실현인 것 같아요. 우리 삶에 있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키고 내 명예나 위치를 깨닫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얼마나 실현 시키느냐인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활동들은 그런 것들을 실현시키는 활동들이라고 생각해요."(시민단체 참여자, A)
"같이 하면서 보람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내가 일단 성장하는 게 나에 대해서 더 알아갈 수 있고, 계속 새로운 과제가 주어지잖아요. 선거 때 어떤 전략으로 활용할 때 할 수 있을까 나나 사회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도전해 보고 안 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정당 참여자, A)
"화풀이 같은 거 같아요. 원래 사회 스트레스 받는 것도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화풀이를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정당 참여자, B)
"개인적으로 스트레스 해소인 것 같아요.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제가 활동을 하든, 활동을 안 하든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뭐라도 활동을 하면 그래도 가만히 있지 않았구나 라는 점에서 스트레스 해소가 되요"(청년 심의기구 참여자, C)

이처럼 참여 경험이 갖는 개인적인 의미에 대하여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에서도 사람, 정치, 사회, 의견, 관심, 도움, 국민 등의 단어가 빈번히 언급되었다. 사람으로서, 국민으로서 마땅히 가질 수 있는 정치와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의견으로 관련 단어가 자주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정치·사회의 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통로로서도 도움이라는 단어 빈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림 Ⅳ-7.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_참여의 의미(개인)

정치·사회 참여가 전반적인 청년에게 갖는 의미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는데, 앞서 개인적인 수준에서 참여의 의미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참여집단과 비참여집단 모두 공통적으로 참여는 청년에게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라는 인식이 다수 존재하였다.

"시민으로써의 권리 행사 같은 것 이고 그런 참여로 인해서 그들을 위한 정책이나 그런 것에 대한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집회/시위 참여자, C)

"시민으로써 의무가 아닌 의무지요. 법적으로 그럴 건 없지만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에요"(정당 참여자, C)

"자기 삶에 대한 하나의 의무인 것 같아요. 자기 삶에 굉장히 연관된 부분이 많은데 정책이나 사회 문제들이 그걸 내가 관심조차 안 가지면 아예 의무를 다 하지 않는 것 같아요"(비참여자, A)

또한 청년들은 향후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세대로서 이러한 정치·사회 참여는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기성세대가 만들어낸 기존의 잘못되거나 부당한 부분들에 대하여 바꾸어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역할이자 움직임으로서 참여를 바라보고 있었다.

"청년들이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들이니까 미리미리 참여해서 더 알고 지금 잘못된 것을 깨달아야 하잖아요."(항의전화/의견표명자, C)

"어떻게 보면 지금 청년들이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는 이끌어가고 국내에서 활약을 할 텐데 그런 것들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SNS/홈페이지/블로그, D)

"저는 기성의 틀과 다른 틀을 만드는. 청년이라는 세대가 기성세대와는 다르게 아직 뭔가를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성세대는 이미 성취한 게 있고 가지고 있으니까 뭔가 변화시켜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데 청년 세대는 이제 내가 뭔가 하고 싶은 데 자원이 없으니까 변화시켜야 할 동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사회에서 어떤 부조리함이나 불평등이나 부정이 민감하게 느끼는 거지요. 그래서 청년들을 위해서도 바꾸지만 사회 전체의 어떤 부당하게 있는 부류들을 먼저 민감하게 느끼는 거지요.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을 느끼고 말하고 그러면서 바꿔 나가는 역할이지요." (청년 심의기구 참여자, A)

"사회 정치는 나이 드신 분들로 이루어진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요즘 시대도 많이 변화되어서 변화를 위한 움직임을 젊은 사람들이 얘기해야 좀 더 밝은 미래가 되지 않을까요."(비참여자, I)

한편, 비참여집단의 경우 참여의 의미에 대하여 청년들의 목소리이자 청년들을 대변할 수 있는 통로라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또한 이러한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청년들의 용기이며,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의 티끌같은 목소리는 변화를 위한 소신 있는 용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지금 청년들이 뭔가 일자리나 취업이나 아니면 나중에 내 집 마련이나 결혼에 대해서 고민도 많고 안 좋은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참여하는 게 그래도 자기 권리를 계속 주장하고 정책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비참여자, D)
"그래도 일부나마 우리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청년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아무래도 지금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과 저희와는 나이대가 다르니깐요."(비참여자, J)
"그런 소리는 내는 것 자체가 용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괜히 모른 부분에서 위축되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그래도 자기 생각을 그런 데에 말 하니까 용기 있는 것 같아요.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비참여자, H)
"많은 사람이 모이면 이게 엄청난 큰 목소리가 되잖아요. 약간 티끌 모아 태산 있잖아요. 그 중에 약간 태산이 되기 위한 티끌의 목소리인 것 같아요. 뭔가 변화를 주기 위한 소신 있는 발언 같은 거. 용기 있는 거죠. 사실 용기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비참여자, E)

이처럼 청년에게 갖는 참여의 의미에 대하여 워드클라우드 분석을 수행한 결과, 전체집단 분석에서는 사람, 정책, 얘기(이야기), 용기, 의무 단어가 빈번하게 나타났다. 앞서 개인적 수준의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람과 의무라는 단어가 빈번히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관련 단어가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참여 집단별 분석에서 비참여집단의 경우 용기, 자기, 사람, 목소리, 변화의 단어가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분석 결과와도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으며, 비참여집단에게 참여란 한 사람으로서의 목소리이며,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은 사회의 변화를 위한 용기 있는 행동으로서 생각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Ⅳ-8.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_참여의 의미(청년)

② 향후 참여 의향과 참여 유형

다음으로 참여 유형별로 향후 참여 의향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정치·사회 참여 항목에 대하여 참여 유형별로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공통적으로 비참여 집단의 경우 다른 참여 집단에 비해 향후 참여 여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즉, 현재 참여하지 않은 집단의 경우 앞으로도 계속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성향이 있었으며, '절대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투표하기를 제외하고 대부분 3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참여 집단 내에서는 항목별로 다소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기도 하였는데, 12개의 항목 중에서 일부 항목별로 차이는 있었으나 참여하겠다는 응답('아마도 참여함'+'확실히 참여함')이 가장 높았던 집단은 '개인적 참여' 집단과 '적극적 참여' 집단 이었다. 구체적으로 '개인적 참여' 집단의 경우 12개 항목 중 조직/단체의 성격을 지닌 참여를 제외하고 향후 참여 의향이 가장 높았다. '적극적 참여' 집단의 경우 집회 및 시위 참여, 항의 전화하기, 정치인이나 공무원, 언론기관에 접촉, 정당가입이나 기부, 청년 참여기구 활동 등의 5개 항목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참여 의향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전술한 5개 항목에서도 '적극적 참여' 집단 다음으로 '개인적 참여' 집단이 대부분 높은 참여 의향을 나타내거나 '소극적 참여' 집단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의 참여 성향이 이후 참여 여부 및 참여의 형태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개인적 참여' 집단의 경우 '적극적 참여' 집단을 제외하고 매우 높은 참여 의향을 나타내고 있어, 참여를 위한 조건들이 일부 개선된다면 향후 적극적인 참여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Ⅳ-51 향후 참여 의향과 참여 유형

		참여 유형				χ^2
		비참여	개인적 참여	소극적 참여	적극적 참여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34.3	18.6	22.4	22.1	152.999***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35.8	29.3	31.2	15.6	
	보통임	17.9	24.7	27.6	40.3	
	아마도 참여함	11.0	25.1	15.3	18.2	
	확실히 참여함	1.1	2.3	3.5	3.9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뱃지, 팔찌, 리본, 스티커 등을 착용/부착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39.4	19.2	25.3	23.4	203.057***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35.4	28.9	34.1	18.2	
	보통임	16.2	26.4	20.0	35.1	
	아마도 참여함	7.8	20.9	17.6	20.8	
	확실히 참여함	1.2	4.6	2.9	2.6	
(온·오프라인으로) 서명에 참여하기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32.6	11.7	18.8	14.3	264.087***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31.1	18.4	28.8	11.7	
	보통임	20.4	28.0	28.2	40.3	
	아마도 참여함	13.7	34.3	19.4	29.9	
	확실히 참여함	2.2	7.5	4.7	3.9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46.9	24.9	32.4	16.9	192.807***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36.9	40.2	35.3	33.8	
	보통임	12.0	21.5	22.4	31.2	
	아마도 참여함	3.7	12.6	8.8	14.3	
	확실히 참여함	.5	.8	1.2	3.9	
항의 전화하기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48.3	30.3	32.9	20.8	126.476***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35.6	38.5	38.2	37.7	
	보통임	11.3	20.5	19.4	23.4	
	아마도 참여함	4.4	9.2	9.4	15.6	
	확실히 참여함	.5	1.5	0.0	2.6	
사회·정치 문제와 관련된 기사, 블로그, 방송, 유튜브 찾아보기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30.6	7.9	18.2	16.9	324.265***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25.2	13.2	31.2	14.3	
	보통임	22.4	22.6	21.2	23.4	
	아마도 참여함	18.9	40.8	22.9	35.1	
	확실히 참여함	2.9	15.5	6.5	10.4	

		참여 유형				χ^2
		비참여	개인적 참여	소극적 참여	적극적 참여	
사회·정치 문제에 대해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 하기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27.1	8.6	16.5	9.1	314.910***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25.3	12.1	24.1	19.5	
	보통임	27.7	24.7	27.6	39.0	
	아마도 참여함	18.1	43.9	27.6	28.6	
	확실히 참여함	1.7	10.7	4.1	3.9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정치인이나 공무원(민원) 또는 언론기관에 접촉하기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47.3	29.3	33.5	18.2	185.555***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38.8	43.1	38.2	28.6	
	보통임	11.2	18.0	19.4	37.7	
	아마도 참여함	2.3	9.0	8.2	11.7	
	확실히 참여함	.4	.6	.6	3.9	
사회·정치적 이유로 특정 상품을 불매하거나 구매하기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38.3	16.3	24.1	16.9	286.444***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31.4	20.5	36.5	22.1	
	보통임	17.9	23.6	21.8	36.4	
	아마도 참여함	10.5	30.5	14.7	18.2	
	확실히 참여함	1.8	9.0	2.9	6.5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기 위해 정당에 기입하거나 기부하기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51.3	38.3	36.5	20.8	141.214***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35.7	38.3	40.6	28.6	
	보통임	10.8	16.9	17.6	40.3	
	아마도 참여함	2.0	5.4	4.7	6.5	
	확실히 참여함	.3	1.0	.6	3.9	
청년 참여기구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 네트워크, 청년의회 등) 활동 하기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48.3	34.1	24.1	18.2	171.455***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37.3	43.1	47.6	26.0	
	보통임	12.3	17.8	20.6	39.0	
	아마도 참여함	1.8	4.4	7.1	14.3	
	확실히 참여함	.3	.6	.6	2.6	
투표에 참여하기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11.9	4.4	12.4	5.2	148.531***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8.1	4.8	13.5	3.9	
	보통임	13.5	8.6	16.5	32.5	
	아마도 참여함	41.3	34.3	31.8	37.7	
	확실히 참여함	25.2	47.9	25.9	20.8	

***p <.001.

③ 청년 참여의 저해요인과 참여 유형

다음으로 청년들의 참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는데, 참여 유형별로 이러한 저해 요인이 다를 수 있다는 가정 하에 교차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청년들의 정치·사회 참여 유형에 따라 저해 요인에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표 Ⅳ-52 청년 참여의 저해요인과 참여 유형

		참여 유형				χ^2
		비참여	개인적 참여	소극적 참여	적극적 참여	
청년 정치 참여 저해 요인	시간이 부족해서	9.1	8.8	10.0	9.1	152.999***
	정치 문제에 관심이 없어서	36.0	30.1	29.4	23.4	
	정치 문제들을 이해하기 어려워서	9.4	9.2	11.2	15.6	
	나의 진로나 스펙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3.6	4.0	1.8	7.8	
	정치 문제들이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아서	22.4	24.1	26.5	28.6	
	정부 및 국회, 공공기관에 대해 신뢰하지 않아서	14.6	19.9	12.9	10.4	
	청년의 정치 참여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4.8	4.0	8.2	5.2	

***p <.001.

전반적으로 모든 참여 유형에서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어렵게 하는 이유와 관련하여 '정치 문제에 관심이 없어서'와 '정치 문제들이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는데, '비참여' 집단의 경우 정치 문제에 관심이 없어서 청년들이 참여하지 않는 응답이 36.0%로 다른 참여 유형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면담 조사에서도 '비참여' 집단의 면담자는 자기 스스로 정치·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처럼 자신이 정치 문제에 관심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치 문제가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나, 정치 문제와 관련해서 부정적 내용이 많고, 이해하기 어려우며, 재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나 살아가기에 바쁘지 내가 여기에 참여해야겠다고 하기는 관심이 부족한 것 같아요. 시간도 부족하고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제도가 생기면 하나라도 더 찾아보고 나라 일에 관심이 갈 것 같아요. 우리에게 도움을 한번 받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더 찾아보고 관심이 가져 지는데 나한테는 해당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관심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비참여자, I)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저도 그래서 참여를 안 했는데 그들의 삶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관심도가 달라질 것 같고 부정적인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일단 재미가 없으니까 관심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런 정치 문제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많거든요. 어렵다고 느껴져서 관심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비참여자, A)

"관심이 없으니까 정보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게 큰 것 같아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홍보도 해주고 국가에서 그러면 좋겠어요." (비참여자, F)

"사회 정치하면 단어 자체에서 무거운 느낌이 들고 의학 용어처럼 어려운 말도 섞어서 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가 주어지지도 않고, 이해를 해야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이해도 못하니까 관심이 아예 없어지는 것 같아요" (비참여자, G)

한편, '정치 문제들이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아서' 참여하지 않는다는 응답의 경우 '적극적 참여' 집단이 28.6%로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높았고, '비참여' 집단은 22.4%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와 관련하여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였던 한 면담자는 관심이 없으면 실망도 없겠지만, 실제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던 청년들의 경우 생각대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실망감이 더욱 클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래서 정치·사회 참여 경험이 있는 청년들 중에는 이러한 실망감으로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이야기한다.

"화만 내고 슬퍼한다는 것 자체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실망도 크거든요. 관심이 없으면 실망도 없는 데 지나가듯이 아! 그랬대? 그랬구나. 하는 데 정말 자기 일처럼 생각했던 일이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이 커서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다 보니까 회복하기 위한 감정적인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아예 돌아서 버리는 경우도 있고 포기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집회/시위 참여자, B)

"이미 지도층에 대한 것과 정경유착에 대해서 풀리지 않는 검경 난리가 좀 있잖아요. 이제 대한민국은 끝났다는 식의 말이 돌다 보니 내가 정치에 작게나마 참여한들 내가 뭘 바꾸겠느냐..."(시민단체 참여자, B)

다음으로 청년들의 정치·사회적 참여를 어렵게 하는 이유와 관련하여 '정부 및 국회, 공공기관에 대해 신뢰하지 않기'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개인적 참여' 집단(19.9%)와 '비참여' 집단(14.6%)의 경우 이러한 응답이 다른 참여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경향성은 실제 정치·사회 참여 성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정부 및 국회,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으며, 혹 참여한다 하더라도 공적인 영역이나 조직/단체 수준의 참여에는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면담 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데, 특히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면담자들은 정부나 국회, 언론 매체에 대하여 대체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 때문에 점점 정치에 대하여 무관심해지고 참여를 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간단하게 뉴스만 접해도 항상 나오는 게 국회가 며칠째 일을 안 하고 있다 파양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 점점 무관심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비참여자, J)

"(참여하지 않는 이유와 관련하여) 신뢰 부족이 크다고 생각해요. 미디어 매체라든지 언론 이런 거 보면 보여주기 식으로 기사를 쓴다든지 시간이 지나면 다 거짓된 정보

인데 너무 이게 예를 들어서 네이버 실시간 검색에 올라오는 것도 바로 글을 삭제한 경우가 있더라고요"(비참여자, F)

"언론의 뭔가 중립화되지 못한 부분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나의 참여가 별 의미가 없다. 큰 영향이 없다 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언론이 계속해서 쏠려있는 것을 많이 느끼고 그 속에서 지속해서 마주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이미지로 현 정부가 바뀌고 그 속에서 뒤돌아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비참여자, C)

"예전에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도 일이 한 번 일어났었고 요즘 이전 대통령들의 부조리함이 밝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정치인들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위가 깨끗하지 않은데 그 밑의 사람들이 깨끗한 지도 의문이고 여기에서 깨끗하다고 해도 어차피 위로 가면 더러워지는데 굳이 사회 참여를 해서 세상을 바꾼다는 게 좀 그래요"(비참여자, G)

“지금 상황을 보면 많이 안 좋으니까. 정책도 안 지키고 공약도 떨어지잖아요." (SNS/홈페이지/블로그, C)

한편, ‘정치 문제를 이해하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은 ‘적극적 참여’ 집단이 15.6%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면담 조사에서도 집회/시위 참여 경험이 있는 면담자는 실제로 참여하면서 비슷한 또래의 주변 사람들이 정치에 대하여 잘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정치·사회 문제가 다양화되고 전문화되면서 청년들이 충분히 이해하기에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생각보다 제 또래의 사람들이 저도 그렇겠지만 정치를 잘 몰라요. 잘 모르는 데 잘 참여할 수가 없는 거지요"(집회/시위 참여자, A)

"점점 다양해지고 전문화되는 사회·정치 현상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탐구하거나 이해하기가 어려워져요."(청년 심의기구 참여자, A)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보수와 진보가 나뉘는 데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집회/시위 참여자, C)

④ 청년 참여 활성화 요인과 참여 유형

다음으로 청년들의 정치·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조사하였는데, 이러한 활성화 요인이 참여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필요한 요건 1,2,3순위를 모두 합산하여 분석한 결과, '청년들의 기본 고용과 주거 안정', '청년 참여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청년정책 추진과정에서 청년들의 직접 참여 보장', '청년기본법 제정 및 제도 활성화', '청년 참여 지원정책의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공통적으로 4개 참여 유형에서 대체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Ⅳ-53 청년 참여 활성화 요인과 참여 유형

1+2+3순위		참여 유형			
		비참여	개인적 참여	소극적 참여	적극적 참여
청년 정치 참여 활성화 요인	청년기본법 제정 및 제도 활성화	36.9	35.4	35.9	35.1
	청년정책 추진과정에서 청년들의 직접 참여 보장	37.3	37.4	36.5	40.3
	청년정책 전담부처 구성	17.1	11.1	20.6	23.4
	청년 참여 공간(시설, 온라인 포털) 확대	25.7	29.1	26.5	35.1
	청년 참여 활동비 지원	31.1	27.4	26.5	29.9
	청년 참여 지원정책의 예산 확대	34.2	31.2	35.3	39.0
	청년 참여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40.5	42.5	39.4	32.5
	청년들의 기본 고용과 주거 안정	44.6	46.2	44.1	26.0
	청년 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26.9	32.6	27.6	27.3
	청년 할당제 도입 (정당 비례대표, 지자체 위원회 등)	5.7	7.1	7.6	11.7

구체적으로 '청년들의 기본 고용과 주거 안정'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개인적 참여' 집단이 46.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비참여' 집단(44.6%), '소극적 참여' 집단(44.1%)로 높게 나타났으며, '적극적 참여' 집단의 경우 26.0%로 다른 참여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정치·사회 참여에 소극적이거나 참여하고 있지 않은 청년들의 상당수는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야 정치·사회 참여가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청년 참여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조건으로 기본 고용과 주거 안정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면담 조사에서도 개인적 수준에서 참여하고 있는 한 면담자는 청년 참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으로 기본 고용과 주거 안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는데,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기본적인 고용과 주거 안정이 뒷받침되어야 청년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가장 인상적인 건 기본 고용과 주거 안정...(중략) 일단 청년 실업의 문제가 많다 보니까 당장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런 일자리가 있더라도 질이 떨어지는 일자리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일자리는 많은 데 90%가 파트 타임이고 아르바이트다 그러면 부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정책의 기본 틀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일단 자기가 좀 더 여유가 있으면 그만큼 내 생각은 이런데. 라고 말할 수 있는 바탕은 되겠지요."(SNS/홈페이지/블로그, B)

'적극적 참여' 집단도 이러한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다른 참여 집단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었는데, 이는 실제로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청년 활동가들과 그렇지 않은 청년들 간의 정책적 욕구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청년 참여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청년들의 비율도 높게 나타났는데, 참여 유형별로는 '개인적 참여' 집단(42.5%)에

서 홍보의 필요성에 대하여 가장 많은 동의를 나타내었고, 그 다음으로 '비참여' 집단(40.5%), '소극적 참여' 집단(39.4%), '적극적 참여' 집단(32.5%) 순이었다. 앞서 '개인적 참여' 집단의 경우 정치·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도도 높고, 정치적 효능감도 높은 반면 실제 자신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거나 집단적 수준의 참여에는 소극적인 양상을 나타내었는데, 실제 청년 참여 참여와 관련한 지원이나 정책들에 대한 정보의 부족 때문에 참여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욕구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면담 조사에서도 SNS/홈페이지/블로그 등 개인적 수준에서 정치·사회 참여를 하고 있는 한 면담자는 현재의 정책이나 지원에 대해서는 일부 보완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충분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가장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홍보라고 응답하였다. '개인적 참여' 집단의 경우 청년들에게 어떠한 정책과 지원이 있고,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알려준다면 정치·사회참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짐작된다.

> "저는 지금 있는 것에서 충분하지 않을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하는 건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것 말고는 솔직히 당장 필요한 건 홍보. 정책에 대한 홍보"(SNS/홈페이지/블로그, B)

또한 '비참여' 집단 역시 이러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상당수 동의하였는데, 면담 조사에서도 이러한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참여' 집단의 면담자는 청년 참여와 관련한 지원정책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홍보가 선행되어야 하고 홍보가 많이 될수록 사람들의 관심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이를 통해 자신과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자기가 관심이 있지 않은 이상은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근데 평소에 자기가 관심이 있었는데도 찾아보아야 하는 거를 생각을 못 하고 있을 때 홍보를 해서 홍보하는 매개체를 접했을 때, 한 번 알아볼까 해서 그때 돼서 관심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홍보를 접함으로써 관심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관심이 생겨서 하다 보면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홍보가 좋은 시발점이 되는 것 같아요."(비참여자, F)

"홍보.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참여를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하면 한번이라도 더 관심이 가고 봐 지지 않을까 생각해요."(비참여자, I)

"제 주변에서는 뉴스도 잘 안 보고 청년 정책이 뭐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홍보도 활발하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주거나 고용이 제일 기본적으로 당연히 전제되어야 하고 거기에 이제 홍보나 인식 개선이 부가적으로 되어야 참여를 많이 할 것 같아요."(비참여자, J)

이어서 '청년정책 추진과정에서 청년들의 직접 참여 보장'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4개의 참여 유형에서 비교적 고르게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는데, 특히 '적극적 참여' 집단의 경우 40.3%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이는 면담 조사의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실제로 청년 위원회 등 심의기구 참여경험이 있는 면담자들은 청년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직접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하였다. 청년 심의기구 참여를 하고 있는 한 면담자는 최근 청년 정책을 내세우며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추진되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이 온전히 청년들을 위함인지 수행기관의 실적을 위함인지 의문점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청년 정책 추진과정에서 청년들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청년들이 나서서 직접 참여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청년의 사회·정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청년정책 추진과정에서 청년들의 직접 참여 보장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정책이라고 굉장히 많은 예산을 책정하여 추진하는데, 그 돈이 과연 청년들을 위해 쓰여지는 것인지 수행기관의

사업 실적과 운영을 위해 쓰여지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제가 아는 청년정책은 보통, 기성세대들이 운영하는 수행기관들이 입찰하여 청년을 고용하면 다행인 정도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한 수행기관들이 청년을 얼마나 잘 이해해서 청년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혹여나 청년단체들이 너무 참여를 안 한다고 해도, 모니터링과 실적이라도 확실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청년 심의기구 참여자, D)

이러한 청년들의 직접 참여 보장의 중요성은 '비참여' 집단의 면담자들의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기성세대들은 기성세대가 가장 잘 대변할 수 있고, 청년 세대는 청년들이 대변할 수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자신들의 정책 추진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이러한 정책 참여 과정에서 청년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를 통해 결정하거나, 전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온라인 투표 등의 직접 참여 방법을 통해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을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청취할 수 있었다.

"그러면 일단 청년들이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그게 기존에 사회정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저희와 나이가 비슷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만나는 사람들도 청년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더 잘 알 수 있고 4, 50대분들은 기존에 기성에 있는 기성세대들이 기존의 정치 참여하던 분들이 잘 대변을 할 테니까 항상 우리와 더 자주 맞대는 청년들이 더 잘 대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비참여자, J)

"정책 참여 과정에서 청년 대표를 꼭 포함해서 의견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약간 투표를 온라인상으로 라도 온라인 투표를 받거나 이런 식으로 보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보장을 한다는 게 그 의견을 무조건 듣고 시작을 한다는 거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청년을 위한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비참여자, D)

다음으로 '청년기본법 제정 및 제도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모든 참여 유형에서 비슷한 수준의 응답률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앞서 기초 분석 결과에서 이러한 청년 관련 법이나 제도에 대해서 청년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실제로 면담 조사에서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긴 하지만 이러한 법이나 제도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응답이 많았고,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뭔지 알아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 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홍보된 게 없고 정부에서도 이런 걸 가지고 팜플랫을 뿌린 게 없다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장려는 잘한 것 같아요."(SNS/홈페이지/블로그, B)

"여기 모인 사람들은 정책적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모른다는 건 아직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고 홍보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취지가 있다면 좀더 많이 홍보를 하고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SNS/홈페이지/블로그, D)

"좋아요.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있으면. 그리고 법으로 보장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있으면 좋은데 그게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집회/시위 참여자, C)

"저도 처음 듣는 것 보니까 홍보가 잘 안 됐나? 싶어요"(집회/시위 참여자, B)

이어서 청년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년 참여 지원정책의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에 대해서는 '적극적 참여' 집단의 경우 39.0%로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이와 관련하여 면담 조사에서 정당이나 심의기구, 시민단체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면담자들이 공통적으로 참여과정에서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있다고 토로하였다.

"(운영 예산은) 당원비로 하는데 예산은 항상 부족했어요. 활동을 하고 싶은 데 생활비를 벌어야 되니까 활동을 그만둔다든지, 활동비가 안 나오니까. 항상 갈등하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하는 친구들도 많고, 다른 정당들은 보조금이 나오는데 우리는 안 나오잖아요....(생략) 예산적으로나 지원이 빡빡한 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정당 참여자, A)

"저는 시민 참여 예산을 하고 있는데 시민 참여 예산은 분과마다 예산이 있어요. 얼마까지 10억까지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있거든요 그 안에서 올렸다가 떨어지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그 예산까지는 사업을 올려볼 수 있는데 청년예산은 딱히 정해진 게 없어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시도를 해 볼 수 있도록 예산이 정해져 있으면 이것저것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청년 심의기구 참여자, D)

"자원의 한계. 예산이 어려웠어요. 여유가 있으면 복지도 충분히 해 주고 나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건데 한계가 있어서요"(시민단체 참여자, A)

한편, 청년 심의기구 면담자들의 경우 이러한 예산 부족에 대하여 지역 간 일부 이견이 있었다. 서울 등 수도권의 기구인 경우 딱히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반면에, 지방의 경우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에서 예산 확대가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서울시에서 다 지원이 되는데 저희는 부족함을 느끼지 않아요. 필요한 것들은 거의 다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청년 심의기구 참여자, A)

"캠페인 활동비나 네트워크 활동비가 배정된 예산 안에서 다 지원 가능하더라고요." (청년 심의기구 참여자, B)

"현재 정책과 제도, 구조의 문제보다는 시정활동, 구정활동 등 다양한 시민 사회 단체, 청년 단체에 참여하고 활동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금이나 복지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에서는 지난 20일, 서울시청에서 개최된 '2019 지방정

부 청년정책 협력포럼'에 참석하고자 하는 ○○ 청년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市 측에서 버스 대절 예산 하나 집행하지 못해 많은 청년들이 안타깝게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의 지원은 확실히 해주어야 합니다. 청년활동가들에게 지원되는 '예산 확대'가 가장 우선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청년 심의기구 참여자, E)

이외에도 참여 유형별로 활성화 요인에 차이가 있었는데 '적극적 참여' 집단은 '청년 정책 전담 부처 구성'(23.4%)이나 '청년 참여 공간 확대'(35.1%), '청년 할당제 도입'(11.7%) 등에 대하여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이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의 경우 실제 참여 과정에서의 아쉬웠던 점이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예산이나 공간 등 인프라 부족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참여기구나 정당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은 자신들과 같이 현재 청년들의 목소리가 효과적으로 잘 전달되기 위해서 전담 부처 구성이나 청년 할당제의 필요성을 더 인식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이슈가 향후 자신의 진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청년 참여 공간의 다양화와 포털화가 필요합니다. 정보의 분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청년 심의기구 참여자, B)

"청년 할당제 도입을 정당 비례대표, 지자체 위원회에 적극 반영하고 시행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현재, 거대 정당에는 도입이 되고 있긴 하지만 당선권과 거리가 먼 순번에 청년들을 넣습니다. 보여주기용, 달래주기용, 이벤트용 청년 할당제에 불과합니다. 당선 안정권인 순번에 2030 청년들을 대거 영입해야 하며 각종 관변단체 및 지자체 위원회에도 청년들을 절대적으로 배정해야 합니다. 특히, 각 동의 주민자치회나 청년회 같은 경우 나이 많은 기득권, 지역 토호세력들이 자리 잡고 있어 청년들이 활동하기엔 턱없이 높은 벽입니다. 이런 기존의 관행들을 깨부수어야만 청년들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고 활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청년 심의기구 참여자, E)
"청년 정책 전담부처와 청년 할당제. 청년 할당제는 지금 현재 정권을 만들거나 정당을 만들 때 정책 자체가 약간 투표를 많이 하시는 노인들을 위한 정책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청년들의 정치 참여도가 워낙 낮다 보니까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적절하게 판단해서 뽑아서 그 사람들이 의견을 직접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청년 정책 전담 부서 구성은 할당제 관련한 사람들과 연관 지어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의견을 얘기하고 말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구가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집회/시위 참여자, C)

한편, '개인적 참여' 집단은 청년 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대하여 필요하다는 응답이 다른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성을 나타내었는데, 해당 청년들의 경우 청년 참여에 대하여 부정적인 편견과 인식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청년 심의기구 참여자는 이러한 정치 참여가 청년들 사이에서도 부정적으로 비춰지고 있음을 우려하며, 누구나 참여 할 수 있고, 마땅히 참여해야 한다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청년들 사이에서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게 많기 때문에 청년이 된 후는 말고, 청소년기에도 그런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이 확대되어야 하고 이걸 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너도 관심 있는 분야에서 충분히 활동을 해야 된다는 교과서적인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청년 심의기구 참여자, C)
"사람이 조금 더 많이 있으면 쉽게, 지금은 너무 참여하면 특이하고 이상한 사람처럼 보기 때문에 기피해요"(정당 참여자, A)

청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욕구에 대하여 워드클라우드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분석 결과 전체 면담자들 대상으로 사람, 정책, 사회, 정치, 활동, 인식, 관심, 지원, 홍보에 대하여 주로 언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참여 집단과

비참여 집단에 따라 나타난 단어에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참여 집단의 경우 공간, 필요, 할당제, 주거에 대한 언급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비참여 집단의 경우 관심, 홍보, 자기, 개선 등의 단어가 많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참여 유형에 따라 정책 지원 욕구에 차이가 있었던 것과 유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집단의 경우 실제 참여과정에서의 공간문제나 할당제 등과 같은 정책적 욕구가 높게 나타난 반면, 참여하지 않는 청년들의 경우 우선으로 홍보와 관심 제고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Ⅳ-9.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_청년 참여 활성화 요인

3.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청년들의 정치·사회 참여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와 면담 조사를 수행하였다. 일차적으로 설문조사를 토대로 청년 정치·사회 참여 실태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을 수행한 후,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청년 참여의 다층적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실증모델을 토대로 심층 분석을 수행하였고, 면담자료 결과를 함께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여기에서는 기초분석과 심층 분석의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기초분석

본 연구에서는 제도적 참여부터 비제도적 참여에 이르기까지 청년들의 다양한 참여 형태를 고려하여 조사하였는데,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정치 문제와 관련된 기사, 블로그, 방송, 유튜브를 찾아보거나 정치 문제에 대하여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등의 수동적 관여 수준의 참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다는 청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정당 가입이나 기부 등, 청년 참여 기구 활동 등 투표를 제외한 제도적 참여 형태의 참여율은 낮은 경향이 있었다. 또한 개별적인 특성이 있는 정치 참여 경험률은 높았지만,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항의 전화하기 등 조직적이거나 단체의 성격을 지닌 참여 경험 비율도 낮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특히 청년 참여기구와 관련한 활동을 하는 청년들은 매우 일부이며, 대다수의 청년은 이러한 활동 경험에서 배제되고 있었다.

또한 청년들의 참여를 연령, 성별, 교육 수준, 취업상태 등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대체로 여성보다는 남성이 참여율이 높고, 고학력이거나 높은 연령대인 경우에 참여율이 높은 경향성이 있었으나, 참여 항목별로 일부 차이가 있었다. 전술한 결과는 청년들의 참여에 다층적인 양상이 존재하였고,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따라 이러한 참여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아울러 이러한 경향성은 향후 청년들의 정치 참여 의향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리하여 투표를 제외한 제도적 참여의 경우 향후 참여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낮았으며, 집단적 특성이 있는 정치 참여에 대해서는 참여 의사가 낮게 나타났다.

청년들이 정치 참여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치 문제에 관심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청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치·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및 관심이 없는 이유에 대하여 좀 더 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정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감도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어렵게 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신뢰도 부족, 정치 문제에 대한 이해 부족, 시간 부족 등이 청년들의 정치 참여 저해 요인으로 거론되었다. 아울러 청년 집단 내에서도 연령대와 교육 수준, 취업 여부 등에 따라 정치 참여가 어려운 이유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청년들의 다양한 사회 참여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하였는데, 단체(모임)의 특성이나 성격에 따라 청년들의 참여율에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취미나 스포츠와 같은 여가활동 모임이나 친목 및 친교 모임에는 청년들의 참여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시민사회 단체나 지역사회 모임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참여 목적과도 연관되어 있는데, 개인적인 즐거움이나 네트워킹, 개인 역량 제고 등을 목적으로 두는 단체(모임) 활동에는 적극적이지만, 사회적 문제나 지역사회 문제 등과 연관된 단체(모임)에는 소극적인 참여를 나타냈다. 한편, 이러한 사회 참여는 성별, 연령별, 교육 수준별, 취업 여부 등에 따라 참여 양상에 차이가 있었는데, 이러한 경향성이 일관적이지는 않았고, 단체(모임)의 성격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청년들의 참여 관련 법, 정책, 기구에 대한 인지도는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통적으로 여성인 경우와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경우 법/정책/기구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년들의 정치·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기본 고용과 주거 안정,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청년들의 직접 참여 보장, 청년기본법 제정 및 제도 활성화 등에 대한 정책적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청년 정치·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요건에 대해서는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가령 청년 참여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여성에게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참여 관련 인지도에서 상대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낮았던 것과 연관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술한 결과는 청년 집단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집단별 정책적 욕구를 면밀히 파악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전 중·고등학생 시기의 참여 경험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연령이 낮을수록, 현재 재학 중인 청년들의 경우 중·고등학생 시기의 참여 경험이 많았는데, 이는 최근 청소년 참여 활동의 확산과 함께 이러한 경험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심층 분석

앞서 기초분석의 결과에서 청년 정치·사회 참여 양상에 다양한 층위가 존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잠재프로파일분석(LPA)을 통해 실증적으로 이러한 청년 참여의 다층적 구조를 세밀하게 밝혀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심층 분석에서는 청년 참여의 4가지 잠재유형으로 도출할 수 있었다. 아울러 해당 참여 유형의 특성에 따라 '비참여' 집단, '개인적 참여' 집단, '소극적 참여' 집단, '적극적 참여'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년들의 대다수는 '비참여' 집단에 속하였고, 다음으로 '개인적 참여' 집단의 비율이 높았는데, '소극적 참여'와 '적극적 참여' 집단은 매우 일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전체 청년들 가운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집단은 매우 일부이며, 청년들의 3/4 이상은 정치·사회 문제에 침묵하거나 비참여

하는 경향이 많았고, 공개적인 의견 표명은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적 특성의 참여뿐 아니라 조직/단체 수준의 집단적 참여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활동가들은 전체 청년의 극소수이며,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청년들이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문제에서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내고, 청년들의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 교육의 활성화 및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인구사회학적 배경이나 가정 배경, 정치적 특성에 따라 참여 유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항로지스틱 모형을 활용한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요약하면,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여성인 경우와 30대 이상인 경우 '개인적 참여'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또한 비수도권에서 거주하는 경우 참여 집단보다는 '비참여'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청년들이 밀집되어 있고, 참여할 기회나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많은 수도권에서 청년 참여의 적극성도 높게 나타난 것으로 이해된다. 이처럼 청년들의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참여 격차가 존재할 수 있는데, 지역 간 균형 있는 참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 수준별로는 대학재학 이상인 경우 '비참여' 집단 대비 '소극적 참여' 집단에 속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비참여' 집단에서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청년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과 관련되어 있다. 취업상태에 따라서도 참여 유형에 차이가 있었는데, 취업한 경우 '비참여' 집단 대비 '적극적 참여'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개인적 참여' 집단 대비 '적극적 참여'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즉, 취업은 청년들의 경제적 참여이자, 적극적인 정치·사회 참여를 위한 중요한 요건임을 시사한다.

가정 배경으로서 부모의 소득수준과 부모의 학력은 상반된 영향을 미쳤는데,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보다 적극적인 참여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고학력 부모의 경우 정치·사회 참여에서 적극적 성향을 띨 개연성이 높고, 이는

자녀의 참여 성향에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부모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오히려 '비참여' 집단보다는 '개인적 참여'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는 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인 청년들이 오히려 정치·사회 참여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참여 유형 집단별로 참여 동기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개인적 참여' 집단의 경우 정치·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참여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고, '적극적 참여' 집단의 경우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 청년들의 권리나 이익을 높이기 위해 참여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을 보였다.

정치·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도와 정치적 효능감도 참여 유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정치·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수록 '비참여' 집단보다는 여타 다른 참여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정치적 효능감이 높을수록 '비참여' 집단 대비 '개인적 참여'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청년들의 정치·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선으로 관심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면담 조사에서 '비참여'집단의 경우 정치·사회 문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사회 변화에 대한 회의감이 컸는데, 청년들의 정치·사회문제에 대한 관심도와 정치적 효능감을 증진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지원이 요구된다.

청년 참여 관련 법/정책/기구 인지도와 참여 유형과의 관계에서는 법/정책/기구에 대하여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에 따라 참여 수준도 다르게 나타났다. 다만, 면담 조사에서 참여자들 가운데 역으로 참여 과정에서 법이나 정책들을 인지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처럼 참여 경험에 따라 인지도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참여 관련 법/정책/기구에 대하여 청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면담 조사를 수행하였는데, 분석 결과, 대체로 청년 참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가 많았다. 하지만 이러한 법/정책/기구에 대한 홍보의 부족으로

청년들 가운데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으며,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었고, 그 실효성에 대해서도 일부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중·고등학생 시기의 참여 경험 역시 청년들의 정치·사회 참여 유형을 결정하는 데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는데,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봉사활동의 경험은 청년 시기에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면담 조사에서 다수의 청년은 공통으로 청소년기 참여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였으며, 청소년 시기의 참여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폭넓은 사고와 정체성 확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였다. 전술한 결과는 청년들의 정치·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청소년기 참여 경험이 중요함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청소년들의 주체적 참여를 위한 관련 제도 및 정책적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정치·사회 참여가 청년들에게 갖는 의미에 대하여 면담 조사하였는데, 청년들은 이러한 참여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라는 인식이 많았고, 새로운 세대로서 청년들의 정치·사회 참여는 향후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과정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비참여' 집단의 경우 참여는 청년들의 목소리이자 청년들을 대변할 수 있는 통로로서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여겼다.

다음으로 향후 참여 의향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참여 유형이 이후 참여 여부 및 참여의 형태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인적 참여' 집단의 경우 '적극적 참여' 집단 다음으로 높은 참여 의향을 보였으며, 조직/단체 수준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나설 용의가 있었다. 이는 '개인적 참여' 집단의 경우 참여를 위한 조건들이 일부 개선된다면 향후 적극적인 참여 집단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청년들의 정치·사회 참여 유형에 따라 청년 참여 저해 요인에 대한 생각에 차이가 있었다. 이는 참여 유형별로 어떠한 연유로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더욱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가령, '비참여' 집단의 경우 '정치 문제에 관심이 없어서' 청년들이 참여하지 않는 응답이 다른 참여 유형

과 비교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치·사회 참여에 나서지 않는 청년들의 경우 관심 부족이 가장 큰 요인이며 우선으로 청년들의 정치·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지지한다. '비참여' 집단의 경우 취업이나 실생활 등 청년들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에서부터 정치·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정치·사회 문제에 대하여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도 함께 뒷받침될 필요성이 있다.

'개인적 참여' 집단의 경우 청년들의 정치·사회적 참여를 어렵게 하는 이유와 관련하여 '정부 및 국회, 공공기관에 대해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참여 유형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개인적 참여' 집단의 경우 정치적 관심이나 효능감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정부나 국회, 공공기관 등에 대한 신뢰가 낮기 때문에 제도적인 참여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사적인 영역에서의 참여에만 나서는 것으로 해석된다.

청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요건에 대해서도 참여 유형별로 다소 이질적인 특성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부분 대변하고 있는 '적극적 참여' 집단의 활동가들이 청년 전체의 다양한 목소리를 잘 대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한다. 정치·사회 참여에 소극적이거나 참여하고 있지 않은 청년들의 경우 청년 참여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조건으로 기본 고용과 주거 안정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는데, 즉, 대다수의 청년은 청년들의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야 정치·사회 참여가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청년참여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가 필요다고 인식하는 청년들의 비율도 높게 나타났는데, 참여 유형별로는 '개인적 참여' 집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비참여' 집단이었다. '개인적 참여' 집단의 경우 정치·사회 관심도나 효능감이 높았지만 자신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거나 집단적 수준의 참여에는 소극적이었는데, 실제 청년 참여의 방법이나 관련 정책 및 지원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적극적 참여’ 집단의 경우 ‘청년참여 지원정책의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에 대하여 전체 집단 중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이는 ‘적극적 참여’ 집단의 청년들은 예산 부족이나 인프라 부족 등 실제 참여 과정에서의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청년들의 참여 유형에 따라 정책적 욕구에 차이가 존재하였는데, 집단별 요구도를 면밀히 고려하여 정책사업의 목표가 되는 대상 집단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

V. 정책 제언 및 결론

1. 정책 비전 및 분야
2. 정책 제언
3. 결론

5 정책 제언 및 결론[17]

1. 정책 비전 및 분야

본 연구에서는 청년의 사회적·경제적 실태를 근거로 '청년과 함께 하는 미래 한국'이란 비전 하에 다음과 같이 5개 정책분야에서 16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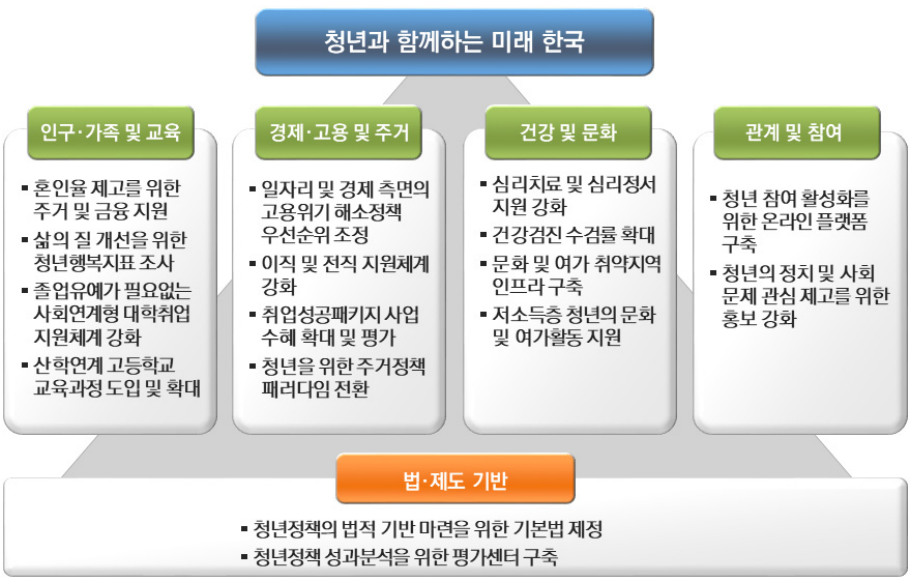


그림 V-1. 청년정책 비전 및 정책과제

17) 이 장은 김형주 선임연구위원, 연보라 부연구위원(이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집필하였음

2. 정책 제언

1) 인구·가족 및 교육 분야

(1) 혼인율 제고를 위한 주거 및 금융 지원

가.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의 핵심지표 중 우리나라의 연차별 혼인율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그리고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5~29세를 대상으로 혼인건수는 2000년 43만 5천건에서 2018년 16만 9천건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혼인율과 출산율은 직접적인 상관을 갖는다는 것을 고려할 때 혼인율 혹은 결혼의향 제고를 위한 사회·경제적 지원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나. 추진근거

금년도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서 청년들이 결혼을 망설인 이유로는 '결혼비용 때문'이 가장 큰 이유였고 그 다음이 '결혼생활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자유로운 삶을 포기할 수 없어서', '출산 혹은 양육에 대한 고민 때문에', '불안정한 직장 때문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1 결혼을 망설인 이유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결혼비용 때문에	출산 혹은 양육에 대한 고민 때문에	불안정한 직장 때문에	자유로운 삶을 포기할 수 없어서	결혼생활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기타
2017	308	46.4	12.5	7.5	13.7	18.8	1.1
2018	353	65.8	9.1	6.3	9.1	9.2	0.6
2019	341	53.2	8.6	8.5	11.8	16.4	1.5

* 주: 결혼을 준비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 응답

다. 추진내용

청년들이 결혼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가 주택마련과 혼수비용 등의 경제적 부담인 만큼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에 대한 주거 및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 신혼부부 청약가점의 강화, 신혼부부 장기임대주택 기회 확대 등 기존의 주거정책을 강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아파트 이외의 다가구(다세대)주택의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도입, 예비신혼부부의 혼수비용에 대한 장기저리 대출, 실제혼을 유지하고 있는 동거부부에 대한 주거와 금융 지원을 병행·확대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라. 추진체계

혼인율 제고 정책은 여러 부처간의 연계 및 협력이 필요한 정책이므로 국무조정실의 총괄조정 하에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의 기능별 역할 및 사업 분담이 적절할 것이다.

마. 소요예산

주거 및 금융 지원 예산은 각 부처의 기존 사업비의 수정 및 확대가 필요하고 이를 원활히 조정하기 위한 국무조정실의 조정위원회 운영비는 다음과 같다.

표 Ⅴ-2 혼인율 제고를 위한 주거 및 금융 지원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국무조정실 조정위원회 운영비	2020년	500	-
	2021년	700	-
	2022년	700	-

(2)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한국 청년행복지표 조사 시행

가. 필요성 및 목적

금년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에서 해외 이주를 고려해 본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해외 이주를 고려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28.8%로 2018년(14.1%)보다 14.7%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후반으로 갈수록,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학력별로는 대졸이상에서 해외 이주를 고려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의 청년들의 삶의 질을 체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청년정책의 효과성을 보장하는 기본이 될 것이다.

나. 추진근거

청년들이 해외이주를 고려한 이유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새로운 사회에 도전해 보고 싶어서',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위해서' 순으로 응답되었다.

표 Ⅴ-3 해외이주를 고려한 이유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자기 계발을 위해서	새로운 사회에 도전해 보고 싶어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위해서	취업이 어려워서	아이를 낳고 키우기 힘들어서	빈부 격차가 커서	집값이 너무 비싸서	안보가 불안해서	기타
2016	564	12.8	18.5	27.8	12.6	6.8	8.4	7.8	2.5	1.7	1.2
2017	943	11.2	18.7	34.3	13.4	5.5	7.9	3.7	2.1	2.0	1.0
2018	411	15.5	26.2	23.0	10.5	8.7	8.4	4.1	1.1	2.3	0.2
2019	935	9.5	17.8	30.9	14.2	5.3	10.9	3.9	4.4	0.9	2.3

* 주: 해외이주를 고려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다. 추진내용

한국에서의 청년의 삶의 질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조사와 데이터를 생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년들의 행복에 대한 전반적인 현주소를 전국단위에서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행복지표 조사를 매년 시행하여 행복의 관점에서 삶의 질을 파악해야 한다.

표 Ⅴ-4 청년행복지표 조사 개요

구분	내용	기타
조사 목적	전국 청년들의 행복지표 조사	
조사 대상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5 ~ 39세 일반국민	
표본 설계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리스트를 표본추출 표집틀로 하여 1,737개 표본조사구에서 3만 5천 가구 조사	
조사 방법	조사원이 가구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 대상자를 대면하여 1:1 가구방문 개별면접 기법으로 수행	
조사 기간	2020년부터 매년 수행	

* 주: 표본 설계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표본 설계의 틀을 일부 차용함

라. 추진체계

청년행복지표는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를 이미 4년차 수행 중에 있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행한다.

마. 소요예산

표 Ⅴ-5 청년행복지표 조사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청년행복지표 전국조사 소요예산	2020년	800	-
	2021년	900	-
	2022년	1,000	-

(3) 졸업유예가 필요없는 사회연계형 대학취업지원체계 강화

가. 필요성 및 목적

대학 진학은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중요한 성장과제이고, 사회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청년들의 취업상황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지 못함으로써 대학 재학생들의 졸업유예 현상을 본 실태조사를 시작한 2016년(5.3%)보다 2019년(9.5%)에 4.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유예가 개인적 차원의 사정 혹은 학업적 필요에 의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회적 문제라고 할 수 없겠으나 최근 대학생들의 졸업유예 현상은 개인이나 학업적 차원을 넘어 노동시장의 문제와 연계된 사회문제라고 진단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러한 졸업유예 현상의 원인에 근거하여 사회진출의 과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나. 추진근거

졸업유예의 이유를 살펴보면, '취업준비를 하기 위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진로를 결정하지 못해서', '졸업을 해도 취업이 안 될 것 같아서' 순으로 응답되었다. 청년들이 진로와 취업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졸업유예를 선택하고 있는 현상을 알 수 있다.

표 V-6 졸업 유예 이유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취업준비를 하기 위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해서	졸업을 해도 취업이 안 될 것 같아서	경제적으로 학비나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문화 및 여가생활을 누리기 위해	기타
전체	219	51.0	22.8	13.4	9.6	2.0	1.3

* 주: 대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경우 중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이수하고도 졸업을 늦추거나 졸업을 늦추기 위해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만 응답

다. 추진내용

청년 대학생들이 졸업유예의 이유에서 알 수 있듯이 취업준비, 진로결정,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주된 원인이다. 교육부에서 대학구조개혁평가나 최근의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취업률을 중요한 평가지표로 삼고 있는데, 졸업 후의 결과지표인 취업률 뿐만 아니라 취업까지의 과정에 대한 지원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즉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를 비롯한 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도 재학생들에 대한 취업지원체계를 강화하도록 하는 재정지원과 평가지표 반영 등을 통해 취업준비과정과 진로결정과정에 대해 대학의 노력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당해연도 졸업생을 선호하는 기업들의 채용관행도 고용노동부 차원의 계도가 필요할 것이다.

라. 추진체계

대학의 취업지원체계 강화는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와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전담하여 시행하고, 기업들의 취업관행에 대한 계도는 고용노동부가 담당할 필요가 있다.

마. 소요예산

표 Ⅴ-7 대학취업지원체제 강화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대학의 취업지원체제 강화 재정지원	2020년	10,000	-
	2021년	15,000	-
	2022년	15,000	-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의 취업지원체제 평가지표 연구 및 평가시행	2020년	1,000	-
	2021년	1,000	-
	2022년	1,000	-

(4) 산학연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도입 및 확대

가. 필요성 및 목적

일반적으로 청년취업의 문제를 다룰 때 그 대상을 대학졸업생으로 당연시하는 경우가 많다. 대학입학률이 2010년 이전 80%가 넘었던 과거에는 당연한 시각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2015년 이후 70% 미만으로 줄어든 대학진학 상황과 인구감소 추세로 인한 대학입학자원의 급격한 하락은 청년취업의 문제가 예전처럼 대졸생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됨을 시사한다. 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인구가 그 만큼 증가하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청년들의 취업문제도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나. 추진근거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서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이유는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에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Ⅴ-8 대학 미진학 사유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고졸 학력을 취득 하지 못해서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	진학하고 싶었으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에 성적이 부족해서	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고등학교 시절, 졸업 후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어서	기타	모름/ 무응답
2019	752	2.2	35.8	13.4	16.8	26.5	4.3	0.9	-

* 주 1) 대학(교) 진학 경험이 없는 경우만 응답
2) 현재 중/고등학생은 응답하지 않음

다. 추진내용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60% 후반대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교육부에서도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한 정부주도의 인위적인 대학 정원 감축 등 과거의 방식을 버리고 대학 자체의 정원감축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로 재정지원을 하는 것으로 정책의 큰 방향을 바꾸고 있는데, 이는 정책을 통한 대학 정원 감축이 인구감소를 통한 대학입학자원의 감소 추세를 따라가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으로 해석되고 있다. 지금까지 산학연계 및 취업연계와 관련된 재정지원사업은 대학을 대상으로 주로 이루어져왔다면 이제는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산학연계 체계를 도입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재정지원사업이 투입될 필요가 있다.

라. 추진체계

국가교육과정의 개편과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교육부가 주무부처로 역할을 맡아야 한다.

마. 소요예산

표 Ⅴ-9 산학연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도입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특별교부금
산학연계 시범고교 사업 운영	2020년	1,000	10,000
	2021년	1,500	15,000
	2022년	-	-
산학연계 고교에 대한 재정지원	2020년	-	-
	2021년	5,000	5,000
	2022년	8,000	8,000

2) 경제·고용 및 주거 분야

(1) 일자리 및 경제 측면에서 고용위기 해소정책의 우선순위 조정

가. 필요성 및 목적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측면의 접근이 있는데, 인적자원의 투입이라는 개인역량이나 교육과 같은 노동공급적 측면이 있고, 일자리 및 경제 여건 개선이라는 노동수요적 측면이 있다. 앞서 제언한 교육과 훈련 측면의 정책방안과 더불어 노동수요 측면은 청년 고용해소를 위한 직접적이고 즉시적인 효과를 담보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나. 추진근거

금년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동수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은 '경제 민주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괜찮은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청년 창업/창직 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 '공공부문 채용 확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V-10 노동수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대기업 청년 일자리 확대	공공부문 채용 확대	청년 창업/창직 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	경제 민주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괜찮은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확대	임금 피크제를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	해외 취업 지원을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	기타
2019	2,948	12.0	12.7	19.6	37.5	6.9	6.0	5.2	0.1

* 주 1)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2) 2016년 응답결과에는 '모름/무응답'이 0.2% 있었음 (본 표에 미제시함)

다. 추진내용

작년 2018년 실태조사에서는 노동수요 측면에서 '청년 창업/창직을 통한 일자리 확대', '경제 민주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괜찮은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 '대기업 청년 일자리 확대' 순이었고 응답비율도 20% 초반대로 비슷했던 것과 비교하면 괜찮은 중소기업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대기업 고용시장 확대의 한계를 청년들이 체감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근로조건이 괜찮은 중소기업의 고용의사를 예전과 다르게 많이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따라 각 부처의 고용위기 해소정책의 우선순위를 다음과 같이 재편하는 것이 정책의 효과를 담보하리라 생각한다.

표 V-11 노동수요(일자리, 경제) 측면의 고용위기 해소정책 우선순위 재편

우선순위	노동수요(일자리, 경제) 해법
1순위	경제 민주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괜찮은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
2순위	청년 창업/창직 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
3순위	공공부문 채용 확대
4순위	대기업 청년 일자리 확대
5순위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확대

라. 추진체계

청년 고용위기 해소정책은 고용노동부 뿐만 아니라 교육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등 다부처가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우선순위 재편은 총괄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에서 맡을 필요가 있다.

(2) 이직 및 전직 지원체계 강화

가. 필요성 및 목적

직장을 다니고 있는 청년들의 이직 의향을 물어본 금년도 실태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이직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25.5%로 전체 응답자의 4분의 1을 차지하였다. 일반적으로 이직과 전직을 명확히 구분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상식에 비춰볼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직장을 바꾸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청년들의 이직과 전직을 지원하는 체계를 도입한다면 노동시장 내에서 개인의 취업욕구를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나. 추진근거

금년도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년들이 이직 희망 사유로 '더 나은 보수/복지를 위해서'가 과반수 가까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더 나은 근무환경', '더 나은 안정성을 위해' 순으로 나타났다.

표 V-12 이직 희망 사유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더 나은 보수/복지를 위해	개인 발전/승진	더 나은 근무 환경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더 나은 안정성을 위해	기술 또는 기능 수준이 맞지 않아서	개인 사업을 위해서	건강상의 이유로	집안 사정 때문에	기타
2016	441	47.6	10.1	17.4	4.4	13.2	1.8	3.7	0.0	0.8	0.0
2017	503	52.1	10.8	16.5	3.0	9.9	0.7	4.0	0.5	2.4	0.0
2018	498	55.8	8.7	14.1	2.7	15.0	1.2	1.1	0.1	0.4	1.0
2019	490	48.6	10.4	16.2	3.6	11.3	0.9	6.3	0.6	1.2	0.8

* 주: 이직 의향이 있는 경우만 응답

다. 추진내용

이직과 전직 의향이 높아진 배경에는 노동시장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 이후 계약직 채용의 확산 등 안정적이지 않은 고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는 점과 노동공급적 측면에서 사회 진출 전까지 학교 등 다양한 생애 경로에서 개인의 진로 결정을 위한 다양한 기회와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못하는 현실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취업지원을 위해 발급하는 내일배움카드와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국비과정 지원 제도에서 기취업 청년들의 이직 및 전직 지원을 위한 재직자 과정 확대와 국비과정 지원 확충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청년들의 사회진출 이후라도 새로운 진로 결정 욕구를 지원해 주는 것은 청년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 추진체계

이직 및 전직 지원체계 강화는 내일배움카드제와 국비직업훈련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에서 맡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마. 소요예산

표 V-13 청년 이직 및 전직 지원 사업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청년 이직 및 전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국비 지원	2020년	5,000	-
	2021년	8,000	-
	2022년	10,000	-

(3)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수혜 확대 및 평가

가. 필요성 및 목적

고용노동부에서는 저소득층과 같이 취업에 취약한 계층에 대해 자신이 직접 취업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이에 따라 진단과 진로 결정, 역량 증진, 취업 알선 등 종합적인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취업했을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오랫동안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금년도 실태조사에서 실제 이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는 청년은 5%로 나타나 수혜자의 확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나. 추진근거

금년도 실태조사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대해 56.3%의 청년들이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고, 알고 있지만 참여의향이 없는 경우도 36.6%로 나타났다.

표 Ⅴ-14 정부 추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인지 및 참여의향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알고 있고 참여할 의향이 있다	알고 있지만 참여할 의향이 없다	모른다
전체		2,811	7.1	36.6	56.3
연령	만15~18세	79	11.1	17.5	71.4
	만19~29세	1,353	9.7	35.2	55.2
	만30~39세	1,379	4.4	38.7	56.8
지역	서울	524	6.0	33.1	60.9
	인천/경기	627	9.2	27.0	63.8
	대전/충청/세종/강원	428	4.2	45.7	50.2
	광주/전라/제주	387	8.5	38.2	53.3
	부산/울산/경남	464	9.0	43.1	47.9
	대구/경북	381	2.4	51.2	46.5

*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한 적이 있는 경우 응답하지 않음

다. 추진내용

고용위기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성은 개인적으로 취업하기 위한 여건이나 역량을 갖추고 못하는 취약계층에 대해 도움을 주는 일이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 하에 추진된 취업성공패키지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는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응정책이 필요하다. 우선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를 통해 정책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인지하고 있지만 참여 의향이 없는 청년들이 전체의 3분의 1이 넘는 것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개선점 분석 및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라. 추진체계

취업성공패키지를 시행하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주무부처로서 홍보사업 및 정책평가를 주관하는 것이 적절하다.

마. 소요예산

표 V-15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수혜 확대 및 평가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취업성공패키지 홍보 강화	2020년	1,000	2,000
	2021년	1,000	2,000
	2022년	1,000	2,000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대한 정책평가	2020년	150	-
	2021년	150	-
	2022년	150	-

(4) 청년을 위한 주거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가. 필요성 및 목적

금년도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의 본인 명의 집 마련 예상 시기에 대한 조사에서 '향후 10~20년 미만'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향후 20년 이후'였으며, '마련할 수 없을 것 같다'도 8.6%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이 집소유자 위주에 따른 시장가격 증폭이 수시로 발생하다보니 청년들이 미래의 주거안정 의식이 저조하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래세대를 위한 주거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나. 추진근거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서 지금의 집 값 수준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76.4%로 나타나 '적정하다'의 6.2%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16 지금의 집 값 수준은 적정한가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16	2,534	27.4	42.0	21.6	8.0	1.0
2017	2,714	29.1	40.3	22.0	8.0	0.7
2018	3,133	27.2	37.8	21.2	12.1	1.6
2019	3,530	35.7	40.7	17.5	5.5	0.6

또한 부모님 도움 없이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3.3%로 나타났는데 이는 혼자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28.4% 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V-17 부모님 도움 없이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한가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16	2,534	5.6	22.8	39.9	27.8	3.9
2017	2,714	7.0	25.6	34.5	25.1	7.8
2018	3,133	2.6	14.4	36.0	37.6	9.5
2019	3,530	4.4	24.1	28.3	33.0	10.4

다. 추진내용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서 청년들이 채무를 지는 가장 큰 이유가 '주거비 마련'으로 59.6%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 청년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기성세대들의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욕망이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현재의 삶과 미래의 희망을 꺾고 있는 것으로 주택정책이 1인 가구나 신혼부부 등 제한적 대상에 대한 부분적 사업으로 시행되어서는 청년의 삶의 질은 개선되기 어렵다. 따라서 기본적인 부동산 정책은 미래세대가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성세대들의 다주택 소유나 가격 급등에 대한 욕망을 잠재울 수 있는 전향적이고 보다 강화된 정책 시행 등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라. 추진체계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주무부처로 역할을 맡는 것이 적절하다.

3) 건강 및 문화, 가치관 분야

(1) 청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심리치료 및 심리정서지원 강화

가.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의 핵심지표인 청년의 스트레스, 우울증, 자살률을 살펴보면 청년의 심리정서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심각한 고용문제와 삶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청년들이 느끼는 스트레스와 우울감은 매우 높은 상황이며, 이는 높은 자살률과 무관하지 않다.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심리치료 및 심리정서적 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나. 추진근거

청년들의 스트레스와 우울감 경험률은 높은 수준으로, 특히 20대의 스트레스와 우울감 경험률은 전체 평균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다. 또한 청년들의 자살률이 2018년을 기점으로 다시 높아지고 있으며, 이 중 35~39세 자살률이 크게 늘어나 인구 10만 명 당 29.0명으로 평균(26.6)을 상회하였다.

표 Ⅴ-18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2017)

(단위: %)

	전체	19세~29세	30세~39세
스트레스 인지율	29.1	37.9	36.0
우울감 경험률	11.6	13.5	9.1

다. 추진내용

청년의 심리정서적 문제 수준은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정책적 욕구도 다양하기 때문에 수요자 중심의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 예컨대, 중앙정부 중심의 일괄적인 서비스 제공방식이 아닌, 지역사회의 사회서비스 이용권(전자바우처) 등을 활용하여 청년들의 심리치료 및 심리정서지원 서비스 제공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성인(청년) 심리지원서비스'를 확대하여 청년 심리지원서비스에 일정 이상의 예산이 안정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심리치료나 심리지원서비스에 대하여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편견은 홍보 강화를 통해 지원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관계나 상황적 스트레스에 대한 해결능력 강화,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라는 측면에서 청년의 긍정적인 심리정서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심리정서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라. 추진체계

성인(청년)심리지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관련 사업을 주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마. 소요예산

표 V-19 청년 심리지원서비스 강화 재정지원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청년 심리지원서비스 강화 재정지원	2020년	2,000	-
	2021년	3,000	-
	2022년	3,000	-

(2) 청년 건강검진 수검률 확대

가.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청년들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2019년부터 국가건강검진의 사각지대였던 20~3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확대하고, 20세와 30세에 우울증 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보건복지부, 2018) 하지만 실제 청년 건강검진 수검률은 낮은 수준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정책적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나. 추진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 1월 1일부터 8개월 간 20~30대 청년층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25%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일반건강검진 수검률보다 낮은 수준이다(윤소하, 2019). 특히, 저소득 의료급여수급 청년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상황인데, 수검률이 9.6%로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타났다.

표 V-20 건강검진 수검 현황

(단위: 명, %)

대상	대상자	수검자	수검률
청년	6,483,261	1,620,906	25.0%
저소득 의료급여수급 청년	91,040	8,734	9.6%
전체	21,236,064	7,649,636	36.0%

다. 추진내용

청년건강검진제도가 도입되면서 그간 국가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청년들의 건강권 회복을 위한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실제 수검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청년건강검진에 대한 정책 홍보를 강화하고, 청년 수검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추진과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청년세대의 경제적 불평등이 건강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소득층 청년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건강검진과 함께 적극적인 의료지원서비스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라. 추진체계

청년 건강검진의 확대와 홍보 강화는 보건복지부가 주요 시행부처로서 주관하는 것이 적절하다.

마. 소요예산

표 V-21 청년 건강검진의 확대와 홍보 강화 재정지원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청년 건강검진의 확대와 홍보 강화	2020년	9,000	-
	2021년	10,000	-
	2022년	10,000	-

(3) 청년 문화·여가 취약 지역 인프라 구축

가.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지자체에서는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는데, 청년 문화 공간이나 시설 등의 조성도 그 중 하나이다. 이러한 청년 문화 및 여가를 위한 인프라 조성은 지자체의 도시재생 정책과 맞물리면서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지역에 따라 인프라 상황 및 요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적인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다.

나. 추진근거

2018년 국민여가활동조사의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년층이 문화 및 여가생활에 대하여 불만족하는 이유는 '시간 부족', '경제적 부담' 등이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 '정보 및 프로그램 부족', '여가 시설 부족'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특히 읍면지역의 경우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정보 및 프로그램 부족'이나 '여가 시설 부족'등의 응답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V-22 청년 지역규모별 전반적 여가생활 불만족 이유(상위 6개)

(단위: %)

구분	시간이 부족하여	경제적 부담 때문에	여가 정보 및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여가 시설이 부족하여	여가를 함께 즐길 사람이 없어서	이전 경험이 부족해서/ 할 줄 아는 것이 없어서
대도시	61.4	29.5	4.8	1.9	1.5	1.0
중소도시	60.2	27.0	5.9	2.5	1.5	2.6
읍면지역	59.3	27.8	6.1	4.3	1.4	1.2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 국민여가활동조사 원자료 분석. 문화체육관광부 웹페이지 https://policydb.kcti.re.kr/#/surveyLeisureDetail?bbstypecd=3003013&postno=200047&pageno=1&searchopt=&search=&poststatcd=1400에서 2019년 10월 10일 인출.

다. 추진내용

청년 문화·여가 인프라 실태와 지자체별 인프라 조성 추진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청년들의 문화 및 여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 조성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재정적인 여건이 부족한 취약 지역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정 예산을 매칭하여 지원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물리적 인프라 조성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등을 구축하여 청년들의 여가 및 문화 공간에 대한 지원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라. 추진체계

청년 문화 및 여가 인프라 정책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운영되나,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일정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마. 소요예산

표 Ⅴ-23 청년 문화 및 여가 인프라 취약 지역 지원 강화 재정지원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청년 문화·여가 인프라 취약 지역 지원 강화	2020년	10,000	10,000
	2021년	15,000	15,000
	2022년	15,000	15,000

(4)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문화 및 여가활동 지원 확대

가. 필요성 및 목적

일과 여가 중에서 청년들의 선호하는 가치를 물어본 금년도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여가가 중요하다는 응답(44.6%)이 일이 중요하다는 응답(28.2%)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청년에게 여가는 삶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이다. 실제로 청년의 문화 및 여가생활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과 비교해서는 뚜렷한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웠으나, 청년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문화 및 여가생활 격차가 존재함에 따라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문화 및 여가활동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나. 추진근거

2018년 국민여가활동조사를 토대로 청년의 문화 및 여가생활 불만족 이유를 분석한 결과, 소득수준에 따라 불만족한 이유가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의 경우 '경제적 부담 때문에' 여가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53.3%)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Ⅴ-24 청년 가구소득별 전반적 여가생활 불만족 이유(상위 6개)

(단위: %)

구분	시간이 부족하여	경제적 부담 때문에	여가 정보 및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여가 시설이 부족하여	여가를 함께 즐길 사람이 없어서	이전 경험이 부족해서/ 할 줄 아는 것이 없어서
100만원미만	32.1	53.3	7.0	2.7	1.6	3.3
100-200만원	62.3	26.7	0.0	0.9	2.7	7.3
200-300만원	62.3	23.0	7.1	3.1	2.4	1.8
300-400만원	56.7	29.3	5.6	3.4	2.3	2.6
400-500만원	59.4	29.1	5.4	2.6	1.2	2.0
500-600만원	60.8	30.9	4.5	2.7	.6	0.5

구분	시간이 부족하여	경제적 부담 때문에	여가 정보 및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여가 시설이 부족하여	여가를 함께 즐길 사람이 없어서	이전 경험이 부족해서/ 할 줄 아는 것이 없어서
600만원 이상	68.3	23.7	5.7	0.7	1.0	0.5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 국민여가활동조사 원자료 분석. 문화체육관광부 웹페이지 https://policydb.kcti.re.kr/#/surveyLeisureDetail?bbstypecd=3003013&postno=200047&pageno=1&searchopt=&search=&poststatcd=1400에서 2019년 10월 10일 인출.

다. 추진내용

청년들의 문화 및 여가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특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일차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일정 이상의 소득이 없거나 경제적 부담이 큰 저소득층에게 우선적으로 활동비 등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적인 문화 및 여가활동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

라. 추진체계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문화 및 여가 지원 강화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맡아 주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마. 소요예산

표 V-25 저소득 청년들을 위한 문화 및 여가 지원 강화 재정지원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저소득층 청년들을 위한 문화 및 여가 지원 강화	2020년	10,000	-
	2021년	10,000	-
	2022년	10,000	-

4) 관계와 참여 분야

(1) 청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가. 필요성 및 목적

청년들의 정치·사회 참여 양상에는 다양한 층위가 존재하는데, 실제로 투표를 제외한 제도적 참여나 조직/단체 수준의 참여까지 적극적으로 나서는 청년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최근 중앙정부부터 지자체에 이르기까지 청년정책 거버넌스는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청년정책 입안 과정에서 여러 층위에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고루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청년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정책 결정과정에서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나. 추진근거

금년도 청년사회·경제시태조사에서 청년 참여기구(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의회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 청년 중 약 91.0%는 이러한 참여기구에 활동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참여기구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활동가들은 극히 일부로 나타났다. 또한 심층분석 결과에서 청년들의 참여 양상의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며, 각 집단별로 정책적 요구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26 청년 참여기구(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의회 등) 활동경험

(단위: %)

참여한 적 없음	1년에 1~2회	한 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거의 매일
91.0	6.0	2.5	0.4	0.0

다. 추진내용

청년 세대는 청년이 가장 잘 대변할 수 있기 때문에, 청년 정책 추진과정에서 당사자로서 청년들의 참여 보장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참여 과정에서 청년 대표를 통해 결정할 수 있겠으나, 보다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플랫폼 내에서 다수의 청년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공유하고, 주요 이슈 및 정책에 대해서는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 등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라. 추진체계

청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은 국무조정실에서 지정한 청년소통센터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 소요예산

표 V-27 청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재정지원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청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2020년	1,000	-
	2021년	1,000	-
	2022년	1,000	-

(2) 청년의 정치·사회문제 관심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가. 필요성 및 목적

금년도 실태조사에서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이유를 조사한 결과 '정치 문제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라는 응답(34.8%)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청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청년들의 관심 제고가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청년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슈나 정책에 대하여 홍보를 강화하여 청년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요구된다.

나. 추진근거

금년도 실태조사에서 청년들의 참여 관련 법/정책/기구에 대한 인지도는 대체로 낮으며, 가장 높은 인지도를 나타낸 지자체 청년 참여활동 지원사업의 인지 비율('알고 있다' + '매우 잘 알고 있다')도 7.3%에 불과하였다. 한편, 청년들의 정치·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기본 고용과 주거 안정 이외에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표 V-28 청년 참여 관련 법/정책/기구 인지도

(단위: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 청년 관련 법	지자체 청년기본조례	지자체 청년 참여기구	지자체 청년 참여활동 지원사업	지자체 청년 참여 및 활동 공간
전혀 모른다	37.7	42.6	41.5	39.1	40.5
모른다	39.0	42.1	40.9	37.2	41.3
보통이다	16.7	12.1	12.4	16.3	13.3
알고 있다	6.5	3.2	5.1	7.3	4.8
매우 잘 알고 있다	0.1	0.1	0.1	0.0	0.1

표 Ⅴ-29 청년 정치·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요건-1+2+3순위(상위5위)

(단위: %)

청년들의 기본 고용과 주거 안정	청년 참여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청년정책 추진과정에서 청년들의 직접 참여 보장	청년기본법 제정 및 제도 활성화	청년 참여 지원정책의 예산 확대
43.7	40.3	38.1	37.6	33.5

다. 추진내용

청년들이 정치 참여를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관심 부족으로, 정치·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취업이나 주거문제 등 청년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이슈들을 중심으로 정치·사회문제에 대하여 보다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년 정책에 대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청년들의 인지도와 정책 체감률을 증진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라. 추진체계

청년의 정치·사회문제 관심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는 국무조정실의 총괄조정하에 관련 부처별로 분담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마. 소요예산

표 Ⅴ-30 청년의 정치·사회문제 관심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재정지원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청년의 정치·사회문제 관심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2020년	1,000	-
	2021년	1,000	-
	2022년	1,000	-

5) 법·제도 기반 분야

(1) 청년정책의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기본법 제정

가. 필요성 및 목적

사회적으로 청년에 대한 다양한 현안들은 각 분야별 역할을 하는 각 부처에서 정부차원에서 대응 혹은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부처에서 청년정책을 각 기능별로 접근을 하다보니 종합적인 관점 하에 중복 지원이나 결핍 요소 등을 파악하여 이를 조정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작년 본 연구에서도 제안했듯이 청년기본법의 제정을 통해서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청년정책의 법적 기반을 구축하여 정책의 안정성을 마련하고 각 정책사업간 조정과 시너지 창출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나. 추진근거

현재까지 청년관련 법령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고용정책기본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으로 대상과 범위가 이를 시행하는 부처의 기능에 맞춰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청년에 대한 정부 지원이 빠짐없이 포괄되기 위해서는 청년 지원이라는 관점에서 청년정책의 대상, 범위, 정부의 역할 등에 대해 근거가 되는 기본사항을 규정한 법규가 필요하다.

다. 추진내용

청년 기본법안(안)은 첫째, 근거규정 및 기본방향 명시, 둘째,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수립, 연계, 조정, 평가에 대한 규정, 셋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지원 범위 규정, 넷째,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조직 등 청년정책 추진주체에 대한 규정 등으로 구성한다.

표 Ⅴ-31 청년 기본법안(안) 체계

법령명	구성체계
청년 기본법안(안)	1. 근거규정 및 기본방향 - 정부의 청년 지원 근거와 대상 규정 2. 청년정책시행계획 수립과 평가 -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시행계획 조정 및 평가 3. 청년정책의 범위 - 정부의 청년 지원정책의 유형화 -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관할 범위 및 협력 4. 청년정책의 추진주체 - 총괄 및 조정 주체 규정 - 각 부처의 역할 및 조직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조직

라. 추진체계

청년 기본법안(안)은 여야 합의에 의해 법안을 마련하여 각 부처 정책에 대한 조정 역할을 하는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을 관할하는 국회의 정무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법률안 처리가 필요하다.

(2) 청년정책 성과분석을 위한 평가센터 구축

가. 필요성 및 목적

청년정책은 여러 부처에서 각 기능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정책사업의 효과도 부처별로 분석되어 보고되고 있다. 청년에 대한 정부지원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효과를 부처 차원을 넘어서 정책대상인 청년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효과에 대한 분석은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보완하고 필요한 정책수요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나. 추진근거

국고가 지원되는 모든 정책사업은 기본적으로 평가를 통해 그 정책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기본이다. 따라서 청년정책 역시 이러한 효과검증이 있어야 하나 청년정책의 특성상 다부처에서 시행되다 보니 정책의 효과를 일관성을 갖고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정부가 투입할 수 있는 제한된 자원의 효과적인 배치와 정책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서도 청년정책에 대한 정책평가센터의 설치는 필요하다.

다. 추진내용

정책에 대한 평가는 정책의 수준에 따라 구분되는데, 개별 정책사업에 대한 평가, 정책분야에 대한 평가, 부처에 대한 평가, 국차 차원의 평가 등으로 필요에 따라 평가의 수준을 달리하여 접근할 수 있다. 청년정책의 경우는 이를 쉽게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청년을 전담하는 부처가 없는 상황에서 여러 부처에서 청년정책을 제각기 수립하고 각 부처의 역할에 맞는 정책사업을 시행하다 보니 각 개별 정책사업에 대한 평가는 가능하더라도 평가의 수준을 높여 평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특정부처의 사업을 넘어서 다부처 정책인 청년정책의 수준별 평가를 위해서 전문연구기관에 정책평가 전담센터가 설치되어 실질적인 정책효과에 대한 검증과 평가가 필요하다.

표 Ⅴ-32 청년정책평가센터 설치(안)

법령명	청년정책평가센터 설치(안)
청년정책평가센터 기능 및 역할(안)	1. 청년정책 시행계획 분석 및 컨설팅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시행계획 분석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시행계획 컨설팅 2. 청년정책 평가사업 운영 - 주요 개별정책사업 평가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년정책 평가 - 국가차원의 청년정책 성과평가 3. 청년정책 차년도 개선방안 제시 - 중앙행정기관의 차년도 개선방안 분석 및 제시 - 지방자치단체의 차년도 개선방안 분석 및 제시

라. 추진체계

청년정책 성과분석을 위한 평가센터는 현재 청년관련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국책연구기관에 설치·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마. 소요예산

표 Ⅴ-33 청년정책평가센터 운영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청년정책평가센터 운영	2020년	1,000	-
	2021년	1,500	-
	2022년	2,000	-

3. 결론

청년들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함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긍정적 측면은 청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과거에 비해 환기되어 일자리위원회, 청년정책추진단 등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투입되기 시작했고, 최저임금의 지속적 상승으로 기본 생계비의 보장성 강화와 블라인드 채용 등 고용과정의 공정성 제고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부정적 측면으로 금년도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 2% 달성이 가능한지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처럼 저성장 시대의 초입에 놓여 있으며, 가임여성 1명이 낳는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평균 1.0명 미만으로 나타나 인구감소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정부의 여러 규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의 불안정성은 미래세대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미중 무역갈등, 일본의 대한 무역보복, IMF등 여러 국제단체에서 전세계적인 동반 경기침체 경고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워진 경제 환경은 미래세대인 청년의 삶에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사회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 정확히 살펴보는 것은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의 토대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일과 삶의 전 분야에 걸쳐 핵심이 되는 지표를 선정하여 그 변화의 양상을 연차별로 시계열 추이를 분석하고 있다. 이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청년들의 고용위기가 청년의 삶 전반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결과로서 삶의 질이 하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서 일자리 문제 하나를 해결해서는 청년들의 삶의 문제를 질적으로 개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인구, 가족, 교육, 훈련, 경제, 고용, 주거, 건강, 문화, 가치관, 관계, 참여라는 주제의 큰 분류 하에 14개의 소분류와 총 115개 핵심지표를 구성하여 청년들의 일과 삶에 대한 현재의 실태와 지난 몇 년간의 연차별 시계열 변화 추이를 함께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주요 실태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인구측면에서 15~29세 청년층은 2018년 대비 14만여 명이 감소하여 저출산 심화로 인한 인구 감소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남녀 합계 혼인건수는 2000년 약 43만 5천 건에서 2018년 약 16만 9천 건으로 절반 이상 크게 감소하였다. 고등학교에서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률은 2011년 이래로 꾸준히 감소해 2016년 이후에는 60%대의 진학률을 보이고 있다. 평생학습 형식교육 참여율은 25세 이상 34세 이하의 결과를 활용하여 살펴보면 2017년 5.6%에서 2018년 8.5%로 증가하였다. 청년고용법상 청년(15~29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2013년 42.9%로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2018년 현재 47.1%로 나타났고, 가구주 기준 청년의 월임금총액은 전체 기준 2018년 약 303만원으로 2017년 290만원에서 약 10만원 상승하였다. 청년층 주거형태를 살펴보면 15~29세 청년의 경우 전체 기준으로 볼 때 '자가'와 '전세' 응답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의 거주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30대 연령층을 포함한 15~39세 청년층에서도 주거형태 간 격차는 다소 줄어들었으나 이러한 경향이 계속되어 청년층의 주거 환경이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년층 주거 빈곤 문제에 있어서 주택 외 가구 거주 비율은 15~29세는 13.0%, 30대까지 연령을 확장한 15~39세도 8.9%로 전 연령대 평균 대비 매우 높은 주택 외 거주비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청년들의 정기적인 운동습관에 해당하는 걷기 실천율은 2017년 기준 38.6%로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청년들의 병원 이용 추이는 2017년 기준 28.8%로 최근 3년간 소폭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청년들의 문화 및 여가 생활시간은 2018년 기준 평일(3.3시간), 휴일(5.3시간) 모두 2016년 대비 증가하였다. 주관적 계층의식에 있어서 청년층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중간 계층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다.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는 2018년 기준으로 '가족과 정부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연도별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청년들의 단체활동 참여 비율은 2017년 기준 10대(13~19세) 33.5%,

20대 41.9%, 30대 48.1%의 단체 참여율을 보여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단체 참여율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청년들의 사회적·정치적 참여 실태에 대한 심층면접조사에서 청년들의 대다수는 '비참여' 집단에 속하였고, 다음으로 '개인적 참여' 집단의 비율이 높았는데, '소극적 참여'와 '적극적 참여' 집단은 매우 일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전체 청년들 가운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집단은 매우 일부이며, 청년들의 3/4 이상은 정치·사회 문제에 침묵하거나 비참여하는 경향이 많았고, 공개적인 의견 표명은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적 특성의 참여뿐 아니라 조직/단체 수준의 집단적 참여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활동가들은 전체 청년의 극소수이며,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조사결과는 청년들이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문제로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내고, 청년들의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 교육의 활성화 및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실태를 근거로 '청년과 함께 하는 미래 한국'이란 비전하에 다음과 같이 5개 분야 16개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인구·가족 및 교육 분야에서 혼인율 제고를 위한 주거 및 금융 지원,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한국 청년행복지표 조사 시행, 졸업유예가 필요없는 사회연계형 대학취업지원체계 강화, 산학연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도입 및 확대, 둘째, 경제·고용 및 주거 분야에서 고용위기 해소정책의 우선순위 조정, 이직 및 전직 지원체계 강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수혜 확대 및 평가 시행, 청년을 위한 주거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셋째, 건강 및 문화, 가치관 분야에서 청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심리치료 및 심리정서지원 강화, 청년 건강검진 수검률 확대, 청년 문화·여가 취약지역 인프라 구축,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문화 및 여가활동 지원 확대, 넷째, 관계와 참여 분야에서 청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청년의 정치·사회 문제 관심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다섯째, 법·제도 기반 분야에서 청년정책의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기본법 제정, 청년정책 성과분석을 위한 평가센터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한국의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는 우리사회의 미래세대에 대한 관심이자 또한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논의 주제이기도 하다. 현 시기는 청년들의 사회진출과 사회정착의 문제를 청년 개인의 역량이나 노력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사회·경제적인 구조가 청년에게 매우 취약하게 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우리 사회의 미래 전망을 다루는 이슈인 출산율과 인구 감소의 문제는 바로 현재의 청년 문제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인구와 가족, 교육과 훈련, 경제와 고용, 주거, 건강, 문화와 가치관, 관계와 참여는 청년의 문제이자 우리 사회의 미래 과제라는 관점으로 청년 문제와 청년정책을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의 실태를 핵심지표를 통해 알아보았는데, 향후에 본 연구의 7개 분야 각각에 대해 심층연구가 추진된다면 보다 실효성 있고 세부적인 정책방안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경상남도 (2019a). **경상남도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 '사회혁신 잰걸음' 보도자료**. 2019.3.15. 경상남도청 웹사이트 http://www.gyeongnam.go.kr/synap/skin/doc.html?fn=155262888746457.hwp&rs=/upload_data/Synap/BBS_0000060/&cpath=에서 2019년 5월 20일 인출.

경상남도 (2019b). **2019~2023 경상남도 청년정책기본계획**. 내부자료.

고용노동부 (2018). **청년고용 지원정책**. 일자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jobs.go.kr/ko/cms/CM_BB01_CON/CM_BB01_V01.do?MENU_SN=2003&BBS_SN=993&pageNo=1&recordCountPerPage=10&LIST_DIV=1&MENU_SN=2003&LIST_GB=Y&PUBLISH_GB=Y&FC_SEARCH_GB=ALL&FC_SEARCH_CONTENTS=에서 2019년 5월 13일 인출.

고용노동부 (2019).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young/list12.do;jsessionid=WyUMSlWwnj7EK6sZ1i5pXo3azGH0yxaD91yHzM3TP1K3U9p4UjHnwXlBVNTlrJBb.moel_was_outside_servlet_www1에서 2019년 5월 13일 인출.

고용노동부 (각 년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연령별 임금 및 근로시간)**.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N_LCE0004&conn_path=I2에서 2019년 7월 22일 인출.

교육부 (2019). **2019년 교육기본통계 결과 발표**. 교육통계서비스 웹사이트 http://std.kedi.re.kr/mobile에서 2019년 8월 30일 인출.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7). **교육통계분석자료집-유·초·중등 교육통계편**. 교육통계서비스 웹사이트 http://kess.kedi.re.kr/index에서 2019년 7월 19일 인출.

관계부처합동 (2017).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2017.11.29.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housingroadmap/bodo.jsp에서 2019년 3월 16일 인출.

관계부처합동 (2018a). **청년 일자리 대책**. 2018.03.15.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NttId1=MOSF_000000000016100&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에서 2019년 3월 16일 인출.

관계부처 합동 (2018b). **행복한 결혼과 육아를 위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2018.7.5. 국토교통부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2&id=95081018에서 2019년 3월 10일 인출.

관계부처합동 (2019).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 2019.7.17. 청년 기획재정부 웹사이트 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NttId1=MOSF_000000000029092&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에서 2019년 7월 30일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 (2019a).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법령/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 2019년 5월 12일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 (2019b). **청소년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법령/청소년기본법에서 2019년 5월 12일 인출.

국립국어원 (2019).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홈페이지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에서 5월 17일 인출.

국민건강보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6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Ⅰ)**. 한국의료패널 웹사이트 https://www.khp.re.kr:444/web/research/board/list.do?bbsid=13에서 2019년 7월 24일 인출.

국토교통부 (2019).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 -일반가구 및 특성가구 결과 발표-**. 2019. 5. 16. 행정안전부 정부24 웹사이트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1872667에서 2019년 5월 20일 인출.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3월 고용동향 보도참고자료**.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NttId=MOSF_000000000029837&searchBbsId=MOSFBBS_000000000028에서 2019년 9월 30일 인출.

김기동, 이정희 (2017). 한국 시민들의 신뢰수준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효과 연구. **아태연구, 24**(2), 5-39.

김기헌 (2015). **2015년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 (연구보고 15-R49).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기헌, 이윤주, 유설희 (2017).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Ⅱ** (연구보고 17-R09).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기헌, 하형석, 신인철 (2016).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Ⅰ** (연구보고 16-R08).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영인 (2017). 청소년 참여의 영향요인 탐색. **청소년문화포럼, 52**, 37-71.

김정숙, 강영배 (2017).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연구보고 17-R04).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지범, 강정한, 김석호, 김창환, 박원호, 이윤석, 최성수, 최슬기, 김솔이. (2019).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2018**.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웹사이트 http://kgss.skku.edu/?page_id=39에서 2019년 10월 10일 인출.

김한나 (2016). 정치참여의 다양성과 심리적 조건: 내적효능감과 정부신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25**(1), 81-110.

김형주, 임지연, 유설희 (2018).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Ⅲ** (연구보고 18-R06).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노언경, 이은수, 이현정, 홍세희 (2017). 다층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적용한

중학생의 학교폭력 집단 분류와 개인 및 학교요인 검증. **조사연구, 18**(2), 67-98.

뉴시스 (2019.06.17.). 靑, 청년소통정책관 신설…여선웅 前 쏘카 본부장 임명. 뉴시스 웹사이트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617_0000683183&cID=10301&pID=10300에서 2019년 7월 30일 인출.

대학알리미 (각 년도). 대학알리미 공시정보 검색. 웹사이트 http://www.academyinfo.go.kr/에서 2019년 7월 19일 인출.

문화체육관광부 (2012). 2011년 국민독서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웹사이트 http://www.mcst.go.kr/web/s_policy/dept/deptList.jsp?pType=02&pSearchType=01&pSearchWord=%EA%B5%AD%EB%AF%BC%EB%8F%85%EC%84%9C에서 2019년 7월 24일 인출.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19a). **내 삶을 바꾼 2 년 ③ 청년편**. 2019.05.0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웹사이트 http://www.korea.kr/news/cardnewsView.do?newsId=148860668&pWise=relatedKeyword에서 2019년 5월 20일 인출.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19b). **내 삶을 바꾼 2 년 ④ 가정·부모편**. 2019.05.0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news/cardnewsView.do?new sId=148860671&pWise=relatedKeyword에서 2019년 5월 20일 인출.

문화체육관광부 (2018). **2018 국민여가활동조사 원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웹페이지 https://policydb.kcti.re.kr/#/surveyLeisureDetail?bbstypecd=3003013&postno=200047&pageno=1&searchopt=&search=&poststatcd=1400에서 2019년 10월 10일 인출.

문화체육관광부 (각 년도a). **국민여가활동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에서 2019년 7월 30일 인출.

문화체육관광부 (각 년도b). **국민독서실태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에서 2019년 7월 24일 인출.

민희, 윤성이 (2015). 온라인 정치참여: 국내·외 연구동향. **정보화정책, 22**(2), 3-18.

박찬욱 (2005). 한국인 정치참여의 특징과 결정요인: 2004년 조사결과 분석. **한국정치연구, 14**(1), 147-193.

법무부 (각 년도). 법무부(각 년도). **체류외국인통계(국적·지역 및 연령별 체류외국인 현황)**.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1&tblId=DT_1B040A6&conn_path=I2에서 2019년 9월 3일 인출.

배상률, 황여정, 김소라 (2013). **2013년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 (연구보고 2013-R45). 서울: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보건복지부 (2018.12.19.) **'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 사라진다'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웹페이지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7057&SEARCHKEY=TITLE&SEARCHVALUE=%EB%82%B4%EB%85%84%EB%B6%80%ED%84%B0+%EA%B5%AD%EA%B0%80%EA%B1%B4%EA%B0%95%EA%B2%80%EC%A7%84에서 2019년 10월 10일 인출.

보건복지부 (각 년도). **국민영양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2_N054&conn_path=I2에서 2019년 7월 23일 인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8). **2017 국민건강통계(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 2차년도(2017))**. 질병관리본부 웹사이트 https://knhanes.cdc.go.kr/knhanes/sub04/sub04_03.do?classType=7에서 2019년 7월 23일 인출.

부산광역시 (2017). **청년 디딤돌 플랜 발표 보도자료**. 2017.5.24. 부산광역시청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young/news02/1204401에서 2019년 5월 20일 인출.

부산광역시 (2019). **부산청년플랫폼: 한눈에 보는 부산청년정책**. 부산광역시 웹사

이트 https://www. busan.go.kr/young/index에서 2019년 5월 20일 인출.
서울신문 (2019. 6. 16). 배움 없는 현장·참으라는 학교… 교실 밖 고3 '3D 뺑뺑이. 서울신문 웹사이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617015002에서 2019년 10월 9일 인출.
세종특별자치시 (2019). **청년정책 기본계획(2019~2023년)**. 세종특별자치시 웹사이트 http://www.sejong.go.kr/prog/jungJangGi/kor/sub03_02_07view.do?cntNo=10에서 2019년 2월 19일 인출.
양명희, 권재기 (2013). 청소년들의 학업정서 지각 유형과 자기조절학습과의 관련성. **한국청소년연구, 24**(4), 203-229.
양정선, 김다경, 유혜인 (2017). **경기도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정책보고서 2017-08). 수원: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엄창환, 강보배, 신동훈, 정현미 (2018). **청년인구 이동 문제 진단을 위한 청년 현실에 기초한 지역격차 분석 연구** (2018 서울시 청년허브 기획연구 결과보고). 서울: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오세제 (2018). **청년 정치가 답이다**. 서울: 지에이소프트.
윤소하 (2017.09.20). 국가건강검진에서 소외된 청년, 건강 상태는 급격히 악화. **윤소하 의원실 2017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웹페이지 http://yunsoha.kr/xe/index.php?mid=act_03&page=13&document_srl=9170에서 2019년 10월 10일 인출.
윤소하 (2019.09.30). 건강검진 수검률 분석-청년 건강검진. **윤소하 의원실 2019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웹페이지 http://yunsoha.kr/xe/act_03/15267에서 2019년 10월 10일 인출.
의안정보시스템 (2019). **청년 관련 기본법안**. 의안정보시스템 웹사이트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에서 2019년 5월 12일 인출.
이동수, 이현휘, 장명학, 김윤철, 유병래, 정재원, 채진원 (2013). **시민은 누구인가**. 경기도: 인간사랑.

이재신, 이영수 (2009). 정치정보 습득, 관여도, 정치적 불만과 정치참여 유형의 관계. **한국언론학보, 53**(2), 183-205.

이혜인, 홍준형 (2013). 정부신뢰와 시민참여: 지난 두 정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활용한 실증분석. **한국행정논집, 25**(3), 791-820.

임희진, 문호영, 정정호 (2018).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V** (연구보고 18-R07).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자치법규정보시스템 (2019). **지방자치단체 청년기본조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에서 2019년 5월 12일 인출.

조정인 (2012) 정치적 아웃사이더들의 역습? 비통상적 정치참여채널 활성화가 참여 불평등에 끼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11**(2), 39-6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7). **19대 대통령선거 투표율 분석 결과 공개 보도자료**. 2017.09.0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웹페이지http://www.nec.go.kr/portal/bbs/view/B0000342/36512.do?menuNo=200035&searchYear=&searchMonth=&searchWrd=19대대통령선거&searchCnd=1&viewType=&pageIndex=1&section=&searchOption1= 에서 2019년 10월 14일 인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9). **당선인 통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웹페이지 http://info.nec.go.kr/main/showDocument.xhtml?electionId=0000000000&topMenuId=EP&secondMenuId=EPEI03에서 2019년 10월 10일 인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 년도). **대통령선거 투표율 분석,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분석**. 국가지표체계 웹사이트 http://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063에서 2019년 7월 24일 인출.

청년기본법안 (2016a). [**신보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00024호**]. 의안정보시스템 웹사이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1W6J0Q5G3Y0D1U4M2D3Z4H3A6J8A5에서 2019년 5월 12일 인출.

청년기본법안 (2016b). [**이원욱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01778호**]. 의안정보시스템 웹사이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Y1J6E0D8T2Q4W1G4U5R0Y5M7J6C7V1에서 2019년 5월 12일 인출.

청년기본법안 (2017).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06739호**]. 의안정보시스템 웹사이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1H7S0K4Z1K3C1I1C4O2D5T7N8V3B5에서 2019년 5월 12일 인출.

청년기본법안 (2018a). [**이명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13684호**]. 의안정보시스템 웹사이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1V8Q0Q5Y2P1S1B8V2V9Q5K1U0D6I8에서 2019년 5월 12일 인출.

청년기본법안 (2018b). [**채이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11990호**]. 의안정보시스템 웹사이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1Q8W0I2V1F9V1W6C0Z7B0S4Q8H3O7에서 2019년 5월 12일 인출.

청년발전기본법안 (2016). [**김해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04070호**]. 의안정보시스템 웹사이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1J6H1O2K0Z2E1G4X3H0C0D8H0B4Y1에서 2019년 5월 12일 인출.

청년발전지원기본법안 (2017). [**강창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07738호**]. 의안정보시스템 웹사이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1H7Z0I6C3Z0G1R8S0E5A5X0N2M4J3에서 2019년 5월 12일 인출.

청년발전지원법안 (2018). [**신보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16948호**]. 의안정보시스템 웹사이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1P8S1F1V3I0R1E4U4F5U1H3N5K9C5에서 2019년 5월 12일 인출.

청년정책기본법안 (2016). [**박홍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01620호**]. 의안정보시스템 웹사이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

=PRC_G1O6C0B8G1A7H1B4L3L5M5L7U9F2R1에서 2019년 5월 12일 인출.
통계청 (2017) 2017년 사회조사 결과(복지, 사회참여,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보도자료. 2017.11.07. 통계청 웹페이지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6/3/index.board?bmode=read&bSeq=&aSeq=364361&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에서 2019년 10월 10일 인출.
통계청 (2019a). **2019년 8월 고용동향 보도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https://www.kostat.go.kr/portal/korea/kor_nw/1/3/2/index.board?bmode=read&aSeq=377478&pageNo=&rowNum=10&amSeq=&sTarget=&sTxt=에서 2019년 9월 30일 인출.
통계청 (2019b). **2019년 7월 인구동향 보도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https://www.kostat.go.kr/portal/korea/kor_nw/1/2/3/index.board?bmode=read& bSeq=&aSeq=377644&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에서 2019년 9월 30일 인출.
통계청 (각 년도a). **장래인구추계**.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에서 2019년 7월 17일 인출.
통계청 (각 년도b). **인구동향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에서 2019년 7월 18일 인출.
통계청 (각 년도c).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에서 2019년 7월 19일 인출.
통계청 (각 년도d). **사회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에서 2019년 7월 19일 인출.
통계청 (각 년도e). **기업생멸행정통계**.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에서 2019년 7월 22일 인출.
통계청 (각 년도f). **가계금융·복지조사(패널)**.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에서 2019년 7월 22일 인출.

통계청 (각 년도g). **인구총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에서 2019년 7월 22일 인출.

통계청 (각 년도h). **가계동향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에서 2019년 10월 7일 인출.

한국경영자총협회(각 년도). **신입사원 채용실태 조사**. 한국경영자총협회 웹사이트 http://www.kefplaza.com/kef/kef_press_view.jsp?num=6023에서 2019년 7월 22일 인출.

한국고용정보원 (2019). **청년패널조사 조사개요**. https://survey.keis.or.kr/yp/yp01/yp0101.jsp에서 2019년 5월 10일 인출.

한국문학평론가협회 (2006). **문학비평용어사전**. 서울: 국학자료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9). **한국교육고용패널 조사설계**. https://www.krivet.re.kr/ku/ha/kuCABDs.jsp에서 2019년 5월 10일 인출.

한국행정연구원 (2018a).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8-01-01).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행정연구원 (2018b). **2018년 사회통합실태조사**. 한국행정연구원 웹사이트 https:// www.kipa.re.kr/site/kipa/research/selectReList.do?seSubCode=BIZ017A001에서 2019년 10월 10일 인출.

한무명초, 김양석, 이충권 (2017).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동남권 신공항 신문기사 분석. **한국스마트미디어학회, 6**(1), 47-53.

황여정 (2017).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모형개발 연구.** (연구보고 17-R0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황용석 (2001). 인터넷 이용과 정치참여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언론학보, 45**(3), 421-456.

Akaike, H. (1974). A new look at the statistical model identification. *IEEE Transactions on Automatic Control,* 19, 716-723.

Conway, M. M. (1991). *Political participation in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C: Congressional Quarterly Press.

EACEA (2019a). 노르웨이의 일반적인 맥락(General context). EACEA NATIONAL POLICIES PLATFORM 웹사이트 https://eacea.ec.europa.eu/national-policies/en/content/youthwiki/61-general-context-norway에서 2019년 4월 2일 인출.

EACEA (2019b). 스웨덴의 청소년 정책. EACEA NATIONAL POLICIES PLATFORM 웹사이트 https://eacea.ec.europa.eu/search/site/Sweden%20Youth_en에서 2019년 4월 2일 인출.

EACEA (2019c). 오스트리아의 청소년 정책(Youth Policy in Austria). EACEA NATIONAL POLICIES PLATFORM 웹사이트 https://eacea.ec.europa.eu/national-policies/en/content/youthwiki/overview-austria에서 2019년 4월 2일 인출.

Gibson, R., & Cantijoch, M. (2013). Conceptualizing and measuring participation in the age of the internet: Is online political engagement really different to offline?. *The Journal of Politics*, *75*(03). 701-716.

Huntington, S. P., & Nelson, J. M. (1976). *No easy choice: Political particip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Lo, Y., Mendell, N. R., & Rubin, D. B. (2001). Testing the number of components in a normal mixture. *Biometrika,* 88, 767-778.

Lutz, C., Hoffmann, C. P., & Meckel, M. (2014). Beyond just politics: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f online participation. First Monday, 19(7).

Magidson, J., & Vermunt, J. (2002). Latent class models for clustering: A comparison with K-means. *Canadian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20, 37-44.

McLachlan, G. J., & Peel, D. (2000). *Finite mixture models.* New York: Wiley.

Muthén, B. (2004). *Latent Variable Analysis.* The Sage Handbook of Quantitative Methodology for The Social Sciences. 345-368,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O'Connor, R. M., & Colder, C. R. (2005). Predicting alcohol patterns in first-year college students through motivational systems and reasons for drinking.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1, 10-20.

Ørjan Bergan (2017). COUNTRY SHEET ON YOUTH POLICY IN NORWAY. Retrieved April 2, 2019, from https://pjp-eu.coe.int/documents/42128013/47262376/Country-sheet-Norway-2017.pdf/f193d7f5-5b6a-b9d9-21e9-b71fb5563483.

Power, G. (2012). *Global Parliamentary Report: The changing nature of parliamentary representation*. Inter-Parliamentary Union.

Schwartz, G. (1978). Estimating dimensions of a model. *Annals of Statistics,* 6, 461-464.

Tiina Ekman (2016). COUNTRY SHEET ON YOUTH POLICY IN SWEDEN. Retrieved April 2, 2019, from https://pjp-eu.coe.int/en/web/youth-partnership/sweden.

Verba, S., and Norman H. Nie. (1972). P*articipation in America: Political democracy and Social Equality*. New York: Harper & Row.

부 록

1. 2019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조사항목
2. 2019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조사표_청년용
3. 2019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조사표 _중/고등학생용
4. 심층면담조사지 : 청년의 사회·정치 참여

부록

1. 2019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조사항목

표 부록-1 2019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조사항목

조사내용 (*는 2019년 신규문항)		문항번호	
		만15-18세 중·고등학생용	만19-39세 청년용
1. 인구와 가족	아동, 청소년, 청년 연령	문1	문1
	원가정으로부터 독립 필요성 및 적정 독립 시기	문2	문2
	결혼 필요성 및 적정 결혼 시기	문3	문3
	자녀 필요성 및 적정 자녀 계획 시기	문4	문4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출산 대책	-	문5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육아 대책	-	문6
	결혼 여부	-	문7
	결혼 준비 경험 여부	-	문8
	결혼 준비 시 망설인 경험	-	문8-1
	결혼을 망설인 이유	-	문8-2
	맞벌이 유무	-	문9
	현재 자녀 존재 유무	-	문10
	향후 자녀를 가질 의향	-	문11
	2025년 출산율 전망	-	문12
	해외이주를 고려해 본 경험	문5	문13
	해위이주를 고려한 이유	문5-1	문13-1
2. 교육과 훈련	2025년 입시경쟁 전망	문6	문14
	우리사회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	문7(1)~(3)	문15(1)~(3)
	대학(교) 진학 경험 여부	-	문16
	대학(교) 유형, 소재지, 전공계열, 졸업여부, 학년, 입학 및 졸업연월	-	문16(1)~(7)
	졸업 요건 이수 후 유예 경험	-	문17
	졸업 유예 위해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	-	문18
	졸업 유예 사유 및 미이수 사유	-	문19
	복수 및 부전공(심화/연계전공) 경험*	-	문20

조사내용 (*는 2019년 신규문항)		문항번호	
		만15-18세 중·고등학생용	만19-39세 청년용
	복수 및 부전공(심화/연계전공) 전공 계열*	-	문20-1
	고교교육 및 대학교육 만족도	문8	문21
	향후 대학원 진학 의향*	-	문22
	대학원 박사 과정 진학 여부*	-	문22-1
	대학원 재학상태*	-	문22-2
	대학 미진학 사유	-	문23
	향후 대학 진학 의향	문9	문24
	고등학교 재학 경험	문10	문25
	고등학교 유형	문10-1	문25-1
	고등학교 재학 학년	문10-2	-
	고등학교 재학 중 계열 및 전공 변경 여부	문10-3	문25-2
	고등학교 재학 시 학교로부터 진로 및 직업 관련 프로그램 제공 경험	문10-4	문25-3
	제공받은 프로그램의 도움 정도	문10-4-1	문25-3-1
	취업 준비 여부	문11	문26
	취업 준비 기간*	-	문26-1
	취업 준비 방법별 경험 여부	문12	문27
	취업 준비 지원 대상별 도움 여부	문13	문28
	취업 준비 지원 대상별 도움 정도	문13-1	문28-1
	취업 준비 지원 대상별 도움 내용	문13-2	문28-2
	도움을 받은 사설기관 월 이용 비용	문13-3	문28-3
	사설기관 외 취업준비 관련 월 이용 비용	문13-4	문28-4
	평일 기준 취업 준비 투자 시간	문13-5	문28-5
	공무원, 공단(공사), 교원 임용,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 여부	문14	문29
	향후 직업 훈련 계획 여부	-	문30
3. 경제와 고용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	문15	문31
	2020년 적정 최저 임금	문16	문32
	2025년 우리나라 청년 취업경쟁 전망	문17	문33
	미취업 청년 대상 급여(수당, 배당) 지급에 대한 생각	문18	문34
	한달 본인 생활비(용돈) 정도	문19	문35
	한달 본인 생활비(용돈) 중 부모님이나 친지로부터 지원받는 비율	문19-1	문35-1
	갚아야 할 채무 여부	-	문36
	채무 발생 사유	-	문36-1
	대출을 받은 기관*	-	문36-2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	문20	문37

조사내용 (*는 2019년 신규문항)		문항번호	
		만15-18세 중·고등학생용	만19-39세 청년용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	문21	문38
	중소기업 취업 의향	문22	문39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지 않는 이유	문22-1	문39-1
	창업 고려 또는 경험 여부	-	문40
	청년 고용위기 해법으로 더 중요한 정책 분야	-	문41
	노동공급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	-	문41-1
	노동수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	-	문41-2
	지난 주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험	-	문42
	지난 4주 내 구직 경험 여부	-	문43
	지난주 일을 시작할 수 없었던 주된 이유	-	문44
	항목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 해당 여부	-	문45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 중 가장 주된 이유	-	문45-1
	학업,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 지속 기간	-	문46
	구직활동을 한 기간	-	문47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의 직업 분류	-	문48
	현재 본인의 월 평균 소득,	-	문49(1)
	본인이 원하는 월 평균 소득*	-	문49(2)
	현재 본인의 주당 노동시간*	-	문49(3)
	지난주 더 많은 일 및 시간을 할 수 있는 직장 내에서 업무 가능 여부*	-	문49-3-1
	지난 4주 내 현재 일을 더 찾아보거나 다른 일(직장)을 찾아본 경험 여부*	-	문49-3-2
	본인이 원하는 주당 노동시간*	-	문49(4)
	직장에서 조건에 맞는 대우 정도	-	문50
	이직 의향	-	문51
	이직 희망 사유	-	문51-1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 경험 여부	-	문52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시작)년도*	-	문52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인지 및 참여 의향*	-	문53
	취업 후 퇴사 및 해고 경험 여부	-	문54
	실업급여 인지 여부	-	문55
	실업급여 수급 여부	-	문56
	실업급여 미수급 이유	-	문56-1
4. 주거	본인 명의의 집 마련 예상 시기	문23	문57
	집에 대한 생각	문24(1)~(3)	문58(1)~(3)
	공동주거 경험 여부	문25	문59
	공동주거 거주 의향	문26	문60
	부모 동거 여부	문27	문61

조사내용 (*는 2019년 신규문항)		문항번호	
		만15-18세 중·고등학생용	만19-39세 청년용
	향후 부모 동거 계획	문28	-
	미혼 혼자 거주 여부	-	문62
	현재 주거 형태	-	문62-1
5. 건강	주관적인 신체건강에 대한 인식	문29	문63
	현재 본인의 체형에 대한 생각	문30	문64
	건강검진 수검 여부	문31	문65
	질환 발생 시 대처 방안	문32	문66
	질환 발생 후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	문33	문67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	문34(1)~(5)	문68(1)~(5)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	문35(1)~(11)	문69(1)~(11)
	규칙적인 운동 여부	문36	문70
	규칙적인 운동 빈도	문36-1	문70-1
	인생에서 외모의 중요도	문37	문71
	성형수술 경험	문38	문72
	성형수술 목적	문38-1	문72-1
	미용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한 이유	문38-2	문72-2
6. 가치관	가치 항목별 선호도	문39(1)~(4)	문73(1)~(4)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	문40	문74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을 갖춘 정도	문41	문75
7. 관계 및 참여	어려운 상황에서 기댈 수 있는 친구 유무 및 수	문42	문76
	평소 외출 정도	문43	문77
	외출을 하지 않는 상태의 지속 기간 정도	문43-1	문77-1
	외출을 하지 않게 된 계기	문43-2	문77-2
	지난 주 혼자 밥을 먹은 경험 여부(점심 기준)	-	문78
	지난 주 혼자 술을 마신 경험 여부(저녁 기준)	-	문79
	기성세대 및 노인에 대한 생각	문44(1)~(7)	문80(1)~(7)
	사회·정치 문제 의견 표명 행동별 참여 의향*[18]	문45(1)~(5)	문81(1)~(12)
	정치적 효능감	문46(1)~(3)	문82(1)~(3)
8. 정치·사회 참여	사회·정치 문제 의견 표명 행동별 참여 경험*	-	문83
	사회·정치 참여 이유*	-	문84
	정치 문제 관심 정도*	-	문85
	2017년(제19대) 대통령 선거 투표 여부*	-	문86
	2018년(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여부*	-	문87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어렵게 하는 이유*	-	문88
	단체(모임) 참여 경험*	-	문89
	단체(모임) 참여 이유*	-	문90
	단체(모임) 참여 의향*	-	문91
	청년들의 단체, 모임 참여를 어렵게 하는 이유*	-	문92

조사내용 (*는 2019년 신규문항)		문항번호	
		만15-18세 중·고등학생용	만19-39세 청년용
	청년 참여 관련 법, 정책, 기구별 인지도*	-	문93
	청년들의 사회·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	-	문94
	10대(중·고등학교) 시기 내 활동별 참여 경험*	-	문95

18) 청년용 설문의 경우 2019년 조사 시 7개 문항이 추가됨(중·고등학생용 설문 문항은 동일)

2. 2019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조사표_청년용

승인번호
제 402004 호

청 년 용

2019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산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청년들의 일과 삶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청년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2019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응답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개인정보도 철저히 보호됩니다. 또한, 통계법 제34조(통계종사자의 의무)에 따라 응답 내용은 통계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다른 기관에 제공되는 일은 절대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귀하께서 받으신 설문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각각의 조사문항에 대해 귀하의 생활실태나 의견을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조사문항에 성의껏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설문지는 조사기준일(2019년 6월 1일) 현재 만19세~만39세(1979년 6월 2일~2000년 6월 1일)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15~18세인 가운데 중·고등학생이 아닌 경우(현재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경우, 검정고시 준비, 재수생, 대학(교)에 입학하신 분,
현재 취업 중이신 분 등)에는 본 설문지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사항은 조사원이 기입합니다.

면접원 ID		면접원 이름		응답자 이름	
조사구 일련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	
주소(구/동)	시/도 구/시/군 동/읍/면			S.V 최종확인	
응답자 연락처	( ) - ( ) - ( )		생년월일	년 월 일	
주택 유형	1. 단독 주택 2. 아파트 3. 연립/다세대주택 4. 기타(적을 것 : _____)				

구 분	남 성		여 성		합 계	
총 가구원 수						
만 15세 이상 18세 이하 가구원 수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가구원 수						
가구당 조사표 부수	조사대상 가구원 수 총 ( )부 중 ( )부 진행					

※ 조사원: 동일 가구인 경우라도 모든 설문지 표지에 내용을 작성해 주십시오.

미진행 가구원 사유		유치조사 진행 여부 ※ 해당되는 모든 내용에 표시	① 직접 만나서 조사 ② 설문 회수 시 만남 ③ 회수 후 전화로 응답확인 ④ 유치조사

조사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조사수행기관 Hankook Research (주)한국리서치

조사문의
김수진: 02-3014-0982
이동휘: 02-3014-0995
박수미: 02-3014-0115

설문지 작성 요령

설문지에는 귀하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대로 대답해야 하는 질문도 있고, 귀하의 생각을 밝혀야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만일 이해가 되지지 않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면접원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표시하는 방법1**

대부분은 주된 응답 한 가지만 고르는 문항입니다. 귀하에게 해당되는 응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표로 구성된 질문은 ①에서 ⑤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문장을 읽고, '전혀 그렇지 않다'면 ①에, '그렇지 않다'면 ②에, '보통이다'면 ③에, '그렇다'면 ④에, '매우 그렇다'면 ⑤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보기1〉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 **표시하는 방법2**

숫자를 기입해야 할 때는 박스 안에 한 자리씩 기입해 주세요.

〈보기2〉

문A. 친구들 중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기댈 수 있고 당신의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 (1 0 명)

♣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보기3>과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지우개 또는 수정액 등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보기3〉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①	②	③	⊗	④

♣ **응답을 선택한 후 지시문에 따라 해당 번호로 이동**

항목 오른쪽에 지시문이 있는 경우는, 응답을 한 후 선택한 항목의 오른쪽에 색칠된 지시문이 이동하라고 하는 번호로 이동해야 합니다.

〈보기4〉

문B. 귀하는 해외이주에 대해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 문B-1로 이동 ② 없다 ➡ 문C로 이동

☞ 나는 해외이주를 고려해 본 적이 있어서 '①' 에 표시한 후, 문 B-1로 이동해서 응답합니다.

♣ **설명문 반드시 참고**

질문 아래 설명문(응답 기준, 용어 설명 등)이 있는 경우, 설명문을 읽고 응답해 주세요.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보기5〉

문C. 귀하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 1회 운동 시 30분 이상 한 경우에 해당하며, 직업, 학업, 잡일일, 봉사활동, 학교 체육수업 등과 관련한 신체활동은 제외합니다.

① 예 ➡ 문C-1로 이동 ② 없다 ➡ 문D로 이동

Ⅰ. 먼저 「인구와 가족」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 귀하는 아동, 청소년, 청년의 연령을 몇 세부터 몇 세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 아 동 : 만 [ ][ ] 세 ~ 만 [ ][ ] 세
■ 청소년 : 만 [ ][ ] 세 ~ 만 [ ][ ] 세
■ 청 년 : 만 [ ][ ] 세 ~ 만 [ ][ ] 세

문2) 귀하는 몇 세부터 가정으로부터 분가해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만 [ ][ ] 세 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② 독립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③ 가정으로부터 분가해 독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문3) 귀하는 몇 세에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만 [ ][ ] 세에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② 결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③ 결혼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문4) 귀하는 몇 세에 첫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만 [ ][ ] 세에 첫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② 자녀를 가질 수도 있고 갖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③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문5) 귀하는 다음의 출산 대책 중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출산장려금 확대
② 출산 휴가 장려 및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③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④ 자녀의 교육비 부담 완화
⑤ 가구의 소득 증대
⑥ 가구의 주거 부담 완화
⑦ 여성의 경력단절 부담 완화
⑧ 기타(적을 것 : _____)

문6) 귀하는 다음의 육아 대책 중 정부가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아동수당이란 만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함
(2019년 9월부터 만 7세미만 아동까지 아동수당 지급 확대 예정)

① 무상보육교육비 확대
② 육아 휴직 장려 및 급여 확대
③ 방과후 서비스 확대
④ 아동수당 대상자 확대
⑤ 자녀의 교육비 부담 완화
⑥ 가구의 소득 증대
⑦ 가구의 주거 부담 완화
⑧ 여성의 경력단절 부담 완화
⑨ 기타(적을 것 : _____)

문7) 귀하는 결혼하셨습니까?

① 배우자 있음
② 사별·이혼
③ 결혼하지 않음

문8) 귀하는 결혼을 준비해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문9로 이동**

문8-1) 준비하는 과정에서 결혼을 망설인 적이 있으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문9로 이동**

문8-2) 결혼을 망설인 가장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결혼비용 때문에(주택마련, 혼수비용) ② 출산 혹은 양육에 대한 고민 때문에
③ 불안정한 직장 때문에 ④ 자유로운 삶을 포기할 수 없어서
⑤ 결혼생활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⑥ 기타( )

문9) 귀하의 가정은 맞벌이를 하고 계십니까?

☞ 배우자(사실혼 포함)가 있는 분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예(맞벌이) ② 아니오(외벌이)

문10) 귀하는 자녀가 있으십니까?

☞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① 예(있다면 자녀가 몇 명입니까? [ ][ ]명) ② 아니오

문11) 귀하는 자녀를 가지실 의향이 있습니까?

☞ 이미 자녀가 있으신 경우, 향후에 추가로 자녀를 가지실 의향 여부를 응답해 주십시오.

① 예 ② 아니오

문12) 귀하는 우리나라 출산율이 현재와 비교하여 2025년에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다 ② 출산율이 유지될 것이다 ③ 출산율이 내려갈 것이다

문13) 귀하는 해외이주에 대해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교육 및 훈련」영역(문14)으로 이동**

문13-1) 해외이주를 고려하셨다면,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자기계발을 위해서 ② 새로운 사회에 도전해보고 싶어서
③ 행복한 삶을 위해서 ④ 더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서
⑤ 취업이 어려워서 ⑥ 아이를 낳고 키우기 힘들어서
⑦ 빈부격차가 커서 ⑧ 집값이 너무 비싸서
⑨ 안보가 불안해서 ⑩ 기타(적을 것 : _____)

II. 다음은 「교육과 훈련」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4) 귀하는 우리나라 입시경쟁이 현재와 비교하여 2025년에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경쟁이 약화될 것이다
② 경쟁이 유지될 것이다
③ 경쟁이 심해질 것이다

문15) 귀하는 다음 우리 사회의 교육관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한다	①	②	③	④	⑤
(2) 한국 사회에서 교육을 어디까지 받았는지(학력)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3) 한국 사회에서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학벌)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16) 귀하는 대학(교) 진학 경험이 있습니까?(대학교 졸업, 중퇴, 재학, 휴학이신 경우 모두 '① 있다' 로 응답해 주십시오)
① 있다 ② 없다 ➡ **문23으로 이동**

문16-1) **가장 최근에 진학한 2-3년제 및 4-6년제 대학(대학원은 포함되지 않음)**의 학교유형, 소재지, 전공계열, 입학년월, 졸업여부, 학년, 졸업년월을 응답해 주십시오.

학교유형	학교 소재지 (* 보기1 참조)	전공계열 (* 보기2 참조)	(편)입학년월	졸업여부	학년 (4학년 이상인 경우, 4학년에 응답)	졸업년월 (졸업한 경우 응답)
① 전문대 (2-3년제) ② 대학교 (4-6년제)			년 월	① 졸업 ➡ 졸업년월 ② 재학 ➡ 학년 ③ 휴학 ➡ 학년 ④ 중퇴 ➡ **문17**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년 월

*** 보기1(소재지)**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⑱ 기타(해외 등)

*** 보기2(전공계열)**

① 인문계열 ② 사회계열(경상계열 제외) ③ 경상계열 ④ 자연계열 ⑤ 공학계열
⑥ 의/약학계열 ⑦ 교육계열 ⑧ 예체능계열 ⑨ 사관학교, 경찰대 ⑩ 기타

※ 다음(문17~문22)은 **대학을 다닌 경험이 있거나 다니시는 분**들만 응답해 주십시오.

문17) 대학 시절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이수하고도 졸업을 늦춘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18) 대학 시절 졸업을 늦추기 위해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이수하지 않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문17과 문 18 모두 '②아니오' 인 응답자는 문20으로 이동**

문19) (문17에 ① 또는 문18에 ① 응답자만) 대학 시절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이수하고도 졸업을 늦추거나 졸업을 늦추기 위해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이수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취업준비를 하기 위해 ② 진로를 결정하지 못해서
③ 졸업을 해도 취업이 안 될 것 같아서 ④ 경제적으로 학비나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⑤ 문화 및 여가생활을 누리기 위해 ⑥ 기타(적을 것: _____)

문20) 귀하는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심화/연계전공 포함)을 하고 있거나 하였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문21로 이동**

문20-1)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심화/연계전공 포함)의 전공계열은 무엇입니까?

① 인문계열 ② 사회계열(경상계열 제외)
③ 경상계열 ④ 자연계열
⑤ 공학계열 ⑥ 의/약학계열
⑦ 교육계열 ⑧ 예체능계열
⑨ 사관학교, 경찰대 ⑩ 기타(적을 것 : _____)

문21) 다음 제시된 각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대학교육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대학교육이 앞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대학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가 선택한 대학에서의 학과(전공)가 나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22) 귀하는 추후 대학원에 진학할 의사가 있습니까?

※ 현재 대학원에 다니고 있거나 졸업(수료)한 경우는 '③대학원에 진학을 하였다' 로 응답해 주세요.

① 예 ➡ **문25로 이동** ② 아니오 ➡ **문25로 이동** ③ 대학원에 진학을 하였다

문22-1) 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하셨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22-2) 현재 대학원에 재학 중이십니까?

① 재학 ② 휴학 ③ 수료 ④ 졸업

➡ **응답 후 문25로 이동**

※ 다음(문23~문24)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분(고졸 이하 및 재수생 등 비진학자)만** 응답해 주십시오.

문23) 귀하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고졸 학력을 취득하지 못해서
②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
③ 진학하고 싶었으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④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에 성적이 부족해서
⑤ 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⑥ 고등학교 시절, 졸업 후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어서
⑦ 기타(적을 것 : _____)

문24) 귀하는 추후 대학에 진학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25) 귀하는 고등학교를 다니셨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 문26로 이동

문25-1) 다니셨던 고등학교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① 일반고 ② 자율형고
③ 특성화고(공고, 상고, 실업고, 전문계고 등) ④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특목고)
⑤ 과학/영재고(특목고) ⑥ 외국어/국제고(특목고)
⑦ 예술/체육고(특목고) ⑧ 기타(적을 것 : _____)

문25-2) 고등학교 재학 시 계열이나 전공을 변경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계열이나 전공을 변경한 적이 없다
② 문과(이과)에서 이과(문과)로 변경하였다
③ 일반계(직업계)에서 직업계(일반계)로 변경하였다(일반고 직업과정, 특성화고 대입반 포함)
④ 예·체능계(일반·직업계)에서 일반·직업계(예·체능계)로 옮겨갔다
⑤ 전문교과나 전문분야를 변경하였다(예: 공업→상업, 미술→음악 등)
⑥ 기타(적을 것 : _____)

문25-3) 고등학교 재학 시 다음의 **진로 및 직업 관련 프로그램을 학교로부터 제공받은 적**이 있습니까? (본인이 직접 찾아 개인적으로 참여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문25-3-1) 해당 프로그램을 제공받았다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문 항	문25-3)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경험	문25-3-1) 도움이 되는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진로, 직업, 취업 상담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2) 진로와 직업 수업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3) 진로, 직업 체험(현장 견학, 현장 직업체험, 직업실무 체험, 캠프 등)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4) 학과, 전공 체험(대학교 방문, 학과 및 전공 체험 등)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5) 진로, 직업 특강강의 및 설명회박람회 참석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6) 취업처 연계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 다음(문26~문30)은 모든 대상자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26) 귀하는 지난주에 주로 취업준비를 하셨습니까?

☞ 취업준비란 구직, 이직, 창업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탐색 이상의 모든 활동을 의미하며, 공무원 또는 공단(공사) 준비, 취업을 위한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도 취업준비에 포함됩니다.

① 예 ② 아니오 ➡ **문29로 이동**

문26-1) 귀하는 취업을 얼마동안 준비하셨습니까?

( ) 년 ( )개월 (예: 6개월 일 경우 0년 6개월)

문27) 귀하는 취업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였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응답)

문 항	취업준비 경험	
(1)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 통학을 통한 교육이나 훈련(어학, 면접 제외)	① 예	② 아니오
(2) 인터넷 강의, 어플, 동영상 등을 활용한 교육이나 훈련(어학, 면접 제외)	① 예	② 아니오
(3) 영어회화, 제2외국어, 한자능력, 토익, 토플 등 준비(인터넷 포함)	① 예	② 아니오
(4) 해외 연수, 어학 연수 경험	① 예	② 아니오
(5) 면접 훈련(인터넷 포함)	① 예	② 아니오
(6) 자소서 작성 훈련(인터넷 포함)	① 예	② 아니오
(7) 취업전문회사 자문이나 컨설팅	① 예	② 아니오
(8) 현장실습 경험	① 예	② 아니오
(9)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① 예	② 아니오
(10) 인턴 경험	① 예	② 아니오
(11) 봉사활동 경험	① 예	② 아니오
(12) 동아리, 스터디 활동 경험	① 예	② 아니오
(13)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	① 예	② 아니오

문28) 귀하는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어디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응답)

문28-1)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았다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문 항	문28) 도움 받은 경험	문28-1) 도움이 되는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교(상담교사, 교사, 지도교수 등)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2) 공공기관(고용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3) 사설기관(사설학원, 인터넷취업사이트 등)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이나 친인척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5) 친구, 선후배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6)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 **문28에서 도움 받은 경험이 모두 ② 아니오 인 경우는 문28-4로 이동**

문28-2) 귀하는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주체로부터 주로 어떤 도움을 받았습니까? (한 가지만 선택)
(문28에서 '예' 라고 응답한 항목만 선택하여 응답)

문 항	정보 제공	교육/ 훈련	상담	일자리 알선	금전적 지원	기타 (구체적으로)
(1) 학교(상담교사, 교사, 지도교수 등)	①	②	③	④	⑤	⑥ _____
(2) 공공기관(고용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①	②	③	④	⑤	⑥ _____
(3) 사설기관(사설학원, 인터넷취업사이트 등)	①	②	③	④	⑤	⑥ _____
(4) 부모님이나 친인척	①	②	③	④	⑤	⑥ _____
(5) 친구, 선후배	①	②	③	④	⑤	⑥ _____
(6) 기타 (구체적으로_____)	①	②	③	④	⑤	⑥ _____

➡ **(3) 사설기관 문항에 응답한 자는 문13-3으로 이동, 아닌 경우는 문28-4로 이동**

문28-3) (문28-2에서 (3)번 항목 응답자만) 귀하가 도움을 받은 사설기관(사설학원, 인터넷취업사이트 등)을 이용하는데 월평균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셨습니까?

약 [ ][ ][ ][ ][ ] 만원

문28-4) 사설기관(사설학원, 인터넷취업사이트 등)에 지불한 비용을 제외하고 시험응시료, 취업을 위한 교재, 도서 구입 등 취업준비를 위해 월 평균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셨습니까?(중 · 고등학교 및 대학(원)교의 정규 수업료 및 등록금 제외)

약 [ ][ ][ ][ ][ ] 만원

문28-5) 취업 준비를 위해 평일 하루에 투자한 시간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되십니까?

1일 평균 약 [ ][ ] 시간

문29) 귀하는 현재까지 공무원 또는 공단(공사), 교원 임용 시험,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이 있습니까?

☞ 시험 준비는 학교 재학 시절을 포함하여 현재까지의 시험 준비를 의미하며, 공단(공사) 내부의 진급 시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① 있다 ② 없다

문30) 귀하는 향후 직업 훈련을 받을 계획이 있습니까?

☞ 직업훈련은 취업 및 창업 준비,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모든 형태의 교육 및 훈련과 인턴 근무 등도 포함합니다. 단순한 취미활동을 위한 학원수강과 정규학교교육과 관련된 학원수강 및 실습(교생실습, 사회복지사 실습, 병원실습 등)은 제외됩니다.

① 예 ② 아니오 ③ 이미 받고 있다

Ⅲ. 다음은 「경제와 고용」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31) 귀하가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은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분위기 좋은 회사
② 급여가 높은 회사
③ 유명한 회사
④ 안정적인 회사
⑤ 퇴근이 빠른 회사
⑥ 발전 가능성이 높은 회사
⑦ 직무가 적성에 맞는 회사
⑧ 복지 수준이 좋은 회사
⑨ 기타(적을 것 : _____)

문32) 귀하는 2020년도 최저 임금으로 얼마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현) 실제 최저임금은 2016년 6,030원, 2017년은 6,470원, 2018년은 7,530원, 2019년은 8,350원이며, 전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청년이 적정하다고 응답한 2020년도 최저 임금 평균은 9,235원입니다.

시간급 [ ][ ][ ][ ][ ] 원

문33) 귀하는 우리나라 청년 취업경쟁이 현재와 비교하여 2025년에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경쟁이 약화될 것이다
② 경쟁이 유지될 것이다
③ 경쟁이 심해질 것이다

문34)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취업을 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일정 금액의 수당이나 배당,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잘 모르겠다

문35) 한 달 생활비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가족을 제외한 본인 생활비 기준으로 응답해주십시오)

☞ 생활비 포함 내용: 식비, 교통비, 통신비, 문화생활비(오락, 문화생활, 도서구입 등), 학원수강비, 시험응시료, 취업을 위한 도서 등 자료 구입비, 주거비 등

약 [ ][ ][ ][ ][ ] 만원

문35-1) 생활비 중 부모님이나 친지로부터 지원받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약 [ ][ ][ ] %

문36) 귀하는 은행이나 제2금융권, 대부업체, 또는 개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학자금 대출 포함)가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문37로 이동**

문36-1) 은행이나 제2금융권, 대부업체 또는 개인에게 채무가 발생하게 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선택)

① 학자금 마련 ② 주거비 마련(전·월세자금 대출 등)
③ 생활비 마련(식비, 의료비 등) ④ 창업 자금 마련
⑤ 기타(적을 것 : _____)

문36-2) 귀하는 어느 기관을 통해 돈을 빌리셨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은행 ② 제2금융권 ③ 대부업체 ④ 기타(적을 것: _____)

문37) 귀하는 **지난 1년간(2018년 6월-2019년 5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현재 부모님 및 친척 등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 주거비용 및 냉/난방비 지출에 대해 본인이 모를 경우만 (1), (2)에 '⑨ 잘 모름' 에 체크)

구 분	예	아니오	잘 모름
(1) 돈이 없어서 임대료, 대출금, 관리비 등 주거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①	②	⑨
(2) 돈이 없어서 집의 냉/난방을 유지하지 못했다	①	②	⑨
(3) 돈이 없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①	②	
(4) 돈이 없어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못했다	①	②	
(5) 돈이 없어서 휴일에 놀러가지 못하거나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했다	①	②	
(6) TV를 가지고 있지 않다	①	②	
(7) 냉장고를 가지고 있지 않다	①	②	
(8)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	①	②	
(9) 타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집전화, 휴대전화)을 가지고 있지 않다	①	②	

문38) 다음 제시된 각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사회는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적절하게 대우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사회는 대학(교) 졸업자에게 적절하게 대우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기성세대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정착을 위해 적절한 배려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기성세대는 대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정착을 위해 적절한 배려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는 대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39) 귀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① 예 ➡ **문40으로 이동** ② 아니오

문39-1)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대기업보다 낮은 성취감 ② 관련된 여러 업무 경험이 부재
③ 고용 불안정 ④ 사회적으로 낮은 인지도
⑤ 낮은 급여 수준 ⑥ 대기업으로의 이직이 불가능
⑦ 개인의 발전가능성이 없음 ⑧ 대기업보다 낮은 복지 수준
⑨ 기타(적을 것 : _____)

문40) 창업을 해 보거나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창업을 생각해보았고 실제로 창업을 했다
② 창업을 생각해보았으나 실제로 창업을 해 본 적은 없다
③ 창업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문41) 귀하는 청년 고용위기 해법으로 노동공급 측면의 정책(개인, 교육)과 노동수요 측면의 정책(일자리, 경제)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노동공급(개인, 교육) ② 노동수요(일자리, 경제)

☞ **문41의 응답 결과와 상관없이 문41-1과 문41-2를 모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41-1) 노동공급(개인, 교육)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진로교육 내실화와 진로지도 활성화
② 독일이나 스위스식의 일과 학습 병행제도 활성화
③ 고학력화로 인한 대졸자 과다 배출 억제
④ 청년들의 고용가능성 제고를 위한 학교의 취업지원 강화
⑤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대한 높은 선호도(청년 눈높이) 제고
⑥ 청년들의 능력 향상과 핵심역량 수준 제고
⑦ 미취업 청소년 및 청년 대상 수당, 배당, 급여 지급
⑧ 기타(적을 것 : _____)

문41-2) 노동수요(일자리, 경제)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대기업 청년 일자리 확대
② 공공부문 채용 확대
③ 청년 창업/창직 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
④ 경제민주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괜찮은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
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확대
⑥ 임금피크제를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
⑦ 해외취업 지원을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
⑧ 기타(적을 것 : _____)

문42) 귀하는 지난주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셨습니까?

* 돈을 받지 않고 동일 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18시간 이상 일 한 경우도 '일을 하였음'입니다.

① 일을 하였음 ➡ 문48로 이동
② 휴가 및 일시 휴직 ➡ 문48로 이동
③ 일을 하지 않았음

문43) 귀하는 지난 4주 내에 직장(일자리)을 구해 보았습니까? (창업준비도 포함됩니다.)
① 직장을 구해보았고, 지난주에 직장이 주어졌다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 문47로 이동
② 직장을 구해보았지만, 지난주에 직장이 주어졌더라도 일을 시작할 수 없었다 ➡ 문44로 이동
③ 직장을 구해보지 않았다 ➡ 문45로 이동

문44) 귀하는 지난주에 일을 시작할 수 없었던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육아나 돌봄, 출산, 가사 활동으로 인해
② 질병이나 장애 때문에
③ 학교(정규교육기관)에 다니고 있어서 ➡ 문52로 이동
④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에 다니고 있어서
⑤ 진학 준비 중이어서
⑥ 취업 준비 중이어서
⑦ 기타(적을 것 : _____)
➡ 응답 후 문47로 이동

문45) 다음의 각 항목이 지난주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에 해당되는지 응답해 주세요.

구 분	예	아니오
(1)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①	②
(2) 일할 욕구를 느끼지 못해서	①	②
(3) 여행이나 문화예술, 취미활동을 위해서	①	②
(4) 시간적 여유를 즐기기 위해서	①	②
(5) 육아나 돌봄, 가사 활동으로 시간을 보내야 해서	①	②
(6) 질병이나 지병 때문에 휴식을 취하기 위해	①	②
(7) 학교(정규교육기관)에 다니고 있어서	①	②
(8) 입시학원에 다니고 있어서	①	②
(9) 학원에 다니지 않고 진학준비 중이어서	①	②
(10) 취업을 위한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에 통학 중이어서	①	②
(11) 학원이나 기관에 다니지 않고 취업준비 중이어서	①	②
(12) 군 입대 대기 중이어서	①	②
(13) 학교와 학원 입학 혹은 직업훈련기관 통학 대기 중이어서	①	②
(14) 계속 취업에 실패해서	①	②
(15) 인간관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①	②
(16)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①	②
(17) 기타(직을 것 : _____)	①	②

문45-1) 위의 항목에서 '예'로 응답한 항목 중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하나만 선택)

( ) 번 ➡ 문45-(7)에 '①예'를 선택한 경우 문52로 이동, 그 외 번호는 문46으로 이동

문46) 귀하가 학교를 다니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은 상태가 얼마나 지속되었습니까?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하는 항목 한 가지만 선택 후, 응답해 주십시오)

선택(V)	비교육 및 미취업 기간
(1) 1개월 미만 ( )	( )일 동안 지속 되었다. (예: 15일)
(2) 1개월 이상 ( )	(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 (예: 3개월)
(3) 1년 - 2년 미만 ( )	( )년 (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 (예: 1년 6개월)
(4) 2년 이상 ( )	( )년 (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 (예: 2년 6개월)

➡ 응답 후 문52로 이동

문47) 귀하가 구직활동을 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가장 최근 구직활동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하는 항목 한 가지만 선택 후, 응답해 주십시오)

선택(V)	구직활동 기간
(1) 1개월 미만 ( )	( )일 동안 지속 되었다. (예: 15일)
(2) 1개월 이상 ( )	(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 (예: 3개월)
(3) 1년 - 2년 미만 ( )	( )년 (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 (예: 1년 6개월)
(4) 2년 이상 ( )	( )년 (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 (예: 2년 6개월)

➡ 응답 후 문52로 이동

※ 다음(문48~문51-1)은 **취업자 및 지난 1주간 1시간 이상 일한 경우 또는 휴가, 일시 휴직 상태인 경우(문42 '① 일을 하였음', '② 휴가 및 일시 휴직'인 경우)** 응답해 주십시오.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자영업, 고용원이 있는 자영자, 사업체 운영, 프리랜서 등) 모두 응답대상에 포함됩니다.

문48) 귀하가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은 다음 중 어느 직업에 허당합니까?

☞ 세부 직업에 대한 분류는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③ 사무 종사자
④ 서비스 종사자
⑤ 판매 종사자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⑧ 장치 ·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⑨ 단순노무 종사자
⑩ 직업군인
⑪ 기타(자세히 적을 것 : _____)

문49)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통해 실제로 얻는 세후 기준 월 평균 소득과 귀하가 원하는 월 평균 소득, 실제로 일하는 노동시간, 귀하가 원하는 주 노동시간은 어느 정도 입니까?

(1) 현재 본인의 월 평균 소득 : 약 □□□□□□ 만원

(2) 본인이 원하는 월 평균 소득 : 약 □□□□□□ 만원

(3) 현재 본인의 주당 노동시간 : 약 □□ 시간

➡ 주당 35시간 미만일 경우 문 49-3-1로 이동, 35시간 이상일 경우 '(4)본인이 원하는 주당 노동시간'으로 이동

문49-3-1) 귀하는 지난주에 일이 더 주어졌거나 더 많은 시간 일할 수 있는 다른 일(직장)이 주어졌다면 할 수 있었습니까?

① 있었음 ② 없었음

문49-3-2) 귀하는 지난 4주 동안 더 많은 시간 일하기 위해 현재 하는 일을 더 찾아보거나 다른 일(직장)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① 있었음 ② 없었음

(4) 본인이 원하는 주당 노동시간 : 약 □□ 시간

문50) 직장(일자리)에서 본인의 조건에 맞는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받고 있지 못하다
② 받고 있지 못하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받고 있는 편이다
⑤ 충분히 받고 있다

문51) 현 직장(일자리)을 그만두고 이직할 의향이 있습니까? (창업 준비, 업종 변경 등도 이직 준비에 포함됩니다.)

① 있다 ② 없다

문51-1) 이직을 희망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더 나은 보수/복지를 위해
② 개인발전/승진
③ 더 나은 근무환경(직장상사, 동료, 식대, 출퇴근 시간/거리 등)
④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⑤ 더 나은 안정성을 위해
⑥ 기술 또는 기능 수준이 맞지 않아서
⑦ 개인 사업을 위해서
⑧ 건강상의 이유로
⑨ 집안사정 때문에(육아, 가사부담 등 포함)
⑩ 기타(적을 것 : _____)

※ 다음의 문항들은 전체 대상자가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문52) 귀하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거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① 참여하고 있다 ➡ 문54로 이동
② 참여한 적이 있다 (참여(시작)년도: 년) ➡ 문54로 이동
③ 참여한 적이 없다

문53) 귀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알고 계시고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알고 있고 참여할 의향이 있다
② 알고 있지만 참여할 의향이 없다
③ 모른다

문54) 귀하는 취업 후 회사를 그만두거나 해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① 스스로 그만둔 적이 있다
② 해고를 당한 적이 있다
③ 둘 다 경험한 적이 있다
④ 둘 다 경험한 적이 없다 ➡ 「주거」 영역(문57)으로 이동

문55) 직장을 그만두었을 당시, 실업급여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주거」 영역(문57)으로 이동

문56) 귀하는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예 ➡ 「주거」 영역(문57)으로 이동　　② 아니오

문56-1)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실업급여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②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③ 절차가 복잡해서, 요구사항이 많아서　　④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혜택이 크지 않아서
⑤ 신청 도중에 취업이 되어서　　⑥ 기타(적을 것 : _____)

Ⅳ. 다음은 「주거」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57) 귀하는 본인 명의의 집을 언제쯤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① 이미 소유하고 있다
② 향후 1년 이내
③ 향후 1년 이상 3년 미만
④ 향후 3년 이상 5년 미만
⑤ 향후 5년 이상 7년 미만
⑥ 향후 7년 이상 10년 미만
⑦ 향후 10년 이상 20년 미만
⑧ 향후 20년 이후
⑨ 마련할 수 없을 것 같다

문58) 다음은 평소 집에 대해 귀하께서 갖고 계신 생각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 명의의 집(자가 소유)은 꼭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지금의 집 값 수준은 적정하다	①	②	③	④	⑤
(3) 부모님 도움 없이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59) 귀하는 공동주거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공동주거란 가족이 아닌 다수가 한 집에 살면서 방은 따로 쓰고 거실과 욕실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거 형태를 의미함(고시원 및 하숙 거주 경험은 포함하지 않음)

① 예
② 아니오

문60) 귀하는 공동주거를 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61) 귀하는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① [동거] 현재 같이 살고 있다 ➡ 「건강」 영역(문63)으로 이동
② [비동거]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채 일시적으로 따로 살고 있다(학업, 군복무, 직장 등의 이유로 떨어져 지내는 경우)
③ [독립] 현재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며, 경제적으로도 독립한 상태이다(결혼, 장성하여 경제적으로 독립한 경우)

문62) (문61에서 ②,③ 응답자만) 귀하는 현재 미혼으로 혼자 거주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건강」 영역(문63)으로 이동

문62-1) 귀하의 현재 주거 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다세대/빌라 : 공동주택의 일종, 개별 방마다 소유주가 다른 경우
② 원룸(다가구) : 단독주택의 일종, 전체 집이 1인 개인 명의로 된 집으로 방 하나가 침실, 거실, 부엌을 겸하도록 설계된 집
③ 오피스텔 : 세탁기, TV, 냉장고 등이 배치되어 있으며 관리인이 있는 경우
④ 하숙
⑤ 기숙사
⑥ 고시원
⑦ 아파트
⑧ 기타 : 일반주택의 방 하나만 임대, 지역운영학사 등

V. 다음은 「건강」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63) 귀하는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문64) 귀하는 현재 본인의 체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마른 편이다
② 약간 마른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비만이다
⑤ 매우 비만이다

문65) 귀하는 **지난 1년간(2018년 6월-2019년 5월)** 건강검진(종합건강검진 혹은 일반건강검진 모두 해당)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66) 귀하는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합니까?

① 병원 진찰 후 치료 받음 ➡ **문68로 이동**
② 병원 방문 없이 약만 복용하거나 바름 ➡ **문67로 이동**
③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참음 ➡ **문67로 이동**
④ 기타(적을 것 : _____) ➡ **문67로 이동**

문67) (문66에서 ②,③,④ 응답자만) 귀하가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②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③ 가까운 곳에 병원이 없어서　　④ 증상이 가볍다고 생각해서
⑤ 기타(적을 것 :　　)

문68) 귀하는 지난 2주 간 일상생활을 보내면서 다음 각 문항들에 대해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밝고 즐거운 기분임을 느낀다	⓪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차분하고 편안함을 느낀다	⓪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활동적이고 활기참을 느낀다	⓪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잠에서 깨었을 때, 피로가 다 가시고 상쾌했다	⓪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일상은 흥미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⓪	①	②	③	④	⑤

문69) 귀하는 지난 1주 간 얼마나 자주 다음과 같이 느끼셨습니까?

문 항	극히 드물다 (일주일에 1일 미만)	가끔 있었다 (일주일에 1-2일간)	종종 있었다 (일주일에 3-4일간)	대부분 그랬다 (일주일에 5일 이상)
(1)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⓪	①	②	③
(2) 비교적 잘 지냈다	⓪	①	②	③
(3) 상당히 우울했다	⓪	①	②	③
(4)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⓪	①	②	③
(5) 잠을 설쳤다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⓪	①	②	③
(6)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⓪	①	②	③
(7)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⓪	①	②	③
(8)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⓪	①	②	③
(9) 마음이 슬펐다	⓪	①	②	③
(10)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⓪	①	②	③
(11)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⓪	①	②	③

문70) 귀하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 1회 운동 시 30분 이상 한 경우에 해당하며, 직업, 학업, 집안일, 봉사활동, 학교 체육수업 등과 관련한 신체활동은 제외합니다.

① 예　　② 아니오 ➡ 문71로 이동

문70-1) 귀하는 규칙적인 운동을 얼마나 자주 하고 계십니까?

① 일주일에 1번　② 일주일에 2번
③ 일주일에 3번　④ 일주일에 4번
⑤ 일주일에 5번　⑥ 일주일에 6번
⑦ 매일

문71) 귀하는 우리 인생에서 외모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별로 중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어느 정도 중요하다
⑤ 매우 중요하다

문72) 귀하는 성형 수술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의료(화상치료, 안검하수 등) 목적과 미용(보톡스 등) 목적을 모두 포함)

① 예 ② 아니오 ➡ 「가치관」 영역(문73)으로 이동

문72-1) 귀하가 하신 성형수술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① 의료(화상치료, 안검하수 등) ➡ 「가치관」 영역(문73)으로 이동
② 미용(쌍꺼풀, 보톡스, 지방제거 등) ➡ 문72-2로 이동

문72-2) (문72-1에서 ② 응답자만) 미용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인생에서 외모가 중요하기 때문에 ② 외모에 자신이 없어서
③ 취직에 도움이 되므로 ④ 결혼이나 연애에 도움이 되므로
⑤ 자기만족을 위해 ⑥ 기타(적을 것 : _____)

Ⅵ. 다음은 「가치관」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73) 다음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양 쪽의 표현을 보고, 귀하가 더 선호하는 정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항 목		← 선호 정도 →							항 목
(1)	일 중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여가 중시
(2)	현실 중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이상 중시
(3)	결과 중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과정 중시
(4)	개인 중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집단 중시

문74) 귀하는 행복한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재산 · 경제력
② 화목한 가정
③ 자아성취
④ 건강
⑤ 감사 · 긍정적 태도
⑥ 종교생활
⑦ 직업 · 직장
⑧ 연인(이성관계 등)
⑨ 친구 · 대인관계
⑩ 꿈 · 목표의식
⑪ 기타(적을 것 : _____)

문75) 귀하는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 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Ⅶ. 다음은 「관계 및 참여」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76) 친구들 중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기댈 수 있고 당신의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까?
(본인이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연령, 성별 등에 상관없이 가족 및 친지, 지인, 선생님 등 모든 대상이 포함됩니다)

① 없다 ② 있다 (☐☐명)

문77) 귀하는 평소 얼마나 외출하십니까?

① 직장이나 학교로 평일은 매일 외출한다
② 직장이나 학교로 일주일에 3~4일 외출한다
③ 여가생활을 위해 자주 외출한다
④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끔 외출한다
➡ 문78로 이동

⑤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한다
⑥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한다
⑦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다
⑧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
➡ 문77-1로 이동

문77-1) (문77에서 ⑤,⑥,⑦,⑧ 응답자만) 현재의 상태가 얼마나 지속되었습니까?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 이상 ~ 1년 미만
③ 1년 이상 ~ 3년 미만 ④ 3년 이상 ~ 5년 미만
⑤ 5년 이상 ~ 7년 미만 ⑥ 7년 이상

문77-2) (문77에서 ⑤,⑥,⑦,⑧ 응답자만) 현재의 상태가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① 학업중단이나 대학진학 실패로 ② 취업이 잘되지 않아서
③ 인간관계가 잘되지 않아서 ④ 장애가 있거나 몸이 불편해서
⑤ 임신이나 출산 때문에 ⑥ 기타( )

문78) 귀하는 지난주에 점심기준으로 혼자 밥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일주일에 _____회) (최소 1회 ~ 최대 7회)

문79) 귀하는 지난주에 저녁기준으로 혼자 술을 마신 경우가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일주일에 _____회) (최소 1회 ~ 최대 7회)

문80) 다음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성세대는 40대, 50대 / 노인은 70세 이상을 의미합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기성 세대 (40,50대)	(1)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 세대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노력에 비해 더 큰 혜택을 누린다	①	②	③	④	⑤
	(3) 다른 세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노인 (70세 이상)	(4) 다른 세대보다 경험도 많고 지혜롭다	①	②	③	④	⑤
	(5) 현재 존경받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다른 세대보다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7) 정치적 영향력이 너무 크다	①	②	③	④	⑤

문81) 사회 · 정치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에 제시된 항목에 대해 귀하가 앞으로 참여할 의향이 얼마나 있습니까?

문 항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보통임	아마도 참여함	확실히 참여함
(1)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①	②	③	④	⑤
(2)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뱃지, 팔찌, 리본, 스티커 등을 착용/부착	①	②	③	④	⑤
(3) (온 · 오프라인으로)서명에 참여하기	①	②	③	④	⑤
(4)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①	②	③	④	⑤
(5) 항의 전화하기	①	②	③	④	⑤
(6) 사회 · 정치 문제와 관련된 기사, 블로그, 방송, 유튜브 찾아보기	①	②	③	④	⑤
(7) 사회 · 정치 문제에 대해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기	①	②	③	④	⑤
(8)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정치인이나 공무원(민원) 또는 언론기관에 접촉하기	①	②	③	④	⑤
(9) 사회 · 정치적 이유로 특정 상품을 불매하거나 구매하기	①	②	③	④	⑤
(10)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기 위해 정당에 가입하거나 기부하기	①	②	③	④	⑤
(11) 청년참여기구(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의회 등) 활동하기	①	②	③	④	⑤
(12) 투표에 참여하기	①	②	③	④	⑤

문82) 다음 제시된 각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Ⅷ. 다음은 「정치 · 사회 참여」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83) 사회 · 정치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에 제시된 항목에 대해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문 항	참여한 적 없음	1년에 1~2회	한 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거의 매일
(1)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①	②	③	④	⑤
(2)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뱃지, 팔찌, 리본, 스티커 등을 착용/부착	①	②	③	④	⑤
(3) (온 · 오프라인으로)서명에 참여하기	①	②	③	④	⑤
(4)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①	②	③	④	⑤
(5) 항의 전화하기	①	②	③	④	⑤
(6) 사회 · 정치 문제와 관련된 기사, 블로그, 방송, 유튜브 찾아보기	①	②	③	④	⑤
(7) 사회 · 정치 문제에 대해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기	①	②	③	④	⑤
(8)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정치인이나 공무원(민원) 또는 언론기관에 접촉하기	①	②	③	④	⑤
(9) 사회 · 정치적 이유로 특정 상품을 불매하거나 구매하기	①	②	③	④	⑤
(10)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기 위해 정당에 가입하거나 기부하기	①	②	③	④	⑤
(11) 청년참여기구(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의회 등) 활동하기	①	②	③	④	⑤

문84) 귀하가 사회 및 정치 참여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정치 ·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②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
③ 청년들의 권리나 이익을 높이기 위해
④ 참여활동 자체에 대한 관심이 많고 좋아서
⑤ 나의 진로나 스펙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⑥ 가족, 친구, 지인 등의 권유로
⑦ 기타(적을 것: _____)

문85) 귀하는 개인적으로 정치 문제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십니까?

① 전혀 관심이 없다
② 별로 관심이 없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관심이 있다
⑤ 매우 관심이 있다

문86) 귀하는 지난 2017년(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하셨습니까?

① 참여했다
② 참여하지 않았다(투표권 없었음)

문87) 귀하는 지난 2018년(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하셨습니까?

① 참여했다
② 참여하지 않았다(투표권 없었음)

문88) 귀하는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시간이 부족해서
② 정치 문제에 관심이 없어서
③ 정치 문제들을 이해하기 어려워서
④ 나의 진로나 스펙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⑤ 정치 문제들이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아서
⑥ 정부 및 국회, 공공기관에 대해 신뢰하지 않아서
⑦ 청년의 정치 참여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⑧ 기타(적을 것: _____)

문89) 귀하는 다음과 같은 단체(모임)에 지난 1년 동안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문 항	참여한 적 없음	1년에 1~2회	한 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거의 매일
(1) 여가활동(취미 및 스포츠) 모임	①	②	③	④	⑤
(2) 친목 및 친교(동창, 향우회 등) 모임	①	②	③	④	⑤
(3) 자기계발 모임 및 그룹 스터디	①	②	③	④	⑤
(4) 종교모임	①	②	③	④	⑤
(5) 시민사회 단체(NGO, NPO 등)	①	②	③	④	⑤
(6) 지역사회 모임(반상회, 주민협회 등)	①	②	③	④	⑤
(7) 학술단체	①	②	③	④	⑤
(8) 기타(노동조합, 이익 단체 등)	①	②	③	④	⑤

문89의 8개 항목에 대해 모두 '① 없음'으로 응답한 응답자는 **문91로** 가십시오.

문90) 귀하가 단체(모임)에 참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참여활동 자체에 관심이 많고 좋아서
② 인맥을 쌓기 위해서
③ 나의 진로나 스펙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④ 개인적인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⑤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
⑥ 가족, 친구, 지인 등의 권유로
⑦ 기타(적을 것: _____)

문91) 귀하는 앞으로 다음과 같은 단체(모임)에 참여할 의향이 얼마나 있습니까?

문 항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보통임	아마도 참여함	확실히 참여함
(1) 여가활동(취미 및 스포츠) 모임	①	②	③	④	⑤
(2) 친목 및 친교(동창, 향우회 등) 모임	①	②	③	④	⑤
(3) 자기계발 모임 및 그룹 스터디	①	②	③	④	⑤
(4) 종교모임	①	②	③	④	⑤
(5) 시민사회 단체(NGO, NPO 등)	①	②	③	④	⑤
(6) 지역사회 모임(반상회, 주민협회 등)	①	②	③	④	⑤
(7) 학술단체	①	②	③	④	⑤
(8) 기타(노동조합, 이익 단체 등)	①	②	③	④	⑤

문92) 귀하는 청년들의 단체나 모임 참여를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시간이 부족해서
②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③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부담되어서
④ 나의 진로나 스펙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⑤ 같이 참여할 사람이 없어서
⑥ 단체(모임)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⑦ 주변에 원하는 단체(모임)가 없어서
⑧ 청년의 사회 참여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⑨ 기타(적을 것: _____)

문93) 귀하는 다음과 같이 청년 참여와 관련된 법, 정책, 기구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 청년 참여활동 지원사업은 지자체에서 청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비 또는 공간을 지원하는 것, 교류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포함합니다(예: 서울시 '놀자리', 대구시 '다모디락' 등)
** 청년 참여 및 활동 공간은 지자체에서 청년들이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장소들을 뜻합니다(예: 서울시 '무중력지대', 광주 'the 숲' 등)

문 항	전혀 모른다	모른다	보통이다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 청년 관련법	①	②	③	④	⑤
(2) 지자체 청년기본조례	①	②	③	④	⑤
(3) 지자체 청년참여기구(예: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의회 등)	①	②	③	④	⑤
(4) 지자체 청년 참여활동 지원사업*	①	②	③	④	⑤
(5) 지자체 청년 참여 및 활동 공간**	①	②	③	④	⑤

문94) 귀하는 청년들의 사회 ·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대로 선택해 주십시오.

☞ *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 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법률

1순위		2순위		3순위	

① 청년기본법* 제정 및 제도 활성화
② 청년정책 추진과정에서 청년들의 직접 참여 보장
③ 청년정책 전담부처 구성
④ 청년참여 공간(시설, 온라인 포털) 확대
⑤ 청년참여 활동비 지원
⑥ 청년참여 지원정책의 예산 확대
⑦ 청년참여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⑧ 청년들의 기본 고용과 주거 안정
⑨ 청년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⑩ 청년 할당제 도입(정당 비례대표, 지자체 위원회 등)
⑪ 기타(적을 것: _____)

문95) 귀하는 10대(중 · 고등학교) 시기에 다음과 같은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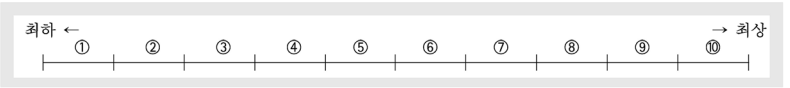
문항	참여한 적이 없음	참여한 적이 있음
(1) 청소년참여기구 활동(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등)	①	②
(2) 학교에서의 참여활동(학생회, 학생자치법정 등)	①	②
(3) 학교 이외에서의 참여활동(청소년참여예산제, 청소년의회, 지역사회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활동 등)	①	②
(4) 봉사활동	①	②
(5) (온 · 오프라인으로)서명에 참여하기	①	②
(6)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①	②
(7) 사회단체 활동(청소년 NGO*단체, 청소년 NPO**단체, 청소년 지역사회 단체 등) *:NGO: 비정부기구(시민단체) **NPO: 비영리단체	①	②
(8) 기타(적을 것: _____)	①	②

다음은 설문 조사의 결과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배경문항 1) [성별]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님자 ② 여자

배경문항 2) [가족배경] 귀하의 부모님 소득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배경문항 3) [교육] 귀하와 귀하의 부모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졸업' 이 아닙니다)

구분	학교 안 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석사 · 박사)	잘 모르겠음
(1) 본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2)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3)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배경문항 4)　[취업] 현재 취업 중이신 분들만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 취업자: 지난 한 주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였거나, 가족사업체 및 농장에서 무급으로 18시간 이상 근무, 휴가, 휴직 등의 사유로 직장은 있었지만 일을 하지 않은 경우가 취업자에 포함됩니다.

구분	내용	
(1) 종사상 지위	① 임금 근로자	② 비임금 근로자
(2) 고용형태	① 정규직(상용근로자) ② 비정규직(기간제, 파견, 용역 등)	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③ 무급가족종사자
(3) 근로시간 유형	① 전일제　② 시간제	
(4) 직장 유형	①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② 외국인회사 ③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공기업 ④ (재단, 사단)법인단체 ⑤ 정부기관(공무원, 군인 등) ⑥ 특정한 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음 ⑦ 기타 (_____)	
(5) 종사자 수 (사업체 기준 아래 사업체 기준 참고)	① 1-4인 ③ 10-29인 ⑤ 100-299인 ⑦ 500인 이상	② 5-9인 ④ 30-99인 ⑥ 300-499인
(6) 근속년수 (현 직장을 기준으로 응답)	□□ 년 □□ 개월	

☞ **사업체**란 기업체보다 작은 단위의 개념으로 지역적인 특성을 부여하여 조사대상자가 직접 일하고 있는 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 ○○은행 △△동 지점에 근무하는 경우, 기업체인 ○○은행 전 사원 수 15,000명 기준이 아닌 △△동 지점의 인원 수 20명을 기준으로 응답해야 함

성실하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2019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조사표_중/고등학생용

승인번호
제 402004 호

중·고등학생용

2019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산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청년들의 일과 삶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청년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2019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응답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개인정보도 철저히 보호됩니다. 또한, 통계법 제34조(통계종사자의 의무)에 따라 응답 내용은 통계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다른 기관에 제공되는 일은 절대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귀하께서 받으신 설문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각각의 조사문항에 대해 귀하의 생활실태나 의견을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조사문항에 성의껏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문지는 조사기준일(2019년 6월 1일) 현재 만15세~만18세(2000년 6월 2일~2004년 6월 1일 출생자)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령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중·고등학생이 아닌 경우(현재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경우, 검정고시 준비, 재수생, 대학(교)에 입학하신 분, 현재 취업 중이신 분 등)에는 청년층 설문지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사항은 조사원이 기입합니다.

면접원 ID		면접원 이름		응답자 이름	
조사구 일련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	
주소(구/동)	시/도 구/시/군 동/읍/면			S.V 최종확인	
응답자 연락처	( ) - ( ) - ( )		생년월일	년 월 일	
주택 유형	1. 단독 주택 2. 아파트 3. 연립/다세대주택 4. 기타(적을 것 : _____)				

구 분	남 성		여 성		합 계	
총 가구원 수						
만 15세 이상 18세 이하 가구원 수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가구원 수						
가구당 조사표 부수	조사대상 가구원 수 총 ( )부 중 ( )부 진행					

※ 조사원: 동일 가구인 경우라도 모든 설문지 표지에 내용을 작성해 주십시오.

미진행 가구원 사유		유치조사 진행 여부 ※ 해당되는 모든 내용에 표시	① 직접 만나서 조사 ② 설문 회수 시 만남 ③ 회수 후 전화로 응답확인 ④ 유치조사

조사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조사수행기관 HankookResearch (주)한국리서치

조사문의
김수진: 02-3014-0982
이동휘: 02-3014-0995
박수미: 02-3014-0115

설문지 작성 요령

설문지에는 귀하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대로 대답해야 하는 질문도 있고, 귀하의 생각을 밝혀야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만일 이해가 되지지 않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면접원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표시하는 방법1**
대부분은 주된 응답 한 가지만 고르는 문항입니다. 귀하에게 해당되는 응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표로 구성된 질문은 ①에서 ⑤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문장을 읽고, '전혀 그렇지 않다'면 ①에, '그렇지 않다'면 ②에, '보통이다'면 ③에, '그렇다'면 ④에, '매우 그렇다'면 ⑤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보기1〉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 **표시하는 방법2**
숫자를 기입해야 할 때는 박스 안에 한 자리씩 기입해 주세요.

〈보기2〉

문A. 친구들 중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기댈 수 있고 당신의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 (1 0 명)

♣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보기3>과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지우개 또는 수정액 등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보기3〉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①	②	③	⊗	④

♣ **응답을 선택한 후 지시문에 따라 해당 번호로 이동**
항목 오른쪽에 지시문이 있는 경우는, 응답을 한 후 선택한 항목의 오른쪽에 색칠된 지시문이 이동하라고 하는 번호로 이동해야 합니다.

〈보기4〉

문B. 귀하는 해외이주에 대해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 문B-1로 이동 ② 없다 ➡ 문C로 이동

☞ 나는 해외이주를 고려해 본 적이 있어서 '①' 에 표시한 후, 문 B-1로 이동해서 응답합니다.

♣ **설명문 반드시 참고**
질문 아래 설명문(응답 기준, 용어 설명 등)이 있는 경우, 설명문을 읽고 응답해 주세요.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보기5〉

문C. 귀하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 1회 운동 시 30분 이상 한 경우에 해당하며, 직업, 학업, 잡일일, 봉사활동, 학교 체육수업 등과 관련한 신체활동은 제외합니다.

① 예 ➡ 문C-1로 이동 ② 없다 ➡ 문D로 이동

Ⅰ. 먼저 「인구와 가족」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 귀하는 아동, 청소년, 청년의 연령을 몇 세부터 몇 세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 아 동 : 만 [ ][ ] 세 ~ 만 [ ][ ] 세
■ 청소년 : 만 [ ][ ] 세 ~ 만 [ ][ ] 세
■ 청 년 : 만 [ ][ ] 세 ~ 만 [ ][ ] 세

문2) 귀하는 몇 세부터 가정으로부터 분가해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만 [ ][ ] 세 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② 독립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③ 가정으로부터 분가해 독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문3) 귀하는 몇 세에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만 [ ][ ] 세에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② 결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③ 결혼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문4) 귀하는 몇 세에 첫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만 [ ][ ] 세에 첫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② 자녀를 가질 수도 있고 갖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③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문5) 귀하는 해외이주에 대해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교육」영역(문6)으로 이동

문5-1) 해외이주를 고려하셨다면,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자기계발을 위해서 ② 새로운 사회에 도전해보고 싶어서
③ 행복한 삶을 위해서 ④ 더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서
⑤ 취업이 어려워서 ⑥ 아이를 낳고 키우기 힘들어서
⑦ 빈부격차가 커서 ⑧ 집값이 너무 비싸서
⑨ 안보가 불안해서 ⑩ 기타(적을 것 : _____)

Ⅱ. 다음은 「교육과 훈련」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6) 귀하는 우리나라 입시경쟁이 현재와 비교하여 2025년에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경쟁이 약화될 것이다
② 경쟁이 유지될 것이다
③ 경쟁이 심해질 것이다

문7) 귀하는 다음 우리 사회의 교육관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한다	①	②	③	④	⑤
(2) 한국 사회에서 교육을 어디까지 받았는지(학력)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3) 한국 사회에서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학벌)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8) 다음 제시된 각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고교교육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고교교육이 앞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고교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가 선택한 문/이과 혹은 전공선택이 나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9) 귀하는 추후 대학에 진학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10) 귀하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십니까?

① 그렇다 ➡ **문10-1로 이동**　　② 아니다 ➡ **문11로 이동**

문10-1) 현재 재학 중인 고등학교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① 일반고　② 자율형고
③ 특성화고(공고, 상고, 실업고, 전문계고 등)　④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특목고)
⑤ 과학/영재고(특목고)　⑥ 외국어/국제고(특목고)
⑦ 예술/체육고(특목고)　⑧ 기타(적을 것 : _____)

문10-2) 현재 몇 학년이십니까?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문10-3) 고등학교 재학 시 계열이나 전공을 변경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계열이나 전공을 변경한 적이 없다
② 문과(이과)에서 이과(문과)로 변경하였다
③ 일반계(직업계)에서 직업계(일반계)로 변경하였다(일반고 직업과정, 특성화고 대입반 포함)
④ 예·체능계(일반·직업계)에서 일반·직업계(예·체능계)로 옮겨갔다
⑤ 전문교과나 전문분야를 변경하였다(예: 공업→상업, 미술→음악 등)
⑥ 기타(적을 것 : _____)

문10-4) 고등학교 재학 시 다음의 진로 및 직업 관련 프로그램을 학교로부터 제공받은 적이 있습니까? (본인이 직접 찾아 개인적으로 참여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문10-4-1) 해당 프로그램을 제공받았다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문 항	문10-4)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경험	문10-4-1) 도움이 되는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진로, 직업, 취업 상담	① 예 ➡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2) 진로와 직업 수업	① 예 ➡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3) 진로, 직업 체험(현장 견학, 현장 직업체험, 직업실무 체험, 캠프 등)	① 예 ➡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4) 학과, 전공 체험(대학교 방문, 학과 및 전공 체험 등)	① 예 ➡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5) 진로, 직업 특강강의 및 설명회·박람회 참석	① 예 ➡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6) 취업처 연계	① 예 ➡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문11) 귀하는 지난주에 주로 취업준비를 하셨습니까?

☞ 취업준비란 구직, 이직, 창업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탐색 이상의 모든 활동을 의미하며, 공무원 또는 공단(공사) 준비, 취업을 위한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도 취업준비에 포함됩니다.

① 예 ② 아니오➡ **문14로 이동**

문12) 귀하는 취업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였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응답)

문 항	취업준비 경험	
(1)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 통학을 통한 교육이나 훈련(어학, 면접 제외)	① 예	② 아니오
(2) 인터넷 강의, 어플, 동영상 등을 활용한 교육이나 훈련(어학, 면접 제외)	① 예	② 아니오
(3) 영어회화, 제2외국어, 한자능력, 토익, 토플 등 준비(인터넷 포함)	① 예	② 아니오
(4) 해외 연수, 어학 연수 경험	① 예	② 아니오
(5) 면접 훈련(인터넷 포함)	① 예	② 아니오
(6) 자소서 작성 훈련(인터넷 포함)	① 예	② 아니오
(7) 취업전문회사 자문이나 컨설팅	① 예	② 아니오
(8) 현장실습 경험	① 예	② 아니오
(9)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① 예	② 아니오
(10) 인턴 경험	① 예	② 아니오
(11) 봉사활동 경험	① 예	② 아니오
(12) 동아리, 스터디 활동 경험	① 예	② 아니오
(13)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	① 예	② 아니오

문13) 귀하는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어디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응답)

문13-1)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았다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문 항	문13) 도움 받은 경험	문13-1) 도움이 되는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교(상담교사, 교사, 지도교수 등)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2) 공공기관(고용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3) 사설기관(사설학원, 인터넷취업사이트 등)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이나 친인척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5) 친구, 선후배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6)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 **문13에서 도움 받은 경험이 모두 ② 아니오 인 경우는 문13-4로 이동**

문13-2) 귀하는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주체로부터 주로 어떤 도움을 받았습니까? (한 가지만 선택)
(문13에서 '예' 라고 응답한 항목만 선택하여 응답)

문 항	정보 제공	교육/ 훈련	상담	일자리 알선	금전적 지원	기타 (구체적으로)
(1) 학교(상담교사, 교사, 지도교수 등)	①	②	③	④	⑤	⑥ _____
(2) 공공기관(고용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①	②	③	④	⑤	⑥ _____
(3) 사설기관(사설학원, 인터넷취업사이트 등)	①	②	③	④	⑤	⑥ _____
(4) 부모님이나 친인척	①	②	③	④	⑤	⑥ _____
(5) 친구, 선후배	①	②	③	④	⑤	⑥ _____
(6) 기타 (구체적으로_____)	①	②	③	④	⑤	⑥ _____

➡ **(3) 사설기관 문항에 응답한 자는 문13-3으로 이동, 아닌 경우는 문13-4로 이동**

문13-3) (문13-2에서 (3)번 항목 응답자만) 귀하가 도움을 받은 사설기관(사설학원, 인터넷취업사이트 등)을 이용하는데 월 평균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셨습니까?

약 [ ][ ][ ][ ][ ] 만원

문13-4) 사설기관(사설학원, 인터넷취업사이트 등)에 지불한 비용을 제외하고 시험응시료, 취업을 위한 교재, 도서 구입 등 취업준비를 위해 월 평균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셨습니까?(중 · 고등학교 및 대학(원)교의 정규 수업료 및 등록금 제외)

약 [ ][ ][ ][ ][ ] 만원

문13-5) 취업 준비를 위해 평일 하루에 투자한 시간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되십니까?

1일 평균 약 [ ][ ] 시간

문14) 귀하는 현재까지 공무원 또는 공단(공사), 교원 임용 시험,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이 있습니까?

☞ 시험 준비는 학교 재학 시절을 포함하여 현재까지의 시험 준비를 의미하며, 공단(공사) 내부의 진급 시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① 있다 ② 없다

III. 다음은 「경제와 고용」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5) 귀하가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은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분위기 좋은 회사
② 급여가 높은 회사
③ 유명한 회사
④ 안정적인 회사
⑤ 퇴근이 빠른 회사
⑥ 발전 가능성이 높은 회사
⑦ 직무가 적성에 맞는 회사
⑧ 복지 수준이 좋은 회사
⑨ 기타(적을 것 : _____)

문16) 귀하는 2020년도 최저 임금으로 얼마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현) 실제 최저임금은 2016년 6,030원, 2017년은 6,470원, 2018년은 8,350원이며, 전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청년이 적정하다고 응답한 2020년도 최저 임금 평균은 9,235원입니다.

시간급 [ ][ ][ ][ ][ ] 원

문17) 귀하는 우리나라 청년 취업경쟁이 현재와 비교하여 2025년에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경쟁이 약화될 것이다
② 경쟁이 유지될 것이다
③ 경쟁이 심해질 것이다

문18)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취업을 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일정 금액의 수당이나 배당,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잘 모르겠다

문19) 한 달 용돈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가족을 제외한 본인 생활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용돈 포함 내용: 식비, 교통비, 통신비, 문화생활비(오락, 문화생활, 도서구입 등), 학원수강비, 시험응시료, 취업을 위한 도서 등 자료 구입비, 주거비 등

약 [ ][ ][ ][ ][ ] 만원

문19-1) 용돈 중 부모님이나 친지로부터 지원받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약 [ ][ ][ ] %

문20) 귀하는 **지난 1년간(2018년 6월-2019년 5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현재 부모님 및 친척 등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 주거비용 및 냉/난방비 지출에 대해 본인이 모를 경우만 (1), (2)에 '⑨ 잘 모름' 에 체크)

구 분	예	아니오	잘 모름
(1) 돈이 없어서 임대료, 대출금, 관리비 등 주거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①	②	⑨
(2) 돈이 없어서 집의 냉/난방을 유지하지 못했다	①	②	⑨
(3) 돈이 없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①	②	
(4) 돈이 없어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못했다	①	②	
(5) 돈이 없어서 휴일에 놀러가지 못하거나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했다	①	②	
(6) TV를 가지고 있지 않다	①	②	
(7) 냉장고를 가지고 있지 않다	①	②	
(8)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	①	②	
(9) 타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집전화, 휴대전화)을 가지고 있지 않다	①	②	

문21) 다음 제시된 각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사회는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적절하게 대우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사회는 대학(교) 졸업자에게 적절하게 대우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기성세대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정착을 위해 적절한 배려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기성세대는 대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정착을 위해 적절한 배려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는 대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22) 귀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① 예 ➡ **「주거 영역(문23)으로 이동**　　② 아니오

문22-1)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대기업보다 낮은 성취감　　② 관련된 여러 업무 경험이 부재
③ 고용 불안정　　④ 사회적으로 낮은 인지도
⑤ 낮은 급여 수준　　⑥ 대기업으로의 이직이 불가능
⑦ 개인의 발전가능성이 없음　　⑧ 대기업보다 낮은 복지 수준
⑨ 기타(적을 것 : _____)

Ⅳ. 다음은 「주거」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23) 귀하는 본인 명의의 집을 언제쯤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① 이미 소유하고 있다
② 향후 1년 이내
③ 향후 1년 이상 3년 미만
④ 향후 3년 이상 5년 미만
⑤ 향후 5년 이상 7년 미만
⑥ 향후 7년 이상 10년 미만
⑦ 향후 10년 이상 20년 미만
⑧ 향후 20년 이후
⑨ 마련할 수 없을 것 같다

문24) 다음은 평소 집에 대해 귀하가 갖고 계신 생각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 명의의 집(자가 소유)은 꼭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지금의 집 값 수준은 적정하다	①	②	③	④	⑤
(3) 부모님 도움 없이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25) 귀하는 공동주거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공동주거란 가족이 아닌 다수가 한 집에 살면서 방은 따로 쓰고 거실과 욕실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거 형태를 의미함(고시원 및 하숙 거주 경험은 포함하지 않음)

① 예
② 아니오

문26) 귀하는 공동주거를 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27) 귀하는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① [동거] 현재 같이 살고 있다 ➡ **문28로 이동**
② [비동거]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채 일시적으로 따로 살고 있다(학업, 직장 등의 이유로 떨어져 지내는 경우)
③ [독립] 현재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며, 경제적으로도 독립한 상태이다(결혼, 장성하여 경제적으로 독립한 경우)
➡ **②, ③ 응답자는 「건강」 영역(문29)으로 이동**

문28) (문27에서 ① 응답자만) 귀하는 부모님과 언제까지 함께 살 생각입니까?

① 대학교 진학 전(고등학교 졸업 이전)까지 동거
② 취업 전까지 동거
③ 결혼 전까지 동거
④ 결혼 후에도 동거
⑤ 출산 후에도 동거
⑥ 내 집 마련 전까지 동거
⑦ 기타(적을 것 : _____)

V. 다음은 「건강」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29) 귀하는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문30) 귀하는 현재 본인의 체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마른 편이다
② 약간 마른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비만이다
⑤ 매우 비만이다

문31) 귀하는 **지난 1년간(2018년 6월-2019년 5월)** 건강검진(종합건강검진 혹은 일반건강검진 모두 해당)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32) 귀하는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합니까?

① 병원 진찰 후 치료 받음 ➡ **문34로 이동**
② 병원 방문 없이 약만 복용하거나 바름 ➡ **문33으로 이동**
③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참음 ➡ **문33으로 이동**
④ 기타(적을 것 : _____) ➡ **문33으로 이동**

문33) (문32에서 ②,③,④ 응답자만) 귀하가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②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③ 가까운 곳에 병원이 없어서　　④ 증상이 가볍다고 생각해서
⑤ 기타(적을 것 : _____)

문34) 귀하는 지난 2주 간 일상생활을 보내면서 다음 각 문항들에 대해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밝고 즐거운 기분임을 느낀다	⓪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차분하고 편안함을 느낀다	⓪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활동적이고 활기참을 느낀다	⓪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잠에서 깨었을 때, 피로가 다 가시고 상쾌했다	⓪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일상은 흥미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⓪	①	②	③	④	⑤

문35) 귀하는 지난 1주 간 얼마나 자주 다음과 같이 느끼셨습니까?

문 항	극히 드물다 (일주일에 1일 미만)	가끔 있었다 (일주일에 1-2일간)	종종 있었다 (일주일에 3-4일간)	대부분 그랬다 (일주일에 5일 이상)
(1)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⓪	①	②	③
(2) 비교적 잘 지냈다	⓪	①	②	③
(3) 상당히 우울했다	⓪	①	②	③
(4)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⓪	①	②	③
(5) 잠을 설쳤다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⓪	①	②	③
(6)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⓪	①	②	③
(7)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⓪	①	②	③
(8)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⓪	①	②	③
(9) 마음이 슬펐다	⓪	①	②	③
(10)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⓪	①	②	③
(11)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⓪	①	②	③

문36) 귀하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 1회 운동 시 30분 이상 한 경우에 해당하며, 직업, 학업, 집안일, 봉사활동, 학교 체육수업 등과 관련한 신체활동은 제외합니다.

① 예　　② 아니오 ➡ 문37로 이동

문36-1) 귀하는 규칙적인 운동을 얼마나 자주 하고 계십니까?

① 일주일에 1번　　② 일주일에 2번
③ 일주일에 3번　　④ 일주일에 4번
⑤ 일수일에 5번　　⑥ 일수일에 6번
⑦ 매일

문37) 귀하는 우리 인생에서 외모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별로 중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어느 정도 중요하다
⑤ 매우 중요하다

문38) 귀하는 성형 수술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의료(화상치료, 안검하수 등) 목적과 미용(보톡스 등) 목적을 모두 포함)

① 예 ② 아니오 ➡ 「가치관」 영역(문39)으로 이동

문38-1) 귀하가 하신 성형수술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① 의료(화상치료, 안검하수 등) ➡ 「가치관」 영역(문39)으로 이동
② 미용(쌍끼풀, 보톡스, 지방제거 등) ➡ 문38-2로 이동

문38-2) (문38-1에서 ② 응답자만) 미용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인생에서 외모가 중요하기 때문에
② 외모에 자신이 없어서
③ 취직에 도움이 되므로
④ 결혼이나 연애에 도움이 되므로
⑤ 자기만족을 위해
⑥ 기타(적을 것 : _____)

Ⅵ. 다음은 「가치관」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39) 다음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양 쪽의 표현을 보고, 귀하가 더 선호하는 정도를 숫자 중 하나로 평가해 주십시오.

항 목		← 선호 정도 →							항 목
(1)	일 중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여가 중시
(2)	현실 중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이상 중시
(3)	결과 중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과정 중시
(4)	개인 중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집단 중시

문40) 귀하는 행복한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재산 · 경제력
② 화목한 가정
③ 자아성취
④ 건강
⑤ 감사 · 긍정적 태도
⑥ 종교생활
⑦ 직업 · 직장
⑧ 연인(이성관계 등)
⑨ 친구 · 대인관계
⑩ 꿈 · 목표의식
⑪ 기타(적을 것 : _____)

문41) 귀하는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Ⅶ. 다음은 「관계와 참여」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42) 친구들 중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기댈 수 있고 당신의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까?
(본인이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연령, 성별 등에 상관없이 가족 및 친지, 지인, 선생님 등 모든 대상이 포함됩니다)

① 없다 ② 있다 (□□명)

문43) 귀하는 평소 얼마나 외출하십니까?

① 직장이나 학교로 평일은 매일 외출한다
② 직장이나 학교로 일주일에 3~4일 외출한다
③ 여가생활을 위해 자주 외출한다
④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끔 외출한다
➡ 문44로 이동

⑤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한다
⑥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한다
⑦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다
⑧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
➡ 문43-1로 이동

문43-1) (문43에서 ⑤,⑥,⑦,⑧ 응답자만) 현재의 상태가 얼마나 지속되었습니까?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 이상 ~ 1년 미만
③ 1년 이상 ~ 3년 미만 ④ 3년 이상 ~ 5년 미만
⑤ 5년 이상 ~ 7년 미만 ⑥ 7년 이상

문43-2) (문43에서 ⑤,⑥,⑦,⑧ 응답자만) 현재의 상태가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① 학업중단이나 대학진학 실패로 ② 취업이 잘되지 않아서
③ 인간관계가 잘되지 않아서 ④ 장애가 있거나 몸이 불편해서
⑤ 임신이나 출산 때문에 ⑥ 기타( )

문44) 다음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성세대는 40대, 50대 / 노인은 70세 이상을 의미합니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기성 세대 (40,50대)	(1)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 세대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노력에 비해 더 큰 혜택을 누린다	①	②	③	④	⑤
	(3) 다른 세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노인 (70세 이상)	(4) 다른 세대보다 경험도 많고 지혜롭다	①	②	③	④	⑤
	(5) 현재 존경받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다른 세대보다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7) 정치적 영향력이 너무 크다	①	②	③	④	⑤

문45) 사회 · 정치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에 제시된 의견 항목에 대해 귀하가 앞으로 참여할 의향이 얼마나 있습니까?

문 항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보통이다	아마도 참여함	확실히 참여함
(1)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①	②	③	④	⑤
(2)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뱃지, 팔찌, 리본, 스티커 등을 착용/부착	①	②	③	④	⑤
(3) (온 · 오프라인으로)서명에 참여하기	①	②	③	④	⑤
(4)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①	②	③	④	⑤
(5) 항의 전화하기	①	②	③	④	⑤

문46) 다음 제시된 각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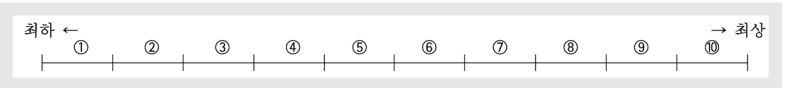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Ⅷ. 다음은 귀하의 기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배경문항 1) [성별]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배경문항 2) [가족배경] 귀하의 부모님 소득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배경문항 3) [교육] 귀하와 귀하의 부모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졸업' 이 아닙니다)

구분	중학교 재학	고등학교 재학
(1) 본인	①	②

구분	학교 안 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석사 · 박사)	잘 모르겠음
(2)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3)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성실하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 심층면담조사지 : 청년의 사회·정치 참여

Warming-up ··· 인사 및 소개

1. 인터뷰 취지에 대해 설명

- 본 면담의 목적은 청년들의 사회·정치 참여 실태를 파악하고, 이러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어떠한 정책과 지원이 필요할지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2. 진행 방법 및 주의 사항 설명

- 시작 전, 면접 참여 설명문 확인 및 참여 동의서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 본 면담의 질문에 대하여 원하는 정답 또는 오답은 없으므로, 평소 생각하시던 의견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원활한 진행을 위해 휴대폰은 잠시 종료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분석을 위해 녹음이 진행되며, 개인 정보는 일체 공개되지 않음을 말씀 드립니다.
- 조사에 대한 응답 및 수집된 개인정보는 연구 외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통계법 33조와 34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3. 모더레이터 소개

- 이름, 회사, 부서 등

4. 일반 사항 확인

공통		- 현재 경제 활동 상황은 어떻게 되시나요?(기취업/준비중/비활동) - 학업은 어디까지 하셨나요? - (대졸 이상인 응답자만)전공이 무엇인가요? 해당 전공 또는 관심 분야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취업자		- 어디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나요? - 어떻게 그 일을 하게 되었나요? - 하고 있는 일은 만족하고 계시나요?(업무/보수 등) - 이 일을 언제까지 계속할 예정인가요? (이직 계획이 있는 응답자만) 어떠한 이직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미취업자	취/창업 준비자	- 취업/창업 준비 중이신가요? - 어떠한 취업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 해당 취업계획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나요? - 어디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하고 계시나요?
	비경제활동자	- 현재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계시나요? - 앞으로 무엇을 할 계획이 있나요? 아니면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하고 계시나요?

1. 사회·정치문제 관심 정도

[사회·정치문제 관심 정도]

1. 평소 사회·정치 문제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나요? 상·중·하로 나눈다면 어느 정도인가요?

1-1. **(☞ 관심이 있는 응답자만)** 어떠한 사회·정치 문제에 관심이 있나요? 가장 관심있는 분야를 최대 3개까지 선택해본다면 무엇인가요?

[관심을 갖게 된(또는 없게 된) 계기 및 시기]

(☞ 관심이 있는 응답자만 2~3번) (※관심 분야 각각에 대해 질문)

2. 언제부터 그러한 사회·정치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나요?

3. 사회·정치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특별한 계기나 이유가 있나요?

(☞ 관심이 없는 응답자만 4~5번)

4. 언제부터 사회·정치사회·정치 문제에 관심이 없었나요?

5. 관심이 없게 된 특별한 계기나 이유가 있나요?

2. 청소년시기 참여 경험

[청소년시기 참여 경험]

1. 10대(중·고등학교) 시기에 사회·정치 참여활동 경험이 있나요?

> 예: 청소년참여기구 활동(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등)/학교에서의 참여활동(학생회, 학생자치법정 등)/학교 이외에서의 참여활동(청소년참여예산제, 청소년의회, 지역사회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활동 등)/봉사활동/(온·오프라인으로) 서명에 참여하기/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사회단체 활동/기타

(☞ 청소년시기 참여 경험이 있는 응답자만 주요 참여 경험에 대하여)

1-1. 해당 사회·정치 참여활동은 언제, 어떻게 하게 되었나요?

1-2. 해당 사회·정치 참여활동을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예: 입시 목적/교류 목적/활동 자체의 즐거움 등)

1-3. 해당 사회·정치 참여활동을 하는 데에 특별히 영향을 준 사람이 있나요? 있다면 어떠한 영향을 받았나요?

1-4. 참여 과정에서 아쉬웠던 점이나 부족했던 점이 있었나요? 있다면 어떠한 것이었나요?

1-5. 10대(중·고등학교) 시기의 사회·정치 참여활동이 현재 나의 성격, 진로, 사회·정치참여 등에 영향을 준 부분이 있나요? 있다면 어떠한 영향을 주었나요?

[청소년 참여에 대한 인식]

2. 한국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사회·정치 참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3. 청소년시기의 참여가 청년들의 사회·정치 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요?

3. 청년 사회·정치 참여 경험(참여 집단)

(☞ 사회·정치 참여 경험이 있는 응답자만)

[참여 내용]

1. 2017년 대통령 선거와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하였나요?

(☞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만)

1-1.투표에 참여한 경험이 개인적 또는 사회적으로 미친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2. 지난 1년 동안 조직·단체에 가입하여 사회·정치에 참여한 경험이 있나요? 있다면,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활동은 무엇이었나요?

조직·단체 참여	예: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기 위해 정당에 가입하거나 기부하기/청년참여기구(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의회 등) 활동하기
	예: 시민사회 단체(NGO, NPO 등)/지역사회 모임(반상회, 주민협회 등)

(☞ 조직·단체 참여 경험이 있는 응답자만 주요 참여 경험에 대하여)

[참여 계기 및 시기]

2-1. 해당 사회·정치 참여는 언제, 어떻게 하게 되었나요?

2-2. 해당 사회·정치 참여를 시작하게 된 데에 특별히 도움을 준 사람이 있나요? 있다면 어떠한 도움을 받았나요?

[참여 이유(목적)]

2-3. 해당 사회·정치 참여를 하게 된 이유나 목적이 있나요?
(예: 국가 및 지역사회의 발전/시민으로서의 권리/청년들의 권리나 이익 증진/참여활동 자체에 대한 관심/진로나 스펙/주변인의 권유/인맥 쌓기/개인적인 발전 등)

[참여 방식 및 구조]

2-4. 해당 모임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 해주실 수 있나요?(인원 구성, 예산 규모, 주요 업무 등)

2-5. 해당 사회·정치 참여는 언제, 얼마나 자주 하고 계시나요?

2-6. 해당 사회·정치 참여는 어디서 주로 이루어지나요?

2-7. 해당 사회·정치 참여를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2-8. 해당 사회·정치 참여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자세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2-9. 해당 모임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나요?

2-10. 해당 모임의 분위기나 조직문화는 어떠한가요?

2-11. 해당 사회·정치 참여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충당하고 있는지요?

[참여 경험을 통해 성취 또는 변화한 것]

2-12. 해당 사회·정치 참여 경험을 통해 성취한 것이 있나요? 있다면 무엇인가요?

2-13. 해당 사회·정치 참여 경험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거나 영향을 준 부분이 있나요? 있다면 어떠한 영향을 주었나요?

2-14. 해당 사회·정치 참여 경험이 주변이나 사회를 변화시키거나 영향을 준 부분이 있나요? 있다면 어떠한 영향을 주었나요?

[참여 과정에서의 장애 요인 및 애로 사항]

2-15. 해당 사회·정치 참여 과정에서 불만족스러웠던 점이 있었나요? 있다면 무엇인가요?

2-16. 해당 사회·정치 참여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나요? 있다면 무엇인가요?
(예: 시간 부족/관심 및 이해 부족/경제적 어려움/정보 부족/사회적 편견/집단 내 갈등/정책·기구의 문제 등)

2-17. 그러한 불만 또는 장애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나요? 있다면 무엇인가요?

[참여 경험이 개인에게 갖는 의미]

2-18. 종합해볼 때, 해당 사회·정치 참여의 경험이 나에게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2-19.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야기 해주세요.

3. 지난 1년 동안 개인적 수준에서 사회·정치에 참여한 경험이 있나요? 있다면,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활동은 무엇이었나요?

개인 수준 참여	예: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뱃지, 팔찌, 리본, 스티커 등을 착용/부착(온·오프라인으로)서명에 참여하기/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항의 전화하기/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정치인이나 공무원(민원) 또는 언론기관에 접촉하기/사회·정치적 이유로 특정 상품을 불매하거나 구매하기

(☞ 개인적 수준의 참여 경험이 있는 응답자만 주요 참여 경험에 대하여)

[참여 계기 및 시기]

3-1. 해당 사회·정치 참여는 언제, 어떻게 하게 되었나요?

3-2. 해당 사회·정치 참여를 시작하게 된 데에 특별히 도움을 준 사람이 있나요? 있다면 어떠한 도움을 받았나요?

[참여 이유(목적)]

3-3. 해당 사회·정치 참여를 하게 된 이유나 목적이 있나요?
(예: 국가 및 지역사회의 발전/시민으로서의 권리/청년들의 권리나 이익 증진/참여활동 자체에 대한 관심/진로나 스펙/주변인의 권유/인맥 쌓기/개인적인 발전 등)

[참여 방식 및 구조]

3-4. 해당 사회·정치 참여는 언제, 얼마나 자주 하고 계시나요?

3-5. 해당 사회·정치 참여는 어디서 주로 이루어지나요?

3-6. 해당 사회·정치 참여를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3-7. 해당 사회·정치 참여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자세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참여 경험을 통해 성취 또는 변화한 것]

3-8. 해당 사회·정치 참여 경험을 통해 성취한 것이 있나요? 있다면 무엇인가요?

3-9. 해당 사회·정치 참여 경험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거나 영향을 준 부분이 있나요? 있다면 어떠한 영향을 주었나요?

3-10. 해당 사회·정치 참여 경험이 주변이나 사회를 변화시키거나 영향을 준 부분이 있나요? 있다면 어떠한 영향을 주었나요?

[참여 과정에서의 장애 요인 및 애로 사항]

3-11. 해당 사회·정치 참여 과정에서 불만족스러웠던 점이 있었나요? 있다면 무엇인가요?

3-12. 해당 사회·정치 참여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나요? 있다면 무엇인가요?

(예: 시간 부족/관심 및 이해 부족/경제적 어려움/정보 부족/사회적 편견/집단 내 갈등/정책·기구의 문제 등)

3-13. 그러한 불만 또는 장애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나요? 있다면 무엇인가요?

[참여 경험이 개인에게 갖는 의미]

3-14. 종합해볼 때, 해당 사회·정치 참여의 경험이 나에게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3-15.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야기 해주세요.

4. 청년 사회·정치 참여 경험(비참여 집단)

(☞ 사회·정치 참여 경험이 없는 응답자만)

[참여하지 않는 이유 및 계기]

1. 과거에 사회·정치 참여를 했던 경험이 있나요?
2. (☞과거 경험 있는 경우) 사회·정치 참여를 지속하지 않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있다면 무엇이었나요?
3. (☞과거 경험 없는 경우) 사회·정치 참여를 하지 않으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 시간 부족/관심 및 이해 부족/경제적 어려움/정보 부족/사회적 편견/참여할 사람의 부재/원하는 모임 부재/정부 및 국회, 공공기간에 대한 신뢰 부족/사회·정치 변화에 대한 회의감 등)

[현재 상황]

4. 현재 주요 관심사나 고민이 있나요? 있다면 무엇인가요?

(☞ 고민이 있는 응답자만)

4-1.그러한 고민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참여 경험이 개인에게 갖는 의미]

5. 사회·정치 참여의 경험이 나에게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6.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야기 해주세요.

5. 사회·정치 참여 의향

[향후 참여 의향 및 이유]

1. 앞으로 개인적 수준 또는 조직·단체적 수준에서 사회·정치 참여를 할 생각이 있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사회·정치 참여 의향이 있는 응답자만)

1-1. 어떠한 사회·정치 참여를 할 생각인가요? 그리고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인가요?

예: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뱃지, 팔찌, 리본, 스티커 등을 착용/부착(온·오프라인으로)서명에 참여하기/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항의 전화하기/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정치인이나 공무원(민원) 또는 언론기관에 접촉하기/사회·정치적 이유로 특정 상품을 불매하거나 구매하기/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기 위해 정당에 가입하거나 기부하기/청년참여기구(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의회 등) 활동하기
예: 시민사회 단체(NGO, NPO 등)/지역사회 모임(반상회, 주민협회 등)

[참여를 위한 필요조건]

2. 앞으로 자신의 사회·정치 참여를 위해 개인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나요? 있다면 무엇인가요?

6. 청년 참여 정책 인지도

[청년 참여 관련 법, 정책, 기구에 대한 인지도]

1. 청년 참여와 관련된 법, 정책, 기구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나요?

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 청년 관련법/지자체 청년기본조례/지자체 청년참여기구(예: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의회 등)/지자체 청년 참여활동 지원사업*/지자체 청년 참여 및 활동 공간** * 청년 참여활동 지원사업은 지자체에서 청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비 또는 공간을 지원하는 것, 교류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포함(예: 서울시 '놀자리', 대구시 '다모디라' 등). ** 청년 참여 및 활동 공간은 지자체에서 청년들이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장소들을 뜻함(예: 서울시 '무중력지대', 광주 'the 숲' 등).

(☞ 알고 있는 응답자만)

1-1. 해당 청년 참여 관련 법, 정책, 기구에 대하여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청년 참여 관련 법, 정책, 기구에 대한 인식]

2. 청년 참여 관련 법(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청년기본법, 지자체 청년기본조례 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 청년 참여 관련 정책(청년 참여활동 지원 사업, 청년 참여 및 활동 공간 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4. 청년 참여기구(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의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5. 그 외에 청년 사회·정치 참여 단체 및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8. 청년 참여 활성화 요인

[청년에게 참여의 의미]

1. 사회·정치 참여의 경험이 청년에게 갖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1.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야기 해주세요.
2. 청년의 사회·정치 참여를 위해 필요한 역량 및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2-1.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야기 해주세요.

[청년들의 참여 저해 요인]

3. 청년들이 사회·정치 참여를 기피한다는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하시나요?
3-1. 청년들이 사회·정치 참여를 기피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또는 청년들의 사회·정치 참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시간 부족/관심 및 이해 부족/경제적 어려움/정보 부족/사회적 편견/참여할 사람의 부재/원하는 모임 부재/정부 및 국회, 공공기간에 대한 신뢰 부족/사회·정치 변화에 대한 회의감 등)

 4.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야기 해주세요.

[청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욕구]

5. 청년들의 사회·정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어떠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예: 청년기본법* 제정 및 제도 활성화/청년정책 추진과정에서 청년들의 직접 참여 보장/청년정책 전담부처 구성/청년참여 공가(시설, 온라인 포털) 확대/청년참여 활동비 지원/청년참여 지원정책의 예산 확대/청년참여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청년들의 기본 고용과 주거 안정/청년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청년 할당제 도입(정당 비례대표, 지자체 위원회 등)/기타
>
> *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 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법률

5-1.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야기 해주세요.

※ 전체적으로 응답자의 반응에 따라 질문 순서 유동적 변경 가능.
소극적 응답자일 경우, 예시를 언급

Wrap-Up

1.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면접조사에서 말씀하지 못한 부분이 있거나 다루지 못한 내용 중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긴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ABSTRACT

A Study of Youth Socio-Economic Reality and Policy Direction Ⅳ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udy the key indicators for understanding the work and life of Korean youth and to derive policy directions and tasks from a mid and long-term perspective. In addition, this year's additional survey identified the social participation and political participation of young people through in-depth interviews and suggested implications.

The major categories of youth indicators for socio-economic reality in 2019 maintained the core indicators of the annual research, which included seven groups: population and family, education and training, economy and employment, housing, health, culture and values, relationships and participation. It was divided into the areas, and the actual reality of each key indicator was identified through the secondary data analysis on the statistical data published in addition to the main survey results. In addition, this year's additional survey analyzed the current situation and implications of the social and political participation of young people in an in-depth interview.

In addition, in order to analyze youth social and economic

fact-finding data on a variety of youth issues and issues, we conducted an in-depth analysis of the 2018 public data approved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e data on the survey on the current reality of youth social and economic were analyzed by analyzing three factors: the study of factors affecting the economic activity of the youth, the study of social participation of the youth, and the study of factors affecting the happiness of the youth generation. The academic and policy utilization was also improved.

Based on the social and economic status of young people this year, under the vision of 'The Future of Korea with Youth', policy suggestions were presented based on 16 policy tasks in five areas. First, housing and financial support to increase marriage rate in population, family and education sectors, survey of Korea's youth happiness index to improve quality of life, reinforcement of socially connected university employment support system that does not require postponement, and high school curriculum introduction and expansion, second, the adjustment of priorities for the resolution of employment crisis in the economic, employment and housing sectors, strengthening the support system for turnover and change of employment, the expansion and evaluation of the benefits of successful employment package projects, the shift of the housing policy paradigm for young people, third, strengthen psychological treatment and psychological emotional support for youth mental health in the fields of health, culture, and values, expand the screening rate for youth health checkups, build infrastructure for vulnerable youth culture and

leisure, and expand support for cultural and leisure activities for low-income youth. To build an online platform to promote youth participation in relations and participation, strengthen public relations to raise youth's interest in political and social issues, and fifth, enact basic laws to establish a legal foundation for youth policy and building an evaluation center for analysis.

How young people live in Korea is a concern for future generations and an important debate on the sustainability of our society. The issue of fertility rate and population decline, which is an issue dealing with the future prospects of our society, is also a matter of current youth. Youth problem and youth polic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opulation and family, education and training, economy and employment, housing, health, culture and values, relations and participation of young people in this study are the issues of youth and the future tasks of our society. It is necessary to approach.

Keywords: Youth, Core Indicators, Social and Economic Reality Survey, Social and Political Participation, Youth Policy

2019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19-R01 청소년 '일 경험' 제도 운영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II : 대학교 실습학기제를 중심으로 / 김승경·최정원·강정한

19-R02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IV / 김형주·연보라·유설희

19-R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IV - 전년도 공개데이터 심층분석보고서 / 김형주·연보라·유설희

19-R02-2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IV - 기초분석보고서 / 김형주·연보라·유설희

19-R03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II / 김경준·김정숙

19-R04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구축 방안 연구 / 강경균·성윤숙·김승보·장현진

19-R05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업사회공헌 사업과의 협업 추진 방안 연구 / 임지연·황세영·김도영

19-R06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청년정책 개선 방안 / 김지경·변금선·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19-R07 정보기술을 활용한 위기청소년 사회서비스 확충 방안 / 김지연·이경상·노법래

19-R08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전략연구 / 배상률·이정민

19-R09 미래지향적 청소년관련 법 정비 방안 / 김영한·서정아·권일남

19-R10 청소년지도자 양성시스템 재구축 방안 I : 청소년 활동분야 중심으로 / 최창욱·좌동훈·남화성·박정배

19-R1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VII / 오해섭·문호영·염유식

19-R1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9 - 총괄보고서 / 김영지·김희진·이민희·김진호

19-R1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9 - 심화분석보고서 / 강지영

19-R1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9 - 기초분석보고서 / 김영지·김희진

19-R13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정책 추진체계 구축방안 연구 I / 최인재·이윤주·송민경·조윤정

19-R14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X - 사업보고서 / 하형석·김성은·이용해

19-R14-1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X - 데이터분석보고서 / 김성은·김준엽

19-R15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9 - 총괄보고서 / 양계민·장윤선·정윤미

19-R15-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9 - 기초분석보고서 / 양계민·장윤선·정윤미

협동연구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59-01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II :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장근영·윤철경·서고운·이동훈 (자체번호 19-R1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59-02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II : 지역사회 지원 모델 개발을 위한 중소도시 지역 질적 연구 / 조아미·임정아·김남은 (자체번호 19-R16-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0-01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I : 학교 졸업예정자 / 김기헌·유민상·김창환·정지운 (자체번호 19-R1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0-02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I : 학교 졸업예정자-해외사례조사 / 김기헌·유민상(자체번호 19-R17-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1-01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I / 임희진·백혜정·김동식 (자체번호 19-R1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1-02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I - 학생 청소년의 건강불평등 실태 분석 / 김동진·정연·채수미 (자체번호 19-R18-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1-03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I - 기초분석보고서 / 임희진·백혜정 (자체번호 19-R18-2)

연구개발적립금

19-R52 청소년정책 재구조화 방안연구 / 김기헌·최정원·변금선·이종원·이민정·정지희

19-R21 청소년 참여 연구사업 운영을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역량 증진방안 연구 / 모상현

19-R21-1 청소년 참여 연구사업 운영을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역량 증진방안 연구 : 10대연구소 연구사업 운영보고 / 모상현·함세정

수 시 과 제

19-R53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연령조정 방안연구 / 이정민

19-R54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 김형주·이종원

19-R55 학교 밖 청소년 추정치 추계방안 연구 / 하형석·이종원·이정민

19-R56 2030 혁신리더 양성개발 및 평가 / 최정원·김현철·문호영·이윤주·박지숙·정은진

19-R57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역기관 연계 종합지원모델 개발 / 연보라·이윤주·김현철

수 탁 과 제

19-R19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성장기회격차 해소방안연구 : 통계구축방안을 중심으로 / 양계민·김지연·장윤선

19-R20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구축 방안 연구 :한국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지표 DB 구축 및 보고서 작성 / 유민상·이용해

19-R22 청소년 비즈쿨 지원사업 교육운영모형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강경균

19-R23 학교폭력 예방 또래활동 프로그램(초등학교) / 성윤숙·이혜정

19-R24 학교폭력 예방 또래활동 프로그램(중학교) / 성윤숙·이혜정

19-R25 학교폭력 예방 또래활동 프로그램(고등학교) / 성윤숙·이혜정

19-R26 2018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 성윤숙·김현수

19-R27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매뉴얼 / 성윤숙·장안서

19-R28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심층 프로그램 / 성윤숙·서정아·문호영·장안서

19-R29 2018 개정 학부모 어울림 프로그램 :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24종) / 성윤숙·김현수

19-R30 2015 개정교육과정을 반영한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 : 중학교 국어·도덕 · 사회 및 고등학교 국어 ·통합사회(5종) / 성윤숙·황세영·김성은·김현수

19-R31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개발(중등용) 및 프로그램(5종) / 황세[영·한지형

19-R32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김지연·서고운·김태완

19-R33 2019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김영지·임지연

19-R34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윤철경·최인재·김승경·김성은

19-R35 고양시 청소년재단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연구 / 김영한

19-R36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분석 연구 - 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심의자료 및 권고사항(국문) / 김영지·이윤주·유설희

19-R36-1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분석 연구 - 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심의자료 및 권고사항(영문) / 김영지·이윤주·유설희

19-R37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개선방안연구 / 양계민·장윤선

19-R38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 계획수립 연구용역 / 최창욱·좌동훈·문호영·남화성

19-R38-1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 계획 / 최창욱·좌동훈·문호영·남화성

19-R39 소년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실태분석 및 제고방안 / 김지연·정소연·김혁·이경상

19-R4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사전 연구 / 김지경·김균희

19-R41 청소년 보호법 체계 개선 방안 연구 / 김지경·장근영·고은아

19-R42 2019년 학교 시민교육 정책 네트워크 운영 / 배상률·장근영·이정민

19-R43 천안시 청소년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 / 최창욱·좌동훈·문호영·남화성·노자은

19-R43-1 천안시 청소년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 요약보고서 - 천안시 청소년재단 기본구상 및 중장기 계획 - / 최창욱·좌동훈·문호영·남화성·노자은

19-R44 중국 청소년의 한류 인식 및 수용 실태 연구 / 배상률·문수정·장수

19-R45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9 / 김희진·임희진·하형석·정윤미

19-R46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사업 평가지표 개발 연구 / 김지연·백혜정·류정희·이상정

19-R47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 방안 연구 / 강경균

19-R48 2019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연구 / 서정아·조아미

19-R49 지역사회 기반 직업계고 운영 활성화 방안 / 강경균

19-R50 고등교육 고비용부담 및 양극화 현상 진단과 대안 / 김기헌·김형주

19-R51 청년정책 체계성 강화 연구 / 변금선·김기헌·하형석·이용해

19-R58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개발(초등용) 및 프로그램(2종) / 황세영·김성은·김현수

19-R59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실태조사 연구 / 오해섭·박지영·이지혜·임하린

19-R60 홈스쿨링 도입 방안 연구 / 이종태·하태욱·차상진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19-S01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시범적용 결과 발표회 및 활용방안 워크숍(1.11)

19-S02 2019 학교폭력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워크숍(1.24)

19-S03 학교폭력예방교육 운영학교 우수사례집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1.31)

19-S04 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1차-초등학교)(2.12~13)

19-S05 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1차-중학교)(2.14~15)

19-S06 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1차-고등학교)(2.19~20)

19-S07 2019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꿈지락) 프로그램 워크숍 자료집(4.15~16)

19-S08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2.22)

19-S09 제13회 청소년정책포럼(3.6)

19-S10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2차) 초등학교(3.27~4.10)

19-S11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2차) 중학교(3.29~4.17)

19-S12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2차) 고등학교(3.29~4.17)

19-S13 제14회 청소년정책포럼(4.29)

19-S14 제15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토크콘서트 자료집(5.24)

19-S15 2019년 대안학교(각종학교 및 특성화 중·고교) 관리자 협의회(6.4)

19-S16 2019년 대안학교(각종학교 및 특성화 중·고교) 담당자 연수(6.5)

19-S17 제20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6.10)

19-S18 제15회 청소년정책포럼(6.14)

19-S1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개원 3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6.18)

19-S20 제16회 청소년정책포럼(7.26)

19-S21 제17회 청소년정책포럼(8.28)

19-S22 제21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8.14)

19-S23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당 워크숍(8.13~14)

19-S24 2019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관리자 연수(8.22)

19-S25 2019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담당자 연수(8.23)

19-S26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시도교육청 협의체 워크숍(8.26)

19-S27 제18회 청소년정책포럼:청소년지도사 양성체계 및 처우개선 방안 제1차 재구조화 포럼(9.19)

19-S28 제22회 청소년정책포럼: 2019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 포럼(10.25)

19-S29 제19회 청소년정책포럼: 미래지향적 청소년관련 법 정비 방안(9.26)

19-S30 제20회 청소년정책포럼(9.27)

19-S31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방안 포럼(9.26)

19-S32 제22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잠재프로파일 분석의 이론과 실제)(9.27)

19-S33 제23회 청소년정책포럼: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성장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지역자원 연계 방안(11.7)

19-S34 제24회 청소년정책포럼:청소년 주도적 참여기반 확대 및 활성화 방안(11.19)

19-S35 제23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 협력 추진 방안(11.12)

19-S36 제8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11.15)

19-S37 제21회 청소년정책포럼:2019 전국청소년 지표조사 결과 발표 및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10.1)

19-S38 제25회 청소년정책포럼:청소년을 위한 NPO-기업 사회공헌사업의 협업추진 방안(12.6)

19-S39 제24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정책평가를 위한 이중차분법의 활용:이중차분법의 이해와 한국아동청소년패널 데이터 이용 사례(12.2)

19-S40 제26회 청소년정책포럼: 한국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현황 및 전망(12.12)

19-S41 제27회 청소년정책포럼: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방안 포럼- 해외사례를 통한 국내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12.12)

19-S42 고교학점제와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 자원의 연계방안 모색을 위한 포험(12.16)

19-S43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교육청 공동 세미나: 서울 학교 밖 청소년 실태와 정책 진단, 그리고 미래(10.8)

학 술 지

「한국청소년연구」 제30권 제1호(통권 제92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0권 제2호(통권 제93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0권 제3호(통권 제94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0권 제4호(통권 제95호)

기타 발간물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3호 :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4호 : 제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청소년활동정책 전략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5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 I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6호 : 위기청소년 교육적 선도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7호 : 청소년을 위한 NPO-기업 사회공헌사업(CSR) 간 협업추진을 위한 '협업지침'과'중추지원조직 기능·추진사항'개발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8호 : 미래지향적「청소년복지 지원법」정비 방안

NYPI Bluenote 통계 46호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V

NYPI Bluenote 통계 47호 :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 : 청년 니트(NEET)

NYPI Bluenote 통계 48호 : 부모 특성과 아동·청소년 발달의 관계

연구보고 19-R02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Ⅳ

인 쇄 2019년 12월 23일
발 행 2019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송 병 국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아르빛 전화 044)863-0933 대표 유채란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226-1 94330
979-11-5654-225-4 (세트)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연구보고 19-R02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Ⅳ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www.nypi.re.kr

9 791156 542261 94330
ISBN 979-11-5654-226-1 94330
ISBN 979-11-5654-225-4 (세트)